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미국 · 중국 · 러시아 · EU · 일본 간 격화하는
패권쟁투 배후의 요인들

좌익 분석 비판과 맑스주의적 관점



미하엘 프리브스팅 지음

노동자혁명당(준) 옮김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발행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미국 · 중국 · 러시아 · EU · 일본 간 격화하는
패권쟁투 배후의 요인들

좌익 분석 비판과 맑스주의적 관점



미하엘 프리브스팅 지음
노동자혁명당(준) 옮김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발행

노동자계급 해방투쟁과 혁명적 세계당 건설에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발행

Web: www.thecommunists.net

Email: rcit@thecommunists.net

Phone: +43 (0)650 406 83 14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나이지리아, 잠비아, 케냐, 파키스탄, 스리랑카, 예멘, 이스라엘/점령지 팔레스타인, 브라질, 멕시코,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남한에 지부와 활동가들이 있다. 또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터키에 자매관계에 있는 조직들이 있다.

©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endency (RCIT)
and Michael Pröbsting

초판 2019년

ISBN 978-3-200-06168-2

차례

한국어판에 붙이는 저자 서문 15p

표 목록 20p

그림 목록 22p

머리말 25p

1부: 21세기 제국주의의 특징 31p

1장. 역사적인 자본주의 위기 33p

2장.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가 공격의 글로벌한 성격 46p

3장. 자본주의와 이주·이민의 연관성 증대 54p

4장.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한 맑스주의적 기준 65p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 국가를 가르는 핵심 기준

반식민지 국가에서 제국주의 국가로의 이행이 가능한가? 또 그 역은?

“아(亞)제국주의” — 유용한 범주인가?

5장. 중국 · 러시아: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 84p

- 생산과 무역
- 독점체와 억만장자들
- 자본수출과 군사비 지출

6장. 제국주의 간 패권쟁투 격화와 세계무역전쟁 100p

- 신 냉전의 시작
- 천하(天下) - 중국의 이데올로기적 도전
- 보호주의와 군사주의
- 남반구 지배를 위한 제국주의 드라이브
- 제국주의 내부 모순의 주요 축으로서 미 · 중 간 패권쟁투

7장. 제국주의 대국들: 몇 가지 역사적 비교 126p

- 불균등 · 결합 발전 법칙
- 1939년 이전 강대국들 간의 불균등성에 관한 몇 가지 역사적 사례
- 1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의 세계화와 강대국 패권쟁투
- “살찐 소”와 “야윈 소”

2부 : 현 시기 강대국 패권쟁투에 대한 수정주의 이론들 149p

8장. 수정주의적 축소은폐: 스탈린주의자 · 볼리바르주의자의 중국 “사회주의” 예찬 151p

- 중국은 자본주의적 기적의 독특한 사례인가?
- 러시아 스탈린주의 당들: 자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부정
- 초(超)스탈린주의 CPGB(ML): “반제국주의” 러시아 · 중국?

9장. 수정주의적 축소은폐: 러시아 · 중국은 자본주의도, 강대국도 아니다 (PO/CRFI) 174p

- 러시아 · 중국은 여전히 자본주의가 아니다?
-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과 스탈린주의적 위조
- 러시아 · 중국의 자본수출: 신화와 현실
- 중국 대외투자의 성격에 대하여
- 중국 · 러시아의 국유 기업: 자본주의적 기업이 아니다?
- 이주 · 이민의 역할

10장. 수정주의적 축소은폐: 중국 · 러시아는 강대국이 아니라 반식민지다? (LIT/UIT/FT) 215p

- LIT : 중국을 브라질이나 인도나 멕시코와 비교할 수 있는가?
- UIT : 중국은 제국주의에 의해 초과착취 당하고 있다?
- FT : 본격적인 전쟁 없이 러시아 · 중국이 제국주의 국가가 될 수는 없다?

11장. 수정주의적 축소은폐: “제국주의” 범주가 아무 의미도 가지지 않는 경우 (CWI/IMT/ IST) 231p

- CWI : 러시아나 중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에 관해 “잊어버리기”?
- IMT : 순 형식적으로 러시아 · 중국을 강대국으로 인정하기
- SWP : 이론적 무관심

3부 : 모든 강대국에 반대하는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 241p

12장. 3차 세계대전은 불가피한가? (마이클 로버츠에 관한 비판적 노트) 242p

- 인구 증가와 장기 경기상승
- 장기 경기상승의 조건은 무엇인가?
- 카우츠키주의 요소

13장. 국제적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 257p

- 국제주의와 민족해방
- 귀족성과 노동귀족에 대하여

14장.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의 국제주의적 성격과 스탈린주의적 “일국 사회주의”론의 사회애국주의적 성격 268p

15장.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라는 격언의 의미 279p

16장. 결합 전략으로서의 혁명적 패전주의 285p

- 반제국주의의 객관적 기초로서 제국주의의 모순적 성격
- 결합 전략에 관한 맑스주의 고전

17장. 전쟁과 혁명의 관계 301p

- “작은” 제국주의 전쟁과 “큰” 제국주의 전쟁
- 3차 세계대전과 혁명 - 그 자체로 모순?

18장. 제국주의 국가 간의 분쟁에서 혁명적 패전주의: 맑스주의 고전 310p

- 제국주의 시대 이전의 맑스·엔겔스
- 볼셰비키와 1904/05년 러일전쟁
- 1914~17년 1차 세계대전에서 레닌의 패전주의 강령의 완전한 정립
- 러시아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볼셰비키의 선동
- 트로츠키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하는 혁명적 투쟁을 이어가다

19장. 제국주의 국가 간의 분쟁에서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적 구성부분 (1)
329p

- 노동자계급 독자성을 위하여 - 어느 강대국도 지지해선 안 된다!
- 배외주의와의 투쟁
- 조건의 변화와 그 결과들
- 서방 제국주의 나라들에서의 모럴 위기

20장. 제국주의 국가 간의 분쟁에서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적 구성부분 (2)
348p

- 한 강대국의 다른 강대국에 대한 제재 문제
- 세계무역전쟁과 국제주의적 전술
- 강대국들 간의 전쟁, 그리고 그들 대리인들을 포함한 전쟁
- (제국주의적) 해악이 “덜한” 쪽을 편들어야 한다?
- 평화주의의 빈곤
- 군축 슬로건
- 국제중재재판소와 유엔

21장. 제국주의 국가와 피억압 인민 간의 분쟁에서 혁명적 패전주의 377p

- 제국주의 전쟁과 반식민지 나라의 점령
- 반식민지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의 비(非)군사적 공격
- 민족 소수자에 대한 억압
- 대중투쟁 전술
- 복합적 전쟁 시나리오에 관하여

22장. 혁명적 패전주의와 이주자의 완전한 평등을 위한 투쟁 397p

4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좌익의 실패 405p

23장. 강대국 패권쟁투에 직면한 좌익: 친 서방 사회제국주의자들 407p

- 총괄적 서론
- 유럽좌파당 (PEL)
- 이슬람 혐오주의는 21세기의 새로운 반유대주의다
- 일본공산당
- 일공: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대안 전략을 조언해준다

24장. 강대국 패권쟁투에 직면한 좌익: 친 중 · 러 사회제국주의자들 (스탈린주의자들) 430p

- “공산당 · 노동당 국제회의”를 중심으로 한 스탈린주의 연합
- 스탈린주의와 시리아에서의 반혁명
- 러시아 사회제국주의 당들: KPRF, RKRP, OKP
- “그리스 주권적 권리의 방어”: 부르주아 사회배외주의의 한 예로서 스탈린주의 KKE
- 스탈린주의자들이 코소보 알바니아인을 적으로 하여 세르비아 배외주의를 응원하다
- 초 스탈린주의 CPGB-ML: 러 · 중 제국주의의 충성스런 치어리더
- “평화주의적” 사회제국주의자들과 “호전적” 사회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약간의 논평

25장. 강대국 패권쟁투에 직면한 좌익: 친 중 · 러 사회제국주의자들 (비 스탈린주의자들) 470p

- 보리스 카갈리츠키와 <라브코르>: 모스크바의 이익을 위해 “피와 철”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대러시아 “맑스주의자들”

- 친 러 · 중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 (PO/CRFI)
- 스파르타시스트 종파들과 중국 “기형화된 노동자국가” 방어

26장. 전도된 사회제국주의에 대하여 487p

- 친 러 · 중 사회제국주의자들의 “반제국주의” 호소력?
- 전도된 사회제국주의 - 계급협조의 변주
- 전도된 사회배외주의자들은 본격 전쟁 시에 무엇을 할 것인가?

27장. 강대국 패권쟁투에 직면한 좌익: 러 · 중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하지만 결론을 끌어내지는 않는 조직들 502p

28장. 강대국 패권쟁투에 직면한 좌익: 절충주의적 사회평화주의자들 508p

- CWI/IMT: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반식민지 나라들을 방어하길 거부하다
- “체첸 분리주의”를 지지해선 안 된다는 IMT 러시아
- 레닌은 자신의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을 “정정”했는가?
- 러시아사회주의운동(RSM): 뒤죽박죽 절충주의자들

5부: 반제국주의 투쟁을 조직하는 임무 531p

29장.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혁명적 세계당 건설 533p

- 혁명적 세계당 건설 조건의 변화

- 새로운 전투적 노동자계급 · 청년층을 향하여
- 방해물로서의 개량주의 · 중도주의

부록 :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 551p

참고문헌 569p

저자 소개 627p

한국어판에 붙이는 저자 서문

강대국 패권쟁투에 관한 우리 책의 한국어판 출간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1년여 전에 영어로 처음 출판된 이 책이 얼마 전 포르투갈어에 이어 이제 한국어로도 나왔습니다.

한반도의 사회주의자들에게 강대국 패권쟁투 문제가 왜 매우 긴박한 주제인지 설명하는 데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는 말 그대로 세계 5대 열강 중 네 강대국 -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 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패권쟁투 격화는 한반도 인민에게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글로벌 3중 위기 사태는 의심할 바 없이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적대를 더 한층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대공황 — 즉 1929년 이후 자본주의 세계경제 최악의 침체 — 과 배외주의적인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 세계적인 전환,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3중 재난 속에서 전 세계의 제국주의 지배계급들은 서로 상대방을 희생시켜 자신을 강화하기로 작정했습니다.¹⁾ 코로나19 위기를 배경으로 미·중 간에 배외주의적 공방 (“중국 바이러스”라는 인종주의적 비방, 미군이 우한에서의 바이러스 발병에 책임이 있다는 중국군의

1) Michael Pröbsting: The COVID-19 Global Counterrevolution: What It Is and How to Fight It, A Marxist analysis and strategy for the revolutionary struggle,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추측 논평, 금전적 보상 요구 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의 양상은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패권쟁투가 오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세계정치의 특징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 패권쟁투 문제가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에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언급되긴 했지만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 자신이 2000년대에 제국주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RCIT 한국 동지들이 강조해왔듯이 – 그리고 필자도 이 문제에 관해 쓴 팸플릿²⁾에서 밝혔듯이 – 한국의 자본가계급은 전통적인 반(半)식민지 지위를 극복하고 독점 부르주아지로 발돋움할 정도로 자신을 강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고 남반구 반식민지 나라들(이른바 “제3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적 초과착취에 참가하게 된 것도 거기서 비롯합니다.

한국이 제국주의 국가 반열에 오른 것의 정치적 표현이 2019년 여름 시작된 일본과의 무역전쟁입니다.³⁾

2) Michael Pröbsting: South Korea as an Imperialist Power, On the nature of South Korean monopoly capital and the ensuing programmatic tasks of the workers vanguard, Dec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tudy-on-south-korea-as-an-imperialist-power/>;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남한, 한국 독점자본의 성격과 그에 따른 노동자 전위의 강령적 임무” 2019년 12월,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FA%B5%AD%EC%96%B4/south-korea-as-an-imperialist-power/>]

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Down with the Imperialist Trade War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Down with all chauvinist boycott campaigns! Class War instead of Trade War! Joint Statement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s of South Korea and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endency (RCIT), 19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trade-war-between-japan-and-south-korea/>; [“한·일 제국주의 무역전쟁 분쇄! 모든 배외주의·민족주의 보이콧 캠페인 반대! 무역전쟁이 아니라 계급전쟁으로 나아가자!” 남한 혁명적 공산주의자 ·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공동성명, 2019년 7월 19일,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FA%B5%AD%EC%96%B4/trade-war-between-japan-and-south-korea/>]

그 사건은 이 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에 제시된 근본적인 강령적 결론이 5대 강대국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보다 작은 제국주의 국가들에게도 매우 적실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결론은 한국의 혁명가들이 ‘자’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에게 어떠한 지지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충돌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독일 공산주의자 칼 리프크네히트의 오랜 금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주적은 국내에 있다.” 다른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유효한 맑스주의적 원칙이 한국에도 유효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국내 독점 부르주아지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어떠한 영합도 결국은 사회배외주의에 다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의 분석이 한국의 맑스주의자들에게 적실성을 갖게 해주는 또 다른 쟁점이 있습니다. 1950-53년의 파멸적인 전쟁 이래로 한반도가 두 국가로 분단되면서 사회주의자들은 한·미 지배계급과 북한 간의 장기간에 걸친 대립·충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스탈린주의 정권이 자본주의 복고를 실시하여 북한은 가난한 반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맑스주의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여타 제국주의 열강의 도발·침략에 대항하여 북한을 방어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또 혁명가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고 전쟁 시에 북한의 적의 군사적 패배를 요구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방어는 평양의 관료제 국가자본주의 독재에 대한 단호한 반대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술은 한반도의 혁명적 통일 및 남한 부르주아지와 북한 스탈린주의-자본가 지배계급의 타도 투쟁을 위한 전략의 일부분입니다.

이 책의 분석과 결론이 한국의 사회주의 활동가들 사이에서 결실 있는 토론을 촉진하고 고무하면 좋겠다는 우리의 희망을 표하는 것으로 이 간략한 서문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스탈린주의 “민족해방” 조류의 강력한 영향으로 인해 좌파의 상당 부문들이 한국이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생각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한국을 미국과 일본에 의해 억압·착취 받는 반식민지 (또는 신식민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입장이 가져오는 위험한 결과는 –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보듯이 – 그러한 좌파들이 ‘반일’/‘반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한국 독점 부르주아지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풀이해서 강조해왔듯이, 실천적으로 이러한 접근법은 사회제국주의에 다름 아닙니다.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배반자적 입장과 단절하고 단호한 국제주의적·반제국주의적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 지면을 빌어, 이미 남한 제국주의와 강대국 패권쟁투 문제에 대한 시론을 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준 홍수천 동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⁴⁾

2020년 4월 30일

Michael Pröbsting

4) 홍수천 : 현 시기 격화하고 있는 제국주의 패권쟁투와 사회주의자의 임무 (Hong Su-Cheon: The Acceleration of the Great Power Rivalry in the Present Period and the Task of Socialists in Korea, Article in Korean language, March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struggle-for-imperialist-hegemony-socialism/> 홍수천: 한반도 전쟁 위기와 미·중 제국주의 패권 쟁투 (Hong Su-Cheon: W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ivalry between US and Chinese Imperialism, Article in Korean language, Spring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risis-on-korean-peninsula-us-and-chinese-imperialism/>;

표 목록

- 표 1. 글로벌 GDP 추이, 1960-2010년 (절대치 및 연 평균 성장률)
- 표 2. 산업 성장률, 1879-2914년 (%)
- 표 3. 세계 생산량 성장률 추이: 연평균 백분율 변화 2001-2017년
(2005년 달러 기준 GDP)
- 표 4. 지역별 제조업 점유율, 1985년과 2015년
- 표 5. 나라별 세계 상품수출 점유율, 1953-2017년 (백분율)
- 표 6. 나라별 세계 상품수입 점유율, 1953-2017년 (백분율)
- 표 7. 세계 2000대 기업의 나라별 분포, 2003년과 2017년 (Forbes Global 2000 List)
- 표 8. 세계 상위 5000대 기업의 지역별 분포 2000년과 2016년
- 표 9. 나라별 리치(Rich) 및 슈퍼리치 수, 2018년
- 표 10. 나라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출, 2017년 (단위는 미화 백만 달러)
- 표 11. 나라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출 잔액, 2017년 (단위는 미화 백만 달러)
- 표 12. 세계 핵 무력, 2018년
- 표 13.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2016년
- 표 14. 경제: 1985 - 2018년 사이에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
- 표 15. 중국의 증대되는 글로벌 비중, 2000년 대 2015년
- 표 16. 1913년에 인구나 국내총생산(GDP)
- 표 17. 1913년에 제국주의 열강의 1인당 GDP (A열) 및 공업화 수준 (B열) 비교
- 표 18. 1913년 산업생산 및 무역과 자본수출에서 강대국들의 점유율

- 표 19. 1914년 미국의 외국인투자 관계 (달러)
- 표 20. 독일과 영국: 순자본 형성 총액 대비 해외투자 (백분율)
- 표 21. 1914년 순 해외자산 (GDP 대비 백분율)
- 표 22. 1938년에 해외 투자된 자본의 총 명목 가치 (당시 환율로 미화 백만 달러)
- 표 23. 영국과 독일 각각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들, 1890-1913년 (평균 백분율)
- 표 24. 1914년 유럽의 평균 관세율
- 표 25. 중국의 FDI (단위: 백만 달러), 2000-2017년
- 표 26. 10년 단위 세계 총인구, 1950-2050년 (미래는 예측치)
- 표 27. 세계 및 각 지역 숙련별 고용율, 2013년

그림 목록

- 그림 1. 실질 1인당 GDP 성장률, 1961-2015년
- 그림 2. 글로벌 생산량과 세계무역, 1870-2016년 (왼쪽 숫자는 %)
- 그림 3. 총 근로시간 수 추이 (1993년에서 2014년까지)
- 그림 4. 세계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변동, 1980-2015년
- 그림 5. 세계 이윤율, 그리고 중심부 나라와 주변부 나라에서의 평균이윤율 (1869-2010년)
- 그림 6. 감소하는 노동 소득분배율
- 그림 7. 선별 G20 나라들의 조정 노동 소득과 미조정 노동 소득, 1991-2011년
- 그림 8. 조정 노동 소득분배율 추이 (백분율)
- 그림 9. 최대 경제국들에서 감소하는 노동 소득
- 그림 10. 발전도상국들에서 감소하는 노동 소득
- 그림 11. 노동 소득 추이와 숙련 별 노동인력 구성 (백분율)
- 그림 12. 숙련 집단 별(노동자들의 교육 수준으로 구분한) 임금 소득, 1995- 2009년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한, 터키)
- 그림 13. 전 세계 상위 1% 소득분배율, 1980 - 2016년
- 그림 14. 2013년 외국 태생 인구와 외국인 시민 인구 비율 (%)
- 그림 15. 세계 산업생산, 미국 · 서유럽 · 중국 1970-2015년 (현재 가격)
- 그림 16. 미 · 중의 세계무역 점유율, 2001-2016년
- 그림 17. 연구개발비 지출 상위 10개국, 2000-2015년

- 그림 18. 보호주의 조치가 세계무역을 지배하며 왜곡시키고 있다
- 그림 19. 세계 GDP의 백분율로서의 세계무역, 1960-2016년
- 그림 20. 주요 무기 이동 동향, 1950 - 2017년
- 그림 21. 세계 군사비 지출, 1988 - 2017년
- 그림 22. 신흥시장: 투자자 계급으로서의 외국인투자자들, 2004-12년
- 그림 23. 중국의 소득 분배율, 1978-2015년
- 그림 24. 중국과 동아시아 인접국들의 일인당 GDP 1960-2011년
- 그림 25. 중국과 동아시아의 장기 경제성장 추이, 1870-2020년
- 그림 26. 한국의 실질 일인당 GDP, 1960-2011년
- 그림 27. 러시아의 GDP 각 부문 기여도 (미화 10억 달러)
- 그림 28. 러시아의 소득분배율, 1905-2015년
- 그림 29.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수익, (선별된 나라들),
2000년 1분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단위: 10억 달러)
- 그림 30. 세계 상품수출 점유율 1948 - 2017년 (%)
- 그림 31. 세계 및 주요 지역의 연 평균 인구 변동 (%), 1970-2050년
- 그림 32. 지역별 15-64세 인구 백분율, 1970-2030년
- 그림 33. 글로벌 FDI (GDP 대비 %), 1880-2000년
- 그림 34. 세계 GDP에서 세계 수출 점유율, 1820 - 2013년

머리말

우리 시대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미국, 중국, EU, 러시아, 일본 등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에 가속화하고 있는 패권쟁투다. 따라서 이들 강대국 간의 외교마찰, 경제제재, 무역전쟁, 군사적 긴장, 그리고 중국에는 본격 전쟁이 우리 앞에 놓인 역사적 시기의 두드러진 특징들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세계무역전쟁,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 서방과 러시아 간의 경제제재 등 이 모든 것들은 강대국 패권쟁투 문제의 긴박한 현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태 전개는 피억압 인민들에 대한 강대국들의 공격이 증대하고 있는 것 -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 하에 2001년 이래 대대적으로 격화하고 있는 현상 - 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항상 제국주의 세계체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왔다. 현 시대를 설명하는 맑스주의적 이론에 대한 이해 없이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식할 수 없다. 이는 구 제국주의 세계 질서를 장기간 주도해 온 기존 대국들 (패권국 미국과 그 동맹국 EU·일본)에 도전하는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 - 중국과 러시아 - 의 등장으로 특히 긴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자본주의의 주된 모순에 대한 올바른 이론적 이해는 사회주의자들이 명확한 반제국주의 태도를 취하기 - 오늘날 맑스주의자에게, 특히 제국주의 야수의 심장부에서 활동하는 맑스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 - 위한 필수적 전제다.

제국주의 나라들 그 내에서의 이러한 맑스주의적 반제국주의 투쟁 강령은 *패전주의*로, 또는 보다 정확하게 *혁명적 패전주의*로 알려져 왔다. 이 강령은, 그것을 단순한 정식으로 요약하자면, 제국주의 강대국 일체에 대해 어떤 종류의 지지하기도 거부하는 것,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항하는 모든 해방투쟁을 지지하는 것,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계급투쟁을 촉진하여 제국주의 지배계급을 패퇴시키기 위해 모든 난국과 위기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조직,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최근에 이 문제에 관한 주요 문서를 발표했다.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 이 강령적 문서는 여기에 부록으로 실려 있다.⁵⁾

본서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제국주의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 우리의 주제, 즉 강대국들 간 패권쟁투와 관련된 특징들을 다룬다. 따라서 본서는 제국주의의 모든 측면을 다 다루는 포괄적인 분석이 아니고 그 중 일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RCIT의 다른 책들과 팸플릿에서 오늘날 제국주의의 수많은 쟁점들을 다룬 바 있기 때문이다.⁶⁾

2부에서는 강대국 패권쟁투에 대해 여러 좌익 당들 및 조직들이 내놓은 분석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입장에 대한 비판을 통해 우리의 주장을 방어하고 정교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역사적 사실들과 함께 현재의 사실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들 좌익 조직들의 논리를 레닌과 트로츠키가 정립해 온 바의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이론과 비교하고 있다.

3부에서는 패전주의 강령의 핵심 구성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강대국 간 분

5)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에서도 이 문서를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ses-on-revolutionarydefeatism-in-imperialist-states/>

6) 이들 쟁점에 관한 RCIT 참고문헌은 이 책의 관련 장들을 보라.

쟁 문제,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 나라 간 분쟁 문제, 그리고 민족 소수자와 이주자 문제가 그것이다. 이 주제에 관해 맑스주의 고전이 어떻게 이야기했고, 왜 그것이 오늘에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레닌과 트로츠키의 시대 이후 어떠한 정치적·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패전주의 강령에 어떠한 결과를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4부에서는 반제국주의 투쟁 문제에 관한 좌익 조직들의 태도와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도 우리는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그들의 입장을 비판하는 한편, 많은 사례를 통해 우리의 논거를 정립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세력들이 반제국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자처하지만 실은 어느 한 강대국 진영을 편들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그들은 반제국주의자가 아니라, 공공연한 또는 은폐된 사회제국주의자다.

결론으로, 본서는 제국주의적 전쟁과 공격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맑스주의자의 임무에 대해 총괄 요약하는 것으로 맺고 있다.

끝으로 “경고”: 본서는 “중립적” 관점에서 쓰지 않았다. 강대국 간 격화하는 패권쟁투와 피억압 인민들에 대한 제국주의 공격에 대해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는 입장일 수가 없다. 본서는 모든 강대국에 반대하는, 그리고 노동자·피억압자의 모든 해방투쟁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우리가 볼 때 그러한 반제국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좌익 조직들을 겨냥한 논쟁서다. 그리하여 이 저작은 상업적 성공을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반제국주의 활동가들을 위한 지침서로 쓴 것이다. 이미 시장에 수많은 베스트셀러가 있지만, 필요한 것은 진정한 맑스주의 문헌이다! 레닌은 “혁명적 이론 없이 혁명적 운동은 있을 수 없다”고 자주 말했다.⁷⁾ 이 본질적인

7) V. I. Lenin: What Is To Be Done? [“무엇을 할 것인가?”] (1902), in: LCW Vol. 5, p. 369. 맑스,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와 그리고 그 밖의 맑스주의 고전들이 다음의 맑스주의 인터넷 문서보관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

진리는 그 중요성을 잃지 않았다.

우리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이해하기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이는 상당히 최근에 나타난 현상들 (예를 들어 중국·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으로의 부상과 같은)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낡은 정식, 즉 미국, 서유럽, 일본만이 제국주의 국가라는 생각을 고수하길 더 좋아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성’은 아주 위험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난 10년 간 세계정치의 중대한 변화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 분석을 객관적 사태 발전에 발맞춰 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트로츠키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지금도 완전히 유효하다.

“올바른 이론적 방향 설정이 얼마나 실천적으로 중요한지는 급격한 정치 변동들이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충돌하는 시기, 갑작스런 상황 변화의 시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러한 시기에는 정치적 개념과 일반화가 급격히 낡아버려 완전한 대체물 (이것은 보다 쉽다)이 요구되거나, 아니면 그것들의 구체화나 정밀화나 부분적 교정 (이것은 보다 어렵다)이 요구된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온갖 종류의 과도기적, 중간적 상황, 조합들이 필연적으로 생겨나는데, 그것들은 관습적인 패턴을 뒤엎고 두 배로 지속적인 이론적 주의를 요한다. 한 마디로, (전쟁 이전의) 평화적이고 "유기적"인 시기에는 몇몇 기성의 추상적 개념들에 아직 기대어 살아나갈 수 있었다면, 우리 시대에는 매 새로운 사건이 변증법의 가장 중요한 법칙을 거부할 수 없이 되새기게 한다. 진리는 언제나 구체적이다.”⁸⁾

이 책이 강대국들 간 가속화하는 패권쟁투와 관련한 복잡한 이론적·전술적

다. www.marxists.org (이 사이트는 맑스주의에 관심 있는 누구에게도 매우 가치 있는 문서고다).

8) Leon Trotsky: Bonapartism and Fascism (July 1934), in: Trotsky Writings 1934-35, p. 35

쟁점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활동가들을 비롯하여 이들 쟁점을 이해하는 데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보다 전면적인 이해에 이르고 이로부터 필요한 결론을 끌어내는 데 이 책이 도와준다면, 그 목적을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RCIT의 여러 동지들과 가졌던 집단적 토론에 많이 힘입었다. 특히 니나 귀니치 동지에게 나의 고마움을 전한다. 나는 운 좋게도 그와 수 년 간 아이디어와 논거를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는 우리 이론의 강령적 틀을 정립하는 데서 중심 역할을 했다. 저술 내용에 대해 많은 의견과 함께 러시아어 자료 번역에 도움을 준 페트르 세도프 동지에게도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1부 : 21세기 제국주의의 특징

1장. 역사적인 자본주의 위기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격화하고 있는 국가 간, 계급 간 모순은 오직 더 넓은 역사적 맥락, 즉 자본주의 체제의 쇠퇴라는 맥락 속에 집어넣고 볼 때만 이해될 수 있다. 이 자본주의의 쇠퇴는 모든 자본주의 나라의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노동자 계급·피억압민에 대한 공격과 각국 지배계급들 서로 간의 공격을 강화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역사적인 자본주의 위기의 시기에 모든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계급들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공격의 고삐를 죄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 i)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의 강화
- ii) 이들 나라의 이주자에 대한 억압 및 초과착취의 강화
- iii) 반(半)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억압 및 초과착취의 강화
- iv) “테러와의 전쟁” 같은 위선적인 구호 하에 반식민지 세계에 대한 군사 개입 및 침략 전쟁의 강화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 v) 경쟁국에 대한 경제제재와 무역전쟁의 사용 증가
- vi) 경쟁국을 겨냥한 군비 및 군국주의적 선전의 강화 (미국·일본 대 중국, 미국·EU 대 러시아 등등)

다음 장들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여러 사례와 수치들을 통해 예시해보겠다. 먼저 최근에 강대국들 간 패권쟁투가 가속화하는 배경을 간단히 개괄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세계정세는 생산력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간 모순의 심화

로 특징지어진다. 그 결과, 우리는 1970년대 이래 계속되는 정체(停滯) 경향을 경험해왔다. 이 정체 경향은 2008년에 새로운 역사 시기가 시작한 이후 전면적인 쇠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자본주의 쇠퇴·쇠퇴는 극적인 기후 위기와 그로 인한 환경 재앙, 빈곤 증대, 세계 산업생산 하락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글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공식 부르주아 기관들에서 나온 몇몇 표와 그림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한하겠다.⁹⁾

〈그림 1〉은 1인당 세계 생산 성장률의 장기적 하락 추세를 보여준다. 표 1과 2, 그림 2는 UN 자료인데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 연간 세계 생산 성장률이 연속 하락하고 있다. +5.84% (1960 - 70년), +4.09% (1970 - 80년), +3.46% (1980 - 1990년), +3.04% (1990 - 2000년) +2.66% (2000 - 10년). 표 2도 거의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성장률이 2007년 이후부터는 그 전에 비해 명백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표 3도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 한 해(2010년)를 제외하고는 성장률이 이전 주기 평균 성장률에 비해 꽤 낮

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atastrophic Failure of the Theory of “Catastrophism”. On the Marxist Theory of Capitalist Breakdown and its Misinterpretation by the Partido Obrero (Argentina) and its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Refoundation of the Fourth International”, RCIT Pamphlet, Ma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atastrophic-failure-of-the-theory-of-catastrophism/>; RCIT: Advancing Counterrevolution and Acceleration of Class Contradictions Mark the Opening of a New Political Phase.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January 2016), Chapter II and III,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6,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6/>; Michael Pröbsting: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RCIT Books, Vienna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8/>;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Michael Pröbsting: Imperialism, Globalization and the Decline of Capitalism (2008), in: Richard Brenner, Michael Pröbsting, Keith Spencer: The Credit Crunch— A Marxist Analysis, London 200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and-globalization/>. [국역: “제국주의와 쇠퇴하는 자본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imperialism-and-decline-of-capitalism/>]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글로벌 GDP 추이, 1960-2010년 (절대치 및 연 평균 성장률)¹⁰⁾

Global GDP 절대치	연평균 성장률 (5년 주기)	연평균 성장률 (10년 주기)
1960년 : 7조2790억		
1965 : 9조4200억	1960 - 1965: +5.88%	
1970 : 12조1530억	1965 - 1970: +5.80%	1960 - 1970: +5.84%
1975 : 14조5980억	1970 - 1975: +4.02%	
1980 : 17조6520억	1975 - 1980: +4.18%	1970 - 1980: +4.09%
1985 : 20조2750억	1980 - 1985: +2.97%	
1990 : 24조2840억	1985 - 1990: +3.95%	1980 - 1990: +3.46%
1995 : 27조2470억	1990 - 1995: +2.44%	
2000 : 32조2130억	1995 - 2000: +3.64%	1990 - 2000: +3.04%
2005 : 36조9260억	2000 - 2005: +2.93%	
2010 : 41조3650억	2005 - 2010: +2.40%	2000 - 2010: +2.66%

*범례 : GDP 수치는 2000년 기준 미화 달러. 성장 수치는 5년 주기의 각 평균치
다 (우리의 계산).*

10) Deepak Nayyar: The South in the World Economy: Past, Present and Future,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Occasional Paper 2013/01, p. 6

그림 1. 실질 1인당 GDP 성장률, 1961-2015년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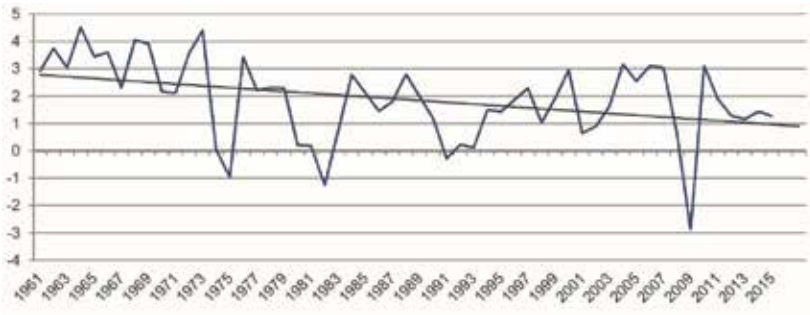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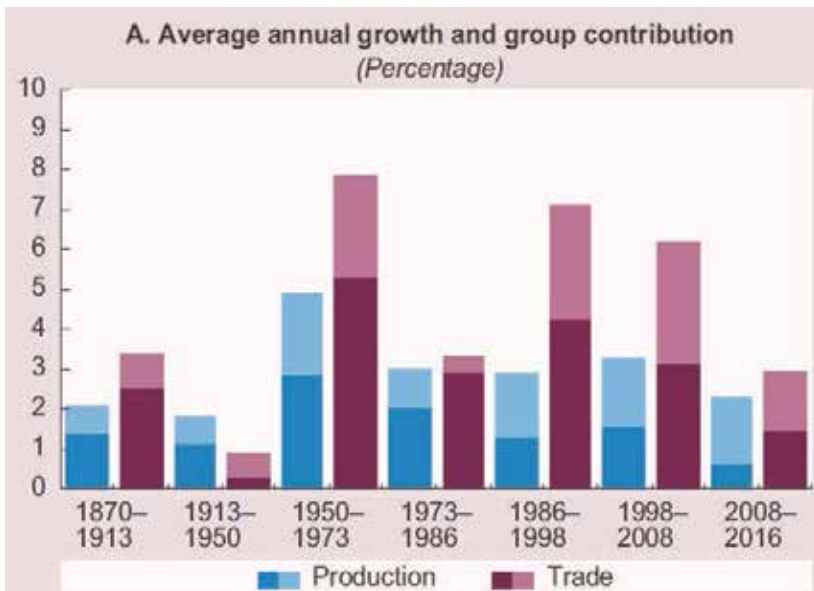


그림 2. 글로벌 생산량과 세계무역, 1870-2016년 (왼쪽 숫자는 %)¹²⁾



11) Leon Podkaminer: Has Trade Been Driving Global Economic Growth,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2016, Working Paper 131, p. 3

12) UNCTAD: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18, New York and Geneva, 2018, p. 37

범례 : 짙은 부면은 선진국들의 점유율을 상징한다. 데이터는 1870년~1973년간은 1990년 기준 미화 달러를, 1973년~2016년간은 2010년 기준 미화 달러를 사용하여 계산한 실제 연평균복합성장률이다.

표 2. 산업 성장률, 1879-2014년 (%)¹³⁾

국가군	1870-1890	1890-1913	1913-1920	1920-1938	1938-1950	1950-1973	1973-1990	1990-2007	2007-2014
독일 · 영국 · 미국	3.1	3.4	1.4	1.9	0.9	5.2	1.1	2.1	0.2
독일 · 일본 · 미국	-	-	-	-	-	7.9	2.4	2.2	0.3
유럽 주변부	4.7	5.0	-6.5	4.7	3.6	8.9	3.3	2.8	0.0
아시아	1.5	4.2	5.2	4.2	-1.7	8.5	5.8	4.2	4.1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	6.4	4.4	3.4	2.8	5.3	5.7	2.7	2.2	1.0
중동과 북아프리카	1.7	1.7	-5.8	4.9	6.0	6.2	6.1	4.5	3.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	13.4	4.6	8.6	5.5	3.5	3.9	4.1

13) UNCTAD: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16, New York and Geneva, 2016, p. 32

표 3. 세계 생산량 성장률 추이: 연평균 백분율 변화 2001-2017년 (2005년 달러 기준

GDP)¹⁴⁾

2001-08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3.2	1.5	-2.1	4.1	2.8	2.2	2.3	2.6	2.6	2.2	2.6

우리가 <<남반구에 대한 대 강탈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에서 보여주었듯이, 이러한 하락이 집중된 곳은 기존 제국주의 국가들 — 북미, 서유럽, 일본 — 이었고, 그 결과로 자본주의적 가치 생산의 중심이 중국과 반식민지 세계로 대거 이동했다.

이러한 이동에 대해서는, 세계 산업생산 — 자본주의적 가치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부문이 바로 산업생산 부문이다 — 에서 나타난 극적인 변화들이 잘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기존 제국주의 나라들 (보통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선진국”이라고 부르는)은 자본주의적 가치 생산의 중심부였다. 1938년에 소련 경제학자 S.L. 비고드스키가 한 연구에 따르면, 제국주의 나라들이 세계 제조업 생산의 91.7%를 점했고, (반)식민지 나라들이 8.3%를 생산했다.¹⁵⁾ 1985년까지도 이른바 “선진국들”이 여전히 세계 제조업의 80.8%를 점했다. 반면 당시 “발전도상국”은 여전히 세계 산업생산물의 19.2%만의 원산지로서 머물렀다. 2015년에 와서는 “선진국”이 56.3%만을 점했고, “발전도상국”의 점유율이 43.7%로 (즉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표 4를 보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발전도상국” 범주가 서로 다른 유형의 국가들을 (즉 반식민지 나라들과 중국·구소련을) 뒤섞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14) UNCTAD: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17, New York and Geneva, 2017, p. 2

15) S.L. Wygodski: Der gegenwärtige Kapitalismus (1969), Berlin 1972, p. 387

그러나 우리가 위에 언급한 책에서 설명했듯이, 여전히 이들 수치는 일어난 실제 변동을 완전히 저평가하고 있다. 남반구에서의 실제 가치 창출은 제시된 공식 수치보다 훨씬 더 크다. 역으로 북반구에서의 실제 가치 창출은 훨씬 더 작다. (기본적으로, 남반구에서 창출된 가치의 상당액이 공식 수치에서는 북반구에서 창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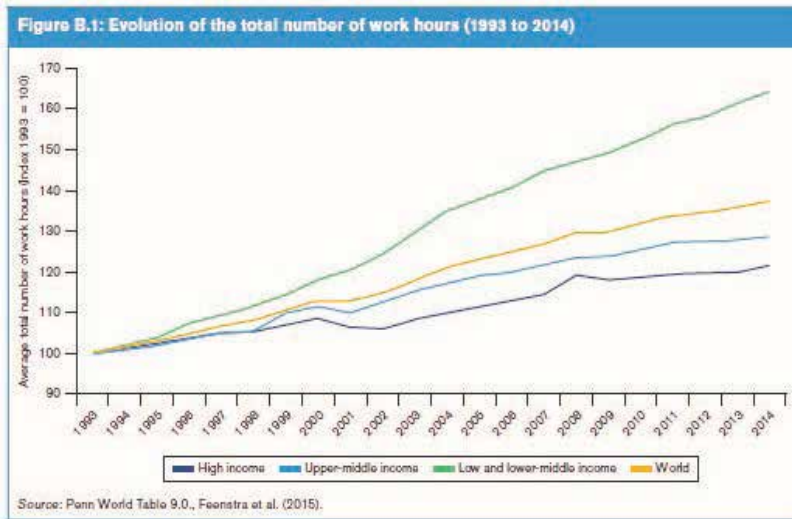
자본주의적 가치 생산의 중심이 기존 제국주의 중심부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버린 이 극적인 이동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는 총 근로시간 수로 표현되는 고용노동 총량의 추이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199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전 세계 총 근로시간 수는 약 37% 증가했다. 그러나 총 근로시간 증가는 이른바 “하위 및 중하위 소득” 국가들 (즉 보다 가난한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훨씬 더 높았다. 이들 나라에서 근로시간 수는 65% 증가했다. 대조적으로 “고소득”국들 (즉 서방 제국주의 나라들)에서의 총 근로시간은 같은 기간 단지 20% 가량 증가했을 뿐이다. “중상위 소득”국들에서는 약 27% 증가했다.

표 4. 지역별 제조업 점유율, 1985년과 2015년¹⁶⁾

	1985	2015
세계	100%	100%
선진국	80,8%	56,3%
발전도상국	19,2%	43,7%

16) 통계는 두 개의 다른 UNIDO 보고서에서 수집되었다. UNIDO: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02/2003, Competing through Innovation and Learning, p. 149 (for the year 1985); UNIDO: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18, Demand for Manufacturing: Driving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 Development, p. 200 (for the year 2015)

그림 3. 총 근로시간 수 추이 (1993년에서 2014년까지)¹⁷⁾



여기서 우리는 몇몇 부르주아 싱크탱크들이 “서방의 쇠퇴”와 “신흥시장”의 막을 수 없는 굴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 본부가 있는 주요 싱크탱크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 PwC)는, 2050년까지 10개의 가장 중요한 경제국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중국,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브라질, 독일, 멕시코, 영국, 러시아가 될 것 (시장 환율로 측정된 GDP 상)이라고 예측하고 있다.¹⁸⁾ 이러한 진단에

17) WTO: World Trade Report 2017. Trade, technology and jobs, p. 22

18) PricewaterhouseCoopers: The Long View. How will the global economic order change by 2050? February 2017, p. 68. 이 지점에서 다음 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민감한 독자는 공식 통계에서 미국과 중국 및 그 밖의 나라들의 경제력의 다양한 측면을 비교하는 수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관찰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통계에서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인데, 다른 통계에서는 그 반대일 정도로 차이가 있을 때도 있다. 그 이유는 종종 다른 기준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경제학자들이 나라별로 가격 수준 차이에 따라 조정된 구매력 평가지수로 GDP 수치를 제시하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시장환율로 GDP 수치를 제시하기도 한다. 두 방법론 모두 장점이 있다. 구매력 평가지수로 측정된 GDP는 서로 다른 발달 수준에 있는 나라별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지만, 기존 제국주의 열강의 쇠퇴와 서방 측 자신감의 총체적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¹⁹⁾

자본주의의 쇠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는 경제 세계화의 정체와 보호주의의 증대 경향이다. 이러한 사태 발전은 맑스주의자에게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는 과거에 세계화의 종언 및 개별 강대국 또는 강대국 동맹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블록의 형성을 예견한 바 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세계화 과정을 개괄하면서 ”세계화 = 국제화 + 독점화“라는 정식을 도입했다. 우리는 거액의 축적 자본, 생산력 발전 등이 세계시장을 요구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상대적 고립으로의 후퇴 - 1920년대 및 30년대에 미국 지배계급에게 이 같은 경향이 있었다 - 는 오늘날 불가능하다.

그러나 또 우리는 이윤 및 초과이윤 획득에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낸 바로 그 동일한 세계화 과정이 또한 동시에 거대한 모순과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설명했다. 더욱이 자본주의는 민족국가에 의존한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민족국가 없이 자본주의 지배계급은 착취를 위한 자신의 국내 기반을 조직할 수도, 세계시장에서 자신을 지지 보호해줄 강력한 무력 기반을 보유할 수도,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강대국 간 증대하는 패권쟁투가 이러한 세계화를 와해시키고 있다. 독점체들은 가능한 한 큰 시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지배권, 무제한의 접근권이, 그러나 경쟁자에 대해

가격 차이에 따라 교정되기 때문에 평균 생활수준 또는 생산량/투입량을 더 잘 나타내는 지표다. 그러나 시장 환율로 측정된 GDP는 모든 경제국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국제 비교에서 경제국들의 상대적 규모를 더 잘 측정한다. 덜 발달한 나라들의 경우 가격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구매력 평가지수로 측정된 GDP를 보면 시장환율로 측정된 것에 비해 선진경제국과의 소득격차가 좁혀진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시장환율로 측정된 GDP를 사용하여 나라들을 비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어쨌든, 구매력 평가지수나 시장환율이나 어느 것을 사용하든 간에,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발전의 동역학은 같다. 즉, 기존 제국주의 열강이 쇠퇴하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부상한 것이다.

1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pp. 382-394

서는 가능한 최대치의 제한이 필요하다. 그 결과, 보호주의와 지역화 경향이 일어날 것이다. 각개의 강대국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지역 블록을 결성하여 다른 열강의 접근을 제한하려 시도할 것이다. 불가피하게 이것은 많은 분쟁과 최종적인 전쟁으로 결과할 수밖에 없다.”²⁰⁾

이러한 경향은 비슷한 역사적 전례가 없지 않다. 1914-1945년의 양차 세계 대전 사이의 시기에 이 비슷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제 그 같은 사태 발전의 시작을 다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시작은 생산 대비 세계무역 및 초국적 투자자의 정체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를 보라).

그림 4. 세계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변동, 1980-2015년



나아가 러시아와 중국에서 자국 통화로 무역 결제를 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20)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hapter 14ii), pp. 389-39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있다. 또 이들 국가에서 금 생산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전 세계 5대 금 보유고를 가진 국가가 되어 스탈린이 세운 2,100 미터톤의 역사적 기록을 돌파했다. 국영기업 가스프롬은 지금 금 등가물과 관련한 결제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오늘, 러시아 중앙은행은 전 세계 금 및 외환보유고의 17%를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²¹⁾ 이러한 정책으로 미국 은행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끝으로 우리는 역사적인 자본주의 위기를 그 배후에서 추동하는 근본적인 경향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이윤율의 장기적 하락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맑스는 <<자본론>> 3권에서 이 근본 법칙을 정립했다. 장기적으로, 생산에 투자된 (기계, 원료 등과 함께 노동자에게 지불된 임금으로) 자본 총액 대비 잉여가치 몫은 작아진다. 그러므로 자본의 확대 재생산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 잉여가치가 점점 더 적어진다. 자본가들이 생산 확대에 투자하는 것이 점점 더 이윤 폭이 하락하면서 이것이 불가피하게 생산 교란과 공황, 그리고 역사적 쇠퇴 경향을 낳는다.²²⁾

당연히, 자본 과잉축적, 상품 과잉생산, 이윤율 하락 경향은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며, 그 템포와 동역학(動力學)은 각종 상쇄 경향 – 가장 중요하게는, 계급 간 역관계, 즉 정치적 계급투쟁에 의해 – 에 영향 받는다.²³⁾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한 동안 이윤율 하락의 속도를 낮추거나 잠시 멈춰 세울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1990년대에 신자유주의 공세와 제국주의 세계화의 진전과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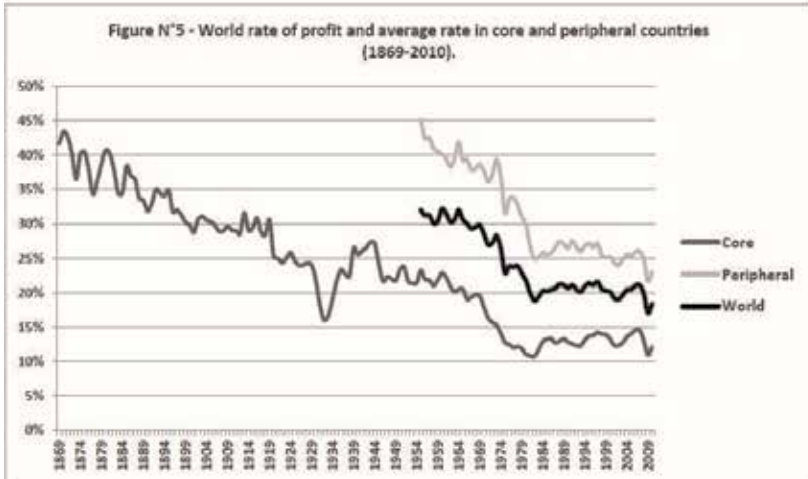
21) Russia's gold reserves exceed 2,000 tons for the first time, 02 Nov 2018, http://www.pravdareport.com/news/russia/economics/02-11-2018/141931-russian_gold-0/

22) 맑스는 이것을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법칙으로 보았다. “이것이 모든 면에서 근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며, 가장 어려운 관계들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법칙이다. 그것은 역사적 경지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 그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결코 이해된 적이 없으며, 의식적으로 표현된 적은 더더군다나 없는 법칙이 그것이다.” (Karl Marx: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in: MECW Vol. 29, p. 133)

2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ichard Brenner, Michael Pröbsting, Keith Spencer: The Credit Crunch – A Marxist Analysis, London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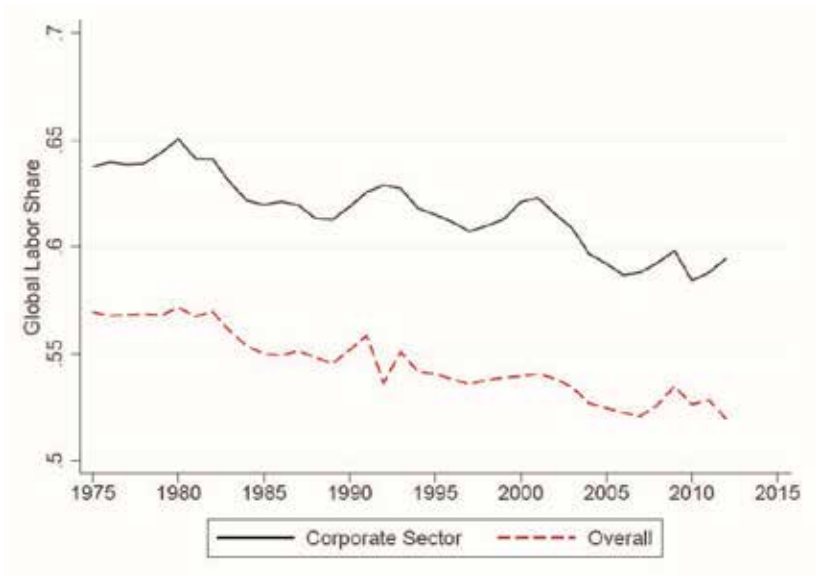
탈린주의 노동자국가들의 붕괴가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진 결과로 일어난 바와 같은), 장기적으로는 쇠퇴를 막을 수 - 되돌릴 수도 - 없다. (그림 5를 보라).

그림 5. 세계 이윤율, 그리고 중심부 나라와 주변부 나라에서의 평균이윤율 (1869-2010년)²⁴⁾



24) Esteban Ezequiel Maito: The historical transience of capital, The downward trend in the rate of profit since XIX century, 2014, p. 13

그림 6. 감소하는 노동 소득분배율²⁵⁾



25) Loukas Karabarbounis and Brent Neiman: The Global Decline Of The Labor Share, NBER Working Paper 19136, June 2013, p. 35

2장.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가 공격의 글로벌한 성격

자본가들은 이 이윤을 하락 경향을 멈춰 세우기 위해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 제국주의 나라들과 새로운 강대국 중국·러시아뿐만 아니라, 반식민지 나라들에서도 진실이다. 이 점은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 북반구, 남반구 할 것 없이 – 노동 소득분배율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²⁶⁾

루카스 카라바르부니스와 브렌트 나이만, 두 경제학자는 이 주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글로벌 노동 소득분배율이 1975년에 약 64%에서 2012년에 약 59%로 감소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림 6을 보라).

강대국들 모두를 비롯해 그 밖의 G20 나라들의 노동 소득분배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림에서도 동일한 상을 볼 수 있다. (그림 7을 보라). 이 통계에 따르면, 조정 노동 소득분배율은 1991-2011년 사이에 약 63%에서 58%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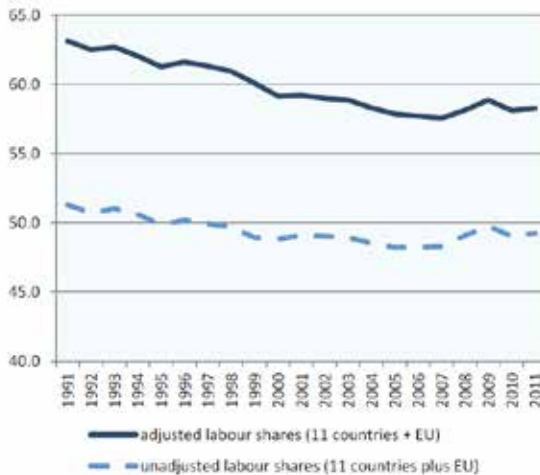
국제통화기금(IMF)조차 – 결코 친 노동 기구일 수 없는 –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주요 연구보고를 통해 IMF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6) 세계 노동자계급의 구성 및 지난 몇 십 년 동안의 그 변화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평가로는, 무엇보다도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Marxism and the United Front Tactic Today, The Struggle for Proletarian Hegemony in the Liberation Movement in Semi-Colonial and Imperialist Countries in the present Period, RCIT Books, Vienna 2016, Chapter III,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book-united-front/>

“1991년에서 2014년까지의 기간에 35개 선진경제국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2014년 선진경제 GDP의 78%를 접하는 19개국에서 노동 소득분배율이 감소했고,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증가하거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나라들을 가로질러 전반적인 노동 소득 분산 규모는 선진경제국보다 신흥시장국·발전도상국에서 상당히 더 크다. 54개 신흥시장국·발전도상국을 표본 조사한 결과(표본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이 나라들에서 노동 소득의 감소는 1990년대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 신흥시장국 GDP의 약 70%를 접하는 32개국에서 노동 소득이 하락했다.”²⁷⁾

그림 8은 1980-2014년 기간에 기존 제국주의 나라들(“선진경제국”)과 그 밖의 나라들에 대한 조정 노동 소득분배율 추이에 관한 IMF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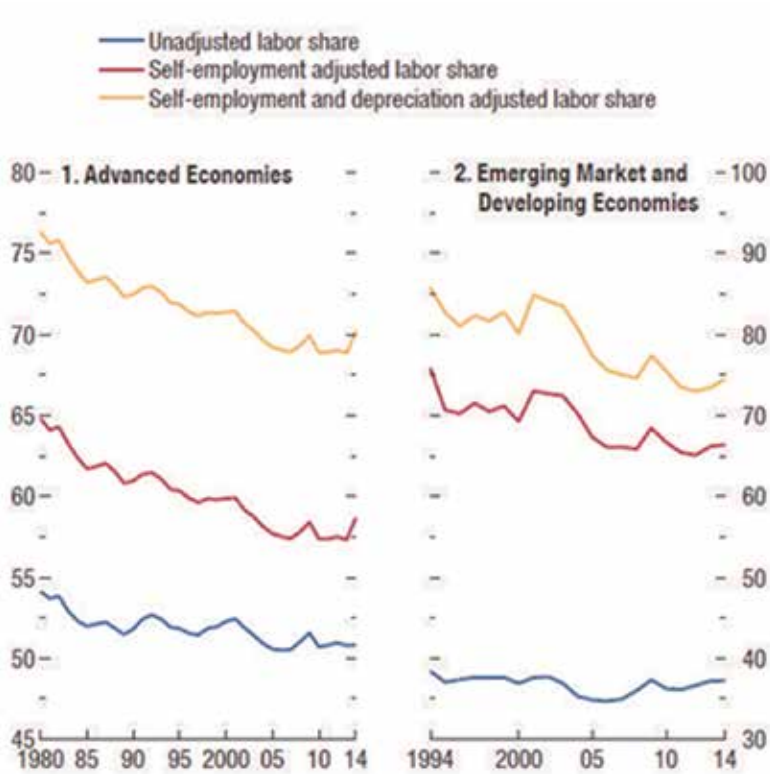
그림 7. 선별 G20 나라들의 조정 노동 소득과 미조정 노동 소득, 1991-2011년²⁸⁾



27) IMF: World Economic Outlook: Gaining Momentum? Washington, April 2017, p. 126

28) The Labour Share in G20 Economies, Report from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ith contributions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World Bank Group, Report prepared for the G20 Employment Working Group, Antalya, Turkey, 26-27 February 2015, p. 5

그림 8. 조정 노동 소득분배율 추이 (백분율)²⁹⁾



29) IMF: World Economic Outlook: Gaining Momentum? Washington, April 2017, p. 133

그림 9. 최대 경제국들에서 감소하는 노동 소득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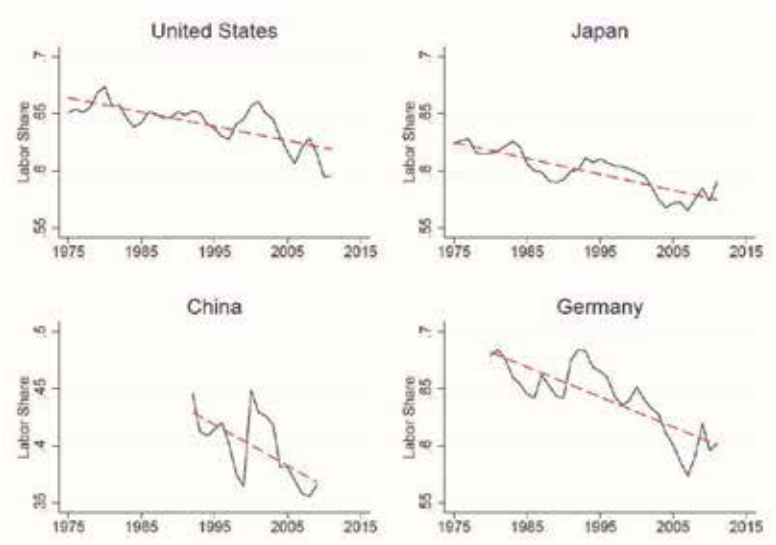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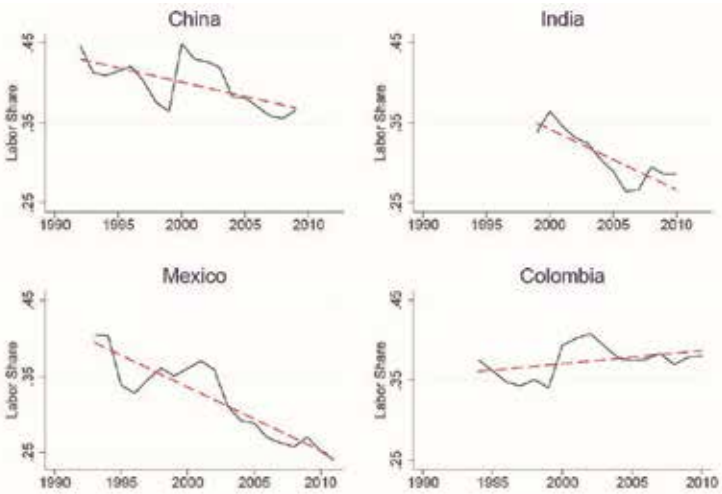


그림 10. 발전도상국들에서 감소하는 노동 소득³¹⁾



30) Loukas Karabarbounis and Brent Neiman: The Global Decline of the Labor Share (And Follow-up Thoughts), University of Chicago, March 2014, 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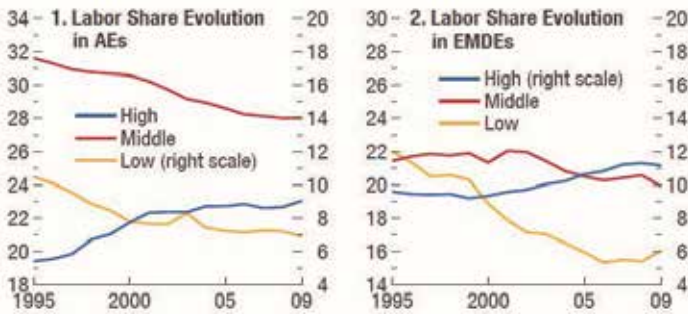
31) Loukas Karabarbounis and Brent Neiman: The Global Decline of the Labor Shar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14), Presented by Sergio Feijoo, March 29, 2017, p. 6

그림 9와 10에서 우리는 일련의 주요국들 -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인도, 멕시코, 콜롬비아 - 에서 노동 소득의 붕락을 본다. 마지막 콜롬비아를 예외로, 다시 동일한 감소 추세가 작동하고 있다.³²⁾

이러한 자본가 공격의 예봉은, IMF 연구의 저자들이 또 하나의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노동자계급 대중 - 중 · 저숙련 노동 - 이 맞아 왔다. 오직 상층 - 종종 특권 노동귀족의 일부인 - 만이 그들의 노동 소득분배율을 늘릴 수 있었다. (그림 11을 보라).

“글로벌 노동 소득의 감소는 중 · 저숙련 노동이 깊어졌다. 1995-2009년 기간 동안 그들의 노동 소득분배율은 7% 포인트 이상 감소한 반면, 글로벌 고숙련 노동의 소득분배율은 5%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³³⁾

그림 11. 노동 소득 추이와 숙련 별 노동인력 구성(백분율)³⁴⁾



AEs = Advanced Economies (선진경제국) EMDEs =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시장국 · 발전도상국)

32) 중국에서 임금 몫 (노동 소득분배율)의 대규모 감소에 주목하라. 이것은 중국의 “공산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스탈린주의 및 준 스탈린주의 찬미자들이 퍼뜨린 신화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다. 그들이 중국 모델을 “사회주의” 또는 “기형화된 노동자국가”라고 옹호하고 있는 한 쪽에서 현실은, 자본가의 금고로 들어가는 몫은 더욱 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의 몫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림 9, 10, 12, 23을 보라.)

33) Mai Chi Dao, Mitali Das, Zsoka Koczan, Weicheng Lian: Why is Labor Receiving a Smaller Share of Global Income?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IMF Working Paper, July 2017, pp. 14-15

34) IMF: World Economic Outlook: Gaining Momentum? Washington, April 2017, p.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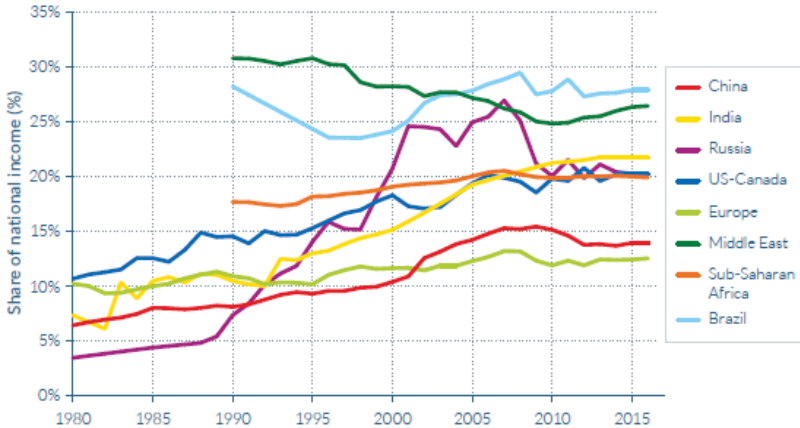
그림 12. 숙련 집단 별(노동자들의 교육 수준으로 구분한) 임금 소득, 1995- 2009년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한, 터키)³⁵⁾



35) Alexander Guschanski and Özlem Onaran: Why is the wage share falling in emerging economies? Industry level evidence, University of Greenwich, 2017, p. 18

그림 13. 전 세계 상위 1% 소득분배율, 1980 - 2016년³⁶⁾

Top 1% income shares across the world, 1980-2016



Source: WID.world (2017). See wir2018.wid.world for data series and notes.
 In 2016, 14% of national income was received by the Top 1% in China.

그림 12는 1995-2009년 기간에 중국과 6개 주요 선진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노동 소득분배율의 추이를 보여준다.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노동 소득이 감소했다. 이들 나라에서 노동자계급의 중하층의 소득분배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층의 소득분배율은 증가한다.

이 같은 노동자 임금의 하락과는 반대로 자본가의 이윤은 대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0년에서 2016년 기간에 세계 상위 1%의 소득분배율 추이를 보여주는 보고서 <세계 불평등 리포트 2018년>는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 이 보고서의 그림 하나를 검토하고 넘어가자. (그림 13을 보라).

몇몇 이유로 우리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의 글로벌한 성격에 관해 보다 상세히 기술한 바 있다. 첫째, 우리는 자본가계급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쇠퇴

36) Facundo Alvaredo, Lucas Chancel, Thomas Piketty, Emmanuel Saez, Gabriel Zucman: World Inequality Report 2018, p. 44

를 맞아 임금 몫(노동 소득분배율)을 체계적으로 줄임으로써 잉여가치를 늘리려고 시도한다는 맑스주의 법칙의 타당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둘째,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는 자국 노동인민의 생활수준 악화를 교묘하게 활용한다. 그로부터 나오는 불만과 분노를,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는 배외주의적, 국수주의적 전쟁 물이를 통해 외부로 향하도록 한다. 노동자계급이 증오를 진짜 적으로부터 자신의 계급적 형제자매를 향해 돌리도록 노동자계급을 혼란시키고 조종하려고 획책한다.

셋째,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대중(노동자계급의 다수인 중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혹독한 공격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제국주의 국가와 ‘자’국 부르주아지에 대한 이 노동자들의 충성의 물질적 기초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는 역으로 이것이 혁명적 패전주의 - 즉 제국주의적 상전에 대항하는 계급투쟁 - 의 비옥한 토양이 되는 전제 조건들을 만들어낸다.

넷째, 프롤레타리아트의 상층과 중하층 간 노동 소득이 경향적으로 갈라져 나가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층 소득분배율의 상대적인 포지티브(+) 발전은 노동자계급의 이러한 특권적 부문 속에서 노동귀족적·친제국주의적, 즉 사회제국주의적 경향의 객관적, 물질적 기초가 되고 있다.

3장. 자본주의와 이주 · 이민의 연관성 증대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노동자계급 부문이 이주자다. 우리가 다른 출판물들에서 세부적으로까지 설명했듯이, 노동자계급의 이층은 민족적 피억압 층이며 경제적으로 초과착취 당하는 층이다. 자본가들은 이주자의 노동으로부터 초과이윤을 거둔다.³⁷⁾

남반구에서 제국주의 북반구로의 이주가 지난 몇 십 년간 급증했는데, 이는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빈곤이 증대하고 전쟁이 잦아지고 환경 파괴가 극심해지면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이에 더해 자본가들은 값싼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 보다 가난한 나라들로부터 제국주의 대도시로 이민자 수입을 점점 더 독려하고 있다. 이것의 배경은 한편으로, 임금비용을 (이와 함께 교육비용을) 낮추려는 자본가들의 욕망이다. 다른 한편으로 제국주의 국가들은 젊은 노동인력의 항상적인 감소에 직면해 있다.³⁸⁾

3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Migration and Super-exploitation: Marxist Theory and the Role of Migration in the present Period of Capitalist Decay, in: Critique: Journal of Socialist Theory (Volume 43, Issue 3-4, 2015), pp. 329-346;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hapter 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Michael Pröbsting: Marxismus, Migration und revolutionäre Integration (2010); in: Der Weg des Revolutionären Kommunismus, Nr. 7,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werk-7>, A summary of this study in English-language: Michael Pröbsting: Marxism, Migration and revolutionary Integration,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1 (English-language Journal of the RCIT), <http://www.thecommunists.net/oppressed/revolutionary-integration/>

3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cKinsey Global Institute: Global growth: Can productivity save the day in an aging world? January 2015, p. 34; Lukasz Rachel and Thomas D Smith: Secular drivers of the global

네덜란드의 한 기업 임원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3천2백만 명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5천만 명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인구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산성 향상도, 정년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안 될 것이고 이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³⁹⁾

미국도 사정이 크게 나을 것이 없다. 미국 인구조사국 데이터에 따르면, 노동 연령 미국인 100명 당 65세 이상이 현재 21명이다. 그러나 이 비율은 2030년까지는 35명으로 늘어날 것이다.⁴⁰⁾

이와 비슷하게, 보스턴컨설팅그룹은 2020년 중국의 과잉 인구 (약 5520만 ~7530만 명의 노동자)가 급격히 역전돼 2030년에는 최대 2450만 명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⁴¹⁾유엔 <세계인구 전망> 최근호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14억9백만 명(2017년)에서 10억2천만 명(2100년)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⁴²⁾

러시아도 노동 부족 전망에 직면해 있다. 푸틴 정부의 재무장관은 2035년까지 노동인구가 4%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엔은 러시아 인구가 1억 4400만 명(2017년)에서 1억4050만 명(2030년), 1억3270만 명(2050년), 1

real interest rate,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 571, December 2015

39) Andre Sterk and Robin van Daalen: Immigration Holds Key to Labor Shortage, Wall Street Journal, June 28, 2011, https://www.wsj.com/articles/SB1000142405270230431440457641136292517_0744

40) Arthur S. Guarino: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an Aging Global Population, 02.08.2018, <https://www.focus-economics.com/blog/economic-implications-of-an-aging-global-population>

41) Boston Consulting Group: The Global Workforce Crisis: \$10 Trillion at Risk, BCG Report, June 2014, p. 4

42)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Key Findings and Advance Tables,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New York, 2017, p. 24

억2400만 명(2100년)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⁴³⁾ 러시아 국립경제행정원(RANEPA)의 사회분석예측연구소는 2025년까지 노동인력이 한 해에 약 80-90만 명씩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1999년 이래 증가해 온 러시아의 노동인력은 2017년 7월 763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00만 명 줄었다.⁴⁴⁾

이로 인해 지난 이삼십년 사이에 남반구로부터 수백만 명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북미, 서유럽, 오세아니아 등지로 넘어오는 것이 가능했다. (그림 14도 보라). 미국에서 전체 인구 중 이주자 비율은 5.2%(1960년)에서 12.3%(2000년), 14% 이상(2010년), 16%(2017년)로 증가했다. 서유럽에서도 약 4.6%(1960년)에서 근 10%(2010년), 14.4%(2017년)로 증가했다.⁴⁵⁾

UN은 최근의 이주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추산하고 있다.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에 포지티브(+) 순 이주(net migration)가 북미에서 인구 증가분의 42퍼센트, 오세아니아에서 인구 증가분의 31퍼센트를 기여했다. 유럽에서는 포지티브 순 이주가 없는 2000-2015년 기간 동안 인구 규모가 감소했을 것이다.”⁴⁶⁾

4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p. 26

44) Denis Pinchuk, Maria Kiselyova: 'No miracles': labor shortage set to hit Russia's GDP, Reuters, October 3, 2017, <https://www.reuters.com/article/us-russia-labour-demography/no-miracles-labor-shortage-set-to-hit-russias-gdp-idUSKCN1C80CY>

45) 다음을 보라, Rainer Münz/Heinz Fassmann: Migrants in Europe and their Economic Position: Evidence from the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and from Other Sources (2004), pp. 5-6; Carlos Vargas-Silva: Global International Migrant Stock: The UK in International Comparison (2011), www.migrationobservatory.ox.ac.uk, p. 5;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17, Highlights, New York, 2017, pp. 29-30. 이주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3의 지역이 중동의 산유국들이다. 우리는 이 특수한 경우를 다른 곳에서 다른 바 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Die halbe Revolution, Lehren und Perspektiven des arabischen Aufstandes, in: Der Weg des Revolutionären Kommunismus, Nr. 8 (2011), p. 1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werk-8>

46)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17 (Highlight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2017, p.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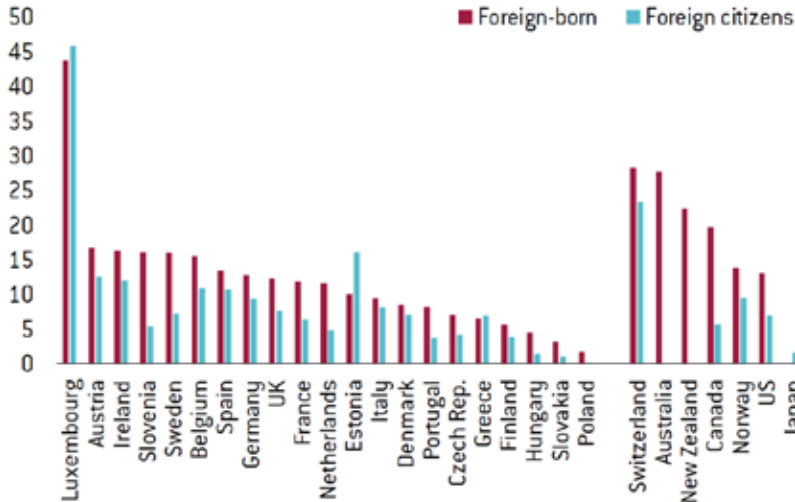
신흥 제국주의 국가 러시아도 대대적인 이주 – 특히 중앙아시아 공화국들로부터 –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약 1,160만 명의 합법적인 이주자들이 현재 러시아 영내에 거주하고 있다. 그 외에 또 다른 5백-8백만 명의 이주자들이 러시아에서 일하기 위해 불법 입국했다. 러시아 인구에서 이주자 비율에 대한 공식 수치는 8.1%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이주자 비율을 더 크게 잡는 수치들도 있다.⁴⁷⁾

이주자의 역할은, 그들이 제국주의 나라들의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 수치가 가리키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의미하다. 이미 2000년대 초, 뉴욕에 거주하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은 흑인이나 라틴계, 또는 그 이외의 민족 소수자에 속한 노동자들이었다. 2000년에 안쪽 런던(inner London)과 바깥쪽 런던에서 거주자의 각각 29%와 22%가 인종 소수자 집단 출신이었다.⁴⁸⁾ 오스트리아에서 이주자는 공식적으로 전체 인구의 19.4%를 점하고 있고, 수도 빈에서 이 비율은 더 높아 38.5%나 된다. (이주민 2세대와 3세대를 포함시키면, 이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진다). 이들 이주자의 약 2/3는 발칸이나 동유럽 또는 터키에서 왔다.

47)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17, Highlights, New York, 2017, p. 29; Irina Sinitsina: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Central Asian Countries: Trends and Outlook, 2012, pp. 38-39

48) 다음을 보라. Peter Dicken: Global Shift, Mapping The Changing Contours Of The World Economy (Sixth Edition), The Guilford Press, New York 2011, p. 496

그림 14. 2013년 외국 태생(Foreign-Born) 인구와 외국인 시민(Foreign Citizen) 인
구 비율 (%)⁴⁹⁾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퍼뜨리는 신화화는 반대로, 이주는 빈곤과 실업의 원인이 아니다. 실제로 이주자들은 초과착취 당하고 있고, 그들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들의 새 나라 국부에 기여하고 있다. 단지 몇몇 예만 봐도 알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이주자들은 2007년에 사회보험료로 16억 유로를 냈지만 단지 4억 유로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았을 뿐이다. 그리하여 오스트리아 국가는 2007년 한 해에만 12억 유로를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⁵⁰⁾ 이

49) Uuriintuya Batsaikhan, Zsolt Darvas and Inês Gonçalves Raposo: People on the move: migration and mobility in the European Union, Bruegel Blueprint Series Volume XXVIII, Bruegel, Brussels 2018, p.86

50) 다음을 보라. Hans Gmünder: Straches Handlangerdienste, KPÖ, 10.11.07, [http://www.kpoe.at/index.php?id=23&tx_ttnews\[tt_news\]=105&tx_ttnews\[backPid\]=2&cHash=7e484e968](http://www.kpoe.at/index.php?id=23&tx_ttnews[tt_news]=105&tx_ttnews[backPid]=2&cHash=7e484e968)

러한 2007년 사례는, 다른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외가 아니라 통례다.⁵¹⁾

자본가들이 이주자의 노동으로부터 어떻게 이윤을 거두는지 또 하나의 예를 영국에서 볼 수 있다. 당시 이민담당 장관 리암 바이른에 의하면, 2006년에 “영국 경제”는 약 60억 파운드를 벌었다. 당시 재무장관에 의하면, 이주자들의 노동이 2001-2006년 간 영국 경제성장의 15%-20%를 담당했다.⁵²⁾ 위에서 인용한 이주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자본주의 초과착취에 대한 더 많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⁵³⁾

최근에 발표된 연구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레졸루션 재단에 따르면, 민족 간 임금 격차는 “피해자들의 생활수준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 흑인 및 인종 소수자 집단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는 백인 동료들에 비해 한 해에 32억 파운드의 임금 손실을 보고 있다. 레졸루션 재단의 분석 결과, 평균적인 자격 및 직무 유형 상의 차이를 감안한 뒤 흑인 남성 졸업자의 급여격차가 무려 17%포인트, 즉 시간당 3.90파운드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남성 졸업자는 시간당 평균 2.67 파운드(12%)의 임금 손실을, 여성 졸업자들 중에서는 흑인 여성들이 시간당 최대 1.62파운드(9%)의 임금 손실을 맞았다.⁵⁴⁾

동일한 현상을 러시아에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주자들은 일할 면허를 얻기 위해 수천 루블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모스크바에서는 이 수수료가

51) 다음을 보라. Gudrun Biffl: Die Zuwanderung von Ausländern nach Österreich, Kosten-Nutzen-Überlegungen und Fragen der Sozialtransfers (1997), WIFO, p. 8

52) House of Lords (Britain): Report – Economic Impact of Migration in UK (2008), p. 22

53) 또 다음을 보라. Martin Kahanec and Martin Guzi: How Immigrants Helped EU Labor Markets to Adjust during the Great Recession, IZA –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Discussion Paper No. 10443, December 2016

54) Kathleen Henahan: The £3.2bn pay penalty facing black and ethnic minority workers, 27 December 2018, <https://www.resolutionfoundation.org/media/blog/the-3-2bn-pay-penalty-facing-black-and-ethnic-minority-workers/>

석유 회사들로부터 걷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 수입을 가져오고 있다!⁵⁵⁾

요약하면,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이주자 수의 증가, 이들 나라에서 이주자들에 대한 인종주의와 민족 억압의 강화, 값싼 노동인력으로 초과착취 당하고 있는 조건 등을 놓고 볼 때 의심할 바 없이 우리는 이주·이민이 자본주의와 국제 노동자계급의 해방투쟁 둘 다에 갖는 연관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 * * * *

일정 정도, 제국주의 나라에서 이주자의 역할과 1918년 이전 제국주의 국가 내 피억압 민족의 역할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러시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인구의 다수가 피억압 민족에 속했다. 미국 인구의 많은 부분들은 흑인이 아니면 이주자였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민족 문제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붕괴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은 당시까지는 부상하는 제국주의 열강으로서 이 문제를 보다 잘 관리해나갈 수 있었다.)

오늘날의 이주자와 당시의 국가 내 민족 소수자 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주자는 서방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인구의 다수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1918년 이전 대부분의 서방 나라들 내 이주자와 민족 소수자보다 확실히 더 유의미하다. 더욱이 대부분의 민족 소수자는 지배 민족보다 자본주의적 발전에서 더 “뒤쳐져” 있었다.⁵⁶⁾ 그리하여 이들 피억압 민족 프롤레타

55) Доходы Москвы от мигрантов превысили налоги с нефтяных компаний, 6.8.2016, https://lenta.ru/news/2016/08/06/migrants_pay/

56) 물론 차르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폴란드인이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 살고 있는 체코인과 같은 예외도 있었다. 이들 민족은 지배 민족보다 자본주의적으로 더 발달해 있었고,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도 상당 규모였고 전투적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Georg W. Strobel: Die Partei Rosa Luxemburgs, Lenin und die SPD. Der polnische ‚europäische‘ Internationalismus in der russischen Sozialdemokratie; Franz Steiner

리아트의 노동 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작았던 데 비해, 농민과 도시 소부르주아지의 소득은 평균을 상회했다. 오늘날 이주자의 상황은 그들 대부분이 노동 과정에 능동적으로 고용된 노동자계급의 일부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서방 제국주의 나라에서 이주민들은 원주민들보다 그들의 계급 성분에서 훨씬 더 프롤레타리아적이다.

* * * * *

50년 전에 에르네스트 만델은 한 책에서 유럽의 노동자계급이 국제주의적 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객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유럽의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접촉하는 데 물질적·문화적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당시에 노동자들이 국외 휴가를 갖거나 외국어를 배우는 데 필요한 충분한 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동자운동 내에서 개량주의 관료가 국제주의적 지향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방해하거나 심지어 드러내놓고 반대한다고 비판했다.⁵⁷⁾

그러나 그 이래 중요한 변화가 있어 왔다. 운송교통비가 줄어들어 유럽 노동자들의 국외여행이 훨씬 쉬워졌다. 학교에서 영어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문

Verlag, Wiesbaden 1974; Georg W. Strobel: Quellen zur Geschichte des Kommunismus in Polen 1878–1918,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Köln 1968; Raimund Löw: Der Zerfall der Kleinen Internationale: Nationalitätenkonflikte in der Arbeiterbewegung des alten Österreich (1889–1914), Europaverlag, Wien 1984

57) Ernest Mandel: Die EWG und die Konkurrenz Europa – USA, Europäische Verlagsanstalt, Frankfurt a.M, 1968, pp. 90–91. 이 책은 우리가 아는 바로는 영어로 출판된 적이 없다. 전후의 제4 인터내셔널 – 그 초기 혁명적 단계에서나 이후의 중도주의적 타락 시기에서나 모두 – 의 중앙 지도자인 만델에 대한 정치적 평가로는, 다음의 우리 팸플릿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atastrophic Failure of the Theory of “Catastrophism”, in: Revolutionary Communism, New Series No.7, June 2018, p.2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atastrophic-failure-of-the-theory-of-catastrophism/>

화적 수준도 향상되었다. 더욱이 유럽에서 노동자계급은 그 구성에서 훨씬 더 다국적으로 되었다. 노동자 중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이주자들은 민족적 경계를 뛰어넘는 의식을 가지는데 이는 그들이 본래적으로 원주민 노동자들보다 더 진보적이거나 국제주의적이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그들 고국과의 수많은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해가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국제주의적 이슈에 더 관심을 가진다. 유럽의 아랍 이주자들이 2011년 이래 아랍 혁명에 강한 관심과 일체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나, 무슬림 이주자들이 팔레스타인 해방투쟁에 강한 연대감을 보이는 것은 그 생생한 예들이다.⁵⁸⁾

이주자들 속에서의 자생적인 국제주의적 의식의 또 하나 예는 미국 입국을 위해 행군하는 중남미 이주 카라반 행렬의 다음과 같은 유명한 슬로건이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우리는 국제 노동자다!” (“*¡ No somos criminales! ¡ Somos trabajadores internacionales!*”)

이주자들은 원주 지배 민족의 일부가 아니라 피억압 민족 소수자이므로 그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새로운 제국주의 “고국”에 대한 일체감이 원주 지배 민족 주민들보다 상당히 낮다. 이 점은 제국주의 나라와 거기에 살고 있는 이주자의 원 모국 간의 매 축구 경기 때마다 상징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 경우에 이주자들은 항상 그들의 원 모국에 열정적으로 편을 든다. (예를 들어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 대 터키 또는 전(前)유고슬라비아 나라, 프랑스 대 알제리, 미국 대 멕시코 간 축구경기를 보라.) “홈팀” 팬들보다 “방문팀” 이주자 팬들이 심지어 수적으로 더 많은 경우들이 흔하다. 이주자들 가운데는 출세주의자나 부

58) RCIT 유럽 지부들의 활동가들은 아랍 세계에서의 해방투쟁과의 연대 사업과 인종주의 및 이슬람 혐오주의에 반대하는 활동 둘 다에서 이들 이주자와의 다년간에 걸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사태 발전에 대한 많은 실천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Marxism and the United Front Tactic Today, The Struggle for Proletarian Hegemony in the Liberation Movement in Semi-Colonial and Imperialist Countries in the present Period*, RCIT Books, Vienna 2016, pp. 116-1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book-united-front/>; 또 우리 웹사이트에 있는 많은 보도도 보라.

역자 식 “과잉 애국자”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주자들의 대다수는 새로운 제국주의 정주국보다 원래의 반식민지 모국에 더 일체감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존 제국주의 나라들의 정치적 풍토와 사회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왜냐하면 지배계급 입장에서 그들의 피지배 주민이 민족국가에 무조건적 충성을 보이는 것을 과거처럼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이 “외국의 위협”에 맞선 “조국 방어”라는 배외주의적 기치로 그들의 피지배 주민을 결집시키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이다. 1930년대에 트로츠키는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미국의 흑인 피억압 소수자가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띠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이주자에게 그대로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⁹⁾

더욱이 이주자들은 남반구에서 오고 있고 현재 북미나 서유럽 또는 러시아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들은 세계의 두 부분 간에 일종의 전달벨트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전투적 투쟁심을 그들의 본국으로부터 북반구로 가져오고, 각종 숙련과 경험을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전달할 수 있다.

이 같은 다민족화는 원주 서유럽 노동자들의 의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일부 부문들이 더 배외주의적으로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십 년 간에 걸친 노동관료의 배반의 결과로 이 부문들의 방향감 상실 및 정치의식의 퇴보와 그로 인한 우익 포퓰리스트 당들의 부상이 종종 그러한 배외주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또 보다 가난한 나라들 출신의 “외국인들”을 향한 서유럽 노동자들의 “귀족 본능”이 촉매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그들이 수세

59) “흑인 문제는 새로운 중요성을 띤다. 흑인들은 오는 전쟁에서 거의 애국주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Leon Trotsky: For A Courageous Reorientation (1939), in: Writings of Leon Trotsky, 1938-39, p. 349)

기 동안 세계를 지배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한 결과이며, 또 노동자들이 그 같은 “귀족 의식”을 극복하는 데 개량주의 당들이 방해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한 결과다.

이에 더해, 노동자계급은 소부르주아지와 중간층의 영향으로부터 면역 상태에 있지 않다. (면역 상태에 있을 수도 없다). 또 (다민족 구성이 높은) 대도시 지역과 (이주자의 비율이 낮은) 농촌 지역 간 노동자 의식 발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면 원주 유럽 노동자계급 가운데 난민에 연대하는 유의미한 부문도 존재한다. 이 부문은 2015년에 많은 난민이 서유럽에 들어오는 것을 도왔고, 이슬람 혐오주의를 거부하고 난민의 서유럽 입국 권리를 지지했다. 종종 이 부문이 규모가 더 크고 “여론”을 지배하는 (예를 들어 2015년 여름과 2016년 봄에) 때도 있지만, 반동 인종주의자들이 여론을 지배하는 때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 부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단지 부르주아 “여론”에서 덜 가시적인 것일 뿐이다. 어느 경우든, 이 부문은 이주자와 함께 유럽에서 노동계급 저항투쟁과 혁명당을 건설하는 데서 일차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4장.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한 맑스주의적 기준

다음 장에서는 레닌이 발전시킨 바의 맑스주의적 제국주의론이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 국가 각각에 대한 정의에 어떤 결론을 가져오는지, 이에 대한 우리의 이론적 이해를 요약 제시할 것이다.⁶⁰⁾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 국가를 가르는 핵심 기준

레닌은 경제를 지배하는 독점의 형성이 제국주의의 핵심 특징이라고 기술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으로의 융합, 상품 수출과 함께 자본 수출의 증가, 세력권 (특히 식민지) 획득을 위한 투쟁을 제국주의의 지표로 함께 제시했다. 레닌은 제국주의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이론적 글인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내의 분열〉에서 제국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60) 우리는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을 다른 출판물들에서 광범위하게 다룬 바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5,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2013, <http://www.great-robbery-of-the-south.net/>; Michael Pröbsting: Imperialism and the Decline of Capitalism (2008), in: Richard Brenner, Michael Pröbsting, Keith Spencer: The Credit Crunch – A Marxist Analysis (2008),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and-globalization/>

정의 내리고 있다.

“가능한 한 정확하고 완전한 제국주의 정의(定意)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국주의란 자본주의의 특수한 역사적 단계다. 그 특수성은 세 가지다. 제국주의는 (1) 독점 자본주의, (2) 기생적인, 또는 부패해가는 자본주의, (3) 사멸해가는 자본주의다. 독점이 자유경쟁을 대체했다는 것이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경제적 특징이고 그 본질이다. 독점은 주되게 다섯 가지 형태를 취하며 나타난다. ① 카르텔 · 신디케이트 · 트러스트 — 이러한 독점적 자본가 집단을 낳을 정도로 생산의 집적이 이루어졌다. ② 대 은행들의 독점적 지위 — 서넛 내지 다섯 개의 거대 은행이 미국, 프랑스, 독일의 경제생활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③ 트러스트와 금융과두제 (금융자본은 은행자본과 융합한 독점적 산업자본이다)가 원료자원을 장악하고 있다. ④ 국제적 카르텔에 의한 세계의 (경제적) 분할이 시작되었다. 그러한 국제적 카르텔은 이미 백 개도 넘는데, 이들이 세계시장 전체를 지배하며, 이 세계시장을 ‘사이 좋게’ 분할하고 — 전쟁이 그것을 재분할할 때까지는 ‘사이 좋게’ — 있다. 비독점 자본주의하에서의 상품 수출과 구별되는, 매우 특징적인 현상으로서의 자본수출은 세계의 경제적 및 영토적 · 정치적 분할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⑤ 세계의 영토적 분할 (식민지)이 완료되었다.”⁶¹⁾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규정하는 데서 널리 퍼진 오류는 국가를 따로 떼어내서 분석하려는 시도다. 이 경우, 부(富)에 관한 이러저러한 수치나 이러저러한 기업 숫자를 가지고서 그로부터 해당 국가의 계급적 성격이라면서 도출해내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맑스주의자에게는 전혀 걸맞지 않다. 왜냐하면 그 같은 접근법은 맑스주의자의 철학적 세계관이 바탕하고 있는 방법과 근본적으로 모

61) V. I. Lenin: Imperialism and the Split in Socialism (1916); in: CW Vol. 23, pp. 105–106 (이탈릭 체 강조는 원저자 레닌) [레닌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내의 분열>,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295–6쪽]

순되기 때문이다. 유물론적 변증법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 맑스주의의 방법론적 기초인 이 방법은 우리에게 각각의 사물, 각각의 현상을 따로 떼어내서, 고립시켜서가 아니라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스탈린주의의 사상 단속 이전인 1920년대 소련에서 선도적인 맑스주의 철학자 아브람 데보린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했다. “세계의 어떤 것도 홀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만물은 나머지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⁶²⁾

이러한 견해는 레닌이 1915년에 그의 철학 논문 〈변증법 문제에 관하여〉에서 아주 간결하게 정식화한, 사물과 그 발전에 대한 변증법적 관점에 기초해 있다. 이 논문에서 레닌은, 발전(또는 진화) 일반은 *대립물의 통일, 투쟁과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하는 통일 – 달리 말하면, *영구적인 운동 속에 있는 모순들의 관계* – 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근본적임을 강조했다.

“발전(진화)을 바라보는 두 가지 기본적인,..., 관점이 있다. 하나는 감소와 증가로, 반복으로 보는 발전관이고, 다른 하나는 대립물의 통일(통일체가 상호 배척하는 두 대립물로 나누어지는 것과 그리고 그러한 대립물 간의 상호관계)로 보는 발전관이다. 첫 번째 운동관에서는 자기 운동, 그 동력, 그 원천, 그 동기가 여전히 음지에 남아 있다.(또는 이 원천이 외재적인 것으로 된다 – 신, 주체 등등). 두 번째 운동관에서는 다름 아니라 “자기” 운동의 원천에 대한 지식이 일차적 주목 대상이다. 첫 번째 운동관은 생명 없고 창백하며 건조하다. 두 번째 운동관은 살아 움직인다. 두 번째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자기 운동”에 대한 열쇠를 제공한다. 그것만이 “도약”에 대한, “연속성

62) Abram Deborin: Lenin als revolutionärer Dialektiker (1925); in: Nikolai Bucharin/Abram Deborin: Kontroversen über dialektischen und mechanistischen Materialismus, Frankfurt a.M. 1974, p. 136 (영역은 저자 프리브스팅)

의 단절"에 대한, "대립물로의 전화"에 대한, 낡은 것의 파괴와 새로운 것의 출현에 대한 열쇠를 제공한다. 대립물의 통일(일치, 일체성, 동등한 행동)은 조건적, 일시적, 과도적, 상대적이다. 상호 배척하는 대립물의 투쟁은 발전과 운동이 절대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이다."⁶³⁾

사물 - 국가를 포함하여 - 을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는 접근법은 올바른 인식에 이르는 근본적인 기초다. 이와 같이, 주어진 국가는 단지 별개의 단위로서가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고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계급들도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인식해야 한다. 국가란 정의상 별개로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자명하다. 다른 국가들도 존재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계급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계급 없는 부르주아지란 없다. 농업노동자·소작농 없는 지주란 없다. 마찬가지로 식민지·반식민지 없는 제국주의 국가란 없다. 하나의 강대국이 아니라, 서로 경쟁관계 속에 있는 여러 강대국이 존재한다.⁶⁴⁾

여기서 우리는 독일의 중도주의 이론가 칼 카우츠키가 1914년에 발전시킨 한 이론에 주목한다. 그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경제적 법칙은 부르주아지로 하여금 제국주의 단계를 극복하여 “초제국주의”라 불리는 단계로 들어가도록 추동한다. 이 초제국주의 시대는 노동자계급과 식민지·반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착취 증대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제국주의 열강이 점점 더 그들 간의 패권경쟁을 극복해나가고 단일한 제국주의 트러스트 또는 연합으로 뭉친다

63) V.I. Lenin: On the Question of Dialectics (1915); in: LCW 38, p.358 (강조는 원저자)

64) 그런데 이것은 노동자국가 (기형화된 노동자국가 포함)에도 해당된다. 그러한 나라들은 적대 계급들 간의 국제적 균형 상태를 — 국가의 형태를 취한 채로 — 표현한다. 이것은 스탈린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도 해당되었다. 비록 통치 카스트의 관료 기구에 의해 이 관계가 복잡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스탈린주의 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분석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uba's Revolution Sold Out? The Road from Revolution to the Restoration of Capitalism (Chapter II), August 2013, RCIT Books,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uba-s-revolution-sold-out/>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 초제국주의 이론은 20세기 역사에 의해 완전히 논파되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 이론의 리메이크를 내건 수많은 수정주의 이론가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현대 제국주의는 강대국들 간 패권쟁투가 아니라 글로벌 “제국”의 존재를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네그리, 패니치, 진딘 등등). 실제로, 중국·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하고 미국이 이끄는 다소간에 통합된 제국주의 블록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맑스주의자들’은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 이론에 매우 가깝다.⁶⁵⁾

이런 맥락에서 국가들(및 계급들)을 비교해 보는 것이 가능한데,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제할 때 특히 맞다. 즉 레닌이 1917년에 그의 유명한 <<국가와 혁명>>에서 표현한 것처럼, 국가란 “지배계급에 봉사하는 무장한 사람들의 특수한 조직체”⁶⁶⁾라는 사실 말이다.

독점체들과 강대국들의 형성은, 세계 전체가 경쟁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세력권으로 분할되고 이들 소수의 강대국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예속되는 상황을 가져왔다. 이로부터 레닌의 제국주의 분석의 핵심 특징이 나온다. 즉 제국주의적 민족과, 자본주의가 덜 발달한 나라에 살고 있는 인민 대다수 간의 관

65) 우리는 이 주장들을 다음에서 다룬 바 있다. Michael Prö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5, August 2014, [http:// 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66) “국가가 생겨나고, 특수한 권력, 무장한 사람들의 특별한 기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국가기구를 파괴함으로써 모든 혁명은 우리에게 적나라한 계급투쟁을 보여준다. 지배계급이 자신에게 봉사하는 그 무장한 사람들의 특별한 기구를 복구시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 그리고 피억압 계급이 착취자들 대신에 피착취자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종류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V.I.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The Marxist Theory of the State and the Tasks of the Proletariat in the Revolution (1917), in: LCW Vol. 25, p. 395). 이러한 인식은 맑스·엔겔스의 국가 이론에 근거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엔겔스의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를 보라. 이 책에서 엔겔스는 국가의 역사적 기원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이러한 공권력은 모든 국가에 존재한다. 그것은 단지 무장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물질적 부속기관, 즉 감옥과 모든 종류의 강제 기관들로도 구성되어 있다.” (Friedrich Engels: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In the Light of the Researches by Lewis H. Morgan (1884), in: MECW Vol. 26, p. 270)

계를 억압 관계로 성격 규정하는 것 말이다. 실제로 레닌은 –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서 트로츠키도 – 이러한 세계 제 민족의 분할, 즉 억압 민족과 피억압 민족으로의 분할은 제국주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제국주의는 한줌의 강대국들에 의한 전 세계 민족들의 억압이 누적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제국주의는 민족 억압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그들 강대국 간의 전쟁의 시기를 의미한다..... 바로 이 때문에 사회민주주의 강령에서의 초점은, 모든 민족을 억압 민족과 피억압 민족으로 구분하는 데 두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에 바로 제국주의의 본질이 있는데, 사회배외주의자들과 카우츠키는 이것을 기만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이 구분은 부르주아 평화주의의 시각에서나, 자본주의 하에서 독립 민족들 간의 평화적 경쟁이라는 속물적 유토피아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의미 없는 것이지만,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혁명적 투쟁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극히 유의미한 것이다.”⁶⁷⁾

이로부터 레닌은 억압 민족과 피억압 민족 간의 구분이 맑스주의 강령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이러한 소부르주아적, 기회주의적 유토피아에 대한 균형추로서 사회민주주의 [맑스주의자들은 당시에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다. – 편집자] 강령은, 제 민족을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구분하는 것을 제국주의 하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하며 불가피한 것으로 전제해야 한다.”⁶⁸⁾

67) V. I. Lenin: The revolutionary Proletariat and the Right of Nations to Self-Determination (1915); in: LCW 21, p. 409. [레닌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와 민족자결권>,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244쪽]

68) V. I. Lenin: The Socialist Revolution and the Right of Nations to Self-Determination (1916); in: LCW 22, p. 147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 국가 간 관계의 경제적 기초는 레닌이 *초과착취*라고 부른 것이다. 즉 이들 피억압 민족에 대해 제국주의 독점체가 본국에서 노동자에 대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고율의 잉여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초과착취 덕에 독점자본은 - 평균이윤을 초과하는 - 추가적인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 초과이윤은 이미 독점자본이 부유한 나라들에서 노동자들로부터 뽑아내는 이윤에 추가되는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이 초과이윤은 제국주의 나라에서 노동자계급의 상층부, 노동귀족 부문들, 특히 노조관료를 매수하는 핵심 재원으로, 독점자본의 지배를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낸 책자 <<남반구에 대한 대 강탈>> 속에서 우리는 독점자본이 식민지·반식민지 나라들로부터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초과착취의 네 가지 기본 형태를 식별해냈다.⁶⁹⁾

i) 생산적 투자로서의 자본수출

ii) 화폐 자본으로서의 자본수출 (차관, 기축통화, 투기 등등)

iii) 부동산 교환을 통한 가치 이전

iv) 이주·이민을 통한 가치 이전 (이주민, 즉 노동자계급 가운데 민족적 피억압 층에 대한 초과착취에 기초한 가치 이전)

국가 간 관계는 항상 그 관계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측면들의 총체성 - “이 사물이 다른 사물들과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 전체” (레닌)⁷⁰⁾ - 속에서 봐야 한다. 보통 제국주의 국가는 그것이 - 이러저러한 식으로 - 억압하고 초과

69) 우리의 다음 책에 제시된 광범위한 분석을 보라.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위 참조). 또 이주민에 대한 초과착취에 관한 다음의 우리 소책자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Marxismus, Migration und revolutionäre Integration* (2010); in: *Revolutionärer Kommunismus*, Nr. 7,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werk-7>. A summary of this study in English language: Michael Pröbsting: *Marxism, Migration and revolutionary Integration*,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1 (English-language Journal of the RCI), <http://www.thecommunists.net/oppressed/revolutionary-integration/>

70) V. I. Lenin: *Conspectus of Hegel's Science of Logic* (1914); in: *Collected Works Vol. 38*, p. 220

착취 하는 타 국가·민족과의 관계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관계는 그것의 총체성 속에서 봐야 한다. 즉 한 국가가 해외투자로부터 일정한 이윤을 얻지만,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 이 국가에 다른 국가들이 한 해외투자(외국인투자)나 차관 등으로 인해 - 다른 국가들에 지불해야 (부채 상환, 이윤 본국 송금 등) 한다면, 이 국가는 보통 제국주의 국가로 간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억압·초과착취의 서로 다른 형태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오직 하나의 형태로만 일어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제국주의 국가들은 보통 무력으로 반식민지를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일본 같은 강대국의 경우에조차도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많은 피억압 인민들을 초과착취 하는 것은 주로 자본수출을 통해서이며, 일본 국내의 이주민에 대한 착취 분은 전체 초과착취 가운데 매우 작은 비율만을 점한다. 이 같은 이주민 초과착취는 러시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반면 자본수출에서는 러시아가 일본 보다 훨씬 규모가 작다.

물론, 나라들을 구분하는 데서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 국가라는 범주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당연히 다른 색조들이 많다. 이미 강대국들부터 차이가 있다. 미국 같은 최강의 강대국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는 강하지만, 최근 몇 십 년 간 군사적으로는 훨씬 더 약한 강대국 (일본이나 독일 같은)이 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들의 글로벌 위계사다리 속에서 한 국가가 점하는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지위의 총체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보다 약하더라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강한 정치적·군사적 지위를 보유할 경우에 그 국가를 제국주의로 간주할 수 있다. (1917년 이전의 러시아, 그리고 다시 2000년대 초 이래의 러시아 같은). 이 같은 강력한 정치적·군사적 지위는 타 국가·민족을 억압하고 그들로부터 자본주의적 가치를

전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이 같은 강대국들 자신들 간의 불균등성은 항상 현대 자본주의의 전 역사에 걸쳐 두드러진 특징이여 왔다는 것을 이미 여러 출판물을 통해 아주 상세하게 제시한 바 있다.⁷¹⁾ 이하 7장에서 우리는 이 같은 불균등성을 증명하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여기서는 레닌과 트로츠키가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이론을 정립하던 시점에 각 제국주의 국가들 간 산업 발전, 경제적 생산성, 자본수출, 차관 등에서의 심대한 차이를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국한하겠다.

역사적 발전에서의 불균등성은 구래의 “성숙한” 제국주의 열강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이 새롭게 떠오르는 열강 (미국이나 독일 같은)뿐만 아니라 보다 뒤떨어진 열강 (러시아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일본 같은)과도 함께 존재하는 (그리고 패권을 다투는) 상황을 낳았다.

레닌은 이러한 불균등성을 되풀이해서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제국주의에 관한 노트>>에서 그는 강대국들 간의 “위계화”를 제시했다. 그는 제국주의 국가들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I. 세 주요한 (완전히 독립적인) 나라: 영국, 독일, 미국.

II. 부차적인 (제1급이지만,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은) 나라: 프랑스, 러시아, 일본.

III. 이탈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⁷²⁾

나아가 우리는 강대국과 보다 작은 제국주의 국가들 (호주, 남한, 벨기에,

71) 우리는 이에 대해 다양한 글들을 통해 제시해왔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72) V.I. Lenin: On the Question of Imperialism, in: LCW 39, p. 202

스위스,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나라들 같은)을 구분해야 한다. 명백히 이들 국가는 강대국에 대등하지 않으며, 정확하게는 강대국에 종속되어 있다. 이들 작은 제국주의 국가들은 세계 제국주의 질서에 참가하기 위해 하나 또는 두셋의 강대국에 정치적·군사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그들은 EU, OECD, IMF, World Bank, WTO, NATO, 그리고 각종 “동반자 관계” 같은, 강대국들과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동맹에 들어감으로써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확보한다. 그러나 이들 작은 제국주의 국가들은 강대국에 의해 초과착취 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식민지 세계에 대한 초과착취에 참가하여 반식민지들로부터 상당액의 가치를 전유한다.

맑스주의 고전은 제국주의 열강 간에 권력과 정치체제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항상 인정해 왔다. 레닌과 지노비예프는 그들의 유명한 소책자 <<사회주의와 전쟁>>에서 제국주의 시대에는 보다 강하고 보다 앞서 나가는 (선진적인) 제국주의 열강이 있는가 하면, 보다 약하고 보다 뒤떨어진 (낙후된) 제국주의 열강이 있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볼셰비키 당의 그 두 지도자는 이들 강대국 모두 제국주의라는 그들의 결론을 결코 접지 않았다. 아니, 그러한 결론을 확고히 밀고 나갔다.

“영국 자본의 주된 투자 영역은 영국 식민지들인데, 이들 식민지는 아시아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아메리카 (예를 들어 캐나다)에도 매우 광대하게 존재한다. 거액의 자본수출은 여기서 무엇보다 광대한 식민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제국주의한테 식민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프랑스의 자본수출은 주로 유럽에, 그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에 (적어도 100억 프랑) 집중되

어 있다. 그리고 그 자본 투자의 대부분은 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주로 대부 자본, 정부 차관이다. 영국의 식민지 제국주의와 구별해서 프랑스 제국주의는 고리대 제국주의라고 칭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제3의 유형이다. 식민지는 크지 않고, 해외에 투자된 독일 자본은 유럽과 아메리카에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⁷³⁾

요컨대, 세계 자본주의의 불균등성을, 그리고 그와 함께 강대국들 자신들 간의 불균등 발전을 인정하지 않고는 제국주의를 이해할 수 없다. 트로츠키가 불균등성을 “역사 과정의 가장 일반적인 법칙”⁷⁴⁾으로 간주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금융자본을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융합으로 본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금융자본을 부르주아적 의미로 오직 “은행 자본”으로만 이해하는 절충주의적 오류가 각종 중도주의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⁷⁵⁾ 이 같은 오류로 인해 중도주의자들은 가장 강력한 은행시스템 또는 금융시스템을 가진 국가들 (미국 같은)만을 제국주의로 규정한다. 그러나 맑스주의적 의미에서 금융자본은 고도의 독

73) V. 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1916), in: LCW Vol. 22, p. 243. [레닌 <제국주의론>], 레닌전집 63권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이정인 옮김, 아고라, 104쪽]. 같은 책에서 레닌은 제국주의 국가들을 그들의 현 조건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전 방향을 가지고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달리 말하면, 그는 — 중 · 러를 제국주의 열강으로 인정하길 거부하는 친 중 · 러 사회제국주의자들과는 대조적으로 — 그의 시대 동안의 러시아나 일본 같은 신흥 강대국들의 성격과 역동성을 인식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하에서 세력권 · 이익 · 식민지 등을 분할하는 데 있어 분할 참가국들의 국력, 즉 전반적인 경제력 · 재정력 · 군사력 등을 고려하는 것 외에 다른 근거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분할 참가국들의 국력은 불균등하게 변화한다. 자본주의하에서 개개의 기업 · 트러스트 · 산업부문 · 국가 들이 균등하게 발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반세기 전 독일의 자본주의적 국력은 당시 영국과 비교해보면 독일이 비참할 정도로 미미했다. 러시아와 비교할 때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10년이나 20년 후 제국주의 열강의 세력관계가 여전히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인가? 결코 가능하지 않다.” V.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1916), in: LCW 22, p. 295. [레닌 <제국주의론>], 레닌전집 63권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이정인 옮김, 아고라, 197-8쪽]

74) Leon Trotsky: History of the Russian Revolution (1930), Haymarket Books, Chicago 2008, p. 5

75)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문제를 보다 상세히 다루었다. Michael Prö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점화를 특징으로 한다. 그 결과로, 우리는 상승하는 자본주의 시기와 비교하여 중요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힐퍼딩, 레닌, 부하린은 보호무역이나 심지어 단순 무역조차도 자본주의의 독점 단계에서는 그 성격이 변화한 것에 주목했다. 여기서 국가는 점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국가가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는 보호주의로, 이것은 제국주의 국가의 상설 관세, 보조금, 신용 정책을 통해 독점체의 지위를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 밖의 사례로, 신용 지원이나 관세동맹 결성,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한 국가 금융외교가 있다.

결론적으로, 맑스주의자는 어떻게 제국주의 국가를 규정하는가? 우리가 이미 여러 출판물을 통해 발전시켜 온 정식은,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지금도 가장 정확한 정식은 다음과 같다. *제국주의 국가란 무엇보다도 그들의 독점체와 국가기구가 세계질서 속에서 타 국가·민족을 지배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다. 그 결과, 제국주의 국가는 초과착취와 억압에 기초한 그러한 관계로부터 초과이윤을 비롯한 그 밖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이점을 얻는다.*⁷⁶⁾

이와 함께, 반식민지들도 유형별로 구분해야 한다. 명백히 오늘날 페루와 아르헨티나 또는 브라질, 콩고와 이집트, 파키스탄과 터키, 네팔과 태국, 카자흐스탄과 폴란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일부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산업화되어 있다. 일정한 정치적 위상에 도달해 있는 나라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편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집트, 터키, 그리스, 이란, 폴란드, 태국 같은 보다 발달한 또는 *산업화한 반식민지*와,

76) 우리는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이러한 정의가 레닌이 1916년 그의 저작 중 하나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간명한 정의와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제국주의 대국 (즉 모든 민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금융자본에 대한 종속의 그물로 얽어매는 대국들)” (V. I. Lenin: A Caricature of Marxism and Imperialist Economism (1916); in: LCW Vol. 23, p. 34) [레닌 〈맑스주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레닌전집 64권 (“맑스주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154쪽]

다른 한편으로 볼리비아, 페루,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나라들 (남아공을 제외하고), 파키스탄, 아프간, 인도네시아 같은 보다 빈곤한 또는 반(半)산업화된 반식민지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 서로 다른 유형의 반식민지들은 그들 간을 구별하는 요소보다 공유하는 요소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에 대해 트로츠키는 이미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단연 인류의 다수를 포괄하고 있는 식민지·반식민지 나라들 - 그리고 그에 따라 낙후된 나라들 - 은 낙후성의 정도에서 그들 간에 극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유목 생활과 심지어 식인 풍습에서부터 가장 근대적인 산업 문화에까지 이르는 역사적 사다리를 상징한다. 양극단의 결합은 (결합의 정도 차는 있겠지만) 모든 낙후한 나라들의 특징을 이룬다. 그러나 낙후성의 위계 -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해도 괜찮다면 - 는 각개 식민지 나라의 생활에 야만의 요소와 문화의 요소가 각각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는냐에 의해 결정된다. 적도 아프리카는 알제리보다 훨씬 뒤쳐져 있다. 파라과이는 멕시코보다, 아비시니아는 인도나 중국보다 훨씬 뒤쳐져 있다. 모두 공통적으로 제국주의 대도시(메트로폴리스)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조건에서, 그들의 정치적 종속이 공공연한 식민지 노예제의 성격을 띠는 경우 (인도, 적도 아프리카)가 있는가 하면, 국가 독립이라는 허구에 의해 정치적 종속이 은폐되고 있는 경우 (중국, 라틴아메리카)도 있다.”⁷⁷⁾

반식민지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정식을 제시한다. 반식민지 국가란 무엇보다도 그들의 경제와 국가기구가 세계질서 속에서 타 국

77) Leon Trotsky: The Chinese Revolution (Introduction to Harold R. Isaacs, The Tragedy of the Chinese Revolution [국역: 《중국혁명의 비극》 정원석·김명환 공역, 숨쉬는책공방], London 1938); <http://www.marxists.org/archive/trotsky/1938/xx/china.htm>

가· 민족에 의해 지배당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다. 그 결과, 반식민지 국가는 초과착취와 억압에 기초한 그러한 관계를 통해 제국주의 독점체 및 국가에 초과이윤을 비롯한 그 밖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이점을 제공한다.

반식민지 국가에서 제국주의 국가로의 이행이 가능한가? 또 그 역은?

각국의 유형별 구분을 통한 분석은 교조적, 기계적 방식으로가 아니라 맑스주의적, 즉 변증법적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레닌은 사물에 대한 정의는 추상적 교조가 아니라 탄력적 범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코 현상의 모든 연결고리들을 그 완전한 발전 속에서 포괄해낼 수 없는 모든 정의 일반의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가치를 망각해선 안 되며...”⁷⁸⁾

따라서 그 두 범주,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 국가 사이에 만리장성이 놓여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틀렸다.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 종속국이 제국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몇몇 사례들이 있다. 또 그 반대의 사례들도 있다. 결정적으로 불균등·결합 발전 법칙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생겨난다. 이 법칙은 나라마다 다른 생산력 발전 템포와 이들의 상호작용이 다시 어떻게 불안정과 충돌과 전쟁, 그리고 현존 정치적·사회적 관계의 전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태 발전이 구 자본주의 열강의 쇠퇴와 새 자본주의 열강의 부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또한 불균등·결합 발전 법칙으로 총

78) V. 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in: LCW 22, p. 266. [레닌 <<제국주의론>>, 레닌전집 63권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이정인 옮김, 아고라, 144쪽]

분히 설명된다.⁷⁹⁾

레닌은 낙후한 반식민지 나라들이 그들의 계급적 성격을 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자본주의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은 식민지들과 대양 너머의 나라들이다. 후자의 나라들 중에서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 (예를 들어 일본)이 등장하고 있다.”⁸⁰⁾

실로, 그러한 전화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합스부르크 제국의 식민지였지만, 1918년에 이 합스부르크 제국이 와해된 후 하위의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다. 또 남한과 이스라엘도 1990년대 후반에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2000년대 초반과 후반에 각각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다.⁸¹⁾ 반면 포르투갈은 1974년에 식민지를 잃고 난 뒤 40년을 거치는 동안에 제국주의 지위를 상실했다.

79) 우리는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의 출현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신흥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중국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RCIT의 문헌을 보라. 신흥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러시아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5,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Michael Pröbsting: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80) V. 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1916) ; in: LCW Vol. 22, p. 274. [레닌 <제국주의론>], 레닌전집 63권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이정민 옮김, 아고라, 159쪽]

81) 우리는 다음 논문에서 남한이 하위의 제국주의 열강으로 전화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Michael Pröbsting: Der kapitalistische Aufholprozeß in Südkorea und Taiwan; in: Revolutionärer Marxismus Nr. 20 (1996). 이 논문의 압축본이 영어로 나와 있다. “Capitalist Development on South Korea and Taiwan” in: Trotskyist International No. 21 (1997),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capitalism-in-south-korea-taiwan/>. On Israel as a minor imperialist power see Michael Pröbsting: On some Questions of the Zionist Oppression and the Permanent Revolution in Palestine“, in: Revolutionary Communism Nr. 10 (June 2013), p. 29, <http://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permanent-revolution-in-palestine>

“아(亞)제국주의” — 유용한 범주인가?

식민지·반식민지 나라들에 더해 제3의 추가 범주로 “과도기” 국가 또는 “아제국주의” 국가를 설정하는 진보 이론가들이 많이 있다.⁸²⁾ 우리는 <<남반구에 대한 대 강탈>>에서 아제국주의론에 대한 우리의 비판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는 몇몇 결론을 요약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⁸³⁾

당연히도, 국가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반식민지 국가로 (또는 그 역으로) 전화 과정을 겪는다면, 그 국가는 “과도기에” 있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일시적인 전화 과정을 기술하는 데 그 용어가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 제국주의론의 지지자들은 이것을 이행 과정을 기술하는 범주로 이해하지 않고, 별개의 독립적인 범주로 본다.

자본주의는 경제적·정치적 확대 및 세계시장의 형성을 통해 세계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는다. 이 과정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시작 때부터 진행되어 왔고, 제국주의 시대에 와서 엄청나게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지배적 제국주의 열강에 모든 민족이 경제적·정치적으로 더욱 더 결박되며 이로부터 어느 민족도 빠져나갈 수 없다. 이 같은 긴밀한 관계는 자동으로

82)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Ruy Mauro Marini: Brazilian Subimperialism, in: Monthly Review Vol. 23, No.9 (February 1972), pp. 14–24; Mário Costa de Paiva Guimarães Júnior, Tiago Camarinha Lopes: Trotsky's Law of Uneven and Combined Development in Marini's Dialectics of Dependency, Fourth Annual Conference in Political Economy, July 9–11, 2013, The Hague, The Netherlands; Tiago Camarinha Lopes: Marx and Marini on Absolute and Relative Surplus Value, in: International Critical Thought, Vol. 3, Issue 2 (2013); 현재는 Patrick Bond와 Ana Garcia가 아제국주의론의 가장 저명한 지지자들이다. 다음을 보라. Patrick Bond and Ana Garcia (Eds.): BRICS – An Anti-Capitalist Critique, Pluto Press, London 2015; Patrick Bond: Towards a Broader Theory of Imperialism, 2018–04–19, <http://roape.net/2018/04/18/towards-a-broader-theory-of-imperialism/>; Patrick Bond: BRICS and the tendency to sub-imperialism, 2014–04–10, Pambazuka, Issue 673, <http://www.pambazuka.org/en/category/features/91303>

83)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pp. 220–228, <http://www.great-robbery-of-the-south.net/great-robbery-of-south-online/download-chapters-1/chapter9/>

착취 및 초과착취 메커니즘을 낳고, 그것을 수정, 재생산한다. 달리 말하면, 자본주의 하에서 - 그리고 훨씬 더 제국주의 하에서 - 모든 민족은 초과착취 과정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충분히 강력하여 억압 민족이 되거나, 아니면 인류의 다수 - 피억압 민족 - 진영으로 내몰리거나 둘 중의 하나다. 중간의 “제 3 진영”은 없다.

물론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 생산력 발전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반식민지 나라들 사이에도 그러하다. 이는 민족들 간의 불균등한 발전 동역학을 전제할 때 당연하다. 따라서 보다 큰 제국주의 나라와 보다 작은 제국주의 나라가 있고, 이들 간에는 대등하지 않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보다 작은 제국주의 나라가 보다 큰 제국주의 나라에게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는 확실히 대등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쪽이 한 쪽을 체계적으로 착취하지도 않는다. 동일한 관계가 독일과 오스트리아 간에도, 또는 프랑스와 벨기에 · 룩셈부르크 · 스위스 간에도 해당된다. 그들 간에는 역시 대등하지 않지만, 모두 그들은 제국주의 민족이다. 왜? 그들은 남반구로부터 체계적으로 가치를 착취, 이전하는 유의미한 독점자본을 발전 시켜왔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국제 제국주의 질서의 일부로서, 이 질서로부터 이윤을 획득하고 각종 수단으로 그 질서를 방어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일정한 지역적 영향력을 가진 발달한 반식민지 (예를 들어 브라질, 인도, 그리스)가 있고, 그렇지 못한 반식민지가 있다. 보다 강한 반식민지가 있고, 보다 약한 반식민지가 있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로서 우리는 가치법칙 및 나라들 사이의 가치 이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또 이와 연결된 정치체제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명백한 것은 산업화한 반식민지들도 제국주의 독점체에 의해 지배당하고 초과착취 당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아제국주의”

범주는 맑스주의적 분석 도구의 일부로 유용치 않다고 본다.

끝으로 우리는 객관적으로 아제국주의론은 1920년대에 있었던 비슷한 시도의 재탕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우리가 다른 데서 지적했듯이, 일본의 개종한 맑스주의자 다카하시 가메키치는 1920년대에 일본이 “쁘띠 제국주의”라는 악명 높은 이론을 발전시켰다. 다카하시는 금융자본과 자본수출 면에서 일본이 뒤떨어져 있으므로 일본 자본주의는 “아직 제국주의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로부터 그는 일본의 사회주의자들은 주적을 국내 부르주아지가 아니라 서방 열강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일본 자본주의를 국제적으로 본다면, 실제로 제국주의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잘해야 일본은 대 부르주아에 대해서 뿌띠 부르주아와 같은 그러한 제국주의 나라다. 우리가 뿌띠 부르주아라는 용어를 빌어 뿌띠 제국주의라는 범주를 설정한다면, 일본은 뿌띠 제국주의 나라일 따름이다. 따라서 뿌띠 부르주아지의 이해가 프롤레타리아트의 이해와 일치하며 대 부르주아지의 이해와는 같지 않듯이, 뿌띠 제국주의 나라의 이해는 대 제국주의 나라의 이해보다 제국주의에 종속된 나라들의 이해와 더 일치한다.”

다카하시는 심지어 일본도 종속국이라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일본도] 제국주의에 종속된 나라의 지위에 있다.... 그로 인해 일본의 국제적 차원에서의 계급적 역할은 영국과 미국 같은 제국주의 나라의 계급적 역할과 일치하기 보다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그 밖의 제국주의에 종속된 나라들의 계급적 역할과 훨씬 더 일치한다.”⁸⁴⁾

84) 모든 인용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Germaine A. Hoston: *Marxism and the Crisis of Development in Prewar Jap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86, pp. 80-81

객관적으로 다카하시의 일본 지배계급의 팽창주의적 열망을 정당화하는 사회제국주의 이론을 공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일본공산당은 그의 “쁘띠 제국주의”론은 파산한 이론이라고 올바르게 공격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 많은 계승자들이 러시아·중국 제국주의를 “사소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즉 정당화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피억압 민족들을 이들 중·러 열강의 편에 서게 하기 위해 다카하시의 이론을 – 필시 알지도 못한 채 – 리바이벌하고 있다.

5장. 중국 · 러시아 :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

이러한 역사적인 기존 제국주의 열강의 쇠퇴와 그로 인한 대대적인 경제적 이동은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의 출현 및 (그와 뗄 수 없이 연결된 것으로서) 강대국 간 패권쟁투의 격화를 가져왔다.

생산과 무역

우리가 여러 연구 문서들을 통해 증명했듯이, 중국은 제국주의 패권국 미국에 대한 최대의 도전자로 떠올랐다.⁸⁵⁾ 자본주의 가치 생산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세계 산업생산을 살펴보면, 그 중 미국이 점하는 몫은 25.1%(2000년)에

85) 신홍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 우리 웹사이트에 있는 별도의 하위 섹션에 언급되어 있는 문헌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특히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hina-India Conflict: Its Causes and Consequences. What are the background and the nature of the tensions between China and India in the Sikkim border region? What should be the tactical conclusions for Socialists and Activists of the Liberation Movements? 18 August 2017, Revolutionary Communism No. 7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ndia-rivalry/>; Michael Pröbsting: The China Question and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December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eply-to-csr-pco-on-china/>; Michael Pröbsting: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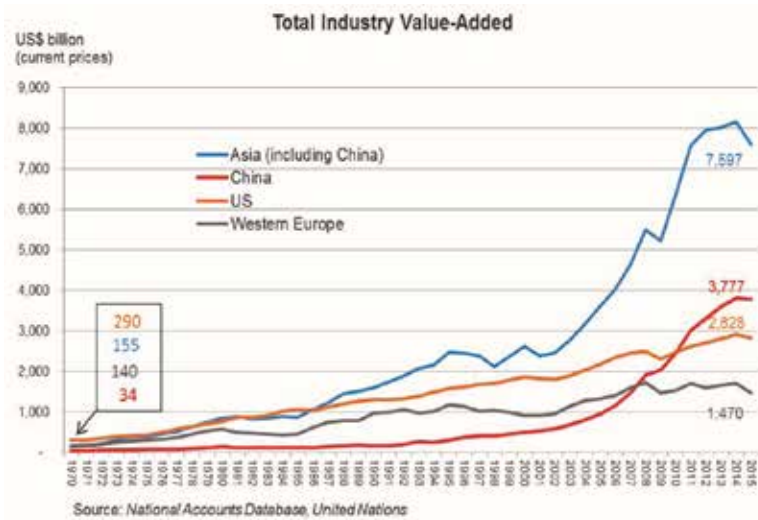
서 17.7%(2015년)로 하락했고, 서유럽도 같은 기간 12.1%에서 9.2%로 하락한 반면,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6.5%에서 23.6%로 증가했다. (그림 15를 보라). 마찬가지로 세계무역에서도 미국의 점유율은 15.1%(2001년)에서 11.4%(2016년)로 하락한 데 반해 중국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에 4.0%에서 11.5%로 상승했다. (그림 16을 보라).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가장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 중국의 상품무역 점유율은 11.5%인 반면 미국은 11.1%를 기록했다.⁸⁶⁾

다음의 표5와 6에서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세계 상품수출입의 장기적 추이에 관한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수치들은 무엇보다도 기존 제국주의 열강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 - 특히 금세기 초 이래의 - 을 반영하고 있다. 이전 스탈린주의 국가들에서 자본주의의 복고 이래 (제시된 수치들은 1993년 수치다), 세계 상품수출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12.6%에서 2017년에 9.0%로 하락했다. 그 밖의 서방 제국들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전개되어 왔다. (일본이 9.8%에서 4.1%, 독일 10.3%에서 8.4%, 프랑스 6.0%에서 1%, 영국 4.9%에서 2.6%). 같은 기간에 중국의 점유율은 2.5%에서 13.2%로, 러시아는 1.7%에서 3.0%로 상승했다. 세계 상품수입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86) WTO: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18, p. 23

그림 15. 세계 산업생산, 미국 · 서유럽 · 중국 1970-2015년 (현재 가격)⁸⁷⁾



87)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Changing Global Production Landscape and Asia's Flourishing Supply Chain, 3 October 2017, p.1

그림 16. 미·중의 세계무역 점유율, 2001-2016년⁸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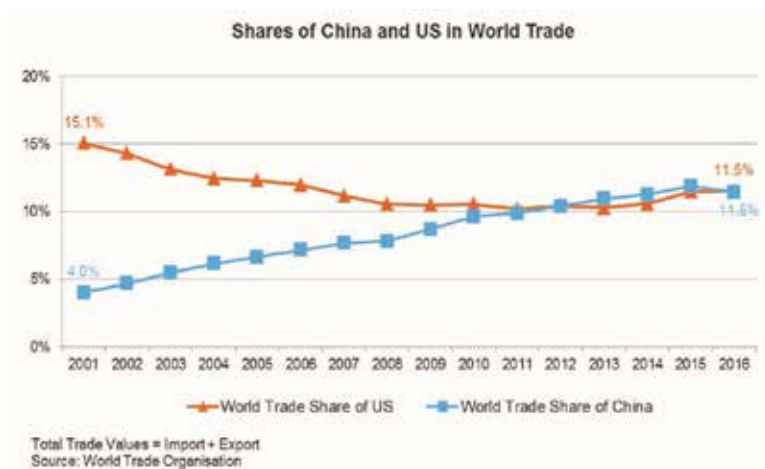


표 5. 나라별 세계 상품수출 점유율, 1953-2017년 (백분율)⁸⁹⁾

나라	1953	1963	1973	1983	1993	2003	2017
미국	14.6	14.3	12.2	11.2	12.6	9.8	9.0
독일	5.3	9.3	11.7	9.2	10.3	10.2	8.4
프랑스	4.8	5.2	6.3	5.2	6.0	5.3	3.1
영국	9.0	7.8	5.1	5.0	4.9	4.1	2.6
중국	1.2	1.3	1.0	1.2	2.5	5.9	13.2
일본	1.5	3.5	6.4	8.0	9.8	6.4	4.1
인도	1.3	1.0	0.5	0.5	0.6	0.8	1.7
CIS [독립국가연합]							
(러시아 & 구 소련)	-	-	-	-	1.7	2.6	3.0
남아공	1.6	1.5	1.0	1.0	0.7	0.5	0.5

88)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Changing Global Production Landscape and Asia's Flourishing Supply Chain, 3 October 2017, p.4

89) WTO: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18, p. 122. 다음 사실에도 주목하라. 미국과 영국은 수출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한다. 즉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확실히 가장 썩은, 기생적인 구래의 제국주의 열강이다. 미국이 세계 최대 채무국이 되었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표 6. 나라별 세계 상품수입 점유율, 1953-2017년 (백분율)⁹⁰⁾

나라	1953	1963	1973	1983	1993	2003	2017
미국	13.9	11.4	12.4	14.3	15.9	16.9	13.7
독일	4.5	8.0	9.2	8.1	9.0	7.9	6.6
영국	11.0	8.5	6.5	5.3	5.5	5.2	3.7
프랑스	4.9	5.3	6.4	5.6	5.7	5.2	3.6
중국	1.6	0.9	0.9	1.1	2.7	5.4	10.5
일본	2.8	4.1	6.5	6.7	6.4	5.0	3.8
인도	1.4	1.5	0.5	0.7	0.6	0.9	2.5
CIS [독립국가연합]							
(러시아 & 구 소련)	-	-	-	-	1.5	1.7	2.3
남아공	1.5	1.1	0.9	0.8	0.5	0.5	0.6

독점체와 억만장자들

이와 같이 구 서방 제국주의 열강이 쇠퇴하고 중국이 새로운 도전자로 떠오른 상황은 단지 자본주의적 가치 생산 및 무역에서만이 아니다. 세계 상위 자본주의 독점체의 국가별 분포에서도 같은 상황을 볼 수 있다. 포브스 글로벌 2000(Forbes Global 2000) 리스트 - 세계 상위 2000대 기업 순위 - 의 2003년 치를 2017년 치와 비교해보면, 미국은 여전히 가장 많은 상위 독점체가 포진해 있는 국가지만, 그 점유율은 776개 기업(38.8%)에서 565개 기업(28.2%)으로 상당히 낮아졌다.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극적으로 증가하여 이제 강대국 중 넘버 투가 되었다. (표7을 보라).

90) WTO: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18, p. 123

표 7. 세계 2000대 기업의 나라별 분포, 2003년과 2017년 (Forbes Global 2000 List)⁹¹⁾

	2003		2017	
	기업 수	점유율	기업 수	점유율
미국	776	38.8%	565	28.2%
중국	13	0.6%	263	13.1%
일본	331	16.5%	229	11.4%
영국	132	6.6%	91	4.5%
프랑스	67	3.3%	59	2.9%
캐나다	50	2.5%	58	2.9%
독일	64	3.2%	51	2.5%

2000년과 2016년 세계 상위 5000대 기업의 지역별 분포 (시가총액 기준)를 비교해 볼 때도 같은 그림이 나온다. (표 8을 보라). 5000이라는 더 많은 수의 독점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 통계는 제국주의 경쟁국들 간의 역관계 상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를 훨씬 더 잘 드러내준다. 이 표에서 제국주의 열강으로서 중국의 부상이 다시 확인된다. 2000년에 이 리스트에서 중국의 기업 수는 402개(8%)였다. 2016년에는 이 숫자가 이미 1,085개(21.7%)로 늘어난다. 반면 북미 지역 (미국, 캐나다)은 1,958개(39.2%)에서 1519개(30.4)로, 유럽은 346개(26.9%)에서 876개(17.5%)로, 일본은 659개(13.2%)에서 437개(8.7%)로 하락한다.

표 8. 세계 상위 5000대 기업의 지역별 분포 2000년과 2016년⁹²⁾

	북미	유럽	일본	중국	기타
2000	1956	1346	659	402	635
2016	1519	876	437	1085	1083

91) Forbes Global 2000 List (2017), <https://www.forbes.com/global2000/list/45/#tab:overall>

92) Tomohiro Omura: The Maturity of Emerging Economies and New Developments in the Global Economy, Mitsui Global Strategic Studies Institute Monthly Report, April 2017, p. 4

UNCTAD가 발표한 또 하나의 연구를 보면, 최대 글로벌 독점체들 가운데 중국 독점체 수의 증가가 확인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00대 초국적 기업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지난 20년간 대대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이 2000대 독점체의 모든 이윤 가운데 17%가 중국 독점체들의 이윤이다. UNCTAD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흥미롭게도 상위 초국적 기업 이윤 중 중국의 금융 초국적 기업 몫이 상위 초국적 기업 전체 이윤의 10% 이상으로 급속히 증대하여 2015년에는 미국의 금융 초국적 기업 몫을 넘어섰다.*”⁹³⁾

이 수치들은 중국의 굴기 (그리고 서방의 쇠퇴)가 생산과 무역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다. 나중에 보겠지만, 중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인하는 각종 수정주의자들은 여전히 중국은 세계의 작업대 [공장]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논설과 책자 속에서 논증했듯이, 그리고 위 수치들이 확인하고 있듯이, “세계의 작업대”라는 것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적어도 십년 전 (2009년경)부터는 확실히 아니다! 중국은 전 세계 자본주의적 가치 생산의 상당 몫을 단지 생산하고 교역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몫을 소유하기도 한다. 이 점은 세계 상위 독점체 중 중국 독점체의 상당한 비중과 중국 독점체의 이윤 (공업 부문과 금융 부문 모두에서의 이윤)이 말해준다. 달리 말하면, 중국 기업들 (그 기업들이 형식에서 국유기업이라 하더라도)은 모종의 “사회주의적” 거대 기업이 아니라, 의심할 바 없이 자본주의적 독점체다.

또 하나의 예는, 중국의 “사회주의”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억만장자 수의 증가다. 우리가 다른 연구들을 통해 보여주었듯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또는 두 번째로 많은 - 공표된 순위 리스트 가운데 어느

93) UNCTAD: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18, New York and Geneva, 2018, p. 58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 – 억만장자 보유국이 되었다. 후룬 글로벌 부자 리스트 (Hurun Global Rich List) 2017년 호에 의하면, 609명의 억만장자가 중국 시민이고, 552명의 억만장자가 미국 시민이다. 이 둘을 합한 숫자가 전 세계 억만장자의 절반에 해당한다.⁹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포브스 억만장자 리스트(Forbes Billionaire List)는 미국이 여전히 앞서 있다고 보고 있다. (‘후룬(胡潤) 리포트’는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포브스에 의하면, “미국은 1년 전 540 명보다 늘어난 565명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여전히 억만장자 숫자가 많다. 중국이 319명으로 추격하고 있다. (추가로 홍콩이 67명, 마카오가 1명이 있다). 독일이 세 번째로 많은 114명, 인도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서 101명으로 4위다.”⁹⁵⁾ 세부 수치는 보고서에 따라 다르지만, 입수 가능한 모든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추세는 같다. 중국 독점자본가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2018년 10월에 스위스 은행 UBS가 (영국의 다국적 회계감사기업 PwC와 공동으로) 발간한 억만장자 인사이트 (Billionaires Insights) 최신판에서도 매우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⁹⁶⁾ 이 보고에 의하면, 세계에 2,158명의 억만장자가 있는데 이 중 373명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에 살고 있다. 이 수치는 홍콩과 마카오 (둘 다 중국 국가의 일부다), 그리고 대만에 살고 있는 중국인 억만장자들의 숫자를 보태면 475명으로 늘어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글로벌 슈

94) Hurun Global Rich List 2017, <http://www.hurun.net/EN/HuList/Index?num=8407ACFCBC85>; 다음도 보라. Zhu Wenqian: Beijing listed as billionaire capital of world once again, China Daily, 2017-03-08, http://www.chinadaily.com.cn/business/2017-03/08/content_28470987.htm; Michael Pröbsting: China's "Socialist" Billionaires, 16.11.2015, <http://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s-billionaires>

95) Luisa Kröll and Kerry A. Dolan: Forbes 2017 Billionaires List: Meet The Richest People On The Planet, 20.3.2017, <https://www.forbes.com/sites/kerryadolan/2017/03/20/forbes-2017-billionaireslist-meet-the-richest-people-on-theplanet/#2084cc6362ff>; 다음도 보라. <https://www.forbes.com/billionaires/list/#version:static>

96) UBS/PwC: New visionaries and the Chinese Century, Billionaires insights 2018; 결과를 요약한 발행인 보도자료를 다음에서 볼 수 있다. UBS/PwC Billionaires Report 2018: Total billionaire wealth grows 19 percent to a record USD 8,9 trillion, 26 October 2018, <https://www.ubs.com/global/en/ubs-news/r-news-display-ndp/en-20181026-billionaires-report-2018.html>

퍼리치 – 즉 독점자본가들 – 의 약 5분의 1이 중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미국에 살고 있는 억만장자 수(585명)보다 크게 밑도는 것이 아니며, 일본보다 높은 수치며, 서유럽의 모든 제국주의 열강의 수치를 합친 것(414명)보다도 높은 수치다. 더욱이 중국의 억만장자들은 2017년에 모든 나라의 억만장자들 중 가장 빠른 부의 증가(+39%)를 경험했다. 다른 나라의 억만장자들은 증가율이 훨씬 더 낮았다 (세계 평균 증가율이 12%였다). 중국은 또 신흥 억만장자들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다. 2017년에 106명이 억만장자가 되었다. 대략 매 3일마다 한 명의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하는 셈이다.⁹⁷⁾

중국 자본가계급이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경험한 것은 명백하다. 위의 UBS/PwC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12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에 단지 16명의 억만장자만이 있었다. 오늘날, ‘중국의 세기가 진행됨에 따라, 억만장자 수는 373명으로 전 세계 총수의 5분의 1에 육박한다.’”*

중국 자본주의가 단지 한 줌의 슈퍼리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한 중·소규모 자본가 층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인도나 사우디아라비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9에서 보듯이, 중국은 모든 범주의 백만장자들에서 넘버 투로서 단지 미국에만 뒤질 뿐,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여타 모든 제국주의 대국들보다 앞서 있다.

97) 이 보도에 관한 우리의 논설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China: A Paradise for Billionaires, The latest UBS/PwC Report about the Global Super-Rich Delivers another Crushing Blow to the Stalinist Myth of China's "Socialism", 27.10.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is-a-paradise-for-billionaires/>;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lobal Super-Rich Get Even Richer, UBS/PwC Publish their latest Report about the World's Billionaires, 27.10.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global-super-rich-get-even-richer/>

표 9. 나라별 리치(Rich) 및 슈퍼리치 수, 2018년⁹⁸⁾

나라	부(富) 구간 (단위는 미화 달러)					
	1백-5백만	5백만 - 1천만	1천 - 5천만	5천만 - 1억	1억 - 5억	5억+m
미국	14,520,885명	1,855,679	902,736	50,144	19,253	1,144
중국	3,094,768	235,858	132,701	10,113	5,690	708
일본	2,627,845	125,377	51,947	2,478	1,027	71
영국	2,247,529	124,244	56,535	3,125	1,422	117
독일	1,985,627	127,157	63,678	4,078	2,042	203
프랑스	2,002,967	99,252	42,117	2,087	886	64

중국의 굴기를 측정하는 또 하나의 지표는 중국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순 사회적 부다. 이것은 비금융자산과 순 해외자산의 총액이다. 중국 국가금융개발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의 순 사회적 부가 2016년 말 437조 위안(63조66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계산했다. 이는 미국의 70% 수준이지만, 여타 모든 대국들보다는 높은 수준이다.⁹⁹⁾

자본수출과 군사비 지출

다음 두 개의 표는 중국과 러시아 (중국보다는 낮은 수준으로)가 주요 외국 인투자국이 되고 있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표 10에서는 대국들의 자본수출

98) Credit Suisse Research Institute: Global Wealth Databook 2018, October 2018, p. 125

99) Xie Jun: China's social net wealth second highest, while imbalances need attention, Global Times, 2018/12/27 <http://www.globaltimes.cn/content/1133892.shtml>

에 관한 최근 수치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중국은 2017년에 외국인직접투자 유출(Foreign Direct Investment Outflows)에서 이미 3위국이 되어 모든 유럽 열강을 앞질렀다. 러시아 수치는 보다 낮아서 독일의 FDI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친다.

표 10. 나라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출, 2017년 (단위는 미화 백만 달러)¹⁰⁰⁾

나라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출
총액	1,429,972	100%
미국	342,269	23.9%
일본	160,449	11.2%
영국	99,614	7%
독일	82,336	5.6%
프랑스	58,116	4.1%
중국	124,630	8.7%
러시아	36,032	2.5%

FDI 유출 누적 잔액 (2017년까지)을 보면 특히 중국의 급속한 따라잡기 과정이 흥미롭다. 약 10년 전에서야 비로소 제국주의 열강이 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FDI 유출 잔액은 이미 미국을 제외한 여타 모든 대국들과 대등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을 보라).

표 11. 나라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출 잔액, 2017년 (단위는 미화 백만 달러)¹⁰¹⁾

나라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출
총액	30,837,927	100%
미국	7,799,045	25.3%
일본	1,519,983	4.9%
영국	1,531,683	5%
독일	1,607,380	5.2%

100)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pp. 184–187

101)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pp. 188–191

프랑스	1,451,663	4.7%
중국	1,482,020	4.8%
러시아	382,278	1.2%

신기술 투자 분야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볼 수 있다. 그림 17에서 보듯이, 미국은 연구·개발(R&D)비 지출 면에서도 여전히 세계 1위국이다. 그러나 중국이 급속히 따라잡고 있다. 이 그림에서도 나타나지만, 중국은 5개년 계획으로 2011-2015년 사이에 연구 디자인 지출을 GDP의 2.1%에서 2.5%로 늘리려 했다. 그 결과로, 중국은 지난 10년 사이에 2위국이 되었다.

러시아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그 군사적·정치적 비중을 놓고 볼 때 러시아는 여전히 세계 정치무대에서 주요 플레이어다. 가스프롬이나 로스네프트 같은 굴지의 독점체 이외에도 거대 군산복합체가 러시아를 여타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을 쫓히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군사 강국의 지위에 올려놓고 있다.(표 12 및 13을 보라).¹⁰²⁾

102)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러시아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 우리 웹사이트에 있는 별도 하위 섹션에 언급된 문헌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특히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Michael Pröbsting: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Special Issue of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March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그림 17. 연구개발비 지출 상위 10개국, 2000-2015년¹⁰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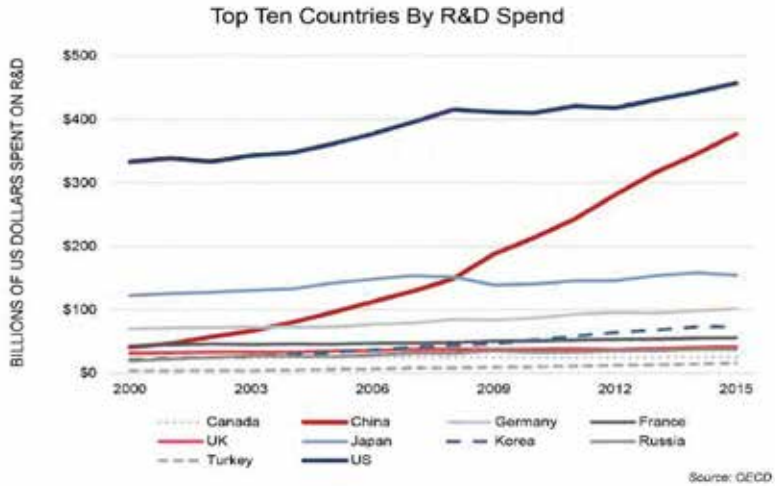


표 12. 세계 핵 무력, 2018년¹⁰⁴⁾

나라	배치 핵탄두	기타 핵탄두	총합
미국	1,750	4,700	6,450
러시아	1,600	5,250	6,850
프랑스	280	20	300
중국	-	280	280
영국	120	95	215

103) Pentagon: Assessing and Strengthening the Manufacturing and Defense Industrial Base and Supply Chain Resiliency of the United States, Report to President Donald J. Trump by the Interagency Task Force in Fulfillment of Executive Order 13806, September 2018, p. 39

104) SIPRI Yearbook 2018,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p. 236

표 13.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2016년¹⁰⁵⁾

수출국	수출 점유율 (%)
1 미국	33
2 러시아	23
3 중국	6.2
4 프랑스	6.0
5 독일	5.6
6 영국	4.6
7 스페인	2.8
8 이탈리아	2.7
9 우크라이나	2.6
10 이스라엘	2.3

더욱이 러시아 국가는 상대적으로 작은 액수의 대외부채만 있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¹⁰⁶⁾ 반면 러시아의 기업 부채는 훨씬 더 액수가 커서 현 시점에서 총 대외부채는 GDP의 약 30%다. 그러나 제국주의 국가 간 패권쟁투가 격화함에 따라 러시아 기업은 부채 부담을 줄이고자 지분 매각에 나서야 했다. 그 결과로 2018년에 약 1,300억 달러의 기록적인 부채 상황이 있었다.¹⁰⁷⁾ 이 같은 높은 외화 부채는 러시아로 하여금 외화 획득을 위한 상품수출에 집중하도록 몰아갔다. 그럼에도 높은 수준의 부채 상황 때문에 자동으로 러시아가 “반식민지”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차르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존재했는데, 당시 러시아 경제에서 프랑스 은행과 독일 은행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5) SIPRI Yearbook 2017 (Summary), p. 15

106) 다음을 보라. Russia Total External Debt, <https://tradingeconomics.com/russia/external-debt>

107) 다음을 보라. ING: Russia intensifies net foreign debt redemption in 3Q, 11.10.2018, <https://think.ing.com/snaps/russia-intensifies-foreign-debt-redemption-in-3q/>

그럼에도 차르 러시아의 군사기구와 식민지 팽창은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직접투자 증가와 결합하여 러시아에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여하였다.

오늘, 현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야망은 구 제국의 야망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베네수엘라¹⁰⁸⁾와 쿠바¹⁰⁹⁾ 같은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또 중동의 시리아, 리비아, 이란, 이집트에서도 그 입지를 넓히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러시아는 이미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UN “평화유지”군을 배치했다.¹¹⁰⁾ 또 나이지리아에서는 러시아 금융자본이 입지를 다지고 있다.¹¹¹⁾ 러시아 정부는 자신의 대외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수단 – 군사 원조, 차관, 직접투자 등등 – 을 동원하고 있다.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 상부구조를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보통 경제주의 성향의 사이비 맑스주의자들은 토대와 상부구조 간의 관계에 대한 단선적 해석을 내리고 정치를 항상 경제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앙겔스는 “상부구조의 상대적 독자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경제는 오직 “최종적으로”만 규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¹¹²⁾ 따라서 부르주아지의 정치 행동은 때때

108) 다음을 보라. Anthony Faiola and Karen DeYoung: In Venezuela, Russia pockets key energy assets in exchange for cash bailouts, Washington Post, December 24, 2018,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in-venezuela-russia-pockets-key-energy-assets-in-exchange-for-cash-bailouts/2018/12/20/da458db6-f403-11e8-80d0-f7e1948d55f4_story.html?noredirect=on&utm_term=.4c57edeb1009

109) 다음을 보라. Russia to develop production facilities in Cuba, 21 Jun, 2016, Russia Today, <https://www.rt.com/business/347586-russia-cuba-facilities-development/>

110) 다음을 보라. South China Morning Post: How Russia is boosting its role in Africa with weapons investment and ‘instructors’, 14 August, 2018, <https://www.scmp.com/news/world/africa/article/2159622/how-russia-boosting-its-role-africa-weapons-investment-and>

111) 다음을 보라. Financial Times: Fortunes of Nigeria’s banks tied to the oil price, 20.11.2018, <https://www.ft.com/content/370057c8-c71f-11e8-86e6-19f5b7134d1c>

112) 다음을 보라. “유물론적 역사관에 따르면, 역사의 규정 요인은 최종적으로는 현실 생활의 생산·재생산입니다. 맑스도 나도 이 이상의 것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경제적 요인이 유일한 규정 요인이라고 왜곡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명제를 의미 없는, 추상적이고 얼토당토않은 문구로 바꿔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토대이지만, 그러나 상부구조의 다양한 요인들 – 계급투쟁의 정치적 형태들과 그

로 경제 영역에서의 변화와 성취에 앞서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가 이러한 경우다. 러시아 국가의 정치 행동과 이어서 중동에서의 그 대외정책을 살펴보면, 러시아 국가의 성공적인 시리아 개입이 어떻게 러시아 독점체가 그 지역에서 일급의 지위를 차지하는 상황을 만들어주었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로사톰(러시아의 세계 최대 원전 수출 기업)은 이집트 및 터키와 일련의 딜을 성사시켰고, 러시아 군산복합체는 여러 국가들한테서 새로운 수주를 따냈다. 또 사우디와 이스라엘과 같은 전통적인 미 동맹국들과의 모종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열고 있다.

결과물들(어렵게 쟁취한 투쟁 끝에 승리한 계급이 수립한 헌법 등의 법적 형태들, 그리고 심지어는 참가자들의 뇌에 투영된 이 모든 실제 투쟁의 반사작용으로서 정치적, 법적, 철학적 이론들과 종교적 관념들, 나아가 이것들이 체계적인 교리로 한층 더 발전한 것들) —,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 투쟁들의 행로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많은 경우 그 형태를 대부분 규정합니다. 이 모든 요인들 간에는, 끝없는 우연들의 연쇄(즉 서로 간의 내적 연관이 너무 멀어서, 또는 증명이 불가능하여 우리가 소홀히 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사물과 사건들의 끝없는 연쇄)를 통해 최종적으로 경제적 운동이 스스로를 관찰하는 상호작용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어진 역사적 시기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1차방정식의 해결보다도 쉬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역사를 만들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주 확실한 전제들과 조건들 하에서 만듭니다. 이 전제들과 조건들 중에 경제적인 것 —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 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것 등등도 있습니다.” (Friedrich Engels: Letter to Joseph Bloch (1890); in: MECW 49, pp. 34–35)

6장. 제국주의 간 패권쟁투 격화와 세계무역전쟁

역사적인 자본주의 위기와 강대국 간 역관계의 대변동을 전제할 때 제국주의 국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트로츠키는 혁명 조직이 다가오는 제국주의 전쟁에 대해 정치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관계 및 계급 간 관계에서의 정치적 과정과 모순, 변화를 주의 깊게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늘 강조했다.

“성공의 첫 번째 전제는 당 기간활동가들이 제국주의 전쟁의 모든 조건들 및 전쟁에 수반되는 모든 정치적 과정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 초미의 문제에서 스스로를 일반적 문구와 추상적 슬로건에 가두는 당을 보면 화가 난다! 피 터지는 사건들이 그 당의 머리 위로 떨어져 머리통을 박살내고 말 것이다.”¹¹³⁾

강대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이 시기에 특히 이러한 충고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국주의 세계체제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의 합법칙성을 이해해야 한다. 유달리 배외주의적인 (그리고 별나게 기이한) 트럼프 정부의 출현은 역사의 불쾌한 농담이 아니라 (종종 그렇게 보일지라도), 역사적 필연성의 표현이

113) Leon Trotsky: War and the Fourth International (1934), in: Writings of Leon Trotsky, 1933-34, p. 324

다. 객관적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그 패권적 지위의 쇠퇴를 저지하고 되돌려놓으려는 미 제국주의의 필사적인 시도를 반영한다.¹¹⁴⁾ 마찬가지로 트럼프라는 기괴한 인물은 미국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상징한다.¹¹⁵⁾

이러한 강대국 패권쟁투의 대대적 가속화는 확전되고 있는 세계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로¹¹⁶⁾,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으로¹¹⁷⁾,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¹¹⁸⁾ 및 양측 정치가들 및 군부의 각종 무력 위협 성명

11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d Almedina Gunić: How the Pentagon Views the World Situation, A New Study by the US Military Confirms Marxists' Analysis of the Current Historic Period, 25 July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entagon-study/>

115) 트럼프 정부에 대한 문헌은 이미 무수히 존재한다. 우리는 미국의 사회주의자 John Reimann의 분석의 모든 측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웹사이트에서 그가 발표한 많은 글들은 통찰력이 있다. <https://oaklandsocialist.com/>.

11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Trump threatens to withdraw from INF Treaty: No to a New Imperialist Arms Race! The Acceleration of Rivalry between the Great Powers Increases the Risks of World War III, 25 Octo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rump-threatens-to-withdraw-from-inf-treaty/>

11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Klare, Is a War With China on the Horizon? June 19, 2018, http://www.tomdispatch.com/post/176438/tomgram%3A_michael_klare%2C_is_a_war_with_china_on_the_horizon/#more; Jane Perlez: Xi Jinping Extends Power, and China Braces for a New Cold War, 27 February 2018 NYT, <https://www.nytimes.com/2018/02/27/world/asia/xi-jinping-china-new-cold-war.html>; James Rein: Is a US-China war in Asia inevitable? 2018-10-30 <https://www.aljazeera.com/news/2018/10/china-war-asia-inevitable-181029195111603.html> 이러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미중 간 갈등 때문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영유권 주장 강화 때문이기도 하다. 다음을 보라. Justin McCurry: Japan to get first aircraft carrier since second world war amid China concerns, 29 Nov 2018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nov/29/japan-to-get-first-aircraft-carrier-since-second-world-war-amid-china-concerns>; U.S. to blame if any South China Sea clash: Chinese researcher, January 9, 2019,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usa-military/u-s-to-blame-if-any-south-china-sea-clash-chinese-researcher-idUSKCN1P31CK>

11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Peter Osborne: How US sanctions on Iran could herald a profound global power shift, 2 November 2018 <https://www.middleeasteye.net/columns/how-us-sanctions-iran-could-herald-profound-global-power-shift-538116542>; RCIT의 입장은, 다음을 보라. Warmongering in the Middle East: Down with all Imperialist Great Powers and Capitalist Dictatorships! Joint Statement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endency (RCIT), Alkebulan School of Black Studies (Kenya), Pacesetters Movement (Nigeria), Pan-African Consciousness Renaissance (Nigeria), Marxist Group 'Class Politics' (Russia), and Sinif Savasi (Turkey), 13 Ma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joint-statement-warmongering-in-the-middle-east/>; Yossi Schwartz: Israel's Attack on Iranian Forces in Syria, 14.5.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israel-s-attack-on-iranian-forces-in-syria/>; Michael Pröbsting: The Mad Man plays with fire, again, A Commentary on Trump's Decision to Pull the U.S. out of the Iran Nuclear Deal, 9 Ma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trump-pulls-u-s-out-of-iran-nuclear-deal/>

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 냉전의 시작

몇 가지 최근 과거 사례를 들어보겠다. 퇴역한 전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 벤 하시스 중장은 바르샤바 안보 포럼에서 “15년 내 우리가 중국과 전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¹¹⁹⁾ 영국 외무장관 제리미 헌트는 이란 방문 중에, 작은 사건 하나가 중동에서 1차 세계대전 같은 대재앙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¹²⁰⁾ 헨리 폴슨 전 미 재무장관은 최근 미·중 세계 양대 경제국 사이에 대결이 심화하면서 세계경제에 “철의 장막”이 드리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¹²¹⁾ 중국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군 지휘관들에게 남중국 해와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심화하는 가운데 “군은 전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군사 투쟁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¹²²⁾ 존 볼턴 미 국가안보 보좌관은 “미국의 라이벌인 중국과 러시아가 아프리카 전역에서 금융 및 정치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¹²³⁾

119) The Associated Press: Retired US General Says War With China Likely in 15 Years, Oct. 24, 2018 <https://www.nytimes.com/aponline/2018/10/24/world/europe/ap-eu-poland-us-china.html>

120) UK foreign secretary warns of ‘First World War risk’ in Middle East, 20 November 2018 <https://www.middleeasteye.net/news/britains-hunt-warns-another-first-world-war-middle-east-2121358881>

121) Gordon Watts: Hope springs eternal for a China-US trade deal, November 9, 2018 <http://www.atimes.com/article/hope-springs-eternal-for-a-china-us-trade-deal/>

122) Xi inspects PLA Southern Theater Command, stresses advancing commanding ability, Xinhua, 2018-10-26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8-10/26/c_137561097.htm; Jamie Seidel: President Xi tells military to ‘concentrate preparation for fighting a war’, October 29, 2018, <https://www.news.com.au/technology/innovation/military/president-xi-tells-military-to-concentrate-preparation-for-fighting-a-war/news-story/e3929306705b623290b925cbbaf1da9b>

123) 다음을 보라, Steve Holland, Lesley Wroughton: U.S. to counter China, Russia influence in Africa: Bolton, December 13, 2018,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rump-africa/u-s-to-counter-china->

공격적인 제국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또 하나의 예는 미 정부에서 피터 나바로의 부상이다. 그는 현재 백악관 무역 고문이고,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을 미국의 주 라이벌로 규정하는 몇몇 출판물의 저자다. 그 출판물 중 하나는 “도래하는 중국 전쟁”이라는 자기 설명적인 제목을 달고 있다. 그가 대 중국 관세 인상의 강력한 제창자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¹²⁴⁾

미 국방차관보를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도 비슷한 대외정책을 주창한다. 앨리슨은 “투키디데스의 덫”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그는 역사상 대부분의 경우에 신흥 강국과 패권국 간의 대결은 유혈사태로 귀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그는 미·중 간에 본격 대결이 있을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¹²⁵⁾

중국 관영 매체들도 강대국 간의 향후 관계에 대해 비슷하게 냉정한 예측 전망을 가지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중앙기관지로서 일종의 국제판 영자신문인 <<글로벌 타임스 (환구시보)>>는 중국과 미국이 단기적으로는 무역전쟁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낙관주의의 근거는 없다고 밝힌 기사를 게재했다.

“단기적으로는 무역의 윈-윈 성격 덕에 무역 분쟁에서 여전히 협상의 여

[russia-influence-in-africa-bolton-idUSKBN10C1XV](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12-14/-1-billion-a-month-the-cost-of-trump-s-tariffs-on-technology); Michael Cohen, Samer Al-Atrush, Henry Meyer, and Margaret Talev: America's Moment of Truth in Africa: It's Losing Out to China, 14. Dezember 2018,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12-14/-1-billion-a-month-the-cost-of-trump-s-tariffs-on-technology>

124) 다음을 보라. How China's Economic Aggression Threatens the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White House 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 June 2018; Peter Navarro: Crouching Tiger: What China's Militarism Means for the World, Prometheus Books, New York 2015; Peter Navarro and Greg Autry: Death by China: Confronting the Dragon – A Global Call to Action for the Western World, Pearson Education, New Jersey 2011; Peter Navarro: The Coming China Wars – Where They Will Be Fought and How They Can Be Won, Financial Times Press, New Jersey 2006

125) 다음을 보라. Graham T. Allison: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Houghton Mifflin Harcourt, New York 2017; Graham Allison: China and Russia: A Strategic Alliance in the Making, December 14, 2018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china-and-russia-strategic-alliance-making-38727>; Graham Allison: The Thucydides Trap: Are the U.S. and China Headed for War? Sep 24, 2015 The Atlantic,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5/09/united-states-china-war-thucydides-trap/406756/>

지는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 미국은 중국이 제조업 부문에서 굴기하고 있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을 겨냥하여 공격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장기적으로는 투키디데스의 덫에 대한 우려 속에서 미국이 전면적인 대중(對中) 봉쇄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중국은 여러 다른 수준에서 미국과 더 많은 분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전을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¹²⁶⁾

지난 몇 년 동안, 강대국들 간의 긴장 고조에 초점을 맞추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본격 대결 가능성을 경고하는 책과 연구가 줄지어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은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을 눈앞에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글로벌 안보의 밑그림이 부재하고, 안정을 흔들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아(亞)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의 확산으로 세계는 더 위험한 곳이 되고 있다. 지정학적 사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어느 순간엔가 대결로 이어지는 실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¹²⁷⁾

미국의 중국 전문가 민신펬이(중국 이름; 裴敏欣)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확전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은 점점 더 신 냉전의 개막전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거인들의 충돌은, 계속 확대된다면, 양측 모두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심지어는 승자(미국일 가능성이 높은)도 상처뿐인 승리만을 거둘 정도로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¹²⁸⁾

서방 대국들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중국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

126) Shen Jianguang: China needs to prepare for long-term rivalry with the US even if trade deal is reached, Global Times, 2019/1/9 <http://www.globaltimes.cn/content/1135170.shtml>

127) Eurasia Group: Top Risks 2018, p. 6

128) Minxin Pei: The Sino-American cold war's collateral damage, October 19, 2018 <http://www.arabnews.com/node/1390641>; 다음도 보라, Minxin Pei: China's Crony Capitalism, The Dynamics of Regime Deca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16

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도 전 세계적으로 그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¹²⁹⁾ 우크라이나에서¹³⁰⁾, 그리고 시리아에서¹³¹⁾ 군사 개입, 중동에서¹³²⁾, 그리고 아프리카에서¹³³⁾ 모스크바 측의 영향력 증대 등, 이 모든 것이 기존 제국주의 열강에게 경보를 울리고 있다. 미 제국주의의 전통적 뒷마당인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도 이것은 진실인데, 거기서 “러시아는 새로운 ‘엘도라도’를 발견하고 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와 쿠바 같은 ALBA (미주 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 심지어 우익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 집권 하의 아르헨티나 – 같은 나라들과도 관계를 확

12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PONARS Eurasia: Russian Foreign Policy after Crimea – How To Understand And Address It, Policy Perspectives, September 2017; Bobo Lo: Russia and the new world order, Chatham House, London 2015; Rob de Wijk: Power Politics, How China and Russia Reshape the World, Amsterdam University Press B.V., Amsterdam 2015; Robert Ross: Naval superpower race: China ‘to overtake US in 15 years’, November 28, 2018 <http://www.atimes.com/article/naval-superpower-race-china-to-overtake-us-in-15-years/>; Robert Ross: The End of U.S. Naval Dominance in Asia, November 18, 2018, <https://www.lawfareblog.com/end-us-naval-dominance-asia>

130)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 웹사이트에 있는 하위 페이지에 게재된 각종 RCIT 성명들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 특히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Uprising in East Ukraine and Russian Imperialism, An Analysis of Recent Developments in the Ukrainian Civil War and their Consequences for Revolutionary Tactics, 22, October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ukraine-and-russian-imperialism/>

131)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평가로는, 다음 우리 웹사이트에 있는 별도 하위 섹션에 있는 여러 성명과 논설들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the-syrian-revolution/>

13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Yury Barmin: Russia and Israel: The Middle East vector of relations,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Afro-Middle East Centre (AMEC) Briefing No. 13/2018 10 November 2018; Alexey Khebnikov: 2018: A year of many challenges for Putin in the Middle East, If Russia fails to meet regional actors’ expectations over Syria, Libya or Israel/Palestine, it will ruin its image as a credible partner, Middle East Eye, January 15, 2018, <http://www.middleeasteye.net/columns/russia-middle-east-2018-533160191>; Maxim A. Suchkov: Can Russia, China cooperate on the Middle East? December 12, 2018 <https://www.al-monitor.com/pulse/originals/2018/12/russia-china-cooperation-syria-middle-east.html>

133) Nathan Ghelli: Russian Investment in Africa Contributes to Its Development, June 18, 2018 <https://www.borgenmagazine.com/russian-investment-in-africa/>; 아프리카에서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How Russia is boosting its role in Africa with weapons, investment and ‘instructors’, 14 August, 2018, <https://www.scmp.com/news/world/africa/article/2159622/how-russia-boosting-its-role-africa-weapons-investment-and>

대해 왔다.¹³⁴⁾ 최근 케르치 해협에서 러시아 해군과 우크라이나 해군의 충돌 이후 강대국들 간의 긴장은 이러한 추세를 확인시켜 줄 따름이다.¹³⁵⁾

천하(天下) — 중국의 이데올로기적 도전

당연히도 중·러의 강대국 부상은 상승하는 이데올로기적 자신감과 병행한다. 베이징은 스스로를 점점 더 세계정치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마땅한 대국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가을에 한 연설에서 중국의 글로벌 선도 역할을 강조했다. “이제 우리가 세계의 중심 무대에 서서 인류에 더 큰 공헌을 할 때다.”¹³⁶⁾ 중국공산당 대표신문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중국은 “그 위대함을 회복하고 세계에서 제 자리로 돌아갈 역사적인 기회”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또 “세계는 지금처럼 중국에 초점을 맞춘 적도, 중국을 필요로 한 적도 없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역사적인 기회는 단지 경제 발전과 관련한 기회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즉 과학·기술·산업 혁명의 가속화, 중국 문화의 영향력 증대,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접근방법에 대한 인식의 향상 등에서도 기회다... 우리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더 자신 있게, 더 능

13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oberto Mansilla Blanco: Russia in Latin America: Geopolitics and pragmatism, November 28, 2018 <https://theglobalamericans.org/2018/11/russia-in-latin-america-geopolitics-and-pragmatism/>; Russian companies get green light to mine gold in Venezuela, 26 Dec, 2018 <https://www.rt.com/business/447438-venezuela-russia-gold-exploration/>

13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litary Escalation between Russia and Ukraine at the Kerch Strait, Down with the Reactionary Warmongering on Both Sides! Emergency Statement of the RCIT and the Marxist Group “Class Politics” (Russia), 28 Nov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military-escalation-between-russia-and-ukraine-at-the-kerch-strait/>

136) BBC: Xi Jinping: ‘Time for China to take centre stage’, 18 October 2017, <http://www.bbc.com/news/world-asia-china-41647872>

력 있게 이 기회를 잡을 것이다.” 나아가 사설은 “글로벌 협치 체제가 심오한 변화를 겪고 있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제국주의 드라이브를 반영하듯,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지 (마윈 알리바바 소유의 홍콩 최대 일간지)는 이 선언에 관한 보도 제목을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China great again!*)”라고 붙였다.¹³⁷⁾

뉴욕에 본부를 둔 외교위원회 아시아 연구 담당국장인 엘리자베스 C. 이코 노미는 시진핑 주석이 세계적으로 ‘중국 모델’을 제창하고 있다고 관측했는데 이는 분명 틀린 말은 아니다. “시진핑은 정치 및 대외정책에 대한 그 자신의 모델을 찾고 있다. 중국몽(中國夢)을 실현시켜줄 것이고 미국·유럽의 자유민주주의 모델에 환멸을 느낀 다른 나라들에게는 기치가 되어줄 것이라고 그가 믿는 중국 특유의 모델 말이다.”¹³⁸⁾

중국 지배계급의 증대하는 이데올로기적 자신감은 고대 중국의 세계관인 천하(天下) 개념의 부활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천하 개념은 세계를 5개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인식에 역사적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동심원은 황제(“天子”) 자신이고, 둘째는 중심부의 충성 지대 동심원으로 제후들의 영지이며, 셋째 동심원은 선무 평화 지대, 넷째 동심원은 조공 책봉관계에 있는 주변 이민족들, 다섯 번째 동심원은 흥포한 야만족들이 그것이다.¹³⁹⁾ 천하 개념에 대

137) 모든 인용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Bill Bishop: China wants to reshape the global order, in: Axios China, Jan 19, 2018, https://www.axios.com/chinas-growing-global-aspirations-in-the-xi-jin-ping-era-1516305566-aa5be206-c156-4313-8229-cfa88af9b75a.html?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ampaign=&stream=top-stories; Nectar Gan: Make China great again: Communist Party seeks to seize ‘historic’ moment to reshape world order, High-profile comment piece urges country to rally around Xi and realise nation’s global aspirations, 18 January, 2018, <http://www.scmp.com/news/china/policies-politics/article/2128711/make-china-great-again-communist-party-seeks-seize>; Xinhua: CPC newspaper says China should “grasp historic opportunity”, 15,01,2018,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8-01/15/c_136897189.htm

138) Elizabeth Economy: The Third Revolution, Xi Jinping and the New Chinese Stat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8, p. 12

13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Wang Mingming: All under heaven (tianxia), Cosmological perspectives

한 다른 대체 인식도 있는데, 중국의 영향력 정도가 감소하는 것에 따라 세계를 3대 지역으로 구분하는 해석이다. 내부 속령(屬領), 외부 속령, 일시적 비(非) 속령이 그것이다.¹⁴⁰⁾ 역사를 거치며 계속 수정되었지만, 그럼에도 천하 개념은 언제나 한족 지배계급의 제국을 정당화하는 고전적인 유교적 개념이었다.

오늘, 다양한 중국 및 비 중국 친 베이징 이데올로그들이 천하를 서방 지배의 제국주의 세계질서에 대한 평화적인 대체 모델로 제시한다.¹⁴¹⁾ 예를 들어,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위한 선전을 좌익 자유주의적 색조와 결합시킨 주요 이데올로그 페페 에스코바르¹⁴²⁾는 중국 사회과학원 자오팅양(趙汀陽) 연구원의

and political ontologies in pre-modern China, in: HAU: Journal of Ethnographic Theory 2 (1), pp. 337– 383; Bart Dessein: Faith and Politics: (New) Confucianism as Civil Religion, in: Asian Studies II (XVIII), 1 (2014), pp. 39–64; Huang, Yang: Perceptions of the Barbarian in Early Greece and China, in: CHS Research Bulletin 2, No. 1 (2013). http://nrs.harvard.edu/urn-3:hinc:essay:HuangY_Perceptions_of_the_Barbarian_in_Early_Greece_and_China,2013

140) 다음을 보라. Zhang Feng: Rethinking the “tribute system”. Broadening the conceptual horizon of historical East Asian politics, in: Zheng Yongnian (Ed.): China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hinese view and the contribution of Wang Gungwu, Routledge, New York 2010

141) 다음을 보라. Ban Wang (Ed.): Chinese Visions of World Order, Tianxia, Culture, and World Politics,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and London 2017; Chinese Beginnings of Cosmopolitanism: A Genealogical Critique of Tianxia Guan; Zheng Yongnian (Ed.): China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hinese view and the contribution of Wang Gungwu, Routledge, New York 2010; Wang Gungwu and Zheng Yongnian: China and the New International Order, Routledge, New York 2008; 다음도 보라. Salvatore Babones: American Tianxia, Chinese money, American power, and the end of history, Policy Press, Bristol 2017

142) 다음을 보라. Pepe Escobar: How the New Silk Roads are merging into Greater Eurasia, December 13, 2018 <http://www.atimes.com/article/how-the-new-silk-roads-are-merging-into-greater-eurasia/>; Pepe Escobar: Welcome to the G-20 from Hell, October 14, 2018 <http://www.atimes.com/article/welcome-to-the-g-20-from-hell/>; Pepe Escobar: Eagle-meets-Bear and the Syria tug-of-war, July 5, 2018 <http://www.atimes.com/article/eagle-meets-bear-and-the-syria-tug-of-war/>; Pepe Escobar, Here comes the 30-year trade war; September 23, 2018 <http://www.atimes.com/article/here-comes-the-30-year-trade-war/>; Pepe Escobar: Economic war on Iran is war on Eurasia integration, August 14, 2018 <http://www.atimes.com/article/economic-war-on-iran-is-war-on-eurasia-integration/>; Pepe Escobar: How BRICS Plus clashes with the US economic war on Iran, July 28, 2018 <http://www.atimes.com/article/how-brics-plus-clashes-with-the-us-economic-war-on-iran/>; Pepe Escobar: Here's the real reason the US must talk to Russia, July 21, 2018 <http://www.atimes.com/article/heres-the-real-reason-the-us-must-talk-to-russia/>; Pepe Escobar: Trump, NATO and 'Russian aggression', July 13, 2018 <http://www.atimes.com/article/trump-nato-and-russian-aggression/>; Pepe Escobar: Tariffs 'kick off 50-year trade war' with China; July 6, 2018 <http://www.atimes.com/article/tariffs-kick-off-50-year-trade-war-with-china/>; Pepe Escobar: The Pivot to Eurasia, July 23,

저술을 인용하며 세계를 보는 시각으로서 중국의 천하관의 우수성을 주장한다. “자오팅양은 세계화와 관련한 역동적 형성 과정에 있는 보편적 문제들을 다루는 가운데 천하 개념이 세계 체계, 즉 그 체계에서의 진정한 정치 주체는 세계인 그러한 세계 체계에 관한 것임을 보여준다. 서방 제국주의 시야에서는 세계는 언제나 정복과 지배와 약탈의 대상이었지, 결코 그 자체로 정치적 주체가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에게 민중국가 시야보다 더 높고 더 포괄적인 통일적 시야 – “천하로 천하를 본다”는 노자의 인식 틀 하에 – 가 필요하다. 자오팅양은 중국 문화의 가장 깊은 뿌리를 파고들어가, 천(하늘)은 세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천하를 넘어서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은 사실 형이상학적 원리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천하는, 공자가 말했듯이 하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아야 한다. 이와 같이 천하 체계는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인 체계다. 천하 체계는 적과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금지한다. 어떤 나라나 문화도 적으로 지칭되지 않으며, 체계에 통합되지 않는 나라나 문화는 없다.”¹⁴³⁾

이것은 명백히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적 헛소리다. 중화제국 역사 전체는 인접국 베트남, 조선, 동투르크스탄 (신장) 등의 많은 인민들이 겪어야 했던 바

2015, http://www.tomdispatch.com/post/176026/tomgram%3A_pepe_escobar%2C_the_pivot_to_eurasia/; Pepe Escobar: The Eurasian Big Bang, How China and Russia Are Running Rings Around Washington, 23.7.2015, http://www.huffingtonpost.com/pepe-escobar/the-eurasian-big-bang_b_7856614.html; Pepe Escobar: What the BRICS plus Germany are really up to? February 27, 2015 <http://rt.com/op-edge/236219-russia-china-germany-trade-axis/>; Pepe Escobar: The Geopolitical Earthquakes Reshaping Eurasia's Economy, May 19, 2014, <http://www.thenation.com/article/179916/geopolitical-earthquakes-reshaping-eurasia-economy>; Pepe Escobar: ; Pepe Escobar: Liquid War Across Eurasia and the Asia-Pacific: Postcard from Pipelineistan, in: The Asia-Pacific Journal, Vol 21-2-09, May 23, 2009, <http://www.japanfocus.org/~Pepe-Escobar/3149/article.html>; Pepe Escobar: Empire of Chaos, The Roving Eye Collection, Vol.1, Nimble Books 2014, 143) Pepe Escobar: All under Heaven, China's challenge to the Westphalian system, Beijing is tweaking the rules of the Western order to reflect its revitalized geopolitical and economic power, but some Americans see this as a threat to their way of life, January 10, 2019 <http://www.atimes.com/article/all-under-heaven-chinas-challenge-to-the-westphalian-system/>; 다음도 보라. Pepe Escobar: Chinese scholar offers insight into Beijing's strategic mindset, Essay by security expert Professor Zhang Wenmu gives a glimpse of China's geostrategic outlook, from the 'Western Pacific Chinese Sea' to the far side of the moon, January 5, 2019 <http://www.atimes.com/article/chinese-scholar-offers-insight-into-beijings-strategic-mindset/>

와 같은 팽창주의와 정복/복속으로 특징지어진다. 당연히도, 이로 인해 중국은 서양의 제국들과 아무 차이도 없게 된다. 서양 제국들도 언제나 팽창을 시도하고 주변 인민들을 복속시키려고 해왔듯이 말이다. 맑스주의자들은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신화에도 – 그것이 친 중국 신화든, 친 서방 신화든 –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의 제국도, 그 밖의 어느 역사상의 제국도 포용적이거나 평화적이지 않았다. 역사상의 모든 제국은 근로인민을 착취하고 타국 인민들을 복속시킴으로써 지배 엘리트의 계급 이익에 봉사하는 목적을 위한 잔인한 국가기구들이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문명의 글로벌 가치”든, “인권과 민주주의”든, “천하인”이든, 무엇이든 부르든 이런 것들은 모두 강대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봉사하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적 개념들이다.

러·중의 관점을 제창하는 다수의 이데올로그들이 있다. 당연히 그들은 친 서방 이데올로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유라시아로 지정학적 무게 중심의 이전은 서방이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될 변화다”라며 환영하는 조의 논평을 낸다.¹⁴⁴⁾ 이러한 이데올로그들은 각종 스탈린주의자들 이외에도, 이미 언급한 페페 에스코바르 같은 저자들로부터 준 파시스트 라로슈 운동 (*LaRouche movement*)과 친한 윌리엄 앵달과 러시아 파시스트 알렉산더 두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¹⁴⁵⁾ 두긴은 유라시아 운동의 대표적 인물인데, 본질적으로 극히 반

144) William Engdahl: The Eurasian Century Is NOW Unstoppable October 7, 2016, [http:// www.4thmedia.org/2016/10/the-urasian-century-is-now-unstoppable/](http://www.4thmedia.org/2016/10/the-urasian-century-is-now-unstoppable/); 다음도 보라, F. William Engdahl: The Lost Hege-
mon, Who the Gods Would Destroy, mineBooks, Wiesbaden 2016; F. William Engdahl: Target: China, How
Washington and Wall Street Plan to Cage the Asian Dragon, Progressive Press, 2014; F. William Engdahl:
Transformational Projects in Eurasia Land Space, 2016–09–10, <http://journal-neo.org/2016/09/10/transformational-projects-in-eurasia-land-space-3/>

145) Aleksandr Dugin: Last War of the World–Island – The Geopolitics of Contemporary Russia, Arktos, London 2015; Aleksandr Dugin: Eurasian Mission: An Introduction to Neo–Eurasianism, Arktos, London 2014; Aleksandr Dugin: Putin vs Putin – Vladimir Putin Viewed from the Right, Arktos, London 2014; Aleksandr Dugin: The Fourth Political Theory, Arktos, Eurasian Movement, London 2012.

동적인 이 운동은 대국 배외주의와 권위주의적 형태의 부르주아 정권들을 찬미하며 파시즘과 닮은 입장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유라시아 운동은 러시아를 그 중심으로 하는 전체주의적 제국을 형성하여 미국에 대해 유럽과 동맹을 맺을 것을 요구한다. 두긴은 이미 20년 전에 이렇게 선언했다. “러시아는 대서양주의에 대한 역사적 대안 모색의 구현체다. 거기에 러시아의 글로벌 미션이 있다.”¹⁴⁶⁾

보호주의와 군사주의

이 모든 긴장은 세계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동을 반영한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1948-1989/91년의 미·소 간 냉전 이후 우리는 미 제국주의의 절대 우위로 특징지어지는 시기를 통과해 지금 또 하나의 냉전 시대로,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 무엇보다도 미·중 간의 - 신 냉전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¹⁴⁷⁾

2018년에 시작한 세계무역전쟁은 강대국 간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는 좋은 예다. 우리가 최근 발표한 문서들에서 지적했듯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공연한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면서 강대국들 간 정치적·경제적 긴장이 지난 몇 달 사이에 크게 고조되고 있다.¹⁴⁸⁾ 그러나 이 충돌은 갑작스런, 예기치 못

146) Aleksandr Dugin in 1998; 다음에서 인용. Marlene Laruelle: Russian Eurasianism: An Ideology of Empire,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8, p. 119

147) 러시아 전문가 Stephen F. Cohen은 이미 2009년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냉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음을 보라. Stephen F. Cohen: Soviet fates and lost alternatives: from Stalinism to the new Cold War;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148) 이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된 다음 문서들을 보라. Joint Statement: Global Trade War: No to Great

한 일이거나, 트럼프가 미쳐서 일어난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강대국들이 보호주의 조치들을 쏟아낸 데서 비롯된 결과다. (그림 18을 보라)

이것이 바로 양측의 정치 및 재계 리더들 가운데 좀 더 영리한 자들이 이미 긴 냉전을 대비하는 이유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의원이자 하모니 클럽 - 약 150명의 중국 재계 거물들의 모임 - 의 의장인 억만장자 첸홍티안은 양 대국 간 장기 냉전을 예상하고 있다. 그는 동료 독점자본가들에게 한 연설에서 도래하는 “정치적 겨울”은 “예상보다 더 춥고 길” 것이며,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려움 [사기업들에게]이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¹⁴⁹⁾

그림 19에서 보듯이, 세계무역은 수십 년 간의 대대적인 증가(“세계화”) 이후 2008년에 대침체(Great Recession)를 맞고서 정체에 빠져들었다. 세계화 시기가 자본주의 쇠퇴라는 결과로 마침내 끝난 것이다.

세계무역전쟁, 중동에서의 전쟁 물이, 미국의 대 이란 공격,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북한 핵을 둘러싼 충돌, 우크라이나 분쟁 등, 이 모든 것들이 강대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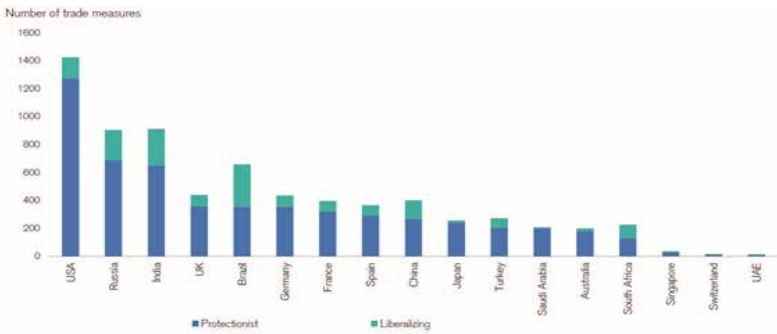
Power Jingoism in West and East! Neither Imperialist Globalization nor Imperialist Protectionism!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Joint Struggle of the Working Class and Oppressed People! 4 Jul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rcit/joint-statement-on-the-looming-global-trade-war/>; Yossi Schwartz: Capitalist Trade and the Looming 3rd World War, 15 Jul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apitalist-trade-and-looming-3rd-world-war/>; Michael Pröbsting: The Global Trade War has Begun, What is its Meaning and what should be the Response of Socialists?, 13 Jul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global-trade-war-has-begun/>; Michael Pröbsting: Where Do Socialists Stand in Face of the Looming Global Trade War? A Showcase of the Practical Consequences of the Assessment of the Class Character of the Chinese State, 17 June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here-do-socialists-stand-in-face-of-the-looming-global-trade-war/>; Michael Pröbsting: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RCIT Books, Vienna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8/> 149)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s private economy set for winter 'colder and longer than expected', warns billionaire tycoon, 28 December, 2018,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2179762/chinas-private-economy-set-winter-colder-and-longer-expected>

패권쟁투 가속화의 논리적 결과들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군비경쟁이 다시 불붙고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군비경쟁이 1980년대에 냉전의 고점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2000년대 초 이래 무기 생산 및 판매가 증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림 20 및 21을 보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의하면, 2017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1조7390억 달러로 2016년보다 1.1% 증가했다. 2017년 군사비 총액이 세계 GDP의 2.2%를 차지했다.

그림 18. 보호주의 조치가 세계무역을 지배하며 왜곡시키고 있다¹⁵⁰⁾



150) Credit Suisse: Getting over Globalization, 2017, p. 28

그림 19. 세계 GDP의 백분율로서의 세계무역, 1960-2016년¹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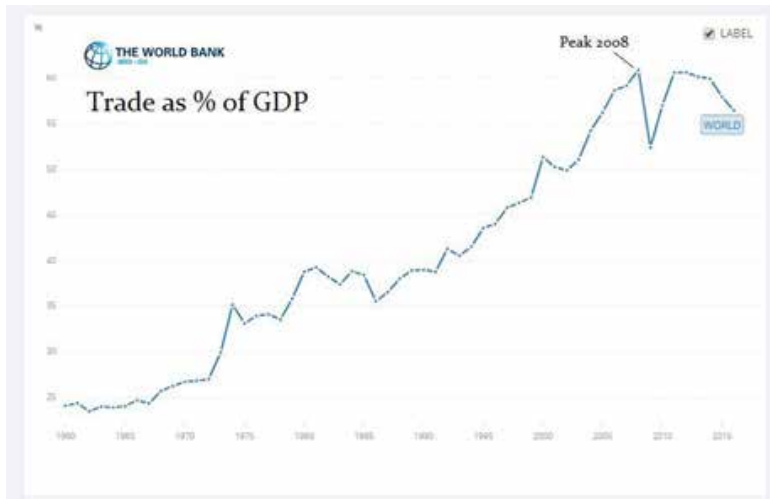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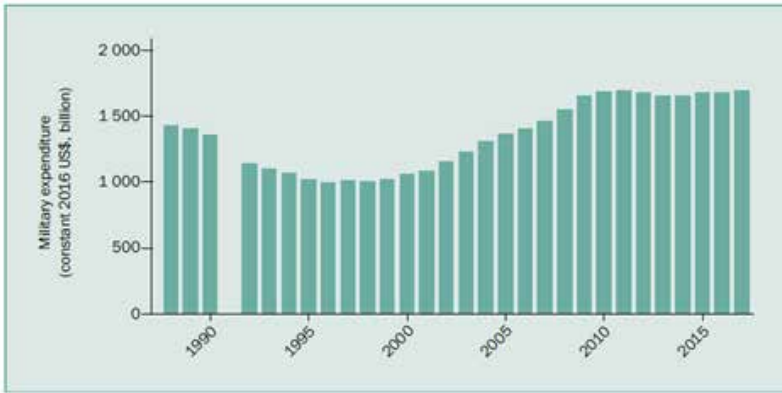
그림 20. 주요 무기 이동 동향, 1950 - 2017년¹⁵²⁾



151) Martin Armstrong: World Trade – Who is Really Hurt in the Trade War, April 7, 201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또한 보라. Eastspring Investments: Trade and Tariffs, Lessons from History, 2018, p. 2

152) SIPRI Yearbook 2018 (Summary) p. 9

그림 21. 세계 군사비 지출, 1988 - 2017년¹⁵³⁾



남반구 지배를 위한 제국주의 드라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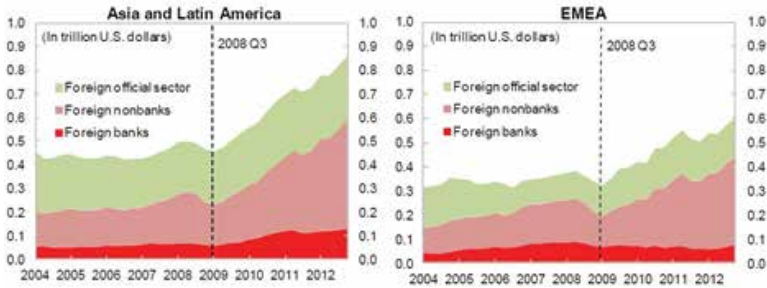
강대국 간 패권 다툼을 가속화하는 근본 요인은 노획물 (즉 글로벌 자본주의 가치 생산) 가운데 자신의 몫을 늘리려는 제국주의 지배계급들의 필사적 드라이브다. 피억압 인민들과 반식민지 세계에 대한 초과착취를 늘리려는 그들의 욕망 뒤에도 바로 이 동일한 요인이 있다. 제국주의 시대 전체의 본질적 특징인 이러한 남반구 지배를 위한 제국주의 드라이브는 지난 수십 년 간 더욱 더 강화되었다. 남반구에 대한 제국주의 초과착취에 관한 상세한 분석 보고로는 우리의 책자 <<남반구에 대한 대 강탈>>과 그 밖의 출판물들을 독자들에게 권한다.

여기서는 이른바 신흥시장 (즉 반식민지 나라들 + 중국 · 러시아)에서 “외국

153) SIPRI Fact Sheet,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7, May 2018, p. 1

인투자자들” (즉 주로 제국주의 자본)의 역할을 분석한 IMF의 한 연구보고를 살펴보는 것으로 국한하겠다. 보고서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역할이 크게 증가 - 특히 2008년 대침체 이래 - 했다고 결론짓는다. “우리는 전체 외국인투자자들이 2012년 말에 약 1조 달러의 신흥시장국 정부 부채 (해외 공적 차관 제외)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¹⁵⁴⁾ (그림 22도 보라).

그림 22. 신흥시장 : 투자자 계급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자들, 2004-12년¹⁵⁵⁾



이 그림은 2008년에 새로운 역사 시기의 시작 이래 남반구 나라들에서 제국주의 자본의 지위가 강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반식민지 나라들로부터 이러한 초과이윤을 뽑아내고 그 나라들의 값싼 노동과 원료 자원을 장악하기 위한 제국주의 독점체들의 증대되는 드라이브, 바로 이것이 남반구에서 직간접적인 제국주의 전쟁 및 개입의 횡수가 늘어나고 있는 주 요인이다. 그 예가 2001년 이래 아프간에서, 2003년 이래 이라크에서 미국의 점령전쟁이고, 체첸 인민에 대한 러시

154) Serkan Arslanalp and Takahiro Tsuda: Tracking Global Demand for Emerging Market Sovereign Deb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king Paper, March 2014, p. 19

155) Serkan Arslanalp and Takahiro Tsuda: Tracking Global Demand for Emerging Market Sovereign Deb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king Paper, March 2014, p. 19

아의 전쟁, 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2009년, 2012년, 2014년의 세 차례에 걸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포함하여)이다. 또 소말리아와 북서 아프리카에 미국의 군사 개입, 또는 말리를 비롯한 그 밖의 중앙아프리카 국가들에 유럽 열강의 군사 개입도 그러한 예들이다. 북한과 이란 같은 반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공격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이에 더해 우리는 최근에 제국주의 열강이 반식민지 국가의 동맹 정권과 협력하여 주로 이들 국가의 병력으로 구성된 군대에 군 장비와 자금을 대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아왔다. 이에 대한 예가 에티오피아가 주도하는 이른바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평화유지군(AMISOM)으로, 이 군대는 미 제국주의 및 EU 제국주의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소말리아 점령군으로 기능하며 이슬람 무장단체 알 샤바브(Al-Shabaab)와 교전하고 있다. 또 최근에 창설된 서 아프리카의 G5 공동군은 프랑스의 지휘 하에 이슬람주의 “테러리스트”와 싸운다는 계획이다. 미국에게서 훈련받고 군 장비를 공급받는 각종 이라크 특수 군들도 있다. 모두 군 병력은 반식민지 나라들로부터 나오겠지만, 이들 군대는 제국주의 대리인으로 기능하며, 이에 따라 그들의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들 군대는 기본적으로 과거 영국, 프랑스, 그리고 그 밖의 제국들의 식민지군을 닮았다. 예를 들어 대영제국은 이른바 “인도군”을 창설했다. 이 군대는 영국군 예하에 배치된 수십만 명의 인도 병사들을 지휘하며, 식민지 인도 자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영국의 이익을 싸운다.¹⁵⁶⁾

156) 영국의 인도군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Kaushik Roy (Ed): *The Indian Army in the Two World Wars, History of Warfare 70*, Brill Academic Publishers, Leiden 2012; Alan Jeffreys, Patrick Rose (Eds): *The Indian Army, 1939–47: Experience and Development*, Ashgate Publishing Limited, Farnham 2012; David Omissi: *The Sepoy and the Raj: The Indian Army, 1860–1940*, Studies in Military and Strategic History, Palgrave Macmillan UK, London 1994.

요약하면, 우리는 역사적인 자본주의 위기가 강대국들 간 긴장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반식민지 세계에서 피억압 인민에 대한 제국주의 침공을 또한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을 목도한다.

제국주의 내부 모순의 주요 축으로서 미·중 간 패권쟁투

지난 수십 년 간 세계정치의 근본 변화에 대한 이 개괄을 다음과 같은 평가로 결론 맺어보자. 앞서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다섯 강대국이 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러시아, 일본이다.(여기에 더해 남한과 호주, 스위스 같은 보다 작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몇 개 더 있다).

물론 우리는 강대국들과 그들 동맹들의 패권쟁투 편대의 정확한 라인업에 관해 예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요 대립선이 “실컷 먹은 자”와 “배고픈 자” 사이에 그어질 것이라고 가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즉 지난 수십 년 간 세계를 자신들 사이에 분할한 기존 제국주의 열강 미국·EU·일본과, 새로 굴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해외투자, 그들의 시장 점유와 군사 기지를 위한 공간을 찾기 위해서는 기득 현직자를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신참자 중국·러시아, 이 양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¹⁵⁷⁾ 제국주의 편대가 어떻게 짜이든 주장(主將)은 한 쪽 진영에선 미국일 것이고, 다른 쪽 진영에서는 중국일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이들 양 대국이 “실컷 먹은 자”와 “배고픈 자” 양

157) 우리는 트로츠키가 프랑스와 같은 “실컷 먹은” 연합국 제국주의자들과 1차 세계대전에서 저서 복수를 노리는 독일과 같은 “배고픈” 제국주의자들을 비교하면서 사용한 정식화로부터 영감을 끌어낸다. “독일과 프랑스 간의 모순은 결코 민주주의 대 파시즘의 모순이 아니라, 배고픈 제국주의와 실컷 먹은 제국주의 간의 모순이다.” (Leon Trotsky: Who Defends Russia? Who Helps Hitler? (1935); in: Trotsky Writings 1935–36, p. 61)

진영에서 각각 최강 세력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 모든 대국들 사이에 일정한 “위계 서열”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레닌도 이 같은 강대국들 간 위계화를 직접 한 바 있다.

우리가 볼 때 두 개의 가장 강력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세계정치와 세계경제에 대한 가장 규정적인 위치에 있는 제국주의 열강은 미국과 중국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 두 국가는 의심할 바 없이 가장 강력한 양대 경제대국이다. 러시아가 군사적으로는 중국보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제국주의 열강보다) 우위에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러시아를 결코 중국과 대등하게 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약세에 있다.

이 또는 저 영역에서는 미국과 중국 각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제국주의 열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총체적으로는 이들 두 지배적 강대국에 적수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본은 경제적으로 강하다. 그러나 각종 이유들 – 그 중 하나가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로 인한 여러 제약들이다 – 때문에 일본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어 독자적 역할을 할 수 없다. 유럽에서 가장 강한 경제대국 독일도 2차 대전 패전국으로 마찬가지로 제약을 안고 있고, 그로 인해 여전히 글로벌 사안에서 독자적인 군사적 역할을 할 수 없다.

나아가 글로벌 파워로서의 EU에 대해서도 일정한 유보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EU는 단일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내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형성 중에 있는 연방이다. 이것은 EU가 글로벌 사안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능력에 실질적인 제약이 된다. 사실이지, EU는 기로에 서 있다. 현실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리더십 하에 대도약을 해서, 글로벌 강대국으로서 동(러·중)과 서(미국)의 라이벌들에 맞서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해를 방어하는 독자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범 유럽적 초동 국가를 창설하는 데 성공하

든가, 아니면 다른 강대국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어 불가피하게 약화되고 붕괴 하든가. 그러나 여기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다른 데서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룬 바 있고, 더욱이 그 문제로 이 장의 기본 논지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¹⁵⁸⁾

물론, 이들 유럽 대국들 각각은 그들 자신의 이해를 좇는 독립적 세력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두 지배 강대국 미국과 중국 중 하나와의 동맹 속에서 활동할 때에만 세계무대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들은 그 둘 중 하나의 지지 없이는 그 어떤 유의미한 역할도 맡기 어렵다. 그리고 양대 동맹 어디에서든, 주연 역은 미국이나 중국이지, EU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그들이 주연이 될 수는 없다.

또한 강대국들을 분석하는 데서 발전 동역학을 고려에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EU, 일본은 구래의 쇠퇴하는 제국주의 열강인 데 반해 중국과 러시아는 신흥 열강이다. 다시 한 번 이 동역학을 예측하기 위해 1985년 이래 미·중의 경제 발전을 비교해보자. 표 14는 세계 제조업 생산 및 글로벌 상위

158) 유럽연합에 관한 RCIT의 주요 논설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Marxism, the European Union and Brexit, The L5I and the European Union: A Right Turn away from Marxism, The recent change in the L5I's position towards the support for EU membership represents a shift away from its own tradition, of the Marxist method, and of the facts; August 2016, in: Revolutionary Communist No. 55,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eu-and-brexit/>; Michael Pröbsting: Does the EU Represent "Bourgeois Democratic Progress"? Once again, on the EU and the Tactics of the Working Class – An Addendum to our Criticism of the L5I's Turn to the Right and Its Support for EU Membership, 16.09.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eu-brexit-article/>; Manfred Meier: Nachbeben des Brexit – Zur Rechtswende von L5I: das „JA“ zum Verbleib in der EU, August 2016, <http://www.thecommunists.net/home/deutsch/gam-brexit/>; Michael Pröbsting: The British Left and the EU-Referendum: The Many Faces of pro-UK or pro-EU Social-Imperialism. An analysis of the left's failure to fight for an independent, internationalist and socialist stance both against British as well as European imperialism, Revolutionary Communism Nr. 40, August 2015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british-left-and-eu-referendum/>; 또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Die Frage der Vereinigung Europas im Lichte der marxistischen Theorie, Zur Frage eines supranationalen Staatsapparates des EU-Imperialismus und der marxistischen Staatstheorie, Die Diskussion zur Lösung der Vereinigten Sozialistischen Staaten von Europa bei Lenin und Trotzki und ihre Anwendung unter den heutigen Bedingungen des Klassenkampfes, in: Unter der Fahne der Revolution Nr. 2/3 (2008),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marxismus-und-eu/>

500대 기업에서 미·중 점유율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표 15도 금세기 시작 이래 중국의 글로벌 비중의 극적인 증대를 보여준다. 이 전체상은 중국이 제국주의 강대국이 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

표 14. 경제: 1985 - 2018년 사이에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¹⁵⁹⁾

글로벌 점유율 (%)								
	1985년		1998/2001		2011		2016/18	
	미국	중국	미국	중국	미국	중국	미국	중국
제조업 생산	32.4%	4.3%	25.4%	6.3%	20.5%	16.4%	16.3%	23.5%
상위 500대 기업	-	-	43.0%	2.0%	26.0%	14.6%	25.2%	24.0%

표 15. 중국의 증대되는 글로벌 비중, 2000년 대 2015년¹⁶⁰⁾

	2000	2015
생산	20.7%	18.7%
GDP	3.7%	15.1%
수출	3.9%	13.8%
수입	3.4%	10.1%
외환 보유고	6.6%	30.1%
유입 FDI	3.0%	7.7%
유출 FDI	0.1%	8.7%
유입 증권투자	0.5%	1.5%
유출 증권투자	0.8%	0.6%

159) 제조업에 관한 수치로는, 다음을 보라. UNIDO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02/2003, p. 152 (for the years 1985 and 1998), UNIDO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13, p. 196 resp. 202 (for the year 2011) and UNIDO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18, p. 205 resp. 209 (for the year 2016). 산업생산에는 광업 및 건설업 부문도 포함되어 있어 산업생산과 제조업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주의하라. 상위 500대 기업에 관한 수치로는, 다음을 보라. Wikipedia: Fortune Global 500, https://en.wikipedia.org/wiki/Fortune_Global_500 (for 2001), Agence France-Presse: Chinese companies push out Japan on Fortune Global 500 list, July 9, 2012, <http://www.rawstory.com/rs/2012/07/09/chinese-companies-push-out-japan-on-fortune-global-500-list/> (for 2011) and Fortune: Fortune Global 500 List 2018: See Who Made It, <http://fortune.com/global500/list/> (for 2018).

16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Logan Wright, Daniel Rosen: Credit and Credibility – Risks to China’s Economic Resilienc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October 2018, p.12

세계정치 분야를 보면, 글로벌 차원의 국가 간 관계에서 단일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중 간의 관계다. 이 두 강대국 간의 관계가 주요 경제·정치 위기를 일으키고, 그 결과로 군사적 긴장을 낳는다. 뿐만 아니라, 대립하는 양 진영으로 국가들의 양극화와 당들 및 노동운동의 양극화를 촉발하는 것도 미중 간의 관계다.

1928년 코민테른 대회에서 채택된 스탈린주의 강령을 논박하는 대목에서 트로츠키는 무엇보다도 이 강령이 유럽과 아메리카 간의 관계가 세계정치에 미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년대 [1920년대]에 혁명적 정세의 주요 원천이 제국주의 전쟁의 직접적 결과들에서 비롯했다면, 전후 두 번째 10년대 [1930년대]에 혁명적 격변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유럽과 아메리카 간 상호관계일 것이다.”¹⁶¹⁾

거의 한 세기 뒤 지금 우리는 다음 몇 년, 그리고 몇 십 년에 비슷한 역할을 담당할 것은 미·중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세계정치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동역학은 중·러의 정치적 자신감과 호소력에서 극히 중요한 요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유명한 연설에서 “누구도 중국 국민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거나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한 것은 이 같은 자신감 상승을 반영한다.¹⁶²⁾

동시에 미국 대통령도 미국 대외정책의 역사적인 방향전환을 공식 발표한

161) Leon Trotsky: The Third International After Lenin (1928),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0, p.10. [트로츠키 <레닌 이후의 제3 인터내셔널>, 정민규 옮김, 풀무질, 27쪽]

162) Sebastien Falletti: US trade war raises the specter of new Cold War, December 25, 2018 <http://www.atimes.com/article/us-trade-war-raises-the-specter-of-new-cold-war/>

다. 트럼프는 시리아에서 미군 병력 전부를, 그리고 아프간에서 병력의 반을 철수시키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방어하는 가운데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우리는 전 세계에 퍼져 나가 있다. 우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들어본 적조차 없는 나라들에까지 나가 있다. 솔직히 이견 웃기는 일이다”고 덧붙였다.¹⁶³⁾

이 같은 쇠퇴 동역학은 국내 안정과 결속에도 심대한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을 한 번 보라. 최강 제국주의 대국의 지배체급이 트럼프와의 정치적 내전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독점 부르주아지의 다수도 혐오감을 갖는 기능장애 대통령 트럼프와 말이다. 미국의 쇠퇴를 로마제국 말기와, 얼간이 트럼프 (Dumbass Trump)를 악명 높은 네로 황제와 비교하는 논평가가 늘고 있다.¹⁶⁴⁾

그리고 유럽연합의 제국주의 정부들도 브렉시트 처리 문제로, 이주민·난민, 미국의 대 이란 공격, 세계무역전쟁 등등의 문제로 서로 간에 갈등을 빚으며 자기 몰두에 빠져 있다. 기존 제국주의 열강의 이러한 쇠퇴와 연동하여 미국·서유럽·일본에서 사회적 응집력에 파열이 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들 가장 부유한 제국주의 열강은 수십 년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굴릴 여유가 있었다. 그들의 부가 그들로 하여금 지배체급과 중간계급·노동귀족의 사회적 동맹을 구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기 때문이다. 정

163) David Smith: Trump hails foreign policy shift on surprise visit to US troops in Iraq, 27 December 2018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8/dec/26/trump-iraq-visit-us-troops-shutdown>

164) 다음을 보라. Jeet Heer: Are We Witnessing the Fall of the American Empire? Trump’s presidency is often compared to the decline of Rome, but the reality is much more complicated, March 7, 2018 <https://newrepublic.com/article/147319/witnessing-fall-american-empire>; David Remnick : The Increasing Unfitness of Donald Trump. The West Wing has come to resemble the darkest realms of Twitter, in which everyone is racked with paranoia and everyone despises everyone else, January 15, 2018,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18/01/15/the-increasing-unfitness-of-donald-trump>

치적으로, 이 “역사적인 블록” (안토니오 그람시의 범주를 빌리자면)은 미국에서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 서유럽에서 주도적 보수당 정부와 개량주의당 정부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부들로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바뀌고 있다. 트럼프, 마크롱, 브렉시트, 이탈리아의 오성운동·동맹(M5-Lega) 연정 등등으로 우리가 보듯이 말이다. 요컨대 기존 제국주의 열강의 쇠퇴는 이 “역사적인 블록”의 지속적 해체를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로 중간계급 부문들의 이탈 (급진 우익 인종주의 운동들 또는 급진 자유민주주의 운동들의 등장으로 표현된)을 가져왔다. 또 우리는 영국 코빈 노동당 같은 개량주의 당들 내의 위기 또는 심지어 분당 사태, 프랑스 사회당의 붕괴, 멜랑송의 ‘굴하지 않는 프랑스’의 부상, 스페인에서 포데모스의 부상 등등을 본다.

달리 말해서 기존 제국주의 열강의 쇠퇴는 근본적인 사회적·정치적 불안정화를 가져왔다. 경제적 쇠퇴에 더해 이러한 국내정치적 위기는 이들 강대국을 약화시키고 있다.

기존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사회적 응집력의 이러한 파열의 결과 중 하나는 국민들의 자국 국가에 대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일체화의 위기다. 물론, 이것을 의식적인 반제국주의적 태도 또는 패전주의적 태도로 혼동해선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의 직접적인 욕구와 소비주의 등등에 초점이 가 있는 "무의식적인 사회적 분위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미나 서유럽, 일본에서 주민들 사이에 “국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한다는 분위기 같은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해외에서의 군사적 모험에 대한 열정 같은 것도 거의 없어서 모든 정부는 국외의 전쟁에서 사상자를 최소화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트럼프는 단연 반동적 배외주의자이지만, 아프간과 중동에서 미군 병력 수를

줄이는 것을 통해 지지자들 사이에서 점수를 탄다. 그의 배외주의적 영광의 최고점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것이다! 이는 강대국의 배외주의적 공격성이라기보다는 쇠퇴하는 전(前)초강대국의 조국방위주의적 배외주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서방 나라들의 사회적 분위기에는 패전주의(그 범주의 레닌주의적 의미로가 아니라, 문자적 의미 그대로 이해된, [즉 패배주의]) 기미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1940년 5월/6월에 독일의 공격을 맞아 국가기구가 순식간에 붕괴하기 직전인 1939/40년에 프랑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끝으로, 서방의 쇠퇴와 중국의 굴기에 너무도 “현혹되어” 이미 중국이 세계 패권국으로서 미국을 대체했다고 말하는 부르주아 공론가들이 있다. 우리는 중국 주도 세계질서에 의한 미국 주도 세계질서의 순조로운 교체라는 사상을 일면적이고 인상주의적인 공리공담이라고 본다. 미국과 서방 일반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맞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가 여러 해 전부터 줄곧 주장한 것처럼 굴기하고 있다는 것도 맞다. 그러나 그러한 교체가 본격적인 세계 전쟁 없이도 (또는 이론적으로, 주요 제국주의 열강 중 하나에서 성공적인 사회주의혁명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완전한 공론, 일종의 부르주아 평화주의다. 서방의 쇠퇴와 중·러의 부상은 일차적으로 강대국들 간 모순의 가속화를 의미한다. 그것은 더 많은 무역전쟁, 더 많은 대리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라이벌들 간의 본격적인 전쟁을 의미한다. 패권을 건 결사적인 투쟁 없이 서방이 침몰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서방이 그러한 대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자본가 강도들을 제 때에 타도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세계대전의 결과는 모든 참가자들의 전멸이 될 가능성도 있다.

7장. 제국주의 대국들 : 몇 가지 역사적 비교

자본주의는 비록 그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지난 수백 년 동안 여러 가지 변화와 수정을 거쳤다. 생산력은 증대했고, 그 결과로 경제의 국제화(무역, 투자, 이주 등등의 글로벌화)도 증대했다. 이와 연결된 것이 자본주의적 가치 생산의 중심 이동이다. 기존 제국주의 나라들로부터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특히 중국)과 반식민지 남반구로 생산의 중심이 이동한 결과,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무게 중심도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피억압 인민의 초과착취가 증대했고, 한편으론 기존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노동운동의 부르주아화 경향이 더 한층 심화되었다.¹⁶⁵⁾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1917년까지 세계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유혈 패권쟁투로 점철되어 왔었다. 이 패권쟁투는 1차 세계대전 이후로도 20년 동안 계속되다가(제국주의 심장부에서의 본격 전쟁은 없는 채로였지만), 결국은 또 하나의, 훨씬 더 파괴적인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1917년 이래로 상황은 두 가지 중대한 요인에 의해 복잡해졌다. 첫째는 세계 최초의 노동자국가로서 소련의 출현이다. 둘째는 피억압

16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hapter 8 and 14); Michael Pröbsting: Marxism and the United Front Tactic Today, The Struggle for Proletarian Hegemony in the Liberation Movement in Semi-Colonial and Imperialist Countries in the present Period, RCIT Books, Vienna 2016, pp. 43-5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book-united-front/>

인민의 반식민지 해방투쟁의 상승 물결이다. 소련은 스탈린주의 관료의 지배 하에 퇴보, 타락했지만, 중요한 반자본주의적 요인으로 남아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은 소련방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동유럽, 발칸,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인민들의 영웅적인 저항에 기반한 소련의 승리로 끝났다.¹⁶⁶⁾ 파시즘뿐만 아니라 스탈린주의 관료가 수많은 혁명적 간부·기간대오를 절멸시켰다. 그로부터 스탈린주의 관료는 노동자계급 봉기들을 평정하고 봉기의 물줄기를 자신의 세력권 확대 목적을 위해 돌려놓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 전개는 결과로 1940년대 말에는 소련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 동유럽과 발칸반도의 대부분이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니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제국주의 진영 내부 편제도 깊은 변화를 겪었다. 독일·일본 제국주의의 패배, 영국·프랑스의 지위 추락, 미국의 압도적인 힘 등으로 제국주의 진영 내에서 마침내 미국이 패권 지위에 올랐다.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킨 것이 1940년대 후반 냉전의 시작인데, 이 냉전으로 미국 주도하에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동맹이 공고화되었다.

이러한 사태 발전이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을 없애지는 않았지만, 제국주의자들이 탈자본주의 관료적 노동자국가들과, 모든 대륙에서 일어난 피억압 인민들의 반제국주의 봉기에 맞서 함께 대처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필요 앞에 그러한 패권경쟁 경향은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1989-91년에 스탈린주의 진영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복고는 우선은 미국의 패권을 확대 강화시켰다. 제국주의 선전기들은 환호하며 미래에 대해 낙관론을 펼쳤다. 누가 “역사의 종언” 운운한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어리석은 선언을 잊을 수 있으랴!¹⁶⁷⁾ 이 시기

166) 몇몇 한계에도 불구하고 에르네스트 만델의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책은 이 문제에 대한 탁월한 개괄서로 남아 있다. Ernest Mandel: The Meaning of the Second World War, Verso, London 1986

167)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Free Press, New York 1992

는 미국 경제사가 데이빗 랜디스가 20세기 초 시기에 대해 성격규정 한 내용을 떠오르게 한다.

“19세기의 마지막 몇 년 동안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이윤도 같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경기가 개선되면서 자신감이 되살아났다. 그것은 앞서 몇 십년간의 암울한 분위기에 잠깐씩 끼어들었던 짧은 호황 때와 같은 간헐적이고 쉬이 사라지는 자신감이 아니라, 1870년대 초의 창업시대 (Gründerjahre; 1871년 이후 독일의 경제호황기) 이래 품미했던 바와 같은 일반적인 행복감이었다. 모든 것이 다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대국들의 무력 과시에서 나는 광음들과 맑스주의자들의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서유럽의 모든 지역에서 이 몇 년간은 좋았던 옛날 – 에드워드 시대, 라 벨 에포크 (la belle époque) – 로 기억되고 있다.”¹⁶⁸⁾

그러나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된 미 제국주의의 완만한 경제적 쇠퇴는 점점 더 가속도가 붙었다. 2001년에 워싱턴은 반동적인 “테러와의 전쟁” – 9/11 공격을 구실로 한 거대한 반동 공세 – 을 시작했다. 미 제국주의의 이 군국주의적 공세는 본질적으로 그 쇠퇴를 막으려는 시도로서, 지금까지 약 50만 명의 죽음을 가져왔다!¹⁶⁹⁾ 그러나 이 시도는 기본적으로 실패했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a) 식민지 침략에서 항구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었고, b) 중국과 러시아 같은 새로운 제국주의 강대국의 부상을 저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치광이 트럼프 정부는 워싱턴의 쇠퇴의 상징이자, 모든 라이벌들에 대한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결합해 절대 패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다. 이 시도는 명백히 파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168) David S. Landes: The Unbound Prometheus, Technological change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from 1750 to the pres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69, p. 231

169) 다음을 보라. Neta C. Crawford: Human Cost of the Post-9/11 Wars: Lethality and the Need for Transparency, November 2018, Wat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at the Brown University

이 간략한 역사적 개괄을 통해 우리는 강대국들 간 관계의 주요 특징들과 그 내적 모순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역사적 유사점을 찾아보면, 현재와 가장 비슷한 세계정세는 제1차 세계대전 전의 역사 시기인 것 같다. 그러나 현 세계정세를 1914년 이전의 세계정세와 차별화시키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기존 서방 강대국들의 외부에 있는 나라들 및 열강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그리고 그에 따라 이 지역들에서의 계급투쟁의 중요성도 또한 매우 커졌다는 점. 둘째, 무모한 자본주의 기업들에 의해 야기된 기후 재앙의 위험이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있다는 점.

이러한 차이들을 고려하더라도,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은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았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주의 이윤 탐욕, 독점체들 및 강대국들의 패권쟁투,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와 남반구에 대한 초과착취,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 쇠퇴(이윤율 저하 경향 등), 현대 자본주의의 이 모든 본질적인 특징들이 여전히 인류의 운명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하여 명백하게도, 20세기 맑스주의 고전들이 발전시킨 바, 제국주의와 전쟁에 대항하는 계급투쟁 강령은 여전히 그 본질적인 측면들에서 십분 유효 타당하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은 기본 원칙을 옹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분쟁 및 투쟁 상황에 그 기본 원칙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불균등 · 결합 발전 법칙

경쟁하는 강대국들의 발전에 대한 위의 개괄에서 우리는 이미 이 과정의 불균등한 본질과 이 관계에서 서로 다른 극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불균등 · 결합 발전 법칙 – 레닌과 트로츠키가 정립한 바의 – 의 핵심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일반 및 특수하게는 강대국들 간 관계의 역사적 발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법칙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 정리할 것이다.¹⁷⁰⁾

이 법칙은 – 우리가 그것을 매우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식화한다면 – 주어진 사회에서의 서로 다른 발전 단계와 서로 다른 발전 템포가 서로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다른 발전 형태들 또는 유형들을 가져오는가를 설명해준다. 당연히 이 동일한 과정이 서로 다른 사회들 간에도 일어난다. 트로츠키는 1905/06년에 러시아 사회 발전의 가능한 길들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면서 이러한 인식을 – 그의 영구혁명 전략과 함께 – 처음 발전시켰다. 그는, 서유럽과 비교할 때 러시아의 거대한 사회적 · 경제적 후진성과 그에 따른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적 규모의 작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는 서유럽에서 일어난 바와 같은 장기간의 자본주의 발전을 먼저 경험하지 않고서도 노동자계급이 이끄는 혁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170) 이 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보다 정교화한 것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apitalism Today and the Law of Uneven Development: The Marxist Tradi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Present Historic Period, in: Critique: Journal of Socialist Theory, Volume 44, Issue 4, (2016), [http:// 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03017605.2016.1236483](http://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03017605.2016.1236483)

“역사의 법칙은 현학적인 도식주의와는 아무 공통점도 없다. 역사 과정의 가장 일반적인 법칙인 불균등성은 후진국의 운명에서 가장 첨예하고 복잡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외적 필요의 채찍 아래 후진국의 낙후된 문화는 비약을 강요받는다. 따라서 보편 법칙인 불균등성으로부터 결합 발전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법칙이 나온다. 즉, 각 발전 단계들이 한데 모이는 것, 별개의 스텝들이 결합하는 것, 옛 형태들이 현대적인 형태들과 혼합하는 것 말이다. 이 법칙 없이는, 이 법칙의 유물론적 내용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러시아의 역사를, 또는 이류, 삼류 아니 십류 문화국의 역사도 이해가 불가능하다.”¹⁷¹⁾

나중에, 특히 1925-27년 중국 혁명을 경험한 뒤에 트로츠키는 이러한 인식을 일반화하여 그로부터 영구혁명 전략을 도출하였다. 그는 또 자신의 불균등·결합 발전 법칙의 의미를 일반화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인류 역사 전체에 적실성을 갖는 핵심 개념을 보게 된다. 트로츠키는 필연적으로 인간 사회가 돌이킬 수 없이 잇따라 필수 단계들을 거치며 발전한다는 스탈린주의적 사상을 절대적으로 거부했다. 반대로 역사는 비약하면서 발전하며, 나라마다 서로 다른 패턴을 그리며 발전한다. 이 법칙은 오직 자본주의 시대에만 적실성을 갖는다는 스탈린의 주장에 답하며, 트로츠키는 “인류 역사 전체는 불균등 발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강조했다.¹⁷²⁾

스탈린주의 코민테른 강령 초안에 대한 비판 속에서 트로츠키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민족들 간의 관계의 진행 - 그 관계의 돌발적인 변화를 포함하여 -

171) Leon Trotsky: History of the Russian Revolution (1930), Haymarket Books, Chicago 2008, p.5

172) Leon Trotsky: The Third International After Lenin (1928),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0, p.19. 그런데, 나중에 트로츠키는 불균등 발전 법칙이 자연, 인간 의식 등에서의 모순적 발전을 이해하는 데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Philip Pomper (Editor): Trotsky's Notebooks, 1933-1935: Writings on Lenin, Dialectics and Evolution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6)

을 이해하는 데 이 법칙이 왜 적실한지 설명했다.

“자본주의는 각각 심각한 내적 모순을 지닌, 다른 발전 단계에 있는 인류의 다양한 부위를 발견한다. 도달한 수준에서 매우 차이가 심하고, 다양한 시기를 거치는 동안 인류의 서로 다른 부위에서 나타나는 발전 속도상의 현저한 불균등성은 자본주의의 출발점 구실을 한다. 자본주의는 대물림된 불균등성에 대해 점진적으로만 지배력을 얻는데, 독자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깨뜨리고 개조한다. 선행한 경제체제와 대조적으로 자본주의는 선천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경제적 팽창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영토로 침투하고, 경제적 차이를 극복하며, 자급자족적인 지역적, 일국적 경제를 금융상의 상호관계 체계로 개조시키려고 한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는 이들의 화해를 가져오며, 가장 발달한 국가와 가장 후진적인 국가의 경제적, 문화적 수준을 균일화한다. 이런 주요한 과정이 없다면, 처음엔 영국과 유럽, 그 다음엔 유럽과 미국의 상대적 평준화를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식민지의 산업화, 인도와 영국사이의 격차 축소, 코민테른 강령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도 기초를 두고 있는, 앞에서 열거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여러 나라들을 서로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끌어당기고, 그 발전 단계를 평준화함으로써 자신만의 방식, 즉 항상 자신의 성과를 해치는 무정부적 방식으로 작동한다. 한 나라를 다른 나라에, 산업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에 대립시키며, 세계경제의 몇몇 부분을 발전시키는 반면에, 다른 부분의 발전을 방해하고 지연시킨다. 이 두 기본적인 경향의 상호관계 — 둘 다 자본주의의 본질에서 생긴다 — 야말로 우리에게 역사적 과정의 현존하는 구조를 설명해준다.

제국주의는 보편성, 침투성, 기동성, 그리고 제국주의의 추진력인 금융자본을 아주 빠른 속도로 구성하는 덕분에 이 두 경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제국주의는 비할 데 없이 더 빠르게, 더 철저히 개별 국가와 대륙을 하나의 실

체로 잇는다. 그러면서 서로 가장 긴밀하고 가장 불가결한 의존관계에 이르게 하고, 그 경제적 방식, 사회 형태, 발전 수준을 더욱 동일하게 만든다. 동시에 대단히 적대적인 방식으로, 호랑이가 달려들 듯, 후진국과 후진지역을 급습하는 방식으로 이 ‘목표’를 달성한다. 그 결과인 세계경제의 통합과 평준화는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그리고 발작적으로 탈이 난다.”¹⁷³⁾

여기서는 불균등·결합 발전 법칙 일반에 대해 논의할 자리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법칙이 본서의 초점 — 강대국들 간의 패권쟁투 — 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로 한정할 것이다. 알다시피, 레닌과 트로츠키는 이 법칙을 이른바 후진국·(반)식민지 나라들에만 또는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 나라 간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 간의 관계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과 같은 트로츠키와 레닌의 두 인용문은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역사적 후진성의 특권은 진짜 존재한다. 특정 시점에서 최신 성과들을 바로 받아들이면서 후진국은 발전의 중간단계들을 건너뛴다. 야만인은 활을 내던지고 즉시 소총을 무기로 사용한다.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무기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아메리카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처음부터 역사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다. 독일과 미국은 영국을 경제적으로 추월했는데 이것은 두 나라가 자본주의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역사적으로 후진국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역사적 과정에서의 서로 다른 단계들의 특수한 결합으로 이어진다.”¹⁷⁴⁾

“우리는 1915년에 유럽소비에트합중국 슬로건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지

173) Leon Trotsky: *The Third International After Lenin* (1928),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0, pp.19–20. [트로츠키 <<레닌 이후의 제3 인터내셔널>>, 정민규 옮김, 풀무질, 36–37쪽]

174) Leon Trotsky: *History of the Russian Revolution* (1930), Haymarket Books, Chicago 2008, p. 4

적했다. 불균등 발전 법칙은 본질적으로 이 슬로건과 충돌하는 주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나라와 대륙들의 역사적 발전의 불균등성은 본질적으로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은 서로에 대해 불균등하게 발전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역사적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적어도 검토되고 있는 역사적 시기 중에, 미국이 유럽을 능가한 것처럼, 유럽 국가들 가운데 단 한 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아주 월등히 앞서 나아가도록 운명 지어져 있지 않다. 미국이 불균등성에 관한 하나의 척도라면, 유럽은 다른 하나의 척도다. 지리적, 역사적 조건들이 유럽 국가들 사이의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미리 결정했기 때문에 유럽 각국이 이를 뿌리칠 길이 없다. 현대의 유럽 부르주아 정부들은 한 수레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 살인범들과 같다.”¹⁷⁵⁾

레닌도 러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 규모에서도 불균등 발전을 관찰했다. 러시아에서는 근대적인 자본주의 기업들이 농업에서의 후진적인 반(半)봉건 착취 형태와 나란히 존재했다. 세계적 규모로는, 레닌은 가장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 영국이 정체한 반면, 자본주의 발전이 뒤늦은 나라들(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이 극적으로 부상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유럽 자본주의 나라들로부터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식민지들로의 자본수출이 서로 다른 생산양식들의 혼합을 낳았고, 그리하여 식민지 나라들에서의 경제성장의 가속화를 가져왔다. 레닌은 “경제적·정치적 발전의 불균등성은 자본주의의 절대적 법칙이다”라고 결론 내렸다.¹⁷⁶⁾

레닌은 강대국들 간 관계에서의 불균등 발전 법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레

175) Leon Trotsky: *The Third International After Lenin* (1928),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0, pp.14-15. [트로츠키 <레닌 이후의 제3 인터내셔널>, 정민규 옮김, 풀무질, 32쪽]

176) V.I. Lenin: *On the Slogan for a United States of Europe* (1915), in: *LCW* 21, p. 342. [레닌 <유럽합중국 슬로건에 관하여>,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106쪽]

닌은 왜 강대국들 간의 안정적인 관계라는 것이 불가능한지, 그리고 왜 강대국들 간에는 파열과 궁극적으로는 전쟁이 불가피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법칙임을 설명했다.

“이렇게 물었을 때 그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하에서 세력권 · 이익 · 식민지 등을 분할하는 데 있어 분할 참가국들의 국력, 즉 전반적인 경제력 · 재정력 · 군사력 등을 고려하는 것 외에 다른 근거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분할 참가국들의 국력은 불균등하게 변화한다. 자본주의하에서 개개의 기업 · 트러스트 · 산업부문 · 국가 들이 균등하게 발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반세기 전 독일의 자본주의적 국력은 당시 영국과 비교해 보면 독일이 비참할 정도로 미미했다. 러시아와 비교할 때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10년이나 20년 후 제국주의 열강의 세력관계가 여전히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인가? 결코 가능하지 않다.”¹⁷⁷⁾

그리고 실로, 제국주의 시대 초기 국면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을 보면, 강대국들 간의 그러한 불균등 발전의 완벽한 확인을 – 아래의 표들에서 보듯이 – 보게 된다.

레닌과 트로츠키 시대에 강대국들 간의 그러한 불균등성을 인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중 · 러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다음과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맑스주의 고전들은 가장 강하고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들만을 ‘제국주의’로 간주했다”?! 우리는 위 4장에서 이미 이러한 주장을 논박한 바 있다. 아래에서는 제국주의 초기

177) V.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1916), in: LCW 22, p. 295. [레닌 <<제국주의론>>, 레닌전집 63권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이정인 옮김, 아고라, 197-8쪽]

국면에서의 강대국들 간의 불균등한 성격을 상세히 살펴보자.

1939년 이전 강대국들 간의 불균등성에 관한 몇 가지 역사적 사례

위에서 언급했듯이, 20세기 초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큰 틀에서 다음 세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래의 “성숙한” 제국주의 열강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신흥 열강 (독일이나 미국 같은), 보다 뒤떨어진 열강 (러시아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나 이탈리아나 일본 같은). 몇몇 글들에서 우리가 상세히 설명했듯이, 산업 발전, 경제적 생산성, 자본수출, 차관 등과 같은 측면에서 이들 강대국 간의 불균등성이 존재했다. 이는 오늘날의 제국주의 열강 간의 차이와 다르지 않다.¹⁷⁸⁾

가장 명백한 것은 선진 제국주의 열강과 보다 뒤떨어진 제국주의 열강 간의 거대한 차이이다. 단 두 가지 예를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표 16에서는 한편으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과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나 일본 또는 스페인 같은 뒤떨어진 제국주의 열강 간에 나타나는 노동 생산성의 엄청난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16. 1913년에 인구와 국내총생산(GDP)¹⁷⁹⁾

178) 이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 웹사이트의 별도 하위 섹션에 모아놓은 다양한 저작들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특히 다음 우리의 팸플릿을 보라.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179) Angus Maddison: The World Economy: A Millennial Perspective, Vol. 1, 2001, pp. 183-185 and 213-215. The figures are calculated in 1990 international U.S. Dollars.

	인구	GDP (달러)	1인당 GDP (달러)
미국	9760만 명	5174억	5,301
영국	4560만	2246억	4,921
스페인	2030만	457억	2,255
러시아	1억5620만	2323억	1,488
일본	5170만	716억	1,387
중국	4억3710만	2413억	552

표 17에서는 1차 세계대전 전야에 몇몇 제국주의 열강의 상대적인 1인당 GDP 수치와 공업화 수준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비슷하게 1913년에도 서방 제국주의 열강과 그들의 보다 뒤떨어진 라이벌들 간에 생산성에서의 거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1인당 산업 생산량 (비교의 기초로 영국을 100으로 한다)은 오스트리아의 3배 이상, 이탈리아의 4배, 러시아의 6배였다.

표 17. 1913년에 제국주의 열강의 1인당 GDP (A열) 및 공업화 수준 (B열) 비교¹⁸⁰⁾

나라	A	B
영국	100	100
프랑스	81	51
독일	77	74
오스트리아	62	29
이탈리아	52	23
스페인	48	19
러시아	29	17

이러한 경제발전 상의 불균등성에도 불구하고 레닌은 러시아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나 이탈리아나 일본 같은 “뒤떨어진” 강대국들을 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했다. 예를 들어, 그 훨씬 더 약한 경제발전 단계에도 불구하고 일

180) François Crouzet: A History of the European Economy, 1000-2000,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2001, p. 148

본 같은 나라의 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해 레닌이 한 다음과 같은 언급을 보라.

“자본주의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은 식민지들과 대양 너머의 나라들이다. 후자의 나라들 중에서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 (예를 들어 일본)이 등장하고 있다.”¹⁸¹⁾

그러나 역사적 데이터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발달한 강대국과 뒤떨어진 강대국 간에만이 아니라 발달한 서방 제국주의 강대국들 내에서도 불균등성이 존재했음을 볼 수 있다. 이 점은 일단 식민지 보유 정도를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그들 지배하에 광대한 제국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독일과 미국은 거의 식민지를 가지지 못했다.

자본수출의 역할을 살펴보면 서방 강대국들 내에서도 비슷한 불균등성을 볼 수 있다. 표 18에서 보듯이, 영국의 경우 자본수출은 상품생산 및 무역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것은 영국이 당시에 지배적인 제국주의 열강이었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영국은 20세기 후반부의 미국과 비슷한 역할을 담당했다). 런던 혼자서 전 세계 외국인투자의 거의 반을 차지했다. 자본수출에서 런던의 점유율은 세계의 산업생산 및 무역에서 런던의 점유율 대비 약 2.5배에 달했다. 프랑스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자본수출이 상품무역보다 더 큰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제국주의 열강의 한 예다. 그리고 미국도 상품생산 및 무역이 자본수출보다 상당히 더 큰 역할을 담당한 또 다른 제국주의 열강이었다.

181) V. 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1916) ; in: LCW Vol. 22, p. 274. [레닌 <<제국주의론>>, 레닌전집 63권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이정인 옮김, 아고라, 159쪽]

표 18. 1913년 산업생산 및 무역과 자본수출에서 강대국들의 점유율¹⁸²⁾

	산업생산	세계무역	해외투자
영국	14%	15%	41%
미국	36%	11%	8%
독일	16%	13%	13%
프랑스	6%	8%	20%

어느 정도는 20세기 초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의 중국과 비슷한 지위에 있었다. 미국은 신참자였고, 자본수출에서 기성 제국주의 열강에 뒤쳐졌다.

이 점은 또 다른 지표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표 18에서 보듯이, 미국은 주요 자본수출국이 아니었다. 세계 자본수출 잔액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영국의 1/5도 안되었다. 오히려 미국은 1913/14년까지 외국인투자의 최대 수입국이였다. 당시 미국은 71억 달러를 수입했는데, 이 액수는 세계 외국인투자의 15.8%에 해당하는 것이었다.¹⁸³⁾ 표 19에서 보듯이, 1914년까지 미 제국주의는 미국 자본이 국외에 투자한 것보다 외국 자본으로부터 두 배 이상 많은 투자를 받았다.

표 19. 1914년 미국의 외국인투자 관계 (달러)¹⁸⁴⁾

182) 산업생산과 세계무역 수치들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Jürgen Kuczynski: Studien zur Geschichte der Weltwirtschaft, Berlin 1952, p. 35 and p. 43. 해외투자 수치는 다음에서 따왔다. Paul Bairoch and Richard Kozul-Wright: Globalization Myths: Some Historical Reflections on Integration, Industrialization and Growth in the World Economy, UNCTAD Discussion Papers No. 113, 1996, p. 12. (비 독일인 독자를 위해 덧붙이자면, 고 위르겐 쿠친스키는 스탈린주의 전통에 있는 유명한 독일 경제사가로서 자본주의와 노동자계급에 관한 수많은 저서를 썼다. 그는 일종의 독일판 에릭 홉스봄이었다.)

183) Dirk Willem te Veld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Development, A historical perspective, 30 January 2006, Background paper for '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 for 2006',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p. 6.

184) Mira Wilkins: The History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1914-1945, Harvard University

미국의 해외투자			미국 내 외국인투자		
총액	정부대출	민간투자 (증권투자와 직접투자)	총액	정부차입	민간투자 (증권투자와 직접투자)
35억	0	35억	71억	1억	70억

표 20. 독일과 영국: 순자본형성 총액 대비 해외투자(백분율)¹⁸⁵⁾

독일		영국	
1851/5-1861/5년	2.2%	1855-64년	29.1%
1861/5-1871/5	12.9%	1865-74	40.1%
1871/5-1881/5	14.1%	1875-84	28.9%
1881/5-1891/5	19.9%	1885-94	51.2%
1891/5-1901/5	9.7%	1895-1904	20.7%
1901/5-1911/13	5.7%	1905-14	51.9%

표 21. 1914년 순 해외자산 (GDP 대비 백분율)¹⁸⁶⁾

영국	153%
독일	36%
미국	-9%

지오반니 아리기와 비벌리 실버는 1870년에서 1913년 사이에 영국이 미국에 투자한 액수와 장기로 대출해준 액수를 합하면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한

Press, Cambridge 2004, p. 64

185) David S. Landes: The Unbound Prometheus, Technological change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from 1750 to the pres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69, p. 331

186) Moritz Schularick: A Tale of two 'Globalizations': Capital Flows from Rich to Poor in Two Eras of Global Finance, in: International Journal of Finance and Economics 11 (2006), p. 350

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은 58억 달러에 달하는 액수를 이자와 배당금으로 - 주로 영국에 - 순 지불 했다. 그 결과는 미국의 외채가 1843년 2억 달러에서 1914년 37억 달러로 증가한 것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차 세계대전 당초에 영국은 그 자산의 거의 1/2을 해외에 가지고 있었고, 해외투자에 대한 이자가 국민소득의 약 10%를 점했다.”¹⁸⁷⁾

달리 말하면,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전야에 순 자본수출국이 아니라 순 자본수입국이었다. 미국은 영국에 배당금과 이자를 순 지불 했다. 자본수출로 볼 때 미국과 영국의 대조는 이보다 더 클 수 없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 영국 뿐만 아니라 미국도 — 제국주의 강대국이었다. 이것은 제국주의 열강 간의 불균등 발전의 예다. 이 같은 불균등에도 불구하고 레닌은 영국만이 아니라 독일과 미국도 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통계가 데이비드 랜디스의 유명한 자본주의 연구서 <<고삐 풀린 프로메테우스>>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 표 20은 자본수출이 어떻게 영국과 독일 같은 선도적 자본주의 열강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경우 해외투자액이 영국 순자본형성 총액의 약 52%를 차지하는 데 비해 독일의 경우 그 비율이 6%도 채 안되었다. 달리 말하면, 독일 자본은 세계시장에서 영국보다 그 역할이 훨씬 더 작았을 뿐만 아니라, 자본수출도 독일에게는 그 중요성이 훨씬 더 낮았다.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불균등 발전의 또 다른 예를 표 21에서 볼 수 있다. 1914년 영국, 독일, 미국 등 세 나라의 경제 산출액 대비 순 해외자산을 비교해보면, 자본수출의 역할이 이들 강대국 간에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명백히 해외투자가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담당했다. 그

187) Giovanni Arrighi and Beverly J. Silver: Chaos and Governance in the Modern World Syste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1999, pp. 132-133

러나 독일의 경우는 그 산출액 대비 자본수출액 비중이 영국의 1/4밖에 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그 간극은 훨씬 더 컸다. 여기서 우리는, 위의 다른 표들이 이미 말해주고 있듯이, 실제로 미국은 전혀 순 자본수출국이 아니며, 오히려 순 자본수입국임을 본다.

다시 또 반복하자면, 이 같은 불균등성에도 불구하고 레닌은 이들 강대국 모두를 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했다.

불균등성은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에서도 여전히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 중심 특징으로 남아 있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더 이상 어떤 식민지도 보유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전야에도 각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에서 자본수출이 담당하는 역할을 보면, 열강들 간에 거대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2에서 보듯이, 영국은 세계의 외국인투자 가운데 39.4%를 점하며 여전히 지배적인 지위에 있었다. 대조적으로 프랑스의 점유율은 8.8%밖에 안 되었다. 그리고 1938년 독일의 자본수출액도 영국의 4%가 채 안 되었다. 비슷하게, 일본의 해외투자액도 미국의 7.1%밖에 안 되었다. 결론적으로 1930년대에 제국주의 열강들 간에는 자본수출에서 큰 격차가 있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간극에도 불구하고 맑스주의자들은 이들 모든 열강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1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의 세계화와 강대국 패권쟁투

위에서 우리는 현 시기와 가장 비슷한 역사적인 시기가 1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명백히, 1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를 분석하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¹⁸⁸⁾ 그러나 몇몇 유사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십 년간의 미국과 비슷하게도, 영국은 1차 세계대전 전에 단연 가장 성숙한 자본주의 나라였다. 이는 세계의 외국인투자 잔액에서 영국의 지배적인 비중으로 나타났다. 전후 시기 최상의 맑스주의 역사가 고 에릭 홉스봄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914년에 프랑스, 독일,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가 – 그리고 이들 사이에 있는 나머지 국가들을 포함하여 – 전 세계 해외 투자액의 56%를 점했다. 영국 혼자 44%를 차지했다. 1914년에 영국 증기선만 해도 다른 모든 유럽 국가들의 상선 모두 합친 것보다도 12%나 더 컸다.”¹⁸⁹⁾

그러나 영국의 힘은 새로운 라이벌들이 부상하면서 – 그 어느 나라보다도 독일이, 그리고 미국이 – 이미 쇠퇴에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수출 면에서는 이들 열강 간의 간극이 여전히 심대했다. 오늘 중국이 도전자로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긴밀한 경제적 관계 – 오늘 세계화 (또는 UNCTAD의 문구를 빌리면, “초세계화”¹⁹⁰⁾)로 불리는 – 로 볼 때 강대국들 간의 공공연한 패권쟁투가 터져 나오는 데는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지적했듯이, 역사는 반대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과 독일 – 1차 세계대전에서 양대 라이벌 – 은 1914년 이전에는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¹⁹¹⁾ 표 23에서 보듯이, 영국은 1914년 이전에 독일의 가장 중

188) 1차 세계대전에 관한 수많은 문헌이 현존한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James Joll: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Longman, New York 1984; Gerd Hardach: *First World War, 1914–1918*, Penguin Books, New York 1987; John Godfrey: *Capitalism at War: Industrial Policy and Bureaucracy in France, 1914–1918*, Berg Publishers, Leamington Spa 1987; Fritz Klein (Ed.): *Deutschland im ersten Weltkrieg*, Vol. 1–3, Akademie-Verlag, Berlin 1968.

189) E. J. Hobsbawm: *The Age of Empire*, Vintage Books, New York 1989, p.51

190) 다음을 보라.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19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Helga Nussbaum: *Der europäische Wirtschaftsraum. Verflechtung, Angleichung, Diskrepanz*, in: Fritz Klein / Karl Otmar von Aretin (Eds): *Europa um 1900*, Akademie-Verlag, Berlin 1989,

요한 무역 파트너였으며, 독일은 영국 무역에서 거의 프랑스만큼이나 중요한 파트너였다.

표 22. 1938년에 해외 투자된 자본의 총 명목 가치 (당시 환율로 미화 백만 달러)¹⁹²⁾

	유럽	북미 · 대양주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총액
영국	1,139	6,562	3,888	3,169	1,848	17,335
프랑스	1,035	582	292	906	1,044	3,859
독일	274	130	132	140	-	676
네덜란드	1,643	1,016	145	1,998	16	4,818
기타 *	1,803	1,143	820	101	646	4,579
미국	2,386	4,454	3,496	997	158	11,491
일본	53	48	1	1,128	-	1,230
총액	8,331	13,935	8,774	8,439	3,712	43,988

*기타에는 19개 유럽 국가들이 포함.

표 23. 영국과 독일 각각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들, 1890-1913년 (평균 백분율)¹⁹³⁾

영국	독일
1. 미국 : 19.47%	1. 영국 : 13.85%
2. 프랑스 : 8.99%	2. 미국 : 11.03%
3. 독일 : 8.90%	3. 오스트리아 ~ 헝가리 : 10.15%

p. 49

192) Angus Maddison: The World Economy: A Millennial Perspective, Vol. 1, 2001, p. 101

193) Stefano Battilossi: The Determinants of Multinational Banking during the First Globalization, 1870-1914, Working Papers 114, Oesterreichische Nationalbank (Austrian Central Bank), 2006, p. 40

표 24. 1914년 유럽의 평균 관세율¹⁹⁴⁾

영국	0	오스트리아-헝가리, 이탈리아	18
네덜란드	4	프랑스, 스웨덴	20
스위스, 벨기에	9	러시아	38
독일	13	스페인	41
덴마크	14	미국 (1913)	30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이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그러한 긴밀한 경제적 관계는 독점자본가들 간의 보다 긴밀한 유대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들 간의 패권 경쟁도 또한 가속화시킨다. 이 점은 1914년에 마침내 영국과 독일 간 적대의 폭발로 결과한 그들 간의 오랜 패권쟁투로 강력히 증명되었다.

또 다른 유사점은 1차 세계대전 이전 몇 년 동안에 보호주의가 증대한 것이다. 최강 제국주의 열강 영국을 예외로 그 밖의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이 상품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것 또한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시작 단계의 세계무역전쟁과 비슷한 양상이다. (표 24 참조)

제국주의 열강 간의 이 같은 불균등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어졌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자. 미국이 절대 패권국이 된 반면, 영국과 프랑스의 지위는 급속한 쇠퇴에 접어들었다. 이는 그들이 식민 제국을 잃은 것에서, 또는 1956년에 나세르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막으려던 그들의 실패한 시도에서 볼 수 있다. 패전한 제국주의 열강으로서 독일과 일본은 각각 경제를 재건할 수 있었지만, 그들 둘 다 여전히 워싱턴에 군사적 종속 상태로 남아 있었다.

194) E. J. Hobsbawm: The Age of Empire, Vintage Books, New York 1989, p.39

“살찐” 소와 “아윈” 소

역사상 이전의 사태 전개와 유사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본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은 세계질서를 지배한 기존의 오랜 강대국들과, 이 질서에 도전하며 자신의 제국주의적 몫을 얻겠다고 결심한 신흥 강대국들 간의 대결이었다. 기존 제국주의 열강 - 영국과 프랑스 - 은 더 부유했고 모종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여유가 있었다.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 - 독일, 이탈리아, 일본 - 은 그리 부유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들의 경제적 자원을 중앙 집중화 하고 정치적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트로츠키는 1930년대 저작들에서 여러 번 이 문제에 관해 쓴 바 있다.

“위에서 말한 국가들의 분류는 그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값싼 평화주의적 낙서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 파시즘 또는 그 밖의 독재 형태들에 도달한 첫 주자들은 그 내적 모순이 가장 첨예한 수준에 이른 나라들이었다. 자국에 원료도 없고 세계시장에 충분한 접근권도 없는 나라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마지막 전쟁에서 패배를 겪은 나라들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끝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에 전 자본주의적 잔재가 덧붙여진 나라들 (일본,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이 그들이다. 이 모든 역사적으로 뒤떨어진, 또는 운이 없는 나라들은 당연히 이 지구상의 정치 지도에 가장 만족하지 않는 나라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대외정책은, 무엇보다도 기(既) 획득한 전리품의 유지 보존에 관심 있는 특권 국들의 대외정책보다 더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로부터 매우 조건적인 분할, 즉 현상(現狀; status quo)의 적극 지지국과 적대국 - 파시스트 국 및 그 대부분이 파시스

트 국의 편에 서는 준 파시스트 국 - 으로의 분할이 등장한다. 그러나 결코 이것이 바로 그 두 진영이 서로 싸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¹⁹⁵⁾

트로츠키는 기존 열강을 “살찐 소”로, 신흥 열강을 “야윈 소”로 부른 적이 있다. 따라서 이 둘은 사회제국주의 당들과도 각각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자본주의 세계가 제국주의적 민주주의 국들의 살찐 소들과 파시스트 독재의 야위고 게걸스런 소들로 나뉜 것처럼, 제2 인터내셔널도 자국의 제국주의 기업들에서의 주주로 여전히 남아 있는 “실컷 먹은” 소들 그룹과 파시즘에 의해 자국 목초지에서 내몰린 “야윈” 소들 그룹으로 분열되었다.”¹⁹⁶⁾

오늘의 상황과 확실한 유사점이 존재한다. 기존 강대국들 - 미국, EU, 일본 - 은 현 세계질서의 방어자들이다. 이들 “살찐 소들”은 그들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제 권리를 감당할 여유가 있다. 신흥 강대국들 - 중국과 러시아 - 은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다. 그들은 기존 제국주의 라이벌들에 비해 노동 생산성이 상당히 낮다. 이들 “야윈 소들”은 공격적으로 기존 질서에 도전한다. 이것이 “살찐” 소가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이들 국가의 부르주아지는 국내에 민주적 제 권리를 거의 감당할 수 없는 (러시아), 또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중국) 권위주의 정권들을 통해 지배하고 있다.

195) Leon Trotsky: On the Threshold of a New World War (1937); in: Trotsky Writings 1936-37, p. 384

196) Leon Trotsky: Progressive Paralysis, The Second International on the Eve of the New War (1939), in: Writings of Leon Trotsky, 1939-40, p. 36

2부:
현 시기 강대국 패권쟁투에 대한
수정주의 이론들

8장. 수정주의적 축소은폐: 스탈린주의자 · 볼리바르주의자의 중국 “사회주의” 예찬

정당들과 사람들을 그들의 일반적인 이데올로기적 신념으로 판단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맑스주의자들은 항상 주장해왔다. 그런 정치적 신념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 트로츠키가 적절히 표현했듯이, “계급들이나 당들을,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또는 그들이 어느 한 시점에 내거는 구호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는 정당 내 그룹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¹⁹⁷⁾

국제 계급투쟁에서 그들이 취하는 구체적인 정치적 태도와 결론을 그들의 말과 비교해 봄으로써만 비로소 그들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럴 때 비로소 맑스주의자는 당이나 인자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에 이를 수 있다.

역사는 이 근본 진실을 수천수만 번 증명해 왔다. 우리가 다른 글에서 지적했듯이, 적대적인 계급 세력들이 하나의 같은 종교의 깃발 아래서 서로에 대한 투쟁을 되풀이해 왔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공식 기독교교회 대(對) (특히 북아프리카의) 가난한 계급들에 뿌리내린 도나투스파, 부패한 아바스 조(朝)의 칼리프 대 '알리 이븐 무함마드'와 노예 · 빈민의 사회혁명적인 잔즈 반란, 또 독일에서 봉건 지배계급에 대항하여 가난한 농민들의 혁명적 봉기를 이끈 토마스 뮌처가 있고, 한편 봉건 지배계급에 타협하면서 같은 기독교 깃발 아래서

197) Leon Trotsky: An Analysis of the Slogans and Differences, in: Leon Trotsky: The Challenge of the Left Opposition 1923-25, New York 1975, p. 390

부패한 가톨릭교회에 맞선 마르틴 루터가 있다.¹⁹⁸⁾

현대의 노동자운동에서도 우리는 같은 것을 본다. 맑스주의의 이름 아래 한 쪽은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여 투쟁한 레닌, 로자 룩셈부르크, 리프크네히트가 이끈 세력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쪽에는 역시 맑스주의의 이름 아래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한 카우츠키와 플레하노프 같은 기회주의 세력이 있었다. 레닌주의의 기치를 악용한 전체주의적·친제국주의적 스탈린주의 관료기 있었고, 같은 레닌주의의 이름으로 이에 대하여 투쟁한 트로츠키와 제4 인터내셔널이 있었다.

오늘도 다르지 않다. 맑스주의의 깃발을 내걸면서 동시에 시리아 인민의 봉기를 탄압하는 반동 아사드 독재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 다른 일부 세력은 비켜서서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 또 다른 진영은 아사드에 반대하여 시리아 혁명을 지지한다.¹⁹⁹⁾ 2013년 7월 이집트에서 시시 장군의 쿠데타는 또 하나의 예다. 공식적으로 맑스주의 이데올로기를 견지하는 조직들 중 일부는 쿠데타를 지지한 데 반해 다른 일부는 군부에 반대하여 대중항쟁을 지지했다.²⁰⁰⁾ 이외에

198)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World Perspectives 2018, pp. 107–10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8/>

199) 시리아 혁명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에 별도의 하위 메뉴에 있는 설명과 논설, 책자를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the-syrian-revolution/>, 특히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Is the Syrian Revolution at its End? Is Third Camp Abstentionism Justified? An essay on the organs of popular power in the liberated area of Syria, on the character of the different sectors of the Syrian rebels, and on the failure of those leftists who deserted the Syrian Revolution, 5 April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yrian-revolution-not-dead/> 및 chapter V of Michael Pröbsting: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Februar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8/chapter-v/>, 호주 사회주의자 Michael Karadjis도 — 그의 분석의 모든 측면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 시리아 혁명에 관한 다수의 통찰력 있는 논설들을 발표했다. 다음 웹사이트를 보라. <https://mkaradjis.wordpress.com/>.

200) 이집트 쿠데타에 대해서는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에 하위 섹션에 게재되어 있는 많은 RCIT 설명과 논설들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다음의 전면적인 분석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oup d'État in Egypt and the Bankruptcy of the Left's "Army Socialism", August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egypt-and-left-army-socialism/>, 또 다음도 보라. Yossi Schwartz: Egypt: The U.S. Support for the Military Coup and the Left's ignorance, 11.7.201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egypt-us-support->

도 더 많은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리 놀랄 것도 없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기회주의 세력들이 맑스주의나 레닌주의나 트로츠키주의의 깃발을 악용하여 노동자 전위와 혁명적 활동가 대열 속에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지배계급에 직간접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수정주의자들로부터 진정한 맑스주의를 구분하는 것이 혁명가들에게 중요하다. 바로 이 때문에 혁명가들은 국제 계급투쟁에 대한 구체적 강령 상의 동의 없이 단지 “일반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자연합 같은 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RCIT는 항상 강조해 왔다. 혁명가들은 맑스주의나 레닌주의나 트로츠키주의의 이름을 악용하여 정치적 전위 속에서 혼란을 조성하며 지배계급에 봉사하는 자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과 강대국 패권쟁투 문제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본다. 앞 장에서 우리는 러시아·중국 제국주의임을 증명했다. 그러나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규정하는, 또는 시진핑의 중국과 푸틴의 러시아를 사회주의는 아니라도 “객관적으로 반제국주의적”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수많은 자칭 “맑스-레닌주의” 당들이 있다. 이 장과 그 다음 세 장에서 몇몇 사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자.

상당수의 스탈린주의 당들과 볼리바르주의 당들이 중국을 “사회주의” 세력이자 “진보” 세력이라고 칭송한다. 남아공공산당(SACP)은 1994년 이래 독점 자본가들에게 봉사하며 나라를 충성스럽게 관리해 온 연립정부의 일원으로서, 오랫동안 ‘중국 형제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남아공공산당의 지도자 베네딕트 안소니 듀크 마틴스가 최근에 “새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관

한 시진핑 사상의 영도” (중국의 공식 이데올로그들이 애호하는 문구)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여기에 있다.

“남아공공산당(SACP) 정치국원 및 중앙위원으로서 베네딕트 안소니 듀크 마틴스는 새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관한 시진핑 사상의 영도 및 그 사상이 남아공을 포함한 다른 나라 공산당들에 미치는 모범적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마틴스는 “남아공과 중국 사이에는 상호 이익이 존재한다. 두 나라 공산당의 협력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틴스는 중국 공산당의 독특한 영도 스타일로부터 배운 ‘남아공’ 특색 사회주의가 발달하여 부의 분배, 성 평등, 사회기반시설을 비롯한 그 밖의 사회적 관심사항들을 위한 자금 조성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틴스는 “탈식민지 시기 동안 남아공은 동반자 중국공산당의 재정 지원에 부분적으로 힘입어 상당한 국가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²⁰¹⁾

네팔의 각종 스탈린주의-마오주의 당들도 같은 방침을 취하고 있다. 네팔 통합공산당(마오주의) 의장 푸스파 카말 다할 프라찬다는 중국공산당 지도부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바로 이웃이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 놀라운 경제발전과 거기에 정치적 안정까지 이루어낸 것을 보며 긍지를 느낀다.”

“축하 메시지는 “세계는 중국에서 전개되는 발전이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세계는 중국공산당 대회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대회의 결론이 중국과 세계 모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네팔 통합공산당(마오주의)은 중국공산당의 국내외의 평화와 안정과 발전을 위한 노력에 연대를 표했다고 메시지는 전했다. 네팔공산

201) Mutual interests strengthen South Africa-China relations, 2018-May-29, http://www.szdaily.com/content/2018-05/29/content_21019455.htm

당(통합 맑스-레닌주의) 의장 — 잘라 나트 카날 — 은 메시지에서,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 중국은 큰 전진을 이루어 세계 2대 경제국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덩샤오핑 동지가 제시한 기본지침에 따라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건설했다고 메시지는 전했다.”²⁰²⁾

2000년대 이래 자본주의를 부활시킨 쿠바 집권 공산당²⁰³⁾도 중국공산당의 “현명한 리더십”을 찬양하는 합창 대열에 합류했다. “쿠바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회에 즈음하여 중국에 축하인사를 보냈다. “우리는 대회가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믿는다”고 쿠바공산당의 고참 당원인 올리세즈 기야르테가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중국은 신뢰와 안보를 주는 나라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평등과 배제와 제국주의 열강의 간섭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 경제 질서의 한 가운데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고 그는 덧붙였다.”²⁰⁴⁾

베네수엘라 집권당인 볼리바르주의 통합사회당(PSUV)으로부터도 중국 지배자들에 대한 비슷한 찬가가 들려온다. “중국공산당은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며 각종 심오한 변혁을 통해 나라를 성공적으로 영도했다”고 베네수엘라 분석가들은 말한다. 최근에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관계 전문가인 호세 안토니오 에지도는 중국공산당의 성공, 나아가 중국의 성공은 공산당이 자신의 근본적인 사회주의 원칙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는 당의 능력에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7억을 넘는 인민을 빈곤으로

202) World party leaders congratulate China on CPC congress, 2012/11/08, <http://dm.china-embassy.org/eng/zl/sbd/1987943.htm>

203) 쿠바에서의 자본주의 복고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uba's Revolution Sold Out? The Road from Revolution to the Restoration of Capitalism, August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uba-s-revolution-sold-out/>

204) Cuba Congratulates China on Communist Party Congress, 18 October 2017 <https://www.telesurtv.net/english/news/Cuba-Congratulates-China-on-Communist-Party-Congress-20171018-0029.html>

부터 구해낸 것 등 경제발전에서 거대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에지도는 말했다.

베네수엘라 의회의 통합사회당 의원 에레라는 중국공산당이 국내 및 세계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자기비판 능력에서 비롯한다고 믿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아시아의 거인이 되기까지 중국공산당의 리더십은 새로운 환경에 발맞춰 정책과 운영을 기민하게 적응시켜왔다. 중국공산당은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고위 행정 단위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에지도는 말하며, “당은 또한 언제 그리고 어디서 더 실제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레라는 “당의 자기비판 덕분에 중국공산당은 정치적·경제적 환경이 요구할 때는 스스로를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²⁰⁵⁾

미국공산당이 위에서 언급한 세력들보다 중요성이 훨씬 덜할지는 모르지만, “공산주의” 의상을 걸친 제국주의 지배자들에 대한 지지 열정은 확실히 덜하지 않다. 당의 의장인 존 배치텔은 낮 뜨거운 찬사를 쏟아냈다. “중국공산당은 철저히 혁명적인 당으로서 맑스주의를 중국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들의 접근법은 실용적이고, 사실에 기반하며, 자기 비판적이며, 자기 혁신적이다. 중국공산당은 자본주의 경제를 건설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중국 현실의 맥락 속에서 길을 열어가며, 극히 어려운 조건 아래서 현대 사회주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나라를 이끌고 있다. 많은 문제들과 착오와 결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말이다.”²⁰⁶⁾

제국주의의 정치적·경제적 모순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종종 발표하는 미국의 <<몬슬리 리뷰(Monthly Review)>> 같은 진보적인 학술지조차도 중국 제국

205) Xinhua: Roundup: Venezuelan analysts say Communist Party of China's leadership remarkable, 2016-07-11,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6-07/11/c_135504402.htm

206) John Bachtell: A new era for building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June 14, 2018, <http://www.cpusa.org/article/a-new-era-for-building-socialism-with-chinese-characteristics/>

주의를 찬양하는 아첨꾼들에게 연단을 제공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도 변호사이자 자칭 반제국주의적 맑스주의자인 아지트 싱의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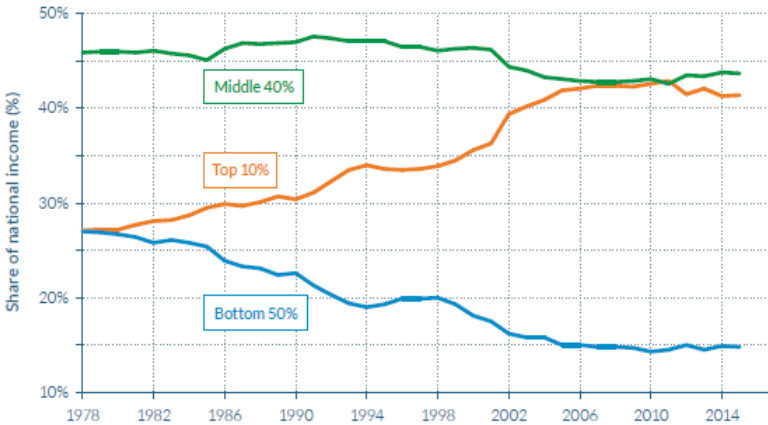
“공산당의 영도 아래 중국은 언제나 스스로를 제3세계 또는 남반구와 동일시하였다. 또 제국주의가 낳은 전 세계적인 불평등에 맞서는 전(前)식민지 · 피억압 민족들의 집단적 투쟁과도 동일시하고 있다... 중국은 완벽한 사회가 아니며, 계속해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는 오늘날 세계가 맞이한 많은 긴박한 문제들에 대해 미국 자본주의 제도보다 더 잘 대처할 수 있었다.”²⁰⁷⁾

당연히도, 이 모든 찬미는 중국 자본주의의 현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판타지 세계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이 책에서 (그리고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사회적 · 경제적 발전은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과 매우 비슷한 양상들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공식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는 반대로 임금 몫 (노동 소득분배율)은 줄어든 데 반해 자본가들의 이윤은 늘어났다. 그 결과로 가장 부유한 상위 1%의 소득 분배율은 1980년에서 2016년 사이에 7%에서 14%로 두 배 늘어났다. 부르주아지와 상층 중간계급에 해당하는 상위 10% 부자들의 몫을 보면, 동일한 추세를 볼 수 있다. (그림 23을 보라)

207) Ajit Singh: China's rise threatens U.S. imperialism, not American people, Monthly Review Online, Apr 09, 2018, <https://mronline.org/2018/04/09/chinas-rise-threatens-u-s-imperialism-not-american-people/>; 같은 저자의 다음 글도 보라. A New Era for Socialist China, 24 October 2017, <https://www.telesurtv.net/english/opinion/A-New-Era-for-Socialist-China-20171024-0008.html>; India and China: Rivals or Potential Partners in Liberation? November 2nd, 2017, <http://www.hamptoninstitution.org/india-and-china.html>

그림 23. 중국의 소득 분배율, 1978-2015년²⁰⁸⁾

Income shares in China, 1978-2015



〈2018년 세계 불평등 보고〉는 이러한 추이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율 (상위 10%의 소득 분배율)을 보면, 유럽 37%, 중국 41%, 러시아 46%, 미국-캐나다 4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브라질, 인도가 약 55%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하다고 여겨지는 중동의 경우 61%에 이른다.”²⁰⁹⁾ 30여 년 전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에 자본주의가 존재하지조차 않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사태 발전은 놀라운 일이다!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불평등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오랜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더 높으며, 거의 북미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가 거듭 밝혀왔듯이, 독점자본가들을 포함한 이러한 자본가계급의 탄생은 “우연히” 일어난, 즉 중국 정권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어난 과정이 아니다.

208) World Inequality Report 2018, p. 108

209) Facundo Alvaredo, Lucas Chancel, Thomas Piketty, Emmanuel Saez, Gabriel Zucman: World Inequality Report 2018, p. 9

오히려 반대로, 중국 정권은 수십 년 동안 의식적으로 자본가계급을 육성하며 이 과정을 관장해왔다. 위에서 인용한 UBS/PwC (스위스 UBS 은행/글로벌 회계법인 PwC)의 〈글로벌 부자(富者) 보고서〉는 이 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이 보고서로부터 우리는 중국의 억만장자 수의 엄청난 증가를 보여주는 수치를 재현했다). 보고서는 자본축적 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요 서방 은행가들을 인용하고 있다. UBS글로벌자산운용의 요제프 슈타들러 수석은 최근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지난 10년에 걸쳐 중국의 억만장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성공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내며, 생활수준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의 광대한 인구와 기술 혁신, 생산성 증대가 정부 지원과 결합하여 개인들에게 사업 확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PwC 파트너이자 개인 자산 리더인 마르셀 위드리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기업들이 부를 창출하는 데 있어 어떻게 중국이 선도적인 국가가 되었는지 우리 보고서는 보여주고 있다. (중국 이외에) 그 어디에도 그와 같이 방대한 인구, 기술 혁신, 정부 지원이 결합된 조건을 가진 나라는 없다.”

중국의 독점자본가들이 이러한 견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한 중국 억만장자는 UBS/PwC의 연구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상 어디에도 중국보다 성장에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는 없다. 지속적인 부(富)의 창출 과정이 정부의 경제 자유화 정책으로 지원 받고 있는 한편, 도시화와 비즈니스 모델의 파괴적 혁신이 강력한 신 기업가들을 만들어냈다.”²¹⁰⁾

중국의 독점자본가들과 공산당이 융합을 이룬 또 다른 증거는 억만장자들

210) 다음에서 인용.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 making two billionaires every week as world's super-rich become wealthier than ever before, report reveals, 26 October, 2018, <https://www.scmp.com/news/world/united-states-canada/article/2170348/china-making-two-billionaires-every-week-worlds>

이 공식적으로 집권 “공산”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허락 받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최대 자본가인 알리바바(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Ltd) 회장 마윈이 공산당 당원이 되었다.²¹¹⁾

공산주의청년단(공청)이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광고하고 있는 것 또한 사태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당과 함께 창업에 나서자(跟党一起创业)”²¹²⁾.

중국 헌법은 “사회주의” 또는 “기형화된 노동자국가” 운운하는 스탈린주의 선전가들이 터무니없는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11조: 개인적·사적 경제부문과 같은 비(非)공공 경제부문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국가는 개인적·사적 경제부문과 같은 비(非)공공 경제부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비공공 경제부문의 발전을 장려, 지원, 지도하며, 법에 따라 비공공 경제부문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한다....

13조: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할 수 없다. 국가는 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권 및 그 상속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공공의 이익과 법률에 따라 사유재산을 그 사용에 대해 수용 또는 징발하고, 수용 또는 징발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²¹³⁾

사회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계획된 경제이므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개념 전체가 기괴하다. 노동자국가의 초기 단계에 잔존할 소규모의 사유재산은 사

211) Why Communist China Is Home to So Many Billionaires, November 29, 2018, <http://fortune.com/2018/11/29/communist-china-billionaires-jack-ma/>

212) Josh Horwitz: China's Communist Party is all in on the power of technology, October 25, 2017, https://qz.com/1102948/chinas-communist-party-is-all-in-on-the-power-of-technology-and-thats-tricky-for-its-tech-giants/?fbclid=IwAR3F7pagTdownLCEmpaER6LSBBUE4wN1P66Y_ArkLh7SXKIA0gWy4G-MUv3x4

213)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npc.gov.cn/englishnpc/Constitution/2007-11/15/content_1372963.htm

회주의적 계획에 종속된다. 완전한 공산주의에 도달할 때 소규모 사유재산은 고사(枯死)할 것이다. 중국 헌법 13조가 “공공의 이익”에 따른 사유재산 징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은 20세기에 심각한 경제 위기 때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흔한 일이었다.

중국은 자본주의적 기적의 독특한 사례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탈린주의자들은 중국 지배계급에 대한 자신들의 찬양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지난 몇 십 년간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들고 있다.²¹⁴⁾ 그러나 정작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성장이 자본주의 원시 축적과 독점자본가들을 포함한 자본가계급의 형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부유한 엘리트의 부상을 보여주는 수치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이 중국의 사적 자본주의 부문 [이른바 ‘민간 부문’]의 눈부신 성장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로도 증명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중국 국무원 직속 연구소인 국무원 발전연구중심(國務院發展研究中心)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 GDP뿐만 아니라 고용에서도 약 70%가 비(非)국유 부문이다. (연간 매출액이 5백만 위안 이상인) 전체 산업기업에서 국유부문의 점유율은 1998년 39.2%에서 2010년 4.5%로 급격히 떨어

214) 다음을 보라. John Ross: Why Are China and India Growing So Fast? State Investment, August 29, 2016, http://www.huffingtonpost.com/john_ross-/china-india-growth_b_11655472.html; John Ross: The Asian and Chinese economic growth models – implications of modern findings on economic growth, 2009–09–08, <http://socialisteconomicbulletin.blogspot.com/>

어졌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산업 자산에서 국유기업의 점유율은 68.8%에서 42.4%로, 고용에서 국유기업의 점유율은 60.5%에서 19.4%로 감소했다.²¹⁵⁾ 그 이후로 이 과정은 훨씬 더 진행되었다.

중국 경제에 관한 아르투어 크뢰버의 연구서에 따르면, 국유부문의 점유율은 최근에 계속 하락해왔다. 그는 “도시 지역 고용에서 국유기업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2013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17%를 기록했다”고 추산한다. 그는 또 “(부가가치 기준) 산업생산에서 국유부문 점유율은 약 25%”라고 계산한다.²¹⁶⁾ 크뢰버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중국 경제는 대체로 민간 부문 [사적 부문] 성공 스토리이며, 향후 빠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은 주로 민간 기업 [사기업]에 달려 있을 것이다”²¹⁷⁾

시진핑 주석의 최고 경제참모인 류허(劉鶴) 부총리는 “민간부문이 국가 생산의 60%, 기술혁신의 70%, 신규 일자리의 90%를 창출하고 있다”고 추산한다.²¹⁸⁾

더욱이 이들 친중 축소은폐자들은 급속한 경제성장 그 자체가 한 나라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리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었다” (또는 다른 이들이 잊기를 바란다). 중국이 1980년대 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의 한 시기를 경험한 것은 사실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1인당 GDP는 1980년

215) The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2030. Building a 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High-Income Society, Washington 2013, p. 104

216) Arthur R. Kroeber: China's Economy. What Everyone Needs To Know,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6, p. 100 and 101

217) 같은 책, p. 105

218) Bloomberg: China Built a Global Economy in 40 Years, Now It Has a New Plan, 16 December 2018, <https://www.bloomberg.com/news/features/2018-12-15/president-xi-jinping-s-next-moves-dictate-china-s-economic-future?snd=premium-europe>

1,300 달러에서 2010년 7,700달러로 근 500% 증가했다.²¹⁹⁾

이것은 확실히 인상적인 수치다. 하지만 다른 자본주의 국가, 보통 반동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 하의 국가들도 매우 비슷한 경험을 했다. 아시아의 용이라 불리던 한국과 대만이 그러한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은 수십 년 동안 중국과 비슷한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그림 24와 25를 보라)²²⁰⁾

그리고 다시 한국을 자세히 보면, 1950년대에 1인당 GDP는 약 850 달러 수준이었다.²²¹⁾ 1960년에는 1,537 달러로 증가했고, 1990년에 오면 이미 11,985 달러로 급성장한다. 달리 말하면, 30년 새 거의 8배나 늘어난 것이다. (그림 26을 보라). 그보다도 더 높은 성장률을 주장하는 자료들도 있다.²²²⁾

219) Jingyi Jiang and Kei-Mu Yi: How Rich Will China Become? A simple calculation based on South Korea and Japan's experience,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in: The Region, June 2015, p. 8, 다음도 보라. Brian Wang: China development compared to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March 31, 2014 <https://www.nextbigfuture.com/2014/03/china-development-compared-to-japan.html>

220) 우리는 다음 글에서 남한과 대만의 자본주의적 근대화 과정의 종별적 특징을 분석했다. Michael Pröbsting: Der kapitalistische Aufholprozeß in Südkorea und Taiwan; in: Revolutionärer Marxismus Nr. 20 (199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kapitalismus-in-suedkorea-taiwan/>. 이 글의 영어 축소본도 있다. "Capitalist Development on South Korea and Taiwan" in: Trotskyist International No. 21 (199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apitalism-in-south-korea-taiwan/>

221) Paulina Restrepo-Echavarria and Maria A. Arias: Tigers, Tiger Cubs and Economic Growth, May 25, 2017 <https://www.stlouisedf.org/on-the-economy/2017/may/tigers-tiger-cubs-economic-growth>

222) Kwan S. Kim은 한국의 1인당 실질 성장률이 1962년 87달러에서 1980년 1481달러로 18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 (Kwan S. Kim: The Korean Miracle (1962-1980) Revisited: Myths and Realities in Strategy and Development, Kellogg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Working Paper #166, November 1991, p. 5)

그림 24. 중국과 동아시아 인접국들의 일인당 GDP 1960-2011년²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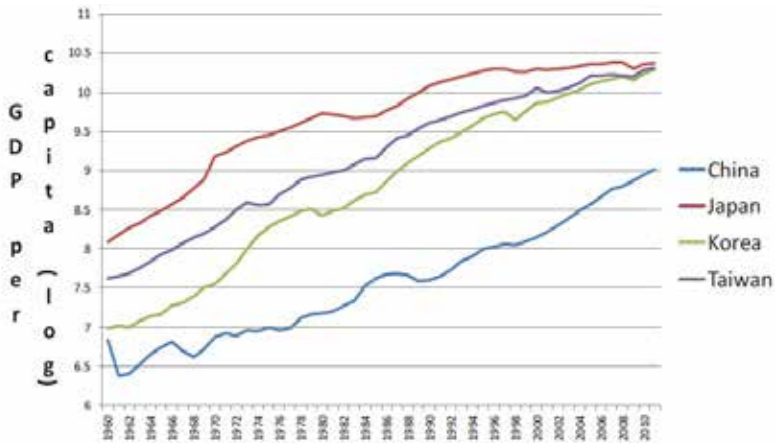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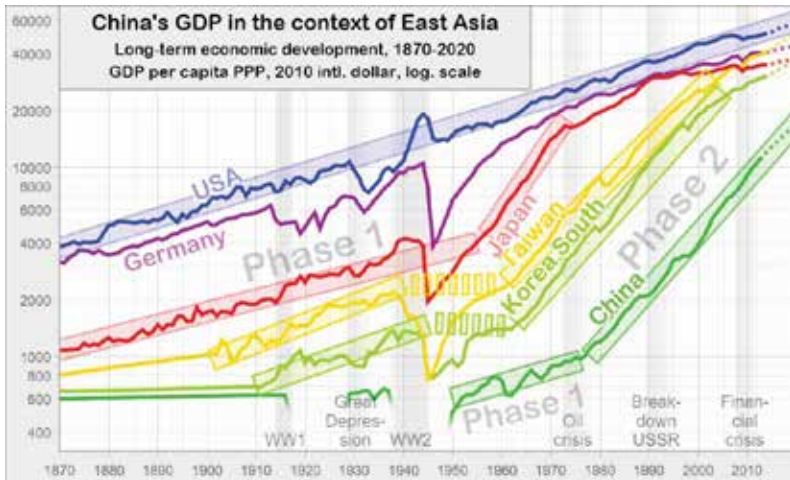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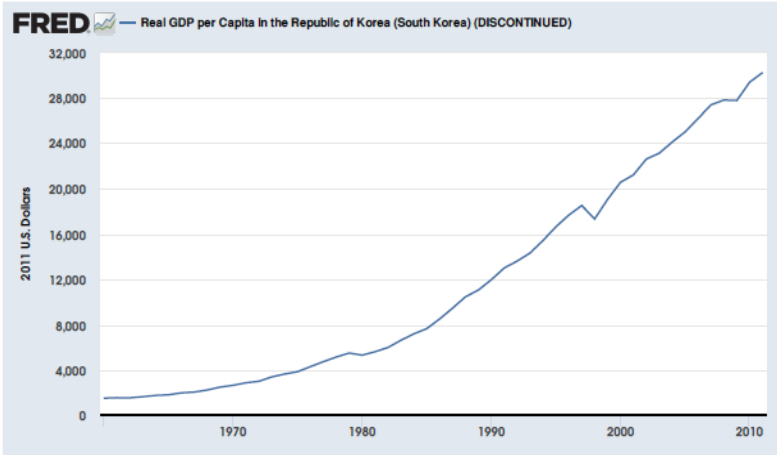
그림 25. 중국과 동아시아의 장기 경제성장 추이, 1870-2020년²²⁴⁾



223) David Dollar: China's Rebalancing: Lessons from East Asian Economic History, The Brookings Institution, Working Paper Series, October 2013, p. 5

224) Otto Kolbl: Chinese development, <http://www.rainbowbuilders.org/china-entwicklung/>

그림 26. 한국의 실질 1인당 GDP, 1960-2011년²²⁵⁾



따라서 베이징 지배계급을 찬미하는 스탈린주의 나팔수들이 중국의 인상적인 경제성장을 들어 자신들의 중국 “사회주의” 지지를 정당화할 때, 그들은 결과적으로 대만과 한국의 자본주의 군사독재나 일본의 제국주의 지배계급도 찬미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중국 자본주의를 축소은폐하고 그것을 모종의 사회주의 낙원으로 윤색하는 스탈린주의적 용비어천가는 현대사의 가장 기괴한 왜곡날조 가운데 하나다. 그것은 중국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허위정보 유포행위에 다름 아니다.

225)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Real GDP per Capita in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retrieved from FRED,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https://fred.stlouisfed.org/series/KORRGDPC>, September 17, 2018. 이 계산은 계절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2011년 미 달러화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러시아 스탈린주의 당들 : 자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부정

간략히, 러시아의 몇몇 스탈린주의 당들이 ‘자’국 국가의 계급적 성격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가장 큰 스탈린주의 당은 겐나디 주가노프가 이끄는 러시아연방 공산당(KPRF)이다. 이 당은 언제나 러시아를 자신의 “조국”이라 여기며, 조국이 외국 제국주의자들에게 위협 받고 있다고 보는 부르주아-인민주의 당이다. 그들은 절대로 러시아를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여길 생각이 없다. 오히려 반대로, 소련연방(USSR)을 재건하여 해외에 살고 있는 모든 러시아인 소수자들을 단일한 대러시아인 제국으로 통합하는 것이 목표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부연하겠다).

빅토르 툴킨이 이끄는 러시아 공산주의노동자당-공산주의혁명당(RKRP-RPK)은 보다 분화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 당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정한다. 실제로 러시아 독점자본주의에 대한 상세하고 꽤 정통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많은 서방의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분석보다 훨씬 낫다!) 이들은 중국을 가끔씩 제국주의 국가라고 칭하기까지 한다. 빅토르 툴킨은 한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푸틴의 대외정책은 러시아 자본의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 러시아 제국주의는 아직 어리다. 그럼에도 러시아 제국주의는 자리를 확실히 잡았고 식욕이 좋다. 러시아 제국주의는 세계무대에서 미국과 EU 같은 훨씬 더 크고 경험 많은 적수들로부터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 제국주의 국가로서 러시아와 중국은 모종의 연합 (BRICS를 포함한)을 이루고 있다...”²²⁶⁾

226) Viktor Tyulkin: Some words on the Russian imperialism, 09.10.2017, <https://rkrp-rpk.ru/20>

아래서 살펴보겠지만, RKRP의 문제는, 좋았던 시절의 옛 스탈린주의자로서 그들이 이로부터 단지, “더 큰 악”, 즉 서방 강대국에 맞서 “더 작은 악” – 러시아 · 중국 제국주의 – 을 편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끌어낼 뿐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1930년대 스탈린주의자들의 도식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에는 모스크바와 모스크바의 국제 시종들이 – 비록 드물게였지만 – 영국, 프랑스,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부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스탈린주의는 이들 나라를 “진짜 나쁜” 제국주의자들 (나치 독일과 그 동맹국들)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잠재적 동맹 세력인 “좋은” 제국주의자들(“민주적” 제국주의자들, “반파쇼” 제국주의자들)로 간주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쓰레기가 국제 수정주의의 무기고에서 흠쳐낸 것이라는 점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 프랑스 · 미국의 사민주의자들이 독일 · 오스트리아 · 터키의 “반동적 군주제”에 대항하여 ‘자’국 부르주아지를 편들어야 할 “의무를 진” 경위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된 그 수정주의 말이다. 독일 사민주의자들도 동일한 민족개량주의 논리를 이용하여, “타타르 러시아인들”에 맞서 자신들의 “문화적으로 우월한 조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스크바 대외정책의 이해관계가 바뀌자 그 위선적인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물구나무섰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1939년에서 1941년 사이에 히틀러-스탈린 조약 기간 동안 스탈린주의의 공격 초점은 “금권정치적” 서방 제국주의에 맞추어진 반면, “평화 애호” 나치 독일에 대해서는 훨씬 더 조심스럽게 대했다. 실제로 모스크바는 수많은 독일 · 오스트리아 공산주의자들을 계수

17/10/09/%D0%BD%D0%B5%D1%81%D0%BA%D0%BE%D0%BB%D1%8C%D0%BA%D0%BE-%D1%81%D0%BB%D0%BE%D0%B2-%D0%BE-%D1%80%D0%BE%D1%81%D1%81%D0%B8%D0%B9%D1%81%D0%BA%D0%BE%D0%BC-%D0%B8%D0%BC%D0%BF%D0%B5%D1%80%D0%B8%D0%B0%D0%BB/ (영역은 저자)

타포에게 넘겨주었다. (이 중에는 오스트리아공산당 창건자 프란츠 코리트쉐너와 독일 공산주의자 마르가레테 부버-노이만도 있다.²²⁷⁾ 마찬가지로 프랑스, 덴마크 등등의 각 스탈린주의 당들도 독일 점령군에 접근하여 협력 가능성을 찾았다.²²⁸⁾ 이 시기에 스탈린주의는 영국·프랑스를 아시아·아프리카 인민을 억압하는 “잔인한 식민지 지배자”라고 비난했다.

물론 1941년 6월 나치가 소련을 침공했을 때 - 스탈린과 몰로토프는 대경실색했지만 - 모든 것은 다시 바뀌었다.²²⁹⁾ 영국과 프랑스는 더 이상 억압적인 제국주의자들이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반파쇼 동맹군으로 간주되었다. 정치적 위선과 이데올로기적 혼란과 무원칙한 책략은 확실히 스탈린주의의 주요 비즈니스였다!

당연한 바이지만, 그와 같이 제국주의의 한 진영에 맞서 다른 한 진영을 편드는 것은 맑스주의의 원칙과 완전히 배치된다. 제국주의의 한 진영을 “덜 공격적” 또는 “더 진보적”인 세력이라고 감싸는 것 (그것도 몇 년마다 돌아가며 그런 속성을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트로츠키는 레닌의 방법을 따라서, 한 국가에 대한 맑스주의자의 접근법에서 결정적인 것은 그 국가의 계급적 성격과 그 목표임을 강조했다.

227) 다음을 보라, Margarete Buber-Neumann: Als Gefangene bei Stalin und Hitler, Seewald Verlag, Stuttgart 1985

228) 히틀러-스탈린 조약 시기의 스탈린주의 정책에 관해 많은 책들이 출간되었다. 다음 책에 많은 문서들이 실려 있다. Raymond James Sontag and James Stuart Beddie (Ed.): Nazi-Soviet Relations, 1939-1941, Documents from the Archives of the German Foreign Office, Department of State, 1948. 이 시기에 스탈린주의 당들의 많은 문서들이 1989년 이후에서야 공개되었다. 그 중 많은 문서가 다음의 책에 수록되어 있다. Bernhard H. Bayerlein, Der Verräter, Stalin, bist Du! Vom Ende der linken Solidarität 1939- 1941. Komintern und kommunistische Parteien im Zweiten Weltkrieg, Aufbau Verlag, Berlin 2009; 또 다른 문서집이 있다. J.W.Brügel: Stalin und Hitler, Europaverlag, Wien 1973. 다음도 보라, Bisovsky, Gerhard, Hans Schafranek und Robert Streibel (Ed.): Der Hitler-Stalin-Pakt, Verlag: Picus Verlag, 1990.

229) 당시 소련 외무장관이었던 몰로토프는 1941년 6월 22일 독일 대사가 독일의 선전포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자 깊은 상처를 받고 격분하여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지!” (출처: Bernhard H. Bayerlein, Der Verräter, Stalin, bist Du! p. 365) 그렇지, 아무렴. 스탈린주의자들이 나치가 동맹국 소련을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대할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제국주의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위장한다. 식민지 · 시장 · 원료자원 · 세력권의 탈취라는 본래 목적을 ‘침략자에 맞선 평화 수호’, ‘조국 방어’, ‘민주주의 수호’ 등과 같은 사상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이 사상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이다. 이 사상들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들의 가면을 인민 앞에서 벗기는 것이 모든 사회주의자들의 의무다. 1915년 3월 레닌은 이렇게 썼다. “어느 측이 최초의 군사적 타격을 가했는가, 또는 먼저 전쟁을 선포했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주의자들의 전술을 결정하는 데 아무 중요성도 없다. 조국 방위, 적의 침략 격퇴, 방어 전쟁 수행 등등의 언사들은 양측 모두에서 완전한 인민 기만이다.” 또 레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수십 년 동안 세 강도 (영국 · 러시아 · 프랑스의 부르주아지와 정부)는 독일을 약탈하기 위해 무장했다. 두 강도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세 강도가 주문한 새 칼을 손에 넣기 전에 공격에 착수한 것이 놀라운 일인가?” 전쟁의 객관적인 역사적 의미는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어떤 계급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이것이 결정적이다. 국민들에게 적군을 언제나 침략자로 묘사할 수 있게 해주는 외교술이 아니라 말이다.”²³⁰⁾

또 다른 스탈린주의 당으로, 2014년에 설립된 통합공산당(OKP)이 있다. 이 당은 러시아를 제국주의 국가로 성격규정 하길 거부한다. 사회주의 없이는, 러시아는 “주변부”, “식민지” 나라로 굴러 떨어질 운명이라고 OKP 리더들은 말한다. 그래서 OKP는 한 문서에서 “국제 제재로 약화된 주변부 러시아 자본주의”에 대해 설명한다. “오늘날 국제관계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은 러시아가 다시 한 번 제국주의 사슬에서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

230) Leon Trotsky: Lenin on Imperialism (1939), in: Writings of Leon Trotsky, Vol. 1938-39,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4, pp. 165-166

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선택지는 간단하다. 사회주의인가, 아니면 탈산업화와 해체와 식민지화라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²³¹⁾

스탈린주의자는 아니지만, 러시아 밖에서도 국제적으로 저명한 좌파 지식인인 보리스 카갈리츠키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는 <글로벌 위기 초국적 기구>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이자 모스크바에 있는 <세계화와 사회운동 연구소>(IGSO) 소장이다. 또 온라인 잡지 <<라브코르(노동자 통신)>>의 편집자이기도 하다. 카갈리츠키는 또 독일 좌파당(LINKE)의 공식 싱크탱크인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과도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카갈리츠키가 당이 아닌 개인이지만, 그의 이론적 견해는 러시아 좌익들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많은 서구 좌익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카갈리츠키와 그 주위의 세력들은 이른바 “세계체제론” 분석을 공유하는데, 이 세계체제론 분석은 서방 강대국을 중심에 놓고 세계를 바라본다. 그 같은 이론은 손쉽게 러시아 제국주의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주는 데 잘 들어맞는 이론이다. 그리하여 카갈리츠키는 러시아를 제국주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멕시코나 인도 같은, 보다 큰 반식민지 나라에 비견되는 “주변부 자본주의 국가”로 규정한다. 그는 그의 책 <<주변부 제국>>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21세기 문턱의 러시아 사회는 그 모든 후(後)소련(post-Soviet) 특수성들에도 불구하고, 주변부 자본주의 모든 전형적 특징들을 떠안았고, 이 시스템의 논리에 순응하고 있었다.”²³²⁾

231) Заявление Президиума ЦК ОКП: Мы отвергаем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уступки, осуществленные против воли трудящихся, 21 Дек, 2016 <http://ucp.su/category/news/683-my-otvergaem-territorialnye-ustupki-osushestvlennoy/> (Statement of the Presidium of the CC OKP: We reject territorial concessions made against the will of the working people, 21 December 2016) (영역은 저자).

232) Boris Kagarlitsky: Empire of the Periphery, Russia and the World System, Pluto Press, London 2008, p. 305

“... 러시아 자본주의의 발전은 명백한 주변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²³³⁾

“러시아 국가의 주변부적 지위는, 멕시코에서 인도까지 여타 주변부 나라들에서처럼 민족자강(民族自強)의 필요를 만들어냈다.”²³⁴⁾

러시아 역사를 두루 포괄하고 있는 이 책에서 카갈리츠키는 1917년 이전의 러시아에 대해서도 제국주의 국가로 성격규정 하길 거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역사 수정주의 전시장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축소은폐, 윤색하는 최신 사례다.

알렉산더 부즈갈린과 루슬란 자라소프 같은 절충주의적인 세계체제론자들도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²³⁵⁾ 자라소프는 그의 책 <<러시아 자본주의의 수수께끼>>에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명시적으로 부정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러시아 자본주의는 세계 자본주의의 주변부 (보다 정확하게는 반주변부)에 속한다.”²³⁶⁾ 자라소프도 다른 수정주의자들 (예를 들어 로저 애니스, PO/CRFI)처럼 1917년 이전 차르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차르 러시아는 서구 자본을 자신의 산업화를 위한 주요 동력으로 보는 주변부 사회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주었다.”²³⁷⁾

233) 같은 책, 307쪽

234) 같은 책, 319쪽

235) 캐나다의 한 때 트로츠키주의자 Roger Annis 같은 서방의 친러 사회제국주의자들이 루슬란 자라소프 같은 사상가들을 즐겨 언급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다음을 보라. Renfrey Clarke and Roger Annis: The myth of 'Russian imperialism': In defense of Lenin's analyses, Link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ist Renewal, February 29, 2016, <http://links.org.au/node/4629>. 우리는 다음 글에서 Roger Annis의 주장을 다루었다. Michael Prö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236) Ruslan Dzarasov: The Conundrum of Russian Capitalism, The Post-Soviet Economy in the World System, Pluto Press, London 2014, p. 150. 이 발언은 그의 책에서 여러 번 반복된다. (예를 들어 13, 14, 156쪽).

237) 같은 책 42쪽, 또 45쪽도 보라.

초(超)스탈린주의 CPGB(ML): “반제국주의” 러시아·중국?

현대 스탈린주의의 또 하나 예, 특히 조야한 예가 영국공산당(엠펬파) [CPGB(ML)]다. 이 그룹은 스탈린·모택동에 대한 숭배를 카다피와 아사드와 북한 정권에 대한 무비판적인 평가와 결합시킨다.

따라서 영국공산당(엠펬파)도 러시아·중국을 “진보적이고 반제국주의적” 이라고 보는 것이 딱히 놀랍지도 않다. 이들은, 러시아는 제국주의의 간섭을 막아낸 민족적, 애국적 부르주아지가 통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 민족 부르주아지는 러시아 경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제권을 되찾았으며, 단호히 그 통제권을 자신의 민족적 이익을 위해 거머쥐고 있다. 러시아 민족 부르주아지가 제국주의의 약탈과 초과착취를 편리하게 조력해주는 한낱 마름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분명하다.”²³⁸⁾

영국공산당(엠펬파)조차도 중국에서 자본주의의 진전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중국이 여전히 (사회주의적) “인민정부”가 통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몇 십 년간의 시장사회주의가 국유부문을 약화시켰고 상품생산의 무정부성을 중국 경제에 재도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인민정부가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인민정부는 남아 있는 국유부문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인민정부는 공황을 달고 사는 제국주의 국가들로

238) Joti Brar: The Drive to War Against Russia and China, CPGB(ML), Shakun Printers, Shahdara 2017, p. 9

서는 해낼 수 없는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경제를 실행할 수 있다.”²³⁹⁾

그리하여 이들 초 스탈린주의자는 푸틴 정권과 시진핑 정권의 글로벌 역할을 아주 진보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영국공산당(엠펙파) 최근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는 새로운 동방 제국주의 열강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

“당대회는 또 오늘날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진보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인 것임을 밝히는 바다. 예를 들어 발전도상국에 중국의 기술 이전 및 인프라 건설, 시리아 인민이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는 지하드의 침략에 맞서 투쟁하는 데서 러시아가 군사 원조를 보내는 것, 또는 두 나라가 제국주의 통제 메커니즘을 건너뛰는 무역 블록 (브릭스나 SCC 같은)을 결성하는 데서 담당할 역할 등에서 이러한 진보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인 역할을 볼 수 있다. 본 대회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공공연한 반제국주의적 행동이 아니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은 민족적 독립을 유지하고 있고, 자국의 인민과 시장과 천연자원을 제국주의의 통제에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국주의의 원한을 샀다고 믿는다. 대회는 또 러시아도, 중국도 침략적인 또는 팽창주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들의 모든 군사적 발전은 제국주의 침략 방지, 또는 침략 시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믿는다.”²⁴⁰⁾

의심의 여지없이, 이것은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후안무치한 “반제국주의적” 운색, 포장의 완벽한 예다!

마지막으로, 스탈린주의자들과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 일부 사이비 맑스주의

239) 같은 책 13쪽

240) CPGB(ML): Beware the drive to WW3 with Russia and China, Party statement of the CPGB(ML) 8th Congress, 21 November 2018 <https://www.cpgb-ml.org/2018/11/21/news/beware-the-drive-to-ww3-with-russia-and-china/>

그룹들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자. 이러한 예로 미국의 WWP (노동자세계당) 와 PSL (사회주의해방당), 그리고 모종의 “트로츠키주의자들” (또는 트로츠키주의의 희화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이 있다. 스파르타시스트 ICL, IBT, 또는 잔 노르던의 IG/LFI 같은 스탈린 혐오주의 종파들은 중국이 여전히 — 자본주의가 부활한지 4반세기가 넘는 지금도! — “기형화된 노동자국가”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 러시아는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 심지어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WSWS)는 RCIT가 중국·러시아를 제국주의 열강으로 성격규정 한 것에 대해 중상모략 공격으로 일관한 논쟁 글을 발표하기까지 했다.²⁴¹⁾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처럼 이들 역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고 어떤 것도 잊지 않았다!

241) 다음을 보라. Johannes Stern: Behind the designation of Russia and China as “imperialist” : A case study in theoretical charlatanry, WSWS, 14 April 2016, <http://www.wsws.org/en/articles/2016/04/14/prob-a14.html> (WSWS는 우리에게 대한 이러한 공격을 여러 언어로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https://www.wsws.org/de/articles/2016/04/15/proe-a15.html> ; <http://www.wsws.org/fr/articles/2016/avr2016/ruch-a30.shtml>) 이에 대한 RCIT의 답변 글 2 편이 있다. Michael Pröbsting: The Involuntary Self-Exposure of the WSWS. A Brief Reply to a Lengthy Attack by David North’s WSWS against the RCIT, 18.4.2016,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reply-to-wsws-short/>; Johannes Wiener: In Response to the Self-Proclaimed “Leadership” of the World Socialist Movement, A Reply to the Recent Polemic of the ICFI/WSWS against the RCIT, 30 April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eply-to-wsws-long/>.

9장. 수정주의적 축소은폐: 러시아·중국은 자본주의도, 강대국도 아니다 (PO/CRFI)

특이하게도 “트로츠키주의”를 자칭하면서 러시아·중국 제국주의를 덮어 가리고 축소은폐하려는 흐름도 있다. 그 원조 격이 이른바 *제4인터내셔널 재건 위원회(CRFI)*와 그 주축을 이루는 아르헨티나 *노동자당(PO)*이다. 이 조류의 입장을 검토하는 것이 유용한데,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제국주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론으로부터 결론을 끌어냄에 있어 그 어느 다른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보다도 그들이 일관되기 때문이다.

러시아·중국은 여전히 자본주의가 아니다?

*PO/CRFI*는 오늘날까지 러시아와 중국에서 자본주의는 부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CRFI는 2004년 그 창립 문서에서 동유럽과 아시아의 전(前)스탈린주의 국가들에서 “자본주의의 부활은... 그 초기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²⁴²⁾ 즉 1989년에 베를린 장벽과 스탈린주의 관료 지배가 붕괴된 지 15년이나 된 그 시점에도 자본주의의 부활과 자본가계급의 형성은 여전히 “그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얼토당토않은 기괴한 잠꼬대인가! 동유럽과 러시아와 중국 등이 1989-92년 이래 자본주의 부활을 촉진한 정부에 의해 지배되

242) Draft of programmatic thesis for the Congress for the Refoundation of the IV International, 2004, <http://www.progettocomunista.it/04BairesTesiProgrammaticheing.htm>

지 않았는가?! 이들 나라 경제가 그 이후 얼마 안 돼서 곧 자본주의적 가치법칙에 지배 받지 않았는가?! 이들 나라 경제가 이미 2004년 훨씬 전부터 사적 자본주의 부문이 지배하지 않았는가?! PO/CRFI 지도자들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하다!²⁴³⁾

더 나쁜 것은, PO/CRFI는 2004년을 넘어 현재까지도 그러한 불임성(不妊性) 도그마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발표한 중국 관련 논설에서 PO 지도부는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여전히 – 2017년에! – 부정한다.²⁴⁴⁾ PO 이론가 파블로 헬러는 여전히 “자본주의로의 이행 과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중국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더 폭력적인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미 이십여 년 전에 이 이행이 일어난 바 없다는 뜻이 말이다!

심지어 PO 지도부는 최근 방대한 국제성명서에서, 미래에 러시아와 중국에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본주의가 들어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하고 있다. “자본주의로의 ‘평화적인’ 이행은 – 즉 사회혁명을 통해 자본을 몰수 수탈한 체제 대신 자본주의가 평화롭게 들어선다는 것은 –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²⁴⁵⁾ 1989년에 기존 노동자국가들에서 내전 없이 자본주의를 부활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사이비 정통 트로츠키주의자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미 그 당시에 우리는 그러한 교조주의를 비판했다. 하지만

243) 우리는 여러 곳에서의 자본주의 복고를 분석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uba's Revolution Sold Out? The Road from Revolution to the Restoration of Capitalism, August 2013, RCIT Books, <https://www.thecomunists.net/theory/cuba-s-revolution-sold-out/>; 위에서 언급한 다음의 책 6장 (북한에서의 자본주의 복고를 다루고 있는)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중국에서의 자본주의 복고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hapter X).

244) Pablo Heller: China: El otro bonapartismo, March 9, 2017, Prensa Obrera # 1449 <http://www.prensa-obrera.com/prensaObrera/1449/internacionales/china-el-otro-bonapartismo>

245) Partido Obrero's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debate (adopted by the National Committee of Partido Obrero), 21.3.2018, <http://www.prensaobrera.com/prensaObrera/online/en/partido-obrero-s-contribution-to-the-international-conference-debate>

당시의 이러한 교조주의자들은 오늘날 PO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30년 전 스탈린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부활 이후 현재까지도 여전히 PO는 이러한 잡꼬대를 계속하고 있으니 말이다.

PO를 비롯한 CRFI 가맹조직들은 동일한 교조적 논리로 “무장”하고서, 러시아와 중국은 여전히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통합되어 있지 않다고 또한 주장한다. “기존 국유화된 경제들이 세계 자본주의 경제로 통합되는 것은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²⁴⁶⁾ 2018년 가을에 발표한 평론에서도 같은 주장이 되풀이된다. “21세기에 전쟁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미 제국주의에 의한 러시아· 중국의 포위다. 즉 러시아와 중국의 자본주의 부활 과정을 완결시켜 제약 없이 이들 나라를 제국주의 세계체제로 통합시키기 위해 미 제국주의가 자신의 종속적 동맹군인 유럽 및 일본 제국주의와 연합하여 러시아와 중국을 포위하려 하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²⁴⁷⁾

러시아와 중국이 여전히 “제국주의 세계체제에 통합”되어 있지 않다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가? 러·중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하나의 강대국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제국주의는 강대국들 간의 패권 경쟁 위에 세워진 체제(시스템)이므로 미국의 궤도 밖에서는 강대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상할 것이다. (레닌과 트로츠키를 따라 우리는 강대국들이 자신들 간의 경쟁을 극복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론을 거부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예속된 것은 아니지만, 제국주의 세계체제 속에 통

246) Partido Obrero, PT (Uruguay), DIP (Turkey), EEK (Greece): Decla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13.4.2018, <http://www.prensaobrera.com/prensaObrera/online/internacionales/declaration-of-the-international-conference>

247) Levent Dölek: The Character of War in 21st Century: Are China and Russia a target or a side of the war? In: World Revolution / Revolución Mundial Issue 1 (Autumn 2018), p. 58

합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가 위에서 보여주었듯이, 중국은 세계 최대의 무역 강국이 되었다. 중국은 주요 외국인투자자일 뿐만 아니라 주요 채권자다. 이 보다 더 어떻게 제국주의 세계경제 속에 통합될 수 있는가?! 그리고 PO 지도자들이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65개국에 중국의 글로벌 경제적 ·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국제 투자 프로그램인 일대일로 프로젝트 말이다.²⁴⁸⁾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 제국주의가 서유럽에서 자신의 우위를 공고히 하는 데 결정적인 수단이 되었던 이른바 마셜 플랜의 중국 버전이다.²⁴⁹⁾ PO/CRFI 동지들은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더 어떤 예들이 필요한가!

PO 지도자들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 이 점은 PO가 몇 달 전에 발표한 또 하나의 논설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거기서 PO 지도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러시아에서도, 중국에서도 계급으로서 부르주아지는 출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에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가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전(前)자본주의적’인 관료적 구조의 많은 부분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국가 말이다.”²⁵⁰⁾

248) RCIT는 다양한 문서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다루었다. 다음의 우리 성명을 보라. The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is a Project of Chinese Imperialism for the Colonialization of Pakistan! Joint Statement of the International Secretariat of the RCIT and the Revolutionary Workers Organization (Pakistani Section of the RCIT), 22,1,2017,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pakistan-cpec/>; 또 다음의 우리 팸플릿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hina-India Conflict: Its Causes and Consequences, What are the background and the nature of the tensions between China and India in the Sikkim border region? What should be the tactical conclusions for Socialists and Activists of the Liberation Movements? 18 August 2017, Revolutionary Communism No. 7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ndia-rivalry/>

249) 비슷한 예로 1960년대에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지배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진보를 위한 동맹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있다.

250) Partido Obrero’s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debate (adopted by the National Committee of Partido Obrero), 21,3,2018, <http://www.prensaobrera.com/prensaObrera/online/en/partido-obrero-s-contribution-to-the-international-conference-debate>; 다음도 보라. Pablo Heller: A dónde va China, Entre la guerra comercial y la restauración capitalista, 26 de abril de 2018, <http://www.prensaobrera.com/prens->

따라서 다시 우리는 스탈린주의자들조차도 감히 주장하지 못하는 엄청난 부조리와 마주해 있다! 현 러시아의 국가기구를 “‘전자본주의적’인 관료적 구조”라고 한다. 실제로는 러시아의 국가기구가 지금까지 30년이나 올라가르히 (소련 붕괴 과정에서 득세한 과두 재벌들)를 위해 자본주의적 시종으로 복무하고 –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 있는 데도 말이다.²⁵¹⁾

우리가 러시아 제국주의에 관한 연구에서 증명했듯이, 러시아 경제는 강력한 독점체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들 중 상위 32대 독점체들 – 러시아에서 “금융-산업 그룹들”(FIG)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이 러시아 GDP 중 약 51%를 점하고 있다. (그림 27을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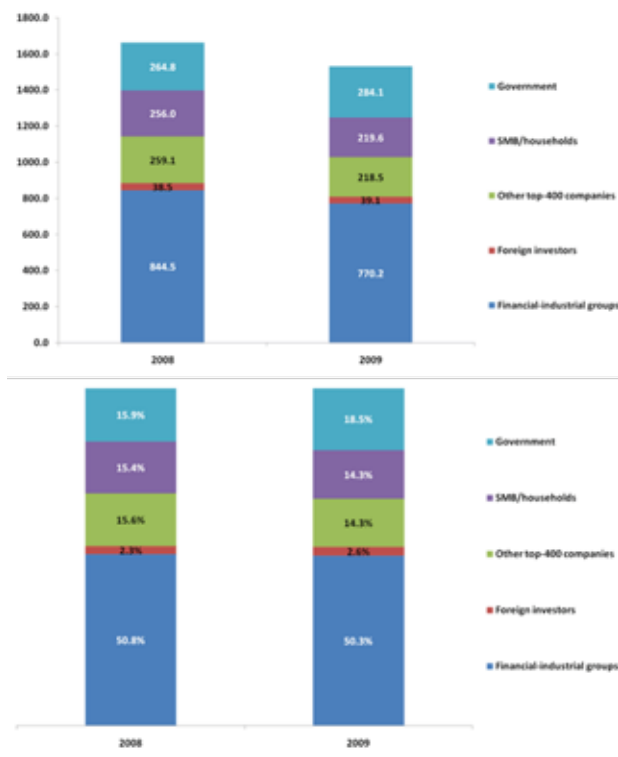
크레디트 스위스 2013년 보고에 의하면, 억만장자 110명이 러시아의 모든 부의 35%를 소유하고 있다.²⁵²⁾ 다시 <<2018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중국에서도 유사한 추세를 – 정도는 훨씬 더 극심하지만 – 볼 수 있다. 그림 28에서 우리는 상위 10%의 소득분배율이 러시아에서 자본주의 부활 이전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본다. 그러나 이것은 1989년 이후부터 급격히 바뀐다. 상위 10%의 소득분배율이 22%에서 41% (2015년)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동안 하위 50% 주민의 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의 약 30%에서 17%로 붕락했다!

aObrera/1499/internacionales/a-donde-va-china

251)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러시아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섹션에 언급되어 있는 문헌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특히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Michael Pröbsting: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Special Issue of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March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252) Credit Suisse: Global Wealth Report 2013, p.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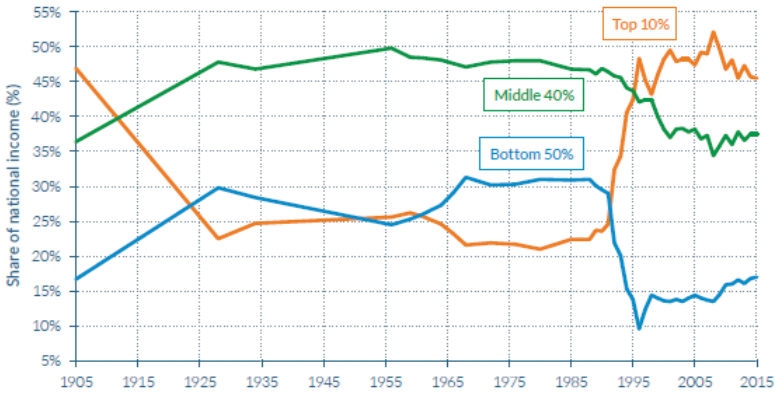
그림 27. 러시아의 GDP 각 부문 기여도 (미화 10억 달러)²⁵³⁾



253) Who Owns Russia: 32 Largest Business Groups Make 51% of GDP, Emerging Markets Venue, July 12, 2010, http://www.emergingmarketsvenue.com/2010/07/12/russian_business_groups/

그림 28. 러시아의 소득분배율, 1905-2015년²⁵⁴⁾

Income shares in Russia, 1905-2015



오직 가장 무지한 관찰자만이, 이와 같이 국민소득 분배율이 자본주의 부활 기간에 인민대중으로부터 엘리트에게로 급격히 쏠리는 과정은 다름 아닌 강력한 부르주아 계급의 출현을 반영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PO 동지들에게 묻는다. 북미에서의 상위 10%와 동일한 국민 소득 분배율을 점하고 있는 이들 러시아에서의 상위 10%는 누구인가? 이들이 자본가들과 상층 중간계급이 아닌가? PO는 이것이 모종의 관료층이라고 진짜 믿고 있는가?! 사실인즉슨, 자본주의 부활 과정은 자본가계급의 형성으로 결과하였다. 오늘 이들 모든 나라 —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 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부르주아지다. 러시아·중국에 자본가계급이란 존재 하지 않는다는 PO의 주장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현실에 대해 PO가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반영하는 총체적인 부조리다!

러시아와 중국이 제국주의 열강이 아님을 논증하려는 PO/CRFT의 논거 역

254) World Inequality Report 2018, p. 120

시 더 나올 게 없다. 그들의 이론적 근거를 겨냥하여 우리가 제출한 소책자에 대한 답변으로 PO/CRFT는 러·중 신흥 강대국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을 논박하는 글을 발표했다.²⁵⁵⁾ 이 글이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대표하는 것이겠지만, 3가지 근본 문제를 안고 있다. a) 글의 논거가 맑스주의 이론과 모순된다. b) 객관적 사실과도 모순된다. c) 내적 일관성을 결여했다.

PO/CRFT의 핵심 테제는 러시아·중국이 자본수출 면에서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계급적 성격에서 제국주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PO/CRFT는 형식적으로는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러시아와 중국은 제국주의가 아니다” 테제의 모든 지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문제에 봉착한다. 왜 이 볼셰비키 당의 지도자는 그 당시에 러시아, 일본, 이탈리아, 오스리아-헝가리 같은 나라들을 제국주의 국가에 포함시켰을까? PO/CRFT는 이것을 설명해야 한다. 우리가 위에서 증명했듯이, 이들 국가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보다 자본수출 규모가 훨씬 작았고, 수출하는 것보다 종종 더 많이 자본을 수입했다.

우리가 위에서 보여주었듯이, 레닌 시대의 제국주의 열강은 정치적 상부구조에서만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토대의 구체적 구성에서도 서로 달랐다.²⁵⁶⁾ 그러나 그 열강을 하나로 묶은 것은 그들이 타 민족들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했다는 것이다. 레닌은 1916년에 제국주의에 관한 그의 저술들 중 하나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제국주의 대국(즉 모

255) 우리는 CRFT의 핵심 이론 중 하나 - 이른바 “파국론” - 를 최근 발표한 팸플릿에서 다루었다. 다음을 보라. The Catastrophic Failure of the Theory of “Catastrophism”, On the Marxist Theory of Capitalist Breakdown and its Misinterpretation by the Partido Obrero (Argentina) and its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Refoundation of the Fourth International”, 27 Ma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atastrophic-failure-of-the-theory-of-catastrophism/>

256) 우리는 이 주장을 우리의 다음 팸플릿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Chapter II, pp. 6-32)

든 민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금융자본에 대한 종속의 그물로 엮어대는 열강)...²⁵⁷⁾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과 스탈린주의적 위조

따라서 오늘날 러시아·중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은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을 “재해석”, 즉 날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레닌이 러시아 같은 나라들들 제국주의로 간주한 바 없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PO/CRFT는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이론을 수정한 첫 주자가 아니며, 아마도 마지막 주자도 아닐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지 보자.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들은 전쟁 행위를 규정하고 세계의 영토 분할을 단행한다. 그러나 제국주의 분석은 이들 강대국 간에 구별을 지을 것을 요구한다. 레닌에 따르면, 세계를 분할한 6개 대국들 가운데 미국과 독일과 일본은 젊은 신흥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구래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다. 전자본주의적 관계가 지배하는,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세력들에 둘러싸인 사회경제 구조를 가진 러시아는 타 국가들과 완전히 달랐다. 레닌은 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의 지위를 제국주의로 규정하면서도 이러한 결정적 차이를 강조했다. “러시아에서 최신 유형의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는 페르시아, 만주, 몽골에 대한 차리즘의 정책으로 스스

257) V. I. Lenin: A Caricature of Marxism and Imperialist Economism (1916); in: LCW Vol. 23, p. 34. [레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154쪽]

로를 완전히 드러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군사적·봉건적 제국주의가 러시아에서는 우세하다."

러시아 제국주의를 지배한 군사주의와 봉건주의의 요소들은 오스만 제국주의에도 존재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은 반식민지였고,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 규정된 제국주의의 종별적 특징을 보유하지 않았다. 따라서 러시아도, 오스만 제국도 1차 세계대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규정한 제국주의 열강으로 볼 수 없다. 그들은 제국주의 대국들에 의존해 있었고, 따라서 제국주의 간 패권 경쟁에서 (기껏해야) 부차적인 지위를 점했다. 이와 같이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보다는 대로마 제국주의를 닮았다.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에서 독점자본주의와 금융자본과 자본수출에 대한 강조는 강대국들이 세계의 분할·재분할을 놓고 투쟁하는 것의 주된 기초가 무엇인지 드러내준다. 대규모 군대와 광대한 영토와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는 전자본주의적 제국들의 권력 원천이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자본수출이 군사작전을 대신했고, 시장을 침략하는 금융자본이 침략군을 대신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제국주의적 군대 (원료자원의 약탈과 값싼 노동력의 착취에서 비롯한 초과이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자본주의 산업이 공급하는 기술 및 기술력을 사용하는 군대)가 모든 분야에서 우세해졌다. 자신의 전능했던 과거를 자랑스러워하는 전자본주의적 제국들의 군대는 제국주의적 침략자들에게 패배 당하거나 (중국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니면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보조적 세력이 되거나 (러시아, 오스만, 오스트리아-헝가리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둘 중의 하나다."²⁵⁸⁾

이와 같이 우리는 PO/CRFI가 어떻게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국가 이론을 단세 단락으로 물구나무 세우는지 본다. 레닌과 트로츠키와 볼셰비키 당은 언제

258) Levent Dölek: The Character of War in 21st Century, pp. 52-53

나 일관되게 러시아나 오스트리아-헝가리는 제국주의 열강이라고 주장했는데 반해 PO/CRFI 동지들은 이 나라들이 반식민지라고 (오스만 제국처럼) 지금 주장한다!

러시아는 “제국주의”라는 볼셰비키의 성격규정이 PO/CRFI에 의해 마치 비역사적 범주인 양 제시되고 있다. 볼셰비키가 러시아를 단지 2000년 전의 로마 제국과 같은 차원에서의 “제국주의”로 보았을 뿐이라는 - 즉 자본주의적 열강의 의미로 제국주의가 아니라 - 식으로 말이다! 이것은 기괴한 진실 왜곡이다.

우리는 이미 위에서 레닌이 러시아를 제국주의 열강으로 (프랑스와 같은 범주에서) 보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볼셰비키가 러시아를 결코 반식민지로 (오스만 제국처럼) 규정한 적이 없으며 일관되게 제국주의 대국으로 규정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점을 명확히 해줄 인용문들은 술하게 찾을 수 있다. 볼셰비키는 각종 강대국들 간의 차이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보다 더 독립적인 열강과 보다 덜 독립적인 열강, 경제적으로 앞서간 열강과 뒤떨어진 열강 등등). 그러나 볼셰비키는 러시아를 다른 제국주의 강대국들과 동일한 범주 속에 넣고 보았다. 더 많은 인용구가 있지만, 우선 다음과 같은 짧은 인용구들을 먼저 보자.

“바보나 약삭빠른 사람만이 러시아 측에서 전쟁이 극히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다. 6월 3일의 정치질서 전체는 자본주의 부르주아지를 관료기구 및 귀족과 결합시키려는 — 관료기구가 러시아 자본의 국제적 야망을 충족시켜주는 데 성공한다는 조건하에 — 시도였다... 러시아 제국주의는 — 그 극히 반혁명적인 성격은 모든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 — 현 전쟁을 준비하는 데서 큰 역할

을 했다.”²⁵⁹⁾

“그 의미는 러시아가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 중 가장 뒤떨어졌고 경제적으로 가장 약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러시아 지배계급은 러시아의 불충분한 생산력 위에 견딜 수 없는 짐을 신자 붕괴된 첫 주자가 된 것이다. 불균등한, 산발적인 발전은 이리하여 가장 뒤떨어진 제국주의 나라의 프롤레타리아트로 하여금 권력을 잡는 첫 주자가 되게 했다.”²⁶⁰⁾

“러시아 부르주아지는 제국주의 억압 국가의 부르주아지였다. 중국 부르주아지, 피억압 식민지 나라의 부르주아지.”²⁶¹⁾

“그러나 러시아 부르주아지는 중국 부르주아지보다 외국 제국주의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더 큰 독립의 혜택을 누렸다. 러시아 자신이 제국주의 나라였다.”²⁶²⁾

“러시아에서는 최신 유형의 자본주의적 제국주의가 페르시아·만주·몽골에 대한 차리즘의 정책 속에서 완전하게 모습을 드러냈지만, 일반적으로는 군사적·봉건적 제국주의가 우세하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주민 대다수가 러시아에서만큼 억압받고 있지는 않다.”²⁶³⁾

“러시아 제국주의는 서유럽 제국주의와 많은 점에서 다르다. 그것은 자

259) Leon Trotsky: Über den russischen Imperialismus (1916), in: Leo Trotzki: Europa im Krieg, Arbeiterpresse Verlag, Essen 1998, pp. 203–204 (영역은 저자).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 원서는 영어로 번역된 것이 없다.

260) Leon Trotsky: The Third International After Lenin,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0, p. 56

261) Leon Trotsky: The Third International After Lenin, p. 174

262) Leon Trotsky: The Chinese Revolution (1938), in: Fourth International [New York], Vol.6 No.10 (Whole No.59), October 1945, p. 316, <http://www.marxists.org/archive/trotsky/1938/xx/china.htm>

263) V.I. Lenin: Socialism and War, The Attitude of the R.S.D.L.P. toward the War (1915), in: LCW 21, p. 306. [레닌 <사회주의와 전쟁>,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40쪽]

본주의 발전의 최근 단계의 제국주의가 아니다. 러시아는 자본수출국들의 대상인 자본수입국이다. 러시아 제국주의는 봉건적, 군사주의적 제국주의다.... 러시아 제국주의보다 더 조야한, 더 야만적인, 더 유혈적인 제국주의는 없다.”²⁶⁴ [지노비에프]

“19세기의 마지막 3분의 1 기간은 새로운 시대, 제국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하나의 대국이 아니라, 몇몇 — 극소수이긴 하지만 — 대국의 금융자본이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 (일본과 러시아에서는 군사력의 독점이나 광대한 영토의 독점, 또는 소수 민족들과 중국 등등을 약탈하는 특별 편익에 대한 독점이 현대의, 최신의 금융자본의 독점을 부분적으로는 보완하고, 부분적으로는 대체한다.)”²⁶⁵

“이것이 이전의 상황이었다. 제국주의 영국이 탐욕스런 독일, 영국, 러시아의 제국주의자들 속에서 아직 라이벌이 있었던 상황, 어느 탐욕스런 라이벌로부터 뺀 발톱에 타격을 입을까봐 두려워 아직 동양의 모든 나라들에 발톱을 들이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전쟁 이전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다.”²⁶⁶

“평화 시에조차 러시아는 훨씬 더 잔인하고 중세적이며 경제적으로 후진적이며 군사-관료적인 제국주의로서 제 민족에 대한 억압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²⁶⁷

264) Grigori Sinowjew: Die russische Sozialdemokratie und der russische Sozialchauvinismus (1915); in: W. I. Lenin/G. Sinowjew: Gegen den Strom, Aufsätze aus den Jahren 1914–1916, Hamburg 1921, pp. 174–175 (영역은 저자)

265) V. I. Lenin: Imperialism and the Split in Socialism (1916); in: LCW Vol. 23, p. 116. [레닌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내의 분열>,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312–3쪽]

266) Communist International: A Manifesto to the Peoples of the East, issued by the Congress of the Peoples of the East, Baku 1920, in: Baku: Congress of the Peoples of the East, New Park Publication 1977, p. 169, online: http://www.marxists.org/subject/arab-world/documents/ppls_of_east.htm

267) V. I. Lenin: The Discussion On Self-Determination Summed Up (1916); in: CW Vol. 22, p. 359. [레닌 <민족자결에 관한 토론 총괄 정리>,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103쪽]

“부르주아적이고 동시에 제국주의적인 대국들 간의 이 전쟁은, 이들 대국 중 한 나라에서 군사적·절대주의적·봉건적인 제국주의가 급속히 일소되어 버린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조건에서는 순 부르주아적인 제국주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더 세질 뿐이기 때문이다.”²⁶⁸⁾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이며 생산의 무정부성이다. 이와 같은 기초 위에서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프루동주의이자, 우매한 속물주의다. 어떠한 분배도 오직 ‘힘에 비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힘은 경제적 발전의 추이에 따라 변화한다. 1871년 이후에 독일의 힘의 증강 속도는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3배, 또는 4배 빨라졌고, 일본의 경우는 러시아에 비해 10배 정도 빨라졌다. 전쟁 말고 자본주의 나라의 실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 전쟁은 사적소유의 기초와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쟁은 그러한 기초에서 자라나온 직접적이고도 불가피한 결과물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개별 기업이나 개별 국가의 경제적 발전이 균등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산업에서의 공황과 정치에서의 전쟁 말고는 주기적으로 교란되는 균형을 회복할 다른 수단은 없다.”²⁶⁹⁾

이 이외에도 같은 내용의 더 많은 인용구를 댈 수 있을 것이다. 레닌과 트로츠키와 볼셰비키 당이 절대주의의 차르 체제의 중요한 역할과 그것이 러시아 국가의 특수한 복합적 성격에 미치는 (반봉건적 요소와 자본주의적 요소를 용

268) V. I. Lenin: Social-Chauvinist Policy Behind A Cover Of Internationalist Phrases (1915); in: CW Vol. 21, p. 435. [레닌 <국제주의적 연사로 위장한 사회배외주의 정책>,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294쪽]

269) V.I. Lenin: On the Slogan for a United States of Europe (1915), in: LCW 21, pp. 341-342. [레닌 <유럽 합중국 슬로건에 대하여>,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104-5쪽]

합시키려는) 결과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러시아의 제국주의 대국으로서의 (그리고 반식민지로서가 아닌) 성격을 한 점 모호함 없이 분명하게 주장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1917년 러시아에서 차르 체제가 타도되고 부르주아 자유주의 인민전선 정부로 대체된 2월 혁명 몇 주 뒤에 트로츠키는 이 인민전선 정부를 “자유주의적 제국주의 정부”로 성격규정 했다. 그는 1905-07년 기간 (6월3일 체제가 권력을 잡게 된 때)부터 1917년까지 러시아 제국주의의 연속성과 변화와 이행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묘사했다.

“6월3일 체제와 화해한 자본가계급은 외국시장 탈취에 눈을 돌렸다. 이제 러시아 제국주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무질서한 금융·군사 시스템과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을 수반한 제국주의 말이다. 현 전쟁장관 구치코프는 이전에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육군과 해군을 완성하는 것을 도왔다. 현 외무장관 밀류코프는 자신이 유럽 여행 중에 주창했던 세계정복 프로그램을 완성해냈다. 러시아 제국주의와 10월당·카데트당의 러시아 제국주의 대표자들은 현 전쟁에 많은 부분 책임이 있다. 자신들은 원하지도, 그것을 위해 싸우지도 않은 그 혁명이 내려준 은총으로 지금 구치코프와 밀류코프는 권력에 올라 있다.... 왕조와 귀족의 제국주의로부터 순 부르주아적 성격의 제국주의로의 이러한 전환으로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를 전쟁과 화해시킬 수 없다.”²⁷⁰⁾

270) 아래는 우리가 전문 재간(再刊)한 트로츠키의 논설 주요 부분이다. 자본주의 열강으로서의 러시아에 대한, 그리고 2월혁명이 러시아에 가져온 변화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에 훌륭한 통찰을 제공한다. “1905년 당시 밀류코프 — 호전적인 현 외무장관 — 는 러일전쟁을 모험이라며 즉각 종전을 요구했다. 이것은 자유주의적·급진적 언론의 정신이기도 했다. 가장 강력한 경제단체들은 전례 없는 재난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평화를 선호했다. 왜 그랬을까? 국내 개혁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헌정체제 수립, 예산 및 국가재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 학교제도 개선, 그리고 특히 농민들의 토지 보유분 증가 등으로 주민 번영의 증대와 러시아 산업을 위한 광대한 국내시장 창출을 기대한 것이다. 12년 전 당시에도 러시아 부르주아지는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을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주나 조선의 병합보다 총력에서 봉건적 관계의 폐지가 더 강력한 시장을 창출해 줄 것으로 그들은 기대했다.

하지만 나라의 민주화와 농민의 해방은 더딘 과정으로 판명되었다. 차르도, 귀족도, 관료도 그들의 특권

이와 같이 트로츠키는 반식민지 러시아에 관해서가 아니라 제국주의 러시아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는 1917년 3월의 자유주의 임시정부를 “순 부르주아적 성격의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성격규정 했다.

PO/CRFI 동지들은 이것을, 러시아는 반식민지였다 라는 자신들의 견해와 어떻게 화해시키는가? 동지들은 차르가 지배하던 시점까지는 러시아가 반식민지였다가 그 다음 1917년 2월- 10월 기간에 갑자기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

을 조금도 내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자유주의적 권고로는 그들이 국가기구와 그들의 토지 소유를 포기하도록 만들기엔 충분치 않았다. 대중의 혁명적 공격이 요구되었다. 이것은 부르주아지가 원치 않은 바다. 토지를 위한 농민들의 반란, 날로 증대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 군대 내 폭동의 확산에 놀란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는 뒷걸음질 치며 차르 관료와 반동 귀족 진영으로 다시 도망가 버렸다. 1907년 6월 3일 쿠데타로 그들의 동맹이 완성되었다. 이 쿠데타로 제3차 및 4차 두마가 성립했다. 농민들은 아무 토지도 받지 못했다. 행정체계는 단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내용은 바뀐 게 없었다. 미국식의 번창하는 농민들로 구성된 국내시장의 발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6월3일 체제와 화해한 자본가계급은 외국시장 강탈 쪽으로 눈을 돌렸다. 무질서한 금융·군사 시스템과 끝없는 식육을 동반한 제국주의, 러시아 제국주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현 전쟁장관 구치코프는 이전에 두마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육해군의 완성을 도왔다. 현 외무장관인 밀류코프는 유럽 여행 중에 주창했던 세계정복 프로그램을 완성해냈다. 러시아 제국주의와 10월당·카데트당의 러시아 제국주의의 대표자들은 현 전쟁에 많은 부분 책임이 있다.

자신들은 원하지도, 그것을 위해 싸우지도 않은 그 혁명이 내려준 은총으로 지금 구치코프와 밀류코프는 권력에 올라 있다. 전쟁 지속을 위해? 승리를 위해? 물론이다. 그들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전쟁으로 끌고 간 바로 그 자들이다. 차리즘에 대한 그들의 모든 반대는 그들의 총족되지 못한 제국주의적 식육에 그 근원을 두고 있었다. 니콜라이 2세의 도량이 권력에 있는 한 러시아의 외교 및 대외 문제에서는 왕조와 반동귀족의 이해관계가 지배적인 지위에 있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러시아와 단독강화를 체결하길 바랐던 이유다. 이제 순 제국주의적인 이해가 차리즘적 이해를 대체했다. 순 제국주의가 임시정부의 깃발에 씌어졌다. 밀류코프와 구치코프는 인민에게 “차르 정부는 없어졌다. 이제 여러분은 전 국민의 공통 이익을 위해 피를 흘려야 한다”고 말한다.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익이란 폴란드의 재편입, 갈리치아, 콘스탄티노플, 아르메니아, 페르시아의 정복이다.

왕조와 귀족의 제국주의로부터 순 부르주아적 성격의 제국주의로의 이러한 전환으로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를 전쟁과 화해시킬 수 없다. 세계 식육과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국제적 투쟁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임무가 되었다. 페트로그라드 시가에서의 반군국주의 선전에 대해 타전해주고 있는 마지막 급보는 우리의 동지들이 용감하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를 격파하겠다는 밀류코프의 제국주의적 호언장담은 호엔츨레른 왕가와 합스부르크 왕가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시의적절한 원조다... 밀류코프는 이제 그들의 손에서 허수아비 역할을 할 것이다. 러시아의 자유주의적 제국주의 정부는 아직 자기 군대의 개혁도 시작 못했는데도, 이미 호엔츨레른 왕가가 애국심을 고취하고, 찢어진 독일 인민의 ‘국민통합’을 꾀하는 것을 돕고 있다.” (Leon Trotsky: War or Peace? published in New York, March 30, 1917, in: Leon Trotsky: Our Revolution, Essays on Working-Class and International Revolution, 1904-1917, Henry Holt and Company, New York 1918 (Edited by Moissaye J. Olgin), pp. 207-211, online: <https://www.marxists.org/archive/trotsky/1918/ourrevo/ch11.htm>)

다고 하고 싶은가? 이것은 a)부조리하며 b)볼셰비키가 말한 것과 모순된다는 것 외에 PO/CRFI 자신의 방법과도 모순된다. 우리가 위에서 보았듯이, 이 동지들은 러시아는 레닌 제국주의 이론의 기준 (“독점자본주의, 금융자본, 자본수출에 대한 강조”)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상태는 1917년 2/3월에도 바뀌지 않았고, 바뀔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PO/CRFI는 1917년 3월에 러시아를 “순 부르주아적인 제국주의”라고 보는 트로츠키의 평가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우리가 항상 주장해 왔듯이, 러시아는 이미 1917년 이전에 본질적으로 제국주의 강대국이었고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헝가리와 일본과 이탈리아 등도), 2월 혁명은 차르 전제정의 타도로 결과하면서 러시아 자본주의의 정치적 상부구조 상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경제적 토대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훨씬 더 논리적이 아닐까?²⁷¹⁾

271) 1917년 이전의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개괄로는, 다음을 보라. D. C. B. Lieven: *Russia and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Palgrave Macmillan, London 1983; Ian D. Thatcher: *Late Imperial Russia*,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anchester 2005; Alexander Semyonov: *Russian Liberalism and the Problem of Imperial Diversity*, in: Matthew Fitzpatrick (Ed): *Liberal Imperialism in Europe*, Palgrave Macmillan, New York 2012, pp. 67–89; Bertram Wolfe: *War Comes to Russia*, in: *The Russian Review* Vol. 22 (1963), No. 2, pp. 123–138; Joshua A. Sanborn: *Russian Imperialism, 1914–2014: Annexationist, Adventurist, or Anxious?*, in: *Revolutionary Russia*, Vol. 27 (2014), No. 2, pp.92–108; Stephan Velychenko: *The Size of the Imperial Russian Bureaucracy and Army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Jahrbücher für Geschichte Osteuropas*, Vol. 49 (2001), No. 3, pp. 346–362; Karin-Irene Eiermann: *The Russian Concession in Wuhan (1896–1925) – Imperialism and Great Power Rivalry*, in: *COMPARATIV* Vol. 15 (2005), No. 5/6, pp. 39–49; German-language literature: Dietrich Geyer: *Der russische Imperialismus. Studien über den Zusammenhang von innerer und auswärtiger Politik 1860–1914*,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1977; Dietrich Geyer (Ed.): *Wirtschaft und Gesellschaft im vorrevolutionären Rußland*, Kiepenheuer & Witsch, Köln 1975; Fritz Klein (Ed.): *Neue Studien zum Imperialismus vor 1914*, Akademie-Verlag, Berlin 1980; Jan Kusber: *Krieg und Revolution in Russland 1904–1906. Das Militär im Verhältnis zu Wirtschaft, Autokratie und Gesellschaft*, Franz Steiner Verlag, Stuttgart 1997; Andreas Kappeler: *Rußland als Vielvölkerreich. Entstehung, Geschichte, Zerfall*, Beck, München 1992; Horst Gunther Linke: *Das zarische Russland und der Erste Weltkrieg. Diplomatie und Kriegsziele 1914–1917*, Wilhelm Fink Verlag, München 1982; Georg von Rauch: *Rußland im Zeitalter des Nationalismus und Imperialismus (1856–1917)*, Koppernikus Verlag, München 1961; G.W.F. Hallgarten: *Das Schicksal des Imperialismus im 20. Jahrhundert. Drei Abhandlungen über Kriegsursachen in Vergangenheit und Gegenwart*, Europäische Verlagsanstalt, Frankfurt a.M. 1969; Gustav Schmidt: *Der europäische Imperialismus*, R. Oldenburg Verlag, München 1985; Ju.A. Petrov: *Die Bourgeoisie Rußlands zu Beginn des 20. Jahrhunderts: Versuche einer politischen*

사실, PO/CRFI는 1917년 이전의 러시아는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라 “반식민지”라는 관념을 만들어낸 최초 발명가는 아니다. 이 “러시아 반식민지”론은 레닌과 트로츠키 당시에 러시아 맑스주의자들에 의해 단호히 거부되었지만, 1930년대에 스탈린주의자들이 이 반식민지론을 정설로 만들어놓았다.

우리가 이미 과거에 밝혔듯이, 1917년 이전의 러시아는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라 “반식민지”였다고 선언한 것은 1930년대에 스탈린의 악명 높은 “이론”이었다. 스탈린은 당시 러시아 역사학자들에게 러시아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을 다시 쓰라고 교시했다.²⁷²⁾

“러시아가 앙탕트(협상국) 편에서, 즉 프랑스와 영국 편에서 제국주의 전쟁에 참전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1914년 이전에 가장 중요한 러시아 산업 분야는 외국 자본가들, 주로 프랑스, 영국, 벨기에, 즉 앙탕트 나라들의 자본가들의 수중에 있었다는 것을 염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러시아의 금속 공장들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이 프랑스 자본가들의 수중에 있었다. 전체적으

Konsolidierung, in: Berliner Jahrbuch für osteuropäische Geschichte, 1997, pp. 49–67; Mark Bassin: Imperial Raum / Nationaler Raum,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Vol. 28 (2002), pp. 378–402; Ulrich Hofmeister: Zwischen Kontinentalimperium und Kontinentalmacht, Repräsentationen der russischen Herrschaft in Turkestan, 1865–1917, in: Martin Aust and Julia Oberreis (Eds.): Osteuropäische Geschichte und Globalgeschichte, Franz Steiner Verlag, Stuttgart 2014; Dittmar Dahlmann: Zwischen Europa und Asien, Russischer Imperialismus im 19. Jahrhundert, in: Wolfgang Reinhard (Ed): Imperialistische Kontinuität und nationale Ungeduld im 19. Jahrhundert, Fischer Taschenbuch Verlag, Frankfurt a.M., 1991, pp. 50–66; Manfred Hagen: Der Russische “Bonapartismus” nach 1906, in: Jahrbücher für Geschichte Osteuropas, Vol. 24 (1976), No. 3, pp. 369–393; Gottfried Schramm: Das Zarenreich: ein Beispiel für Imperialismus,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Vol. 7 (1981), No. 2, pp. 297–310; Heiko Haumann: Staatsintervention und Monopole im Zarenreich – ein Beispiel für Organisierten Kapitalismus?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Vol. 5 (1979), No. 2, pp. 336–355; Paul Luft: Strategische Interessen und Anleihenpolitik Rußlands im Iran,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Vol. 1 (1975), No. 3, pp. 506–538; Bernd Bonwetsch: Das ausländische Kapital in Rußland, in: Jahrbücher für Geschichte Osteuropas, Vol. 22 (1974), pp. 412–425

272) 차르 러시아의 계급적 성격 문제를 다룬 스탈린 치하 소련 역사학계에 대한 개괄로는 다음을 보라. George M. Enten, Tatiana Gorn, and Cheryl Kern: Soviet Historians and the Study of Russian Imperialism,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79, pp. 23–28; George M. Enten: The Soviet Scholar-Bureaucrat: M. N. Pokrovskii and the Society of Marxist Historian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8, pp. 95–95 and pp. 176–178; James W. Roberts: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in Soviet Usage, in: Soviet Studies Vol. 29, Nr. 3 (July 1977), pp. 353–372.

로 금속산업의 약 3/4 (72%)이 외국 자본에 의존했다. 도네츠 분지의 석탄산업도 마찬가지였다. 영국·프랑스 자본이 소유한 유전이 러시아 석유 생산량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러시아 산업 이윤의 상당 부분이 외국 은행, 주로 영국·프랑스 은행으로 흘러들어갔다. 차르가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 차관으로 빌린 수십억 루블에 더해 이 모든 사정이 차리즘을 영·불 제국주의 사슬에 묶어놓았고, 러시아를 이들 나라의 속국, 반식민지로 전락시켰다.”²⁷³⁾

[1939년 소련공산당사 소 교정 (“스탈린 당사”)]

당연히도 이러한 스탈린주의적 견해는 1920년대에 소련에서 있는, 차르 러시아의 성격에 관한 활발한 토론에 참가한 사실상 모든 맑스주의 역사가들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었다.²⁷⁴⁾ 탁월한 러시아 맑스주의 역사가이자 1920년대에 소련 역사학의 선도적 인물이었던 M.N. 포크로프스키는 여러 역사가들 사

273) Histor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Bolsheviks): Short Course, Edited by a Commission of the C.C. of the C.P.S.U.(B.), International Publishers, New York 1939, p. 162. 1945년 모스크바의 외국어출판소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가 발간한 같은 책의 또 다른 판에는 같은 쪽에 같은 정석화가 실려 있다.

274) 차르 러시아의 계급적 성격에 관한 1920년대 소련에서 맑스주의 역사가들의 논의에 대한 개괄로는, (위에서 언급한 Enteen, Gorn, Kern, Roberts의 저작들 이외에) 다음 출판물들을 보라. John Barber: Soviet Historians in Crisis, 1928-32, Macmillan Press, London 1981; George M. Enteen: Marxists versus Non-Marxists: Soviet Historiography in the 1920s, in: Slavic Review, Vol. 35 (1976), No. 1, pp. 91-110; Robert F. Byrnes: Creating the Soviet Historical Profession, 1917-1934, in: Slavic Review, Vol. 50 (1991), No. 2, pp. 297-308; George M. Enteen: Soviet Historians review their own Past: The Rehabilitation of Pokrovsky, in: Soviet Studies, Vol. 20 (1969), No. 3, pp. 306-320; Samuel H. Baron: Plekhanov, Trotsky and the Development of Soviet Historiography, in: Soviet Studies, Vol. 26 (1974), No. 3, pp. 380-395. 이 문제에 관한 다수의 독일어 저작들도 존재한다. W. Astrow/ A. Slepchow/ J. Thomas (Eds): Illustrierte Geschichte der Russischen Revolution 1917 (published in 1928, reprinted by Verlag Neue Kritik, Frankfurt am Main 1970), pp. 70-72; Karl-Heinz Schlarp: Ursachen und Entstehung des Ersten Weltkrieges im Lichte der sowjetischen Geschichtsschreibung, Alfred Metzner Verlag, Hamburg 1971; K.N. Tarnovskij: Probleme des russischen Imperialismus in der sowjetischen Geschichtsschreibung, in: Jahrbuch für Geschichte der sozialistischen Länder Europas, Jg. 27, Berlin 1983, pp. 77-95; Vladimir Laverycev: Der staatsmonopolistische Kapitalismus in Rußland, Ergebnisse und Aufgaben der weiteren Forschung, in: Jahrbuch für Geschichte der sozialistischen Länder Europas, Jg. 29, Berlin 1985, pp. 233-243; Erich Donnert: Pokrovskijs Stellung in der sowjetischen Geschichtswissenschaft, in: Jahrbuch für Geschichte der sozialistischen Länder Europas, Jg. 7, Berlin 1963, pp. 35-60; Lutz-Dieter Behrendt: M.N. Pokrovskij als Historiker der Großen Sozialistischen Oktoberrevolution, in: Jahrbuch für Geschichte der sozialistischen Länder Europas, Jg. 22, Berlin 1978, pp. 97-115; Boris Kolonickij: 100 Jahre und kein Ende, Sowjetische Historiker und der Erste Weltkrieg, in: Osteuropa Jg. 64 (2014), Bd. 2-4, pp. 369-388

이에서 유익한 토론을 이끌어냈고, 스스로도 러시아사 인식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트로츠키가 지적한 그의 방법론상 약점과 관계없이).²⁷⁵⁾

PO/CRFI 동지들은 불균등·결합 발전 법칙이 러시아의 모순적 발전을 가져오고, 그 결과로 러시아가 뒤떨어진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왜 러시아 제국주의는 제국주의의 현대적 특징과 후진적-절대주의적 특징 (차르 전제정)을 결합하고 있는지 불세비키가 설명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이 법칙이었다.

이 문제 전체는 차르 러시아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위에서 말했듯이, 당시에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 같은 또 다른 뒤떨어진 제국주의 열강이 또한 존재했다. 레닌과 트로츠키는 이들 열강을 그 경제적 낙후성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로 간주했다. 레닌과 트로츠키는 이들 열강의 경제적·정치적 발전의 불균등한 성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위에서 레닌이 일본을 제국주의 대국으로 규정, 평가한 것을 살펴본 바 있다. 여기 또 하나의 인용문이 있다. 트로츠키로부터의 인용구다.

“일본은 오늘 제국주의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다. 일본의 금융적·군사적 상부구조는 반(半)봉건적 농업의 미개 상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일본 군

275) 그의 저작 다수가 영어와 독일어로 번역되어 있다. M. N. Pokrovskii: Russia in World History: Selected Essays, Edited by Roman Szporluk,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1970; M. Pokrowski: Geschichte Russlands von seiner Entstehung bis zur neuesten Zeit, C.L.Hirschfeld Verlag, Leipzig 1929; M. Pokrowski: Russische Geschichte, Berlin 1930; M. N. Pokrowski: Historische Aufsätze, Ein Sammelband, Verlag für Literatur und Politik, Wien und Berlin 1928; M.N. Pokrowskij: Aus den Geheim-Archiven des Zaren, Ein Beitrag zur Frage nach den Urhebern des Weltkrieges, August Scherl, Berlin 1919; M.N. Pokrowski: Vorwort des russischen Herausgebers, in: Otto Hoetzsch (Ed.): Internationale Beziehungen im Zeitalter des Imperialismus, Reihe 1, 1. Band, Verlag von Reimar Hobbing, Berlin 1931. 트로츠키는 그의 <<러시아 혁명사>>에서 포크로프스키에 대해 이렇게 적어놓았다. “이 두 권의 책을 진행하는 중에 몇 번이고 다투어야만 했던 M. N. 포크로프스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우리의 작업이 끝난 후에 도착했다. 이미 숙련된 전문학자로서 자유주의 진영에서 맑스주의로 넘어온 포크로프스키는 귀중한 저작들을 통해 가장 최근의 역사 문헌을 풍부하게 해놓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변증법적 유물론 방법을 완전히 터득하지 못했다. 포크로프스키가 높은 재능과 예외적인 박식함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무한 대의에 대한 깊은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덧붙이는 것이 공정한 처사일 것이다.” (Leon Trotsky: History of the Russian Revolution, Haymarket Books, Chicago 2008, p. 353)

대 내의 주기적 폭발은 나라의 사회적 모순의 견딜 수 없는 긴장의 반영일 뿐이다. 체제 전체는 오직 군사적 도발의 동역학을 통해서만 스스로를 유지한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은 전통주의와 맞물려 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가장 현대적인 유형의 거대 함대를 만들어내면서도 그들의 활동을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민족적 전통에 근거를 두길 좋아한다. 성직자들이 자신의 발언과 바람을 신의 입을 빌려 공표하는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의 매우 현대적인 계획과 조합을 현 천황의 위대한 선조들의 유지로 꾸며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니가는 있지도 않는 천황의 유언을 빌어 지배 도당의 제국주의적 열망을 덮어 감추었다.”²⁷⁶⁾

레닌은 1915년에 이탈리아 제국주의에 관해 논설 한편 전체를 할애했다. 레닌은 이탈리아 제국주의의 후진적 성격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이탈리아의 자본수출은 거의 없었고 이탈리아로 들어오는 이주자는 아예 없었다. 오히려 자본수입이 더 많았고 타국으로 빠져나가는 이민자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이탈리아 국가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강조했다.

“이탈리아 제국주의는 나라의 빈곤과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극단적인 궁핍으로 인해 ‘빈민 제국주의 (l'imperialismo della povera gente)’라고 불려왔다.”

그리하여 레닌은 “이탈리아의 사회주의자들”은 “실제로는 이탈리아 부르주아지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²⁷⁷⁾

276) Leon Trotsky: The “Tanaka Memorial” (1940), in: Trotsky Writings 1939/40, p. 170, <http://www.marxists.org/archive/trotsky/1940/01/tanaka.htm>

277) V.I. Lenin: Imperialism and Socialism in Italy (1915), in: LCW Vol. 21, p. 358 resp. 365. [레닌 <이탈리아의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노트)>,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144쪽]

PO/CRFI 동지들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레닌과 트로츠키가 자본수출과 금융자본 면에서 강력했던 열강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보다 뒤떨어진(낙후한, '후진적') 국가들도 제국주의로 본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PO/CRFI 동지들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PO/CRFI와는 대조적으로 볼셰비키는 이 문제를 변증법적 방식으로 접근하여, 그러한 강대국들과 피억압 민족의 관계를 성격규정 하는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요인들의 총체를 고려에 넣었다.

요약하면, 우리는 PO/CRFI가 러시아 제국주의에 관한 레닌과 트로츠키의 견해를 그 대립물로 바꿔버리고 그들의 변증법적 방법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PO/CRFI가 오늘날의 러시아·중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마찬가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러시아·중국의 자본수출: 신화와 현실

PO/CRFI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국제성명의 한 장의 제목으로 달고 있다. “러시아·중국 경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품수출인가, 자본수출인가?” 그리고 이렇게 답한다. “제국주의는 상품수출보다는 자본수출이 규정적 요인이 되는 자본주의의 단계다.” 이어서 보겠지만, 이것이 PO/CRFI 주장의 핵심 논리인데, 여기서 이 동지들은 세계 제국주의 체제의 특징을 개별 나라를 성격규정 하는 희화적 기준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계속해서 인용해 보자.

“21세기 들어 자본수출은 기술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나 더 쉬어졌다. 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적 공격은 자본 유통 앞에 있던 장벽을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허물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의 자본수출은 한 줌의 제국주의 열강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널리 퍼졌다. 더욱이 심화되고 있는 제국주의 세계통합은 제국주의 경제들 간의 자본수출 증가를 가져왔고, 이제 미국과 영국은 주요 제국주의 열강으로서 자본수출에서의 선도국일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외국인직접투자를 받고 있다. 미국·영국의 자본수출액이 자본수입액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점이 이들 나라 금융자본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반대로 그들은 점점 더 통합되어 가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에 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제국주의 나라들과 전체로서의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은 해외직접투자 잔액 면에서 순 자본수출국들이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해외직접투자 잔액 면에서 순 자본수입국들이다. 중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 잔액은 중국 GDP의 24%에 해당하는 데 반해 중국의 자본수출은 중국 GDP의 단지 12%에 달할 뿐이다. 러시아의 경우 이 점유율은 각각 30%와 26%다. 러시아가 구 소연방 공화국들에 자본을 수출하는 나라 가운데 압도적인 1위국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도 순 자본수입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를 면밀히 조사해보면, 양국 경제의 성격은 자본수출이 아니라 상품수출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상황은 아주 명백하다. 러시아 예산 수입의 40%는 석유와 가스, 그리고 그 파생상품들에서 나온다. 러시아의 경제적 성과는 유가 변동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글로벌 규모에서는, 그러나 총 수출 소득이 3530억 달러인 러시아는 수출국들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아랍에미리트와 경쟁하는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 지위가 분명한 러시아의 상황을 더는 논의하지 않을 것인데, 그에 반해 중국의 상황은 보다 논란이 있어 보여 상세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상품수출로 2조3천억 달러의 소득으로 중국은 상품수출국 중 1위다. 홍콩의 수출액 5억5000만 달러를 이 수치에 보태면 중국의 수출 소득은 미국(1조5000억 달러)이나 독일(1조4000억 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 중국의 자본수출은 중국의 거대한 상품수출 경제구조를 보완하는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달리 말하면, 중국 경제는 상품과 자본 둘 다 수출하지만,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 규정적인 것은 상품수출이다. 제국주의의 고유한 특징인 자본수출이 아니다.”²⁷⁸⁾

“비교 대상국으로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는 달리, 러시아도 (석유 및 가스 독점체와 국영은행이 있고, 또한 노동자국가를 약탈한 덕에 더욱 더 몸집이 커져가는 올리가르히들도 있는 러시아도), 중국도 (거대한 그러나 아직 미성숙한 금융자본이 있는 중국도) 제국주의 열강이 될 기초를 형성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결론이 앞으로도 상황은 영원히 같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러시아의 금융자본은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중국 금융자본의 발전은 면밀한 조사를 요한다. 그럼에도 중국이 상품수출이 아니라 자본수출이 지배적으로 되는 새로운 수준으로까지 그 경제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제국주의를 말할 수 없다.”²⁷⁹⁾

문단 하나하나가 맑스주의적 방법에서든, 단순 논리에서든 모순되지 않는 것이 없다. 가장 기본적인 수치에서도 그러하다. 주요 오류들을 하나씩 다루어보자. 이미 말했듯이, PO/CRFI의 방법은 불균등·결합 발전 법칙으로 특징지어지는 변증법이 철저히 결여되어 있다. 이 동지들은 일반적 진실 – 제국주의 시대에는 자본수출이 상품수출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 로부터, 해당 국가의 자본수출이 상품수출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경우에만 제국주의로서 자

278) Levent Dölek: The Character of War in 21st Century, pp. 55–56

279) Levent Dölek: The Character of War in 21st Century, p. 57

격을 얻을 수 있다는 그릇된 결론을 끌어낸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레닌과 트로츠키의 방법이 아니다.

상품수출 대비 자본수출의 우위는 오래된 선진 제국주의 열강의 경우에는 종종 사실이지만, 후진 열강이나 신참자에게는 꼭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무시할 수 없는 반(半)봉건적 특질이 남아 있을 만큼 후진적인 대국인 일본은 1914년에 전 세계의 해외직접투자 잔고 중 0.1%의 점유율밖에 가지지 못했다.²⁸⁰⁾ 그럼에도 레닌과 트로츠키는 당시에 일본을 제국주의 국가로 간주했다.

마찬가지로 강대국 일반 간에, 심지어는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도 불균등 발전이 항상 존재했다. 영국은 1914년까지 지배적인 자본수출국으로서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의 41%를 점유했다! 독일 역시 확실히 당시에 제국주의 열강이었지만, 자본수출이 상품무역보다 더 큰 비중을 점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에도 상품 생산 및 무역이 자본수출보다 비중이 상당히 더 컸다.

어느 정도는, 20세기 초의 미국은 지난 2000-2010년간의 중국과 비슷한 지위에 있었다. 미국은 신참자였고, 그 자본수출은 기존 제국주의 열강에 뒤쳐져 있었다. 1914년까지 미 제국주의는 해외투자액에 비해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투자액이 두 배 이상이었다. PO/CRFI의 논리대로라면, 1914년의 미국은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자격증을 얻을 수 없다.

실제로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제국주의 강대국이었다. 이것은 제국주의 열강 간의 불균등 발전에 대한 예다. 그러나 불임적이고 일면적인 PO/CRFI의 방법을 채택했다면, 레닌이라도 미국을 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PO/CRFI가 그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진 않지만, 이것은 그들이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을 왜곡되게 해석한 것에 따르는 불

280)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4, p. 131

가피한 결과다.

더욱이 PO/CRFI의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점을 무시한다. 즉 세계의 상품무역에서 한 나라가 유의미한 비중을 점하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자본주의적 가치 생산의 중요한 본거지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 말이다. 그리고 가치 생산의 중요 본거지라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강국을 가리키는 지표가 아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여러 경우에서 PO/CRFI는 부정확한 수치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자본수출은 자본수입보다 그 비중이 상당히 작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중국 자본주의 부활 초기에는 이것이 사실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수치 자료인 UNCTAD 세계 투자 연례 보고서의 수치는 자본수출 면에서 중국의 급속한 따라잡기 과정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 25에서 우리는 중국의 해외투자가 지난 2000년대에 크게 증가해서 현재 중국의 유출 FDI 잔고가 이미 유입 FDI 잔고와 같은 액수임을 볼 수 있다.

독일은 PO/CRFI 논거 — 한 나라의 자본수출이 상품수출보다 비중이 더 크지 않으면 그 나라는 제국주의일 수 없다는 — 의 터무니없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다. 우리가 위에서 보았듯이, 세계 상품수출에서 독일의 점유율은 8.4%(2017년)인데 반해 세계 FDI 유출 및 그 잔액에서 독일의 점유율은 그보다 상당히 작다 (같은 2017년에 각각 5.6%와 5.2%). 비변증법적인 PO/CRFI 방법을 따를 경우 우리는 독일을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성격규정 할 수 없다.

가장 오래된 제국주의 강대국들조차도 PO/CRFI의 기준과는 배치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국주의 강대국 영국은 중국과 같은 규모의 FDI 잔액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수출하는 것보다 약간

더 많은 자본을 수입한다! 최신 UNCTAD 수치에 의하면, 영국의 유입 FDI 잔액은 1조5638억6700만 달러이고, 유출 FDI 잔액은 1조5316억8300만 달러다. 미국도 유입과 유출 간의 이 같은 비중 관계가 존재한다. 유입 FDI 잔액은 7조8070억3200만 달러, 유출 잔액은 7조7990억4500만 달러다. 이렇게 PO/CRFI 이론 전체는 터무니없는 주장과 맑스주의 이론의 왜곡, 그리고 거짓 수치에 기초해 있다!

표 25. 중국의 FDI (단위: 백만 달러), 2000-2017년²⁸¹⁾

FDI 유입 잔액			FDI 유출 잔액		
2000년	2010	2017	2000	2010	2017
193,348	587,817	1,490,933	27,768	317,211	1,482,020

중국 대외투자의 성격에 대하여

PO/CRFI는 그 실패한 이론을 살리려고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

“중국 직접 자본수출의 40%가 광업, 석유, 에너지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제조업 비중은 4%에 불과하다. 중국은 원자재와 에너지의 주요 고객 중 하나이며, 이러한 수요는 중국 국경 내의 수출 지향적인 생산으로부터, 즉 상품수출을 추동하는 자극으로부터 나온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의

281)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p. 189

결정적인 변수는 중국 자본이 수입되는 나라의 국민소득이다. 중국의 해외 투자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값싼 노동이 아니라 대규모 시장이다. 대규모 시장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더 많은 수요를 의미하며, 이 점은 중국의 자본수출이 상품수출의 연장이라는 것, 그리고 중국 경제의 이러한 특징이 제국주의의 징표로 규정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준다.”²⁸²⁾

여기서도 다시 혼란이 줄을 잇는다. 중국의 자본수출이 광업, 석유, 에너지 부문 중심이라며, 이는 중국이 제국주의가 아님을 가리키는 징표라고 한다. (나아가 위 인용구에서는 러시아에 관해서도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가 가능한 것인가? PO/CRFI가 석유와 가스, 그리고 전체 에너지 부문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것은 반식민지 나라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나라에도 해당되는 사실이다.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는 (따라서 어떠한 에너지 가격 변동도) 프랑스에서 총 생산비용의 60% 이상에 영향을 미친다.²⁸³⁾ <2018년 포춘 글로벌 500> 순위에 있는 상위 10대 기업 중 6개 기업이 에너지 부문 기업이다. (그리고 다른 2개 기업은 에너지 가격에 강한 영향을 받는 자동차 부문 기업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역사 전체가 보여주는 특징은 에너지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점해 왔다는 사실이다. (미국 역사에서 석유 남작들 (oil barons)의 역할을 상기해보면 될 것이다)!

PO/CRFI는 러시아의 예산이 세계시장에서의 석유·가스 가격 변동에 영향 받는다고 말한다.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가 석

282) Levent Dölek: The Character of War in 21st Century, p. 56

283) Henri Safa: The Impact of Energy on Global Economy, in: International Journal of Energy Economics and Policy, Vol. 7(2017), No. 2, p. 294.

유·가스 가격 변동에 영향 받는다. 이 부문이 세계경제에서 점하는 중심적 역할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 유가 인상으로 촉발된 (또는 적어도 가속화된) 세계적인 불황들이 있었다.

더욱이 PO/CRFI 동지들은 레닌 자신이 트러스트와 금융자본에 의한 원료 자원 장악을 제국주의의 5대 기본 표식 중 하나로 지목한 것을 잊었는가?! 우리가 위에서도 인용했듯이, 레닌은 제국주의에 관한 그의 주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가능한 한 정확하고 완전한 제국주의 정의(定意)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국주의란 자본주의의 특수한 역사적 단계다. 그 특수성은 세 가지다. 제국주의는 (1) 독점 자본주의, (2) 기생적인, 또는 부패해가는 자본주의, (3) 사멸해가는 자본주의다. 독점이 자유경쟁을 대체했다는 것이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경제적 특징이고 그 본질이다. 독점은 주되게 다섯 가지 형태를 취하며 나타난다. ... (3) 트러스트와 금융과두제 (금융자본은 은행자본과 융합한 독점적 산업자본이다)가 원료자원을 장악하고 있다...”²⁸⁴⁾

간단히 말해 우리는 왜 PO/CRFI가 에너지 부문에서 중국의 자본수출 강세를 중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반박하는 징표로 해석하는지 이해할 길이 없다.

더 나아가 보자. PO/CRFI는 “중국의 해외투자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값싼 노동이 아니라 대규모 시장이다”라고 주장한다. 정말?! 우리는 지난 연구들에서 중국이 많은 반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주요 투자국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0년에 중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 네덜란드 다음으로 3대 투자국이 되었다.²⁸⁵⁾ 맥킨지연구소의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이미 아

284) V. I. Lenin: Imperialism and the Split in Socialism (1916); in: CW Vol. 23, pp. 105–106 (강조는 원저자). [레닌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내의 분열〉,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295–6쪽]

285) Miguel Perez Ludeña: Adapting to the Latin American experience; in: EAST ASIA FORUM QUARTERLY, Vol.4 No.2 April-June 2012, p. 13

프리카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약 1만 개의 중국 기업들 (그 90%가 사유기업이다)이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 산업생산의 약 12%를, 그리고 아프리카의 국제 수주 건설시장의 약 절반을 장악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은 또한 “그린필드 투자” (즉, 모회사가 모국 이외의 지역에 공장 신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의 선두주자다. 2015-16년에 384억 달러를 투자했다 (아프리카 그린필드 투자 총액의 24%).²⁸⁶⁾ 나아가 중국은 많은 아시아 나라들에서 선도적인 외국인투자자다.

확실히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 시장” 접근에 관심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자본가들에게 꽤나 공통된 욕구다. PO/CRFI 지도자들이 중국은 여전히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대규모 시장” 접근에 관심이 있는 서방 제국주의 기업들도 많다.

실제로 원료자원, 시장 등에 대한 쟁탈전은 언제나 제국주의적 독점의 특징이었다. 레닌은 이미 <<제국주의론>>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그 경제적 본질에서 제국주의는 독점 자본주의라는 것을 살펴 보았다.... 우리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시대를 특징짓는 독점의 네 가지 주요 유형, 또는 독점자본주의의 주요 양태들을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넷째, 독점은 식민정책으로부터 성장했다. 금융자본은 식민정책의 많은 ‘오래된’ 동기들보다 새로운 동기들을 추가했다. 원료자원을 위한 투쟁, 자본수출을 위한 투쟁, 세력권을 위한 투쟁 (즉 이윤 나는 거래와 이권과 독점 이윤 확보를 가능케 해줄 세력권을 위한 투쟁, 경제적 영토 일반을 위한 투쟁)

286) Irene Yuan Sun, Kartik Jayaram, Omid Kassiri: Dance of the lions and dragons, How are Africa and China engaging, and how will the partnership evolve? McKinsey & Company, June 2017, p. 10 and pp. 29-30

이 그것이다.”²⁸⁷⁾

어쨌든, PO/CRFI는 중국 자본가들이 이 나라들에서 값싼 노동인력을 착취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정말 하고 싶은 것인가?! 그 모든 기업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일부 중국 기업들이 자국의 노동인력을 현지에서 데리고 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의 해외투자 기업 다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PO/CRFI는 또한 이른바 “라운드 트립” – 즉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돈을 송금한 다음 다시 중국 본토로 돌려보내 “외국인투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조세 특권을 누리기 위한 등등) – 을 중요한 사례로 꺼내들어 중국 자본 수출의 역할을 상대화하려고 한다.

“또한 중국 자본수출에 관한 데이터와 관련하여 중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전 영국 식민지인 홍콩이 1997년에 중국에 반환되었을 때 중국과 영국은 ‘일국양제 (一國兩制)’라는 협정을 맺었는데, 즉 홍콩의 자유시장 및 자유주의 구조는 면책특권을 얻는다는 협정이었다. 이 때문에 중국이 홍콩에 투자하는 것은 중국 자본수출의 일부로 계산된다. 이와 함께, 홍콩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외국인 자본의 지위를 가진다. 중국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한 중국 자본이 중국으로 되돌아가서 (“라운드 트립핑”) 외국인 자본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누린다. 중국 자본수출에서 홍콩의 점유율은 70%에 이르며, 라운드 트립핑의 결과로 중국에 재투자되는 자본은 중국 자본수출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²⁸⁸⁾

287) V. 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1916) ; in: LCW Vol. 22, pp. 298– 299. [레닌 <<제국주의론>>, 레닌전집 63권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이정인 옮김, 아고라, 205–6쪽]

288) Levent Dölek: The Character of War in 21st Century, p. 56

우리는 이미 이 현상을 우리의 책자와 논설 등에서 다룬 바 있다. (또 러시아에서의 비슷한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도 또 PO/CRFI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있다. 첫째, 중국의 자본수출에 대한 “과대평가된” (실제로는 홍콩을 거쳐 중국에 재투자되고 있으므로) 수치로 인해 나타난 결과 중 하나는, 과대평가된 것이 자본수출 수치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중국의 자본수입 수치도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서 외국인 제국주의 자본의 비중이 각종 수정주의자들 (PO/CRFI의 수정주의자들을 포함하여) 이 종종 주장하는 것처럼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조세도피처에 돈을 보내고 이를 '외국인 자본'으로 재투자하는 것은 중국 (및 러시아)의 특성이라는 — 보통 서방 언론들이 주장하는 — 널리 퍼진 신화가 그것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 — 서방 제국주의 나라들을 포함하여 — 에서의 표준적인 관행이다.

우리가 이전 연구들에서 지적했듯이, 역외 송금도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표면상의 FDI에서 상당 부분을 점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FDI 잔액의 최소한 30%가 조세피난처를 통해 증개되고 있다.”²⁸⁹⁾ 토마 피케티(《21세기 자본론》)의 제자 가브리엘 주크만은 한 연구에서 2008년 현재 약 5조9천억 달러의 금융 자산 (예술 작품과 부동산 제외)이 글로벌 부자들에게 의해 조세피난처에 보관되어 있다고 계산했다.²⁹⁰⁾ 조세정의네트워크는 2010년 현재 이 수치를 21조 달러에서 32조 달러로 더 높게 잡고 있다.²⁹¹⁾ 그림 29에서 우리는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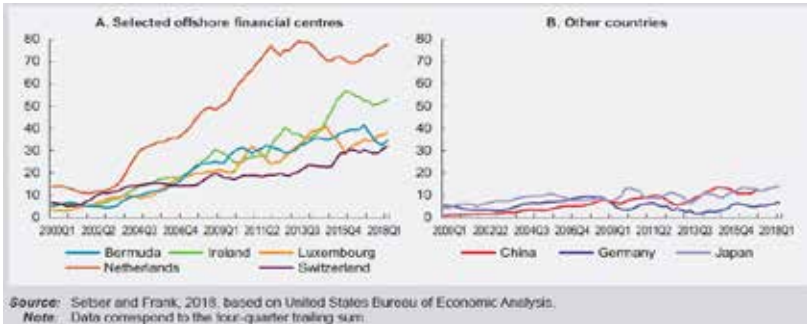
289) Daniel Haberly and Dariusz Wójcik: Tax havens and the production of offshore FDI: An empirical analysis (2013), p. 1. 《이코노미스트》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The Economist: Storm survivors, Special Report on Off Shore Finance, February 16th 2013, p. 2)

290) Zucman, Gabriel: The Missing Wealth of Nations: Are Europe and the U.S. Net Debtors or Net Creditors? i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13), p. 1344

291) James S. Henry: The Price of Offshore Revisited, Tax Justice Network 2012, p. 5

국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역외 금융센터에 대한 직접투자로부터 얻는 이윤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본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중국이 제국주의 열강임을 부정하는 PO/CRFI의 논거가 모래 위에 지은 성임을 본다.

그림 29.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수익, (선별된 나라들), 2000년 1분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 (단위: 10억 달러)²⁹²⁾



중국 · 러시아의 국유기업: 자본주의적 기업이 아니다?

PO/CRFI의 다음 논거를 살펴보자. PO/CRFI는 “제국주의 시대를 특징짓는 금융자본이 러시아와 중국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292) UNCTAD: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18, New York and Geneva, 2018, p. 39

러나 그들은 중국·러시아가 제국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또 다른 상대화 시도를 한다. “그러나 그 회사들 거의 모두가 국유기업이거나 아니면 국가가 주요 주주인 합자회사다.”

“3개의 석유 및 천연가스 거대 기업, 가스프롬과 루코일과 로스네프트, 그리고 2개의 공매된 국영은행 스베르뱅크와 VTB투자은행은 세계 500대 기업 순위에 드는 러시아 회사들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주요 순위국 중 하나로서 500대 기업 순위에 약 20개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모두에서 증대하는 주식시장 활동을,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은행자본에 추가한다면, 제국주의 시대를 특징짓는 금융자본이 러시아와 중국에 존재한다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회사들 거의 모두가 국유기업이거나 아니면 국가가 주요 주주인 합자회사다. 순위에 오른 유일한 사유 [‘민간’] 중국 기업은 홍콩에 본사를 둔 노블 그룹인데, 이 회사는 사실은 리처드 엘먼이라는 거대 석탄 무역업자가 설립한 영국 기업이다. 세계 상위 500대 기업에 그 기업들이 포함된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발달한 자본주의라서가 아니라, 러시아가 천연자원에서 선도적 지위에 있고 중국이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덕에 거대 시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²⁹³⁾

불행하게도, PO/CRFI 동지들이 이 진술에 담긴 아이러니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자. PO/CRFI는 금융자본의 존재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여전히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자조(自嘲)는 확실히 동지들의 가장 큰 불행은 아니다! 사실, PO/CRFI의 주장은 레닌의 “국가독점자본주의” 테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레닌은 그의 제국주의 이론에서, 쇠퇴기에 있는 선진 자본주의는 점점 더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특징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국유 (또는 부분 국유)

293) Levent Dölek: The Character of War in 21st Century, p. 57

기업, 경제에 대한 간접적 국가 개입 등으로 결과한다.

“국가 문제는 지금 이론과 실제 정치 둘 다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얻고 있다. 제국주의 전쟁은 독점자본주의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전화 과정을 엄청나게 가속화하고 심화시켰다.”²⁹⁴⁾

“러시아에서도 자본주의가 독점 자본주의가 되었다는 것은 프로두골 [석탄신디케이트], 프로다메트 [야금 신디케이트], 설탕 신디케이트 등의 사례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이 설탕 신디케이트는 독점자본주의가 국가독점 자본주의로 발전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실물적인 본보기다. 그렇다면 국가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배계급의 조직이다...”²⁹⁵⁾

국유기업은 이윤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널리 퍼진 신자유주의 신화다. 우리의 이전 책자, 논설 등에서 보여주었듯이, 중국의 국유기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대량해고, 사회복지 폐지를 거쳤고, 그 결과로 그들 다수가 이미 꽤 오래전부터 이윤을 내고 있다. 중국 공식 통계에 의하면,

“[국유기업들은] 초기 개혁이 성과를 내면서 세계 2대 경제에 확실한 지원을 공급함에 따라, GDP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최고의 수익성 실적을 공시했다. 2018년, 근 100개의 중앙 관리 SOE(국유기업)의 총 수입은 29조1천억 위안(4조2천9백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평화강 SASAC(국유자산 관리감독위원회) 대변인에 따르면, 이윤 증가율은 16.7%로 1조7000억 위안에 달해 이 수치가 처음 집계된 이래 최고의 성과를 냈다.”²⁹⁶⁾

294) V. I.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The Marxist Theory of the State and the Tasks of the Proletariat in the Revolution (1917); in: LCW Vol. 25, p.387

295) V. I. Lenin: The Impending Catastrophe and how to Combat it (1917); in: LCW Vol. 25, p.361

296) Chu Daye and Zhang Dan: Results underpin economy amid downward pressure, Global Times 2019/1/17 <http://www.globaltimes.cn/content/1136176.shtml>; 다음도 보라. SCMP: China's state-owned

그리고 서방의 자본가들 자신들도 이것을 속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이 수많은 국유기업 또는 준 국유기업을 연례 글로벌 포춘 500대 순위 에 포함시킬 때는 말이다. 우리가 앞에서 독자들에게 인용한 UNCTAD 연구 보고에 의하면, 세계 2000대 초국적 기업 가운데 중국 기업들 (많은 국유기업 들을 포함한)이 이들 상위 독점체의 이윤 총액 중 17%를 차지한다. 따라서 명 백하게도 중국 국유기업들은 꽤 이윤을 내는 운영을 한다!

이주 · 이민의 역할

이제 러시아 · 중국이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라는 PO/CRFI의 마지막 논거를 살펴보자. PO/CRFI는 중국으로의 이주 · 이민이 없기 때문에 중국은 제국주 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국주의라면 그러한 이주노동자가 있어서 값싼 노 동으로서 초과착취 당해야 할 텐데 그런 조건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 그 국경을 넘어 값싼 노동을 찾기보다는 계속해서 세계 최 하위권의 임금을 제공하면서 자본이 유입되고 자국 주민이 국외로 빠져나가 는 나라로 남아 있는 한 제국주의 나라들의 리그로 상승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레닌도 제국주의의 표식에 이주 · 이민 현상을 추 가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기술하고 있는 사실들과 연결

companies enjoy record profits, even as private sector flounders, 18 January, 2019,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2182552/chinas-state-owned-companies-enjoy-record-profits-even-private>

된 제국주의의 종별적 특징 중 하나는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빠져나가는 이민의 감소와, 보다 낙후한 저임금 나라들로부터 이들 제국주의 나라들로 들어오는 이민의 증가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미국 이주노동자나 독일 이주노동자, 덴마크 이주노동자, 네덜란드 이주노동자, 캐나다 이주노동자, 영국 이주노동자, 프랑스 이주노동자 등과 같은 것이 없는 이유는 이들 나라가 제국주의 열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의 관계도 진실이다."²⁹⁷⁾

첫 문장은 우리가 보여주었듯이 얼토당토않은 년센스에 불과하다. 자본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은 (또한 많은 북미 및 유럽 나라들로도 자본이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이다. 그러나 또한 많은 자본이 중국으로부터 유출되기도 한다. 중국 기업들의 해외투자로 말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주요 외국인투자자의 반열에 드는 이유다. PO/CRFI 신화와는 반대로 이들 중국 기업은 현지의 값싼 노동인력을 착취하고 있다. PO/CRFI는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중국인 이민자들이 꽤 많은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것은 원문 (아마도 터키어로 씌어진) 번역상의 오류일 수 있다. 만약 번역 실수가 아니라면, 그 얘기는 년센스에 불과하다.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이민은 별로 없다.

유일하게 사실인 것은 중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이 정말이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는 PO/CRFI가 러시아의 사례를 슬그머니 그냥 넘어가버렸다는 사실에 독자들을 주목시키고자 한다. PO/CRFI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십중팔구 사실일 것이다. 우리가 이전 연구에서 보여주었듯이, 러시아 제국주의는 이주자에 대한 초과착취로부터 엄청난 수익을 얻는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약 1160만 명

297) Levent Dölek: *The Character of War in 21st Century*, pp. 57–58

의 합법적 이주자가 현재 러시아에 거주한다. 추가로 또 다른 500만에서 800만 명의 이주자가 러시아에서 일하기 위해 불법으로 입국해 있다. 러시아 인구 중 이주자 비율을 집계한 공식 수치는 8.1%로 유럽 나라들의 수준에 가깝다. 그러나 이것은 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식 집계된 이주자 대부분은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 수치는 러시아 내 피억압 민족들 출신의 이주자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²⁹⁸⁾

일반적으로 PO/CRFI가 이주·이민이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실제로 이것은 특히 현 시기 그 역사적인 쇠퇴기에 있는 제국주의의 중심 특징이다.²⁹⁹⁾ 그러나 예외가 있으며, 제국주의 나라들 모두가 상당 규모의 이주·이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세계 최강 제국주의

298) 러시아의 이민·이주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Special Issue of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March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다음 장을 보라. "Migration and Super-Exploitation")

299) 이주·이민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Patriotic "Anti-Capitalism" for Fools, Yet Again on the CWG/LCC's Support for "Workers" Immigration Control and Protectionism in the US, 30.5.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wg-lcc-us-protectionism/>; Michael Pröbsting and Andrew Walton: The Slogan of "Workers" Immigration Control: A Concession to Social-Chauvinism, 27.3.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kers-immigration-control/>; Michael Pröbsting and Andrew Walton: A Social-Chauvinist Defence of the Indefensible, Another Reply to the CWG/LCC's Support for "Workers" Immigration Control, 14.5.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wg-immigration-control/> RCIT: Marxism, Migration and Revolutionary Integration, <https://www.thecommunists.net/oppressed/revolutionary-integration/>;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hapter 8,iv) and 14ii),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Michael Pröbsting: The British Left and the EU-Referendum: The Many Faces of pro-UK or pro-EU Social-Imperialism, August 2015, Chapter II,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british-left-and-eu-referendum/part-5-1/>, RCIT-Program, chapter V: <https://www.thecommunists.net/rcit-manifesto/fight-against-oppression-of-migrants/>, RCIT-Manifesto chapter IV: <https://www.thecommunists.net/rcit-program-2016/chapter-iv/>; and various actual statements and articles here: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articles-on-refugees/>. 또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Migration and Super-exploitation: Marxist Theory and the Role of Migration in the present Period of Capitalist Decay, in: Critique: Journal of Socialist Theory (Volume 43, Issue 3-4, 2015), pp. 329-346. 또 우리는 독일어로도 이주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와 맑스주의 강령을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Marxismus, Migration und revolutionäre Integration (2010); in: Der Weg des Revolutionären Kommunismus, Nr. 7, pp. 38-41,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werk-7>

열강 중 하나인 일본은 인구에서 이주자 비율이 예외적으로 아주 작다 (2007년에 1.7%).³⁰⁰⁾

중국의 경우, 우리가 이전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그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스탈린주의 자본가 지배계급이 중국 인구 규모 자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14억 인구는 총 세계 인구의 18.5%에 해당된다!) 나아가 중국 지배계급은 1958년에 스탈린주의 집권 관료층이 만들어놓은 ‘호구제’(戶口制)라는 이름의 오랜 가구등록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호구제에 따르면, “거주민은 당국의 허가 없이 자신의 가구가 등록된 행정 구역 밖에서 일하거나 살 수 없다. 거주민이 자신의 등록 거주지를 떠나는 순간, 자신의 권리와 혜택도 모두 두고 가는 것으로 된다. 감시 목적상, 이동 중인 임시 거주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거주지 및 임시 거주지의 관할 경찰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1970년대까지 이 제도가 너무 경직되어 ‘농민들은 도시에 들어온 것만으로 체포될 수 있다.’”³⁰¹⁾

농촌의 빈곤과 도시에서의 일자리 기회를 감안할 때 수천만 명의 농민 — 그 대부분이 젊은 농민들인 — 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이주했다. 도시로 이주한 이들 전(前)농민 또는 농민 청년들은 중국에서 이주민으로 불린다. 이 카테고리는 보통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기 때문에 현실을 호도한다. 실제로는 그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떠난 이주노동자다. 그러나 이들이 이주민으로 불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들과 국제적으로 이주민으로 불리는 사람들 간에는 중요한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이주민은 이주한 지역에서 흔히 불법으로, 사회적 안전망 없이 무권리 상태로

300) Gabriele Vogt: Bevölkerungsentwicklung in Japan: Fokus Migration, Berlin-Institut für Bevölkerung und Entwicklung, 2008, p. 3

301) China Labour Bulletin: Migrant workers in China, 6 June, 2008, <http://www.clb.org.hk/en/node/100259>

살게 된다. 이들 전(前)농촌인민은 이주한 도시에서 불법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흔하며, 호구제로 인해 주거, 고용, 교육, 의료 서비스, 사회보장 등에 대한 접근권이 일절 없다.

매우 열악한 처지에서 살고 있는 이들 이주민들은 곧 초과착취를 통한 자본주의 원시축적 과정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 중국의 이주노동자 수는 약 3000만 명(1989년)에서 6200만 명(1993년), 1억3180만 명(2006년)으로 증가했고, 2010년 말에는 약 2억42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수도 베이징에서 전체 인구의 약 40%가 이주노동자고, 선전(深圳)에서는 총 1,400만 명 인구 중 1,200만 명 가까이가 이주자다. 이들 이주노동자는 보통 중노동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린다. <중국 노동회보>에 따르면, 2008년에 이주자들이 전체 산업 노동자의 58%, 서비스 부문에서 52%를 차지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이주노동자 비율은 각각 68%와 80%에 달했다.³⁰²⁾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전체 비농업 노동자들 중 약 2/3가 농촌에서 도시로 온 이주노동자다. 건설 부문 90%, 광업 및 채굴 부문 80%, 섬유 부문 60%, 도시 서비스 업종 50% 등 여러 주요 부문에서 이들 이주노동자가 최대 노동인력 집단이 되었다.

요컨대, 중국 제국주의는 특별히 이주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광대한 값싼 노동인력 자원을 초과착취 하는 위치에 이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내부 이주민을 초과착취 하는 제도는 중국 자본주의의 굴기를 가져온 급속한 자본축적 과정의 원천 중 하나다. 따라서 PO/CRFI 동지들이 중국에는 이주·이민이 없다며 이는 중국이 제국주의 아님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결론내린 것은 완전히 틀렸다.

302) China Labour Bulletin: Migrant workers in China, 6 June, 2008, <http://www.clb.org.hk/en/node/100259>

PO/CRFI의 분석은 중국·러시아에서의 자본주의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고 있고, 그로 인해 신흥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그 성격을 이해하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PO/CRFI가 현 시기 강대국 패권쟁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서도 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³⁰³⁾

303) 처음부터 CRFI의 일부였던 한 조직, 이탈리아의 Partito Comunista dei Lavoratori (PCL; 공산주의노동자당)이 중국·러시아 문제에 관해 매우 다른 결론에 도달한 사실에 주목하라. 2018년에 PO/CRFI로부터 관료적 방식으로 제명된, PCL의 역사적인 지도자 중 한 사람인 Marco Ferrando는 한 때의 동지들의 입장을 비판하는 글을 최근 발표했다. 이 글에서 PCL은 러·중을 제국주의 열강으로 성격규정 하고 있고, RCIT가 지난 7년 동안 제시해 온 것과 매우 비슷한 논거로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을 보라, Marco Ferrando: Un confronto sulla questione cinese, 9 December 2018, <http://www.pclavoratori.it/files/index.php?obj=NEWS&oid=6082>)

10장. 수정주의적 축소은폐: 중국 · 러시아는 강대국이 아니라 반식민지다? (LIT/UIT/FT)

트로츠키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많은 조직들이 러시아 · 중국은 여전히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반동적 잡꼬대를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중 · 리 지배계급의 그 같은 스탈린주의적 축소은폐를 올바르게 거부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중 · 리를 제국주의 열강으로 보는 우리의 성격규정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는 강대국 패권쟁투에서 이들 국가에 지지를 보내는 것에 객관적으로 문을 열어놓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중도주의적인 나후엘 모레노 전통에서 있는 두 개의, 보다 큰 트로츠키 파 조직이 있다. 주로 라틴아메리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노동자 동맹-제4인터내셔널”(LIT-CI)과 “국제노동자연합-제4인터내셔널”(UIT-CI)이 그들이다.³⁰⁴⁾

우리가 최근 발간한, 시리아 혁명과 강대국 패권쟁투에 관한 소책자에서 밝혔듯이, 올바르게도 그들은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군사 개입에도 반대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성명에서 그들은 서방 열강만을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를 자제

304) 모레노주의에 대한 RCIT의 성격규정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Summary of our main differences with the UIT-CI, October 201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ritique-of-uit-ci/>; LRCI: Barbaric Trotskyism: a History of Morenoism (1992), Part 1 and 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morenoism-part-1/> and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morenoism-part-2/>

했다.³⁰⁵⁾

이것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이론적 분석의 논리적 결과였다. LIT와 UIT의 양 지도부 모두가 이론적 논문들 속에서 자신들은 중·러를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인도 같은 대형 반식민지 나라로 간주한다고 반복해서 밝힌 바 있다.

LIT: 중국을 브라질이나 인도나 멕시코와 비교할 수 있는가?

305)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2014년 이래 수천 명의 민간인을 죽인 연합군 지도자 [트럼프, 편집자]는 그의 시리아 측 카운터파트의 ‘야만성’ 때문에 갑자기 겁이 났다. “일어난 일은 야만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중요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보다 더 규모가 큰 군사 공격의 구체적인 위협 – 일부 분석가들이 “임박해 있는” 것으로 규정한 – 이 존재한다. 우리 IWL-FI [LIT-CI]는 시리아에 대한 어떠한 제국주의 군사 개입도 반대한다. 그것은 억압과 아사드 정권의 잔학 행위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시리아의 경우에 [개입은] 언제나 독재자의 격퇴가 아니라 혁명적 과정의 격퇴를 추구할 것이다. 미국은 향후 정치 “이행”에서 시리아를 지배하기 위한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하는 정책을 위해 미사일을 사용한다. 트럼프는 시리아 인민의 생명이나 열망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 시리아 인민은 아사드 독재에 맞서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제국주의 군사개입의 승리는, 심지어 아사드 정권이 타도된다는 가설 하에서조차도 인민에게는 새로운 독재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독재, 인류 역사의 더 큰 대량학살일 것이다.” (Daniel Sugasti: We repudiate Trump’s threats on more attacks to Syria! LIT-CI, April 10, 2018 <https://litci.org/en/we-repudiate-trumps-threats-on-more-attacks-to-syria/>) “초반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와 홀스 인근 지역에 미사일로 범죄적 공격을 감행했다... 사회주의 세력으로서 우리 IWU-FI [UIT-CI]는 반동 푸틴과 이란 아야톨라 정권으로부터 군사적 지지를 받고 있는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와 시리아 인민에 대한 그의 대량학살에 수년 간 반대해왔다... IWU-FI는 미국이 나토와 그 동맹국들, 석유 아랍 왕정들, 이스라엘 시온주의 국가와 함께 영구적인 제국주의 개입을 획책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고해왔다... 이제 우리는 트럼프가 명령한 폭격을 규탄하는 바다. 우리는 제국주의가 “정의”를 가장할 권리가 이런 식으로 제공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양키 제국주의는 세계 도처에 침략과 공격을 일삼는 사상 최대의 살인범이다... 그들의 행동은 ... 실제로는 러시아, 이란과 함께 아사드를 지지하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연막이다. 그들은 2011년 3월 이래 수십만 명의 시리아 인민이 거리를 뛰쳐나오면서 권력을 잃을 위험에 처한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를 지원하기 위해, “테러 격퇴” 명분으로 러시아와 군사 작전에 합의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인민과 정당, 노조, 학생, 좌파 조직들에게 제국주의 폭격에 대한 반대를 표할 것을 요구한다. 또 우리는 아사드 정권과 푸틴에 반대하고 시리아 인민과의 연대를 표할 것을 요구한다.” (IWU-FI: We repudiate the imperialist shelling on Syria! No to Trump’s killer missiles! April 14, 2018, <http://uit-ci.org/index.php/news-a-documents/1985-we-repudiate-the-imperialist-shelling-on-syria-no-to-trumps-killer-missiles>)

먼저 LIT 동지들의 논거를 살펴보자.

“이 예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를 초과착취 하는 데 중국 경제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세계 제국주의의 반식민지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폭발할 거대한 모순을 야기하는 굴복 조건이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신화가 떠올랐다. 중국이 새로운 글로벌 초강대국이 되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멕시코, 남아공 등등의 새로운 지역 강국들이 그 뒤를 잇는다는 신화 말이다. 이 나라들이 제국주의와의 특권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관계는 그 나라들이 초국적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나라들은 재식민지화 과정의 일부다.”³⁰⁶⁾

그들은 중국을 미 제국주의의 일종의 자회사(子會社)로 보고 있다. 다음 인용문이 이를 드러내준다.

“따라서 전혀 없는 역사적 조합이 일어난다. 혁명을 이끌었고 관료화된 노동자국가를 세운 스탈린주의 기구가 자본주의를 부활시켰고, 그렇게 한 후에도 계속해서 권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동자국가의 경제적·사회적 기초를 방어하지 않는다. 그들은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에 봉사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미국 경제의 '탠덤 [2인용 자전거] 메커니즘'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은 동일한, 그리고 대등한 '기관차'가 아니다. 하나는 본사로서 지배했고 (미국), 다른 하나는 자회사로서 지배 받았다

306) Nazareno Godeiro: The validity of Lenin's imperialism theory, LIT-CI, International Courier, 09 October 2014, http://www.litci.org/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568:the-validity-of-lenins-imperialism-theory&catid=729:international-courier&Itemid=39. 보다 최근의 또 다른 기사에서, LIT 지도자들은 중국의 지배계급이 (서방) 제국주의 열강의 시종이라는 그들의 도식을 반복한다. “따라서, 전혀 없는 역사적 조합이 일어난다. 혁명을 주도하고 관료화된 노동자 국가를 건설한 스탈린주의 기구가 자본주의를 복구시키고, 그런 다음에도 권력에 남아 있는 상황 말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동자국가의 경제적·사회적 기초를 방어하지 않고,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Alejandro Iturbe: Capitalist Restoration in China, September 7, 2017 <https://litci.org/en/capitalist-restoration-in-china-special/>)

(중국).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것은 우세한 역량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자본이 지배하는 축적 모델 속의 종속국으로서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 모델의 글로벌 메커니즘은 브라질 같은 강력한 반식민지 나라들과 비슷하다... 그것이 자본주의인 것은 우리가 분석한 축적 모델의 역동성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종속 자본주의인데 왜냐하면 제국주의 자본이 과정의 양쪽 끝 (투자와 수출)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⁰⁷⁾

“중국은 제국주의 국가인가?

우리가 묘사한 현실은 많은 분석가들로 하여금 중국을 ‘21세기 신흥 강국’으로 보게 한다. 많은 맑스주의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 중국은 새로운 제국주의 또는 아(亞)제국주의 (제국주의지만, 더 강한 제국주의에 종속적인)다. 이 아제국주의 성격규정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근거한다. 레닌이 (제국주의에 관한 그의 유명한 책에서) 제국주의의 주 특징을 금융자본의 수출이라고 규정한 점을 전제할 때, 그렇게 하는 기업들을 가진 (그리고 그에 따라 다른 나라들로부터 잉여가치를 빼내는) 나라들은 제국주의적 성격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중국에만이 아니라 브라질 같은 나라들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이러한 성격규정이 오류라고 믿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단 하나의 요소 (자본수출 기업의 존재)에만 초점을 맞춰 나라의 성격 전체 및 ‘국제 위계서열’ 내 그 위치를 기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더 깊이 관찰해보면, 자본주의 발전의 현 단계에서는 그 누구도 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할 수 없는 나라들에서 그와 같은 기업들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문단에서 LIT 동지들은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기업들의 예를 언급한다. - 인용자] 이들 기업은 다국적 기업으로 행동한다 (제국주의 기업들과 비슷하게). 이들 기업은 그들의 해외투자로부터 잉여가치를 뽑아낸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천연자원을 약탈하고 그들의 이윤

307) Alejandro Iturbe (LIT-CI): Certainties and questions raised by China's economic crisis - Part 1, March 30, 2016 <https://litci.org/en/certainties-and-questions-raised-by-chinas-economic-crisis-part-1/>

대부분을 그들의 본사로 보낸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기원 국가의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해외에서 획득한 이 잉여가치가 그 나라 경제의 주요 축인지, 아니면 반대로 단지 그것이 더 일반적인 과정에서의 모순적(그리고 특권적) 요소를 대표하는 것일 뿐인지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한 나라가 잉여가치 대부분을 주요국에 반환하는(제국주의 기업들의 이윤 분국송금, 외채 상환, 천연자원 약탈 등등)을 통해 과정 말이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분명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의, 그리고 또한 브라질의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는 더 복잡한데, 왜냐하면 국가와 부르주아지가 자본의 상당량을 가지고서 대규모 해외투자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그들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모델은 해외에서 얻은 잉여가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반대로 그들은 국내에서 얻은 잉여가치 대부분을 제국주의 금융자본에 반환한다. 중국의 투자를 분석해보면, 투자의 대부분이 그들의 외환 보유고를 지원하거나, 그들이 수입하는 상품과 식량의 공급 및 수송을 보장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차적으로는 자국 내 철강, 건설, 기계제품의 과잉생산을 덜기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된다. 그들은 전체 축적 모델에 종속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 봉사하는 자회사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궁극적으로 제국주의의 잉여가치를 안전하게 확보해주는 역할을 한다.”³⁰⁸⁾

LIT는 미·중 간 세계무역전쟁이 시작된 지금까지도 이 입장을 유지한다.

“우리는 미·중 경제의 ‘탠덤 모드 [돌이서 한 마음 모드]’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양자의 배역은 동일하거나 동등하지 않다. 하나는 주역(主役), 지배하는 역이고(미국), 다른 하나는 보조역(補助役), 지배받는 역이다(중

308) Alejandro Iturbe (LIT-CI): Certainties and questions raised by China's economic crisis - Part 2, March 22, 2016 <https://litci.org/en/certainties-and-questions-raised-by-chinas-economic-crisis-part-2/>

국).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것은 지배적 열강으로서 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자본이 통제하는 축적 모델에 종속된 나라로서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글로벌 경제 모델은 브라질 같은 가장 강력한 반식민지 나라들의 모델과 비슷하다.”³⁰⁹⁾

요컨대, LIT는 중국이 미국 등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초과착취 당하는 반식민지 나라라고 상상한다.

UIT: 중국은 제국주의에 의해 초과착취 당하고 있다?

다른 주요 모레노파 경향인 UIT-CI 동지들도 LIT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 아래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UIT도 중국과 러시아 둘 다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라 반식민지로 성격규정 한다.

“중국을 자본주의 나라로 규정하는 것은 그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이 자본주의가 부활했는데도 여전히 중국공산당, 스탈린주의 당의 통치를 받는 나라라는 근거에서다. 중국은 제국주의 나라가 아닌데, 왜냐하면 중국은 제국주의 세계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반(半)식민지화 된 나라로서 이들 제국주의 나라들로의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제국주의와 관련하여 대형 반식민지다. 예를 들어 브라질, 인도, 러시아 같은 —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 반식

309) Alejandro Ilurbe: Trump's trade sanctions against China, March 29, 2018 <https://iitci.org/en/trumps-trade-sanctions-against-china/>

민지 말이다.”³¹⁰⁾

자신들의 동지 LIT처럼, UIT도 지금까지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한다. 중국이 실로 지구상의 최대 제국주의 열강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현 세계무역전쟁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에도 말이다!

“중국과 중국의 세계시장 편입

... 40년 후, 중국 경제는 세계시장의 단지 1,8%를 점하다가 18,2%로 증가했다. 그러나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과 엮이고 스스로 제국주의 계획에 종속되면서 역사적인 성과물을 잃고 일당 자본가 독재정권 하에서의 격심한 노동강도 및 비참한 저임금과 함께 잔혹한 사회적 불평등, 대규모 부패와 초과착취로 되돌아가는 대가를 치렀다.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상 최대의 파업인 동관에서의 파업과 같은 최근의 잇단 노동자 파업이 중국 독재정권의 착취 모델과 그 허구적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문제를 제기했다.”³¹¹⁾

우리가 위에서 (그리고 많은 다른 연구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중국과 러시아를 미 제국주의의 처분 아래 있는 종속되고 초과착취 당하는 나라로 보는 모레노 파(派) 식 평가는 현실의 회화다. 현재 중국은 세계 패권국 미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전자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그 밖의 모든 제국주의 열강 (일본이나 서유럽 국가들 같은)을 추월했다. 외국 자본이 과거에 주요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동안 그 비중은 크게 축소되었다. 중국의 고정자본 구성에서 외국인직접투자 분은 1994년에 약 17%였던 것이 2014년에는 단지

310) Global Policy Theses, discussed and voted at the Fourth Congress of the IWU-FI, Chapter “VI. China: Towards a new hegemonic power?”, <http://uit-ci.org/index.php/mundo/2018-04-05-19-24-25/1912-vi-china-towards-a-new-hegemonic-power>

311) Mariana Morena: Sanciones cruzadas entre Estados Unidos y China: ¿Hacia una “guerra comercial global”? <http://www.uit-ci.org/index.php/noticias-y-documentos/crisis-capitalista-mundial/2017-2018-07-13-01-07-42>

2.5% 남짓으로 줄었다.³¹²⁾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는 중국보다 약하지만, 중동에서 서방의 우위에 도전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보였다. 따라서 우리는 LIT와 UIT의 지도부 동지들에게 묻는다. 동지들은 이들 미 제국주의의 “반식민지”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푸틴이 시리아를 자신의 통제 아래 가져오는데 성공하고, 미국을 희생시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동지들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중국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최대 외국인 투자자 중의 하나가 되고 있고, 그 정치적 무게가 미국 정부를 강하게 자극할 정도로 중국이 끊임없이 굴기하고 있는 것을 동지들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안타깝게도, 지난 일십 년 동안 세계 자본주의에서의 이 모든 근본 변화들이 LIT와 UIT 지도자들 눈에 전혀 띄지 않고 넘어가버린 것 같다! 트로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진정한 혁명적 조직의 기준은 무엇보다도 매 새로운 사태 전환마다 정치방침을 세우고 검증하는 데 그 조직이 얼마나 진지함을 보이느냐에 있다.”³¹³⁾ LIT와 UIT의 동지들이 이 충고를 참작한다면 매우 도움이 될 텐데!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반식민지를 러시아나 중국과 동일시하는 것은 완전한 부조리다. 우리가 다른 글들에서 보여주었듯이, 러시아의 경제는 내국인 독점체들이 지배하고 있다.³¹⁴⁾ 석유, 가스, 은행, 금속 같은 핵심 부문들은 보통 국

312) Arthur R. Kroeber: China's Economy, What Everyone Needs To Know,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6, p. 53

313) Fourth International: Imperialist War and the Proletarian World Revolution; Manifesto adopted by the Emergency Conference of the Fourth International in May 1940;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The Formative Years (1933-40), New York 1973, p. 343

314)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Special Issue of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March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Michael Prö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ugust

가와 긴밀히 연결된 몇몇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2004년부터 계산한 한 통계에 따르면, 22대 러시아 독점체들이 노동인력의 42%를 고용하며 매출의 39%를 차지하는 데 비해 자본가 국가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합쳐서) 노동인력의 21%를 고용하고 매출의 36%를 점한다. 반면 외국인 기업은 러시아 노동자의 단지 3%만을 고용하고 러시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매출 가운데 단지 8%만을 점하고 있을 뿐이다.³¹⁵⁾

중국은, 우리가 상세히 보여주었듯이 자국 소속의 다국적 기업 수에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다. 한편 중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의 지분은 단지 5% 남짓이고, 중국 채권시장에서는 2% 쯤을 점하고 있을 뿐이다.³¹⁶⁾ 중국 경제에 대한 주요 연구의 저자인 아르투어 크뢰버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리고 있다. “[국유기업이] GDP의 약 35%를..., 내국인 사유기업이 GDP의 약 60%를 점하며, 외국인투자자가 지배하는 기업들이 나머지 5% 정도를 차지한다.”³¹⁷⁾ 요컨대 중국은 외국인 자본에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다.

러시아·중국과는 대조적으로 브라질은 항상 내국인 독점체가 아니라 외국인 독점체에 지배되어 왔다. 우리는 <<남반구에 대한 대 강탈>>에서 이 점을 보다 상세히 기술한 바 있다. 1960년대의 브라질에 대한 한 연구는 50대 대기업 중 31개 기업이 제국주의 자본에 장악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276개 대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315) Sergei Guriev and Andrei Rachinsky: Oligarchs: the past or the future of Russian capitalism? July 2004, p. 11

316) Wang Yanfei: China should reduce restrictions on foreign capital, senior economists say, China Daily, 2017-09-25, http://www.chinadaily.com.cn/business/2017-09/25/content_32448925.htm

317) Arthur R. Kroeber: China's Economy, What Everyone Needs To Know,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6, p. 101

기업 중 반 이상이 외국인 오너가 지배하고 있다.³¹⁸⁾

이 연구들이 나왔던 시점 이래 현재까지 그림은 바뀌지 않았다. 오늘 제국주의 기업들이 브라질 대외무역의 절반 가까이를, 그리고 브라질 500대 사기업의 반 이상을 점하고 있다. “높은 FDI 유입은 브라질 경제에서 외국인 자본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브라질의 대외무역에서도 외국인 기업들의 점유율이 늘어나 수출의 41.3%, 수입의 49.3%에 달했다. 외국인 자본의 비중은 대기업에서는 훨씬 더 강하다. 500대 브라질 사기업 중 외국인 자본이 지배하는 기업이 1989년에 매출의 41.2%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1997년에 49.9%로 증가했고, 2003년에는 51.7%에 달했다.”³¹⁹⁾

FT: 본격적인 전쟁 없이 러시아·중국이 제국주의가 될 수는 없다?

아르헨티나의 사회주의노동자당 (PTS)을 주축으로 하는 트로츠키주의 프락션 - 제4인터내셔널 (FT)도 러시아·중국을 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하길 거부한다. 최근 시리아 사태에 대해 다른 중도주의자들의 성명처럼 FT의 성명도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열강의 행보에 대해서만 사용할 뿐, 푸틴의 침략 전쟁에 대해 언급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³²⁰⁾ FT의 보다 체계

318) 다음을 보라. Celso Furtado: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Historical Background and Contemporary Problems, New York 1984, pp. 204-206

319) Celio Hiratuka: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Brazil: Recent Trends and Impacts on Economic Development, April 2008, pp. 5-6

320) Stop Bombing Syria! Nothing good can come of this bombing or any other imperialist military intervention, April 14, 2018 <http://www.leftvoice.org/Stop-Bombing-Syria>

적인 문서들을 보면, 이것 역시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프랑스 FT의 지도자 필립 알코이의 성명을 보면 이 점 분명해진다. 이 동지는 2018년 4월에 다음과 같이 썼다.

“2007-2008년의 국제 경제위기와 함께 이러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미국 주도의 이라크·아프간 침공 실패는 북미 제국주의 세계패권의 상대적 인, 그러나 실제적인 쇠퇴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미국에 도전할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은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서방 열강의 이러한 새로운 대 러시아 공세를 이해해야 한다. 러시아는 미국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실제로 거리가 멀다). 우리는 ‘신 냉전’ 속에 있지 않다. 결국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도 아니다. 그것은 미국 측의 수(手)로서 제국주의 초강대국으로서의 자신의 패권에 어느 국제 열강이나 국제 동맹이든 도전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다...

러시아는 실제로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라, 일부 국제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강국이다. 러시아의 군사력과 국제기구들에서의 그 지위 (주로 소련 시절로부터 상속 받은)가 ‘세계 초강대국의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래 러시아 경제는 가스·석유 (그 채굴 기술은 대부분 제국주의 나라들로부터 수입된 것이다)의 생산과 수출에 거의 완전히 의존하는 처지가 되어왔다. 러시아의 주 세력권은 구 소련권이다. 오늘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수행하는 중심적 역할은 대부분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받은 엄청난 타격의 결과물이다. 더욱이 서방의 공세로 러시아는 ‘왕따 국가’(pariah state)가 되고 있다.”³²¹⁾

이 성명은 완전히 넌센스로, FT가 현 역사 시기의 근본 동역학을 이해하는

321) Philippe Alcoy (FT in France), in: Rossen Djagalov: We Asked: Geopolitics and the Left (Part I: Russia & the West), LeftEast April 19 2018, <http://www.criticatoc.ro/lefeast/we-asked-russia-and-the-west/>

데 실패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가속화하고 있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패권쟁투와, 특히 미국의 패권에 대한 러시아·중국의 도전은 실제로 세계정세의 핵심 특징이지만, FT는 이러한 현실을 간단히 부정한다. “오늘날 미국에 도전할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 대한 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지들에게 묻는다. 현재 다가오고 있는 미·중 간 세계무역전쟁의 존재를 동지들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것이 도전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무엇이 도전인가? 러시아가 시리아 — 중동에서 정치적 역동성을 가진 핵심 지역 — 협상에서 미국의 허를 찌르고 사실상 압도한 사실을 FT 동지들은 부정하고자 하는가? (시리아에서의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FT의 설명, 즉 그것이 “대부분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받은 엄청난 타격의 결과물이다”라는 설명은 전혀 논리를 결여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약화되었다면, 왜 그 결과물로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이란과 터키 같은 중동의 다른 주요 강국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도 러시아는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FT는 중국이 일정한 “제국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독립적인 자본가계급”은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형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³²²⁾ 그리하여 FT는 중국의 경우에 “지배계

322) FT 동지들은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주의자 중국 학자 Au Loong Yu와의 인터뷰도 발표했다. FT가 아무 논평 없이 인터뷰를 발표했기 때문에 FT가 Au Loong Yu의 입장을 자신들의 중국 분석과 큰 틀에서 일치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만일주의자들도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 강대국으로서의 성격규정을 확인해주는 듯한 제목을 단 똑같은 인터뷰를 실었다는 점을 우리는 밝혀둔다. (다음을 보라. <http://internationalviewpoint.org/spip.php?article5758>). 어쨌든, 여기에 FT 동지들이 발표한 인터뷰의 관련 부분을 발췌해서 제시한다.

“문: 당신의 책 《중국의 굴기: 강점과 약점》에서 당신은 2007년까지의 중국 초국적기업의 인상적인 성장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10년 동안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에 대한 중국의 해외투자 보폭은 더욱 커졌다. 중국을 새로운 제국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인 특징이 있는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들어맞는 것인가?

답: 중국의 관료적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세계적인 팽창주의 논리를 수반하는데, 처음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급”이 아니라 “지배관료”에 대해 이야기한다. 최근에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그들의 핵심 정치문서에서 인용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면, FT가 러시아·중국을 미국에 도전하기에는 너무도 취약하고 낙후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T는 중국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즉 미 제국주의와의 본격적인, 승리한 전쟁이 사전에 없이는 제국주의 열강이 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의 제국주의적 특징은 심화되어 왔다... 간략히 말해서, 중국은 오늘날 미국의 전 세계적 우위에 도전할 수 없다. 미국은 다음 몇 년에도 가장 중요한 제국주의 열강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중국의 1인당

그랬다가 점차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독점의 정도 및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융합 — 관료적 자본주의를 통해 가능해진 — 의 정도, 그리고 또한 외부투자의 정도를 측정한다면, 확실히 중국은 이미 현대 제국주의의 강력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즉 군사력과 잉여 자본을 등에 업고 보다 약한 나라를 지배하려 하는, 그러나 반드시 이전처럼 직접적인 정치적 지배를 추구하지는 않는, 그러한 종류의 제국주의 말이다. 이는 덩샤오핑의 도광양희(韬光養晦; “힘을 과시하지 않고 저자세를 유지한다”)로부터 미·일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기주장적인 시진핑의 분발유위(奮發有為; “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한다”)로 대외정책이 변화한 것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중국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실제 단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진 복잡하고 미친 듯이 급변하는 나라에 이류표를 붙이고 그런 다음 다른 모든 제국주의 나라들과 동렬에 올려놓는 것에 단지 만족하고 만다면, 그것은 큰 오류가 될 수 있다.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여전히 당 국가에 무거운 짐으로 내리누르고 있는 식민지 유산이다.

우리가 중국을 제국주의라고 한다면, 중국은 이전에 반식민지로서 한 세기 내내 여러 차례 다수의 강대국들에 의해 거듭 침략 당해온 첫 번째 제국주의 나라가 된다. 이러한 식민지 유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중국인들은 국방에 특히 민감해한다. 이 정당한 우려와 당의 공격적인 팽창주의는 구별해야 한다.

식민지 유산의 또 다른 측면은 대만과 홍콩 문제다. 미국은 대만을 보호령으로 보고 있다. 나는 중국공산당이 부정하는 대만의 자결권을 인정하므로 대만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다른 제국주의 나라들은 식민지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국주의 과거로부터 이득을 보고 있다. 중국의 굴기는 여전히 중국의 이익에 반작용하는 식민지 유산의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은 미중 경쟁에 대처하는 서로 다른 전술에 대한 우리의 선택을 규정한다. 중국의 팽창은 점점 더 제국주의적이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음의 사실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은 팽창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신이 의존적 — 서방 시장과 서방 기술 둘 다에 의존하는 — 축적에 의해 견제되고 있는, 그러한 뿌리깊이 모순적인 지위에 있다는 것. 따라서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저부가가치 지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 말이다. 확실히, 중국은 세계 가치 사슬의 관리를 놓고 제국주의 나라들과 공병 관계지만, 그들에 비할 때 여전히 마이너 플레이어다. 우리가 대만 문제에 대처하기에 충분한 현명한 전술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비대칭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Strength and Contradictions of the Chinese Economy: An Interview With Au Loong Yu, September 13, 2018, <http://www.leftvoice.org/Strength-and-Contradictions-of-the-Chinese-Economy-An-Interview-With-Au-Loong-Yu>)

GDP는 너무도 낮고..., 군사 분야에서의 차이도 여전히 엄청나며, 테크놀로지 부문에서도 그러하다. 더욱이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자본주의 부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독립적인 자본가계급이 공고히 형성될 수 없었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이종의 도전이 존재한다. 중국은 제국주의 세계경제가 중국에 부과하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며, 동시에 미국은 중국을 약화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중국의 제국주의적 발전을 향한 ‘평화적인 길’ 같은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³²³⁾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1인당 GDP를 볼 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열강과 비교해서 “낙후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책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제국주의 국가 간의 그 같은 불균형은 흔한 경우이며, 그러한 “낙후한”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본질과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는 FTI 동지들에게 강대국들 간의 그 같은 불균등성은 제국주의 시대에 항상 존재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바다.

미 제국주의가 원칙적으로 자신의 라이벌들(러·중을 포함하여)보다 여전히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레닌이 즐겨 말했듯이, 진리는 항상 구체적이다. 미국이 최대의 경제·군사 강국인 것은 맞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이전 절대 패권국으로서 안고 있는 글로벌 책임으로 그 하중이 초과된 상태다. 러·중과는 반대로 미국 지배계급은 심하게 분열되어 있다.

비유하자면, 미국은 상처 입은 거대 짐승과 같다. 러·중은 자신의 라이벌과는 반대로 탄탄하고 빠른 작은 호랑이와 같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미국의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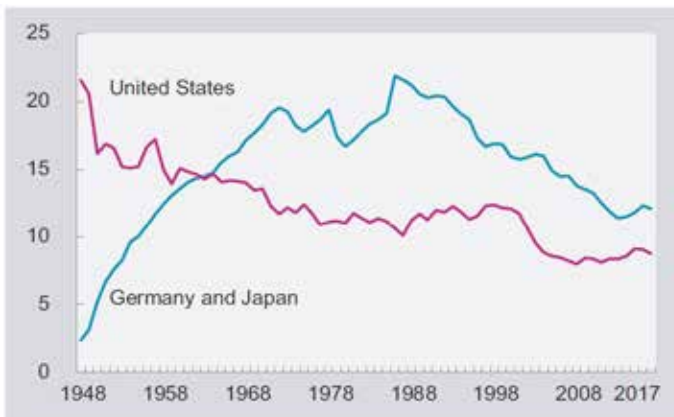
323) 이 문서의 영어 번역본을 발견할 수 없어서 이 인용문을 우리 스스로 스페인어 본과 독일어 본으로부터 영역했다. (XI Conferencia De La FT: Tensiones económicas e inestabilidad política. Documento sobre situación internacional discutido en la XI Conferencia de la FT, 22,3,2018, 2018, <http://www.laizquierdadiario.com/Tensiones-economicas-e-inestabilidad-politica>; FT: Die Welt im Jahr 2018 (Teil 1): Wirtschaftliche Spannungen und politische Instabilität, <https://www.klassegegenklasse.org/die-welt-im-jahr-2018-teil-1-wirtschaftliche-spannungen-und-politische-instabilitaet/>)

위는 보다 상대적이고 제한적으로 된다.

중국 (또는 러시아)이 “평화적인 방식으로는” 제국주의 열강이 될 수 없다는 테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또 하나의 라틴아메리카 그룹이 이미 RCIT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한 바 있다. 우리가 이 동지들에게 이미 답변했듯이, 그 같은 입장은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본다. 물론, 장기적으로 제국주의 열강 간의 평화적 공존은 존재한 적이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지적해 왔듯이 맑스주의 이론의 대들보다.

그러나 한 국가가 제국주의 열강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전쟁이 있어야 한다는 FT 동지들의 주장은 도대체 어떤 역사적 · 논리적 근거에서 나온 것인가? 레닌이나 트로츠키가 어디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가? 미국과 일본, EU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세계전쟁 없이 쇠퇴해 왔다. (예를 들어 그림 30을 보라. 그것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미국, 독일, 일본 등 서방 열강의 쇠퇴를 보여준다.) 같은 기간, 새로운 강대국이 출현할 수 있고 실제로 출현했다.

그림 30. 세계 상품수출 점유율 1948 - 2017년 (%)³²⁴⁾



324) UNCTAD: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18, New York and Geneva, 2018, p. 37

나아가 우리는 레닌 자신이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의 출현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지적했음을 동지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식민지와 대양 너머의 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최대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후자의 나라들 가운데서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이 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³²⁵⁾

FT가 미·중 간 패권경쟁을 두 제국주의 강대국 간 패권경쟁으로 이해하는 데 실패한 것은 최근에 발표된 또 하나의 논문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21세기 경제 민족주의”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무역 문제에서 두 강대국 간의 긴장 고조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장문의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제국주의” 또는 “제국주의적”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³²⁶⁾

우리는 FT의 세계무역전쟁 분석에서 동일한 실패를 본다. FT는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서 무역분쟁을 제국주의 강대국 간 분쟁으로 이해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 결과로 FT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제국주의”로 부르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성격규정을 삼가고 있다.³²⁷⁾

현실의 발전이 중도주의의 공허한, 경직된 도식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FT가 러·중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부정하지만, 현실은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신흥 강대국 중·러의 도전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중도주의자들은, 레닌의 표현을 빌리자면 낡은 공식의 포로들이다.³²⁸⁾

325) V. 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1916) ; in: LCW Vol. 22, p. 274. [레닌 <<제국주의론>>, 레닌전집 63권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이정인 옮김, 아고라, 159쪽]

326) Juan Cruz Ferre: 21st Century Economic Nationalism, March 26, 2018 <http://www.leftvoice.org/21st-Century-Economic-Nationalism>

327) Simon Zamora Martin: Neue Eskalationsstufe im Handelskrieg der USA gegen China, 19. Sep 2018, <https://www.klassegegenklasse.org/neue-eskalationsstufe-im-handelskrieg-der-usa-gegen-china/>

328) 사회-역사적 발전을 인정하길 거부하는 것으로 귀착되는 그러한 불임적 교조주의의 극단적인 예가 있다. 이른바 “Fracción Leninista Trotskista Internacional - Colectivo por la Refundación de la IV

II장. 수정주의적 축소은폐: “제국주의” 범주가 아무 의미도 가지지 않는 경우 (CWI/IMT/IST)

이제 노동자 인터내셔널 위원회(CWI)로 넘어가보자. (영국의 사회주의당이 CWI의 핵심 지부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CWI는 중국에서 자본주의가 마침내 부활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중국은 기형화된 노동자국가인지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이 문제가 지금은 해결된 것 같이 보이지만, CWI는 러시아와 중국이 제국주의인지 아닌지 문제에 관한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편으로, 각국 지부 별로 이들 두 강대국을 제국주의라고 지칭하는 글들을 이따금씩 발표하기도 한다. CWI 러시아 지부는 ‘자’국 국가를 “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한 적이 몇 번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홍콩의 CWI 동지들도 중국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담은 논설을 최

Internacional”(FLTI)가 그렇다. 이 조직은 아르헨티나에 본부를 둔 모레노주의 전통에 있는 작은 국제 그룹이다. 이 동지들은 국제 계급투쟁의 중요한 현안 (시리아 혁명 같은)에서 올바른 편에 서지만, 세계정세의 주요 특징을 이해하는 데서는 참담하게 실패한다. 그들은 중국·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을 반식민지라며 이 년센스를 극단적인 결론으로까지 몰고 간다. FLTI는 십여 년 이래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가장 중대한 자본주의 도전자로서 중·러의 부상을 인정하길 거부하고, 현실을 재구성하여 푸틴과 시진핑을 “미 제국주의가 고통한 저격수”라고 성격규정 한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Down with the Vienna Summit the Peace of the Cemetery prepared by Obama and his Hitman Putin!” (FLTI: Vienna Summit with US, Putin, Iranian Ayatollahs, the genocidal Al Assad, Zionism, Qatar, Turkey taking in its hand bourgeois generals of FSA, the chiefs of ISIS of Saudi Arabia, the Kurdish bourgeoisie... Under the command of Obama, all the executioners of the revolutions in the Maghreb and the Middle East are meeting, 4,11,2015, https://www.ftli-ci.org/ingles/medio_oriente/noviembre2015/proclama_viena03nov2015.html) FLTI의 중국 분석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음의 우리 책 10장을 보라.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FLTI에 대한 우리의 비판 개요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Summary of Our Main Differences with the FLTI, October 201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ritique-of-ftli/>

근에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중국이 경제적 세력권 확보를 위해 더 나이 많은 라이벌들 — 주로 미국 — 과 겨루는 새로운 글로벌 제국주의 강국으로 굴기한 것의 표현이다.”³²⁹⁾

그러나 CWI는 이러한 이론적 이슈에 관해서는 연방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한다. 그리하여 러시아나 중국의 CWI 동지들은 그들이 맘에 들면 이러한 성격규정을 자유롭게 발표하지만, 이것이 전체 CWI에는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개별 동지들 또는 지부들이 러시아나 중국을 이와 같이 제국주의 열강으로 성격규정 하더라도 그것이 CWI의 국제적인 이론적 · 강령적 문서들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그들의 세계정치 분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WI: 러시아나 중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에 관해 “잊어버리기” ?

이 점은 지난 몇 년간의 세계정세에 관한 CWI의 가장 포괄적인 분석 문서들을 보면 명백해진다. 그 문서들은 CWI 세계대회 또는 최고지도부 회의 (국제집행위원회나 국제서기국)에서 심의, 채택된 <세계 정세전망 (World Perspective)> 문서들이다.³³⁰⁾ CWI가 2011년 이래 발표한 5개의 <세계 정세전망

329) Vincent Kolo: 'Belt and Road': Imper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Gigantic Belt and Road infrastructure plan – spearhead for Chinese dictatorship's economic and geopolitical strategy, February 19, 2018 <http://chinaworker.info/en/2018/02/19/16985/>. “미 · 중, 양대 제국주의 열강”이라고 명확히 올바르게 이차기한 또 다른 CWI 홍콩 동지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Pasha: China: Deepening crisis and mass resistance, Socialist Action (CWI in Hong Kong), 14 August 2018 <http://www.socialistworld.net/index.php/international/asia/china/9905-china-deepening-crisis-and-mass-resistance>)

330) 다음을 보라. CWI: World Perspectives, 08 December 2017, CWI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 문서들 — 합치면 6만8000 자에 가까운 길이를 가진 — 에서 중국은 단 한 번도 “제국주의”로 규정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다섯 문서 중 하나에서만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이익”에 관해 두 번 이야기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한편 미국 및 유럽 제국주의에 관해서는 이 문서들에서 아주 방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를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들의 계급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이러한 실패는 세계정세의 화약고에 대한 CWI의 분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2018년 4월 러시아와 미국이 시리아에서 거의 충돌 직전까지 갔을 때 CWI의 관련 논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이름을 들어 반복해서 공격하면서도 러시아 역시 제국주의 열강이라는 점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³³¹⁾

이와 같이 세계정세를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의 계급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근본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배경에는 “제국주의적 이익”이라는 범주에 대한 피상적이고 혼란스런 사용법도 한 몫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CWI는 이 따금씩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이익”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은 맑스

<http://www.socialistworld.net/index.php/theory-analysis/9544-cwi-world-perspectives>; CWI: CWI World Congress 2016 World Perspectives, <http://www.socialistworld.net/index.php/other-topics/activities/7517-11th-CWI-World-Congress-World-Perspectives>; CWI: World Perspectives: A turbulent period in history, International Secretariat of the CWI, 27 November 2014 <http://www.socialistworld.net/index.php/other-topics/activities/6995-World-Perspectives-A-turbulent-period-in-history>; CWI: World perspectives, Thesis for the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IEC) of the CWI 2013, 22/11/2013, <http://www.socialistworld.net/doc/6565>; CWI: World Perspectives – New Period of Instability and Revolutions, Thesis of the European Bureau of the CWI, May 6, 2011, <http://www.socialistalternative.org/news/article1.php?id=1590>. CWI School 2018에서의 세계정세 토론을 다룬, 최근 발표된 한 논문은 중국을 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한 홍콩의 한 동지의 토론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CWI의 세계정세 분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징후는 어디에도 없다. (Kevin Parslow, Socialist Party (CWI in England & Wales): CWI School 2018: 10 years after 2007/8 crisis, capitalism has solved nothing, 08 August 2018 <http://www.socialistworld.net/index.php/192-cwi/9901-cwi-school-2018-world-perspectives>)

331) Serge Jordan: No to the bombing of Syria! Build a mass movement against the war, CWI 12 April 2018 <http://www.socialistworld.net/index.php/international/middle-east/151-syria/9750-no-to-the-bombing-of-syria-build-a-mass-movement-against-the-war>

주의 이론의 중심 범주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을 반영한다. 그들은 분명히 제국주의 열강이 아닌, 반식민지인 나라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범주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2014년 12월에 채택된 <세계 정세전망> 문서에서 CWI는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의 “지역 제국주의적 이익”에 관해 이야기한다.³³²⁾

이 같은 혼란은 우연이 아니라, CWI가 자신의 역사 내내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을 이해하는 데 근본적으로 실패해온 것을 반영한다. 우리가 <<남반구에 대한 대 강탈>>에서 보여주었듯이, CWI는 사회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자신들의 기회주의적 영합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국주의 범주를 거듭 혼란스럽게 적용했다. CWI는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를 일종의 제국주의라고 주장하여 1982년 말비나스 전쟁 동안 자신들이 영국 제국주의에 투항한 것을 정당화하려 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그들은 1990/91년 서방 제국주의 열강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집결시켰을 때 이 아랍 국가를 제국주의로 지정하려는 논의까지도 했었다.³³³⁾ CWI가 사회제국주의에 영합한 또 하나의 예는 시온주의 정착국가 이스라엘의 권리를 지지한 것이다.³³⁴⁾ 위에서 인용한 CWI의 중국 관련 글은 인도에 대해서도 “라이벌 아시아 제국주의 열강”으로 성격규정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³³⁵⁾

332) CWI: World Perspectives. A turbulent period in history, 15/12/2014 <http://www.socialistworld.net/doc/7008>

333)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hapter 9, pp. 211–215

33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Yossi Schwarz: Occupied Palestine / Israel: Dead End for the Two-State Solution. The Palestinian Liberation Struggle and the CWI's Centrist Adaptation to Zionism, 12.11.201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palestine-and-cwi/>; Michael Pröbsting: The CWI's "Socialist" Zionism and the Palestinian Liberation Struggle, A Reply from the RCIT, 15.9.2014,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wi-and-israel/>;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hapter 9, pp. 349–365

335) Vincent Kolo: 'Belt and Road': Imper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Gigantic Belt and Road infrastructure plan – spearhead for Chinese dictatorship's economic and geopolitical strategy, February 19, 2018 <http://chinaworker.info/en/2018/02/19/16985/>

IMT: 순 형식적으로 러시아·중국을 강대국으로 인정하기

국제 맑스주의 경향 (IMT; International Marxist Tendency)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조직의 핵심적인 강령적 문서를 보면, CWI의 경우와 사실상 동일한 그림을 접하게 된다. IMT는 2014년 이래 장문의 〈세계 정세전망〉 문서 3개를 발표했는데, 합치면 7만8천 자나 되는 길이다.³³⁶⁾ 자신들의 이전 동지들 처럼 IMT도 끊임없이 미국 및 유럽 제국주의에 관해 이야기한다. (CWI처럼 그들도 일본에 관해서는 자신들의 유럽 중심주의로 인해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역시 단 한 번도 그들은 이 긴 문서들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국주의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러·중에 대한 강대국으로서의 형식적 인정이 그들의 세계정세 (및 글로벌 모순의 동역학) 분석에 아무 관련도, 아무 결과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IMT는 강대국의 계급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세계정세의 화약고에 대한 분석에서도 그 정치적 모호함을 극복하지 못한다. 우크라이나 내전에 관한 IMT의 논설은 반복해서 미국 및 유럽 제국주의를 비난하지만,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야망”에 대해 단 한 번 언급할 뿐이다.³³⁷⁾ 이것은 러시아

336) IMT: World perspectives: 2018 – a year of capitalist crisis, 05 April 2018 <https://www.marxist.com/world-perspectives-2018-a-year-of-capitalist-crisis.htm>; IMT: World Perspectives 2016 – An update, 06 December 2016, <https://www.marxist.com/world-perspectives-2016-an-update.htm>; IMT: Crisis and Class Struggle: World Perspectives 2016, 26 March 2016 <https://www.marxist.com/crisis-and-class-struggle-world-perspectives-2016-part-one.htm>; IMT: Perspectives for World Revolution 2014, 29 January 2014, <http://www.marxist.com/world-perspectives-2014.htm>;

337) Francesco Merli: Russian annexation of Crimea – What consequences for world relations? 21 March 2014 <https://www.marxist.com/russian-annexation-of-crimea-what-consequences-for-world-relations.htm>

가 제국주의 열강이 되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즉 아직은 그러한 열강이 아니다 라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IMT 출판물은 혼란스럽다. 명시적으로 “중국 제국주의”에 관해 이야기하는 글이 한 편인가 두 편 있기는 있다.³³⁸⁾ 중국에 관한 그 밖의 여러 글들은 중국을 “제국주의”³³⁹⁾로 성격규정 하지도, “움트는 중국의 제국주의적 열망”³⁴⁰⁾에 관해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최근 발표된 세계무역전쟁에 관한 몇몇 논설에서 IMT는 이것이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을 반영한다고 말한다.³⁴¹⁾ 한 논설은 중국을 “떠오르는 자본주의 강국”이라고 말한다.³⁴²⁾ 실로, IMT가 이 같은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의 명백한 표현을 앞에 두고, 약 10년 전부터 중국이 제국주의 강대국이 되었다는 단순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SWP: 이론적 무관심

338) Adam Pal: Pakistan: The ever growing power of China, 02 March 2017, <http://www.marxist.com/pakistan-the-ever-growing-power-of-china.htm>

339) Daniel Morley: China and the World Economy in 2016: “Sell Everything”, 12 January 2016 <http://www.marxist.com/china-world-economy-2016-sell-everything.htm>

340) Zhan Dou Zhe and Dan Morley: Where is China going: back to the planned economy or strengthening capitalism? 30 November 2017 <https://www.marxist.com/where-is-china-going-back-to-the-planned-economy-or-strengthening-capitalism.htm>

341) 다음을 보라. Niklas Albin Svensson: The real stakes in the Trump–China trade war, 08 October 2018 <https://www.marxist.com/the-real-stakes-in-the-trade-war-between-trump-china-trade-war.htm>; China: a trade war the bourgeois can get behind, 21 June 2018 <https://www.marxist.com/china-a-trade-war-the-bourgeois-can-get-behind.htm>; Trump’s war on globalisation, 04 June 2018 <https://www.marxist.com/trump-s-war-on-globalisation.htm>; World trade: Trump sets his eyes on China, 29 March 2018 <https://www.marxist.com/world-trade-trump-sets-his-eyes-on-china.htm>, 다음도 보라. Rob Sewell: “Trade wars are good” – Trump threatens fragile world economy, 12 March 2018 <https://www.marxist.com/trade-wars-are-good-trump-threatens-fragile-world-economy.htm>

342) Joe Attard (IMT): US–China trade dispute: Trump’s recklessness deepens instability, 17 May 2018 <https://www.marxist.com/us-china-trade-dispute-trump-s-recklessness-deepens-instability.htm>

이른바 국제사회주의의 경향(IST)의 주축인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을 보더라도 비슷한 그림을 보게 된다. 이 장에서 언급한 다른 중도주의 조직들과의 주된 차이는 SWP/IST가 (레닌과 트로츠키가 발전시키고 방어해 온 바의)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이론을 명시적으로 거부함에 있어서 보다 더 공공연하고, 보다 더 대담하다는 것이다.³⁴³⁾ 하지만 결과는 매우 비슷하다. SWP/IST가 최근에 자신의 이론지에서 중국에 관한 일련의 글들 (중국에 할애된 <<사회주의 평론>>지 특별호 전체를 포함하여)을 발표했는데 그 중 단 하나의 글도 중국을 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하고 있지 않다.³⁴⁴⁾ 다가오고 있는 세계무역전쟁에 관한 SWP의 글들도 매 한가지다.³⁴⁵⁾ 마찬가지로 몇 년 전 발표한 중국에 관한 보다 긴 이론적 논문도 이 강대국을 “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³⁴⁶⁾

343) 우리는 제국주의 이론 분야에서 SWP의 특수한 형태의 수정주의에 대해 다음의 책 9장에서 다루고 있다.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pp. 216–236.

344) Adrian Budd: Rulers make ready for discontent, *Socialist Review*, Issue: October 2018 <http://socialistreview.org.uk/439/rulers-make-ready-discontent>; Simon Gilbert: Focus on China: Workers and the national question, *Socialist Review*, Issue: September 2018 <http://socialistreview.org.uk/438/focus-china-workers-and-national-question>; Simon Gilbert: China: A labour movement in the making, *Socialist Review*, Issue: April 2018, <http://socialistreview.org.uk/434/china-labour-movement-making>; Adrian Budd: China: New strains on state capitalism, *Socialist Review*, Issue : May 2018, <http://socialistreview.org.uk/435/china-new-strains-state-capitalism>; Lawrence Wong : China and nationalism, *Letters*, *Socialist Review*, Issue: October 2018 <http://socialistreview.org.uk/439/china-and-nationalism>; Sally Kincaid: Women and China: what has changed? *Socialist Review*, Issue: June 2018, <http://socialistreview.org.uk/436/women-and-china-what-has-changed>

345) Charlie Kimber: Trump ramps up trade wars to boost his flagging support, 18 Sep 2018, *Socialist Worker* Issue No. 2622, <https://socialistworker.co.uk/art/47220/Trump+ramps+up+trade+wars+to+boost+his+flagging+support>; Alex Callinicos (SWP): The global trade war hasn't been resolved, 31 Jul 2018, *Socialist Worker*, Issue No. 2615, <https://socialistworker.co.uk/art/46986/The+global+trade+war+hasnt+been+resolved>; Alex Callinicos: Darkening prospects, *International Socialist Journal*, Issue: 159(2018), <http://isj.org.uk/darkening-prospects>; Alex Callinicos (SWP): Trump's trade war means chaos for the ruling class, 6 Mar 2018, *Socialist Worker*, Issue No. 2594 <https://socialistworker.co.uk/art/46224/Trumps+trade+war+means+chaos+for+the+ruling+class>

346) Jane Hardy and Adrian Budd: China's capitalism and the crisis, *International Socialist Journal*,

단 하나 예외라면, SWP가 다음과 같이 간신히 표명하고 있는 한 기사의 대목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로서는 두 "거대한 배" 미·중 간의 제국주의 패권 경쟁은 경제적 수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³⁴⁷⁾ 그러나 소금 한 알은 수프 맛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수프 한 스푼은 소금 한 냄비를 별미로 바꾸지 못한다.

SWP의 경우에서도 우리는 다른 중도주의 조직들과 동일한 근본 문제를 본다. 그들은 세계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인식하는 데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현 시기에 맑스주의자가 올바른 방향·전망을 찾는 데 필수 전제다.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이론에 관한 이러한 혼란은 우연이 아니다. 또한 오로지 이론적 무지함의 결과도 아니다. 그 같은 이론적 혼란은 제국주의 열강 또는 그들의 현지 대리인에 의해 공격 받는 피억압 인민을 편들길 거부하는 초 기회주의적 실천을 정당화하는 데에도 편리하다.

제국주의 패권쟁투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그로부터 나오는 전술적 방침 간의 관계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으로 이 장을 맺고자 한다. 우리는 〈현 시기 혁명가연합 6대 방침〉 문서에서 이 관계를 요약 제시했다.

“미국·일본·EU만이 아니라 신흥 대국 중국과 러시아도 제국주의임을 인정할 때만이 현 시기 자본주의 위기를 추동하는 모순을 이해하고 올바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오직 그러한 기초 위에서만이 이 문제에 관한 유일하게 올바른 반제국주의 강령에 이를 수 있다. 즉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혁명적 패권주의만이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반대하는 일관된 노동자계급 투쟁

Issue: 133, 9th January 2012, <http://isj.org.uk/chinas-capitalism-and-the-crisis/>

347) Alex Callinicos (SWP): Trump gets serious, International Socialist Journal, Issue: 158 (2018), <http://isj.org.uk/trump-gets-serious/>

의 전략·전술을 담보한다. 혁명가들은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슬로건 하에 제국주의 간 대립·충돌에서 어느 제국주의 국가도 지지하길 거부한다... 이들 강대국들의 반동적·제국주의적 성격을 바로 보지 못하면, 일관된 반제국주의, 즉 맑스주의 노선을 취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어느 한 제국주의 진영을 "차악"이라며 지지하는 것으로 되고 말 것이다."³⁴⁸⁾

불행히도, 우리가 지금까지의 장들에서 다룬 중도주의 조직들의 지도부는 이 같은 맑스주의적 노선과는 거리가 멀어져버렸다!

348) RCIT: Six Points for a Platform of Revolutionary Unity Today, Februar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rcit/6-points-for-a-platform-of-revolutionary-unity-today/> [국역: 〈현 시기 혁명가연합 6대정강〉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6-points-for-revolutionary-unity/>]

3부:
모든 강대국에 반대하는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

12장. 3차 세계대전은 불가피한가? (마이클 로버츠에 관한 비판적 노트)

2008년에 새로운 시기의 시작 이래 강대국 간 패권쟁투 격화는 피할 수 없이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결과할 것이라고 RCIT는 반복해서 지적해 왔다. 이런 종말론적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는, 우리가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국주의 전쟁광들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계급투쟁으로 제국주의 지배계급들을 타도하는 것이다.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이 같은 전망을 거부한다. 마이클 로버츠가 제기해 온 몇몇 논거를 다루어보자. 로버츠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대한 잘 정리된 분석을 정기적으로 내놓고 있는 맑스주의 경제학자다. 최근에 발표한 글에서 그는 현재의 장기불황이 끝나고 새로운 장기호황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관한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논문의 관련 구절들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논문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토론해 볼 것이다. “제국주의의 새로운 국면이 앞에 있는가?”라는 제목의 장에서 로버츠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세계경제는 장기불황 속에 있다. 그러나 세계 자본주의는 이러한 불황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또 다른 공황이 충분한 가치(생산수단, 가공자본, 고용)를 파괴하고 난 다음에는 아마도, 살아남은 자본의

수익성이 다시 올라 투자와 성장에 새로운 상승파동을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물론, 계급투쟁이 어느 주요 제국주의 경제에서도 자본에 대한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가정 위에서다.

그리하여 세계화의 새로운 파동이 가능하다. 세계에는 아직 착취당할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 가치와 잉여가치 증식에 새로운 주기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혁신이 언제나 존재한다. 아직 손대지 않은 거대한 노동예비군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아프리카에 말이다.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유엔의 최신 보고는 세계의 발달한 경제국들 다수와 중국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아프리카가 향후 90년 동안 인구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아프리카 인구는 불과 90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아시아는 증가 추세는 계속되지만 지금부터 약 50년 후에 최고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아시아·남미·중동의, 노동인력으로 들어오는 이 수억 명을 착취함으로써 더 뺏어갈 수 있을까? 성숙한 자본주의 경제국들의 산업 노동인력은 1억5천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이른바 신흥 경제국들에서 산업 노동인력은 1980년대 초에 이르러 제국주의 나라들의 산업 노동인력을 능가하면서 현재 5억 명에 이른다. 그 이외에도 23억 명의 실업자, 불안전 취업자, 비활동 성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예비군도 있어 이들이 새로 착취 대상이 되어 새로운 가치를 낳을 수 있다.”³⁴⁹⁾

레닌은 막심 고리키 – 유명한 러시아 작가이자 사회주의자로서 노동계급 투쟁을 지지했지만, 정치에서는 나쁜 실수를 범했다 – 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곤 했다. 레닌은 고리키가 위대한 예술가라며, 그런 사람들이 계급투쟁의 미로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기를 기

349) Michael Roberts: Imperialism, globalization and the profitability of capital, in: Rupture Magazine, Issue 1, <https://rupturemagazine.org/2018/01/25/imperialism-globalization-and-the-profitability-of-capital/>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이클 로버츠도 위대한 경제학자들에 관한 비슷한 판단을 불러일으킨다. 세계경제에 관한 그의 저술들은 종종 탁월하며, 우리는 우리의 경제 분석에서 거듭 그의 저술들을 인용했다. 그러나 정치 분야에서는, 이전에 테드 그란트의 중도주의 CWI/IMT 전통을 지지했던 이 맑스주의 경제학자는 이들 정치 스승들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그는 여전히 중국을 비자본주의 “기형화된 노동자국가”로 보고 있다.³⁵⁰⁾ 불행히도, 새로운 장기호황에 관한 그의 이론도 이보다 썩 낫지 않다. 새로운 장기호황 가능성을 예견하는 그의 주 논거는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다. i) 결국 또 하나의 공황이 수익성 있는 투자의 전제조건을 창출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파괴할 것이다. ii) 자본주의적 착취 과정 속으로 통합될 수 있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그 밖의 반식민지 나라들에 여전히 대규모 노동인력 부문이 존재한다.

물론, 본격적인 공황이 막대한 액수의 자본주의적 가치를 파괴할 수 있고, 다시 이것이 경기상승기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진실이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증가하는 젊은 인구가 자본주의 시장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도 진실이다.

인구 증가와 장기 경기상승

350) 우리는 이 신화를 다음 책에서 다루었다.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hapter 10, <https://www.theco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Michael Pröbsting: World Perspectives 2018, p. 59 (Footnote 99), <https://www.theco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8/>.

그러나 이 테제에는 많은 결함이 있다. 먼저 ‘아프리카의 젊은 인구’라는 논거를 다루어보자. 실제로 세계 인구의 증가율은 현재보다 과거에 더 높았고 향후 몇 십 년간에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26 및 그림 31을 보라).

그림 32에서는 노동연령 인구가 1970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의 모든 부분에서 증가했지만, 향후 몇 십 년간에 세계의 모든 부분에서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거대한 노동예비군”은 미래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것보다 과거에 훨씬 더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노동 인구의 더 높은 (미래에 예측된 것보다)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우리가 1장에서 보여주었듯이, 지난 몇 십 년 동안 감소하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 미래에 더 낮은 인구 증가율이 장기간의 자본주의적 경기상승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논리가 결여된 것이다.

표 26. 10년 단위 세계 총인구, 1950-2050년 (미래는 예측치)³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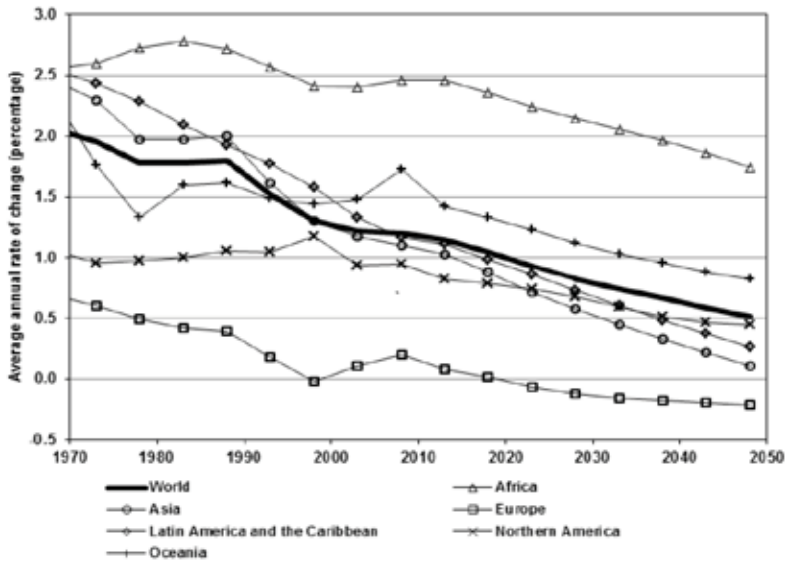
* 예측치

연도	세계 총인구 (연도 중반의 수치)	10년간 성장률 (%)
1950	2,556,000,053	18,9%
1960	3,039,451,023	22,0%
1970	3,706,618,163	20,2%
1980	4,453,831,714	18,5%
1990	5,278,639,789	15,2%
2000	6,082,966,429	12,6%
2010*	6,848,932,929	10,7%

351) <https://www.infoplease.com/world/population-statistics/total-population-world-decade-1950-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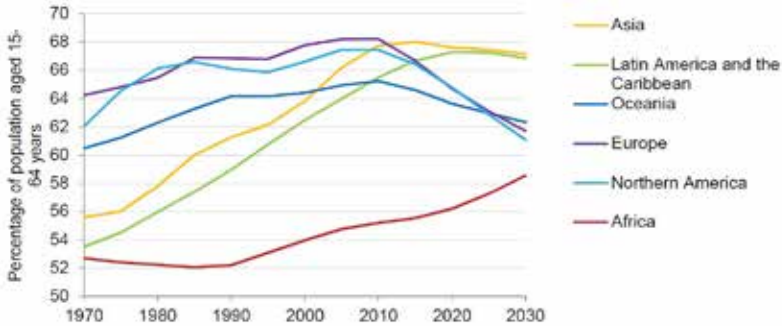
2020*	7,584,821,144	8.7%
2030*	8,246,619,341	7.3%
2040*	8,850,045,889	5.6%
2050*	9,346,399,468	—

그림 31. 세계 및 주요 지역의 연 평균 인구 변동 (%), 1970-2050년³⁵²⁾



352) The World Population Situation in 2014, A Concise Report,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New York, 2014, p. 4

그림 32. 지역별 15-64세 인구 백분율, 1970-2030년³⁵³⁾



Data source: United Nations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더욱이 자본주의의 하강하는 동역학은 1989-91년에 스탈린주의의 붕괴 이후에조차도 역전되지 않았다. 즉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세계의 그 밖의 지역들에서 타락한 노동자국가의 소멸로 수억 명의 추가 노동인력이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덧붙여진 이후에조차도 말이다. 내친 김에 말하자면, 당시 각종 수정주의자들은 이 사건이 장기호황기를 열 것이라고 가정했는데, 이에 대해 언젠가 우리는 강하게 반박했다.³⁵⁴⁾

장기 경기상승의 조건은 무엇인가?

353) Population 2030. Demograph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ning,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New York, 2015, p. 24

354) 다음 책을 보라. Richard Brenner, Michael Pröbsting, Keith Spencer: *The Credit Crunch – A Marxist Analysis*, London 2008

마이클 로버츠의 두 번째 논거 역시 결함이 있다. 공황이 자본주의적 가치를 파괴한다는 것은 물론 진실이다. 그러나 제국주의 시대에 자본주의의 역사는 공황 그 자체로는, 또는 자본주의적 가치의 파괴 일반으로는 장기간의 자본주의적 경기상승 조건을 창출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 왔다. 요점 정리를 해보자. 1914-18년, 1929-33년, 1937년, 1939-45년에 경제적·군사적 파국이 자본주의적 가치의 대대적인 파괴를 가져왔고, 그리고 그 다음 1974/75년, 1980-82년, 1990-91년, 2000-01년에, 그리고 2008-09년 대침체(Great Recession) 때 혹독한 불황을 맞았다. 그런데 그 중 단 한 경우에만 (2차 세계대전 시에) 이것이 장기 경기상승의 길을 열었다. 따라서 이 같은 공황들이 또 한 차례 자본주의 호황의 충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여기서 우리는 장기 경기상승의 원인이라는 문제에 이른다. 마이클 로버츠는 철충적인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오류를 (아마도 경제학자에게 흔한) 범한다. 그는 경제의 이 또는 저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역사적 발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이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y)”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괜히 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오로지 생산양식으로만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경제구성체로도 존재한다. 경제는 계급 모순을 규제하는 국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세계경제는 민족 국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주의는 맑스주의자들이 반복해서 설명했듯이, 역사적인 쇠퇴 경향을 특징으로 한다.³⁵⁵⁾ 대조적으로 기계론적인 장기파동 이론의 지

355) 우리의 분석이 다음 글들에 요약되어 있다. Michael Pröbsting: The Catastrophic Failure of the Theory of “Catastrophism”,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atastrophic-failure-of-the-theory-of-catastrophism/>;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hapter 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Michael Pröbsting: Imperialism, Globalization and the Decline

지자들은 자본주의 경기상승기에 뒤이어 필히 자본주의 경기하강기가 오고, 다시 자본주의 경기상승기가, 그리고 다시 경기하강기가 뒤따른다는 일종의 초역사적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마이클 로버츠도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³⁵⁶⁾

우리가 다른 데서 설명했듯이, 맑스주의자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장기호황”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제국주의 시대에 예외, 즉 이례적인 역사적인 상황의 결과였음을 보아야 한다. 첫째, 세계대전이 대대적인 자본 파괴를 야기했다. 둘째, 파시즘의 결과로 노동자계급이 역사적인 패배를 맞았다. 여기에 더해 스탈린주의 관료의 파괴적 역할을 추가해야 한다. 1945-48년에 혁명적 노동계급 투쟁들을 배반하고, 이로써 자본주의의 안정화를 도운 그 파괴적 역할 말이다. 게다가 스탈린주의는 1989-91년까지 지속된 반동적 세계 질서 - “알타 협정” - 를 확립하는 데 제국주의 열강과 합의했다.

끝으로,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으로,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미국을 절대 패권국으로 하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제국주의 열강 위계제가 성립했다. 이것은 제국주의 패권국의 성립을 가져오지 않은 1차 세계대전 후 - 그 때문에 2차 세계대전으로 결과한 격동의 1920년대와 1930년대 - 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한 형태의 열강 위계 사다리는 독일 · 일본의 패전과 미국의 다툼의 여지없는 우위로부터 결과한 제국주의 내부 관계의 재편으로서, 하나의 역사 시기 전 기간 동안 - 사실상 2000년대 말까지 -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of Capitalism, in Richard Brenner, Michael Pröbsting, Keith Spencer: The Credit Crunch - A Marxist Analysis, London 2008, <https://www.thecomunists.net/theory/imperialism-and-globalization/> [국역: (제국주의와 쇠퇴하는 자본주의), <https://www.theco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imperialism-and-decline-of-capitalism/>]

356) 장기파동 이론에 대한 우리의 비판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atastrophic Failure of the Theory of “Catastrophism”, pp. 22-24; Richard Brenner: Globalization and the Myth of the New Long Wave, in: The Credit Crunch - A Marxist Analysis, <http://www.fifthinternational.org/content/globalisation-andmyth-new-longwave>

의 패권쟁투가 단지 부차적인 역할만을 할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새로운 자본주의 장기호황의 전제조건은 무엇일 수 있을까? 우리는 오래 전에 발표한 글에서 다음의 논거들을 제시했다.

“이것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

* 지배계급이 노동자계급에게 역사적인 패배를 안기고, 이것에 의해 노동력 상품의 가격을 질적으로 더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 막대한 액수의 과잉자본이 파괴된다. (전쟁 또는 유사한 파국을 통해).

* 한 제국주의 강대국의 다툼의 여지없는 패권 하에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된다. (19세기에는 그러한 패권국이 영국이었고, 1945년 이후에는 미국이었다)....

우리는 1950년대 · 1960년대의 장기호황과 같은, 또 하나의 장기호황을 미래에 경험할 수 있을까?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틀렸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을 이반 상승세를 낳은 사건들의 단순 반복 같은 것으로 보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틀렸다. 21세기의 독점자본주의는 50년대 · 60년대의 그것과 같지 않다. 그때 이후 생산 제력(諸力)은 엄청나게 발전했고, 이와 함께 파괴 제력도 엄청나게 발전했다. 오늘날의 세계대전은 2차 세계대전보다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인류 일부의 말살과 문명의 파괴를 포함하여). 글로벌화 한 세계경제의 촘촘한 상호연관은 중대한 지역적 교란만으로도 — 경제적인 교란이든, 정치 · 군사적 교란이든 — 지구 전체가 빨려들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국주의 모순을 일시적으로라도 완화하고 새로운 장기 상승으로 돌입할 가능성은 20세기 중반에 비해 훨씬 낮다. 반면 “사회주의냐 야만이나”의 갈림길은 그 어느 때보다도 21세기에 더 첨예하게 제기된다. 제국주의가 노쇠하여 썩어들어 갈수록 그 모순은 더욱 폭발적으로 된다. 제국주의가 그 쇠퇴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 또 하나의 호황기를 구가할 수 있는 전제조

건은 전혀 없는 대대적인 자본 파괴와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역사적인 패배, 그리고 강대국들 간의 전쟁으로 하나의 선도적인 제국주의 강대국이 절대적 패권국으로 나서서 세계정세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뿐이다. 달리 말하면, 자본주의는 인류의 생존을 의제로 올려놓을 정도의 야만적인 방법을 요구할 것이다.”³⁵⁷⁾

물론, 자본주의의 수명이 연장될 어떠한 이론적 가능성도 배제하는 것은 틀렸다. 강대국들 간의 핵전쟁으로 한쪽 진영이 절멸 당하고 다른 한쪽 진영은 상대적으로 무사한 상황으로 결말나는 시나리오나, 또는 이 행성의 한 부분이 환경 파괴이나 대유행병으로 파괴되고 다른 부분은 파괴되지 않는 시나리오를 배제한다면, 이는 오류일 것이다. 광범위에 걸쳐 산업과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절멸을 초래하는 그러한 파괴적인 사건들은 이론상 새로운 자본주의 상승의 조건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명백히도 끔찍한 사회적 퇴행을 대표하는 그러한 시나리오 위에서 투쟁의 전망을 그리거나 만들어 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카우츠키주의 요소

불가피하게 전쟁으로 결과하는 자본주의의 내적 동역학에 대한 우리의 주장은 맑스주의의 고전적 가르침뿐만 아니라 역사의 교훈과도 부합한다는 것

357) 출처는 2007년에 쓴 저자의 논문. 다음에서 인용.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pp. 376-37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을 끝으로 강조하고자 한다. 제국 사회들의 역사는 강대국들과 제국들이 라이벌에게 평화적으로 권력을 넘겨준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제나 그들은 필요한 모든 수단에 의해 그들의 권력을 지키려 했고, 그들의 라이벌들은 동일한 공포함으로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시도했다. 복잡하게 갈 것 없이 그냥 로마제국과 카르타고 간, 고대 중국의 위·촉·오 삼국 간, 백년전쟁 기 영국과 프랑스 간, 또는 20세기 양차 대전에 참전한 현대의 강대국들 간의 패권쟁투에 대해 생각해보라.

실제로, 경기하강/불황으로 자본주의 독점체들 간의,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모순이 완화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맑스주의자들의 고전적 입장이다. 완화되기는커녕 이러한 적대는 불가피하게 세계전쟁으로 결과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언제나 레닌의 기본 가정이었다.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며, 기독교 목사들 (애국과 인류와 평화를 설교함에 있어 조금도 기회주의자들에게 뒤지지 않는)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죄악’이 아니다. 전쟁은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단계로서, 평화만큼이나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의 적법한 형태다.**”³⁵⁸⁾

“.... 전 세계적 규모로의 현대 독점자본주의를 압축 요약한다. 그리고 이러한 압축 요약은 그러한 경제체제 하에서는, 즉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유지되는 한은 제국주의 전쟁이 절대적으로 불가피함을 증명한다.”³⁵⁹⁾

“자본주의 하에서, 특히 그 제국주의적 단계에서 전쟁은 불가피하다.”³⁶⁰⁾

358) V. I. Lenin: The Position and Tasks of the Socialist International (1914) ; in: CW Vol, 21, pp. 39– 40. [레닌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현황과 임무>, 레닌전집 58권 (“마르크스”), 양효식 옮김, 아고라, 54쪽]

359) V. 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1916) ; in: CW Vol, 22, p. 190. [레닌 <<제국주의론>>, 레닌전집 63권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이정인 옮김, 아고라, 12쪽]

360) V. I. Lenin: The Conference of the R.S.D.L.P. Groups Abroad (1915); in CW 21, p. 162. [레닌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재외지부 회의>, 레닌전집 59권 (“제2 인터내셔널의 붕괴”), 양효식 옮김, 아고라, 115쪽]

실제로, 노동자계급이 이 행성에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제국주의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강대국들 간 패권쟁투 격화가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결과할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소부르주아적 환상이다. 그 같은 평화주의적 신화는 이미 오래 전에 중도주의의 창시자 칼 카우츠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개전 후 2,3주도 안 되어서(!), 폭력적인, 제국주의적인 자본주의로부터 평화적인 “초제국주의”로 전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맑스가 자본주의에 대해 말한 것은 제국주의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독점은 경쟁을 낳고 경쟁은 독점을 낳는다. 거대 기업들, 거대 은행들, 백만장자들의 광적인 경쟁은 작은 금융단체들을 흡수하고 있는 대 금융단체들로 하여금 카르텔 개념을 생각해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같은 식으로 대 제국주의 열강 간 세계대전의 결과는 군비 경쟁을 포기하는 최강 열강들의 연방일 수도 있다. 따라서 순 경제적 견지에서 볼 때 자본주의가 또 하나의 단계를 거치며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도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그 단계란 카르텔 화를 대외정책 분야로 옮겨 놓은 초제국주의 단계인데, 물론 우리는 제국주의에 맞서서 만큼이나 그것에 맞서 정력적으로 투쟁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위험은 군비 경쟁과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 쪽이 아닌 또 다른 쪽에 있다.”³⁶¹⁾

레닌은 이것이 노동자계급을 달래고(pacify) 무장해제 시키며 또 자본가계급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 전망에 혼란을 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361) Karl Kautsky: Der Imperialismus, in: Die Neue Zeit 32-II., 1914, 21, p. 921, in: English: Karl Kautsky: Selected Political Writings (edited and translated by Patrick Goode, The Macmillan Press, Hong Kong 1983, p. 88, <http://www.marxists.org/archive/kautsky/1914/09/ultra-imp.htm>

반동적 몽상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레닌은 협력자 니콜라이 부하린의 제국주의에 관한 책 서문에서 카우츠키의 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특히 카우츠키로 말하자면, 그의 명백한 맑스주의와의 단절은 정치의 부정 또는 무시의 형태를 취하거나, 또는 제국주의 시대에 그리도 많고 다양한 정치적 충돌, 격변, 변혁을 뛰어넘는 ”비약“의 형태를 취하지는 않았다. 제국주의에 대한 변호론이 아니라 ‘평화적’ 자본주의에 대한 몽상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이 ‘평화적’ 자본주의는 카우츠키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비평화적, 침략적, 격변적 제국주의에 길을 내주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제국주의는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가 맑스주의자로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통합된 결론을 내놓은 논문에서 인정했던 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야한, 단순한 방식으로 제국주의로부터 ‘평화적’ 자본주의로의 직접적인 퇴각에 대한 꿈을 꾀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꿈 — 본질적으로 소부르주아적인 — 이 ‘평화적’ ‘초제국주의’에 관한 악의 없는 사변의 형태를 취하게 하면 어떨까? 민족적 (오히려 민족적으로 고립된) 제국주의들의 국제적 통합이 초제국주의로 — 전쟁이나 정치적 격변 등등과 같은 갈등을 없앨 수 있을” 초제국주의로, 소부르주아가 볼 때 특히 불쾌하고 불안스럽고 두려운 그러한 초제국주의로 — 불려야 한다면, 이 경우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상대적으로 갈등이 부재하며 상대적으로 격변적이지 않은 초제국주의에 대한 악의 없는 꿈을 통해 현재의 극히 모순적이고 격변적인, 여기 지금 존재하는 제국주의 시대를 벗어나면 어떨까? 유럽에 막 동튼 제국주의 시대가 곧 지나가 버리고, 어떠한 ”돌발적“ 전술도 요구하지 않을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초제국주의“ 시대가 뒤따를 가능성을 꿈꿈으로써 제국주의 시대가 제기했고 또 제기하고 있는 첨예한 문제들을 벗어나고자 시도해보면 어떨까? 카우츠키는 ”자본주의의 그러한 [초제국주의적] 새로운 단계가 어쨌든 상상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전제 조건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확히 말한다. (<<새 시대>>, 1915년 4월

7일, 144쪽). 지금 여기 있는 제국주의를 무시하고, 올 수도 안 올 수도 있는 "초제국주의"의 왕국으로 도피하려는 이러한 충동에는 맑스주의는 눈곱 만치도 없다. 이러한 정식화에서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 — 그것의 발명자 자신은 그것에 대해 보증하지 않고 있는 — 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으로 맑스주의에 대한 승인은 되고 있지만, 현 단계 (이미 여기에 있는)에서는 모순을 무디게 하려는 소부르주아적이고 뿌리깊이 반동적인 욕구가 맑스주의를 대체하고 있다."³⁶²⁾

역사적으로 우리가 3차 세계대전 전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하는 오류를 범할 생각은 없다. 어떠한 오해도 피하기 위해 우리는 그러한 3차 세계대전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현재 세계무역전쟁에서 보고 있는 것은 보다 긴 역사적인 시기의 서막, 즉 그러한 파멸적인 전쟁 준비기의 시작 단계다. RCIT 지도부의 일원인 요시 슈바르츠 동지는 한 논문에서 지배계급이 그러한 세계대전에 노동자계급을 동원할 수 있으려면 먼저 노동자계급에게 혹독한 역사적인 패배를 안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계급의 기가 꺾이는 그러한 일련의 패배가 없었다면, 2차 세계대전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국제 노동자계급은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 증대하는 세계경제 위기의 결말은 사회주의혁명으로 이어지든가, 아니면 세 번째 세계전쟁으로의 길을 열 패배로 이어지든가 둘 중 하나다.”³⁶³⁾

이것의 결론은 그러한 위협에 대해 겁먹지 않고 냉철한 전망과 제국주의 전

362) V.I.Lenin: Preface to N. Bukharin's Pamphlet, Imperialism and the World Economy (1915), in: LCW Vol. 22, pp. 105-106

363) Yossi Schwartz: Capitalist Trade and the Looming 3rd World War, 15 Jul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apitalist-trade-and-looming-3rd-world-war/>

쟁광들에 대항하는 혁명적 투쟁 강령으로 노동자계급 전위를 조직하는 것이다.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혁명적 국제 노동자계급에 의해 분쇄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패권쟁투가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오직 세계 사회주의혁명을 통해서만 이러한 참화와 전쟁과 파국의 연쇄시슬을 끝장낼 수 있다. 인류는 "사회주의냐, 야만이나"의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발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지금 절절하다. "사회주의냐, 기후 파괴와 3차 대전을 통한 죽음의 만연이나!"³⁶⁴⁾

364) RCIT: World Perspectives 2016: Advancing Counterrevolution and Acceleration of Class Contradictions Mark the Opening of a New Political Phase,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January 2016), Chapter II,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6/>; see also RCIT: Six Points for a Platform of Revolutionary Unity Today, Februar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rcit/6-points-for-a-platform-of-revolutionary-unity-today/>

13장. 국제적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은 노동자계급이 결코 “조국”을 옹호/방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강령은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날카로운 반대를 반영한다. 이 강령은 한편으로 프롤레타리아트·피억압자와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제국주의 상전 간에 그 어떤 공통의 이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맑스주의 강령과 계급투쟁의 일반적 방법들을 반배외주의·반군국주의 투쟁의 지형에 적용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이 그 본성 상 국제적 계급이라는 공리에 기초해 있다. 이 점은 이미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1847년에 <<공산당 선언>>에서 정식화한 바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조국이 없다. 그들이 갖지 않은 것을 그들에게서 빼앗을 수는 없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우선 정치적 지배권을 획득하여 민족적 계급으로 올라서야 하며 스스로 민족으로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한에서 그 스스로 민족적이다. 비록 부르주아지가 생각하는 의미에서는 아닐지라도 말이다.”³⁶⁵⁾

365)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1847), in: MECW Vol. 6, pp. 502-503

이 발언은 많은 항의와 혼동을 야기했다. 우익 배외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을 “조국 없는 자들”이라고 비방하기 위해 이 말을 이용했다. 기회주의적 시민주의자들과 스탈린주의자들은 이러한 반동적 편견을 내면화하여 부르주아 “여론”에 자신들은 맑스주의자들과는 다르다는, 즉 제국주의 조국의 충성스런 옹호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느라 열심이었다.

그 밖의 다른 비판자들 - 배외주의자들과 사민주의자들보다는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반드시 지혜가 더 많지는 않은, 종종 진보적인 사람들 - 은 과학적 사회주의 창시자들의 말을 또 다른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했다. 그들은 <<공산당 선언>>으로부터, 사회주의자들은 민족 문제에 관심이 없으며, 따라서 민족적 역할에 대항하여 인민들을 방어하길 거부한다고 추론한다.

그 같은 왜곡된 해석보다 더 진실과 대립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데는 그다지 많은 역사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맑스와 엥겔스가 <<선언>>을 쓰고 그것을 유럽 대륙에 전파하고 있던 바로 같은 시간에 그들은 폴란드 인민의 민족해방 투쟁에 대한 지지를 말과 행동으로 규합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실제로 폴란드 독립의 대의는 1864년에 제 1 인터내셔널의 창설을 이끈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다비드 리아자노프 - 1931년에 스탈린주의자들에 의해 처형될 때까지 유명한 소련의 맑스·엥겔스 연구소 창립자였던 - 가 지적했듯이 말이다.³⁶⁶⁾

같은 맥락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독일의 민족 통일을 지지했고 차르 러시아에 대항하여 독일의 혁명적 전쟁을 요구했으며 합스부르크 제국에 대항하여 이탈리아 인민의 편에 섰다. 나중에 그들은 영국의 점령에 반대하여 싸우는 아

366) 다음을 보라. David Riazanov: Die Entstehung der Internationalen Arbeiter-Assoziation (Zur Geschichte der Ersten Internationale), in: Marx-Engels-Archiv, Zeitschrift des Marx-Engels Instituts in Moskau, Vol. 1, pp.165-173, Marx-Engels-Archiv Verlags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1925 (Politliden- Reprint, Erlangen 1971)

일랜트 인이나 인도인 같은 피억압 인민의 민족해방 투쟁에 대한 그들의 무조건적 지지를 계속 이어갔다.³⁶⁷⁾

언뜻 볼 때 이것은 모순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를 형식주의적이고 기계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만 그렇게 보인다. 국제주의와 민족 문제에 관한 맑스주의적 방법을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해보자.

맑스와 엥겔스가 “노동자들에게는 조국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노동자계급은 그들이 속한 특정 나라에 대한 어떠한 “천부적” 충성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었다. 노동자들에게 이 또는 저 외국의 노동자들은 같은 나라 출신의 동료들만큼이나 가깝다.

계급적으로 자각한 노동자의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관계는 그가 고용되어 있는 회사와의 관계와 비슷하다. 노동자는 다른 회사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자신이 속한 회사의 노동자에 대해서 만큼이나 동일한 연대의식을 가질 것이다. 노동자 연대와 노동조합이라는 사상 전체가 노동자들의 계급적 본성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 통찰 위에서 쌓아올려진 것이다.

국경, 여권, 피부색과 관련한 노동자 연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 계급적으로 자각한 노동자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또는 다른 나라에서 온, 또는 다른 피부색을 가진 노동자에 대해서도 자신이 속한 나라에 살고 있는 노동자, 또는 거기서 태어난 노동자, 또는 같은 피부색을 가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애착을 느낀다.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여권 [주민증]이나 피부색이 아니라 기본적

367) 민족 문제에 대한 맑스·엥겔스의 접근법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Roman Rosdolsky: Engels and the „Nonhistoric“ Peoples: The National Question in the Revolution of 1848, Critique Books, Glasgow 1986; Michel Löwy: Marxists and the National Question, in: New Left Review 96, March– April 1976, pp. 81–100; Neil A. Martin: Marxism, Nationalism, and Russia, in: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29, No. 2 (April–June 1968), pp. 231–252

으로 동일한 우리의 존재 조건, 즉 자본가들과 그들의 국가기구에 의한 동일한 착취·억압 조건을 맞고 있는 계급으로서의 우리의 존재다. 여권이나 피부색에 기초한, 계급을 가로지르는 정체성은 지배계급과 그들의 매체와 그들의 정치적 전도사들에 의한 조작의 결과다. 여권이나 피부색에 관계없는 계급 정체성만이 프롤레타리아트와 피억압자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국제주의와 민족해방

그러면 왜 맑스와 엥겔스는 다양한 민족 투쟁들을 지지했고, 왜 우리는 오늘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모든 형태의 착취와 억압의 근절을 위해 싸우기 때문이다. 민족 억압은 이 또는 저 나라의 지배계급에 봉사하는 억압 형태다. 바로 이것이 혁명가들이 그러한 민족 억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그러나 계급적으로 자각한 노동자들은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민족 억압에 대한 그러한 반대에 접근한다. 이것은 그들이 모든 피억압 인민의 민족적 평등을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피억압 인민이 같은 나라에 살든 다른 나라에 살든, 그들의 피부색이 같든 다르든 관계없이 말이다. 우리가 민족 억압에 반대하여 싸우는 것은 어떠한 억압도 없어야만 인류에게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지, 우리가 해당 피억압 인민과 같은 여권이나 같은 피부색을 가져서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맑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말하고자 했던 바이며, 또한 우리가 노동자계급은 본질적으로 국제적 계급이라고 말한 것의 의미다.

이러한 근본적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인식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혁명적 패전주의 전술이다. A사(社)에서 일하는 계급적으로 자각한 노동자는 그의 사장이 경제적 경쟁에서 라이벌 B사를 누르려고 하는 것을 지지할 수 없다. A사의 계급적으로 자각한 노동자들은 B사에 고용된 그들의 동료들과 접촉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자들끼리 싸움시키는 것을 막아내고 양사 사장들에 대항해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말이다.

같은 식으로, 계급적으로 자각한 노동자는 이주노동자가 노동인력에 합류하는 것에 반대하는 동료 노동자의 배외주의적 입장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그리고 또 계급적으로 자각한 남성 노동자는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반대도 거절할 것이고, 계급적으로 자각한 중장년층 노동자는 젊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반대도 거절할 것이다. 일체의 반동적 배외주의와 후진적 길드주의에 대한 이러한 반대는 언제나 맑스·엥겔스 시대의 제1 인터내셔널 이래 노동자운동의 기본 원칙이었고 오늘날까지 그러하다.

또한 자본가 국가는 철저히 외계체로서, 프롤레타리아트는 그것을 방어하지 않으며, 오히려 파괴되어야 하고 노동자·빈농 평의회와 민병에 기초한 새로운 코뮌 형 국가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혁명적 노동자운동의 당연한 공리였다. 레닌은 이 원칙을 이렇게 옹호했다.

“제국주의 — 은행자본의 시대, 거대 자본주의 독점체들의 시대, 독점자본주의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의 시대 — 는 군주제 나라들에서나, 가장 자유로운 공화제 나라들에서나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억압 조치 강화와 관련하여 “국가기구”의 미증유의 강화 및 군사·관료 기구의 전례 없는 성장을 분명히 보여주었다.”³⁶⁸⁾

368) V. I.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The Marxist Theory of the State and the Tasks of the Proletariat in the Revolution; in: CW Vol. 25, p.326

바로 이 때문에 언제나 맑스주의자들은, 국가를 개혁할 수 있고 자본주의를 폭력 없이 변혁시킬 수 있다는 개량주의자들과 중도주의자들의 백일몽을 거부해 왔다.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부르주아 국가를 대체하는 것은 폭력 혁명 없이는 불가능하다.”³⁶⁹⁾

볼셰비키 당의 지도적 이론가 니콜라이 부하린도 같은 사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369) V. I.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The Marxist Teaching on the State and the Tasks of the Proletariat in the Revolution (1917), in: LCW Vol. 25, p. 405, 다음도 보라.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강제적 파괴와 새로운 국가기구 - 엥겔스에 의하면 “본래적 의미에서 더 이상 국가가 아닌” - 로 그것의 대체 없이는 프롤레타리아혁명 가능하지 않다.” (V. I. Lenin: The Proletarian Revolution and the Renegade Kautsky, in: LCW Vol. 25, p. 237). 맑스주의 혁명 이론에 근본 요소가 된 (지난 세기의 카우츠키와 오늘날 피터 타페의 CWI나 앨런 우즈의 IMT 같은, 평화적인 사회주의 이행 가능성을 신봉하는 과거와 현재의 수정주의자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레닌의 입장은 맑스와 엥겔스의 분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음을 보라. “계통적이고 위계적인 분업 플랜에 따라 만들어진 상비군, 경찰, 관료, 성직자, 사법기관 등 어디에나 존재하는 중앙집권 국가권력은 절대군주제 시절부터 시작되어, 신생 중간계급 사회가 봉건제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그들의 강력한 무기로 복무한다... 그러나 그것의 정치적 성격은 사회의 경제적 변화와 동시에 바뀌었다. 근대 산업의 전진이 자본과 노동간의 계급 적대를 발전, 확대, 격화시킴에 따라 국가권력도 점점 더 노동에 대한 자본의 국민적 권력의 성격을, 사회적 노예화를 위해 조직된 공권력의 성격을, 계급 독재의 엔진의 성격을 띠었다.” (Karl Marx: The Civil War in France, in: MECW Vol. 22, pp. 328-329)

“거대한 관료·군사 조직을 지닌, 50만의 군대 외에도 또 다른 50만을 헤아리는 관리 집단을 지닌 이 행정권력은, 프랑스 사회의 몸통을 그물처럼 움아매고 그 모든 모공을 틀어막는 이 소름끼치는 기생체는 절대왕정 시절에 봉건제의 부후화 — 이 기생체가 그 부후화의 축진을 돕는다 — 와 함께 생겨나왔다. 지주들과 도시들의 봉건 특권은 국가권력의 그렇게도 많은 권한들로, 귀족들은 유급 관리들로, 총독하는 중세적 무제한 권력들의 천차만별한 도면은 국가권위 — 그 업무가 공장에서처럼 나누어지고 중앙집권화 된 — 의 정제된 설계도로 탈바꿈되었다. 나라의 국민적 통합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각개의 지방별, 영방별, 도시별, 주별 권력들을 깨뜨리는 임무를 가진 제1차 프랑스 혁명은 절대왕정이 시작한 것, 즉 중앙집권화를 발전시켜야 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권력의 범위와 권한, 공무원들도 확장해야 했다. 나폴레옹이 이 국가기구를 완성했다. 정통파 왕정과 7월 왕정은 분업을 확대시킨 것 외에는 더 덧붙인 것이 없다. 이 분업이란 부르주아 사회 내에서 새로운 이익집단들이 창출되는 정도만큼, 따라서 국가행정을 위한 새로운 재료들이 늘어나는 만큼 성장한다. 한 촌락의 교랑, 학교, 공유재산에서부터 프랑스의 철도, 국가재산, 국립대학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통의 이익은 곧 사회에서 분리되어 더 높은 일반적 이익으로서 사회에 대립하게 되었으며 사회 성원의 자주적 활동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정부 활동의 대상이 되었다. 끝으로 의회공화정은 혁명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억압적인 방법으로 정부권력의 수단과 집중을 강화하기 않을 수 없었다. 모든 변혁은 이 기구를 분쇄하는 대신에 완성했다. 번갈아가며 지배권을 놓고 다투던 정당들은 이 거대한 국가조직의 소유를 승자의 기본적인 전리품으로 간주하였다.” (Karl Marx: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1852), in: MECW Vol. 11, pp. 185-186). [칼 맑스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프랑스 혁명사 3부작>, 임지현·이중훈 옮김, 1987년, 소나무, 265-6쪽]

“국가의 일반적 발전 패턴은 따라서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국가가 지배 계급의 유일 조직이다. 그 후 다른 조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수가 특히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크게 증식한다. 국가는 지배계급의 유일 조직에서 지배계급의 여러 조직들 중 하나로 바뀌는데, 그것의 차별점은 그것이 이러한 모든 조직의 가장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데 있다. 끝으로 세 번째 단계가 오는데, 여기서는 국가가 이들 조직을 집어삼키며, 내적으로 기술적 분업을 갖추고서 다시 한 번 지배계급의 유일 보편 조직이 된다. 한 때 독립적이었던 조직 단위들은 거대한 국가 메커니즘의 분과/부서들이 되어 눈에 보이는 국내의 적에게 치명적인 힘을 가지고 달려든다. 이렇게 해서 현대 제국주의 강도국가의 완성형이 나온다. 완강한 완력으로 갈기갈기 찢는 발톱을 가지고 사회생명체를 찍어 내리는 철의 조직 말이다. 이것은 뉴 리바이어던(New Leviathan)으로서, 토마스 홉스의 판타지는 여기에 대면 애들 장난처럼 보인다.”³⁷⁰⁾

요약하자면, 우리가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에서 밝혔듯이, 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그들의 사장과 아무 공통의 이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노동자계급도 한 자본가 국가의 지배계급과 아무 공통의 이해도 가지고 있지 않다. 노동자들이 ‘자기’ 회사의 오너를 약화시키고 패배시키고 마침내 몰수 수탈하길 원하는 것처럼, 한 제국주의 나라의 노동자들도 지배계급을 약화시키고 패배시키고 마침내 타도하길 바란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계급적 적이 연루된 모든 충돌·분쟁을,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고 자신의 투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를 타도, 수탈하고 사회주의 국가와 경

370) Nikolai Bukharin: Toward a Theory of the Imperialist State (1915), in: Robert V. Daniel: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Vol. 1, Vintage Russian Library, Vintage Books, New York 1960, p. 85, <https://www.marxists.org/archive/bukharin/works/1915/state.htm>

제를 만들어낸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조국이나 자신의 기업을 중심으로 방어할 것이다. 오직 그러한 조건 하에서만 자신의 나라를 향한 애국주의는 정당화되고 진보성을 갖는다.

제국주의 열강의 공격을 받고 있는 반식민지 나라의 노동자계급, 또는 외국의 점령이나 반동 독재에 대항하여 싸우는 피억압 인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경우에 조국 방어는 정당하다.

귀족성과 노동귀족에 대하여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우리의 이론에 반대하여 제기하는 논거를 간단히 검토, 논의하는 것으로 이 장을 마치겠다. 제국주의 나라와 반식민지 나라 간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은 제국주의 나라에서 독점자본가들이 전체 노동자계급을 매수하므로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제국주의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상층이 부르주아지에 의해 매수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로 고전적인 맑스주의적 입장이며, RCIT는 이 입장을 각종 문서 속에서 방어하고 상세히 설명해 왔다.³⁷¹⁾ 그러나 제국주의 나라의 노동자 대중이 매수되어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틀렸고 피상적인 과장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어느 정도까지는 제국주의 나라의 노동자 대중이 반식민지 세계에 대한 초과착취로부터 - 예를 들어 의류나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같은 소비

37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Marxism and the United Front Tactic Today. The Struggle for Proletarian Hegemony in the Liberation Movement in Semi-Colonial and Imperialist Countries in the present Period, RCIT Books, Vienna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book- united-front/>, Chapter III

재 상품을 값싸게 수입하는 것으로부터 -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이다.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예를 들어, 식민 열강으로서 영국의 세계패권적 지위의 결과로 영국 자본주의는 19세기의 마지막 분기에 가격 디플레이션을 누렸다. 영국에 거주하는 러시아계 유대인으로 볼셰비키 당의 지지자였고 당시 영국사회당 좌파 지도자였던 테오도르 로트슈타인은 영국의 노동자운동 역사에 관해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가격 디플레이션이 노동자계급 속에서 개량주의와 계급 협조주의 정치를 강화하고 그리하여 노동관료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³⁷²⁾

그러나 여기에는, 자본주의 세계화가 제국주의 나라의 노동자 대중에 미친 불이익을 감안하여 단서가 붙어야 한다. 생산 외주화(아웃소싱), 국제 무역으로 인한 임금 저하, 이주·이민 등등, 이 모든 것이 제국주의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중하층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위에서 보여주었듯이, 북미, 서유럽, 일본에서 노동자계급 대중 - 중하위 숙련 노동 - 은 지난 십년 동안 대규모 임금 하락을 겪었고, 오직 상층만이, 특권적 노동귀족 일부만이 그들의 임금 몫(노동소득 분배율)을 늘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나라들에서조차 프롤레타리아트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 중하위 숙련 노동이다.

표 27에서 보듯이, 기존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노동인력의 60.7%는 중하위 숙련 부문들에 속한다. (전 세계 노동인력을 기준으로 하면 중하위층은 82%로 훨씬 더 커진다.) 모든 노동인력이 노동자계급의 일부는 아니라는 것(고숙련 노동인력이 극히 높은 비율을 이루는 봉급생활 중간층을 감안하라)을 염두에 둔다면, 기존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노동자계급의 결정적 다수는 상층 - 그 상

372) 다음을 보라. Theodore Rothstein: Beiträge zur Geschichte der Arbeiterbewegung in England, Vienna 1929, Chapter "Die Periode des Trade Unionismus"

당 부문이 매수된 노동귀족의 일부인 - 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7. 세계 및 각 지역 숙련별 고용율, 2013년³⁷³⁾

세계 및 지역	저숙련	중간 숙련	고숙련
세계 전체	16.0%	66.0%	18.0%
발달한 경제국	9.8%	50.9%	39.3%
중유럽 & 남동유럽	14.1%	52.4%	33.5%
동아시아	8.2%	79.7%	12.1%
남동아시아 · 태평양 지역	22.0%	65.6%	12.4%
남아시아	27.7%	58.5%	13.8%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해 지역	19.0%	61.3%	19.8%
중동 · 북아프리카	12.0%	65.7%	22.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6.2%	79.2%	4.6%

우리가 볼 때 기존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노동귀족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데 단기적인 (그러나 근본적, 역사적이지는 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노동자 대중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방어하는 데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의 이해는 반식민지 나라들 및 신흥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살고 있는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거대 다수에 합류하여 영구혁명으로 세계적 규모의 사회주의를 수립하기 위해 함께 싸우는 것에 있다.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압도적 다수가 기존 제국주의 나라 밖에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국주의자들의 유화 메커니즘 (계급협조주의적인 개량주의 이데올로기들의 무게,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부유한 섬들”의 일부이고 싶은 희망, 조종하고 통합시키는 미디어계의 정교한 기술 등등)에 덜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국제 계급투쟁과 세계 노동자계급의 초점이 기존 제

373) International Labour Office: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 Trends 2015, pp. 72–89, Supporting Data

국주의 나라들의 외부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달리 말하면, 초점이 남반구로, 그리고 중국과 같은 거대한 프롤레타리아트가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나라들로 옮겨간 것이다.

이로부터 이주자들의 고유하고 중요한 역할이 나온다. 남반구로부터 와서 지금 북미, 서유럽, 또는 러시아에 살고 있는 이주자들은 세계의 두 부분 사이의 전동벨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출신국으로부터 전투적 투쟁 기풍을 북반구로 가져올 수 있고, 또 각종 숙련과 경험을 북반구로부터 남반구로 전달할 수 있다.

14장.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의 국제주의적 성격과 스탈린주의 “일국 사회주의”론의 사회애국주의적 성격

프롤레타리아트를 국제적 계급으로, 따라서 계급투쟁을 그 본성상 국제적인 것으로 보도록 의무화하는 추가 요인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일반, 그리고 특수하게는 독점자본주의 (즉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주의)는 오직 정치적·경제적 세계체제로 인식될 때에만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고 맑스주의자들은 항상 강조해왔다. 각국에서의 정치적·경제적 관계는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결코 단순히 내부적 요인들에서만 비롯할 수 없다. 제국주의는 함께 묶여 있는 민족 국가들 및 민족 경제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다. 제국주의는 오히려 세계경제와 세계정치가 결정적인 동력이 되는 경우다. 이러한 동력은 민족적 요인들의 용광로로 기능하며, 민족국가들의 상위에서 군림하는 독립적인 총체를 이룬다. 세계자본주의의 결합·불균등 발전은 한 나라의 지역적 특수성과 일치를 이루어 그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특수한 민족적 동역학과 융합한다.³⁷⁴⁾

374)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 논문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었다. Michael Pröbsting: Capitalism Today and the Law of Uneven Development: The Marxist Tradi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Present Historic Period, in: Critique: Journal of Socialist Theory, Vol. 44, Issue 4, 2016, <http://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03017605.2016.1236483>

맑스는 <<자본론>>의 “기초 작업”인 <<정치경제학 비판 강요 (그룬트리세)>>에서 이미 이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세계시장에서 개별자의 그 밖의 다른 모든 것과의 연관은 — 그러나 동시에 개별자로부터 이 연관의 독립성도 또한 —, 그 연관의 형성 자체가 그 연관이 지양될 조건을 이미 담아내는 그러한 지점으로까지 스스로 발전했다.”³⁷⁵⁾

나중에 트로츠키는 이 근본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그의 영구혁명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일국 경제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세계경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로츠키는 세계경제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강조했다. 정치의 지형에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

“맑스주의는 세계경제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일국적 요소들의 총합이 아니라 국제 분업과 세계시장에 의해 창조된 막강한 독립적인 실체이자 우리 시대에 일국 시장을 오만하게 지배하고 있는 세계경제 말이다”³⁷⁶⁾

최근 몇 십 년 동안 세계경제에서의 사태전개를 보면, 점점 더 지배적으로 되어가는 세계시장의 역할에 관한 맑스주의적 진단의 옳음이 완전히 입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세계화는 세계 상품 수출입의 대대적인 증가 — 글로벌 생산 대비 — 를 가져왔다. 그와 비슷하게 자본수출도 글로벌 자본축적 총액 대비 실질적인 증가를 보여 왔다. 이에 대해 우리가 다른 데서 제시한 내용을 보자.

“독점체들은 국내시장에서의 이윤을 하락으로 인해, 그리고 국내시장만

375) Karl Marx: Grundrisse [Outlines of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Rough Draft of 1857–58)]; in: MECW 28, p. 98

376) Leon Trotsky: The Permanent Revolution (1929), Pathfinder Press, New York 1969, p. 146

으로는 너무 협소하리만치 거대한 규모로 쌓아올린 자본축적 량으로 인해 더욱 더 국제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경쟁으로 인해 더욱 더 대규모의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 거액의 투자 자체가 다시 이윤 실현을 위한 더욱 더 큰 시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또한 독점체들로 하여금 수출 시장과 더 싼 노동력을 찾아 여기에 생산의 일부를 아웃소싱하도록 추동한다. 현대 기술과 값싼 운송비용은 이 과정을 촉진한다. 전 세계에 걸친 시장 개방 압력이 이 과정과 발 맞춰 진행된다. 이러한 상황 발전의 결과로 지난 25년 동안 자본수출이 제국주의 국가와 ‘발전도상국’ 모두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졌다.”³⁷⁷⁾

두 개의 수치를 가지고 이것을 증명해보자. 그림 33에서 보듯이, 자본수출 (외국인직접투자로 표현된)과 세계시장의 글로벌 통합은 이 현상을 매개로 해서 자본주의 역사상 결코 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그림 34에서도 1820년부터 오늘까지 자본주의 역사 전체에 걸쳐 글로벌 무역이 어느 정도나 증가했는지 - 세계 생산량 대비 속에서 볼 때 -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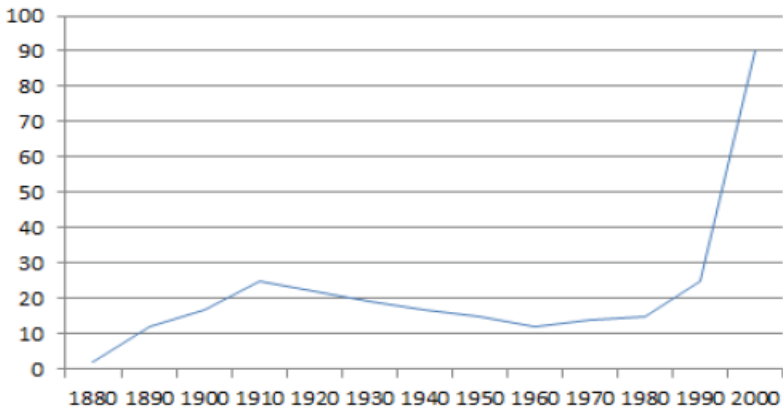
자본주의에 대한 이 같은 세계적 관점으로부터 맑스주의자들이 기초해야 할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세계적 관점이, 따라서 계급투쟁에 대한 세계적 관점이 도출된다. 이것은 노동자계급 정치 일반에, 그리고 특수하게는 노동자계급의 반전·반제국주의 전술에 깊은 결과를 미친다.

이러한 관점은 개량주의적 “일국 사회주의”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레닌과 볼셰비키가 발전시켰고 나중에 트로츠키의 제4 인터내셔널이 옹호한 국제주의 전략에 대항하여 스탈린주의자들이 맞세운 그 “일국 사회주의” 이론과 말

377)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Imperialism and the Decline of Capitalism (2008), in: Richard Brenner, Michael Pröbsting, Keith Spencer: The Credit Crunch - A Marxist Analysis (2008),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and-globalization/> [국역: <제국주의와 쇠퇴하는 자본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imperialism-and-decline-of-capital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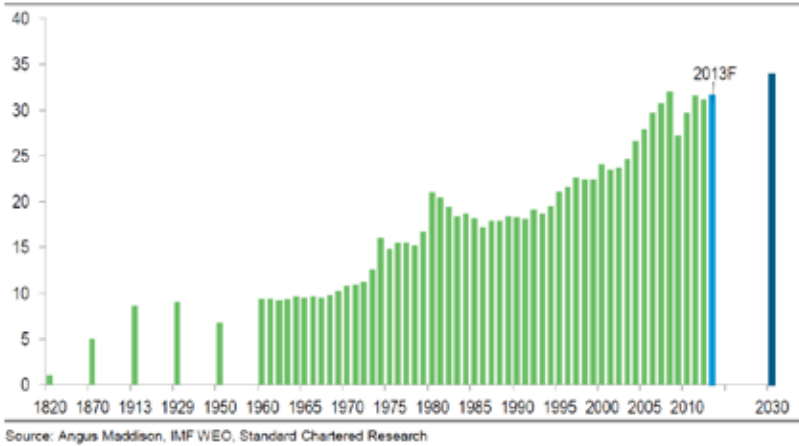
이다. 이 스탈린주의 이론은 사회주의가 — 즉 자본주의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생활수준을 주민이 누리는 번영하는 사회가 — 다른 나라들에서 노동자계급의 승리 없이 한 나라에서 건설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소련의 대외정책은, 그리고 그에 따라 코민테른의 정치는 더 이상 혁명을 국제화하는 목적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스탈린의 소련에서 “사회주의”의 건설을 돕는 것이 되어야만 했다.

그림 33. 글로벌 FDI (GDP 대비 %), 1880-2000년³⁷⁸⁾



378) Michael Roberts: A world rate of profit, Globalisation and the world economy (2012), p. 2, http://thenextrecession.files.wordpress.com/2012/07/roberts_michael-a_world_rate_of_profit.pdf

그림 34. 세계 GDP에서 세계 수출 점유율, 1820 - 2013년³⁷⁹⁾



트로츠키는 두 이론 간의 대비를 영구혁명에 관한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상호배제적인 두 관점을 만난다. 하나는 영구혁명이라는 국제 혁명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일국 사회주의라는 민족적 개량주의 이론이다. 낙후된 중국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계의 어떤 나라도 자국 한도 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 일국적 경계를 넘어 성장한 고도로 발달한 생산력이 여기에 저항한다.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생산력이 국유화에 저항하듯이 말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중국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맞부딪힐 난관과 모순과는 성격상 다른, 그러나 아마도 그보다 가볍지 않은 난관과 모순을 마주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이러한

379) The super-cycle lives: EM growth is key, Standard Chartered Bank, Special Report, 06 November 2013, p. 13

모순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국제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 서는 중국이 사회주의적 변혁이 가능할 만큼 ‘성숙’한가, ‘미성숙’한가 같은 문제는 끼어들 여지가 없다. 여기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없이 분명한 것은 중국의 낙후함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과제를 극히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반복한다. 역사는 순서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으며, 중국 프롤레타리아트는 다른 어떤 선택지도 없다.”³⁸⁰⁾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에 대항하는 혁명적 투쟁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국적으로 고립된 속에서 노동자계급이 항구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을 신봉하는 스탈린주의자들은, 제국주의 부르주아지가 사회주의 나라에 간섭하고 공격하는 것을 노동자계급이 막아내는 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일국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론짓는다. 스탈린주의자들은 레닌과 그 밖의 많은 맑스주의자들이 밝힌 근본적 진실, 즉 자본주의에서 전쟁은 불가피하며 제국주의자들은 결코 노동자국가와 평화적으로 공존하지 않을 것이고 할 수도 없다는 그 진실을 무시했다. 실제로, 제국주의자들은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그리고 1989-91년 소련 붕괴 때까지의 서방과 소련 간 냉전 등을 촉발시켰다.

스탈린주의자들은 그들의 잘못된 이론의 전술적 귀결로서 “세계 부르주아지의 중립화” 가능성을 선언했다. 즉 세계 부르주아지가 노동자국가를 공격하는 것을 단념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이론적으로 공상적이며 역사적으로 그 허구성이 입증되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아직 권력을 장악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부르주아

380) Leon Trotsky: The Permanent Revolution (1929), Pathfinder Press, New York 1969, p. 255

지가 자신의 권력을 전쟁에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는, 그러한 조건이란 불안정한 계급 균형이 그 최고도로 표현된 조건이다. 균형이 불안정하다고 할 때는 다른 아니라 균형이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다. 그것은 한 쪽 또는 다른 쪽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에 오르는 쪽이든, 아니면 부르주아지가 행동의 자유를 되찾기에 충분히, 일련의 궤멸적 타격에 의해 혁명적 압력을 — 무엇보다도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서 — 약화시키는 쪽이든 말이다. 오직 개량주의자만이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압력을, 영구적으로 증대하는 요인으로, 그리고 간섭을 막아줄 보장책으로 그려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관념으로부터, 세계 부르주아지의 중립화를 전제한 일국 사회주의의 건설 이론 (스탈린)이 나온다. 부엉이가 해가 지기 시작해야 날개를 펴듯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압력에 의한 부르주아지의 중립화라는 스탈린주의 이론도 이 이론을 낳은 조건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날개를 폈다.”³⁸¹⁾

부르주아지를 평화주의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이러한 평화주의적 잠고대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에 대한 공공연한 투항으로 결과하기 마련이었다. 트로츠키는 이미 1928년에, 스탈린주의적 민족주의 편향은 사회에국주의적 파산으로, 그리고 관료가 제국주의의 한 진영과 협력하는 (다른 한 진영에 대항하여) 것으로 결과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예견했다.

“이 중심 문제에 관한 강령상의 국제적 지향에 의해서만, 그리고 사회에국주의적 밀수품 – 아직은 은폐되어 있지만, 레닌 인터내셔널의 강령 속에서 자신의 이론적 동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 에 대한 단호한 거부에 의해서만, 부르주아 국가와 관련하여 프롤레타리아트를 패전주의 입장으로 이

381) Leon Trotsky: The Permanent Revolution (1929), Pathfinder Press, New York 1969, pp. 267–268

끝 수 있다.”³⁸²⁾

더 이상 노동자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에 이러한 생각들이 어떤 적실성을 가지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우리가 위에서 보여주었듯이, 스탈린주의자들 및 준 스탈린주의자들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 또는 “기형화된 노동자국가”로 보고 있다. 다른 수정주의자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를 정치적으로 기존 제국주의 국가들보다 질적으로 우월한 그 무엇으로 보고 있고, 그리하여 이 신흥 강대국들에 대한 지지를 내걸고 있다. 게다가 개량주의자들이 “준 파시스트”, 초반동 미국에 대항하여 “자유주의적”인, “보다 민주주의적”인 유럽연합을 방어하는 시나리오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사회애국주의는 많은 다양한 길을 취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두 제국주의 조국 방어로 끝난다. 트로츠키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애국주의는 사회제국주의를 은폐하는 가면에 불과하다.”³⁸³⁾

사회애국주의의 이론적 뿌리는 “일국 사회주의”론이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성격을 청산하고,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으로 구현된 계급투쟁의 국제주의적 본질을 소거한 파산한 수정주의 이론이다.

“일국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론은 승리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애국주의와 부르주아 나라의 프롤레타리아트의 패전주의 사이의 내적 연관을 파괴한다. 선진 자본주의 나라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여전히 권력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³⁸⁴⁾

382) Leon Trotsky: *The Third International After Lenin, The Draft Program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A Criticism of Fundamentals* (1928),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0, p. 73

383) Leon Trotsky: *Progressive Paralysis, The Second International on the Eve of the New War* (1939), in: *Writings of Leon Trotsky, 1939-40*, p. 37

384) Leon Trotsky: *The Third International After Lenin, The Draft Program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A Criticism of Fundamentals* (1928),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0, p. 72

파멸적인 스탈린주의 “일국 사회주의”론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하는 혁명적 투쟁의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강령과 당 건설 문제에서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국 사회주의”는 ‘자국’에서의 계급투쟁을 우선시하고 타국에서의 계급투쟁을 도외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로, “일국 사회주의”는 또한 일국에서의 당 건설을 우선시하고 타국에서의 당 건설을 도외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일국 사회주의”는 보통 ‘자국’에서의 민족 소수자와 이주자에 대한 무시 태도 또는 심지어 사회배외주의적 태도를 낳는다. 요컨대, “일국 사회주의”는 이론적, 강령적, 조직적 영역에서 ‘자’ 민족 중심성과 민족 개량주의로 귀착한다.

실제로, 우리는 그와 같은 조직들을 많이 보는데, 이들은 혁명가로 행동할 용의는 있지만, 그러나 무의식적으로는 “일국 사회주의” 사상에 감염되어 있어 국제 사업 대비 일국 사업에 배타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그 결과로 그들은 국제 계급투쟁과 혁명적 세계당 건설 문제들에 제대로 대처하기를 거부한다.

트로츠키는 1928년 그의 스탈린주의 강령 비판 속에서 국제 강령은 세계당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그 어떤 일국 조직과 관련해서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일국 정치는 국제적 맥락 없이는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시대, 제국주의 시대에, 즉 세계경제와 세계정치가 금융자본의 헤게모니 하에 있는 이 시대에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국’에서의 발전 조건 및 발전 경향으로부터 나아가서는 단 하나의 공산주의 당도 자신의 강령을 수립할 수 없다. 이 점은 소비에트연방(USSR)의 경계 내에서 국가권력을 휘두르는 당에 대해서도 그대로 해당된다. 1914년 8월 4일, 일국 강령에 영원히

조종이 올랐다.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당이 그 기초를 둘 수 있는 것은 오직 현 시대 — 자본주의의 최고 발달 및 붕괴 시대 — 의 성격에 조응하는 국제 강령뿐이다. 국제 공산주의 강령은 결코 민족 강령들의 총합이나 그것들의 공통 특징들의 혼합물이 아니다. 국제 강령은 전체로서의 세계경제와 세계정치체제의 조건 및 경향을 그 모든 연관과 모순 속에서, 즉 그 각 부분들의 상호 적대적인 내적 의존 관계로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직접 출발해야 한다. 현 시대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정도로, 프롤레타리아트의 민족적 방향은 오직 세계적 방향으로부터만 나와야 하며 또 나올 수 있다. 그 역은 아니다. 바로 여기에 공산주의적 국제주의와 온갖 민족 사회주의 간의 기본적인 이고 일차적인 차이가 있다.”³⁸⁵⁾

같은 이유로, 혁명적 조직은 민족적 지형 위에서 만으로는 건설될 수 없다. 그것은 국제적 조직으로서 동시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트로츠키는 국제 조직 건설을 “시기상조”라고 간주한 혁명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동지들의 국제주의 관(觀)은 내가 볼 때 오류입니다. 결국 동지들은 인터내셔널을 민족 지부들의 합계 또는 민족 지부들의 상호 영향의 산물로 취급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일면적인, 비변증법적인, 따라서 그릇된 인터내셔널 관입니다. 만약 전 세계의 공산주의적 좌파가 단지 5명의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들은 그럼에도 국제 조직을 건설할 의무를 집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민족 조직 건설과 동시적으로 말입니다.

민족 조직을 토대로 보는, 그리고 인터내셔널은 그 위의 지붕으로 보는 것은 오류입니다. 여기서의 상호관계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관계입니다. 맑스와 엥겔스는 1847년에 공산주의 운동을 국제 문서와 국제 조직 창설로 시작했습니다. 같은 것이 제1 인터내셔널 창설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바로 같은

385) Leon Trotsky: The Third International After Lenin (1928),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0, p.4

길이 치머발트 좌파에 의해 제3 인터내셔널 준비에서도 답습되었습니다. 오늘 이 길은 맑스의 시대보다 훨씬 더 위압적으로 우리에게 취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국주의 시대에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경향이 이 또는 저 어느 한 나라에서 등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고립된 나라에서 번성하고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의 형성 바로 다음날 그것은 국제적 유대, 국제적 정강, 국제적 조직을 찾아야만 또는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일국 정책의 올바름에 대한 보장은 오직 이 길을 따라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가도록 계속해서 일국적으로 차단된 채 머물러 있는 조직은 그 자신을 돌이킬 수 없이 타락으로 내몰니다.

동지들은 원칙 있는 국제 문서가 결여되어 있다는 근거로 국제반대파(International Opposition)와 당신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문제에 답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문제에 대한 그러한 접근방식을 순 형식적이고 생명 없는, 그리고 정치적이지 않은, 혁명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강이나 강령은 일련의 공통의 사상과 방법에 근거한 폭넓은 공동활동 경험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동지들의 1925년 정강은 동지들이 분파로서 존재한 바로 첫 날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반대파는 그들의 투쟁 제5년에 정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정강은 동지들의 정강보다 2년 반 뒤에 나왔지만, 그것 역시 많은 점에서 시대에 뒤떨어져버렸습니다.”³⁸⁶⁾

요약하자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는 세계체제로 존재하며, 오직 그렇게만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체제에 대항하는 투쟁은 국제적 계급투쟁의 길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며, 사회주의 세계경제와 세계적 규모의 노동자·농민 공화국 연방의 창설을 목적으로 해야만 한다. 그러한 투쟁은 세계당, 즉 민족적 고립 집단들이 아닌 국제적 조직을 요구한다.

386) Leon Trotsky: To the Editorial Board of Prometeo (1930); in: Writings 1930, pp. 285-286

15장.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라는 격언의 의미

분쟁 · 전쟁에 대한 맑스주의적 접근법은 그것들이 전쟁 일반과 분리된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전쟁 일반의 특정 측면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V.I. 레닌은 19세기 초 프로이센의 군사 이론가 칼 폰 클라우제비츠에 대해 경탄해마지 않았는데, 그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³⁸⁷⁾라는 유명한 말로 군사적 충돌의 본질을 요약한 바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그의 책 <<전쟁론>>에서 이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쟁은 정치의 도구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정치의 성격을 띠게 마련이며, 정치의 잣대로 재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전쟁 수행은 그 큰 특징으로 볼 때 정치 그 자체로서, 펜 대신 칼을 드는 것이지만, 그 때문에 자신의 법칙에 따라 사고하기를 멈추지 않는다.”³⁸⁸⁾

실로, 어느 계급이든 그 계급에 의해 수행되는 전쟁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 경제적 목적을 위한, 즉 자신의 이익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점은 부르주아주의의 정치에도, 프롤레타리아트와 그 밖의 피억압

387) Carl von Clausewitz: Vom Kriege (1832), Hamburg 1963, p. 22; in English: Carl von Clausewitz: On War, <http://www.gutenberg.org/files/1946/1946-h/1946-h.htm>

388) Carl von Clausewitz: Vom Kriege (1832), Hamburg 1963, p. 221; in English: Carl von Clausewitz: On War, <http://www.clausewitz.com/readings/OnWar1873/Bk8ch06.html#B>

계급들의 정치에도 공히 적용된다.

제국주의 국가가 전략적 영토들이나 자기 식민지들을 장악하기 위해 라이벌 국가를 공격하는 전쟁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간 1차 세계대전), 강대국이 반식민지의 경제 자원을 강탈하기 위해 (예를 들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또는 그 지역에서 제국주의 지배를 약화시키는 반란을 저지하기 위해 (예를 들어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에 체첸에 대한 러시아의 두 차례 전쟁) 반식민지를 공격하는 전쟁일 수도 있다. 한편 외국 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예를 들어 2001년 이라 미군에 대한 아프간의 저항이나 에티오피아 주도의 아프리카연합군[AU]에 대한 소말리아의 투쟁), 또는 반동 독재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예를 들어 1953-59년에 쿠바에서 바티스타 정권에 대해, 2011년 리비아에서 카다피 정권에 대해, 2011년 이라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에 대해) 피억압 계급의 전쟁일 수도 있다.

이것을 레닌의 말로 옮긴다면, “전쟁과 관련하여, 부르주아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플레하노프가 그리도 파렴치하게 왜곡시킨 변증법의 근본 명제는 **‘전쟁은 단지 다른 (즉 폭력적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 는 것이다. 이것은 전쟁사의 가장 위대한 저술가 중 한 사람인 클라우제비츠의 명제다. (그의 사상은 헤겔로부터 자양분을 공급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입장이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어떠한 전쟁도 주어진 시기에 관련 강대국들의 — 그리고 이들 나라 내부의 각 계급들의 — 정치의 계속에 다름 아니라고 보았다.”³⁸⁹⁾

전쟁은 정치의 일부다. 정치는 전쟁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1936년에 미국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낸 소책자에서는 이 근본 사상을 다음과 같이 아주 적절

389) V.I.Lenin: The Collapse of the Second International (1915), in: LCW Vol. 21, p.219 (강조는 원저자). [레닌 <제2 인터내셔널의 붕괴>, 레닌전집 59권 (“제2 인터내셔널의 붕괴”), 양호식 옮김, 227쪽]

하게 정식화했다.

“전쟁이 걸치는 도덕적, 종교적, 인종적, 이데올로기적 위장복이 현대 전쟁의 진정한 원천인 근본적인 갈등을 감추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피할 수 없는 일반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현대 전쟁은 우연도, 인간 본성의 사악함 때문도, 신이 명한 것도 아니다. 전쟁은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의 본질 자체다. 임금노동이 자본주의의 본질 자체인 것처럼 말이다. 전쟁 없는 자본주의를 말하는 것은 허파 없는 인간을 말하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의 운명은 전쟁의 운명과 뿔 수 없이 묶여 있다.”³⁹⁰⁾

이와 같이 전쟁 문제에 대한 맑스주의자의 접근법은 계급 간 투쟁의 여타 측면들에 대한 접근법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노동자계급 정치는 평화 시에나 전쟁 시에나 모든 제국주의 열강의 지배계급 (및 지배계급의 서로 다른 파벌들)으로부터 계급적 독자성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리하여 평화 시에나 전쟁 시에나 자본가들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자본가들을 타도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레닌은 평화 시에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계급투쟁 원칙을 지지했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 모든 전쟁은 그 전쟁을 낳은 정치체제와 분리할 수 없다. 어느 해당 국가, 국가 내 어느 해당 계급이 전쟁 전 장기간 동안 추구한 정치는 전쟁 중에 바로 그 같은 계급에 의해 계속되게 마련이다. 단지 행동의 형태만이 달라질 뿐이다.”³⁹¹⁾

트로츠키도 이러한 사상을 제4 인터내셔널 창설 강령에서 제시했다. “제국주의 전쟁은 부르주아지의 약탈 정치의 계속이자 첨예화다. 전쟁에 대항하는

390) John West (James Burnham): War and the Workers (1936), Workers Party Pamphlet, <https://www.marxists.org/history/etol/writers/burnham/1936/war/index.htm>

391) V. I. Lenin: War and Revolution (1917), in: LCW 24, p. 400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은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계속이자 첨예화다. 전쟁의 시작은 계급 간 투쟁의 상황을, 그리고 부분적으로 투쟁의 수단을 바꿔놓지만, 투쟁의 목적과 기본 경로를 바꿔놓지는 않는다.”³⁹²⁾

이것은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대외정치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실이다. 트로츠키는 <<전쟁과 제4 인터내셔널>>에 관한 테제에서 지배계급과 프롤레타리아트 양자 모두의 대내정치와 대외정치 간의 긴밀하며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해 강조했다. 프롤레타리아트 전위는 제국주의 부르주아지 및 그 파벌들 – 국내 파벌들과 국외 파벌들 모두 – 각각으로부터의 계급 독자 정치를 옹호한다. “각 계급의 대외정치는 그 국내정치의 계속이자 발전이다.”³⁹³⁾

달리 말하면, 혁명적 패전주의의 방법 전체는 특별히 전쟁에 대한 ‘별도의 전술’을 가지지 않으며, 오히려 제국주의 부르주아지 일체 (및 그 각 분파)에 대해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둔 전술 – 전쟁 시에든 평화 시에든 계급투쟁의 모든 국면에 타당한 전술 – 의 계속을 요구한다.

이런 이유로 맑스주의자들은 바로 그 동일한 “혁명적 패전주의” 방법을 단지 제국주의 나라들 간 대립 · 충돌의 경우에만 적용하지는 않는다. RCIT도 그러한 방법을, 예를 들어 국가 간 동맹에서 제국주의 국가의 멤버십 문제 (EU 멤버십 문제 같은)에 적용한다.³⁹⁴⁾

392) Leon Trotsky: The Death Agony of Capitalism and the Task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The Transitional Program (1938);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New York 1973, p. 199. [트로츠키 <이행기강령>, 김성훈 옮김, <<사회혁명을 위한 이행기강령>>, 2003년, 풀무질, 86쪽]

393) Leon Trotsky: War and the Fourth International (1934), in: Trotsky Writings 1933–34, p. 313

39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Marxism, the European Union and Brexit, The L5I and the European Union: A Right Turn away from Marxism, The recent change in the L5I's position towards the support for EU membership represents a shift away from its own tradition, of the Marxist method, and of the facts; August 2016, in: Revolutionary Communist No. 55,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eu-and-brexiti/>; Michael Pröbsting: Does the EU Represent “Bourgeois Democratic Progress”? Once again, on the EU and the Tactics of the Working Class – An Addendum to our Criticism of the L5I's Turn to the Right and Its Support for EU Membership, 16,09,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eu-brexiti-article/>; RCIT: After the BREXIT Vote – Stormy times ahead for the workers and oppressed in Britain, 24,6,2016, <http://www.>

또 하나 비슷한 문제는 공공연한 부르주아 후보들만 경쟁하고 있는 선거의 경우다. (공화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경쟁하는 미국 대선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혁명가들은 이들 후보 누구도 지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기권을 요구한다.³⁹⁵⁾

이런 맥락에서, 혁명가들은 정치 전술과 군사 전술 간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클라우제비츠의 저술을 연구해야 한다는 레닌의 권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린(V. I. Sorin)은 레닌 생전의 마지막 기간 중에 발표한 글에서 그 볼셰비키 지도자가 클라우제비츠의 중요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레닌은 “정치 전술과 군사 전술을 독일어로 그렌츠게비이트(*Grenzgebiet*; 국경 지방처럼 두 가지가 혼합, 교차하는 영역)라고 하는데, 당 일꾼들은 독일의 군사 이론가들 중 가장 위대한 이론가인 클라우제비츠의 저작을 우위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³⁹⁶⁾

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brexit-vote-results/; RED*LIBERATION (Bulletin of Socialists in the Labour Party): UK: No to Cameron’s Trap: Neither YES nor NO to UK membership in the EU! For Abstention in the Referendum! We call on Momentum to create a “Third Camp” and to launch a socialist and internationalist campaign! For international Unity of the British, Migrant and European Workers! 25 February 2016, <https://redliberation.wordpress.com/2016/05/02/100/>; RCIT und RCIT Britain: Boycott Cameron’s Trap: Neither Brussels, nor Downing Street! For Abstention in Britain’s EU-Referendum! For international Unity and Struggle of the Workers and Oppressed! Fight against both British as well as European Imperialism! Forward to the United Socialist States of Europe, 2 August 2015, <http://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eu-referendum-in-uk/>; Michael Pröbsting: The British Left and the EU-Referendum: The Many Faces of pro-UK or pro-EU Social-Imperialism, An analysis of the left’s failure to fight for an independent, internationalist and socialist stance both against British as well as European imperialism, Revolutionary Communism Nr. 40, August 2015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british-left-and-eu-referendum/>

39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Yossi Schwarz: Why Not to Vote for the Democratic Party in the Forthcoming US Elections Or At Any Other Time, 2,3,2016,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north-america/no-vote-sanders/>; Yossi Schwarz: Once Again: Opportunism of US Left Exposed, An Analysis of the US 2016 Elections Campaign, 14 August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north-america/left-and-us-election/>; Michael Pröbsting: The Meaning, Consequences and Lessons of Trump’s Victory, On the Lessons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Outcome and the Perspectives for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lass Struggle, 24, November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meaning-of-trump/>

396) V.I.Sorin: Marxism, Tactics, and Lenin (Pravda, No. 1, 1923), 다음에서 인용. A.S. Bubnov: Preface to Lenin’s “Notebook on Clausewitz” (1931), in Donald E. Davis and Walter S.G. Kohn: Lenin on Clausewitz, in: Soviet Armed Forces Review Annual, Vol. I, Academic International Press, 1977, Gulf Breeze, Florida, p.

요약하면, 맑스주의자들은 전쟁 시에라고 해서 지배계급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며,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평화 시에 뿐만 아니라 전쟁 시에도 '자'국 제국주의 정부에 근본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혁명적 패전주의의 정치는 언제나 동일한 강령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즉 부르주아지의 모든 분파로부터, 그리고 모든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위한 투쟁이 그것이다.

193. On Lenin's thoughts on Clausewitz and the military question in general, in addition to his Notebook mentioned above, see also: Jacob W. Kipp: Lenin and Clausewitz: The Militarization of Marxism, 1914-1921, in: Military Affairs Vol. 49, 1985, pp. 184-191; James Ryan: 'Revolution is War': The Development of the Thought of V. I. Lenin on Violence, 1899-1907, in: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89, No. 2 (April 2011), pp. 248-273; Israel Getzler: Lenin's Conception of Revolution As Civil War, in: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74, No. 3 (Jul., 1996), pp. 464-472.

우리는 이 참에 스탈린주의의 기만성을 잘 보여주는 일화 하나를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나에게는 레닌의 《클라우제비츠에 관한 노트》 영어본과 독일어본이 모두 있어서 그 두 본의 서문을 비교해볼 수 있었다. 두 본은 글자 하나하나 모두 똑같았다. 그러나 원본은 1931년에 A.S. Bubnov가 썼는데 독일어본은 "Otto Braun"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Bubnov가 그 동안 스탈린주의자들에 의해 박해받아왔기 때문에 독일의 스탈린주의자가 그 서문에 자기 이름을 달아 낸 것이다! (독일어본: W. I. Lenin: Clausewitz' Werk 'Vom Kriege'. Auszüge und Randglossen, Verlag des Ministeriums für nationale Landesverteidigung, Berlin 1957) 우리는 스탈린주의자들이 이와 같이 원저자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여러 번 실행해 온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맑스·엥겔스 전집의 "아버지"는 위대한 역사가 David Rjazanov 였다. 그러나 그가 스탈린주의자들에 의해 박해받고 나중에 살해된 이후 더 이상 그의 이름은 유명한 책들에서 절대로 볼 수 없었다! (맑스·엥겔스 전집에 관한 Rjazanov의 저작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David Borisovič Rjazanov: Vorwort zur MEGA 1927, in: UTOPIE kreativ, H. 206 (December 2007), pp. 1095-1011; Bud Burkhard: D. B. Rjazanov and the Marx-Engels Institute: Notes toward further Research, in: Studies in Soviet Thought 30 (1985), pp. 39-54; Colum Leckey: David Rjazanov and Russian Marxism, in: Russian History/Histoire Russe, Vol. 22, N° 2 (1995); David Borisovič Rjazanov und die erste MEGA, Beiträge zur Marx-Engels-Forschung, Neue Folge, Sonderband 1, Argument, Hamburg 1996)

16장. 결합 전략으로서의 혁명적 패전주의

우리는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피력했다. “혁명적 패전주의의 두 가지 근본적인 측면 - (i) 강대국 간 분쟁에서 어느 쪽 편들기도 거부하기, (ii) 제국주의자들을 패퇴시키기 위해 피억압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기 - 은 뿔 수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강대국 간 긴장은 많은 부분 각 강대국 지배계급들이 서로 경쟁 상대방을 희생시켜 남반구에서 자신의 세력권을 확대시키려는 데서 비롯한다. 피억압 인민에 대한 억압과 초과착취는 강대국들의 세계 지배 드라이브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법이 반제국주의 투쟁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종종 무시되거나 오해되는) 측면 중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보다 상세히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다시 강조해야 할 것은 제국주의 · 군사주의 ·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은 자본주의의 여타 측면들에 대항하는 투쟁과는 다른 법칙에 매여 있는 별개의 투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사주의와 전쟁은 동일한 자본주의 체제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들이며, 따라서 제국주의와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은 계급투쟁의 여타 모든 분야에서처럼 동일한 독립적 계급투쟁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레온 트로츠키가 이끈 제4 인터내셔널은 1936년 대회에서 채택한 결의 속

에서 이 점을 매우 명확하게 제시했다.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은 계급투쟁 자체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그 무엇으로 수행될 수 없다.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즉 가차 없이 제국주의 전쟁과 억압을 낳고 이 쌍둥이 재앙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저 사회질서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비타협적 투쟁으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투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계급투쟁 자체와 분리된 또는 그 "위에" 있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 어떤 시도도 잘해야 잔인한 환상이며, 보통은 제국주의 전쟁광들의 공작을 용이하게 해 주는 악의적인 속임수다.”³⁹⁷⁾

우리가 이하의 장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할 것인 바, 맑스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전쟁을 구별한다. *억압 전쟁*과 *해방 전쟁*이 그것이다. 억압 전쟁은 지배계급의 전쟁으로, 그들의 반동적 이해를 타자를 희생시켜 관철하려는 전쟁 - 그들의 자본주의 라이벌에 대해서나, 아니면 노동자계급 및 피억압 인민에 대해서나 - 이다. 사회주의자들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한 억압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사회주의자의 지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해방 전쟁이다. 그러한 전쟁은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의 이해를 방어하는 전쟁이다. 그러한 전쟁은 *내란·내전*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36-39년 스페인 내란, 카슈미르 인민에 대한 인도의 전쟁, 체첸 인민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2011년 이래 시리아 내전이 그것이다. 또 그러한 전쟁은 국가 간 전쟁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혁명 러시아나 반식민지 나라들 (아프간, 이라크 등)에 대한 제국주의 전쟁들이 그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전쟁에서 프롤

397) Leon Trotsky: Resolution on the Antiwar Congress of the London Bureau (1936),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New York 1973, p. 98

레타리아트와 피억압 인민을 지지하고 반동 진영의 패배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의무다.

트로츠키는 1932년 반전 대회 성명에서 전쟁에 관한 맑스주의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자본주의 강도들은 언제나 “방어” 전쟁을 수행한다. 일본이 상하이를 향해 진군하고 프랑스가 시리아나 모로코를 향해 진군하고 있을 때조차도 말이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가 구별하는 것은 오직 억압 전쟁과 해방 전쟁 간의 구별뿐이다.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외교적 날조가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계급이 누구인가, 이 전쟁에서 그 계급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다. 제국주의 국가의 전쟁은, 그 핑계와 정치적 수사와는 별개로 억압적인 성격을, 반동적인, 그리고 인민에게 적대적인 성격을 갖는다. 오직 프롤레타리아트와 피억압 민족들의 전쟁만이 해방 전쟁으로 성격 규정 할 수 있다...”³⁹⁸⁾

맑스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 · 피억압인민 진영을 방어하는 강령을 “방위주의”라고 부르는 반면, 반동 진영을 패퇴시키는 강령을 “패전주의”라고 부른다. 트로츠키는 전쟁의 진정한 성격을 인식하고 올바른 강령적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혁명 조직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혁명 문제 다음으로 전쟁 문제는 혁명적 당의 시금석이다. 여기에는 어떤 모호함도 허용되지 않는다. 원칙 있는 결정은 이미 사전에 명확하다. 방위주의와 패전주의는 물과 불처럼 양립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진리를 당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³⁹⁹⁾

그 가장 일반적인 정의에서 맑스주의적 패전주의 강령은 혁명가들이 제국

398) Leon Trotsky: Declaration to the Antiwar Congress at Amsterdam (1932), in: Writings 1932, p. 153 (강조는 원저자)

399) Leon Trotsky: Defeatism vs. Defensism (1937), in: Trotsky Writings 1937–38, p. 86

주의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노동자·피억압자의 계급투쟁을 전쟁 시에 계속하며 계급적 적에 대한 어떠한 지지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가들은 전쟁 조건들을 활용하여 계급적 적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패퇴시키기를 바란다. 좌익반대파(Left Opposition)가 스탈린주의적 수정주의자들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가운데 1927년 공식 문서에서 패전주의의 핵심을 정식화한 것이 여기 있다.

“패전주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당의 과거 역사 전체에서 패전주의는 외부 적과의 전쟁에서 자국 정부의 패배를 바라는 것, 그리고 내부의 혁명적 투쟁에 의해 그러한 패배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것은 물론 자본가 국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었다.”⁴⁰⁰⁾

트로츠키 자신은 같은 해에 다소간에 일치하는 정의를 제시했다. “패전주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적(敵) 계급의 수중에 있는 ‘자국’ 국가의 패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⁴⁰¹⁾

제4 인터내셔널의 지도자로 1938년에 스탈린주의 비밀경찰 게페우(GPU)에 의해 살해당한 루돌프 클레멘트는 트로츠키가 칭찬한 한 글에서 혁명적 패전주의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일 따름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전시에 자신의 계급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부르주아지가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건넨 새로운 수단을 가지고 계속해야 한다. 프롤레타리

400) L. Trotsky, G. Zinoviev, Yevdokimov: Resolution of the All-Russia Metal Workers Union (1927); in: Leon Trotsky: The Challenge of the Left Opposition (1926-27), pp. 249-250 (강조는 원저자)

401) Leon Trotsky: 'Defeatism' and Clemenceau (1927); in: Leon Trotsky: The Challenge of the Left Opposition (1926-279), p. 252

아트는 제국주의 나라에서 전쟁에 의해 초래된 군사적 패배와 연결하여 가차 없이 자신의 사회혁명을 준비, 실행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자’국 부르주아지의 약화를 활용할 수 있고, 또 활용해야만 한다. 혁명적 패전주의로 알려진 이 전술은 우리 시대에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그리고 그와 함께 역사 진보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 중 하나다.”⁴⁰²⁾

제국주의적 적(敵)에 대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은 각각의 위기 — 경제공황과 정치위기, 군사충돌 — 를 활용하여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투쟁력과 의식을 강화시키며 지배계급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타도하기를 바란다. 맑스주의자들이 언제나 제국주의 전쟁을, 그것이 어떻게 제국주의 지배자에 대항하는 혁명적 전쟁으로 전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제국주의의 객관적 기초로서 제국주의의 모순적 성격

그러나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의 특정 측면들을 다루기 전에 우리는 그 가장 근본 측면 중 하나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혁명적 패전주의는 *결합 전략* (combined strategy)이다. 이는 혁명적 패전주의가 *모든 강대국에 대항하는 반제국주의 투쟁을, 모든 강대국 및 그들의 대리인에 대항하는 노동자·피억압 인민의 모든 해방투쟁에 대한 지지와 결합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전주의

402) Rudolf Klement: Principles and Tactics in War (1938); in The New International (Theoretical journal of the Socialist Workers Party, US-American section of the Fourth International), May 1938, Vol. 4, No. 5, pp. 144-145, <https://www.marxists.org/history/etol/revhist/backiss/vol1/01/printact.html>, RCIT는 다음에서 이 책을 재간했다.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2012), pp. 44-46.

강령은 그와 같은 결합 전략이거나, 아니면 전혀 패전주의적이지 않거나 다!

트로츠키가 각각의 분쟁의 성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각 분쟁 간의 관계를 이해할 것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제국주의 국가, 식민지 국가, 노동자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 그리고 그들 각각의 내적 모순 뿐만 아니라 그들 간의 상호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 노동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노동자들이 정세 속에서 올바른 실천적 결론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준다.”⁴⁰³⁾

이 같은 결합 전략은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이론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다. 우리가 위에서 보여주었듯이, 레닌과 트로츠키와 그 밖의 20세기 탁월한 맑스주의자들은 소수의 독점체들과 강대국들이 세계 지배 및 세계의 경제적 자원 착취를 놓고 서로 간에 경쟁하는 체제로서의 제국주의의 본질에 대해 언제나 분명히 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란 정의상 이들 독점체와 강대국에 의한 남반구 종속국·종속인민의 억압과 착취를 뜻한다. 레닌의 제국주의의 정의를 다시 옮겨본다.

“가능한 한 정확하고 완전한 제국주의 정의(定意)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국주의란 자본주의의 특수한 역사적 단계다. 그 특수성은 세 가지다. 제국주의는 (1) 독점자본주의, (2) 기생적인, 또는 부패해가는 자본주의, (3) 사멸해가는 자본주의다. 독점이 자유경쟁을 대체했다는 것이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경제적 특징이고 그 본질이다. 독점은 주되게 다섯 가지 형태를 취하며 나타난다. (1) 카르텔·신디케이트·트러스트 — 이러한 독점적 자본가 집단을 낳을 정도로 생산의 집적이 이루어졌다. (2) 대 은행들의 독점적 지위

403) Manifesto of the Fourth International on Imperialist War: Imperialist War and the Proletarian World Revolution. Adopted by the Emergency Conference of the Fourth International, May 19–26, 1940,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The Formative Years (1933–40), New York 1973, p. 327, <http://www.marxists.org/history/etol/document/fi/1938-1949/emergconf/fi-emerg02.htm>

— 서넛 내지 다섯 개의 거대 은행이 미국, 프랑스, 독일의 경제생활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3) 트러스트와 금융과두제 (금융자본은 은행자본과 융합한 독점적 산업자본이다)가 원료자원을 장악하고 있다. (4) 국제적 카르텔에 의한 세계의 (경제적) 분할이 시작되었다. 그러한 국제적 카르텔은 이미 백 개도 넘는데, 이들이 세계시장 전체를 지배하며, 이 세계시장을 ‘사이 좋게’ 분할하고 — 전쟁이 그것을 재분할할 때까지는 ‘사이 좋게’ — 있다. 비독점 자본주의 하에서의 상품수출과 구별되는, 매우 특징적인 현상으로서의 자본수출은 세계의 경제적 및 영토적·정치적 분할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5) 세계의 영토적 분할(식민지)이 완료되었다.”⁴⁰⁴⁾

따라서 이로부터, 식민지·반식민지 인민에 대한 제국주의 억압과 초과착취가 현 세계체제의 핵심 특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제국주의는 한층의 강대국들에 의한 전 세계 민족들의 억압이 누적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적 강령에서의 초점은, 모든 민족을 억압 민족과 피억압 민족으로 구분하는 데 두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에 바로 제국주의의 본질이 있는데, 사회배외주의자들과 카우츠키는 이것을 기만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이 구분은 부르주아 평화주의의 시각에서나, 자본주의 하에서 독립 민족들 간의 평화적 경쟁이라는 속물적 유토피아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의미 없는 것이지만,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혁명적 투쟁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극히 유의미한 것이다.”⁴⁰⁵⁾

404) V. I. Lenin: Imperialism and the Split in Socialism (1916); in: CW Vol. 23, pp. 105–106 (강조는 원저자). [레닌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내의 분열>,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295–6쪽]

405) V. I. Lenin: The revolutionary Proletariat and the Right of Nations to Self-Determination (1915); in: CW 21, p. 409. [레닌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와 민족자결권>,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244쪽]

쟁의 가능성과 필연성을, 둘째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쟁과 봉기의 가능성과 필연성을, 셋째 그 두 종류의 혁명전쟁의 결합의 가능성과 필연성을 또한 낳고 배양하기 마련이다.”⁴⁰⁶⁾

“맑스주의자들은 폭력이 자본주의의 총체적 붕괴와 사회주의 사회의 탄생에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코 망각한 적이 없다. 이 폭력이 세계사의 한 시기 전체, 각종 전쟁들의 한 시대 전체를 점할 것이다. 제국주의 전쟁과 국내전, 그 둘의 뒤섞임, 그리고 민족전쟁, 즉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 — 불가피하게 이들 열강은 거대한 국가자본주의적·군사적 트러스트와 신디케이트의 시대에 다양한 동맹을 맺을 것이 다 — 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억압받는 민족들을 해방시키는 민족전쟁.”⁴⁰⁷⁾

따라서 맑스주의자들은 노동자·피억압자 전위의 강대국에 대항하는 투쟁을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과 결합시키는 쪽으로 이들 전위를 획득하기 위해 적극 분투해야 한다.

“제국주의 대국에 대항하는 민족전쟁은 가능하고 개연성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며, 진보적이고 혁명적이다. 물론 그러한 민족전쟁이 승리하려면 피억압국의 다수의 인민대중 (우리가 예로 든 인도와 중국의 수억 인민들)의 일치된 노력이나, 국제 정세에서 특별히 유리한 조건들의 조합(예를 들어 제국주의 열강이 힘의 소진, 전쟁, 상호적대 등으로 마비되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나, 대국 중 한 나라에서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동시적인 봉기나 이러한 것들이 요구되겠지만 말이다. (프롤레

406) V. I. Lenin: The Military Programme of the Proletarian Revolution (1916) ; in: LCW Vol. 23, p. 80. [레닌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군사 강령>,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호식 옮김, 아고라, 241쪽]

407) V.I.Lenin: Report on the Review of the Programme and on Changing the Name of the Party, March 8 (1918), in: LCW Vol. 27, p.130

타리아트의 승리를 위해 무엇이 가장 바람직하고 유리한가라는 관점에서는 이 마지막 경우가 첫 번째 지위를 점한다.)”⁴⁰⁸⁾

패전주의 전략의 객관적으로 결합된 성격은 항상 다음과 같은 사실로도 나타난다. 강대국 패권쟁투와 강대국에 대항하는 피억압 인민의 투쟁 간의 객관적 상호연관을 놓고 볼 때 종종 자주 전자가 후자에 영향을 미치고 그 역도 사실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른 저작들에서 폭넓게 다룬 바 있다.⁴⁰⁹⁾ 여기서, 진행 중인 해방투쟁에 대한 강대국의 그 같은 개입이 이 투쟁의 성격을 전화시켜 이 또는 저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대리 투쟁으로 되어버릴 정도로 강대국 개입이 투쟁의 지배적인 측면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강대국 개입 일반이 언제나 그 같은 전화로 결과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다. 맑스주의자들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기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그 같은 제국주의 간 전쟁과 해방전쟁의 조합이 일어난 수많은 경우들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우리의 분석 속에서 우리는 다수의 사례들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 몇몇 사례만 짚고 넘어가자. 2차 세계대전에서 혁명가들은 이 글로벌 전쟁이 3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전쟁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했다. a) 제국주의 강대국들 (독일-이탈리아-일본 대 미국-영국-프랑스) 간의 전쟁, b) 제국주의 강대국과 타락한 노동자국이 간의 전쟁 (독일 대 소련), c) 제국주의 강대국 대 피억압 인민 간의 전쟁 (독일 대 피점령

408) V.I.Lenin: The Junius Pamphlet (1916), in: LCW Vol. 22, p.312 (강조는 원저자), [레닌 <유니우스 팸플릿>에 대하여], 레닌전집 64권 (“맑스주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22쪽]

40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Liberation Struggles and Imperialist Interference. The failure of sectarian “anti-imperialism” in the West: Some general considerations from the Marxist point of view and the example of the democratic revolution in Libya in 2011, Autumn 201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liberation-struggle-and-imperialism/>

유럽 나라들의 피억압 인민, 일본 대 피점령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피억압 인민, 영국 대 인도 인민, 등등). 당연하게도, 각 강대국은 소련이나 피억압 인민을 무기 등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적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트로츠키주의 제4 인터내셔널은 그 서로 다른 유형의 전쟁들 간에 성격을 구별하는 전술을 배치했다. 제4 인터내셔널은 두 제국주의 진영 간의 전쟁에서 양측 모두에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취했지만, 소련에 대해서는, 그리고 각 강대국에 대해서는 각 피억압 인민에 대해서는 지지했다.

이 같은 복잡한 상황은 우리가 현재 시리아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혁명가들은 현재 아사드 폭정 및 러시아 제국주의 상전에 대항하는 반군의 해방투쟁을 지지한다. 친 터키 반군 (배신적인 아스타나/소치 협정을 지지하는)과 아스타나 협정에 반대하는 반군 간의 충돌에서 혁명가들은 후자를 편든다. 혁명가들은 IS(이슬람 국가)에 대항하는 이들 반군의 투쟁에서 반군을 지지한다. 그러나 혁명가들은 쿠르드족 YPG/SDF의 조력을 받는 미 제국주의의 IS 공격에 반대한다. 친러 아사드 군대와 친미 YPG/SDF 간의 충돌에서 혁명가들은 양자 모두 제국주의 대리인이므로 어느 쪽도 편들지 않는다.⁴¹⁰⁾

또 하나의 예는 카다피 독재에 대항하는 인민 혁명 중에 서방 제국주의에 의한 리비아 공습이다. 이 공습에 대해 혁명가들은 단호히 반대했지만, 그러나 그 공습이 해방투쟁에서 지배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았다. 즉 카다피에 대항하

410) RCIT는 시리아 혁명에 관한 다수의 책자와 성명과 논설을 발표했다. 다음의 웹사이트 상에 있는 별도의 하위 섹션에서 이 글들을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the-syrian-revolution/>. 특히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Is the Syrian Revolution at its End? Is Third Camp Abstentionism Justified? An essay on the organs of popular power in the liberated area of Syria, on the character of the different sectors of the Syrian rebels, and on the failure of those leftists who deserted the Syrian Revolution, 5 April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yrian-revolution-not-dead/>; Michael Pröbsting: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February 2018, Chapter V,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8/chapter-v/>; Yossi Schwartz: Raqqa: Defeat the US Imperialist Offensive! An assessment of the US/ SDF/ YPG war against Daesh, April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us-offensive-in-raqqa/>

는 해방투쟁은 그 진보적 성격을 유지했으며 제국주의자들을 위한 대리전으로 전화되지 않았다 (스탈린주의자들과 각종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어리석은 주장과는 달리 말이다). 이는 카다피의 몰락에 뒤이은 사건들로 확인되었다. 카다피에 대항하는 내전이 NATO 하수인의 대리전이었다면 (스탈린주의자들 및 준 스탈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2011년 가을 카다피의 몰락 이후에 리비아에서 NATO가 통제권을 쥐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 상황이 일어났다. 카다피 독재 타도 이후 7년도 더 지난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여전히 리비아를 자신들의 통제 하에 가져다놓는 데 실패하고 있다. 실제로 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의 대사관을 철수해야 했고, 미국 대사는 암살당했다.⁴¹¹⁾

해방투쟁의 측면과 제국주의 개입의 측면이 둘 다 존재하는 그 같은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의 전쟁들이 맑스주의 고전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레닌과 트로츠키는 그 같은 서로 다른 유형의 전쟁들의 조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혁명적 대응책을 제시했다.

결합 전략에 관한 맑스주의 고전

트로츠키는 이 같은 분쟁의 모순적, 변증법적 성격을 무시한 기계적 도식들

41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Stop the US Bombing of Libya! 23,2,2016,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us-bombing-libya/>; RCIT: Europe / North Africa: Storm the Gates of Rome! Open Borders for Refugees! Stop the Imperialist EU-War against Refugees! No to the Preparations for an Imperialist Aggression against Libya! 22,5,2015, <http://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eu-war-against-refugees/>; RCIT: Revolution and Counterrevolution in the Arab World: An Acid Test for Revolutionaries,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theses-arab-revolution/>; RCIT: General Sisi, Hollande, Obama: Hands Off Libya! Defeat General Haftars' Imperialist Lackeys! Down with the Daash-Gang of Killers! For a Workers' and Popular Government! 26,2,2015, <http://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hands-off-libya/>

에 대해 경고했다.

“실제로, 백 개 중 구십 개의 경우에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지가 플러스 서명을 하는 곳에 마이너스 서명을 한다. 하지만 열 가지 경우에는,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지와 같은 서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부르주아지에 대한 그들의 불신을 표현하는 그들 자신의 직인을 찍어서 서명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책은 부르주아지의 정책으로부터 자동으로 도출되는, 단지 반대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되면 그 어떤 종파주의자도 모두 대 전략가가 될 것이다. 매순간 혁명당은 대내 상황뿐만 아니라 대외 상황에서도 독립적으로 자신의 방향을 정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이해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에 도달해야 한다. 이 규칙은 평화 시기에 만큼이나 전쟁 시기에 도 똑같이 적용된다.”⁴¹²⁾

레닌은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들은 언제나 민족 분쟁과 민주주의 분쟁에 개입하여 그것을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로부터 맑스주의자들이 그 같은 분쟁에서 자동으로 패전주의 입장을 - 혁명적 방위주의 입장이 아니라 - 취해서는 안 된다. 그와는 달리 맑스주의자들이 취해야 할 입장은 어느 요인이 지배적인 요인이 되느냐 - 민족적 · 민주주의적 해방투쟁이나, 제국주의적 정복전쟁이나 - 에 달려 있다.

“반면 피억압 민족의 사회주의자는 피억압 민족의 노동자와 억압 민족의 노동자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 조직적인 통일단결을 포함하여 - 특히 옹호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것 없이는, 부르주아지 측의 온갖 음모와 배신과 속임수에 직면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독립적인 정책 및 다른

412) Leon Trotsky: Learn to Think: A Friendly Suggestion to Certain Ultra-Leftists (1938); in: Trotsky Writings 1937-38, pp. 332-333. (강조는 원저자). RCIT는 이 텍스트를 Revolutionary Communism No. 5 (2012)에 재간했다.

나라 프롤레타리아트와의 계급적 연대를 옹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억압 민족의 부르주아지는 민족해방의 슬로건들을 노동자들을 속이는 데 끈질기게 이용한다. 그들 부르주아지는 그들의 대내 정책에서 지배 민족의 부르주아지와와 반동적 협정을 위해 이 슬로건들을 사용한다(예를 들어, 유대인과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억압을 위해 반동들과 협정을 맺은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폴란드인 부르주아지). 대외정책에서 그들은 그들의 약탈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라이벌 제국주의 열강 중 하나와 협정을 맺으려고 애 쓴다(발칸 소국들의 정책 등등). 하나의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는 민족해방 투쟁이 어떤 조건 하에서는 또 하나의 ‘대’국에 의해 똑같이 제국주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자가 민족자결권을 인정하길 거부할까? 그런 일이 일어날 법 하지는 않다. 부르주아지가 정치적 기만과 금전적 약탈을 목적으로 공화주의 슬로건들을 이용하는 수많은 경우들(예를 들어 라틴 나라들에서처럼)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자가 자신의 공화주의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날 법 하지 않은 것과 꼭 마찬가지로 말이다.”⁴¹³⁾

나중에, 다가오는 2차 세계대전의 복잡한 시나리오에 직면하여 루돌프 클레멘트는 맑스주의적 접근법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했다.

“계급투쟁과 전쟁은 국제적 현상으로, 국제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매 투쟁이 단 두 진영(블록 대 블록)만을 허용하므로, 그리고 제국주의적인 싸움이 계급전쟁과 얽혀있으므로(세계 제국주의 - 세계 프롤레타리아트), 다면적이고 복잡한 경우들이 발생한다. 반식민지 나라들의 부르주아지나 ‘자’국 파시즘에 의해 위협 받는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는 ‘우호적’ 제국주의들에게 원조를 호소한다. 소련은 예를 들어 제국주의 한 진영에 대항하여 다른 한 진영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제국주의들 간의 적대를 이용하려 한다. 이로

413) V. I. Lenin: The Socialist Revolution and the Right of Nations to Self-Determination (1916); in: CW 22, p. 148

씨, 국제적으로 유일한 연대 계급 - 유일한 진보적 계급 - 인 만국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전시에, 특히 새로운 세계대전에서 자국 부르주아지를 겨냥한 혁명적 패전주의를 진보적 전쟁들에 대한 지지와 결합시키는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클레멘트는 변증법적 접근을 옹호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특히 제국주의 나라들의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이 의견상 모순적인 상황에서 이들 결합된 임무들 및 그 임무들을 이행하는 방법들에 대한 특히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그리고 글의 말미에서 그는 나아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각각의 전쟁 상황들이 각 제국주의 나라들의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에게 - 그들이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목표에 충실하게 남아 있고자 한다면 - 각각의 다른 투쟁 형태를 요구하는 것을 본다. 이것은 도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혁명적 패전주의의 기본 원칙으로부터 ‘이탈’로 비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단지 혁명적 패전주의를 특정 진보적 진영들에 대한 방어와 결합시킨 결과일 따름이다.”⁴¹⁴⁾

이 구체적, 변증법적 방법이 바로 맑스주의 고전들이 발전시킨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방법을, 증대하는 모순과 패권쟁투로 특징지어지는 세계정세 속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유형의 전쟁들에 적용하고 있다.

거의 모든 개량주의자들과 중도주의자들이 이해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분쟁들의 변증법적, 모순적 본질이다. 그나마 가장 나은 경우에서도 그들은 패전주의 강령의 이 또는 저 측면만을 취할 뿐, 그 전략을 총체적으로

414) Rudolf Klement: Principles and Tactics in War (1938); in The New International (Theoretical journal of the Socialist Workers Party, US-American section of the Fourth International), May 1938, Vol. 4, No. 5, pp. 144-145, <https://www.marxists.org/history/etol/revhist/backiss/vol1/no1/printact.html>, RCIT는 이 텍스트를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2012), pp. 44-46에 재간했다.

취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쁘게는, 결합 전략으로서 혁명적 패전주의의 그 복합적 요소들 중 단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테제>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실패의 결과로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에 대한 완전한지지 없는 강대국에 대한 반대란 기껏해야 “순수관념적 반제국주의”이거나, 나쁘게는 “은폐된 사회제국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강대국에 대한 단호한 반대 없는 이 또는 저 해방투쟁에 대한 지지는 한 제국주의 진영에 대항하여 다른 한 제국주의 진영을 편드는 위험을, 따라서 해방 세력을 이 또는 저 강대국의 대리인으로 전화시키는 위험을 수반한다.

요컨대, 친(親)해방주의 없는 “반제국주의”는 반제국주의가 아니라 공공연한 또는 은폐된 사회제국주의다!

17장. 전쟁과 혁명의 관계

우리는 위에서 제국주의와 전쟁은 자본주의의 유기적 일부이므로 이들 현상에 대항하는 투쟁은 자본주의의 여타 모든 측면들에 대항하는 투쟁과 동일한 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그 투쟁에 담긴 특수한 요소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쟁과 혁명의 관계다.

전쟁은 사회의 모든 세력들의 극한적인 긴장을 대표한다. 전쟁은 지배계급이 반대 경향들을 억누르는 것을 돕지만, 그러나 동시에 수면 아래서는 모순을 가속화시키고 미래의 파국을 준비한다. 전쟁의 전조(前兆)들 - 강대국들 간의 긴장, 무역전쟁, 애국주의적 주전론, 반이주민 배외주의 등등 - 은 전쟁과 같은 극적인 결과를 미치지 않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다.

역사는 그 같은 전쟁 - 보다 정확하게는 반동적 전쟁에서 반동적 정부의 패전 - 과 혁명의 관계를 수십 번 증명해 왔다. 이것의 이유는 꽤나 명백하다. 전쟁은 정의상 사회 모든 세력의 긴장을 대표한다. 해방전쟁이 보통 대중을 동원 결집하는 데 성공하여 대중이 자발적으로 해방전쟁을 지지하고 거기에 참가하는 반면, 억압전쟁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그러한 전쟁에서는 지배계급이 배외

주의적 거짓과 호전성과 군사적 충동과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다양한 비율로 조합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작은” 제국주의 전쟁과 “큰” 제국주의 전쟁

명백히 “작은” 억압전쟁과 “큰” 억압전쟁 간에는 차이가 있다. “작은” 전쟁은 보통 미국의 이라크 또는 아프간 침공이나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 같은 식민 전쟁을 말한다. 이 전쟁들은 피억압 인민에게는 작은 전쟁이 아니다. 아니, 정반대로 이들 전쟁은 수만, 수십만 노동자와 농민의 학살을 가져온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작은 전쟁인데, 그 전쟁들이 대규모 징집이나 군사적 목적에 경제 전체를 동원하는 일 같은 것을 필수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 전쟁들은 제국주의 나라에서 사회의 일상생활에 훨씬 더 작은 결과를 미친다.

기본적으로 강대국들 간의 전쟁을 가리키는 “큰” 전쟁의 경우에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한 큰 전쟁은 지배계급을 강제하여 모든 사회세력들을 전면적인 긴장으로 몰아넣게 한다. 나아가 그러한 전쟁은 민간인들에게도 극단적인 결과 - 식량 부족과 의약품 결핍에 이어 공중폭격에 이르기까지 - 를 미친다. 1차 세계대전, 그리고 특히 2차 세계대전은 이에 대한 수많은 예들을 제공한다. 강대국 간의 그 어떤 미래의 세계대전도 그 같은 “전면적” 성격을 훨씬 더 강하게 띠 것인데, 왜냐하면 거의 불가피하게 핵무기 배치를 수반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작은” 제국주의 전쟁과 “큰” 제국주의 전쟁을 너무 도식적으로 나누

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식민 전쟁은 전면적인 긴장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장기전적 성격, 손실의 누적, 군사비의 증가 등은 중요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제국주의자들의 패전으로 결과할 경우 특히 그러하다. 알제리에서 프랑스의 전쟁, 베트남에서 미국의 전쟁, 체첸에서 열친의 전쟁 등이 그러한 예다.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반동적 전쟁에서 지배계급의 패배는 강력한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지배계급의 물질적 힘은 물론이고, 정치적·도덕적 위신이 심하게 산산조각난다. 동시에 대중이 격분하고 “군사화”한다. 즉 무기 사용에 더 익숙해진다. 제국주의자들의 그러한 반동적 전쟁이 “커질수록”(위에서 규정한 의미로) 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전쟁이 피억압 대중의 혁명적 격변을 잉태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레닌이 1904/05년 러일전쟁에서 차르 전제정의 패배를 두고 “러시아 노동자가 비자발적인 참가자인 그 역사적 전쟁의 위대한 혁명적 역할”⁴¹⁵⁾에 대해 말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역사는 지배계급이 패한 전쟁과 혁명적 발전 간의 관계에 관한 수많은 예들을 제공한다. 몇몇 역사적 사례만 들어보자. 백년전쟁기에 프랑스 지배계급이 영국에게 일련의 패배를 당한 뒤 북부 프랑스에서 일어난 대 농민봉기인 ‘자크리의 난’이 있다.⁴¹⁶⁾ 장기간의 피폐화된 러시아-터키 전쟁이 끝난

415) V. I. Lenin: The Fall of Port Arthur (1905), in: LCW Vol. 8, p. 53

41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I. M. Shukow (Ed.): Weltgeschichte, VEB Deutscher Verlag der Wissenschaften, Berlin 1963, Vol. 3, pp. 730–758. Weltgeschichte (<<세계사>>) 총10권 (합쳐서 총 8,500쪽에 달한다)은 스탈린 사후에 출판된 유명한 <<역사 백과사전>> (Soviet History Encyclopedia)의 독일어 번역본이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 <<역사 백과사전>>은 <<대 백과사전 Great Soviet Encyclopedia>>과는 대조적으로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E.M. Zhukov의 감수 하에 대대적으로 소련 역사가들이 집단 집필한 이 10권짜리 백과사전은 상세한 지식 정보를 유물론적 접근법과 결합시킨 역사 지식의 진정한 보고다. 그럼에도 이 백과사전은 피할 수 없는 스탈린주의의 이론적 한계로 인한 결함들 때문에 독자들은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특히 역사상의 모든 사회들이 사회경제구성체 단계들 — 원시공산제,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공산주의 — 을 하나 하나 동일한 순서로 거쳐 간다는 그 기계론적 역사관은 대표적인 결함이다. 이 역사관에서는 맑스가 반복해

1774/75년에 푸가초프가 이끈 러시아 농민들의 영웅적인 봉기가 있다.⁴¹⁷⁾ 두 차례 아편전쟁에서 청조(淸朝)가 서구 열강에게 굴욕적인 패배로 경멸당한 뒤 1841-49년에 110건의 농민봉기가 각지에서 일어났고 마침내 강력한 종교적 사회혁명 봉기인 태평천국 운동 -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가장 유혈적인 내전 (1850-64) - 이 일어났다.⁴¹⁸⁾ 그리고 이어서 잘 알려져 있는 근대사의 예들이 있다. 1870-71년의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보불전쟁)이 파리코뮌으로 이어졌고⁴¹⁹⁾, 1904/05년의 러일전쟁은 1905-07년의 제1차 러시아 혁명으로 이어졌다.⁴²⁰⁾ 또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을 비

서 언급했던 이른바 아시아적 생산양식은 배제되어 있다. (다음을 보라. K. Marx Preface to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published in 1859, in: Marx Engels Collected Works, Vol. 29, International Publishers, New York 1987, p. 263.)

41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Paul Avrich: Russian Rebels, 1600-1800, Schocken Books, New York 1972; Dorothea Peters: Politische und gesellschaftliche Vorstellungen in der Aufstandsbewegung unter Pugačev (1773-1775), Wiesbaden, Berlin 1973; Marc Raeff: Pugachev's Rebellion, in: Robert Forster (Ed.): Preconditions of Revolution in Early Modern Europ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1970; Alice Plate: Der Pugačev-Aufstand: Kosakenherrschaft oder sozialer Protest, in: Heinz-Dietrich Löwe: Volksaufstände in Rußland, Von der Zeit der Wirren bis zur «Grünen Revolution» gegen die Sowjetherrschaft, Otto Harrassowitz Verlag, Wiesbaden 2006; Leo Yares: The „Peasant Wars“ in Soviet Historiography, in: American Slav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16, No. 3 (October 1957), pp. 241-259; Philip Longworth: Peasant leadership and the Pugachev revolt, in: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2:2 (1975), pp. 183-205; B. H. Sumner: New Material on the Revolt of Pugachev, in: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7, No. 19 (June 1928), pp. 113-127; B. H. Sumner: New Material on the Revolt of Pugachev: II, in: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7, No. 20 (January 1929), pp. 338-348; Alexander Pushkin: Geschichte des Pugatschew'schen Aufruhrs, Stuttgart 1840

418) “태평천국의 난”은 부패한 청조에 대항한 광산노동자, 빈농, 인종 소수자들의 사회혁명적 운동으로, 예수의 동생을 자처한 홍수전(洪秀全)이 이끈 상제회라는 종교 결사체가 조직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Franz Michael and Chung-li Chang: The Taiping Rebellion, History and Documents Vol.1,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London 1966; Stephen R. Platt: Autumn in the Heavenly Kingdom: China, the West, and the epic story of the Taiping Civil War, Alfred A. Knopf, New York 2012; I. M. Shukow (Ed.): Weltgeschichte, Vol. 6, pp. 440-455

419) 당연히도, 파리 코뮌에 대한 다양한 문헌이 존재한다. 이 주제에 관한 단 몇 개의 사회주의 고전만을 들어보겠다. von P. L. Lavrov: Die Pariser Kommune vom 18. März 1871, Verlag Klaus Wagenbach, Berlin 1971; Jean Villain: Die großen 72 Tage, Ein Report von Jean Villain über die Pariser Kommunarden, Verlag Volk und Welt, Berlin 1981; Prosper Lissagaray: Geschichte der Kommune von 1871, Rütten & Loening, Berlin 1956. See also Donny Gluckstein: The Paris Commune: A Revolution in Democracy, Bookmarks Publication, London 2006; I. M. Shukow (Ed.): Weltgeschichte, Vol. 6, pp. 628-643 and Vol. 7, pp. 15-39.

420) 또 1904/05년 러일전쟁과 그 뒤의 1905-07년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헌이 존재한다. 몇 가지만 언급해보자. Leon Trotsky's Die Russische Revolution 1905, Vereinigung Internationaler Verlag-

못하여 1918/19년 일련의 노동자 봉기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끝으로 2차 세계대전은 각국에서 내전과 혁명적 발전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어, 중국, 조선, 그리스 등).

이미 맑스와 엥겔스는 전쟁이 혁명으로 전화하는 잠재적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에 제6의 열강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 5개의 이른바 ‘대’국들 모두에 대해 패권적 우위를 주장하며 그 5개 대국들 하나하나를 별벌 떼게 만들 것이다. 이 여섯 번째 열강은 혁명이다. 오래 침묵하고 은퇴해 있던 이 혁명은 이제 다시 상업 공황과 식량 부족에 의해 소환되었다. 맨체스터에서 로마까지, 파리에서 바르샤바와 부다페스트까지 그것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머리를 들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다시 귀환하고 있는 그것의 생명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휘감은 선동과 소요 속에서 눈으로 볼 수 있다. 단지 신호만 필요할 뿐, 이 제6의 가장 위대한 유럽 열강은 올림피아의 머리에서 나온 미네르바처럼 빛나는 갑옷을 입고 검을 손에 들고 나설 것이다. 이 신호는 임박해 있는 유럽 전쟁이 줄 것이며, 그리고 나면 역관계에 관한 모든 계산은 새로운 요소의 추가로 뒤집어질 것이다. 이 새 요소는 항상 활기차고 젊어서, 1792년부터 1800년까지 그랬던 것처럼 구 유럽 열강들과 그들의 장군들의 계획을 좌절시킬 것이다.”⁴²¹⁾

지배계급의 명민한 대표자들도 전쟁과 혁명의 관계에 대해 의식하고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는 1887년 11월에

sanstalten, Berlin 1923 (republished in Leo Trotzki: Ausgewählte Werke, Vol. 1, Verlag Neuer Kurs, Berlin 1972); M. Pokrowski: Russische Geschichte, Berlin 1930; M. Pokrowski: Geschichte Russlands von seiner Entstehung bis zur neuesten Zeit, C.L.Hirschfeld Verlag, Leipzig 1929, pp. 314-496; Abraham Ascher: The Revolution of 1905, Vol. 1 and 2,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1992.

421) Friedrich Engels: The European War (1854), in: MECW 12, pp. 557-558

그의 황제 빌헬름 1세가 러시아의 알렉산더 3세와 회담하는 준비 보고문서에
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다른 어떤 역사 시대보다도 더
전쟁을 피하는 것이 대국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각국
의 국민들은 그들의 정부가 군사적 패배를 당하는 것에 대해 책임지게 하는 경
향이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봐서, 다음 전쟁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정부
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붉은 깃발 대 질서 · 보존의 요소 간의 전쟁이라는 성
격을 갖게 될 것이다.”⁴²²⁾

나중에 레닌을 비롯한 그 밖의 맑스주의자들은 1904/05년 러일전쟁과 특히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정리했다. 그들은 제국주의 전쟁이 역사의 템포를 대
대적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음을 인식했다. “1914-1918년의 전쟁들은 사회주
의혁명의 거대한 ‘가속기’ (레닌)였다.”⁴²³⁾

그들이 제국주의 전쟁의 내란으로의 전화 슬로건을 발전시킨 것은 바로 이
런 기초 위에서였다. 의지주의적인 급진 슬로건으로서가 아니라, 지배 질서의
붕괴와 피억압 대중의 무장봉기로 결과하는 반동적 전쟁의 잠재력에 객관적
근거를 둔 슬로건으로서 말이다.

레닌이 전쟁의 파괴적 결과에 대해 불평하고 평화적 혁명을 바라는 개량주
의 · 중도주의 공론가들에게 경멸을 쏟아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당시 중도
주의의 이론적 지도자 칼 카우츠키와의 논쟁에서 레닌은 이렇게 썼다.

“이것들이 이 ‘극히 박식한’ 사람의 두 가지 ‘즐겨 찾는 항목들’이다. ‘폭
력의 숭배’와 산업의 붕괴, 이것이 그를 계급투쟁의 현실 조건을 분석하기보

422) 다음에서 인용. Heinz Wölter: Die Alternativkonzeption der Sozialdemokratie zum außenpolitischen Kurs Bismarcks nach 1871, in: Ernst Engelberg (Ed.): Diplomatie und Kriegspolitik vor und nach der Reichsgründung, Akademie-Verlag, Berlin 1971, p. 255 (영역은 저자)

423) The Platform of the Opposition (1927), in: Leon Trotsky: The Challenge of the Left Opposition (1926-27), p. 382

다는, 속물들이 통상 하는 그 오래된 전형적인 투덜대고 칭얼거리기로 몰아간 것이다. 그는 이렇게 쓴다. ‘우리는 혁명이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결과물로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혁명은 전쟁 속에서 러시아와 독일의 기존 지배체제 붕괴의 결과로 왔다....’ 달리 말하면, 이 박사님은 평화적 혁명을 ‘기대’한 것이다! 멋지다! 그러나 카우츠키 씨는 맑스주의자였을 때 자신이 쓴 것, 즉 십중팔구 전쟁은 혁명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쓴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용기가 없어졌다. 오늘 전쟁의 결과, 불가피하게 어떤 변화가 혁명의 형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차분하고 두려움 없이 조사 연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이론가’는 ‘기대’의 붕괴를 한탄한다!”⁴²⁴⁾

이는 모든 전쟁이 인민대중의 혁명적 봉기로 결과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경제 전체 자원을 통째로 동원하고 사회의 모든 계급에 충격을 주며 대중의 정치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따라서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건들은 대대적인 사회적·정치적 불안정을 불러일으키고, 따라서 혁명적 단절을 가져올 수 있음을 역사적 경험은 보여주고 있다. 배외주의와 군사적 긴장과 전쟁이 점점 더 자본주의 사회의 규정적 특징이 되고 있는 만큼 그러한 군사주의를 향한 발전은 결국 참여한 계급투쟁과 혁명적 분출의 발판이 또한 될 것이다.

3차 세계대전과 혁명 — 그 자체로 모순?

424) V. I. Lenin: The Heroes of the Berne International (1919); in: LCW 29, p. 397. 이에 대해서는 다음도 보라. Nikolai Bukharin and Evgenii Preobrazhensky: The ABC of Communism (1920), published by the Communist Party of Great Britain, 1922; Nikolai Bukharin: Ökonomik der Transformationsperiode, Mit Randbemerkungen von Lenin, Dietz Verlag, Berlin 1990

끝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간단히 다루고 넘어가자. 위 12장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는, 만약 노동자계급이 제 때에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지 않는다면 강대국 간의 새로운 세계대전이 많은 적든 불가피하다고 본다. 또한 강대국들이 그들의 치명적인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세계대전이란 상상하기 어렵다. 이로부터 숙명론적으로, 전쟁과 혁명의 관계가 미래의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려야 할까?

우리가 볼 때 이 문제는 도식적인 방식으로는 대답할 수 없다. 그렇다. 실로, 만약 강대국들이 그들의 모든 핵무기를 배치하는 전면적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인류는 야만의 단계로 되돌려질 것이다. 그러나 먼저, 그러한 전면적인 핵전쟁은 마른하늘에서 날벼락처럼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파국적인 사건은 그에 앞서 보다 긴 기간에 걸친 강대국들 간의 극한적인 글로벌 긴장 뒤에 올 것이다. 당연히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지배 엘리트는 그와 같이 극한적인 위협을 수반하는 사건을 경솔하게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같은 미치광이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미국 엘리트가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트럼프가 핵전쟁을 시작하도록 놓아둘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⁴²⁵⁾

그보다는, 보다 긴 기간에 걸친 무역전쟁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군사적 충돌과 격심한 국내 정치위기와 쿠데타와 외교적 위기 등등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러한 사건들이 노동자계급에게 지배계급을 약화시키고 타도할 기회를 제공할 혁명적·준혁명적 위기를 촉발할 것이라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다.

425) 시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의 식탁에서 대통령 오더를 훔치는 보좌관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오렌지맨이 알아차리지 않도록 그의 망각에 기밀 수 있다면), 트럼프가 레드버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군들과 안보보좌관들도 있을 개연성이 크다. (아마도 그들은 그 대신에 그의 일일 코카콜라 오더 레드버튼을 그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더욱이 우리는 미래를 미리 들여다볼 수는 없다. 그러한 세계대전이 인류의 완전한 절멸이 아니라 일방의 패전 또는 국지적인 핵 파멸로 끝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 3차 세계대전은 수백만 명의 죽음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국주의 전쟁광들에 대항하는 글로벌 반란의 한 시기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중요한 것은 혁명가들이 3차 세계대전의 위험에 겁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제는 미래에 대해 추측하는 (또는 심지어 그러한 위험을 수동적으로 되어버리는 핑계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에 단호히 개입하여 국제 사회주의혁명의 기회가 늘어나고 3차 세계대전의 위험은 줄어들도록 노동자 전위를 결집 가동시키는 것이다!

18장. 제국주의 국가 간의 분쟁에서 혁명적 패전주의 : 맑스주의 고전

RCIT는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에서 제국주의 간 분쟁에서 맑스주의자의 입장은 국제 노동자계급 연대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맑스주의자는 상대방 제국주의 진영의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자’국의 제국주의 지배계급을 편드는 것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맑스주의자의 슬로건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 - 미국 · EU · 일본이든, 중국 · 러시아든 - 타도!*

맑스주의자는 ‘자’국 지배계급을 지지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는 동시에, 비 타협적인 계급투쟁을 내건다. 이것은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혁명적 지도자 칼 리프크네히트가 외친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구호로 요약된다. 혁명가들은 지배계급을 약화시키고 계급투쟁을 확대 강화하여 최종적으로 이러한 제국주의 간 분쟁을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내란 · 내전으로 전화시키기 위해 그러한 분쟁을 이용한다.

이러한 원칙은 전시에서는 “제국주의 전쟁의 내란으로의 전화”로 알려지게 된 전략으로 귀착된다.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무역전쟁 시에는 *세계무역전쟁을 국내에서 지배 엘리트에 대항하는 정치적 계급투쟁으로 전화시킨다*는 방침

으로 구체화된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목표는 국제 노동자계급을 국제주의적 기초 위에서 통일 단결시키고, 노동자들이 '자'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 및 노동자운동 내 이들 부르주아지의 사회제국주의적 시종들(따까리)에게 묶여 있는 일체의 "애국주의적" 끈을 절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의 전략적 목표다. 이 강령은 언제나 혁명당 정치의 일부다. 이 강령이 오직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과 관련한 강령일 뿐이며, 따라서 일단 전쟁이 터져야만 유효성을 갖게 되는 강령이라고 믿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착각이다. 맑스주의 조직이 제국주의 공격이 시작되고 나서야만 비로소 그에 대항하여 싸우기 시작한다면 이미 그것은 너무 늦다. 본격적인 전쟁이 실제로 시작될 때는 지배계급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들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배외주의 기구를 가동시키고 난 뒤다. 그리고 혁명당이 그 때서야 비로소 패전주의 투쟁을 개시한다면 우월한 계급적 적에 맞서 아무 기회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은 지금부터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혁명적 패전주의 방향의 활동은 모든 합법·비합법 수단을 이용하는 (지배계급이 허용하는 민주주의적 공간에 따라) 포괄적인 선동·선전을 요구한다. 작업장과 지역, 학교, 병영에서, 그리고 가능할 경우 의회 공간에서도 이러한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목표는 시위와 파업·총파업, 항쟁·봉기 - 마찬가지로 조건과 역관계에 따라 - 와 같은 계급투쟁적 행동들로 대중을 결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 혁명가들이 단지 작은 소수파를 점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혁명가들이 통일전선 전술을 적용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다. 이는 혁명가들이, 보통 비 혁명적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노동자·민중 조직들 (노동조합, 당,

이주자 조직 등등)에게 정부의 군비확충 계획에 대항하는, 국외의 식민 침략에 대항하는, 경쟁 국가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 및 제재에 대항하는 공동활동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가들은 의회에 대표자들을 두고 있는 당들에게 군사 예산과 같은 모든 조치들에 반대투표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혁명가들은 이러한 세력들 - 대개 개량주의자들과 소부르주아 인민주의자들 - 이 지배계급의 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하여 행동하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이들 세력을 비판해야 한다.

나아가 혁명가들이 제국주의 분쟁 당사국들의 사회주의자들, 노동조합을 비롯한 그 밖의 노동자·인민 대중조직들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공동성명과 공동활동을 제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구체적인 국제주의 노동자계급 연대의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제국주의 시대 이전의 맑스·엔겔스

혁명적 패전주의의 내용과 전술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전략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보자.

잘 알다시피, 맑스와 엔겔스는 19세기, 즉 전(前)독점자본주의 시대에 살았다. 이 시대에 자본주의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그리하여 산업화된 나라에서 부르주아지는 때때로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유럽 국가들 간의 전쟁, 또는 미국의 남부와 북부 간의 전쟁은 대개 양측 모두 반동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았다. 국제 정치정세에서 국가 간 관계는, 맑스와 엔겔스가 설명했듯이 가장 크고 가장 반동적인 강대국인 차르 러시아의

항상적 위협으로 특징지어졌다.⁴²⁶⁾ 또한 분열되어 있던 독일과 이탈리아의 민족통일, 폴란드와 아일랜드의 민족해방 등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민주주의적 과제가 대두되었다.

맑스와 엥겔스가 1848년에 차르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혁명전쟁을 열정적으로 촉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였다.

“러시아와의 전쟁만이 혁명적 독일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 전쟁으로 독일은 과거의 죄를 씻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전제군주를 패퇴시키고, 자신의 아들들의 희생에 의해 문명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태한 노예의 긴 사슬을 떨쳐버리는 국민이 되고, 독일 밖의 사람들에게 해방을 가져다줌으로써 자신의 국경 내에서도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최근의 사건에 대해 더 많은 대중의 빛이 날카롭게 그 윤곽을 드러내줄수록, 독일이 자신의 새로운 시대를 불명예스럽게 만든 민족전쟁들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더욱 더 많은 사실들이 확인시켜준다.”⁴²⁷⁾

마찬가지로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시자들은 이후 영국이나 오스만제국 같은 열강의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 시에 이들을 편들었다.⁴²⁸⁾

426) 맑스의 딸 Eleanor Marx Aveling은 차르 러시아에 대한 아버지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적절히 요약했다. “모든 전진에 가로 놓인 최대의 적, 반동의 최대 성체”. (Karl Marx: The Eastern Question. A Reprint of Letters written 1853–1856 dealing with the events of the Crimean War, Edited by Eleanor Marx Aveling and Edward Aveling, Swan Sonnenschein & Co, London 1897, p. ix)

427) Karl Marx, Friedrich Engels: German Foreign Policy and the Latest Events in Prague (in: Neue Rheinische Zeitung 12 July 1848), in: MECW Vol. 7, p. 212

428)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 주제에 관한 맑스의 두 저작집 외에 다음을 보라. Karl Marx: Die Geschichte der Geheimdiplomatie des 18. Jahrhunderts. Über den asiatischen Ursprung der russischen Despotie, Berlin, Olle & Wolter, Berlin 1977; David B. Rjazanov, Karl Marx über den Ursprung der Vorherrschaft Rußlands in Europa, Kritische Untersuchungen, in: Karl Marx, Die Geschichte der Geheimdiplomatie des 18. Jahrhunderts; M. Pokrowski: Geschichte Russlands von seiner Entstehung bis zur neuesten Zeit, C.L.Hirschfeld Verlag, Leipzig 1929; M. Pokrowski: Russische Geschichte, Berlin 1930; Paolo Dalvit: Die Außenpolitik im Klassenkampf, Die Position von Marx und Engels zum Krimkrieg; Hanno Strauß: Von Engels' „Panslawismus“ zu Marx' „Geheimdiplomatie“. Eine Herleitung politischer Ambitionen; both essays have been published in: Marx und Russland, Beiträge zur Marx–Engels–Forschung Neue Folge 2012,

볼셰비키와 1904/05년 러일전쟁

그러나 이것은 전 독점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과 함께, 즉 20세기 초에 제국주의 시대의 시작과 함께 바뀌었다. 레닌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쓴 글들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부르주아지는 어느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조국 방어는 그 어떤 진보성도 없었다.

“민족국가가 질곡으로 되었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의 참전이 현 전쟁을 제국주의 전쟁으로 만든 주된 요인이었다. 이제까지 인류의 선두에 섰던 이 나라들에서, 특히 1789~1871년에, 민족국가 형성 과정은 완성되었다. 이 나라들에서 민족운동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이 되었고, 그것을 부활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터무니없이 반동적인 공상이다. 프랑스, 영국, 독일의 민족운동은 완료된 지 오래 됐고, 이 나라들에서 역사의 다음 단계는 그와는 다른 단계다. 즉 해방된 민족이 억압 민족으로, 제국주의적 약탈 민족으로, ‘자본주의의 붕괴 전야’를 거치고 있는 민족으로 전화된 것이다.”⁴²⁹⁾

달리 말하면, 이제부터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 앞에는 차르 러시아만이 아니라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이 “최대의 적이자 최대의 반동 성채”로 놓여 있

Argument, Hamburg 2014, pp. 9–20 resp. 83–104

429) V. I. Lenin: A Caricature of Marxism and Imperialist Economism; in: LCW Vol. 23, p.38. [레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희식 옮김, 아고라, 161–2쪽]

게 되었다.

레닌과 볼셰비키는 1차 세계대전 개전 초에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을 완전하게 정립했다. 그러나 이 전략의 핵심 요소들은 이미 1904-05년 러일전쟁 중에 밝혀놓았다.⁴³⁰⁾ 알다시피, 이 전쟁은 러시아 측의 패배로 끝나면서 1905-07년의 1차 러시아혁명을 촉발시켰다.

레닌은 1905년 1월 봉기 시작 전에 이미 전쟁과 혁명 간의 연관을 강조했다. “러시아 노동자가 본의 아닌 참가자가인 그 역사적인 전쟁의 위대한 혁명적 역할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⁴³¹⁾

“군사적 재앙은 피할 수 없고, 그와 함께 불만과 소요와 분개가 필연적으로 10배는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그 계기를 극한의 에너지를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그 계기에서는 여기저기서 반복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사건들 중 하나가 거대한 인민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 계기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가 떨쳐 일어나 봉기의 선두에 서서 전체 인민을 위한 자유를 쟁취하고, 노동자계급이 공공연하고 광범한 사회주의 투쟁— 유럽의 경험 전체에 의해 풍부해진 투쟁 — 을 수행할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다.”⁴³²⁾

그리하여 볼셰비키는 패전주의적 입장을 제창했다. 즉 ‘자’국 반동 정부의 패배를 내건 것이다.

430) 1904-05년 러일전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John W. Steinberg, Bruce W. Menning, David Schimmpenninck, Van Der Oye, David Wolff, Shinji Yokote (Eds.): *The Russo-Japanese War in Global Perspective*. World War Zero, Vol. I and II, Brill, Leiden 2005 and 2007; J. N. Westwood: *Russia against Japan, 1904-1905: A New Look At the Russo-Japanese War*,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86; Evgeny Sergeev: *Russian Military Intelligence in the War with Japan, 1904-05. Secret operations on land and at sea*, Routledge, New York 2007; Rotem Kowner: *The Impact of the Russo-Japanese War*, Routledge, New York 2007; Josef Kreiner (Ed.): *Der Russisch-Japanische Krieg (1904/05)*, V&R unipress, Göttingen 2005

431) V.I. Lenin: *The Fall of Port Arthur (1905)*, in: LCW Vol. 8, p. 53

432) V.I. Lenin: *The Autocracy and the Proletariat (1904)*, in: LCW Vol. 8, p. 28

“러시아의 자유의 대의, 그리고 러시아 (및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 투쟁의 대의는 아주 많은 부분 전제정의 군사적 패배에 달려 있다. 이 대의는 유럽의 기존 질서 수호자들 모두의 가슴 속에 공포를 심어준 군사적 대패에 의해 크게 진전되었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는 계급 지배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전쟁에 반대하는 심 없는 선동을 이어가야 한다. 두 부르주아 국민 간의 부르주아적 전쟁에 책임이 없는 피억압 계급에게, 부르주아지 일체를 타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피억압 계급에게, ‘평화적’인 자본주의적 착취의 시기에도 인민이 겪는 고통의 심대함을 알고 있는 피억압 계급에게 평화에 대한 조레스 식의 판에 박힌 문구는 아무 쓸모가 없다... 구 부르주아 세계와 신 부르주아 세계 간의 전쟁으로 전환된 이 식민 전쟁을 시작한 것은 러시아 전제정이지, 러시아 인민이 아니다. 치욕스런 패배를 당한 것은 전제 정권이지 러시아 인민이 아니다. 러시아 인민은 전제정의 패배로 득을 보았다. 여순(旅順) 함락은 차리즘 함락의 서막이다. 단연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쟁 계속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러시아 인민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치 소요와 불만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대 전쟁, 즉 전제정에 대항하는 인민의 전쟁, 자유를 위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쟁의 시간을 더욱 더 가까이 불러온다.”⁴³³⁾

볼셰비키가 멘셰비키를 비판한 것은 이들의 평화주의적 입장 때문이었다. 멘셰비키가 사회애국주의적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 전쟁에서는, 전제정을 경멸한 도시 인텔리겐차와 부르주아지의 많은 부문들도 차르의 군국주의적 목표를 감히 지지할 수는 없었다. (실제로 많은 야당들은 일본 비밀 정보기관과 접촉하여 그로부터 자금을 받기까지 했다!)⁴³⁴⁾ 그러나 멘셰비

433) V. Lenin: The Fall of Port Arthur (1905), in: LCW Vol. 8, p. 53

43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Akashi Motojirō: Rakka ryusui: Colonel Akashi's Report on His Secret Cooperation with the Russian Revolutionary Parties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O. Fält and A. Kujala (Eds.), Studia Historica 31, Helsinki, 1988; Dmitrii B. Pavlov: Japanese Money and the Russian Revolution, 1904-1905, in: Acta Slavica Iaponica, No. 11 (1993), pp. 79-87

키는 레닌의 “패전주의” 제창을 비판하며, 그가 “친일(親日)” 감정을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멘셰비키는 패전주의에 반대하여 “즉각적인 평화” 슬로건을 내걸었다.⁴³⁵⁾

레닌은 이러한 평화주의 입장을 거부했다.

“처음에 신 이스크라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평화를!’이라는 슬로건을 매우 좋아했다. 그 후 평화 일반을 위한 사이비 사회주의적 캠페인이 누구의 이익 – 진보적 부르주아지의 이익이든, 반동적 부르주아지의 이익이든 – 에 봉사하는지를 조레스가 적나라하게 보여주자 신 이스크라는 서둘러 “자신을 바로잡았다.” 그리고 이제 신 이스크라는 상투어로 끝을 장식했다. 일본 부르주아지의 승리에 “투기하는 것”(?!의 비합리성 운운하는 상투어, 그리고 전쟁이 전제정의 승리로 끝나든, 패배로 끝나든 관계없이 전쟁은 재앙이라는 상투어 말이다.”⁴³⁶⁾

이와 같이 볼셰비키의 패전주의 전략과 좌익 멘셰비키의 순수관념적인 반군국주의 및 평화주의 전략 간의 본질적인 차이는 이미 십년 전에 가시화되었다.

435) 다음을 보라. Julius Martow: Geschichte der russischen Sozialdemokratie (1918/26), Erlangen 1973, pp. 93–95; 또 다음도 보라. Dmitrii B. Pavlov: Japanese Money and the Russian Revolution, p. 82

436) V.I.Lenin: The Fall of Port Arthur (1905), in: LCW Vol. 8, pp. 52–53

1914-17년 1차 세계대전에서 레닌의 패전주의 강령의 완전한 정립

따라서 레닌이 – 그의 긴밀한 협력자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 첫 총성이 1차 세계대전을 열어젖힌 뒤 며칠도 안 되서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을 완전히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⁴³⁷⁾ 1914년 8월 갈리치아에서 열 하루 만에 감옥에서 풀려난 뒤 레닌은 아내이자 전우인 크롭스카야와 지노비에프, 즐라타 필리나와 함께 스위스로 갔다. 거기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붕괴된 제2 인터내셔널의 분립 및 혁명적인 제3 인터내셔널의 창건을 위한 작업에 온 힘을 쏟았다.⁴³⁸⁾

437) 고참 볼셰비키 Shklovsky의 다음과 같은 회고를 보라. “나는 제국주의 전쟁에서 레닌 전술의 기본 슬로건이 오스트리아에서 개전 당초의 첫 며칠 동안에 정식화되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레닌이 슬로건을 완전하게 정식화해서 베른에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이 전술이 아마도 전쟁 첫날에 레닌의 머릿속에서 무르익었다고 진술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전쟁 사나흘째에 내가 체포된 것이 이 전술의 증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체포된 것은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로부터 나에게 올 전보 때문인데, 스위스 군 당국이 그것을 가로챈 것이다. 이 전보에서 레닌은 나에게 전쟁 전단 및 선언문 문제를 조직하기 위해 파리에 있는 우리 동지들과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블라디미르 일리치한테는 한 순간의 의심이나 동요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전쟁 첫날에 이미 그는 전쟁과의 전쟁, 즉 제국주의 전쟁을 내란으로 전화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레닌이 베른에 도착한지] 대략 이틀째 되는 날 숲 속에서 회합이 열렸는데, 거기서 일리치는 전쟁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이것이 당시에 우리에게 가능한 유일한 토의 주제라고 말했다. 며칠 후, 즉 9월 6일인가 7일에 보다 긴밀한 회합이 나의 아파트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일리치는 전쟁에 관한 그의 테제를 발표했다.” (G. L. Shklovsky: Recollections (1925), in: O.H. Gankin and H.H. Fisher: The Bolsheviks and the World War,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1940, p. 143)

438) 여기서 언급해줄 것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각종 맑스주의자들 (그 말의 광의의 의미에서)에 의해, 예를 들어 Hal Draper나 Brian Pearce 같은 사람들에 의해 표명된, 레닌의 혁명적 패전주의 전략에 대한 비판은 전혀 근거 없는 비판이다. Hal Draper는 사이비 맑스주의 학술가였고, Brian Pearce는 트로츠키 등의 수많은 저작을 러시아어에서 영어로 옮긴 번역자로서 가치 있는 작업을 한 학자였다. 그들의 비판 내용과는 반대로, 레닌은 처음에 패전주의를 러시아에만 타당한 전략으로 간주하지도 않았으며, 나중에 패전주의를 상대화하기도, 포기하지도 않았다. 이 점에서 우리는 Cliff Slaughter의 답변에 동의한다. (Lenin and the Imperialist War of 1914–1918, in: Fourth International, Vol. 4, No. 3, November 1967, pp. 81–88). Brian Pearce는 다음 논문에서 자신의 견해를 상세히 설명했다. Lenin and Trotsky on Pacifism and Defeatism, in: Labour Review, Vol. 6 (1961), No. 1, <http://www.whatnextjournal.co.uk/Pages/History/Pearce.html>, 레닌주의에 대한 Hal Draper의 수정주의적 공격은 다음의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The Myth of Lenin's "Revolutionary Defeatism", 처음에 이 글은 1953/54년에 사흐트만 파의 잡지 New International에 발표되었다. <http://www.marxists.org/archive/draper/1953/defeat/index.htm>, 레닌의 패전주의 강령에 대한 훨씬 더 정확한 해설은 Roman Rosdolsky의 다

볼셰비키 G.L. 실로프스키의 비망록에 따르면, 레닌은 1차 세계대전 개전 뒤 스위스에 도착하자마자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제국주의 전쟁 시에 자국의 패전을 바라지 않는 자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⁴³⁹⁾

베른 도착 다음날 레닌은 동지들과의 회합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 회합에서 레닌은 그의 동지들에게 이 제국주의 전쟁에서 필요한 전술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전쟁에 관한 테제 — 나중에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언>>을 비롯한 몇몇 결의문으로 확장된다 — 가 볼셰비키 재외지부들의 베른 회의에서만 아니라 러시아 국내의 지하당 중앙지도 기관들에 의해서도 승인, 채택되었다. (1915년 2월말).⁴⁴⁰⁾

그의 전쟁 테제의 핵심 사상은, 계급투쟁 방법들을 통해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국 부르주아지의 혁명적 타도를 위해 전쟁이 야기한 위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쟁에서 자국 정부의 패배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혁명적 계급은 반동적인 전쟁에서 자국 정부의 패배를 바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자명한 공리다. 의식적인

은 저작에서 볼 수 있다. Studien über revolutionäre Taktik, Zwei unveröffentlichte Arbeiten über die II. Internationale und über die österreichische Sozialdemokratie (Verlag für das Studium der Arbeiterbewegung, West-Berlin 1973; 이 책은 나중에 영역되었다(Imperialist War and the Question of Peace). 다음의 온라인에서 읽을 수 있다. <https://www.marxists.org/archive/rosdolsky/1978/impwarqpeace/index.htm>. Rosdolsky는 우크라이나의 트로츠키주의자이자, 탁월한 맑스주의 학자였다. (맑스의 <<자본론>> 전사(前史)에 관한 그의 저작을 보라.) 그러나 그의 숙고된 연구조차도 약점이 없지 않다. 그는 한 강대국이 자신의 라이벌 국 전체를 정복할 수 있는 때와 같은 경우들에서는 레닌의 패전주의를 상대화한다.

439) 다음에서 인용. Alfred Erich Senn: The Russian Revolution in Switzerland, 1914–1917,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London 1971, p. 33

440) Shklovsky는 볼셰비키 두마 의원단 재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볼셰비키 재판에서 페트로프스키 의원이 한 증언으로 이 테제도 페테르그라드의 가장 큰 공장 7개에서 채택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편집자들은 편집자 주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러시아에서 이 테제는 등사판으로 인쇄되어 주요 당 조직들에게 보내졌다. 1914년 9월 후반부 동안 페테르부르크의 많은 공장 노동자들에게 의해 테제가 토론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의하면, 카메네프에게 테제가 보내졌고, 10월에는 모스크바에서 토론되었다. 바쿠에서도 테제가 발견되었다... 사모일로프는 1914년 9월 중순, 국외에서 귀국하자마자 이바노보-보즈네센스크의 당원 회의에서 재외 중앙위원회 사무국의 견해를 발표했다고 회고한다.” (같은 책, 144쪽)

사회배외주의자 도당이나 그들의 영혼 없는 시종들만 이 공리와 다룬다.”⁴⁴¹⁾

레닌은 세계대전 개전 초에 패전주의 입장을 선언하며 단 하나의 정의로운 전쟁은 피억압자의 권력 장악을 위한 전쟁이라고 밝힌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 자들에 찬성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모든 피억압자의 성스러운 전쟁, 자기 조국 정복을 위한 성전!”을 우리는 언제나 찬성한다.”⁴⁴²⁾

이러한 패전주의 입장은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과 결합되었다. 그리하여 볼셰비키의 핵심 슬로건은 “내란”이었다. “단 하나의 올바른 프롤레타리아 슬로건은 지금의 제국주의 전쟁을 내란으로 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⁴³⁾

“우리는 내란, 즉 억압계급에 대하여 피억압계급이 수행하는 전쟁, 노예 소유주에 대하여 노예가 수행하는 전쟁, 지주에 대하여 농노가 수행하는 전쟁, 부르주아지에 대하여 임금노동자가 수행하는 전쟁 등을 적법하고 진보적이며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한다.”⁴⁴⁴⁾

볼셰비키는 그들의 내란 전화 전략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체화했다.

“다음 사항들은 현 제국주의 전쟁을 내란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첫 단계 방침들이다. 1) 전쟁공채에 대한 찬성투표를 절대 거부하고, 부르주아 정부에서 사임한다. 2) 계급 휴전 (국내평화; bloc national, Burgfrieden) 정책과 완전히 단절한다. 3) 정부와 부르주아지가 계엄령을 도입하여 헌법상의 자유를 폐지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비합법 조직을 만든다. 4) 참호에서, 그리

441) V.I. Lenin: The Defeat of one's own Government in the Imperialist War (1915); in: LCW 21, p.275. [레닌 <제국주의 전쟁에서 자국 정부의 패배>, 레닌전집 59권 (“제2 인터내셔널의 붕괴”), 양효식 옮김, 아고라, 335쪽]

442) V. I. Lenin: The European War and International Socialism (1914); in: LCW 21, p. 20. [레닌 <유럽 전쟁과 국제사회주의>, 레닌전집 58권 (“마르크스”), 양효식 옮김, 아고라, 19쪽]

443) V.I. Lenin: The War and Russian Social-Democracy (1914); in: LCW 21, p.34. [레닌 <전쟁과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레닌전집 58권 (“마르크스”), 양효식 옮김, 아고라, 41쪽]

444) V.I. Lenin and G. Zinoviev: Socialism and War (1915); in: LCW 21, p.299. [레닌 <사회주의와 전쟁>,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29쪽]

고 전장 일반에서 교전국 병사 간의 우애를 지지한다. 5) 프롤레타리아트 일반에 의한 모든 종류의 혁명적 대중행동을 지지한다.”⁴⁴⁵⁾

불세비키는 계급투쟁을 촉진하는 데 이용해야 하는 객관적으로 폭발적인 정세를 제국주의 전쟁이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전쟁은 의심할 바 없이 가장 침예한 위기를 낳았으며, 믿기 힘들 정도로 대중의 고통을 증대시켰다. 이 전쟁의 반동적 성격, 그리고 모든 나라 부르주아지가 그들의 악탈적 목표를 ‘민족’ 이데올로기로써 은폐하기 위해 쏟아낸 파렴치한 거짓말들은 객관적으로 혁명적인 정세의 토대 위에서 필연적으로 대중들 사이에 혁명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대중들로 하여금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케 하고, 이 분위기를 심화시키고 구체적 표현으로 정식화시키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 임무는 제국주의 전쟁을 내란으로 전화시키라는 슬로건에 의해서만 올바르게 표현된다. 그리고 전쟁 중에 모든 일관되게 수행되는 계급투쟁과 모든 진지하게 행해지는 ‘대중행동’ 전술은 필연적으로 이 슬로건에 이르게 된다. 강력한 혁명운동이 강대국들의 첫 번째 전쟁 중에 불타오를지, 아니면 두 번째 전쟁 중에 불타오를지, 전쟁 중 일지 아니면 후일지 예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어느 경우든,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체계적이고 확고하게 작업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의무다.”⁴⁴⁶⁾

445) V.I. Lenin: The Conference of the R.S.D.L.P. Groups Abroad (1915); in: LCW 21, p. 161. [레닌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재외지부 회의〉, 레닌전집 59권 (“제2 인터내셔널의 붕괴”), 양효식 옮김, 아고라, 113쪽]

446) V.I. Lenin and G. Zinoviev: Socialism and War (1915), in: LCW 21, p.313. [레닌 〈사회주의와 전쟁〉,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52쪽]

러시아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볼셰비키 선동

러시아 국내에서 볼셰비키는 제국주의 전쟁을 위한 동원에 맞서 저항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았다. 바로 몇 주 전에 대량체포 물결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1914년 7, 8, 9월에 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한 그 밖의 도시들에서 비합법 전단을 배포했다. 나아가 징집 병사들의 가두시위와 항의투쟁을 조직하고자 시도했다. 선전 속에서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다. “전쟁 타도!”, “차르 정권 타도!”, “혁명 만세!”. 또 “정치적으로 조직화하자!”, “스스로 무기를 갖자. 시간이 가고 있다!” 같은 슬로건도 제기했다.⁴⁴⁷⁾

전쟁 기간 중 볼셰비키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실랴프니코프는 그의 회고록에서 가두와 공장에서의 당의 반전 선동에 관해 전하고 있다. 그는 개전 당초에 당 페테르부르크 위원회가 낸 전단에서 다음 내용을 인용한다.

“전쟁 타도! '전쟁과의 전쟁!'이 도시와 마을, 그리고 러시아 전역에서 모두 강력히 울려 퍼져야 한다. 노동자의 적은 국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디서나 노동자계급은 유산자들의 부와 권력에 의해 억눌리고 있다. 어디서나 노동자계급은 착취의 굴레와 빈곤의 사슬에 의해 억눌리고 있다... 페테르부르크 거리에서 노동자들의 피를 씻어낼 시간도 없이, 그리

447) 다음에서 인용. Lenin: Sämtliche Werke, Band XVIII (Der imperialistische Krieg 1914–15), Verlag für Literatur und Politik, Wien 1929, p. 493 (영역은 저자). 다음도 보라. Olga Hess Fisher, H.H. Gankin: The Bolsheviks and the World War; the Origin of the Third International,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1940; Barbara C. Allen: Alexander Shlyapnikov, 1885–1937, Life of an Old Bolshevik, Haymarket Books, Chicago 2015, pp. 56–75; Alexander Shlyapnikov: On the Eve of 1917 (1923), <http://www.marxists.org/archive/shlyapnikov/1923/eve1917/index.html>; W. Astrow, A. Slepko, J. Thomas (Eds): Illustrierte Geschichte der Russischen Revolution 1917 (published in 1928, reprinted by Verlag Neue Kritik, Frankfurt am Main 1970), pp. 73–82

고 막 어제만 해도 페테르부르크 노동자계급 모두와 나아가 러시아의 노동자 전체를... "내부의 적"이라고 낙인찍어 놓고서 저들은 이제 조국 방위를 요구하고 있다. 병사와 노동자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굶주리는 농민과 노동자를 사살하고 가장 훌륭한 아들들을 감옥에서 교살하고 있는 조국의 영광과 코사크 채찍의 영광을 위해 죽으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안 된다.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여러분은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러시아의 자유를 원한다... 전쟁 타도, 차르 정부 타도! 혁명 만세!"⁴⁴⁸⁾

1914년 가을에 배포된 또 다른 전단에서는 노동자에게 스스로 조직하고 다가오는 투쟁을 위해 무기를 취하라고 호소하고 있다.⁴⁴⁹⁾

트로츠키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하는 혁명적 투쟁을 이어가다

나중에 스탈린주의 관료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을 수정주의 세력으로 탈바꿈시킨 뒤에 트로츠키와 제4 인터내셔널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하는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했다. 2차 세계대전 개전 직후, 트로츠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패전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정책으로서, 전쟁 중에도 주적을 국내에서, 제국주의 자국 내에서 보는 정책이다. 반면 애국주의는 주적을 자국 밖에 두는 정책이다. 패전주의 사상은 현실에서 다음을 의미한다. 주적

448) Alexander Shlyapnikov: On the Eve of 1917 (1923)

449) 다음 책에서 역사 주석을 보라, W.I.Lenin: Sämtliche Werke Band XVIII, Wien-Berlin 1929, p. 493, 이 전단에 대해서는 Shlyapnikov의 회고록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으로서의 자국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비타협적인 혁명적 투쟁을 수행하는 바, 여기서 이 투쟁이 자국 정부의 패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구애받지 않고 혁명적 투쟁을 수행한다. 혁명운동 입장에서는 자국 정부의 패배가 가장 해악이 적다.”⁴⁵⁰⁾

나아가 트로츠키는 노동자운동이 이미 평화 시에 ‘자’국 제국주의 국가에 반대하는 것을 배울 때만 비로소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에 준비되어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민족국가의 방어는, 무엇보다 여러 나라로 분열된 유럽 — 민족국가의 요람 — 에서 민족국가의 방어는 완전히 반동적인 과제다. 민족국가는 그것의 국경, 여권, 통화제도, 관습, 그리고 관습의 보호를 위한 군대와 함께 인류의 경제적·문화적 발전에 무서운 방해물이 되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과제는 민족국가의 방어가 아니라 그것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청산이다.... 민족 방어를 설파하는 "사회주의자"는 쇠퇴 사멸하는 자본주의에 봉사하는 소부르주아적 반동이다. 전쟁 시에 자신을 민족국가에 매어놓지 않는 것, 전쟁 지도가 아니라 계급투쟁 지도를 좇는 것은 이미 평화 시에 민족국가와의 비타협적인 전쟁을 선언한 그러한 당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제국주의 국가의 객관적으로 반동적인 역할을 완전하게 인식함으로써만 프롤레타리아 전위는 모든 유형의 사회애국주의에 끄떡없는 난공불락 상태로 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민족 방어" 이데올로기 및 정책과의 실제적 단절은 국제 프롤레타리아혁명의 관점에 설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⁴⁵¹⁾

“패전주의자들” 및 “패전주의” 범주가 출현한 것은 1914-16년 기간이었

450) Leon Trotsky: A step towards social patriotism (1939), in: Writings of Leon Trotsky, 1938-39, p. 209

451) Leon Trotsky: War and the Fourth International (1934); in: Trotsky Writings 1933-34, pp. 304-305 (강조는 원저자)

다. 애초에 그 범주는 볼셰비키를 “비애국적으로” 패전을 주창하는 자들(러시아어로 “porashenzy” - “패전을 내거는 자들”)이라고 비난한 반 볼셰비키적 “사회주의자”들이 사용했다. 이들 사회애국주의자들은 “오보론치 Oboronzy” - 조국을 옹호하는 자들 - 라고 불렀다. “패전주의” 범주는 지배계급의 전쟁 수행 노력에 대한 지지가 부재한, 널리 퍼진 사회 분위기를 묘사하는 범주로도 사용되었다.

볼셰비키는 이 범주를 집어 들어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스위스에서 발행한 볼셰비키 중앙기관지를 레닌과 함께 편집한 지노비에프는 1916년 10월 강령적 기사 속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패전주의자가 되지 않고서 1914-16년 제국주의 전쟁에서 일관된 국제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⁴⁵²⁾ 그 뒤 볼셰비키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과 제4 인터내셔널은 “패전주의” 또는 “혁명적 패전주의” 범주를 보다 체계적으로 사용했다.

또 볼셰비키의 패전주의 전략은 그 이전 맑스주의자들의 언급들을 근거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지노비에프는 프랑스에서 맑스주의의 개척자 게드가 1885년에 아프가니스탄을 놓고 러시아와 영국이 전쟁으로 치달았을 때 양측 모두에서의 “패전주의”를 주창했다고 적었다.

“1885년에 쥘 게드는 러시아와 영국 간의 전쟁 돌입 기세를 보고 기뻐했는데 이는 그러한 파국으로부터 사회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에서였다. 이런 식으로 행동했던 당시의 그는, 즉 프롤레타리아트에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발발을 앞당기기 위해 두 강대국 간의 전쟁을 이용하라고 호소했던 당시의 그는 현재의 그보다 훨씬 더 맑스주의자였다. "위대한 평화주의 웅변가 장 조레스"의 전통을 상바 (Sembat)와 더불어 이어가고 있는 현재의 게

452) Gregory Zinoviev: Der ‚Defaitismus‘ früher und heute (1916); in: Lenin/Sinowjew: G. Sinowjew/ V. I. Lenin: Gegen den Strom, Verlag der Kommunistischen Internationale, Hamburg 1921, p. 442 (영역은 저자)

드보다는 말이다.”⁴⁵³⁾

게드는 이 때 “전쟁 만세”라는 제목의 논설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그는 영국과 러시아를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똑같이 억압적인” 정부로 성격규정 했다. 게드는 두 정부 중 어느 쪽이 패배하든 “우리에게는”, 즉 사회주의에게는 좋은 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패배는 차리즘의 패배를, 러시아의 정치적 해방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첫 결과는, 페테르부르크에서의 정치혁명의 불가피한 결과는 독일 노동자들의 해방일 것이다... 영국의 패배 또한 결코 못지않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것으로 아일랜드가 포위 상태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한편 수단도 — 그리고 그에 따라 이집트도 —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첫 번째 불행 이후, 곧 가장 크고 가장 착취 받는 식민지들의 분리가 시작될 것이다...”⁴⁵⁴⁾

지노비에프는 게드의 접근법을 이렇게 요약했다. “영국과 러시아 간의 전쟁은 해결을, 부르주아 사회질서의 종말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의 승리와 누구의 패배가 바람직한가? 영국인가 러시아인가? 나는 양측 모두의 패배를 바란다.”⁴⁵⁵⁾

몇 년 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코민테른)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하는 혁

453) Gregory Zinoviev: Pazifismus oder Marxismus (Böse Folgen einer Losung.), in: G. Sinowjew / V. I. Lenin: Gegen den Strom, Verlag der Kommunistischen Internationale, Hamburg 1921, p. 119 (In English: Pacifism or Marxism (The Misadventures of a Slogan), in: Spartacist English edition No. 64, Summer 2014, <http://www.icl-fi.org/english/esp/64/zinoviev.html>)

454) 다음에서 인용. Gregorij Sinowjew: Der Krieg und die Krise im Sozialismus, Verlag für Literatur und Kritik, Wien 1924, p. 475 (영역은 저자)

455) 다음에서 인용. Gregorij Sinowjew: Der Krieg und die Krise im Sozialismus, Verlag für Literatur und Kritik, Wien 1924, pp. 475–476 (영역은 저자). 이에 대해서는 다음도 보라. Edgar Hardcastle: Socialists and War (on Boris Souvarine), Socialist Standard, August 1932, https://www.marxists.org/archive/hardcastle/1932/socialists_war.htm

명적 투쟁의 경험을 총괄했다. 1922년 3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강령적 성명에서는 반 군국주의 투쟁에서 적합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제시했다.

“이러한 사실과 고려사항들을 근거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확대집행위원회는 임박해 있는 전쟁 위협에 대항하는 단 하나 효과적인 방어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선언한다... 따라서 여기에 모인 36개국의 대표자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한 가장 강렬한 혁명적 계급투쟁을 위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모든 공산당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 대표자들은 다음을 제안한다.

1. 전쟁의 원인과 성격에 대하여 노동대중 — 청년을 포함하여 — 의 체계적 교육.
2. 대외정책, 군비 등에 관한 모든 문제와 결정을 가장 광범위한 대중의 법정 앞에 가져온다.
3. 모든 종류의 군대와 무장대 속에서 잘 조직된 합법 · 비합법 선전을 수행하여 그들이 이들 문제에 대해 깨우치게 한다.
4. 제국주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어떤 희생이 치르더라도 병력의 이동과 군수물자의 수송을 막는다는 결의를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고취시킨다.
5. 가장 광범위한 대중의 혁명적 의지를 강화하여 거리시위, 총파업, 무장봉기...에 의해 제국주의 전쟁 발발에 맞서 싸운다.
6. 이들 임무의 집행을 위해 일할 합법 · 비합법 기관을 창설한다.
7. 상호 간의 모순이 가장 첨예한 나라들의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적이고 활기찬 국제협력을 담보하기 위한 합법 · 비합법 기관 및 기구를 창설한다.”⁴⁵⁶⁾

456) Communist International: Theses on the Fight against the War Danger (1922), in: Jane Degras: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919-1943, Documents Volume I 1919-1922, p. 332

같은 정신으로 미국의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전쟁에 대비하여 혁명가들에게 주어지는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일상 투쟁을 이어가는 한편으로 전쟁 위기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맑스주의자들의 의무다. 이를 위해 혁명가들은 제국주의 열강의 전쟁 계획을 끊임 없이 폭로해야 한다. 군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전쟁으로 나아가는 매 발걸음마다 노동자계급이 이를 명확히 인식하게 해야 한다. 애국주의적 전쟁 프로파간다에 맞서 싸워야 한다. 노동자 조직들이 전쟁 발발 시에 탄압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이데올로기적으로, 물질적으로 노동자 조직들을 강화시키는 것을 돕는다. 그리고 어디서나, 언제나 혁명가들은 전쟁과의 싸움에서 배신하는 지도자들 — 어떤 진영 출신이든 — 을 폭로해야 한다. 그들은 오만 가지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전쟁광들에게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다.”⁴⁵⁷⁾

이러한 전술은 그 때 이래 유효성을 잃지 않고 있다!

457) John West (James Burnham): War and the Workers (1936), Workers Party Pamphlet, [https:// www.marxists.org/history/etol/writers/burnham/1936/war/index.htm](https://www.marxists.org/history/etol/writers/burnham/1936/war/index.htm); 다음도 보라. A Manifesto against Imperialist War!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Fourth International (World Party of the Socialist Revolution) September 1938,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New York 1973, p. 171-176

19장. 제국주의 국가 간의 분쟁에서 혁명적 패전주의 : 강령적 구성부분 (I)

이제 제국주의 간 분쟁에서 RCIT가 내거는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의 각 구성부분들을 살펴보자.

노동자계급 독자성을 위하여 — 어느 강대국도 지지해선 안 된다!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충돌 · 분쟁에서 올바른 방침을 위한 출발점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이어야 한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자’국 제국주의 국가도, 또는 어느 다른 제국주의 국가도 지지하길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RCIT는 강령적 문서 〈현 시기 혁명가 연합 6대 방침〉에서 맑스주의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미국 · 일본 · EU만이 아니라 신흥 대국 중국 · 러시아도 제국주의임을 인정할 때만이 현 시기 자본주의 위기를 추동하는 모순을 이해하고 올바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오직 그러한 기초 위에서만 이 문제에 관한 유일하게 올바른 반제국주의 강령에 이를 수 있다. 즉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혁명적 패전주의*만이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반대하는 일관된 노동자계급 투쟁의 전략·전술을 담보한다. 혁명가들은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슬로건 하에 제국주의 간 대립·충돌에서 어느 제국주의 국가도 지지하길 거부한다... 이들 강대국들의 반동적·제국주의적 성격을 바로 보지 못하면, 일관된 반제국주의, 즉 맑스주의 노선을 취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어느 한 제국주의 진영을 “차악”이라며 지지하는 것으로 되고 말 것이다.”⁴⁵⁸⁾

이러한 방침은 1차 세계대전 중에 레닌과 볼셰비키가 정립한 바의 계급적 방침과 부합한다. 1915년 9월에 치머발트에서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첫 번째 국제회의 직전에 볼셰비키가 낸 핵심 팸플릿 중 하나인 <<사회주의와 전쟁>>에서 볼셰비키 지도자들은 노동자계급이 여타 강대국뿐만 아니라 ‘자’국 강대국도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⁴⁵⁹⁾

“사회배외주의란 현 전쟁에서 ‘조국방위’ 사상을 주창하는 것이다. 나아

458) RCIT: Six Points for a Platform of Revolutionary Unity Today, A Proposal from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endency (RCIT), Februar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rcit/6-points-for-a-platform-of-revolutionary-unity-today/> [국역: <현 시기 혁명가연합 6대정강>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6-points-for-revolutionary-unity/>]

459) 치머발트 운동 및 레닌이 이끈 치머발트 좌파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John Riddell, *Lenin's Struggle for a Revolutionary International*, New York: Pathfinder, 1984; R. Craig Nation, *War on War*,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1989; Olga Hess Fisher, H.H. Gankin: *The Bolsheviks and the World War; the Origin of the Third International*,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1940; Ian D. Thatcher: *Leon Trotsky and World War One August 1914-February 1917*, Macmillan Press Ltd, London 2000 (Chapter 4); Alfred Erich Senn: *The Russian Revolution in Switzerland, 1914-1917*,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London 1971; Akito Yamanouchi: “Internationalized Bolshevism” : *The Bolsheviks and the International, 1914-1917*, in: *Acta Slavica Iaponica* Vol.7 (1989), pp. 17-32; Horst Lademacher: *Die Zimmerwalder Bewegung*, Vol. 1 and 2, Den Haag 1967; Jules Humbert-Droz: *Der Krieg und die Internationale, Die Konferenzen von Zimmerwald und Kienthal*, Wien 1964; Angelica Balabanova: *Die Zimmerwalder Bewegung 1914-1919*, Hirschfeld, Leipzig 1928; Arnold Reisberg: *Lenin und die Zimmerwalder Bewegung*, Berlin 1966.

가 이 사상은 논리적으로 볼 때, 전쟁 중에 계급투쟁의 포기, 전쟁공채에 대한 찬성투표로 이어진다. 실제로 사회배외주의자들은 반 프롤레타리아적, 부르주아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실제로 그들이 옹호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억압에 대해 싸운다는 의미에서의 ‘조국방위’가 아니라, ‘강대국의 하나로써 식민지를 약탈하고 타민족을 억압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사회배외주의자들은 전쟁이 민족들의 자유와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는 부르주아적 기만을 되풀이하며, 그럼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에 맞서 부르주아지의 편으로 넘어간다. 사회배외주의자들의 범주에는 카우츠키처럼 모든 교전국의 사회주의자들이 동등하게 ‘조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교전국 양 진영 중 일방의 정부와 부르주아지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자들이 있다. 사회배외주의는 실제로 ‘자’국의 (혹은 모든 나라의)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특권과 이익, 약탈과 폭력에 대한 옹호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회주의적 신념들과 바젤 국제사회주의대회에 대한 전적인 배반이다.”⁴⁶⁰⁾

이러한 입장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이다. 하지만 위에서 우리가 상세히 설명했듯이, 이것은 기존 제국주의 열강 (미국, EU, 일본)뿐만 아니라 신흥 제국주의 열강 (중국과 러시아)의 계급적 성격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러한 인식 없이는 그 어느 조직도 필연적으로 사회배외주의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

460) G. Zinoviev / V. I. Lenin: Socialism and War (1915) ; in: LCW Vol. 21, pp. 306–307 (강조는 인용자). [레닌 <사회주의와 전쟁>,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41쪽]

배외주의와의 투쟁

제국주의·군국주의에 대한 투쟁은 강대국들 간에 총탄이 발사되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투쟁이 아니다. 그 투쟁은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총체적 투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싸움이다. 그리하여, 트로츠키가 말했듯이, 그 투쟁은 먼저 노동자 전위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트 다수자의 철저히 국제주의적, 반 배외주의적 정치의식을 요구한다. “전쟁에 대한 투쟁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과 분리될 수 없다. 비타협적인 계급의식이 전쟁에 대항하는 성공적인 투쟁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⁴⁶¹⁾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은 모든 형태의 이데올로기적 배외주의, 난민에 대한 증오, 이주자에 대한 민족 억압, 제국주의 라이벌 국가에 대한 주전론(主戰論) 등등에 대항하는 정치투쟁과 긴밀히 연결된다. 달리 말하면,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은 어느 혁명적 조직이든 그 일상적 정치활동의 유기적 일부여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강대국들에서 배외주의가 대대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을 본다. 이러한 배외주의는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이주자와 민족 소수자를 겨냥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서유럽, 러시아에서 반 이주 배외주의가 크게 일면서 국가 탄압의 증대와 함께 인종주의적 우익 및 파시스트 세력의 확대를 가져왔다. (미국에서는 주로 라틴 출신 이주민과 흑인을, 서유럽과 러시아에서는 무슬림 이주민을 겨냥하여, 러시아의 경우에는 카프카스의 민족 소수자들도 겨냥하여). 중국에는 현재 외국에서 온 이주민이 아

461) Leon Trotsky: How to Struggle against War (1937), in: Trotsky Writings 1937-38, p. 54

주 소수일 뿐인데, 이는 (위에서 우리가 설명했듯이) 광대한 “내부 이주민” 공 급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자국 내 민족 소수자들에 대한 배외 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동 투르케스탄 (또는 신장 [新疆] - 그 지역에 대 한 중국 당국의 공식 명칭)의 무슬림 위구르족에 대해 그러하다.⁴⁶²⁾ 역사적으 로 강대국들 중 가장 격리되어 있어 이주자가 거의 없고, 아주 작은 민족 소수 자인 재일 조선인·한국인만 있는 일본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혐오주의가 매 우 강하다. (이것은 자본가계급이 조만간 값싼 이주노동을 수입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여 국내의 정치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⁴⁶³⁾

그러나 대국 배외주의 (대국 쇼비니즘)는 점점 더 제국주의 라이벌 대국을 겨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EU에서의 반러시아 히스테리를 보라. 특히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그리고 훨씬 더 심하게는 2016년 미국 대선 이 후, 그리고 세르게이 스크리팔 (전 러시아 군 장교로서 영국 정보기관을 위한 이중간첩)에 대한 독극물 공격 이후 반러시아 히스테리가 그렇다.⁴⁶⁴⁾ 또 중국에 대한 기존 제국주의 국가들에서의 공격적 캠페인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이

46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hina: Defend the Muslim Uyghurs against Oppression! 18.10.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defend-the-muslim-uyghurs-against-oppression/>

463) William Pesek: Abe's Japan tries a decidedly foreign concept, November 19, 2018 <http://www.atimes.com/article/abes-japan-tries-a-decidedly-foreign-concept/>

46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섹션에 언급된 RCIT 문헌을 보라. [https:// 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특히 다음의 우리 팸플릿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Uprising in East Ukraine and Russian Imperialism, An Analysis of Recent Developments in the Ukrainian Civil War and their Consequences for Revolutionary Tactics, 22 October 2014, [https:// www.thecommunists.net/theory/ukraine-and-russian-imperialism/](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ukraine-and-russian-imperialism/); 또 RCIT와 MGKP (Russia)의 다음 두 공 동성명도 보라. Military Escalation between Russia and Ukraine at the Kerch Strait. Down with the Reactionary Warmongering on Both Sides! 28 Nov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military-escalation-between-russia-and-ukraine-at-the-kerch-strait/>, Down with Imperialist Warmongering of All Great Powers! Syria attack, Protectionist Tariffs and Salisbury poisoning: Against all imperialist diplomatic, economic and military aggression! In U.S., EU, Russia and China: The Main Enemy is at Home! Support democratic and national liberation struggles of oppressed people! 13.04.2018, [https:// 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syria-down-with-imperialist-warmongering-of-all-great-powers/](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syria-down-with-imperialist-warmongering-of-all-great-powers/)

최신 기술을 통제하고 서방의 통신시스템을 염탐한다며 중국을 비난하는 캠페인이 특히 늘어나고 있다.⁴⁶⁵⁾ 그 역도 사실인데 러시아 국가는 국내의 NGO가 “외국 첩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구실로 NGO에 대한 탄압 조치를 취한다. 동중국해의 센카쿠 섬/다오위다오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모두에서 벌이고 있는 배외주의 캠페인⁴⁶⁶⁾, 또는 세계무역전쟁을 배경으로 한 배외주의 캠페인은 또 다른 예다.

레닌은 개량주의자들과 중도주의자들이 보통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하는 싸움의 어려움을 터무니없이 과소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파업이나 기타 대중행동을 조직할 것이라고 상상한다. 레닌은 1922년 말 헤이그에서 개량주의 노동조합들이 조직한 국제대회에 파견된 공산주의 대표단을 위한 그의 노트에서 이는 완전한 망상임을 설명했다.

“헤이그에서의 회의와 관련하여 전쟁 위협에 맞서 싸우는 문제에서는, 이 것이 간단하고 분명하며 비교적 쉬운 문제라는 편견을 극복하는 것에 최대의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파업이나 혁명으로 전쟁에 보복할 것이다.’ 이것이 모든 저명한 개량주의 지도자들이 통상 노동자계급

46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Yukon Huang: Opinion: China’s Trade War With U.S. Is About Technological Dominance, May 16, 2018 <https://www.caixinglobal.com/2018-05-16/opinion-chinas-trade-war-with-us-is-about-technological-dominance-101250670.html>; Gordon Watts: Meng arrest and Huawei claims illustrate China’s high-tech dilemma, December 12, 2018 <http://www.atimes.com/article/meng-arrest-and-huawei-claims-illustrate-chinas-high-tech-dilemma/>; Joanna Plucinska, Anna Koper: Poland arrests two over spying allegations, including Huawei employee, January 11, 2019 / <https://www.reuters.com/article/us-poland-security/poland-arrests-two-over-spying-allegations-including-huawei-employee-idUSKC-N1P50RN>; David Hutt: Eye on US, Europe looks askance at Huawei, January 14, 2019 <http://www.atimes.com/article/eye-on-us-europe-looks-askance-at-huawei/>

46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No to chauvinist war-mongering by Japanese and Chinese imperialism! 23.9.201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no-war-between-china-and-japan/>

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우 자주, 그들이 말하는 조치들의 의견상의 급진성이 노동자와 협동조합원과 농민들을 만족시키고 달래준다. 아마도 가장 올바른 방법은 이러한 의견을 가장 날카롭게 논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일 게다. 즉 최근 전쟁 이후, 특히 지금, 오직 가장 어리석은 또는 완전히 부정직한 사람들만이 전쟁에 맞서 싸우는 문제에 대한 그 같은 대답이 쓸모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음을 밝히는 것, 혁명으로 전쟁에 ‘보복’하는 것 — 이 말의 단순한 문자적 의미에서 — 이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파업으로 전쟁에 ‘보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상을 설명해야 한다. 전쟁은 최대의 비밀리에 부화된다. 일반적인 노동자 조직들 — 스스로를 혁명적 조직이라 자칭할지라도 — 은 실제로 압박해 있는 전쟁에 직면하여 완전히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필연적으로 ‘조국 방어’ 문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필연적으로 노동인민의 압도적 다수는 자국의 부르주아지에게 득이 되게 그것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쏟아야 한다.”⁴⁶⁷⁾

이러한 평가의 결과 중 하나는, 혁명당과 그 기간 활동가들이 비합법 조건 하에서의 활동, 즉 지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과 함께 노동자 전위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계급을 정치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치적 준비는 노동자계급을 철저히 국제주의적으로, 반배외주의적으로 교육시킬 것을 요구한다. 혁명가들은 조국이 노동자들의 조국이라는 일체의 사상에 맞서 싸워야 한다. 혁명가들은 조국이 한 줌의 강도 자본가들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이 강도들은 “우리와 그들” — 즉 원주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와 국외 노동자 — 을 착취한다. 왜 제국주의 나라의 노동자들이 사장들의 조국을 방어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다.

467) V. I. Lenin: Notes on the Tasks of our Delegation at The Hague (1922), in: LCW Vol. 33, pp. 447-448

노동자가 착취자를 수탈하고 권력에서 내몰 때, 노동자가 권력을 잡을 때, 그 때에야 비로소 조국은 '자신'의 조국이 되며, 그 때에야 비로소 조국을 방어하는 것이 정당한, 실로 필요한 것이 된다. 이러한 노선, 이러한 정신이 제국주의 나라에서 혁명가들의 선전·선동에서 항상적인 공통의 실마리가 되어야 한다!

“파업이나 혁명으로 전쟁에 보복하겠다”는 아나키스트와 기회주의자의 공허한 위협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반대는 각종 중도주의자들에 의해 왜곡되어 왔다. 이들은 제국주의 전쟁에 맞선 일체의 파업운동을 조직하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맑스주의자들의 반대를 왜곡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레닌과 볼셰비키는 특정 '전술', 즉 본격적인 제국주의 전쟁이 일단 시작되면 총파업을 조직할 것이라 위협하는 그러한 식의 전술에 반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즉 부르주아 여론과 국가 탄압이 대대적으로 동원되면서 본격 전쟁이 시작될 때는 이미 그러한 총파업을 조직한다는 것은 너무 늦다. 맑스주의자들은 군국주의와 전쟁몰이에 반대하여 파업을 조직하는 것, 즉 그러한 본격적인 제국주의 간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또는 이후 본격적인 전쟁 중에도, 1916-18년에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나, 1943년 봄 이탈리아에서처럼) 파업을 조직하는 것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 혁명적 노선을 취하고 있던 기간 동안에 이러한 접근법이 제국주의 전쟁 문제에 관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가장 중요한 강령적 성명 (위에서 이미 언급한)으로 체계화되었다. 코민테른은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결정적인 수단으로 다음을 제창했다. “거리시위와 총파업과 무장봉기에 의해 제국주의 전쟁 발발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가장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 의지를 강화시킬 것.”⁴⁶⁸⁾

468) Communist International: Theses on the Fight against the War Danger (1922), in: Jane Degras: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919-1943, Documents Volume I 1919-1922, p. 332

이러한 정신으로, 예를 들어 1922년 12월 헤이그 국제 반전대회에서 소련 노동조합 대표단은 24시간 항의 총파업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반 군국주의 캠페인을 조직할 것을 제의했다.⁴⁶⁹⁾

제국주의 나라에서 맑스주의자들의 의무에 대해 토론하는 대목에서 레닌은 피억압 민족의 자결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필수적 의무임을 설명했다. 피억압 민족의 해방투쟁의 정당성 때문에만이 아니라 강대국의 원주 노동자계급을 국제주의, 반 배외주의의 정신으로 교육시켜야 할 필요 때문에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레닌은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혁명 이전에 소 민족들의 50분의 1이 해방되느냐, 아니면 100분의 1이 해방되느냐가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에는 객관적 원인으로 인해 프롤레타리아트가 두 개의 국제적 진영으로 분열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중 한 진영은 지배 민족의 식탁에서 떨어진 — 무엇보다도 소 민족들에 대한 이중, 삼중의 착취로부터 얻어진 — 빵부스러기로 인해 부패해버린 반면, 다른 한 진영은 소 민족을 해방하지 않고서는, 대중을 반배외주의적, 즉 반병합주의적, 즉 ‘자결주의적’ 정신으로 교육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게 되었다.”⁴⁷⁰⁾

같은 사상을 트로츠키도 옹호했다. 1934년에 발표한 그의 유명한 테제 <전쟁과 제4 인터내셔널>에서 트로츠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민족 방어를 설파하는 ‘사회주의자’는 쇠퇴 사멸하는 자본주의에 봉사하

46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Autorenkollektiv: Studien zur Geschichte der Kommunistischen Internationale, Dietz Verlag, Berlin 1974, p. 101

470) V. I. Lenin: The Discussion on Self-Determination Summed Up (1916); in: CW Vol. 22, p.343. [레닌 <민족 자결에 관한 토론 총괄 정리>, 레닌전집 64권 (“맑스주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76쪽]

는 소부르주아적 반동이다. 전쟁 시에 자신을 민족국가에 매어놓지 않는 것, 전쟁 지도가 아니라 계급투쟁 지도를 좇는 것은 이미 평화 시에 민족국가와의 비타협적인 전쟁을 선언한 그러한 당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제국주의 국가의 객관적으로 반동적인 역할을 완전하게 인식함으로써만 프롤레타리아 전위는 모든 유형의 사회애국주의에 끄떡없는 난공불락 상태로 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민족 방어" 이데올로기 및 정책과의 실제적 단절은 국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관점에 설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⁴⁷¹⁾

실제로, 사회주의 10월혁명 지도자들의 이 중요한 사상은 일반화시킬 수 있다. 혁명가들은 반 배외주의 정신으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국제 노동자계급 연대의 정신으로 대중을 교육하기 위해 제국주의 조국 방어와 관련된 모든 이슈들 — 식민 전쟁, 반식민지 나라에 대한 금융적 약탈, 난민에 대한 국경 폐쇄, 이주자 차별, '테러 방지법', 이슬람 혐오주의, 무역전쟁, 제국주의 라이벌 국가를 겨냥한 애국주의 등등 — 을 이용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모든 형태의 배외주의와 일관되게 투쟁하는 문제, 즉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의 반제국주의 문제도 노동자운동 조직들의 진정한 정치적 성격을 판가름하는 결정적 기준이다. '그 조직은 제국주의 지배계급에 맞서 싸우는 진짜 투사들인가, 아니면 동요하는 기회주의자들이거나 부르주아지의 사회제국주의 시종들인가?' 혁명가들은 제국주의의 이 모든 국내외 정책 이슈들에 대한 노동자 조직들의 입장을 검토하는 것에 의해 그들을 평가 판단해야 한다.

트로츠키는 위에서 인용한 테제에서, 그 어느 사회주의 조직에 대해서도 이러한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개량주의 진영의 내부 투쟁을 주의 깊게 추적하고, 혁명 쪽으로

471) Leon Trotsky: War and the Fourth International (1934), in: Trotsky Writings 1933-34, p. 305

발전해나가는 좌파 사회주의 집단들을 제 때에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조직의 경향을 판단하는 최선의 기준은 민족 방어에 대한 태도, 식민지에 대한 태도 — 특히 해당 나라의 부르주아지가 식민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에서 —,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태도다. "조국 방어"라는 가장 초미의 문제에 관한 공식 여론과의 완전하고 실제적인 단절만이 부르주아적 입장에서부터 프롤레타리아적 입장으로의 전환, 또는 적어도 전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좌파 조직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 정책의 모든 우유부단함에 대한 우호적인 비판과 전쟁의 모든 이론적·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공동의 해결·정립이 동반되어야 한다."⁴⁷²⁾

조건의 변화와 그 결과들

이 같은 노동자계급·인민 대중의 항상적인 정치교육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오늘날 훨씬 더 중요하다. 첫째, 지배계급은 이미 노동자계급·인민 대중을 조종할 수 있는 거대한 가능성들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그 가능성들을 계속 늘리고 있다. 생산력 발전의 부산물로서, 언론매체의 양 자체만이 아니라 매체가 날마다 쏟아내는 정보의 영향력도 또한 엄청나게 증가해 왔다. 특히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그러하다. TV와 인터넷의 확대, 가정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 쇼핑몰에서도 소셜미디어가 갖는 영향력과 파급력,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사용 등, 이 모든 것이 부르주아지에게 24시간 내내 인민을 상시적인 이데올로기 조작 흐름에 노출되도록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472) Leon Trotsky: War and the Fourth International (1934), in: Trotsky Writings 1933–34, p. 328

다. 100년 전, 교회 또는 사원에 가는 노동인민은 일주일에 한 번 노예주의 선전에 노출되었다. 오늘, 노동인민은 매일 24시간, 매주 7일 꼬박 촘촘히 짜인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조종에 노출되어 있다. 이제 인민에 대한 이데올로기 치료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제나 성직자보다는 수많은 익명의 미디어 스타들, “인플루언서들”, “전문가들” 그리고 공식 정치인들과 그들의 시종들이다.

어떻게 지배계급과 반동 세력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인민대중을 조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예들이 있다. 유럽의 반동적인 인종주의 세력에 의한 “난민 범죄”에 관한 “가짜뉴스”의 확산, 데마고그 캠페인(브라질 대선에서 우익 보우소나로에 의한 캠페인이나 시리아 혁명을 겨냥한 아사드와 푸틴 세력에 의한 캠페인과 같은) 등은 단지 두드러진 예일 뿐이다.

이미 레닌은 인민대중이 제도, 이데올로기, 전통 등의 거대한 거미줄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거미줄은 그들이 자생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자신의 계급적 처지와 그에 따른 과제들을 인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이러한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다른 아닌 조직된 맑스주의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과 그들의 현 대표자들과 “사회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과”는 노동인민이 자본주의 하에서 높은 수준의 계급의식과 확고부동함, 자각과 넓은 정치적 시야를 취득할 수 있다는 환상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인민이 오랜 투쟁의 경험 없이도, 단지 투표에 의해 또는 모든 사건들에서 특정 계급 또는 특정 당을 따를 것을 미리 결정할 수 있게 해줄 그런 자질과 능력들을 취득할 수 있다는 환상 말이다. 그것은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현학자와, 카우츠키, 룽게, 맥도널드 유형의 감상적인 사회주의자들이 발명해낸 감상적인 소설이다. 자본주의가 한편으로 대중의 존재 상태를 짓밟혀 있고 짓눌려 있고 겁에 질려 있는 상태로, 분열(농촌)과 무

지의 상태로 처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가 노동자·농민 대중을 속이고 그들의 정신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거대한 허위와 기만의 기구를 부르주아지의 손에 쥐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주의가 아닐 것이다.”⁴⁷³⁾

물론, 맑스주의자로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현상의 내적 모순을 인정한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보급 확대는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피억압자에 의해서도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가장 최근에 프랑스에서의 노란조끼 시위)⁴⁷⁴⁾, 이러한 매체들은 실제로 단시간에 시위와 대항시위를 조직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인터넷은 자유롭다”고 상상하는 소부르주아 공론가들과는 반대로 생산수단과 함께 통신수단도 통상 지배계급이 소유하고 통제하고 있다. 중국의 엄격한 인터넷 국가 통제, 페이스북, 트위터에 대한 검열 증가 등, 이 모든 것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자본주의적 통제 밖의 진공 속에 존재한다는 생각이 완전한 착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가능한 최대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첫째, 검열 없이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여전히 많은 나라들에서 가능하다. 둘째, 이들 매체에 대한 검열이 있더라도 혁명가들이 (준)독재 하에서 제한된 합법적 가능성들을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 볼셰비키가 1905년 이후 차르 러시아에서 <<프라우다>> 같은 합법 신문을 발간하거나 국가두마를 혁명적 선전 연단으로 이용했던 것

473) V.I.Lenin: The Constituent Assembly Elections and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in: LCW 30, pp. 266–267

47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France: Defend the “Yellow Vests” Movement against State Repression! 03.12.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france-defend-the-yellow-vests-movement-against-state-repression/>

처럼)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혁명적 조직들은 매체에 대한 자본주의적 통제를 우회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숙련된 활동가들을 활용해야 한다. (볼셰비키가 <<사회민주주의자>>나 <<프롤레타리>>를 제작할 때 그랬듯이, 또는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지하 인쇄소의 도움으로 <<진실>>을 제작할 때 그랬듯이).⁴⁷⁵⁾

노동자계급 · 인민 대중의 끊임없는 정치교육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전쟁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데 있다. 생산력의 발전은 또한 군사 기술의 대대적인 현대화를 가져왔다. 이 중요한 문제를 여기서 자세히 논의할 수는 없다. 비행기와 위성, 드론, 인터넷 등이 전쟁에서 점점 더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것은 군대가 병사들에게 덜 의존하게 만든다 (따라서 병사들의 애국주의적 사기의 잠재적 붕괴 위험에도 덜 좌우되게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은 군대가 군용 하드웨어에 필요한 필수재를 생산하는 산업 및 그 종사자들, 즉 노동자계급에 훨씬 더 의존하게 만든다. 이로부터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은 군대로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공장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것이다.

혁명적 투사이자 트로츠키주의 기간 활동가였던 빅토르 세르쥬 (1935년에 스탈린의 굴락 [강제수용소]을 탈출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하나)는 1926년에 발표한 한 숙고한 글에서 이미 이러한 상황 전개에 대해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475) 2차 세계대전 시에 프랑스 트로츠키주의자들의 경험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Yvan Craipeau: Swimming Against the Stream. Trotskyists in German Occupied France, Merlin Press, Pontypool 2013

“전쟁의 기술 자체가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을 유지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지난 전쟁에서 참호 안의 각 사수 뒤에는 산업 노동과 학살 조직으로 편제된 다섯 명의 병사와 노동자가 있었다. 전투원 뒤에 있는 노동자의 수는 살육의 기계화가 진척됨에 따라 의심할 바 없이 증가할 것이다. 전쟁은 이제 전장에서보다 공장에서 더 치러진다. 공장은 전장의 연장이다. 전장에 복무하는 병사의 가치와 장교의 재능을 결정하는 것은 공장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산업중심지는 요새보다 더 공습에 피해 받기 쉬운, 나라의 취약 지점으로서, 서로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안기려고 할 때 선정하는 지점이 바로 산업중심지다. 원활한 산업 동원은 군사작전의 기본 조건이다. 결론적으로 전쟁은 전 국민의 동원으로 시작할 것이다. 실로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의 목숨이 위협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항공술과 화학무기의 발전으로 적들이 산업중심지의 파괴라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래의 전쟁에서는 후방 동원도 군대 자체만큼이나 중요할 것이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각 공장마다, 각 작업장마다 임무가 있고, 각 작업자들마다 기능이 있다. 기계 하나도 설비 목록에서 누락되지 않는다. 기계를 준비하는 데서, 두 말할 것도 없이 강제 기구가 제1격을 가할 것이다.”⁴⁷⁶⁾

오늘, 근 한 세기 뒤에 이러한 관찰은 백배나 더 유효 적실하다. 제국주의 전쟁 기계는 금속 생산만큼이나 컴퓨터에 의존하며, 탱크, 항공기 (모든 개별 부품들을 포함하여)만큼이나 인터넷에 의존한다.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은 모든 직장에서, 인터넷 등등에서 수행될 수 있고, 또 수행되어야 한다!

476) Victor Serge: New Aspects of the Problem of War (August 1926), <https://www.marxists.org/archive/serge/1926/08/war.htm>

서방 제국주의 나라들에서의 모럴 위기

끝으로, 우리는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해외 군사모험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가 줄어드는 추세에 대해 반복해서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은 중요한 사태발전으로서 제국주의의 쇠퇴를 반영한다. 무엇보다도, 대중이 지배계급의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고 전쟁에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자본가 국가가 대중을 조종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제국주의자들은 가능한 한 그들 군대의 사상자를 줄이도록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병력의 태반을 철수해야만 했던 사실로 증명된다. 베트남전이나 1950-53년 한국전쟁에 비해 손실이 훨씬 작았음에도 말이다. 미 국방성의 공식 수치에 따르면, 미군은 2003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이라크에서 4,423 명, 2001년에서 2014년 사이에 아프간에서 2,216 명의 병력을 잃었다.⁴⁷⁷⁾ 이것은 공식 수치일 뿐, 실제 사상자 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전 사상자에 관한 각종 문서들이 위키리크스에 의해 공표되었고, 그 문서들에 나오는 수치도 다르지 않으므로 편차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 하나의 예는 러시아다. 이미 1994-96년 체첸에서의 1차 전쟁 중 러시아 병사들의 사기 저하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체첸 게릴라들이 병력 수에서 열 배가 넘는 (약 7만 명) 러시아 군을 패퇴시킬 수 있었다.⁴⁷⁸⁾ 오늘, 1990

477) U.S. Department of Defense: Casualty Status as of 10 a.m. EST Nov. 21, 2018, <https://dod.defense.gov/News/Casualty-Status/>

47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ussian Troops Out! Self-determination for Chechnya! Joint Statement of the League for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LRCI) and the Trotskyist Faction, 30.06.199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freedom-for-chechnya/>; Where does the RCIT Stand on Russia's Occupation of Chechnya?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ussia-and-chechnya/>

년대의 전임자 엘친에 비해 그 입지가 훨씬 더 강력한 푸틴 정권조차도 시리아 군사 개입에서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나는 것을 피하려고 조심하고 있다. 그 결과, 푸틴 정권은 민간군사기업 와그너그룹 같은 용병들에게 많은 군사 임무를 아웃소싱 한다.⁴⁷⁹⁾

식민정착국가 이스라엘조차도 군대의 사기저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06년 여름 (3만 명의 병력 중) 단 122명의 전사자만 났음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전쟁에서 헤즈볼라에게 패배했다. 또 최근 2014년 가자 전쟁의 결과를 보라. 이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인 (대부분이 민간인)은 2,300명이 죽음을 당한 데 반해 이스라엘 측 전사자는 단지 73명 (그 중 군인이 67명)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패퇴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제국주의 나라들에서의 노동자계급이 그 어떤 “대의”로도 스스로를 ‘자’국 국가와 일체화하지 않는다는, 그리하여 ‘자’국 국가를 위해 희생할 태세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빅토르 세르주는 위에서 인용한 글에서 이미 이렇게 지적했다. “대의에 의해 살인을 정당화하지 않고서 대중을 살인을 저지르게 이끌 수는 없다.”⁴⁸⁰⁾

제국주의 침략자, 폭압 침략자에 대하여 싸우는 피억압 인민에게 이것은 명백히 다르다. 그들은 외국군의 점령과 독재에 대하여 투쟁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할 태세가 되어 있다. 이른바 이슬람주의 지하드 전사들 사이에 퍼져 있는 유명한 말이 있다. “당신이 생명을 사랑하듯이 우리는 죽음을 사랑한다!” 실로 제국주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나라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을 태세가 되어 있을까?! 이것을 팔레스타인, 시리아, 아

479) TASS: Russia lost 112 servicemen over three years of counter-terror operation in Syria – MP, September 30, 2018, <http://tass.com/defense/1023714>

480) Victor Serge: New Aspects of the Problem of War (August 1926), <https://www.marxists.org/archive/serge/1926/08/war.htm>

프가니스탄, 체첸, 카슈미르 등등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믿기 힘든 영웅주의와 비교해보라!

이것은 종교 문제이며 오직 무슬림 인들만이 그 같은 희생을 할 태세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해방을 위한 자신들의 투쟁에서 엄청난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비 무슬림 인들의 수많은 사례가 있다. 1918-21년의 내전에서 반동 백위군과 외국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혁명 조국을 방위하는 데 성공한 러시아의 노동자·농민들이 있다. 또 1941-45년 동유럽과 발칸반도에서 소련 군대와 파르티잔은 나치 점령군에 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웠다. 1941-45년에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대하여 싸우다 백만 명의 베트남 인들이 죽임을 당한 베트남 전쟁에서도 같은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또 스리랑카의 타밀 인들은 2009년에 피비린내 나는 패배를 당하기 전까지 수적으로 우세한 적에 맞서 4반세기 동안 그들의 자치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해냈다. (“타밀 타이거”는 스리랑카군, 이른바 “블랙 타이거”에 대하여 자살 작전을 수행하는 특공대를 가지고 있었다.)

요약하면, 강도 국가들인 퇴락하는 제국주의 사회들은 정의로운 대의를 위해 싸우는 피억압 인민들보다 타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작다! 제국주의 나라들에서의 혁명가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인민 속에서의 배외주의적 “모럴”을 더 한층 약화시키고 국제주의적 연대를 제창함으로써 피억압자의 투쟁을 원조할 수 있다.

당연히 이 임무는 더 넓은 목표의 일부다. 국제주의적 연대의 정신으로, 반배외주의 정신으로, 그 어느 강대국과도 결별한다는 정신으로 노동자계급의 정치교육 수행이라는 목표 말이다. 이것이 바로 맑스·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유명한 말의 참뜻이다. 바로 이

러한 정신으로 사회주의자들은 타 인민에 대해 자국 인민의 증오를 부추기는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적 배외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한 맹목적 애국주의는 노동인민의 의식을 오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그 어느 강대국이든 — 그것이 '자'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든, 외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든 —, 일체의 강대국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지지에 대해서도 단호한 반대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이 제국주의 민족국가와의 모든 형태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일체화와 단절할 필요를 설명해야 한다.

20장. 제국주의 국가 간의 분쟁에서 혁명적 패전주의 : 강령적 구성부분(2)

다가오는 광적인 배외주의의 시기에 대비하여 노동자계급을 교육시키고 준비시키는 임무는 순 문필적인 임무가 아니며, 또 아니어야 한다. 그 임무는 정치투쟁의 다양한 구체적, 실천적 측면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한 강대국의 다른 강대국에 대한 제재 문제

제국주의 간 패권쟁투의 한 형태는 한 강대국 (또는 한 강대국들 블록)이 다른 강대국 (또는 다른 강대국들 블록)에 대해 가하는 (경제) 제재다. 현재 이 같은 제재 중 하나로 크림반도의 병합과 동 우크라이나 내전 발발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해 가한 제재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도 제재로 보복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제재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국제연맹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UN의 전신)은 1935년에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 이후 이탈리아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라이벌들이 서로에 대해 가하는 모든 종류의 제재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한 제재로 타격을 입는 강대국을 동정해서 우리가 제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우리는 제재가 경제적 침략의 도구,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제국주의적 패권쟁투의 도구이기 때문에 제재에 반대한다. 제국주의 라이벌들의 서로에 대한 제국주의적 제재는 군사적 도발·침략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다. 이러한 제재는 자국 주민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종하고 주민을 강대국 패권쟁투에 동원하고 라이벌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는 데 봉사한다.

1936년 미국의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과 그로 인한 국제연맹의 대(對) 이탈리아 제재 상황에서 그러한 제국주의적 제재를 지지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소책자를 내서 다음과 같이 환기시켰다.

“제재는 전쟁 대책이다. 제재는 금융 신용공여의 철회, 무역 금수 조치, 다양한 형태의 보이콧 조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제재 조치들을 실제로 집행하려면 제재 대상국에 대한 봉쇄가 필요할 것이다. 역사가 그리도 자주 증명해 왔듯이, 그러한 제재의 가능한, 거의 확실한 결과는 전쟁이다. 봉쇄된 국가는 정치적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평화롭게 그러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정부들 (이들이 국제연맹 가맹국 정부든 아니든)이 가하는 제재를 지지하는 것은 사실상 그 자본주의 정부들 자체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그러한 지지가 필연적으로 전쟁에 대항하는 혁명적 투쟁과 에티오피아의 혁명적 방어에 대한 배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혁명적 방어는 언제나 자본주의 정부들과 그 정부들이 봉사하는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투쟁이다... 맑스주의자들은 국제연맹 또는 자본주의 정부의 ‘제재’에 대한 일체의 옹호를 배반으로 간주하

여 거부, 폭로한다.”⁴⁸¹⁾

이것은 결코 국제 노동자계급이 어느 한 강대국의 반동적 공격 앞에서 수동적인 채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예를 가지고 보자면,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은 에티오피아의 해방전쟁에 대한 국제 연대를 조직했고, 이탈리아에 대한 노동자 제재를 내걸었다. 이러한 노동자 제재는 이탈리아와의 무역에 반대하는 전 세계의 노동조합들과 그 밖의 프롤레타리아 조직들이 석유나 무기 등의 선적을 겨냥하여 조직한 보이콧 행동들로 이루어졌다. 1933년, 히틀러가 권력에 오른 뒤 독일에 대항하여 비슷한 보이콧 캠페인이 시도되었다. 다시 미국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소책자에서 인용해보자.

“이것은 물론 그들이 현 위기 또는 다른 어떤 위기에서 수동적인, 손을 떼는 자세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맑스주의자들은 이탈리아와 에티오피아 간의 분쟁에서 중립적이지 않다. 맑스주의자들은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패배와 제국주의에 대한 타격 — 이러한 패배가 바로 타격이다 — 을 내걸며, 따라서 에티오피아의 승리를 내건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정부들과 제국주의 국제연맹에 지원과 제재를 호소함으로써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에게 프롤레타리아적 ‘제재’를 호소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노동자계급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행동의 결과로 나온 제재만이 전쟁에 대한 혁명적 투쟁에서 가치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재만이 계급을 국가와 계급적 적으로부터 분리시켜주고 노동자들의 투쟁력 — 오직 이 투쟁력만이 노동자권력으로 가는, 그리하여 전쟁 패배로 가는 길을 연다 — 을 증강시켜주기 때문이다. 대중시위와 파업, 노동 보이콧, 에티오피아에 대한 물

481) John West (James Burnham): War and the Workers (1936), Workers Party Pamphlet, [https:// www.marxists.org/history/etol/writers/burnham/1936/war/index.htm](https://www.marxists.org/history/etol/writers/burnham/1936/war/index.htm); 다음도 보라. Maurice Spector: Sanctions and the Coming War (1935), New International, Vol.2 No.7, December 1935, <https://www.marxists.org/history/etol/writers/spector/1935/12/sanctions.htm>

질적 원조를 위한 방어 기금, 이탈리아로 가는 군수물자 선적 거부, 전쟁 위기와 관련한 맑스주의의 혁명적 선동, 이러한 것들이 바로 노동자계급이 활용해야 하는 제재다. 그러나 지금 당면한 위기에서 이러한 것들은 효과 없는 헛된 것이라고? 낭만적이고 공상적이라고? 그렇다면, 혁명적 투쟁 자체가 헛되고 낭만적이고 공상적이다. 아마 그러한 제재가 현 위기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 그것만이 다가오는 투쟁 — 최종적으로 유일의 해결책인 노동자권력을 위한 투쟁 — 에 대비해 계급을 물질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단련시켜줄 것이다.”⁴⁸²⁾

그러나 트로츠키가 당시에 설명했듯이, 제국주의적 제재와 노동자 제재 사이에는 중요한, 실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전자는 해당 강대국의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도구로서 라이벌 강대국을 겨냥한 팽창주의적 목표에 봉사한다. 후자는 국제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목표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

트로츠키는 스탈린주의자들에 대한 논박 속에서 이 차이를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한 것은 스탈린주의적 정책이다. 코민테른 당들은 특히 보다 혁명적인 노동자들에게 호소하려고 하는데 그 호소 방식은 이렇다. 즉 국제연맹을 비난하고 ‘노동자’ 제재를 요구하지만, 그럼에도 ‘국제연맹이 제제에 찬성할 때 우리는 국제연맹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당들은 국제연맹의 수레를 끌 수 있도록 혁명적 노동자들을 수레의 끌체에 묶으려고 한다... 진실은 이렇다. 만약 노동자들이 이탈리아에 대한 그들 자신의 제재를 시작한다면 그들의 행동은 불가피하게 자국의 자본가들에게 타격을 입힐 것이고, 국제연맹은 모든 제재를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연맹이 지금 제재를 제안하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오직 모든 나라

482) John West (James Burnham): War and the Workers (1936), Workers Party Pamphlet, [https:// www.marxists.org/history/etol/writers/burnham/1936/war/index.htm](https://www.marxists.org/history/etol/writers/burnham/1936/war/index.htm)

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침묵한 상태로 있어서일 뿐이다. 노동자들의 행동은 자국 부르주아지와 그들의 국제 결사체에 대한 절대적 반대에 의해서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 국제연맹에 대한 지지와 노동자들의 행동에 대한 지지는 불과 물이다. 그것들은 하나로 결합될 수 없다.”⁴⁸³⁾

또 트로츠키는 중도주의적인 “런던 사무국”에 대한 논박 속에서 그러한 “친 제재주의자들”을 용인하는 그 어떤 조직과도 단호히 단절해야만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은, 그것이 제대로 이해되고 집행된다면, 프롤레타리아트와 그 조직들이 자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와 그 밖의 모든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에 대해 언제나, 어디서나 비타협적으로 적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공포된 런던사무국 대회 추종자들 중에는 이탈리아 사회당 같은, 국제연맹의 (즉 제국주의적) ‘제재’에 대한 악명 높은 지지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아마도 이탈리아 사회당은 이 ‘제재’의 반대자들 — 영국 독립노동당이 이렇게 자처하고 있다 — 과 전쟁에 대항하는 공동의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전쟁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전제는 친 ‘제재주의자들’과 반 ‘제재주의자들’ 간의 통일 단결이 아니라 무자비한 분립이다.”⁴⁸⁴⁾

현대사에는 그들의 범죄 때문에 전 세계적 증오를 불러일으킨 특히 반동적인 국가들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민중적 연대 캠페인 사례들이 존재해 왔다. 그 한 예가 1994년까지 계속되었던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지난 몇 년 우리는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잔인한 억압에 대한 대

483) Leon Trotsky: Once Again the ILP (1935); in: Trotsky Writings 1935–36, p. 201; 다음도 보라. Leon Trotsky: Open Letter To A British Comrade (1936); in: Trotsky Writings 1935–36, p. 295

484) Leon Trotsky: Resolution on the Antiwar Congress of the London Bureau (1936),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New York 1973, p. 99

응으로 반동 아파르트헤이트 국가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보이콧, 투자 회수, 제재 운동 (the Boycott, Divestment, Sanctions (BDS) movement)의 출현을 보았다. 또 대부분의 무슬림 국가들은 제국주의 이스라엘 국가와의 어떠한 경제적, 외교적 관계도 거부한다.

RCIT는 반식민지 나라들이 가하는 그러한 제재에 대해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비판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이러한 제재가 제국주의 국가가 라이벌 제국주의 국가에 대해, 또는 순종하지 않는 반식민지에 대해 가하는 반동적 제재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로서 우리는 노동자·민중 제재를 내건다. 예를 들어 시온주의 국가 같은 반동적인 세력에 대한 제제로서 말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 및 군사 원조를 저지하는 노동자 행동, 소비자 보이콧, 학술 보이콧 등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BDS 캠페인을 비판적으로 지지한다.

세계무역전쟁과 국제주의적 전술

지난 몇 달 우리는 강대국들 간 글로벌 무역전쟁의 출현을 보았다. 트럼프 정부에 의해 개시된 이 세계무역전쟁 – 특히 양대 강국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 이 세계경제를 극심하게 교란시킬 기세다. 미·중이 서로에 대해 보호주의 조치들을 점점 더 늘려감에 따라 말이다.

이러한 보호주의는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우리가 보여주었듯이, 강대국들 – 독일,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과 같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인 영국을 예외로 하고) – 은 1차 세계대전 이전 20년 동안 서로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가 성명과 논설을 통해 설명했듯이, 세계무역전쟁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열강 간의 순 경제적인 충돌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군사적 긴장과 뿔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배외주의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동원과 연결된다. 세계무역전쟁은 역사적인 의미에서 세계 지배를 위한 투쟁이며, 3차 세계대전 of 서막이다.

맑스주의 고전은 언제나 강대국들 간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갈등의 상호 연관을 지적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1911년에 발표한 글에서 이렇게 썼다.

“이 동일한 관점에서 볼 때 영국 정부가 한 바와 같은 선언과 관련하여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임무는 오직 다음과 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 부분적인 군비 제한이라는 사상은 그 모든 실행 불가능성을 놓고 볼 때 미봉책임을 폭로해야 한다. 또 군국주의는 식민 정치, 관세 정치, 국제 정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현 국가들이 정말로 진지하고 정직하게 군비 경쟁 중단을 촉구하길 원한다면 상업 정치 분야에서 무장해제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세계의 모든 부분들에서 식민지 약탈 캠페인과 국제 세력권 정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 — 한 마디로 대외정치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서도 자본가계급 국가의 현 정치의 본질이 요구하는 모든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 — 을 인민에게 명확히 밝혀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회민주주의적 인식의 핵심을 이루는 관점도 명확히 설명될 것이다. 즉 군국주의는 그 두 형태 모두에서 — 전쟁으로서의 형태와 무장한 평화로서의 형태 모두에서 — 자본주의의 적자(嫡子)이자 논리적 결과물로서, 오직 자본주의의 파괴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세계평화와 막대한 군비 부담으로부터의 해방을 정직하게 바라는 사람은 누구든 사회주의도 바라야 한다는 것 말이다. 오직 이런

식으로만 군비 논쟁과 관련하여 진정한 사회민주주의적 계몽과 충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⁴⁸⁵⁾

1914년 이래 레닌의 주요 협력자이자 그 뒤 1920년대에는 스탈린주의 관료에 대항하는 좌익반대파의 중심 인물이었던 카를 라데크도 제국주의에 관한 연구에서 관세 분쟁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면 결국은 제국주의와의 투쟁 그 자체의 실패로 결과할 것임을 강조했다.

“제국주의를 산업의 카르텔 화 및 보호주의 관세 정책과의 연관 속에서 바라보지 않는, 즉 자본주의 발전의 마지막 단계의 필연적 결과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제국주의적 적대를 과소평가하려는 유혹에 쉽사리 굴복할 것이다.”⁴⁸⁶⁾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여타 모든 대결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역전쟁에서도 맑스주의자들은 그 어느 제국주의 진영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충돌·분쟁 — 경제 분야에서든, 정치·군사 분야에서든 — 은 하나의 같은 프로그램, 혁명적 패전주의·반제국주의 강령을 요구한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우리가 여타 여러 혁명 조직들과 함께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무역전쟁에 반대해야 한다.

485) Rosa Luxemburg: Peace Utopias (1911), in: Richard B. Day and Daniel Gaido (Ed.): Discovering Imperialism, Social Democracy to World War I, Koninklijke Brill NV, Leiden 2012, p. 447, online: <https://www.marxists.org/archive/luxemburg/1911/05/11.htm>

486) Karl Radek: Our Struggle against Imperialism (1912), in: Richard B. Day and Daniel Gaido (Ed.): Discovering Imperialism, p. 551. 1914년 이전의 독일 좌파와 비교했을 때 볼셰비키가 수정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서, 그리고 이로부터 결론을 끌어내는 데서 우월했지만, 그럼에도 룩셈부르크, 리프크네히트, 라데크, 메링 등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밝혀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Kurt Mandelbaum: Sozialdemokratie und Imperialismus (1928), in: Kurt Mandelbaum: Sozialdemokratie und Leninismus, Rotbuch Verlag, Berlin 1974

“사회주의자들은 글로벌 무역전쟁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노동자·인민 조직들에게 국제 노동자계급 연대의 원칙하에 단호히 행동할 것을 호소한다. 그러한 원칙은 평화 시와 전쟁 시에 모두, 군사적 도발·침략 시에 뿐만 아니라 경제제재 시에도 유효 타당하다.

* 세계무역전쟁 반대! 동·서 모두에서 강대국 배외주의 반대! 군국주의적 무력 과시 반대!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말한다. "주적은 국내에 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러시아, 캐나다, 일본, 또는 그 밖의 열강들 간의 제재 또는 무역전쟁 시에 모든 관련국 사회주의자들은 그 같은 제재에 반대해야 한다...

* 제국주의 세계화도, 제국주의 보호주의도 모두 반대! 동서의 모든 강대국과 자본주의 기업 반대! 노동자·피억압자의 이익을 방어하는 국제 연대와 국경을 가로지르는 공동투쟁 찬성!”⁴⁸⁷⁾

이것이 제국주의적 세계화 지지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이다. 노동자 운동은 제국주의 독점체들에 의한 모든 형태의 지배 – 세계화의 형태로든, 보호주의의 형태로든 – 에 반대해야 한다. 당연히 이것은, 부르주아지가 여전히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계급이었던 초창기 대두하는 자본주의 시대에는 달랐다. 이 시대에 맑스와 엥겔스는 자유무역을 옹호했고 관세에 반대했다.⁴⁸⁸⁾

그러나 자본주의의 독점 단계로의 전화와 함께, 즉 제국주의 시대의 시작과 함께 혁명적 노동자운동의 전술도 따라서 바뀌었다. 자유무역과 보호주의는 점점 더 상호 의존관계가 되어 하나로 엮였고, 제국주의 독점체가 피억압 인민들 또는 그 라이벌 독점체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서로 다른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되었다. 맑스주의자들은 반식민지 나라가 제국주의 독점체의 지

487) Joint Statement: Global Trade War: No to Great Power Jingoism in West and East!

488) 다음을 보라. Part V in Rudolf Hilferding: Finance Capital, A Study of the Latest Phase of Capitalist Development (1910),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81.

배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제국주의 기업들 간의, 또는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충돌·분쟁에서는 어느 진영에도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맑스주의자들은 이른바 브렉시트 분쟁에서, 즉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아야 하느냐 아니면 떠나야 하느냐의 문제에서 어느 진영도 지지할 수 없다. RCIT와 그 전임 조직은 제국주의 민족국가든(영국처럼), 제국주의 국가 연방이든(유럽연합이든) 모두 제국주의적 지배의 두 형태임을 언제나 강조해 왔다. 잘 알려져 있듯이, 영국 지배계급은 EU 잔류를 원하는 파벌과 탈퇴를 원하는 파벌로 깊이 분열되어 있다. 탈퇴 파는 EU와의 유리한 무역협정을 지키길 원하지만, 그러나 또한 다른 강대국들(미국 같은)과 보다 긴밀한 정치적·경제적 관계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우리가 각종 소책자와 성명을 통해 설명했듯이, 맑스주의자들은 이들 두 제국주의 진영 어디에도 지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적 보호주의와 민족주의에 반대하여 싸우는 데서 제국주의적 세계화와 EU, WTO, IMF 같은 제국주의적 초민족 기구들을 “비판적으로” 지지해선 안 된다. 둘 다 제국주의적 착취의 반동적 형태들을 대표한다. 제국주의적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적 독점자본의 내재적 팽창 드라이브의 한 형태일 뿐이다. 제국주의적 세계화와 제국 창설(EU 같은)은 또 다른 형태다.

실제로 제국주의적 세계화와 제국주의적 보호주의는 상대적 대립물일 뿐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절대적인 보호주의(즉 완전한 쇄국)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무역의 서로 다른 변종들이 있을 뿐이다. 생산력은 배타적 고립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 동시에 세계화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심지어 지난 이십년 동안 – 세계화의 고점 – 에도 다수의 “

무역 장벽”이 제국주의 민족국가들 간에 계속해서 존재했다 (예를 들어 환경 규제, 안전 규제 등등). 여기서는 제국주의 열강과 반식민지 나라 간의 무역협정 - 언제나 후자에게 불리한 - 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⁴⁸⁹⁾

제국주의적 세계화와 제국주의적 보호주의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실례가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최근 재협상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다. 처음에 트럼프는 대대적인 팡파르를 울리며 NAFTA에서 철수했다. 나중에 미 제국주의에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수정판 NAFTA가 체결되었다.⁴⁹⁰⁾ 이 두 판본의 무역협정 간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잠꼬대 같은 소리가 될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적 팡창주의의 이들 형태 어느 것에도 지지를 보내선 안 된다. 브렉시트 지지나 잔류 지지는 제국주의적 지배의 이 두 형태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과 같다. 둘 다 혁명가들에게는 허용될 수 없는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RCIT가 언제나 제국주의적 지배의 두 정치적 형태 모두에 반대하여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내걸어 온 이유다.

프롤레타리아 독자성의 원칙에 기초한 이러한 전술은 거슬러 올라가 맑스주의 고전가들에게 닿아 있다. 노동자계급이 제국주의 시대에 독점 부르주아지의 두 파벌 어느 쪽도 - 자유무역과 생산 국제화에 찬성하는 파벌도, 보호 관세와 민족국가 시장의 진흥을 내거는 파벌도 모두 -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은 맑

48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49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Joe Nocera: This Map Shows Why Trump Couldn't Kill Nafta, 1. Oktober 2018, <https://www.bloomberg.com/view/articles/2018-10-01/virginia-and-canada-forged-deals-through-nafta?srd=premium-europe>; David Fickling: Globalists Will Love Trump's New Nafta Deal, Despite the fanfare, the agreement doesn't change much, 1. Oktober 2018, <https://www.bloomberg.com/view/articles/2018-10-01/globalists-will-love-trump-s-new-nafta-deal?srd=premium-europe>; Jenny Leonard, Josh Wingrove, Jennifer Jacobs, and Andrew Mayeda: Trump Clinches Rebranded Nafta as Canada Joins Pact With Mexico, 1. Oktober 2018,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10-01/u-s-canada-agree-to-nafta-replacement-that-will-include-mexico?srd=premium-europe>.

스주의 고전 저자들에게 기본 공리였다.

1910년 금융자본 출현에 관한 획기적인 저작을 발표한 오스트리아 맑스주의자 루돌프 힐퍼딩 (나중에 힐퍼딩은 개량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된다)은 다음과 같이 썼다.

“자본은 제국주의 정책 이외에 다른 어떤 정책도 추구할 수 없지만, 프롤레타리아트는 산업자본이 절대적이었던 시기로부터 유래된 정책을 제국주의 정책에 맞세울 수는 없다. 자유무역 시대, 국가에 대한 적대의 시대로부터 유래한 낡은 정책을 가지고 발달한 자본주의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쓸모가 없다. 금융자본 — 제국주의 — 의 경제정책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답변은 자유무역일 수 없다. 대답은 오직 사회주의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자유경쟁을 부활시킨다는 이상 — 이제는 반동적인 이상이 되어버린 — 이 프롤레타리아 정책의 목표일 수는 없다. 목표는 자본주의의 폐절에 의한 경쟁의 완전한 제거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그 자신의 해법을 가지고 부르주아적 딜레마 — 보호주의나 자유무역이나 — 를 피한다. 그 해법은 보호주의도, 자유무역도 아닌, 사회주의다. 자본가 거두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사회를 위한 생산 조직, 의식적인 경제 통제다. 그리고 나서 이 전체 사회가 마침내 경제를 자신에게 종속시킬 것이다. 이 전체 사회가 자연계의 운동법칙을 발견한 이후 자연을 종속시킬 수 있었듯이 말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유일 대안으로서 사회주의가 노동자계급 정치의 독자성을 담보하고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서 그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 선전에서 가장 두드러진 자리를 부여 받아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부르주아지의 정책이 가장 완전하게 실시된,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 정치 요구들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측면들이 실현된, 그러한 나라들에서다.”⁴⁹¹⁾

491) Rudolf Hilferding: Finance Capital, A Study of the Latest Phase of Capitalist Development (1910),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81, pp.366-367 (강조는 인용자)

레닌은 그의 <<제국주의론>>에서 이 힐퍼딩으로부터의 인용문을 만족스럽게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카우츠키는 이 금융자본의 시대에 “반동적인 이상”, “평화적인 민주주의”, “오직 경제적 요인의 힘만”을 옹호함으로써 맑스주의와 완전히 단절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이러한 이상은 독점자본주의를 독점적이지 않은 자본주의로 되돌리자는 것으로, 개량주의적 기만이기 때문이다.

군사 점령이 없었다면, 제국주의가 없었다면, 금융자본이 없었다면 이집트 (또는 다른 식민지나 반식민지)와의 무역은 보다 더 ‘성장했을 것이다.’ 이진 무슨 뜻인가? 만약 독점 일반에 의해, 또는 금융자본의 ‘교정’, 명에 (즉 그 또한 독점인)에 의해, 또는 일부 나라들의 독점적인 식민지 보유에 의해 자유경쟁이 제약 받지 않았다면 자본주의가 더 급속히 발전했을 것이라는 뜻인가?

카우츠키의 주장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이 ‘의미’는 무의미하다. 그것이 옳다고, 즉 어떠한 종류의 독점도 없었다면 자유경쟁이 자본주의와 무역을 더 급속히 발전시켰을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무역과 자본주의가 더 급속히 발전할수록 독점을 낳는 생산과 자본의 집중도 더 커진다. 그리고 독점은 이미 생겨났다. 다른 아닌 자유경쟁으로부터! 이제 독점이 진보를 지연시키기 시작했다고 해도, 그것이 자유경쟁을 지지하는 논거가 되진 못한다. 자유경쟁은 그것이 독점을 낳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카우츠키의 주장을 어떻게 돌려보아도 그 속에는 반동과 부르주아 개량주의 외에 아무것도 없다.”⁴⁹²⁾

492) V. 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1916) ; in: LCW Vol. 22, pp. 289-290 (강조는 인용자). [레닌 <<제국주의론>>, 레닌전집 63권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이정인 옮김, 아고라, 188-9쪽]

나중에 트로츠키도 영국 개량주의자들과의 논쟁 속에서 같은 입장을 방어했다.

“영국 노동당 내부의 꽤 분명한 반동 중 한 명인 헤이든 게스트 박사는 의회 내 배외주의자, 군국주의자, 보호주의자로서 자유무역과 보호주의 문제에 관한 자기 당의 노선에 무자비하게 경멸을 퍼부었다. 게스트의 말로는, 맥도널드의 입장은 순전히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제 난국에서 빠져나올 그 어떤 출구도 지시하고 있지 않다. 자유무역의 날들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명백하다. 자유주의의 해체 또한 자유무역의 해체로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보호주의에서는 출구를 거의 찾을 수가 없다. 막 발전하고 있는 젊은 자본주의 나라에게는 보호주의가 피할 수 없는 진보적 발전 단계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오랜 산업국으로서 그 산업이 세계시장에 맞추어져 있어 공세적이고 정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는 보호주의로의 전환이 굴욕 과정의 시작을 말해주는 역사적 증언이며, 현 세계 상황에서는 자생력이 더 낮은 특정 산업 분야를 —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의 조건에 더 잘 적응되어 있는 동일한 영국 산업의 다른 분야를 희생시켜 — 유지시키는 것을 사실상 의미한다. 볼드윈의 당의 망령 든 보호주의 강령은 똑같이 망령 든 사멸해가는 자유무역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회주의적 전복 강령에 의해서만 논박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강령을 다루기 위해서는 게스트와 같은 반동적 보호주의자들과 맥도널드 같은 반동적 자유무역주의자들을 모두 당에서 숙정하는 것이 예비 작업으로 필요하다.”⁴⁹³⁾

이러한 접근법은 혁명가들이 세계무역전쟁과 브렉시트를 비롯한 그 밖의 강

493) Leon Trotsky: Where is Britain Going? (1925), in: Trotsky's Writings on Britain, Vol. 2, New Park Publications, London 1974, pp. 115–116

대국 패권쟁투 형태들에 마주하고 있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 타당하다.

강대국들 간의 전쟁, 그리고 그들 대리인들을 포함한 전쟁

우리가 위에서 밝혔듯이, 혁명가들은 강대국들 간의 군사적 충돌에서 어느 진영에도 지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 혁명가들은 “주적은 국내에 있다”, “자국의 패전이 가장 해악이 적다”, “제국주의 전쟁의 내란으로의 전화” 슬로건들을 내건다. 가능한 경우, 혁명가들은 의회에서 그러한 전쟁을 지지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투표를 해야 한다. 혁명가들은 국가에 의한 탄압에 대비하고, 따라서 비합법 조건 하에서의 지하 활동에 대비하여 스스로를 준비시켜야 한다. 혁명가들은 직장과 지역에서, 병사들 속에서, 학교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선동을 – 합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합법 수단에 의해서도 – 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혁명가들은 양국 군대 간 친교를 내걸고 전쟁에 대한 항의로 대중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맑스주의자들은 1차 세계대전에서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제국주의 양 진영 – 연합국(양탕트) 열강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과 중유럽 열강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 모두에서 패전주의 입장을 취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도 맑스주의자들 – 트로츠키와 제4 인터내셔널로 대표되는 – 은 한편으로 제국주의 독일 · 일본과 다른 한편으로 제국주의 영국 · 프랑스 · 미국 간의 전쟁에서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제국주의 독일과 타락한 노동자 국가 소련 간의 전쟁에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4 인터내셔널은 후자의 방어를 요구했다. 또 제4 인터내셔널은 제국주의 상전에 대항하는 식민지 인민

의 해방투쟁을 지지했다.)

오늘, 우리는 미국·EU 대(對) 러시아, 미국 대 중국, 일본 대 중국 간의 분쟁을 본다. 이들 분쟁이 지금까지는 완전한 전쟁으로 치솟지는 않았지만, 명백히 글로벌 모순의 내적 논리는 불가피하게 새로운 본격 전쟁 - 최종적으로 3차 세계대전을 포함하여 - 쪽을 가리키고 있다. 1차 세계대전 개전 당시에 레닌이 한 경고는 여전히 유효 타당하다.

“제국주의가 유럽 문화의 운명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 일련의 성공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전쟁에 이어 곧 또 다른 전쟁들이 그 뒤를 이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전쟁’이라는 이야기는 공허하고 위험한 거짓말이며, 한 편의 속물적인 ‘신화’다.”⁴⁹⁴⁾

우리가 지난 글들에서 설명했듯이, 그 자신이 모종의 반식민지 국가임에도 제국주의 열강의 대리인(proxy)으로 복무하는 나라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에서 세르비아 (반식민지 나라)는 오스트리아-헝가리와의 전쟁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고, 오히려 연합국 열강의 대리인으로 행동했다. 그리하여 맑스주의자들은 세르비아에서 패전주의적 입장을 - 다른 참전국들에서처럼 - 취했다.

최근에 우리는 중국과 인도 간의 분쟁에서도 일정한 유사성을 보았다. 중국이 제국주의 열강이고 인도가 반식민지이지만 (그 거대한 규모로 볼 때 또한 지역 열강이면서도), 그럼에도 RCIT는 양측 모두에서 패전주의 입장을 내걸었다. 우리가 소책자에서 설명했듯이, 만약 인도가 제국주의 중국과의 분쟁에 돌입한다면, 인도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오직 미 제국주의의 대리인으

494) V. I. Lenin: The Position and Tasks of the Socialist International (1914) ; in: CW Vol, 21, p. 40. [레닌 <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현황과 임무>, 레닌전집 58권 (“마르크스”), 양효식 옮김, 아고라, 54-5쪽]

로 행동하는 것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중국과 인도 모두에서의 패전주의를 내건 것이다.⁴⁹⁵⁾ 2018년 11월 케르치 해협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충돌했을 때도 사정은 동일하여 우리는 양국 모두에서 패전주의를 내걸었다.⁴⁹⁶⁾

(제국주의적) 해악이 “덜한” 쪽을 편들어야 한다?

일관된 패전주의 강령은 모든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를 내걸어야 한다. 패전주의 강령은 한 강대국을 그 라이벌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지지하고 편드는 것, 또는 덜 반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각종 사이비 사회주의 조직들은 최강 제국주의 국가 - 즉 미국 - 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모두 지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지지하고 편들거나, 또는 덜 반대한다. 그러한 접근법은 맑스주의 및 독립적인 사회주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그것은 부르주아 지정학주의 (geopoliticism) 또는 사회제국주의 - 국내 수준에서는 개량주의적 인민전선 전략에 해당하는 대외정책 - 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접근법을 부르주아 지정학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49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hina-India Conflict: Its Causes and Consequences, What are the background and the nature of the tensions between China and India in the Sikkim border region? What should be the tactical conclusions for Socialists and Activists of the Liberation Movements? 18 August 2017, Revolutionary Communism No. 7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ndia-rivalry/>; 다음도 보라. Alan Boyd: Why the Quad can't get it together, November 20, 2018 <http://www.atimes.com/article/why-the-quad-cant-get-it-together/>

49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litary Escalation between Russia and Ukraine at the Kerch Strait, Down with the Reactionary Warmongering on Both Sides! Emergency Statement of the RCIT and the Marxist Group "Class Politics" (Russia), 28 Nov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military-escalation-between-russia-and-ukraine-at-the-kerch-strait/>

것이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의 대의를 촉진하는 국제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가 아니라 세계질서 재정립 - 기존 강대국들 (미국, EU, 일본)에 불리하게, 그
리고 새로운 강대국들 (중국, 러시아)에 유리하게 질서 재편 - 의 관점에서 세
계정세와 투쟁 과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2만 명의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 한 회사에 대항하여 1만 명의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 다른 한 회사와 동맹을 (2만 명 착취 회사가 단지 더
크고 따라서 더 강력한 적이라는 이유로) 맺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맑스주의자들은 항상 강조해 왔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들은 더 큰 부르주
아 당 후보에 대항하여 보다 작은 부르주아 당 후보에 선거 상의 지지를 보낼
수 없다. 보다 우익적인 당들에 대항하여 모종의 자유주의 세력과 인민전선 동
맹을 결성하는 것은 더더욱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은 국제 수준에서도 적용된다. 사회주의자는 한 강대국이 지금
까지 정복한 세력권이 다른 한 강대국보다 단지 작다는 이유로 후자에 대항하
여 전자를 편들 수는 없다.

“부르주아 민족해방운동의 시대에 두 나라가 교전 중에 있다고 가정해 보
자. 현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느 나라의 승리를 바라야 하는가?
답은 명백하다. 해당 나라가 승리할 경우, 부르주아지의 해방운동에 더 큰
추진력을 주고, 그 운동의 발전을 더욱 빠르게 진전시키고, 봉건제를 더 단
호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나라의 승리를 바라야 한다. 한 걸음 나아가, 객관
적인 역사적 상황의 규정적 특징이 변화하여, 민족해방을 지향하는 자본을
대신해 그 자리를 국제적인 반동적 제국주의 금융자본이 들어섰다고 가정해
보자. 위의 교전 중인 두 나라 중 A국이 아프리카의 4분의 3을, B국이 4분의
1을 영유하고 있다고 치자. 아프리카의 재분할이 그들 양국 간 전쟁의 객관
적 내용이다. 우리는 어느 편을 승리를 바라야 하는가? 이렇게 종래대로 문

제를 제기하는 방식은 불합리한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전의 평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십 년에 걸친 부르주아 해방운동도 없고, 장기간의 봉건제 붕괴 과정도 없기 때문이다. A국이 아프리카의 4분의 3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돕는 것도, B국이 (비록 B국이 A국보다 경제적으로 더 급속히 발전하고 있을지라도) 그 4분의 3을 탈취하도록 돕는 것도, 어느 것도 현대 민주주의의 업무는 아니다.”⁴⁹⁷⁾

제국주의자들을 패퇴시키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임무다. 그러한 임무는 또 다른 강대국에 위임될 수 없고 또 위임되어서도 안 된다. 트로츠키가 다음과 같이 지적했듯이 말이다.

“자신이 이끄는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숙적인 제국주의 정부가 이끄는 전쟁을 통해 프롤레타리아트가 위대한 역사적 임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한다. 이 점에서 이들은 절대적으로 틀렸다.”⁴⁹⁸⁾

평화주의의 빈곤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널리 퍼진 대답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평화주의다. 그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서 평화주의는 평화와 비폭력 방법의 호소를 군사적 충돌에 대치시킨다. 이와 같이 평화주의는 철저히 소부르주아적인 강령이다. 사회적 충돌에 대한 모든 근본적 해결책은 폭력의 사용을 포함하였음을 역

497) V. I. Lenin: Under A False Flag; in: LCW Vol. 21, pp.143-144. [레닌 〈남의 깃발을 내걸고〉, 레닌전집 59권 (“제2 인터내셔널의 붕괴”), 양효식 옮김, 아고라, 84-5쪽]

498) Leon Trotsky: A step towards social patriotism (1939), in: Writings of Leon Trotsky, 1938-39, p. 211

사는 증명해왔다. 기원전 480-479년 크세르크세스의 거대한 육해군에 맞서 그리스를 방어한 것, 1258-88년 몽골 침략에 맞서 안남(베트남)을 방어한 것, 1351-68년 홍건군 반란 ["홍건적의 난"]에 의해 중국을 몽골 점령군으로부터 해방시킨 것, 1775-83년 영국 식민통치에 대항하는 미국 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 1861-65년 미국에서 노예제 폐지, 1917년 러시아 혁명, 1945년 나치 제3제국의 파괴, 아시아·아프리카로부터 영국·프랑스 식민제국의 파괴 등, 단지 몇 가지 예만 들어보자. 이들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발걸음 중 어느 하나도 폭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자본주의가 분쟁과 긴장과 전쟁 없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것은 피 비린내 나는 잠꼬대다. 자본주의는 계급적대와 경쟁에 기초한 체제다. 이러한 긴장은, 2차 세계대전 개전 직전에 발표한 소책자에서 미국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필연적으로 전쟁을 되풀이해서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맑스주의는 자본주의가 지속하는 한 전쟁은 올 것이라는 것, 자본주의 하에서의 전쟁은 "우연적 사고"나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다름 아닌 자본주의 메커니즘 그 자체에 내장된 일부다. 전쟁은 경제공황만큼이나 자본주의의 일부다. 주기적인 공황이 없는 자본주의란 있을 수 없으며, 주기적으로 전쟁을 만들어내지 않는 자본주의란 있을 수 없다. 모든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자신의 시장을 확대하고 값싼 원료자원을 획득하고 국내 시장을 넘어 새로운 자본 투자 출구를 찾아야 하는 절대적인 필요 등, 자본주의 자체를 제거하지 않고는 전쟁을 낳는 이 모든 원인들 어느 하나도 제거될 수 없다.”⁴⁹⁹⁾

해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부정하고 비폭력 방법을 전도하는 것은

499) James Burnham: How to fight war – Isolation, Collective Security, Relentless Class Struggle? (1938), SWP Pamphlet, p. 14

가장 나은 경우가 순진하고 가망 없는 백일몽이며, 가장 나쁜 경우는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에 대한, 그리고 인류의 역사적 진보에 대한 완전한 배반이다! 트로츠키가 표현했듯이, “평화주의자들의 유행을 따라 평화를 위해 한숨짓는 것으로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싸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⁵⁰⁰⁾

평화주의의 문제를 토론할 때 일정한 구별 짓기가 필요하다. 첫째, 대중의 우선적이지 않은 평화주의와 직업 정치가들 및 그들에게 고용된 전문가·학자들의 꾸며낸 우선적인 평화주의를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대중의 혼동된 의식을 표현하지만, 군사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의 역병을 없애려는 진보적인 소망을 담고 있다. 당연히 혁명가들은 그러한 관점의 결합을 교육학적으로 설명해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희망을 이해, 공감하고, 그것을 대중의 집단적 투쟁의 전진을 위해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르주아 정치가들과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좌파 지식인들의 평화주의는 그와는 다른 것이다. 혁명가들은 이들을 날카롭게 비난하고 대중에게 그러한 사기의 객관적으로 반동적인 역할을 설명해야 한다.

순수한 형태의 평화주의 - 모든 형태의 무기와 폭력의 일관된 거부 - 는 극히 드물게만 존재한다. 오히려 그것은 베르타 폰 주트너 식의 고결하지만 힘없는 숙맥 같은 예외적인 현상이다. 보다 널리 퍼진 형태의 평화주의는 일관되지 못한, “실용주의적인” 평화주의다. 그러한 “실용주의적” 평화주의자들은 무장경찰의 존재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군대의 존재조차도)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진 분자”에 대한 국가 탄압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만 전쟁에 반대한다 (보통, 그들은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조국방위주의자가 된다). 또는 식민지 나라에서 피억압 인민이 제국주의 점령군

500) Leon Trotsky: Lenin on Imperialism (1939), in: Trotsky Writings 1938-39, p. 167

에 대항하여 폭력을 사용할 경우에만 전쟁에 반대한다.

주트너 류의 무해한 속맥들과는 달리, 제국주의의 위험한 시종들에 다른 아닌 기만적인 “실용주의적” 평화주의자들에 대해서는, 혁명가들은 맹렬히 비난해야 한다.

맑스주의자들은 특정 조건 하에서는 선동에서 평화 슬로건을 사용하는 것의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이것이 행해지느냐다. 평화를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제국주의 전쟁 수행에 대항하는 계급투쟁 방법들을 내거는 것과 결합된다면 유용할 수 있다. 또 무기를 지배계급을 향해 돌릴 것을 요구하는 것과 결합된다면, 제국주의 전쟁을 내란으로 전화시키는 전략과 결합된다면 유용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혁명가들이 제국주의적 전쟁에 제국주의적 “평화”를 맞세우는 것을 날카롭게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평화”란 단지 제국주의 전쟁의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중지하는 것을 뜻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이 전쟁으로 전쟁과 싸워야 할, 해방전쟁으로 점령전쟁과 싸워야 할, 내란/내전으로 제국주의 전쟁과 싸워야 할, 이러한 필요들을 설명해야 하는 근본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평화 일반을 설교하는 것은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대중의 의식을 혼란시키는 것일 따름이다. 그레고리 지노비에프는 1차 세계대전 중에 볼셰비키 당 중앙기관지에서 이 사상을 아주 적절하게 설명했다.

“Die Friedensidee zum Mittelpunkt” — “우리 슬로건의 핵심에 위치해 있는 평화 사상! 이것이 이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범 유럽 제국주의 전쟁이 터진 뒤에 말이다! 이게 당신들이 사건들로부터 배운 것이다!

"Nicht Friedensidee, sondern Bürgerkriegsidee" — 평화 사상이 아니라 내란 사상, 이것이 우리가 그런 보잘 것 없는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이들 위대한 유토피아들에게 외치고 싶은 유혹이다. 시민 아들이여! 평화 사상이 아니라 내란 사상, 이것이 우리 강령의 중심 포인트일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전쟁 전에 평화 사상을 충분히 전도하는 데 실패했다는 데 있지 않다. 문제는 우리가 계급투쟁 사상, 내란 사상을 충분히 또는 진실로 충분히 전도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전시에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서 계급투쟁을 인정한다는 것은 공허한 수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위선이다. 그것은 노동자들을 속이는 것이다.”⁵⁰¹⁾

“그렇다. 우리는 결코 원리적인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우리는 절대로 모든 전쟁에 대한 반대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쟁에 반대한다. 우리는 억압자들의 전쟁에, 제국주의 전쟁에, 수백 수천만 노동자들을 노예의 처지로 떨어뜨리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쟁에 반대한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혁명적 전쟁들의 긍정적인 의의를 부정할 수 없다. 즉 비제국주의 전쟁들, 그리고 예를 들어 1789년에서 1871년 사이에 외국의 억압을 타도하고, 분열된 봉건 영토로부터 자본주의 민족국가를 창설하기 위해 수행된 전쟁들 또는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쟁취한 성과물을 지키기 위해 수행될 전쟁들 말이다." (《사회민주주의자》 40호에 실린 평화주의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보라).”⁵⁰²⁾

몇 년 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평화주의의 위험을

501) Gregory Zinoviev: Pazifismus oder Marxismus (Böse Folgen einer Losung.), in: G. Sinowjew / V. I. Lenin: Gegen den Strom, Verlag der Kommunistischen Internationale, Hamburg 1921, p. 116 (In English: Pacifism or Marxism (The Misadventures of a Slogan), in: Spartacist, No. 64, Summer 2014, <http://www.icl-fi.org/english/esp/64/zinoviev.html>)

502) Gregory Zinoviev: Pazifismus oder Marxismus (Böse Folgen einer Losung.), in: G. Sinowjew / V. I. Lenin: Gegen den Strom, Verlag der Kommunistischen Internationale, Hamburg 1921, p. 119 (In English: Pacifism or Marxism (The Misadventures of a Slogan), in: Spartacist No. 64, Summer 2014, <http://www.icl-fi.org/english/esp/64/zinoviev.html>)

요약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적 현실이다. 부르주아 평화주의는 자본주의적 환상이다. 평화주의는 부르주아 사회개혁만큼이나 자본주의의 모순과 악행과 범죄를 극복하는 데 무능하다. 그러나 평화주의는 부르주아지, 중소 부르주아지의 대열 속으로 불화와 불확실성을 도입할 것이고,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적을 약화시킬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계급적 적이 약화되는 데서 나오는 그 어떤 기회도 활용해야 한다. 모든 부르주아적 평화주의 이니셔티브가 가져오는 기회를, 노동자계급을 투쟁으로 이끄는 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러한 투쟁의 도정에서 노동자계급은 군사주의와 제국주의가 이성과 평화 애호의 점진적인 승리에 의해 철폐 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전투 에너지에 평화주의가 미치는 그 어떤 무력화·약화 효과 — 부르주아 평화주의적 선전과 연결된 위험 — 에 대해서도 상쇄시키는 기능을 해줄 것이다... 평화주의적인 감상적 희망의 안개로 인해, 부르주아지가 삶의 생산수단과 죽음의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덕에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흐릿해져서는 안 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착취와 연속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해 그 두 생산수단 모두를 거머쥐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무력에 의해 자유를 빼앗겼으므로 무력에 의해 자유를 쟁취하고 지켜야 한다.”⁵⁰³⁾

503) Communist International: Theses on the Fight against the War Danger (1922), in: Jane Degras: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919–1943, Documents Volume I 1919–1922, pp. 331–332

군축 슬로건

제국주의 전쟁과 군사주의/군국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은 필연적으로 제국주의 국가의 모든 군비확충 조치에 대한 투쟁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예산에 대한 투쟁도 포함한다. 그러나 계급투쟁에서 필요한 그러한 전술이 전쟁을 피하는 수단으로서의 군비축소라는 부르주아적 전략에 대한 지지로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가 신흥 라이벌에 대한 자신의 군사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군축 조약을 요구하는 것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잘 알려진 방법이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 모든 조약은 강대국들의 군비확충과 새로운 강대국의 출현과 전 세계적 무기경쟁을 피할 수 없었다.

1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 사회민주주의 내 좌파의 주요 대표자 파울 렌쉬는 1912년에 군축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주 적절하게 정식화했다. “군비를 제한한다는 사상은 우리의 이론적 문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강령에도 이질적이다. 지금까지는 그 사상은 반동적 사기 또는 우스꽝스런 평화주의적 수다로 여겨졌다.”⁵⁰⁴⁾

같은 정신으로 트로츠키는 1932년 반전대회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군축”이라는 가식은 전쟁 방지와 아무 공통점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 “군축” 프로그램은 평화 시에 이러저런 종류의 군비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 — 지금까지는 단지 종이 상에서의 시도일 뿐인 — 를 의미할 뿐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군사 기술과 제국주의 금고에 관한 문제다. 무기고, 군수공장, 실

504) Paul Lensch, Eine Improvisation, in: Neue Zeit 30 (1912), quoted in English: Richard B. Day, Daniel F. Gaido (Eds): Discovering Imperialism: Social Democracy to World War I, Historical Materialism Book Series Vol. 33, Leiden 2012, p. 563

협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본주의 산업 전체가 모든 "군축 프로그램" 속에서 그들의 모든 힘을 보존한다. 그러나 국가들이 싸우지 않는 것은 서로가 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들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될 때는 무기를 버린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평화조약들은 쪽정이 쳐 내듯이 일거에 찢혀질 것이다... 기관총과 탱크와 항공기를 공격용과 방어용으로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순 험잡이다. 미국 정책은 이 분야에서도 미국 군국주의 —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무시무시한 — 의 특정 이익에 의해 정해진다. 전쟁은 관습과 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게임이 아니다. 전쟁은 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절멸시킬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요구하고 만들어낸다. 10% 또는 33% 또는 50% 군축 안(案) 속에서 전쟁 방지를 향한 "첫 걸음"을 보는 소부르주아 평화주의는 모든 폭발물과 질식가스보다 더 위험하다. 멜리나이트 폭약과 이페리트 독가스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대중이 평화 시에 평화주의의 매연에 중독되어 있어서일 뿐이다."⁵⁰⁵

나아가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그러한 군축 조약이 실행되는지는 누가 통제하는가? 핵 확산 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을 예로 들어보자. 이 조약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반식민지 나라들이 강대국의 협박 시도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못하도록 핵무기 취득을 막는 데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사태 전개는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비공식으로 200기에 이르는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누구도 시온주의 국가가 핵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했다고 처벌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이것을, 북한이 핵무기를 증강하려고 시도할 때 강대국들이 보이는 반응과 비교해보라! 유엔 안보리는 평양에 잇따라 제재를 가한다. 트럼프 정부는 그 소국을 겨냥해 전쟁을 벌일 기

505) Leon Trotsky: Declaration to the Antiwar Congress at Amsterdam (1932), in: Writings 1932, S. 151-152

세였다. 이 얼마나 제국주의적 위선의 표본인가! 서방 강대국들의 긴밀한 동맹인 이스라엘이 조약을 위반할 때는 어떤 움직임도 없다. 북한이 같은 것을 시도하자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위협에 처한다! 제국주의적 군축 조약에 대한 그 어떤 믿음도 완전히 빗나간 환상이라는 것을, 단 하나 해결책은 노동자계급이 무기고 전체를 자신의 수중으로 가져가는 것임을, 즉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권력을 잡는 것임을 대중에게 설명하는 것이 맑스주의자들의 임무다!

국제중재재판소와 유엔

동일한 소부르주아 평화주의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또 다른 슬로건은 강대국들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중재재판소와 국제연합(UN)에 호소하라는 요구다. 유엔은 그 전임 조직 국제연맹과 함께 언제나 강대국들의 도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유엔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과 같은 강대국 어느 한 나라의 거부권에 대해서도 그것을 거스르는 그 어떤 구속력 있는 결정도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유엔은 이들 강대국의 정치적 계급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만을 내릴 수 있을 뿐이다. 달리 말하면, 유엔은 제국주의적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내릴 수도 없다.

가장 명백한 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민족자결권의 경우다. 수십 년 동안 유엔 총회 (모든 국가들이 출석하는 연례 총회)는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지지하는 결의를 연례행사처럼 한다. 하지만 미 제국주의와 그 동맹들이 이스라엘 정착민 국가의 뒤에 서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스라엘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 결의는 어떤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이 동의하는 공동의 조치라면, 그것은 피억압 인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1947년, 토착 팔레스타인 주민의 축출로 결과한 식민 정착 국가 이스라엘의 창설을 지지하는 유엔의 결정을 보라. 또는 1950년 북한에 대한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하는 결정, 1991년 1월-3월에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결과한 1990년 이라크 제재 결정,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에 대한 기아(飢饉) 제재 등을 보라.

이미 오래 전에 지배계급의 영리한 정치가들은 이러한 제도들의 진정한 성격을 언제나 의식하고 있었다. 독일 외교관 쿠르트 리츨러는 테오발트 폰 베타만 홀베크 총리의 최측근 보좌관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출간한 책에서 이렇게 썼다. “대체로 보아 국제중재재판소라는 도구는 예견하지 못한 사건들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원치 않는 전쟁의 발발을 피하도록 돕는 것이 유일한 제 구실이다.”⁵⁰⁶⁾

유엔의 전임 조직인 국제연맹에 대한 트로츠키의 다음과 같은 신랄한 폭로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 타당하다.

“국제연맹은 제국주의적 평화주의의 요새다. 그것은 강자가 약자를 호령하고 매수하는, 그리고는 미국 앞에서는 엎드려 기어가거나 저항을 시도해 보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일시적인 역사적 결사(結社)를 상징한다. 이 결사체에서는 모든 국가가 똑같이 소련의 적이지만, 그들 중 가장 막강하고 탐욕스러운 국가의 범죄에 대해서는 빠뜨리지 않고 모두 덮어 가릴 준비가 되어 있다. 오직 정치적 맹인만이, 오직 완전히 가망 없는 또는 고의로 사람들의 양심을 타락시키는 자들만이 국제연맹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오늘이

506) J. J. Ruedorffer: Grundzüge der Weltpolitik in der Gegenwart, Deutsche Verlags-Anstalt, Berlin 1914, p. 167 (영역은 저자). 퀴도르퍼(Ruedorffer)는 Kurt Riezler의 가명이었다.

든 내일이든 평화의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다.”⁵⁰⁷⁾

이와 같이 맑스주의자들은 유엔에 대한 그 어떤 호소도 언제나 반대한다. 그러한 호소는 제국주의 제도에 대한 빛나간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다. 맑스주의자들은 유엔을 체계적으로 폭로해야 하며, 인민대중에게 그 같은 강대국 도구로부터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해방을 위해 싸울 것을 요구해야 한다.

RCIT 강령에 정식화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평가를 보라.

“볼셰비키-공산주의자들은 어디서나 부르주아 군사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싸운다. 우리는 평화주의자들, 사민주의자들, 스탈린주의자들의 군축, 유엔 중재, 국가 간 평화공존, 비폭력 저항 등을 호소하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 유엔과 그 위선적인 국제재판소를 자신들의 웅변대회장으로 가지고 있는 지배자들은 결코 세계에서 전쟁을 없앨 수 없다. 오직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 자신들만이 비타협적 계급투쟁 - 무장투쟁을 포함하여 - 을 통해 전쟁을 없앨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노동자계급의 군사훈련 - 노동자계급 자신의 통제 하에 - 을 내거는 이유다. 제국주의 전쟁에서 우리는 지배계급에 대한 그 어떤 지지도 거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국가의 패전을 내건다. 칼 리프크네히트의 슬로건 "주적은 국내에 있다"가 우리의 슬로건이다. 우리의 목표는 제국주의 전쟁을 지배계급에 대한 내란으로 전화시키는 것이다.”⁵⁰⁸⁾

507) Leon Trotsky: Declaration to the Antiwar Congress at Amsterdam (1932), in: Writings 1932, S. 151

508) RCIT: The Revolutionary Communist Manifesto, published in 2012, p. 62; online on the RCIT website at www.thecommunists.net/rcitmanifesto

21장. 제국주의 국가와 피억압 인민 간의 분쟁에서 혁명적 패전주의

이 장에서는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 나라 간의 분쟁에 관한 맑스주의적 입장을 상술할 것이다. 우리가 위에서 설명했듯이, *혁명적 패전주의는 결합 전략* (combined strategy) 이다. 그것은 모든 강대국에 대항하는 일관된 투쟁을, 강대국에 대항하는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에 대한 지지와 통합시킨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 나라 간 분쟁 시의 패전주의 문제를, 앞 장에서 제국주의 간 분쟁을 다루면서 했던 것과 같은 광범위에 걸친 방식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편으론 이 책의 초점이 강대국 패권쟁투 및 그러한 분쟁에서의 패전주의 전략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론 우리가 이미 우리의 책 <<남반구에 대한 대강탈>>에서 이 문제를 광범위하게 상술한 바 있기 때문이다.⁵⁰⁹⁾

마찬가지로 반식민지 나라들 간 분쟁에서의 전술 문제 또한 여기서도 다루지 않을 것이다. 첫째, 이 문제는 본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둘째,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의 책 <<2018년 세계 정세전망>>의 별도 장에서 광범위하게 다룬 바 있다.⁵¹⁰⁾

509)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의 12장 및 13장을 보라.

510) 다음 책의 2장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 장에서는 강대국과 피억압 인민 간 분쟁에서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의 주요 구성부분들을 개괄하고 이 문제에 관한 맑스주의 고전들의 접근법을 요약 제시하는 것과 함께 오늘날 그러한 분쟁의 몇몇 중요한 예들을 검토, 논의하는 것에 국한할 것이다.

* * * * *

RCIT와 그 전임 조직이 자신의 전 역사에 걸쳐 방어해 온 일반적 접근법을 짧게 개괄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와 피억압 인민 간의 분쟁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모든 사회주의자들의 의무다.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도발·침략에 맞서 피억압 인민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제국주의의 패배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 외의 어떠한 다른 입장도 사회제국주의에 다름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트로츠키가 다음과 같이 강조한 것을 보라.

“제국주의 프랑스와 식민지 중국에 공통의 규칙을 정하려고 하는 형편없는 맑스주의자가 있다. 억압국과 피억압국을 구별하지 않는 것은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을 구별하지 않는 것과 같다. 제국주의 나라와 식민지 나라를 같은 레벨에 놓는 자들은, 그들이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 어떤 민주주의 언사를 사용하더라도 제국주의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다.”⁵¹¹⁾

이러한 해방투쟁을 지지하는 것에는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을 적용하는 것

Popular Uprisings,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RCIT Books, Vienna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8/>

511) Leon Trotsky: Petty-Bourgeois Democrats and Moralizers (1938-39); in: Writings of Leon Trotsky, Supplement 1934-40, p. 866

이 포함된다. 이것은 이들 피억압 인민을 대표하는 세력을 편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세력의 지도부에게 정치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그러한 지도부는 보통 소부르주아 민족주의 또는 이슬람주의 세력이다. 레닌과 트로츠키 당시의 많은 식민지 나라들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존재했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은 제국주의 전쟁에 관한 강령적 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4년 동안 자본주의 강대국들에 의한 파괴와 약탈은 영국 식민지들에서 폭풍 같은 혁명운동을 분기시켰다... 이 혁명운동들은 러시아 혁명의 실패와 소비에트 러시아의 존재로부터 용기와 힘을 끌어냈다. 그 운동들은 일차적으로 민족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성격을 가졌지만, 사회혁명적 투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⁵¹²⁾

심지어 반식민지 부르주아 국가들이 강대국에 대항하는 정당한 투쟁의 맨 위에 있는 경우들이 또한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91년과 2003년에 미국 주도 제국주의 연합군에 대항한 이라크).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적 배외주의에 맞서 무자비하게 싸우는 한편, 피억압자들의 *반제국주의적 애국주의*를 지지하고 피억압자들이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적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강대국 지배와 배외주의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제국주의 나라에서의 사회평화주의 세력 및 사회배외주의 세력의 영향력에 맞서 싸우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류들은 보통 공식 노동자운동 (사민주의 당들, 스탈린주의 당들, 노동조합들, 그리고 그 밖의 대중조직들)뿐만 아니라 이른바 “급진” 좌익에서도 지배적인 흐름을 이루고 있다. 보통 이들 세력은 피억압자의 투쟁을 지지

512) Communist International: Theses on the Fight against the War Danger (1922), in: Jane Degras: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919-1943, Documents Volume I 1919-1922, p. 330

하는 것에 거리를 둔다.

이러한 반제국주의적·국제주의적 강령은 레닌과 트로츠키 당시의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 처음 정립하였고 나중에 제4 인터내셔널이 계승, 옹호한 바의 혁명적 노동자운동 전통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오직 이러한 강령의 기초 위에서만 사회주의자들이 피억압 인민의 노동자·빈농과 제국주의 나라에서의 진보적 노동자들이 서로 신뢰하고 통일 단결을 이룰 조건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그러한 토대 위에서만 국제 노동자계급을 국제주의적 기반 위에서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국주의 전쟁과 반식민지 나라의 점령

제국주의의 역사 전체는 강대국의 남반구 인민에 대한 일련의 군사적 공격 - 많은 경우 남반구 인민의 땅을 점령하는 것으로 귀착되는 - 으로 특징지어진다. 20세기 후반부에 제국주의 지배의 형태가 바뀐 것은 사실이다. 직접적인 식민지 지배는 대부분의 경우에 간접적인 반식민지 지배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강대국과 그들의 독점체에 의한 이들 나라의 제국주의적 지배와 착취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었다. 실제로 <<남반구에 대한 대 강탈>>에서 우리가 보여주었듯이 제국주의자들은 피억압 인민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쥐어짜고 있다!

맑스주의 고전은 전(前)식민지들의 형식적 독립으로 제국주의 지배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레닌은 제국주의에 관

한 그의 유명한 책에서 명시적으로 반식민지 나라들을 “형식적으로 독립적인, 그러나 실제로는 금융 및 외교상에 종속의 그물에 얽매어 있는” 나라들이라고 지칭했다.

“반식민지’ 나라에 대해 말하자면 이 나라들은 자연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과도적 형태의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자본은 온갖 경제관계와 온갖 국제관계에 있어서 지극히 큰,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이기 때문에,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누리고 있는 나라들까지 종속시키는 능력이 있고, 실제로도 종속시키고 있다. 우리는 곧 뒤에서 그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종속된 나라들에게서 민족의 정치적 독립까지 뺀 종속 형태가 금융자본에게 가장 큰 ‘편리함’과 가장 큰 이득을 준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반식민지는 이런 측면에서 ‘중간 단계’의 전형적인 형태다. 나머지 세계가 이미 다 분할되어버린 금융자본의 시대에 이들 남은 반(半)종속국들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이 특히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⁵¹³⁾

그리고 이어서 몇 쪽 뒤에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정책을 논함에 있어, 금융자본과 그에 조용하는 국제정책 – 이것이 바로 세계의 경제적·정치적 분할을 위한 열강들의 투쟁으로 이어진다 – 이 국가적 종속의 일련의 과도적 형태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식민지 보유국과 식민지라는 이 두 개의 기본적인 국가집단들뿐 아니라, 정치적·형식적으로는 독립국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금융 및 외교상에 종속의 그물에 얽매어 있는 각양 각색의 종속국들도 이 시대에 전형적인 것이다. 이 형태들 중 하나인 반식

513) V. 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1916); in: LCW Vol. 22, pp. 259–260. [레닌 <제국주의론>, 레닌전집 63권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이정인 옮김, 아고라, 134쪽]

민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지적했다. 또 다른 형태의 예로 아르헨티나를 들 수 있다.”⁵¹⁴⁾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독립에도 불구하고, 또는 오히려 그 때문에 강대국들은 반복해서 이러한 나라들을 공격하거나 심지어는 인민 반란을 진압하고 민을 만든 꼭두각시를 앉히기 위해 이러한 나라들을 일시적으로 점령하기까지 한다.

최근의 과거에서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아 왔다. 2001년 이래 아프가니스탄과 2003년 이래 이라크에서 미국의, 2013년 이래 말리에서 프랑스의, 2015년 이래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군사 개입과 전쟁과 점령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지금도 진행 중인 이스라엘 정착민 국가에 의한 팔레스타인 점령은 또 다른 예다.

또 강대국들이 자신의 군대를 보내지 않고 반식민지 동맹국들의 군대를 사용하여 자신의 대리인으로 복무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전술은 19세기와 20세기에 영 제국이 이미 개발했다. 오늘날 강대국들은 비슷한 정책을 점점 더 많이 배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 200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즉 제국주의 강대국들)가 그 권한을 내려준 이른바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 임무단 (AMISOM)를 들 수 있다. 미군과 프랑스군의 지원을 받는 약 2만 명의 아프리카 군대 - 에티오피아가 최대의 병력을 내고 있다 - 가 2007년 이래, 소부르주아 이슬람주의 알 샤바브 운동이 주도하는 인민 반란과 교전을 벌이고 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서아프리카에서 최근에 결성된 G5 사헬 합동군이다. 2014년 프랑스의 발기로 창설된 이

514) V. 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1916) ; in: LCW Vol. 22, p. 263 (강조는 원저자). [레닌 <<제국주의론>>, 레닌전집 63권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이정인 옮김, 아고라, 139쪽]

공동 군은 사헬 지대 5개국(부르키나파소, 차드, 말리, 모리타니아, 니제르)의 병력 1만여 명으로 구성됐다. 그들의 임무는 프랑스와 “협력하여”(즉, 프랑스의 지휘 아래) “테러리스트”와 싸우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들에서 언제나 RCIT는 제국주의 침략자들(및 그들의 대리인)의 패배와 피억압 인민을 대표하는 세력의 군사적 승리를 요구하는 일관된 반제국주의적 입장을 내걸어왔다.

이러한 접근법은 언제나 혁명적 노동자운동의 입장이었다. 볼셰비키 당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서 매우 솔직했다. 레닌은 이렇게 썼다.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반식민지가 민족전쟁을 벌이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 식민지·반식민지(중국, 터키, 페르시아)는 인구가 거의 십억 가까이 된다. 즉, 지구 인구의 반이 넘는다. 이들 나라에서 민족해방 운동은 이미 매우 강력하거나, 성장해서 성숙해 가고 있다. 모든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 식민지의 민족해방 정치는 *불가피하게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식민지의 민족전쟁으로 계속될 것이다.”⁵¹⁵⁾

이로부터 레닌과 지노비에프는 그러한 전쟁에서 피억압자의 편을 드는 것이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최고의 의무라고 결론 내렸다.

“사회주의자들이 ‘방어적’ 전쟁을 말할 때는 언제나 이러한 의미의 ‘정의전’(正義戰)을 뜻했다. (빌헬름 리프크네히트가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바 있다). 오직 이런 의미에서만 사회주의자들은 ‘조국방위’ 전쟁이나 ‘방어적’ 전쟁을 적법하며 진보적이고 정당하다고 간주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간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일 모로코가 프랑스에 대해, 인도가 영국에 대해, 페

515) V.I. Lenin: The Junius Pamphlet (1916); in: LCW 22, p. 310. [레닌 〈유니우스 팸플릿에 대하여〉,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19쪽]

르시아나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선제공격을 누가 하느냐에 관계없이 그 전쟁들은 ‘정의전’ ‘방어전’이 될 것이며, 사회주의자들은 모두 피억압 국가, 종속 국가,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억압 국가, 노예소유주 국가, 약탈 국가 등의 ‘대’국에 대해 승리하는 것에 동조할 것이다.”⁵¹⁶⁾

1922년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4차 대회에서 트로츠키는 같은 접근법을 표명했다. “지배국 (식민본국)에서의 자본주의 통치를 약화시키는 모든 식민지 운동은 그것이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임무를 돕기 때문에 진보적이다.”⁵¹⁷⁾

또 미국 트로츠키주의자들도 1936년 소책자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했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겨누고 있고 자본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 어느 무장 투쟁 — 예를 들어 자신들의 제국주의 압제자들에 대항하는 식민지들의 반란, 그리고 모든 피억압 · 피착취 인종과 민족의 봉기 등 — 에 대해서도 방관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적극 지지하는 것이 맑스주의자들의 일이다. 맑스주의자들이 파업이나 또는 그 밖에 자본가계급 및 그 정부를 겨냥한 모든 형태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처럼 말이다.”⁵¹⁸⁾

그리하여 트로츠키는 피억압 인민의 편을 들기를 거부한 모든 사이비 사회주의자들을 날카롭게 폭로했다.

“전쟁과 그것의 사회적 원천인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은 피억압 식민

516) V.I. Lenin/G. Zinoviev: *Socialism and War* (1915); in: LCW 21, pp. 300–301. [레닌 〈사회주의와 전쟁〉,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31–2쪽]

517) Leon Trotsky: *Speech at the Fourth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 December 1922), in: John Riddell (Ed.): *Toward the United Front, Proceedings of the Fourth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922*, Historical Materialism Book Series, Brill, Leiden 2012, p. 1000

518) John West (James Burnham): *War and the Workers* (1936), Workers Party Pamphlet, [https:// www.marxists.org/history/etol/writers/burnham/1936/war/index.htm](https://www.marxists.org/history/etol/writers/burnham/1936/war/index.htm)

지 인민들의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전쟁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며 분명한 지지를 보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립적’ 입장이란 제국주의 지지나 다를없다. 그럼에도 이름이 공표된 런던 사무국 대회 지지자들 중에는 흥포한 이탈리아 파시즘에 대항하는 용기 있는 에티오피아 전사들을 ‘중립성’을 이유로 저버릴 것을 주창하는 독립노동당원들이 있다. 또 그 중에는 아랍 농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야만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는 영국 제국주의에 이 순간에도 기대고 있는 ‘좌’의 포알레 시온주의자들 [‘맑스주의-시온주의’를 표방한 유대인 노동자운동]도 있다.”⁵¹⁹⁾

이와 같이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피억압 인민의 투쟁에 분명하게 편을 드는 것은 제3 및 제4 인터내셔널의 공식 선언에 수백 번도 더 반복해서 표명되고 있다. 그것은 맑스주의의 강령적 무기고의 필수불가결한 일부가 되었다. 이러한 노선을 말과 행동에서 실행하지 않는 혁명가란 있을 수 없다!

반식민지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의 비(非)군사적 공격

맑스주의자들은 이러한 반제국주의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반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 공격의 다른 형태들, 비군사적 형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반대한다. 이러한 압력의 잘 알려진 예가 경제제재다. 제국주의 요구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고 감히 거역하려고 하는 반식민지 나라들을 선별하여 강대국이 가하는 경제제재 말이다. 그러한 제국주의적 제재의 가장 끔찍한 최근의

519) Leon Trotsky: Resolution on the Antiwar Congress of the London Bureau (1936),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New York 1973, p. 99

예가 1990-2003년에 유엔이 이라크에 가한 야만적 제재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이 제재로 인해 5세 미만의 아동 5십만 명 이상이 죽었다.⁵²⁰⁾

그 밖의 예로 북한, 이란,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제국주의적 제재가 있다. RCIT는 국제 노동자·민중운동에게 이러한 제재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것, 그리고 제제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지지할 것을 언제나 요구해왔다.

종종 강대국들은 이러한 제재가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애쓰는 나라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제재를 정당화한다. 대부분 이것은 거짓일 뿐이다. 어느 경우든, 수백 수천 기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철저한 위선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강대국들은 남반구에 대한 그들의 지배를 더욱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핵무기 독점을 유지하길 원한다. 우리 사회주의자들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해 싸우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또는 보유하고자 노력하는) 반식민지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적 공격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강력히 반대한다.

민족 소수자에 대한 억압

제국주의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는 민족 소수자에 대한 억압이다. 레닌은 이 중요한 사실을 이미 오래 전에 인정했다. 그는 세계의 민족들이 억압 민족

520) 다음을 보라. UNICEF: Results of the 1999 Iraq Child and Maternal Mortality Surveys, 보고서는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가 발표한 것인데 (fas.org/news/iraq/1999/08/990812-unicef.htm), 예상대로 최근 과거에 삭제되었다.

과 피억압 민족으로 나뉜 것이 제국주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소부르주아적, 기회주의적 유포피아에 대한 대항마로서 사회민주주의 [당시에 맑스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다 - 편집자]의 강령은 억압 민족과 피억압 민족으로의 구분을 제국주의 하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하며 불가피한 것으로 상정해야 한다.”⁵²¹⁾

또 다른 글에서 레닌은 나중에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강령의 중추가 된 이 사상을 반복한다.

“제국주의는 한줌의 강대국들에 의한 전 세계 민족들의 억압이 누적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적 강령에서의 초점은, 모든 민족을 억압 민족과 피억압 민족으로 구분하는 데 두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에 바로 제국주의의 본질이 있는데, 사회배외주의자들과 카우츠키는 이것을 기만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이 구분은 부르주아 평화주의의 시각에서나, 자본주의 하에서 독립 민족들 간의 평화적 경쟁이라는 속물적 유포피아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의미 없는 것이지만,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혁명적 투쟁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극히 유의미한 것이다.”⁵²²⁾

트로츠키도 같은 사상을 강조했다.

“예외 없이 현대의 인류는, 영국의 노동자로부터 에티오피아의 유목민까지 제국주의의 굴레 아래서 살고 있다. 이 점은 단 일분일초도 잊어선 안 된

521) V. I. Lenin: The Socialist Revolution and the Right of Nations to Self-Determination (1916); in: LCW 22, p. 147

522) V. I. Lenin: The revolutionary Proletariat and the Right of Nations to Self-Determination (1915); in: LCW 21, p. 409. [레닌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와 민족자결권〉,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244쪽]

다. 그러나 이것이 제국주의가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발현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제국주의의 담지자인 나라가 있는가 하면, 제국주의의 희생자인 나라도 있다. 이것이 현대의 민족들 및 국가들을 가르는 기본선이다.”⁵²³⁾

제국주의 나라에서 민족 문제의 초미의 현실성은 각종 위기와 대중시위, 인민반란, 국가 탄압 속에서 목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군대와외의 두 차례 전쟁으로 이어진 체첸 인민의 독립을 위한 투쟁을 보라. 그 밖의 카프카스 인민들도 러시아의 억압에 저항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위구르족과 티베트족이 증대하고 있는 국가 탄압에 저항하고 있다. 또 카탈루냐와 스코틀랜드에서 민족자결을 위한 대중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혁명가들은 민족 소수자에 대한 억압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며 피억압 인민의 민족자결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것은 그들의 모든 민족적, 민주적, 문화적 권리와 함께, 그들이 원한다면 독자 국가를 가질 권리까지도 지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로마족, 미국의 토착 아메리카인 등등과 같은 인종 소수자의 자치권을 지지한다.

불세비즘은 피억압 인민의 민족자결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길 거부한 모든 세력들을 규탄했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민족 억압에 맞서 싸우지 않고는 그들의 위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억압국의 사회민주당 (특히 이른바 ‘강대’국의 사회민주당)이 피억압 민족의 자결권 — 그 말의 정확히 정치적인 의미에서, 즉 정치적 분리의 권리 — 을 인정하고 옹호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 권리를 찬성하지 않는 지배 민족 또는 식민본국 민족의 사회주의자는 배외주의자다.”

523) Leon Trotsky: Fight Imperialism to Fight Fascism (1938); in: Writings of Leon Trotsky, Vol. 1938-39, p. 26

이러한 원칙은 레닌 시대 못지않게 오늘날도 유효타당하다!

대중투쟁 전술

제국주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일련의 전술로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을 지지할 의무가 있다. 피억압 인민의 투쟁에 대한 동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은 직장과 지역, 학교에서, 그리고 참호에서 선동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해방투쟁의 정의로운 대의에 대한 각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널리 퍼진 배외주의적 편견 (예를 들어 “테러 위협”,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난민들”에 관한 히스테리, 이슬람 공포증, 남반구의 가난한 인민에 대한 오만한 태도 등등)에 맞서 싸워야 한다.

혁명가들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패퇴시키기 위해 피억압자의 투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실천적 행동을 지지해야 한다. 그러한 활동은 모든 형태의 계급투쟁 (즉 시위, 파업 · 총파업, 봉기, 참전 등등 — 조건과 역관계에 따라)을 포괄한다. 또 여기에는 제국주의 상전들의 공격을 사보타지 하는 실천 행동들이 포함된다. (제국주의 전쟁 기계를 겨냥한 선별 파업, 억압에 봉사하는 노동을 집단 거부하기, 난민들이 제국주의 성채의 야만적인 장벽을 타넘는 것을 돕기 등등).

제국주의 나라에서 혁명가들의 이러한 연대 활동의 한 예로 1920년대 초에 프랑스 공산당이 리피안 베르베르족의 투쟁을 지지한 캠페인을 들 수 있

다. 이 베르베르족은 소부르주아 이슬람주의자 아브드 엘크림의 지도하에 스페인 및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에 대하여 싸웠고 이들 점령군을 그들의 나라에서 몰아내고자 시도했다. 프랑스 공산당은 1925년 10월 12일 베르베르족의 투쟁에 연대하여 총파업까지 포함하는 전투적 반 식민 대중 캠페인을 펼쳤다. 프랑스 공산당은 그 선전·선동 속에서 스페인과 프랑스 제국주의 둘 다로부터 “모로코 땅이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 베르베르족의 투쟁을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⁵²⁴⁾

유용한 국제연대 전술의 한 형태는 반동 세력에 대한 노동자·민중 보이콧이다. 유엔 (또는 개별 국가들)이 - 진보적 대중운동의 압력 하에 - 특히 반동적인 열강에 대해 정식으로 제재를 가한 희귀한 경우들 (예를 들어 1994년 이전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에 대한 제재)이 최근 역사에 존재한다. 오늘날 많은 무슬림 국가들은 제국주의 이스라엘 국가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RCIT는 반식민지 나라들에 의한 그와 같은 제재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한계를 지적한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로서 우리는 시온주의 국가와 같은 반동 세력에 대한 노동자·민중 제재를 내건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 및 군사 원조를 막는 노동자 행동, 소비자 보이콧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BDS 캠페인을 비판적으로 지지한다.

나아가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군대 장군들의 반동적 통제를 타격하고 집단 탈영 및 “적”과의 친교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 사병들 속에서 정치선동을 수행해야 한다.

524) 다음에서 인용. David H. Slavin: The French Left and the Rif War, 1924-25: Racism and the Limits of Internationalism, in: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26, No. 1, January 1991, p. 10; 다음 책에 (독일어로) 수록되어 있는 PCF의 수많은 문서들도 보라. Jakob Moneta: Die Kolonialpolitik der französischen KP, Hannover 1968, S. 42-61

무장 해방투쟁에 참가하는 피억압 인민은 당연히 군사적 원조를 포함한 물질적 원조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원조는 오직 무기 생산자들 및 생산국들로부터만 올 수 있다. 오직 순수관념적 “반제국주의자들”과 위선자들만이 해방세력이 이러한 소스로부터 무기를 얻는 것을 비난할 수 있다. 우리는 피억압 인민이 다른 국가들(제국주의 국가들을 포함하여)로부터 군사적 원조를 비롯한 그 밖의 물질적 원조를 얻을 권리를 방어한다. 그것이 이들 국가에 대한 정치적 종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한 말이다. (이에 대한 부정적인 예가 미 제국주의의 대리인이 되어버린 소부르주아적인 시리아 쿠르드족 인민수비대(YPG)다.) 이러한 국가들의 노동자들은 해방투쟁에 대한 그와 같은 물질적 원조를 차단이 아니라 지지해야 한다.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과의 연대를 위한 국제적 운동들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국주의 나라와 반식민지 나라 각각의 사회주의자들, 노동조합들, 그리고 그 밖의 노동자·인민 대중조직들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공동성명을 비롯한 공동활동이 그러한 목표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

활동가들 사이에서 보통 작은 소수파를 점하는 혁명가들로서는 투쟁의 최대한의 통일 단결을 이루어내는 데 유용한 전술을 적용해야 한다. 혁명가들은 노동자·피억압자 대중조직들에게 실질적인 대중 캠페인을 조직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혁명가들은 독립적인 선전·선동의 자유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한다. 그러한 선전선동의 자유에는 공동 활동에 참가하는 비혁명적 세력들의 활동이 해방투쟁의 이익에 반할 때는 언제든지 그들을 비판할 권리도 포함된다. 이러한 전술은 종파주의적인 자기 고립을 피하는 동시에, 혁명가들이 노동자·피억압자를 도와 기존 지도부의 오류를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결국 이 전술은 노동자·피억압자의 독자적 조직화를 촉진하고 그들이 혁

명적 관점으로 넘어오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한편 이 전술은 보통 소부르주아 민족주의 또는 이슬람주의 세력이 해방투쟁에서 지도 역할을 담당하는 반식민지 나라들 자체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전술은 혁명적 노동자운동에서 반제국주의 통일전선 전술로 알려져 있다. 레닌과 트로츠키 당시의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 이 전술을 처음 정립했는데, 1922년 4차 대회에서 채택된 “동방 문제에 관한 테제”는 이 전술의 개요를 잘 보여준다.⁵²⁵⁾

여기서의 전략적 목표는 피억압 인민의 노동자계급을 부르주아 또는 소부르주아 세력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조직화를 촉진시키는 데 있다. 오직 이러한 정치적·조직적 독립의 기초 위에서만 노동자계급은 피억압 인민의 타 계급·계층을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굴레로부터의 해방으로 이끌 수 있다.

525) 반제국주의 통일전선 전술은 제국주의 지배에 대항하는 투쟁의 진보적 성격을 — 설사 그 투쟁이 (소) 부르주아 세력의 지도하에 전개된다 하더라도 — 강조했다.

“모든 민족혁명 운동에 공통된 주요 과제는 민족적 통일을 가져오고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그리고 논리적으로 일관된 해결책은 그러한 민족운동이 반동적인 봉건적 요소들과 단절하고, 광범한 근로대중을 자신의 대의로, 그리고 이들 대중의 사회적 요구를 표현하는 자신의 강령으로 전취할 수 있는나에 달려 있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은 국가 독립에 대한 민족적 의지를 대표하는 자들 자신이 다양한 역사적 상황 때문에 가장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심분 인식하면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모든 민족혁명 운동을 지지한다. 동시에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은 가장 광범한 대중을 적극적인 투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관된 혁명적 정책만이, 그리고 자신의 계급 지배를 위해 제국주의와의 화해를 추구하는 모든 세력과의 완전한 단절만이 피억압 대중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음을 망각하지 않는다.” (Communist International: Theses on the Eastern Question, 5 December 1922, Fourth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in: Jane Degras: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919–1943, Documents Volume I 1919–1922, pp. 385–386)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은 맑스주의자들이 민족해방 운동의 상층에 있는 (소)부르주아 세력에 대한 그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맑스주의자들은 결집력을 극대화하고 이들 (소)부르주아 지도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통일전선 전술을 적용해야 한다.

“이 슬로건의 유용성은 모든 혁명적 분자들의 결집을 요구하는 세계 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투쟁에 대한 전망에서 나온다. 이러한 결집은 토착 지배계급이 인민대중의 사활적인 이익에 반하는 외국 자본과의 타협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서양에서 프롤레타리아 통일전선 슬로건이 프롤레타리아 이익에 대한 사민주의적 배반을 폭로하는 데 도움이 되어주었고, 지금도 도움이 되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제국주의 통일전선 슬로건도 각종 부르주아 민족주의 그룹들의 동요를 폭로하는 데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이 슬로건은 또 노동대중의 혁명적 의지의 발전과 계급의식의 명료화를 촉진해줄 것이고, 노동대중을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봉건제 잔재에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자들의 맨 앞줄에 서게 해줄 것이다.” (같은 책 390쪽)

1930년대에 제4 인터내셔널의 젊은 지도자 루돌프 클레멘트는 강대국과 피억압 인민 간의 분쟁 시에 제기되는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을 요령 있게 개괄해 놓았는데 그것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 주제를 마무리하자.

“진보적 대의를 겨냥하여 직접적 투쟁을 벌이는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해 그 나라의 프롤레타리아트는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을 이와는 다르게 — 그 투쟁의 외적 형태에 관한 한 — 적용해야 한다. 제국주의 나라의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혁명을 위한 투쟁 외에, “적” — ‘자’국 부르주아지에게는 적이지만 프롤레타리아트 자신에게는 동맹군인 —에게 이익이 되도록 군사적 사보타지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다. 제국주의 나라들 간의 투쟁에서 혁명적 패전주의의 수단으로서 군사적 사보타지는 개인적 테러처럼 완전히 무가치하다. 그것은 사회혁명을 대신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회혁명을 한 치도 전진시키지 못하면서 대중들 사이에 환상만 심고, 그리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계임을 돕는 일만 한다. 반면 제국주의와 싸우는, 따라서 진보적인 진영을 방어하는 직접적인 조치로서의 군사적 사보타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이 그것은 대중에게 이해되고 환영받고 발전된다. ‘자’국의 패배는 여기서 차악(계급 휴전과 혁명 포기를 대가로 사들인 ‘승리’보다는 해악이 적은)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직접적이고 당면한 목표, 임무가 된다. ‘자’국의 패배는 이 경우에 전혀 해악이 아닐 것인데, 왜냐하면 ‘자’국의 패배는 프롤레타리아트 자신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또는 임박해 있는 제국주의 굴레로부터 해방된 인민과 함께 공동의 승리 — 즉 제국주의 자본에 대한 공동의 승리 — 를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승리는 국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⁵²⁶⁾

526) Rudolf Klement: Principles and Tactics in War

복합적 전쟁 시나리오에 관하여

강대국과 반식민지 나라 간의 분쟁에서 후자가 또 다른 강대국 (전자의 라이벌인)으로부터 모종의 지지를 받는 특수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또 영·미 제국주의가 독일 제국주의에 맞서 소련 (타락한 노동자국가)을 지지한 2차 세계대전 동안에도 비슷한 상황이 존재했다. 서방 열강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반식민지 중국을 지지했을 때, 또는 일본이 영국 제국주의에 맞서 수바스 찬드라 보스가 이끈 인도 군대를 지지했을 때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었다. 현재의 예로는 미국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받는 반식민지 이란이 있다. 중국 제국주의의 지지를 받은 반식민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평화회담”이 다시 결렬될 경우에는 말이다.

비슷한 경우로 노동자·피억압자가 반동 독재에 대항하여 싸우는 내전이 있을 수 있다. 반동 정권이 한 강대국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반군은 라이벌 강대국으로부터 약간의 지지를 받는 경우다. 미국이 반군에 대한 이미 매우 제한된 지지마저도 포기한 시점까지의 시리아가 그러한 경우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이 같은 복합적인 전쟁 시나리오 및 그에 따른 군사 전술을 보다 상세히 다룬 바 있다.⁵²⁷⁾ 여기서는 그러한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의

527) 다음을 보라. Chapter II “Excuse: Different Types of Wars in the Present Period and Consequential Revolutionary Tactics” in Michael Pröbsting: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Michael Pröbsting: Dialectics and Wars in the Present Period, Preface to Rudolf Klement’s Principles and Tactics in War, June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dialectics-war/>; Michael Pröbsting: Liberation Struggles and Imperialist Interference, The failure of sectarian “anti-imperialism” in the West: Some general considerations from the Marxist point of view and the example of the democratic revolution in Libya in 2011”, in: RCIT: Revolutionary Communism, No. 5;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liberation-struggle-and-imperialism>

방법을 개괄하는 것으로 국한할 것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변증법적 방식으로 그러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제국주의 세력 또는 반동 세력이 분쟁 중인 양측 모두에 개입해 있다는 이유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론짓는다면, 이는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논리다. 그러한 결론이 맞고, 또 많은 경우들에 적용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경우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혁명가들은 해당 분쟁의 서로 다른 진영들의 계급적 성격뿐만 아니라 분쟁의 기원, 역사, 주동적 요인 (부차적 요인들과 함께)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맑스주의적 분석과 혁명적 전술 정립 기술은 한낱 덧셈 뺄셈의 계산 맞추기로 전락할 것이다. 1920년대에 저명한 소련 철학자 아브람 데보린의 말을 인용하자면, 현실은 “구체적인 총체,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의 통일”이다.⁵²⁸⁾

그러한 복합적인 분쟁에서 언제나 중립적인, 기권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성 방어가 이 같은 노선에 의해 보장될 것으로 (그릇되게도) 믿고 있다. 실제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사회 제 세력 간의 구체적 투쟁에 참가하여 자신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가로막는 것에 불과하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객관적 현실로부터 방어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권주의자들과는 반대로 맑스주의자들은 주어진 분쟁 또는 전쟁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그로부터 적합한 전술을 끌어내야 한다. 그러한 접근법 없이는 맑스주의는 추상적 진리와 전술상의 대기주의적 수동성의 표본으로 전락한다. 현실에서는 수백만 노동자 · 피억압자가 지배계급에 대항하여 그들의

528) Abram Deborin: Lenin als revolutionärer Dialektiker (1925); in: Nikolai Bucharin/Abram Deborin: Kontroversen über dialektischen und mechanistischen Materialismus, Frankfurt a.M., 1974, p. 125 (영역은 저자)

민주적·사회적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미 몇 년 전에 말한 것을 되풀이해본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열강이 민주주의 투쟁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그 투쟁들에 개입하려고 시도해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개입에 대해 맑스주의 세력은 반대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나 레닌이 말했듯이, 제국주의 시대에 거대 열강들은 언제나 민족 분쟁과 민주주의 분쟁에 개입하고 그 분쟁들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 사실 때문에 맑스주의자들이 그러한 분쟁들에서 자동으로 패전주의 입장을 – 혁명적 방위주의 입장 대신에 –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는 달리, 맑스주의자들이 취하는 입장은 어느 요인이 지배적인 것이 되느냐 – 민족적, 민주주의적 해방투쟁인가, 제국주의적 정복 전쟁인가 – 에 달려 있다.”⁵²⁹⁾

529) Michael Pröbsting: Liberation Struggles and Imperialist Interference

제22장. 혁명적 패전주의와

이주자의 완전한 평등을 위한 투쟁

위에서 개괄적으로 보여주었듯이, 제국주의 나라의 주민 중 이주자 비율의 증가는 노동자계급의 다민족화로 결과한다. 이것은 계급투쟁 일반과, 특수하게는 제국주의와 군사주의에 대항하는 패전주의 투쟁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위에서 밝혔듯이, 보다 가난한 반식민지 나라로부터 오는 이주자들은 그들의 출신국에 살고 있는 피억압 인민과 이주한 제국주의 나라의 노동자계급 간의 중요한 전달벨트가 된다. 그들은 제국주의 나라의 원주 노동자들 속에서 의식 각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자신의 출신국으로부터 전투적 투쟁 정신을 북반구로 가져가고, 각종 숙련과 경험을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전달할 수 있다. 이주자들, 그리고 민족·인종 소수자 일반이 다양한 계급투쟁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특히 이주자들은 반제국주의 연대 사업에서 다가가야 할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요 부분이다. 제국주의의 공격을 받는 피억압 인민과 연대하는 것은 그들에게 자연스런 경향이다. 이에 대한 두드러진 예가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반대

하는 대중운동 또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중적 연대운동에서 무슬림 이주자들의 중심적 역할이다.

이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와의 낮은 민족적 일체성을 전제할 때 제국주의의 배외주의적·군국주의적 대중동원 노력을 타격하기 위한 혁명가들의 대중사업에서도 이주자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따라서 이주자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주자들에게 강력히 초점을 두고서 혁명당을 건설하는 것은 제국주의 나라에서 맑스주의자들의 중심 과제다.

인종주의와 이주 문제는 바로 그 성격상 제국주의적 배외주의의 중대한 요소들을 건드린다. 이러한 지형 위에서의 반배외주의 투쟁은 제국주의 민족국가의 “민족적” 일체성에 도전하며, 국가 언어의 절대적 지배에 파열을 내며, 많은 이주자들에 대해 시민권을 부정하는 (이주자들이 국부를 증가시킨 “권리”가 있음에도) 법체계 및 제국주의 국가의 국경 통제에 도전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RCIT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방침이 모든 진보적 조직에게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고 본다. 진보적 조직들이 제국주의 전쟁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를 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민족 억압과 인종주의적 차별에 맞서 이주민·난민을 방어해야 한다고 우리는 항상 강조해왔다. 사회주의자들은 이주민의 완전한 평등권을 위해 투쟁해야 하며, 그들을 “게스트 워커 (guest workers)”로 또는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접근방식에 대해 날카롭게 반대해야 한다. 제국주의 열강은 많은 이주민의 출신국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초과착취와 군사적 공격과 식민주의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늘, 이들 열강은 반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초과착취로부터 여전히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 나

아가 제국주의 나라의 자본가들은 이주자들에 대한 초과착취로도 이윤을 올리고 있다. 이주자들은 더 낮은 (원주 노동자들보다) 임금을 받고,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권도 없거나 (원주 노동자들보다) 작다. 따라서 이주자들이 완전한 평등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평등권에는 학교, 공공행정 등에서 모여 사용권도 포함된다. 우리가 반복해서 강조했듯이, 불세비키는 당시에 국가 언어의 폐지와 러시아 내 여러 민족이 각자 사용하는 모든 언어의 동등권을 요구했다. 이러한 강령은 오늘날도 완전히 유효 적실하다. 또 하나 중요한 요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RCIT는 이주민의 “동화”(同化)를 강요하는 일체의 사회배외주의적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에 대한 원주민의 우위가 아닌 동등한 기준, 상호작용에 의한 통일을 원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또 투표권, 집회·결사의 권리,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 등등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는 이주자들의 완전한 시민권을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일관된 민주주의적 관점은 이주자 탄압에 사용되고 있는 이른바 “테러 방지법”에 대한 반대를 포함한다.

무슬림 인들에 대한 점점 더 공공연한 종교적 차별은 사회주의자들이 국가와 종교의 완전한 분리와 모든 종교 집단의 신앙생활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을 포함하는 공공 고용 프로그램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완전한 실업 해소를 보장해줄 것이다. 배외주의자들과 개량주의자들은 반론을 펼 것이다. “그에 대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우리의 대답은 국내와 국외에서 노동자들로부터 돈을 대량 강탈한 자들 - 자

본가들! - 에게서 그 돈을 빼앗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공공 고용 프로그램은 부자들에게 대한 대대적인 과세 증액과 슈퍼리치/재벌에 대한 몰수 수탈에 의해 그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기구뿐만 아니라 우익 단체에 의한 인종주의적 공격이 만연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이에 맞서 이주민과 난민을 물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통일전선(자위 단체들 등등)을 촉구해야 한다.

특히 제국주의 국가의 권력 문제와 직접 닿아 있는 또 하나 중대한 이슈는 이주민과 난민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이동하여 부유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다. 우리가 수많은 문서에서 설명했듯이,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인종주의적 이민 통제에 반대하여 싸워야 하며, 난민에 대한 '국경 개방'을 방어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에서 이 문제의 현실성을 목격할 수 있다. 트럼프의 이민자 대량추방 시도, 카라반 [이민자 행렬]을 막기 위한 멕시코 국경에 병력 투입⁵³⁰⁾, 국경 지역에 대규모 장벽을 세우겠다는 결정, '무슬림 입국 금지' 등이 그것이다. 전쟁과 기아, 참화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 지중해와 발칸 반도에서 EU의 인종주의적인 프론텍스 (Frontex; 난민에 대한 국경관리기구)에 의해 위협 받고 이동이 저지되고 있는 유럽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유럽에 들어가는 데 성공한 난민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차별에 시달리며 때로는 추방당하기까지 한다. 러시아에서도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 출신 사람들에 대해 비슷한 인종주의적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이주민 · 난민에 대한 일체의 인종주의적 공격에 대항하는 투쟁의 전략적 목표는 *국제주의적 기초 위에서 노동자계급의 다민족적 통일 단결로* 나아가는

53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Central America / Mexico / U.S.: Solidarity with the Migrants' Caravan! 01.11.2018, <https://www.thecomunists.net/worldwide/latin-america/central-america-mexico-u-s-solidarity-with-the-migrants-caravan/>

것이다. 이는 우리가 제국주의 나라에 살고 있는 원주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를 통일 단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나라에 살고 있는 노동자와 남반구 반식민지 나라에 살고 있는 노동자를 통일 단결시키기 위해 분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일 단결은 일관된 노동자계급 국제주의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것은 특권적인 나라, 제국주의 나라의 노동자가 그 어떤 귀족적 특권과 편견도 거부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또는 다른 나라에 아직 살고 있는 자신의 계급적 형제자매들의 평등권을 받아들여야 함을 인정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맑스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이 그 본성상 국제적 계급이며,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이해는 오직 국제주의의 기초 위에서만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절대 다수(남반구에 살고 있는 프롤레타리아)에 맞서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특권적 소수(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는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특별한 권리를 방어하는 것에 대한 일관된 반대는 그러한 국제적 통일 단결을 구축해 나가는 데서 전제조건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이민 통제에 언제나 반대해 왔으며, 사람들의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언제나 지지해왔다.

위에서 밝혔듯이, 노동자계급의 다민족화는 국제주의적 의식의 출현을 위한 객관적 기초를 낳는다. 그러나 이 경향은 중요한 역 경향들을 마주하고 있다. 이 역 경향들은 첫째, 제국주의 국가기구와 우익 인종주의 당들의 대대적인 탄압과 배외주의적 선전이다. 둘째, 공공연한, 또는 은폐된 사회배외주의를 항상 전도하는 사민주의 당과 스탈린주의 당, 그리고 개량주의 노조 지도부들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미치고 있다. 국제주의를 향한 자생적인 경향을 완전하게 발달한 반 배외주의적 계급의식으로 전화시키기 위해서는 혁명당의 개입이 필수불가결하다.

원주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간의 그러한 국제적 통일 단결은 국제연대에 대한 추상적 호소로 만들어질 수 없다. 또 민족국가에 적응하는 것으로 만들어질 수도 없다. *당면의 경제적·정치적 요구들을 위한, 이주자의 민족적 제 권리를 위한, 남반구 노동자·피억압자의 해방투쟁과의 국제 연대를 위한, 이 모든 것을 위한 공동 투쟁의 기초 위에서만 그러한 국제적 통일 단결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슬람 혐오주의에 맞서 싸우는 공동 캠페인, 남반구에서 제국주의의 공격에 반대하고 해방투쟁을 지지하는 공동 캠페인, 2011년 8월 런던의 토트넘 지구를 비롯한 그 밖의 영국 도시들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청년들의 공동의 자생적 봉기, 전쟁과 재난을 피해 탈출한 난민을 돕기 위한 자생적인 민중 발기(2015년 가을 유럽 각국에서 일어난 바와 같은) 등, 이 모든 것은 반제국주의적·반배외주의적 국제주의 정신에 입각한 사회주의자들의 그러한 프로그램이 현실 기반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이주자에 대한 배외주의적 증오와 이른바 “난민 위기”에 관한 히스테리를 확산시키는 것을 통해 노동자계급을 출신 민족 별로 분할하고 그들 간에 증오를 조장하고자 하는 지배계급의 책동에 혁명가들이 대응하는 데서 그러한 프로그램은 매우 필요하다.

혁명가들이 이주자를 노동조합을 비롯한 그 밖의 노동자계급 대중조직으로 조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프로그램의 기초 위에서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혁명가들은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주 노동자·청년에 강력한 초점을 두어야 한다.⁵³¹⁾

531) 이민·이주에 대한 RCIT의 입장과 국제주의적인 혁명적 평등 강령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으로는, 우리 웹사이트에 있는 각종 문서들을 보라.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Patriotic “Anti-Capitalism” for Fools. Yet Again on the CWG/LCC’s Support for “Workers” Immigration Control and Protectionism in the US, 30.5.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wg-lcc-us-protectionism/>; Michael Pröbsting

그러한 프로그램은 레닌과 트로츠키 당시의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 발전시킨 바의 혁명적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 1922년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4차 대회에서 채택된 “동방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히고 있다.

“다가오는 위험을 고려할 때 제국주의 나라의 공산당 -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 은 전쟁에 반대하는 선전물을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노동자운동을 혼란 마비시키는 요인들, 자본가들이 민족적·인종적 적대를 이용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이들 요인은 이민 문제와 값싼 유색인 노동 문제다. 태평양 남반부의 사탕농장에서 일하는 중국과 인도 출신의 유색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도제식 계약노동제 하에 충원되고 있다. 이 사실로 인해 제국주의 나라의 노동자들은 미국과 호주에서 모두 이민과 유색인 노동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법은 유색인 노동자와 백인 노동자 간의 적대를 심화시켜 노동자운동을 분열시키고 단결을 약화시킨다.

and Andrew Walton: The Slogan of “Workers” Immigration Control: A Concession to Social-Chauvinism, 27.3.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kers-immigration-control/>; Michael Pröbsting and Andrew Walton: A Social-Chauvinist Defence of the Indefensible, Another Reply to the CWG/LCC’s Support for “Workers” Immigration Control, 14.5.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wg-immigration-control/>; RCIT: Marxism, Migration and Revolutionary Integration, <https://www.thecommunists.net/oppresed/revolutionary-integration/>;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hapter 8,iv) and 14ii),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Michael Pröbsting: The British Left and the EU-Referendum: The Many Faces of pro-UK or pro-EU Social-Imperialism, August 2015, Chapter II,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british-left-and-eu-referendum/part-5-1/>, RCIT-Program, chapter V: <https://www.thecommunists.net/rcit-manifesto/fight-against-oppression-of-migrants/>, RCIT-Manifesto chapter IV: <https://www.thecommunists.net/rcit-program-2016/chapter-iv/>; and various actual statements and articles here: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articles-on-refugees/>.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Migration and Super-exploitation: Marxist Theory and the Role of Migration in the present Period of Capitalist Decay, in: Critique: Journal of Socialist Theory (Volume 43, Issue 3-4, 2015), pp. 329-346. 우리는 또 이주에 관한 상세한 연구와 맑스주의 강령을 독일어로도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Marxismus, Migration und revolutionäre Integration (2010); in: Der Weg des Revolutionären Kommunismus, Nr. 7, pp. 38-41,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werk-7>

미국, 캐나다, 호주의 공산당들은 이민 제한법에 반대하는 활기찬 캠페인을 펼쳐야 하며, 이들 나라의 프롤레타리아 대중에게 인종적 중요성을 부채질하는 그러한 법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되돌아올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

자본가들이 제한법에 반대하는 것은 값싼 유색인 노동의 자유로운 수입과 그에 따른 백인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을 위해서다. 공세를 취하려는 자본가들의 의도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이주 노동자들이 현재의 백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동시에 유색인 노동자 임금을 백인 노동자 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어야 한다. 공산당의 이러한 요구는 자본가들의 의도를 폭로할 것이며, 동시에 유색인 노동자들에게 국제 프롤레타리아트는 어떠한 인종적 편견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이다.”⁵³²⁾

이러한 공산주의적 접근법은 그 현실성을 잃지 않고 있다!

532) Communist International: Theses on the Eastern Question, Fourth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December 1922, in: Jane Degras: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919–1943, Documents, Volume I 1919–1922, pp. 391–392, <http://marxists.org/history/international/comintern/4th-congress/eastern-question.htm>

제4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좌익의 실패

23장. 강대국 패권쟁투에 직면한 좌익 : 친(親)서방 사회제국주의자들

이 장에서는 각종 좌익 세력들이 강대국 패권쟁투에 대한 대응으로 내놓고 있는 전략들을 논의할 것이다. 그에 앞서 우리가 현 시기 혁명적 패전주의 전략을 설명한 앞 장들의 주요 결론들을 간단히 요약해보자.

총괄적 서론

강대국 패권쟁투 시기에 유의미한 노동자계급 국제주의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a) 미국, EU,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도 제국주의 열강임을 분명히 한다.

b) 그에 따라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강대국에 대한 비타협적이고 일관된 반제국주의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자들은 강대국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들) 간의 충돌에서

“차악”을 택하지 않으며, 그들 모두에 대해 패전주의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주적은 국내에 있다!”, “제국주의 전쟁의 내란으로의 전화”).

어느 강대국 편들기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부하는 이와 같은 입장이 만약 이들 나라에서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노동자·피억압자의 투쟁 및 이들 강대국 (또는 이들의 대리인)에게 공격 받는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 이 둘 다에 대한 능동적인 지지와 *결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 네거티브적이고 순수관념적인 것으로 머문다. 특히 후자의 투쟁, 즉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은 채 단지 강대국 편들기만 거부하는 입장들이 꽤나 많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투쟁들에 대한 지지를 회피, 또는 거부하는 입장들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민족해방 투쟁, 시리아에서 러시아와 그 꼭두각시 아사드에 대항하는 민족해방 투쟁, 예멘에서 사우디 주도 (및 서방 후원) 연합군에 대항하는 민족해방 투쟁,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 인민의 민족해방 투쟁, 중국에 대항하는 위구르 인민의 민족해방 투쟁 등에 대한 지지가 그것이다. 이집트에서 시시 장군의 군사독재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투쟁, 인도 점령에 대항하는 카슈미르 인민의 민주주의 투쟁에 대한 지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 미국의 공격에 대항하여 북한이나 쿠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의 방어도 포함된다.

나아가 제국주의 나라에서 이주자의 완전한 평등권을 위한, 그리고 난민에 대한 국경 개방을 위한 비타협적인 투쟁 또한 그러한 일관된 반제국주의 전략의 일부다.

이와 같은 *반제국주의와 친해방주의의 결합 전략*, 즉 모든 강대국에 대한 반대와 모든 노동자·피억압자 해방투쟁에 대한 지지의 결합 전략이 없이는, 이러한 결합 강령이 없이는 현 시기에 맑스주의적 노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

불행히도 이러한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이 대부분의 좌익 개량주의 세력과 중도주의 세력에 의해 부분적으로든 총체적으로든 거부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앞 장들에서 이들 조직이 새로운 제국주의 거인들 러시아와 중국의 성격 및 이와 관련하여 가속화하는 강대국 패권쟁투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 비판한 바 있다. 아래에서 우리는 이들 당과 조직들이 현 시기 주요 투쟁들에서 취하고 있는 전술적 결론들을 다룰 것이다.

기본적으로 좌익 개량주의 세력과 중도주의 세력을 다음과 같은 조류들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공공연한 친 서방 사회제국주의자들
2. 공공연한 친 중·러 사회제국주의자들
3. 러·중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하지만 결론을 끌어내는 데는 주저하는 세력
4. 절충주의적 사회평화주의자들

친 서방 사회제국주의자들과 친 중·러 사회제국주의자들은 그들 간의 다양한 동맹 및 전술적 차이와 관계없이 동일한 정치적·사회경제적 외관을 공유하고 있다. 그들은 같은 전략적 전망뿐 아니라 같은 사회역사적 계급 기반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들 세력은 개량주의 강령에 기초를 둔 부르주아 노동자당을 대표한다. 몇몇 경우에 그들은 러시아 KPRF(러시아연방 공산당)와 같은 부르주아 인민주의 조직들이거나, 중국·쿠바·베트남 등의 “공산”당들처럼 집권 국가기구를 대표하는 당들이다.

이들 당은 통상 자본주의 체제의 정치적 상부구조 속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

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거듭된 정부 참가(지방정부 참가 포함)에 의해, 또는 정규적인 의회 의석을 통해, 또는 노동조합 관료제로의 편입을 통해 통합되어 있다. 일당 국가들에서는 이들 당이 아예 자본주의 체제의 정치적 상부구조와 한 몸이 되어 있다.

중국·쿠바·베트남과 같은 일당 국가들에서는 이들 “공산”당이 국가 관료와 신흥 부르주아지 간의 동맹을 대표한다. 개량주의 세력이 장기 집권당으로 있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이들 당이 통상 노동귀족(즉 노동자계급의 가장 특권적인 층)과 중간계급 부문들 속에 사회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국 제국주의든, 라이벌 국의 제국주의든 어느 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에 영합한다.

개량주의/사회제국주의/노동귀족의 관계망은 다년간에 구축된 관계망으로서, 이미 이 점에 대해 레닌이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1914-15년 전쟁에서 조국방위주의의 경제적 본질은 무엇인가? 모든 강대국 부르주아지는 세계를 분할, 착취하고 타 민족들을 억압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부르주아지의 거대 이윤 중 일부 부스러기가 한 줌의 노동관료와 노동귀족, 그리고 그들의 소부르주아 동반자들한테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배외주의와 기회주의는 같은 계급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즉 노동자계급을 적으로 하여 한 줌의 특권적 노동자들이 ‘자’국 부르주아지와 맺은 동맹이 그 계급적 토대다. 부르주아지의 시종들과 부르주아지 간의 반(反)노동계급 동맹 말이다. 기회주의와 사회배외주의는 같은 정치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 즉 계급협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한 거부, 혁명적 행동에 대한 거부, 부르주아 합법성의 무조건적인 수용, 부르주아지에 대한 신뢰와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신뢰 결여 말이다. 사회배외주의는 영국 자유주의 노동 정치의 - 밀레랑주의와 베른슈타인주의의 - 직접적인 연속이

자 그 완결판이다.”⁵³³⁾

오늘 개량주의 당들이 정규적인 정부 참가 등을 통해 부르주아 체제에 훨씬 더 깊이 편입되어 있어 이러한 사회제국주의 경향은 훨씬 더 강력한, 견고한 경제적·정치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⁵³⁴⁾

친 서방 사회제국주의자들과 친 중·러 사회제국주의자들 사이에 만리장성(넘나들지 못하는 장벽)은 없다. 그들은 서로 다른 열강의 부르주아지에 연합할 뿐,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를 편든다는 데서 동일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제국주의 열강은 서로 간에 충돌과 협력을 필요에 따라 교대하고 있다. 게다가 한 나라의 부르주아지는 획일체가 아니라 여러 분파를 가지고 있다. 그들 분파 가운데는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타 열강과 대결보다는 협력을 선호하는 부문들이 종종 있다. 유럽연합과 일본에는 자국의 보다 “독자적인” 글로벌 정책 – 즉 미 제국주의와는 독립적인, 러시아·중국과의 협력을 더 추구하는 글로벌 정책 – 에 공명하는 부문들이 지배계급 내에 (그리고 중간계급 속에는 그러한 경향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친 서방 진영의 당과 친 중·러 진영의 당 간에 접촉과 때로는 공조가 존재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유럽좌파당의 친 서방 사회제국주의자들/ 친 중·러 스탈린주의 당들/ 각종 중도주의자들이 시리아에서 미 제국주의를 위한 대리인으로 복무하고 있는 쿠르드족 YPG (인민수비대)와 맺고 있는 우호적인 관계와 공조를 보라.

나아가 개량주의 관료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주인을 바꿀 수 있다. 사민주

533) V.I.Lenin: Opportunism and Collapse of Second International (1915), in: LCW 22, p. 112

534) 오늘날의 개량주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Marxism and the United Front Tactic Today, The Struggle for Proletarian Hegemony in the Liberation Movement in Semi-Colonial and Imperialist Countries in the present Period, RCIT Books, Vienna 2016, <https://www.thecomunists.net/theory/book-united-front/>

의역의 역사는 그 같은 모순들로 점철되어 있다. 1920년대 및 30년대에 서유럽에서 사민주의 당들은 같은 조직(제2 인터내셔널)의 일부였다는 점을 잊지 말자. 그러나 그들은 각자, 종종 서로 간에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예를 들어 독일 대 프랑스·영국) ‘자’국 부르주아지와 동맹을 맺었다. 또 이들 사민주의 당들이 미 제국주의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시기들도 있었다. 당연히 이것은 이 당들 서로 간에 날카로운 파열을 낳기도 했다.

이 장에서는 친 서방 사회제국주의자들을 다룰 것이다. 우리는 그들 개량주의 세력을, ‘자신의’ 제국주의 조국을 편들고 ‘자’국 부르주아지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말과 행동으로 지지하는 공공연한 친 서방 사회제국주의자로 성격규정 한다. 이 조류의 가장 중요한 당은 각국 좌익 개량주의 당들의 국제 연합체인 유럽좌파당(PEL)이다. 여기에 일본공산당을 추가할 수 있다. 유럽좌파당 소속 주요 당들은 프랑스공산당, 독일 좌파당(LINKE), 그리스 시리자(SYRIZA; 급진좌파연합) 등이다.⁵³⁵⁾ 이들 당 모두는 이전에 스탈린주의 세력

535) 최근 유럽좌파당에 분열이 있었다. 멜랑송의 ‘굴하지 않는 프랑스’, 스페인 포데모스, 포르투갈 좌파연합(Bloco de Esquerda), 덴마크 적녹동맹, 스웨덴 좌파당, 핀란드 좌파동맹 등이 “Maintenant le peuple”(MLP; “이제는 인민”)이라는 새로운 운동을 창건했다. 이 새 연합체는 2019년 5월 EU 선거에서 별개의 정당명부로 출마할 것이다. 게다가, 독일 좌파당에서도 자라 바겐크네히트가 아우프슈테엔(일어서라) 운동을 시작하면서 분열이 임박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MLP와 기존 유럽좌파당 간의 정치적 차이는 그리스 시리자(SYRIZA)의 친 긴축정책에 대한 MLP의 비판과, MLP의 포퓰리즘 영합에 대한 유럽좌파당의 비판을 중심으로 놓여 있다. 친 유럽좌파당 세력도 멜랑송과 바겐크네히트가 사회배외주의에 영합한다고(예를 들어 난민에 대한 “국경 개방” 거부) 공격한다. 우리가 아래에서 보겠지만, 실제로 바겐크네히트는 이주 문제에 대한 반동적 입장을 옹호한다. 그럼에도 이것은 위선적인 도적들 간의 웃기는 싸움이다. 사실 멜랑송과 바겐크네히트는 공공연히 사회배외주의적 입장을 표명한다. 그러나, 유럽좌파당의 주요 세력 중 하나이자 그리스의 집권당인 시리자는 수년 전부터 EU의 제국주의적 프론텍스 국경경비체제에 참여하면서 초반동적 사회배외주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 극우 정당 ANEL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분열의 관료적 성격 —실제 주 쟁점은 오는 유럽 선거에서 양측이 획득하고자 하는 의석의 수다 —을 감안할 때, 그들의 사회제국주의적 지향의 특수한 성격에 이 분열이 모종의 결과를 미칠지 현재까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본서에서 유럽좌파당 분열 문제를 고려에 넣을 수는 없다. (분열에 관한 더 많은 정보로는,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Angelina Giannopoulou: The Party of the European Left, Diem25 and the transnational campaign of Jean-Luc Mélenchon towards the European Elections in 2019, transform europe! 2018; Cécile Barbière: La France Insoumise wants to turn European elections into anti-Macron referendum, 3. Okt. 2018, <https://www.euractiv.com/section/eu-elections-2019/news/la-france-insoumise-wants-to-turn-european-elections-into-anti-macron-referendum/>; Steffen Vogel: Linke Sammlungsbewegung: Falsches Vorbild Mélenchon, aus: »Blätter« 3/2018, <https://www.blaetter.de/archiv/jahrgaenge/2018/maerz/linke-sammlungsbewegung-falsches-vorbild-melenchon>; Jürgen Meyer: »Mainten-

으로서 이제는 신 사민주의 당들로 탈바꿈했다.

유럽좌파당(PEL)

우리가 이미 여러 문서들 속에서 설명했듯이, 유럽좌파당 소속 당들은 철저히 개량주의적인, 친 서방 사회제국주의 조직들이다.⁵³⁶⁾ 몇몇 예를 통해 이 점을 증명해보자. 1997-2002년에 프랑스공산당은 1999년 세르비아,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나토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조스팽 정부의 일부였다. 이 당시에 유럽좌파당의 이탈리아 당인 재건공산당은 1996-98년 신자유주의 로마노 프로디 정부를 지지했고, 2006-08년 제2차 프로디 정부에 입각했다. 이 과정에서 재건공산당은 아프간에 대한 제국주의 점령에 이탈리아가 참가하는 것에 찬성투표를 했다. 또 레바논 파병에도 찬성투표를 했다. 독일 좌파당은 지금까지 정부에 입각하지는 않았지만 (당 지도부가 입각을 매우 소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긴축 정책을 실시하는 지방연립정부들에 들어갔다.

시리자는 2015년 이래 그리스 집권당으로서, 극우 정당인 그리스독립당 (ANEL)과 연정을 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시리자는 EU가 지시하는 긴축 정책을 전임 보수주의 당이나 사민주의 당보다 더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EU 이사회에서 시리자 대표이자 그리스 총리인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러시아에 대한

ant le Peuple» (MLP, Jetzt das Volk): Spaltung der Europäischen Linken oder neue linke Sammlungsbe-
wegung? 12. Juli 2018 <http://internetz-zeitung.eu/index.php/4839-%C2%BBmaintenant-le-peuple%C2%AB-mlp,-jetzt-das-volk-spaltung-der-europ%C3%A4ischen-linken-oder-neue-linke-sammlungsbe->
wegung)

536)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hapter 13

각종 제재를 포함한 EU 제국주의의 모든 결정을 지지했다.

유럽좌파당의 다른 주요 소속 당들도 중동과 아프리카의 피억압 인민들에 대한 제국주의 전쟁물이를 지지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구실 하에) 후안무치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2003년 이래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지지했고 각종 식민 통치기구에 참가한 이라크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프랑스공산당은 – 멜랑송의 좌파전선과 함께 – 공개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말리 북부의 지하드 테러리스트를 분쇄하기 위한 말리 정부의 목표를 공유한다”는 입장을 표했다.⁵³⁷⁾ 시민주의 정부가 프랑스 군대의 말리 파병을 결정했을 때 프랑스공산당은 멜랑송과 함께 이 결정을 전면 지지했다. 프랑스공산당은 단지 그러한 개입은 UN의 위임을 받았어야 했다고 비판할 뿐이었다. 프랑스공산당 소속 국회의원 앙드레 샤쎬뉴는 “이슬람주의 광신자들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 개입이 시급하고 필수적이었다”고 밝혔다. 멜랑송의 좌파전선 소속 국회의원 프랑수아 어센시오도 같은 입장을 표했다. “공산당과 공화당 모두 포함하여 좌파전선 소속 의원단의 입장은 분명하다. 광신자들의 야만행위에 굴복해 말리 인민을 포기한다면, 이는 정치적 실수이자 도덕적 죄악이 될 것이다. 불개입은 최악의 비겁한 행동이다.”⁵³⁸⁾

2015년 1월 7일 인종주의적 잡지 샤를리 엡도에 대한 공격이 있고 난 다음,

537) 다음을 보라. PCF: L' intervention militaire française comporte de grands risques de guerre (12.1,2013), <http://www.pcf.fr/33977>; PCF: C'est le Mali qu'il faut reconstruire, (11.1,2013), <http://www.pcf.fr/33940>

538) 다음에서 인용. Don Franks: Mali invaded in new 'scramble for Africa', February 2, 2013, <https://rdln.wordpress.com/2013/02/02/mali-invaded-in-new-scramble-for-africa/>. 같은 인용문이 다음 글에도 제시되어 있다. Kumaran Ira: French Left Front promotes war in Mali, WWSW, 22 January 2013, <https://www.wsws.org/en/articles/2013/01/22/left-j22.html> as well as in CoReP: Down with the French imperialist intervention in Mali, <http://www.revolution-socialiste.info/CoRePCCItMaliEV.htm>; 다음도 보라. L'intervention jugée nécessaire par les députés, 16 Janvier, 2013, <https://www.humanite.fr/politique/l-intervention-jugee-necessaire-par-les-deputes-513009>; Raoul Rigault: Why French troops are in Mali and why the French Communist Party supports the war, 26 February 2013 <https://www.marxist.com/why-french-troops-are-in-mali-and-why-the-french-supports-the-war.htm>

프랑스공산당과 멜랑송 좌파전선은 이 이슬람 혐오 쓰레기신문을 “진보적”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들은 반동적인 “내가 샤를리 엡도다” 캠페인에 함께 했고, 1월 11일 파리에서 열리는 친 제국주의적인 “국민 통합” 시위에 참가할 것을 호소했다. (전 세계에 티브이 방영된 이 행진은 서방 제국주의 정부의 수장들 – 전범 네타냐후 이스라엘 대통령을 포함하여 – 이 앞장섰다.) 그들은 심지어 프랑스의 이라크 군사개입 연장에 대한 1월 13일 의회 표결에서도 반대 투표를 하지 못했다!⁵³⁹⁾

2015년 11월 13일 파리에서 테러 공격이 있고 난 다음, 프랑스공산당은 다시 “국민 통합”에 가담했다. 프랑스공산당 소속 국회의원 모두가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찬성투표를 했고, 그 뒤에 비상사태 3개월 연장에도 찬성투표를 했다!⁵⁴⁰⁾ 이 사회배외주의 당이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 금지법도 지지한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⁵⁴¹⁾

53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France after the Attacks in Paris: Defend the Muslim People against Imperialist Wars, Chauvinist Hatemongering, and State Repression! 9.1.2015, <http://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statement-paris-attacks/>; Michael Pröbsting: France: “Communist” Party fails to Vote in Parliament against Imperialist War in Iraq! 15.1.2015, <http://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french-pcf-iraq-war/>; Michael Pröbsting: After the Paris Attack: Socialists must Join Hands with Muslim People Against Imperialism and Racism! Reformist and Centrist Forces try to derail the Workers Movement by Failing to Stand up for Solidarity with the Muslims and Against Imperialist War-Mongering! 17.1.2015, <http://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france-defend-muslims/>; Michael Pröbsting: The Racist Character of Charlie Hebdo and the pro-imperialist campaign “Je Suis Charlie”. Solidarity with Muslim People! NOT Solidarity with Charlie Hebdo! 17.1.2015, <http://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racist-charlie-hebdo/>

540) 다음을 보라. RCIT: Terror in Paris is the Result of Imperialist Terror in the Middle East! Stop France’s and other Imperialist Powers’ Warmongering! No Mobilization of the Army inside France! Defend the Muslim Peoples against Chauvinist Hatemongering and State Repression! 14.11.201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terror-in-paris/>; RCIT: Increasing Instability and Militarization in the European Union, On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in the New Political Phase which has Opened in Europe after the Terrorist Attack in Paris, 08.12.201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militarism-in-eu/>

54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KO BEFREIUNG: Austria: Islamophobic Racism on the Rise! Solidarity with the Muslim Brothers and Sisters! No to the Closure of 7 Mosques and the Expulsion of 40 Imams and their Families! 8. June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islamophobic-racism-on-the-rise-in-austria/>; Almedina Gunić: Gegen das Verhüllungsverbot! Für Religionsfreiheit und Frauenrechte! Kampf dem islamophoben Rassismus und der Diskriminierung muslimischer Frauen! <https://www.rkob.net/>

자라 바겐크네히트의 입장과 그의 아우프슈테엔(aufstehen; 일어나라) 운동의 배후에도 동일한 사회배외주의적 흐름이 작동하고 있다. 바겐크네히트는 독일 좌파당 의원단 리더다. 그는 “국경을 개방하라” 슬로건을 “동키호테식의 비현실적인 구호”라고 공공연하게 비난하며, 2015년에는 너무 많은 남성 난민을 나라에 들여놓았다고 앙겔라 메르켈 보수 정부를 비판하는가 하면, “스스로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무슬림 이주자들을 공격하고 – 우익 인종주의자들 및 시온주의자들과 비슷하게도 – 있다.⁵⁴²⁾

이슬람 혐오주의는 21세기의 새로운 반유대주의다

이 지점에서 잠깐 우리는 많은 “좌파”가 무시하고 있는 사실, 즉 제국주의적 이슬람 혐오는 새로운 21세기 반유대주의라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강대국들이 많은 쟁점들에서 서로 다투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한 가지에서만만큼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무슬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그것이다. 강대국들 모두가 하나같이 무슬림 소수자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이유 때문이지, 종교적 이유 때문이 아니다. 중동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 중의 하나가 사우디의 와하브파(派)이고, 러시아의 핵심 동맹이 이란의 신정(神政)정권과 함께 체첸의 도살자 카디로프 정권이다.⁵⁴³⁾ 그러나 그들은 다음

aktuell/kurzmeldungen/kurzmeldungen-september-1/; 다음도 보라, Yossi Schwartz: Anti-Semitism and Anti-Zionism, 16 Nov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semitism-and-anti-zionism/>

542)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Offene Grenzen für alle – das ist weltfremd”, Interview mit Sahra Wagenknecht, erschienen im FOCUS am 10.02.2018, <https://www.sahra-wagenknecht.de/de/article/2713.offene-grenzen-f%C3%BCr-alle-das-ist-weltfremd.html>

543) 카디로프가 이슬람주의에 형식상 영합하면서, 동시에 체첸 인민을 적으로 하여 푸틴의 현직 독재자

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무슬림 소수자와 무슬림 인민에 대한 증오를 전파하고 이용한다.

a)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값싼 노동인력으로서의 이주자를 억압하고 초과착취하기 위해.

b) 무슬림 민족 소수자들을 억압하기 위해 (예를 들어 체첸 족을 비롯한 그 밖의 카프카스인들, 위구르족).

c) 아사드 또는 시시 장군,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정권들 같은 “세속” 독재에 대한 지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d) 시리아, 이라크, 아프간, 소말리아, 말리, 니제르 등등에서 제국주의 전쟁 및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런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제국주의적 이슬람 혐오를 이른바 “좌파”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대 중 하나로 간주한다. 이 역병(疫病)에 어떤 종류든 양보를 하는 것은 - 이주자나 민족 소수자와 관련한 국내 문제들에서든, 또는 무슬림 나라들에 대한 군사개입 같은 대외정책 문제들에서든, 또는 시온주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투쟁에 대한 태도에서든 - 제국주의에 대한 투항 및 사회배외주의의 명백한 증거다. 불행히도, 많은 개량주의·중도주의 당들의 최근 역사 전체는 그들이 후안무치하게도 이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사회배외주의 정책이 그리스 집권당이자 유럽좌파당의 주요 세력인 시리자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시리자는 EU 이사회에서 모든 반 이주자 프

로 복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Fred Weir: Kremlin frets as Russia's once restive Islamist region takes up political Islam, Strongman Ramzan Kadyrov was installed by Putin to squelch Chechnya's Islamist insurrection. But Kadyrov's adoption of sharia and political Islam in the region is challenging Russia's secular constitutional order, September 20, 2017 <https://www.csmonitor.com/World/Europe/2017/0920/Kremlin-frets-as-Russia-s-once-restive-Islamist-region-takes-up-political-Islam>

로그램 (프론텍스 프로그램 등)에 동의하고 이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실시하는 등 난민에 대한 EU의 제국주의적 공격에 완전한 공동책임을 지고 있다. 레닌이 즐겨 말했던 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⁵⁴⁴⁾는 것은 맑스주의의 오랜 진리다. 행동으로 판단할 때 유럽좌파당은 반제국주의와도, 이주자와 난민에 대한 국제주의적 연대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

유럽좌파당의 뿌리 깊은 사회배외주의의 또 다른 예는 시온주의 국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다. 유럽좌파당의 리더 격 인사들은 이 식민 정착민 국가에 대한 지지를 반복해서 표명해왔다. 독일 좌파당의 오랜 리더이자 현재 유럽좌파당 의장인 그레고르 기시는 그의 당이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를 지지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한 연설에서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를 “독일 국가 이성의 탄탄한 도덕적 요소”라고 규정했다.⁵⁴⁵⁾

2008/09년 가자 전쟁 당시 독일 좌파당 의장 클라우스 레더리는 “이스라엘의 캐스트 리드 작전을 지지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시위에서 주요 연사 중의 하나 - 다른 부르주아 당들 소속의 정치가들과 더불어 - 었다. 독일 좌파당은 심지어 팔레스타인 1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비난한다. 나아가 이스라엘 상품 보이콧 또는 가자 연대 호송대 참가 호소도 비난하며, 이 같은 활동들을 “반유대주의”와 연결시키기까지 한다. 또 이 같은 활동들을 지지하면 독일 좌파당 의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포한다! 이러한 입장이 2011년에 독일 좌파당 지도부와 의원단에 의해 전원일치로 채택되었다!⁵⁴⁶⁾ 유럽좌파당

544) V. I. Lenin: German and Non-German Chauvinism (1916); in: LCW 22, p. 183

545) Gregor Gysi: Die Haltung der deutschen Linken zum Staat Israel, Vortrag von Dr. Gregor Gysi auf einer Veranstaltung „60 Jahre Israel“ der Rosa-Luxemburg-Stiftung am 14.4.2008, http://www.juedische.at/TCgi/_v2/TCgi.cgi?target=home&Param_Kat=3&Param_RB=33&Param_Red=9722

546) 다음을 보라. LINKE weist Antisemitismus-Vorwürfe zurück, Der Parteivorstand der LINKEN hat am 21. Mai 2011 ohne Gegenstimmen die folgende Erklärung verabschiedet: <http://www.die-linke.de/partei/organe/parteivorstand/parteivorstand20102012/beschluesse/ linkeweastantisemitismusvorwuerfezurueck/>; Parliamentary Group of the LINKE: Entschieden gegen Antisemitismus, 8. Juni 2011, <http://>

의 일원인 오스트리아공산당도 RCIT 지부를 “반유대주의”라고 반복해서 비방 증상했다. 오스트리아공산당은 심지어 RCIT의 일관된 반시온주의 입장과 그에 따른 팔레스타인 해방투쟁 지지를 이유로 자신의 공개 행사에서 RCIT 지부 동지들을 내쫓았다.⁵⁴⁷⁾

유럽좌파당 지도부는 가속화하고 있는 강대국 패권쟁투를 염두에 두고서 독자적 강대국으로 제국주의 EU가 공고히 서는 것을 지지한다.

“개별 민족국가들은 기업들 및 은행들을 싸움 붙여서는 안 된다.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이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세금을 삭감해주고 사회적·환경적 기준을 낮추어주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족국가로서 서로 계속 대립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불균형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유럽 통합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민족국가들은 그들 스스로에 의해서는 결코 미국과의 무역전쟁

www.die-linke.de/nc/dielinke/nachrichten/detail/artikel/entschieden-gegen-antisemitismus

547) RCIT 오스트리아 지부에 대한 국가 탄압과 각종 “좌익” 세력들에 의한 비방 캠페인과 물리적 공격에 대해서는 다음 보도들 (더 많은 보도들로 이어지는 링크들을 포함하고 있는)을 보라. RKOB: Public Prosecution Department in Vienna Stops Investigation against Michael Proebsting, 09.02.2017, <https://www.thecommunists.net/rcit/investigation-vs-proebsting-stopped/>; RKOB: Austria: Right-Wing Party Opens Parliamentary Inquiry against the RCIT Section, Biggest Opposition Party smears the Trotskyists for alleged “Left-Wing Extremism”, “Antisemitism” and “Radical Islamism” and asks the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to officially investigate them, 29.01.2017, <https://www.thecommunists.net/rcit/parliamentary-inquiry-against-rcit-section/>; RCIT: Stop Judicial Prosecution for Solidarity with Palestine! A Call to the Austrian State to Drop Its Charges against Michael Proebsting! <https://www.thecommunists.net/rcit/solidarity-proebsting/>; RKOB: Austria: “Left-Wing” Zionists Attack Arab Migrants at Demonstration in Solidarity with Refugees! Report (with Pictures and Videos) from the anti-racist Demonstration on 26 November in Vienna by the Austrian Section of the RCIT, 27.11.2016, <https://www.thecommunists.net/rcit/zionists-attack-rcit-austria/>; RKOB: KPÖ schließt RKOB aus und macht den Weg frei für Frauenschläger der Anti-Nationalen Szene. Wiederholter körperlicher Angriff auf Genossin Gunić am Volksstimmfest, Bericht der Revolutionär-Kommunistischen Organisation BEFREIUNG zum Volksstimmfest 2016, 05.09.2016, <https://www.rkob.net/wer-wir-sind-1/rkob-aktiv-bei/bericht-vs-fest-2016/>; Report on May Day 2016 in Austria: Joint Resistance against Racist Attacks, Forceful, militant, internationalist demonstration despite racist attacks, Report (with Pictures and Videos) on the multinational, internationalist demonstration in Vienna marking May Day 2016 organized by the Revolutionary Communist Organization LIBERATION, <https://www.thecommunists.net/rcit/report-may-day-2016-in-austria/>; RCIT: Victory! The Charge against RKOB Spokesperson and Palestine Solidarity Activist Johannes Wiener has been dropped! 10.1.2013, <http://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solidarity-with-wiener-won/>

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통일된 대응을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나는 이 유럽연합의 몇몇 부분들이 처해 있는 슬픈 상태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경제, 유럽이 맞고 있는 환경적 도전들, 이 대륙에서의 전쟁의 방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문제, 특히 유럽 정체성을 더욱 더 받아들이고 있는 청년들, 이 모든 문제들이 유럽 통합을 요구한다.”⁵⁴⁸⁾

물론, 유럽좌파당은 아프리카나 중동에서의 제국주의 군사개입 지지, 이스라엘 지지, 국가 비상사태 선포 지지 등 이 같은 지지를 끝없는 평화주의 주문(呪文) – “유엔의 중요성”, “평화적 해결의 필요” 등등 – 과 결합시킨다.⁵⁴⁹⁾ 이러한 미사여구 놀음은 (전)스탈린주의 야당으로서 이들 세력이 수십 년 간 견지해온 소부르주아적 평화주의 전통에 일부 뿌리가 있다. 또 다른 일부 뿌리는 그들이 EU에 다른 대외정책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들은 유럽 독점 부르주아지 중 미국과는 독립적인 입장을 바라는 분파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당연히, 독자적 강대국으로서의 (즉 미국의 군사적 지지 없는) EU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훨씬 더 약할 것이다. 이러한 약화된 제국주의 블록으로서 EU는 다른 라이벌들과의 단기적 대결이 아니라 공조와 “평화주의적” 관계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548) An Internationalist Answer, Speech by Gregor Gysi, President of the European Left, held at the Federal Party Congress in Leipzig, 9 June 2018, on the dispute on refugees and migration, [https:// www.transform-network.net/blog/article/an-internationalist-answer/](https://www.transform-network.net/blog/article/an-internationalist-answer/)

549) 맑스주의자들은 1차 세계대전 전에 이미 국제 중재재판소들에서 그러한 환상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불행히도, 개량주의자들은 여전히 이것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Annelis Laschilza: Zur Rolle des Zentrismus 1911/12. Ein Beitrag über den Zusammenhang von Imperialismus und Opportunismus, in: Fritz Klein (Ed.): Studien zum deutschen Imperialismus vor 1914, Berlin 1976)

일본공산당

일본공산당(일공)은 연립정부의 일원이었던 적이 없다. 일공은 전국적으로 약 30만 명의 당원과 2만 개의 지부를 공식적으로 두고 있는 상당 규모의 전 스탈린주의 당으로서 현재 제도권에서 사민주의적 야당으로 복무하고 있다. 일공은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 7.91%, 440만 표를 얻었다. 그리고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602만 표, 10.7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⁵⁵⁰⁾

1945년에 합법화된 이래 일공 강령의 핵심 특징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하는 데 있다. 1945년 이전에는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이었지만, 그 이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1948년 8월에 열린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강령적 선언 속에서 이미 일공은 일본의 독립국 지위(즉 독립적 제국주의 국가 지위) 회복을 당의 목표로 규정했다. 일공은 “일본의 자위권”, “민족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애초 일본 소속 섬들의 일본 반환”, “일본 경제의 독립성 보장”을 요구했다.

- “2. 독립: 완전한 주권 회복. (주권을 침해할 어떤 의무도 저선 안 된다).
3. 영토: 민족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애초 일본 소속 섬들의 일본 반환... 5. 전쟁 규탄과 자위권: 전쟁 규탄; 일본을 국제분쟁에 끌어들이 수 있는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도 반대, 일본의 자위권 승인. 6. 경제: 일본 경제의 독립성 보장, 인민 생활의 개선, 세계 모든 나라와의 대등한 경제관계 수립.”⁵⁵¹⁾

550) What is the JCP? A Profile of the Japanese Communist Party (November, 2017), https://www.jcp.or.jp/english/2017what_jcp.html

551)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Japan: The Fifty Years of the Communist Party of Japan, published by the Publication Bureau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Japan, Tokyo 1973, p. 106

1957년 9월에 일공 지도부가 발표한 (그리고 나중에 당 대회에서 채택된) 강령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제시되었다.

“오늘날 기본적으로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미 제국주의 및 미 제국주의와의 종속적 동맹관계에 있는 일본 독점자본이다. 일본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이지만, 사실상 미 제국주의에 의해 반(半) 점령된 종속국이다.”⁵⁵²⁾

일공은 이로부터, 당의 주 목표가 “인민민주주의혁명”이며, 이 혁명의 핵심 과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 달성이라고 결론지었다. “일본을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제국주의 열강으로 간주하는 쇼지로 카스가, 도모치카 나이토 등등과 같은” 당내 반대파는 “수정주의자”로 비난받고 그에 따라 제명되었다.⁵⁵³⁾

일공은 이 입장을 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이 넘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세계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열강 중의 하나가 된지 이미 오래인 현재까지도 말이다! 2004년에 채택한 강령에서 일공은 일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성격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이긴 하지만, 그 영토의 주요 부분과 군사 문제를 비롯한 그 밖의 국가 사안들에서 미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실상 종속국이다... 미국은 여전히 일본의 군사·외교 문제에 대한 상당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자신의 거대한 권력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일본의

552) The Fifty Years of the Communist Party of Japan, p. 136

553) 일본공산당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도 보라, Hans Modrow, Manfred Sohn: Vor dem großen Sprung? Überblick über die Politik der Japanischen Kommunistischen Partei, GNN-Verlag, Schkeuditz 2000

경제 문제에 개입한다. 유엔과 그 밖의 국제 포럼에서 일본 정부 대표자들은 종종 미국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 일-미 관계는 대등한 권리를 가진 동맹 관계가 아니다. 일본의 현 상태는 미국에 대한 국가적 종속으로 특징지어지는 바, 이것은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들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식민지화가 과거 역사로 되어버린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도 이례적인 것이다.... 미국의 일본 지배는 명백히 제국주의적 성격을 갖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자신의 세계전략과 자신의 독점 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주권과 독립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이다.”⁵⁵⁴⁾

이로부터 나오는 일공의 강령적 과제는 사실상, 자주적인 (물론, “평화적인”) 제국주의 국가의 창설이다.

“일본 사회가 현재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혁명이 아니라 민주주의 혁명이다. 이 혁명은 미국에 대한 일본의 이례적인 종속과 대기업·재계의 폭압적 지배에 종지부를 찍는 혁명, 일본의 진정한 독립을 확보하고 정치, 경제, 사회에서 민주개혁을 실시하는 혁명이다. 이러한 것들이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실현 가능한 민주개혁이지만, 그 완전한 달성은 일본의 독점자본주의와 대미 종속을 대표하는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게로 국가권력을 이전하는 것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 민주적 변화를 이룩하는 데서 성공하면 인민을 고통 받게 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다수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는 자주/민주/평화의 일본을 건설하는 길을 닦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일공 강령에 따르면, 이러한 자주적인 제국주의 일본은 일-미 안보조약을 파기하고... “대등한 기반 위에서” 미 제국주의와 계속 협력할 것이다! “일본

554) 2004년 1월 17일 일공 23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일공 강령, <http://www.jcp.or.jp/english/23rd-congress/program.html>

은 대등한 기반 위에서 미국과 우호조약을 체결할 것이다. 경제 문제에서의 부당한 미국의 개입 또한 거부될 것이며, 그에 따라 금융, 외환, 무역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독립을 확립할 것이다.”

모든 좌익 개량주의 당들처럼 일공도 평화주의를 전도하며 유엔을 칭찬하지만⁵⁵⁵⁾, 제국주의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할 용의가 있음을 강령에서 내비치기도 한다. “일반 국민을 희생시키는 무차별 테러와 보복전쟁 둘 다에 반대하며, 국제적 소명을 높이고 테러 근절을 위한 공동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힘쓴다.” 또 일공 지도자 시이 가즈오는 “국제사회” (즉 유엔 안보리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가 “테러 박멸”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시이 가즈오는 - 편집자] 계속해서 국제사회가 전 세계로부터 테러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하나가 될 필요를 강조한다.”⁵⁵⁶⁾

일공 :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대안 전략을 조언해준다

이 같은 자주적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지지는 현 시기 핵심 이슈들에 관한 사회제국주의적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9월에 발표한 강령적 선언 속에서 일공은 평화 세계와 군대 해산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 - 두 가지 중요한 유보를 달긴 했지만 - 했다. 첫째 이러한 평화주의적 시

555) 예를 들어, 모호하고 공허한 유엔의 핵무기 금지 요구에 대한 일공의 다음과 같은 열정적인 지지를 보라. JCP Chair Shii issues statement to welcome the nuclear weapons ban treaty, July 9, 2017 <http://www.jcp.or.jp/english/jcpcc/blog/2017/07/20170709jcp-chair-shii-issues-statement.html> and Shii issues statement welcoming draft N-ban treaty, May 24, 2017 <http://www.jcp.or.jp/english/jcpcc/blog/2017/05/20170524shii-issues-statement.html>

556) Shii condemns terror attacks in Paris, November 15, 2015 <http://www.jcp.or.jp/english/jcpcc/blog/2015/11/20151115-shii-condemns-terror-attacks-in-paris.html>

나리오는 오직 “아시아의 안정적 평화가 확고히 유지되는, 그리고 헌법 제9조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성숙해지는 조건 하에서” 비로소 추구되어야 한다. “안정적 평화”는 제국주의 열강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지도 않을 (그리고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둘러싼 미국·중국·일본·인도 간의 패권다툼을 전제할 때 확실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리고 “국민적 합의”란 반동적인 일본 독점자본 세력도 군비철폐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물론 이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평화주의적 미래는 아주 먼 훗날로 연기된다.

그러나 선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은 다름 아닌 마지막 문장이다. “국민의 안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만약 상황이 그것을 요구한다면, 현 자위대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⁵⁵⁷⁾ 이것은, “상황이 그것을 요구한다면”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배치에 대한 일공의 지지를 의미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 일공은 일본 제국주의를 위한 자문위원 노릇을 한다. 일본 제국주의가 미 제국주의에 대한 그 종속적 역할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데서 일공은 일본 제국주의를 위한 조연자로 행동하고 있다. 일공은 2015년에 대안적인 제국주의 금융기관으로 설립된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아베 정부를 비판했다. 일공 지도자 시이 가즈오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창설 멤버가 되지 않겠다는 정부 결정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아시아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계획된 새로운 글로벌 투자은행에 참가해야 한다.”⁵⁵⁸⁾ 기괴하게도 일공 지도부는 “아시아

557) JCP’s view on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s Article 9 and the Self-Defense Forces, September 30 2000, https://www.jcp.or.jp/english/jps_weekly/e000930_03.html

558) Not too late for Japan to join AIIB: Shii, April 2, 2015 <http://www.jcp.or.jp/english/jcpc/blog/2015/04/20150402.html>

인프라 투자은행은 주요 경제열강 중심의 현 질서를 대체하는 대안적인 국제 경제질서를 모색하는 움직임을 대표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제안을 정당화한다. 명백히 일공 지도부는 중국 자체가 이미 “주요 경제열강”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물론, 실제로는 독립적인 일본 제국주의를 위한 전략을 제공하고자 하는 일공의 콘셉트를 모호하게 하는 위선적인 미사여구 놀음에 다름 아니지만 말이다.

일본이 강대국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 일공이 사회제국주의적 조언자로 행동하는 또 다른 예가 있다. 일공은 보수 아베 정부가 최근의 관세분쟁에서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충분히 강경하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일본공산당은 일본의 경제주권을 미국에 팔아넘기는 일-미 간 양자 무역협상을 반대한다.”⁵⁵⁹⁾

또 일공은 일본이 과거에 정복한 역사가 있는 여러 섬들에 대한 반환 및 방어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2004년 강령에서 일공은 “역사적으로 일본의 일부인 하보마이 제도과 시코탄 섬뿐만 아니라 치시마 (쿠릴) 열도의 일본 반환”을 요구한다. (이 섬들은 1945년 이래 소련/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⁵⁶⁰⁾ 마찬가지로 일공은 1972년 미 제국주의가 일본에 넘긴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의 일본 지배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섬들은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로 인해 2012년에는 중-일 간에 긴장이 크게 고조되었다.⁵⁶¹⁾ 사회제국주

559) JCP opposes the Japan-U.S. trade negotiations which disregards Japan's economic sovereignty, September 28, 2018, <http://www.jcp.or.jp/english/jcpc/blog/2018/09/20180928-jcp-opposes-the-japan-us-trade.html>

560) 우리는 일공이 1945년 이전에, 즉 소련이 타락한 노동자국가였던 (또는 일공 자신이 주장한 바, “사회주의 나라”였던) 때에 이들 섬의 인도를 요구했다는 것을 적어둔다. 달리 말하면, 일공은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적 권리”를 외국 “사회주의 나라”의 그것보다 더 우위에 둘 정도로 사회배외주의의 당이었다! 일공의 “일국 사회주의” 인식은 그들이 일차적으로 일본 애국주의자이고, 오직 이차적으로만 “사회주의자들”이라는 것을 뜻한다!

561) Michael Pröbsting: No to chauvinist war-mongering by Japanese and Chinese imperialism! 23.9.201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no-war-between-china-and-japan/>

의 일공은 1972년부터 오늘까지 일본의 지배권 주장을 강력히 방어해왔다.⁵⁶²⁾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일공은 같은 사회애국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이 섬은 1905년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으로부터 강탈했는데 현재 남한이 이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⁵⁶³⁾

그러나 일공 사회제국주의의 훨씬 더 심각한 예는 북한이 지난 수년 동안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했을 때 북한에 대한 강대국의 공격을 일공이 전면적, 무조건적으로 지지한 일이다.⁵⁶⁴⁾ 일공은 가장 강대한 제국주의 대국들(미국이

562) 미 제국주의가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를 일본에 넘긴 1972년에 일공은 3월 13일자로 한 성명을 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영토다. 오키나와 입법부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센카쿠가 일본 영토임이 분명하고, 일본의 영토권을 놓고 다툴 여지가 없다’고 결의했다. 우리 당의 의견은 이 주장이 옳다는 것이다. 센카쿠 문제에 대한 우리 당론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싶다. 우리 당은 얼마 전부터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역사적 배경 및 이와 관련한 국제법상의 관계를 연구해 왔다. 우리의 조사 결과 센카쿠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 명백해졌다.”(The Senkaku Islands—Japanese Territory, Press Conference by Tomio Nishizawa, JCP Standing Presidium Member, Akahata, 31,3,1972; http://www.japan-press.co.jp/modules/feature_articles/index.php?id=34) 일공은 2010년에도 성명에서 이러한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성명 발표 이후에 입수 가능한 역사적 문서들을 가지고서 보더라도 우리 일본공산당이 이 견해를 수정토록 할 만한 발견은 소개된 것이 없다. 국제법 하에서 국가는 자국 영해 내에서 배타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해경이 외국 선박의 불법 운항을 단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How to solve the issue of the Senkaku Islands: Japan justifiably claims sovereignty; 20,9,2010, http://www.japan-press.co.jp/modules/feature_articles/index.php?id=34; www.japan-press.co.jp) 일공 주간신문의 웹사이트다. 그리고 다시, 중국과의 긴장 고조와중에 개량주의 일공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2012년 8월 21일), “센카쿠 열도와 관련하여 이치다는, 일본의 센카쿠 영유권은 역사와 국제법에 근거해 정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일공의 2010년 성명을 언급했다.” (Calm diplomatic efforts needed to solve territorial issues: JCP Ichida; 21,8,2012, http://www.jcp.or.jp/english/jps_2012/20120821_04.html)

563) 1977년 일공 지도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77년 일공은 일본이 다케시마 섬 [독도]에 대한 일본 주권을 주장할 역사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Takeshima issue should be solved through diplomacy: JCP chair; August 11, 2012, http://www.jcp.or.jp/english/jps_2012/20120811_01.html) 이러한 관점이 2012년 8월에도 반복되었다. “다케시마 섬과 관련하여 이치다는 일본이 그 섬에 대한 일본 주권을 주장할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힌 일공의 1977년 성명을 언급했다.” (Calm diplomatic efforts needed to solve territorial issues: JCP Ichida; August 21, 2012, http://www.jcp.or.jp/english/jps_2012/20120821_04.html)

564) 다음을 보라. the RCIT: Has the Trump–Kim Summit Opened the Road to Peace in East Asia? 14.06.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has-the-trump-kim-summit-opened-the-road-to-peace-in-east-asia/>; RCIT: North Korea: Stop the American Warmongers! Defend North Korea against the Madman of US Imperialism! Down with the imperialis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No political support for the Stalinist Kim Regime! 11 August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stop-us-madman-threatening-north-korea/>; RCIT: US Sanctions against Russia, Iran, and North Korea are an Economic Declaration of War, 30 July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north-america/us-sanctions-vs-russia-iran-north-korea/>; RCIT: North Korea: Stop the War Mongering of US Imperialism! 4 April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us-aggression-vs-north-korea/>; RCIT: New Imperialist Threats in East Asia: Hands off North Korea! 12.3.201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

일본의 지지와 심지어 중국·러시아의 암묵적 지지를 끌어냈다)에 대항하여 이 소국을 지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북한이 제국주의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일부 핵미사일을 보유할 권리를 방어하는 것은 고사하고 일련의 적대적인 성명을 냈다. “[일본공산당은] 북조선의 무모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공산당은 북조선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군사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⁵⁶⁵⁾ 일공은 심지어 “대북 추가 경제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촉구하며 북한에 대한 식량 봉쇄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기까지 한다.⁵⁶⁶⁾

[asia/defend-north-korea/](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no-war-against-north-korea/); RCIT: No War against North Korea! Call for Protests on the Day when a War starts! 6.4.201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no-war-against-north-korea/>; Michael Pröbsting: US Aggression against North Korea: The CWI's "Socialist" Pacifism, 12.09.2017,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wi-and-north-korea/>; 북한에서의 자본주의 복고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가 발표한 다음 논문들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Has Capitali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Crossed the Rubicon or Not? Reply to a Polemic of Władysław Rad (Poland), 15 Jul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has-capitalist-restoration-in-north-korea-crossed-the-rubicon-or-not/>; Michael Pröbsting: In What Sense Can One Speak of Capitali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Reply to Several Objections Raised by the Polish Comrades of "Władysław Rad", 21 June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north-korea-and-the-marxist-theory-of-capitalist-restoration/>; Michael Pröbsting: Again on Capitali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12 June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again-on-capitalist-restoration-in-north-korea/>; Michael Pröbsting: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RCIT Books, Vienna 2018, Chapter VI, The Korean Peninsula: Imperialist Aggression, Capitalist Restoration and Revolutionary Defensism, pp. 95–10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8/>

565) Kazuo Shii: JCP strongly condemns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launch and again calls for immediate direct talks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November 29, 2017 <http://www.jcp.or.jp/english/jcpc/blog/2017/11/20171129-jcp-strongly-condemns-north-koreas.html>; 그 밖의 여러 성명들에서도 같은 입장이 표명되었다. 다음을 보라. JCP condemns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again calls for direct talks to defuse current crisis, September 4, 2017, <http://www.jcp.or.jp/english/jcpc/blog/2017/09/20170904-jcp-condemns-north-koreas-nuclear.html>; Shii issues statement protesting against N. Korea's ballistic missile launch, May 22, 2017 <http://www.jcp.or.jp/english/jcpc/blog/2017/05/20170522shii-issues-statement.html>; Shii protests North Korea's missile launch, February 14, 2017 <http://www.jcp.or.jp/english/jcpc/blog/2017/02/20170214-shii-protests-north-koreas.html>; Shii welcomes new UNSC sanctions on North Korea, March 4, 2016 <http://www.jcp.or.jp/english/jcpc/blog/2016/03/20160304-shii-welcomes-new-unsanctions-on-north-korea.html>

566) Shii issues statement condemning N. Korea's missile launch, August 30, 2017 <http://www.jcp.or.jp/english/jcpc/blog/2017/08/20170830-shii-issues-statement.html>; 다음 성명에서도 같은 정식화가 반복된다. Shii explains to press JCP proposal on North Korea issue, February 20, 2017 <http://www.jcp.or.jp/english/jcpc/blog/2017/02/20170220-shii-explains-to-press.html>

요약하면, 유럽좌파당과 일본공산당 모두 독실한 친 서방 사회제국주의 당이다.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한 사회주의 강령 대신에 그들은 각각 유럽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를 위한 대안 정책 (미국으로부터의 자주를 위한, 러·중과의 협력을 위한)을 내건다. 그들은 이러한 사회제국주의 강령을 평화주의 미사여구 놀음과 결합시킨다.

24장. 강대국 패권쟁투에 직면한 좌익

: 친 중 · 러 사회제국주의자들 (스탈린주의자들)

전통적으로 스탈린주의는 (개량주의 일반처럼) 언제나 부르주아지의 한 부문에 대하여 다른 한 부문과의 전략적 동맹을 추구해왔다. 자신이 노동자 · 피억압자 속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이 목표에 종속시키고 이 목표를 위해 조종하고자 해왔다. 이는 일국적 지형 위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 지형 위에서도 사실이었다. 대조적으로 진정한 트로츠키주의는 언제나 부르주아지의 모든 부문들에 대하여, 모든 강대국들에 대하여 노동자계급 · 피억압자를 일국적으로, 국제적으로 결집시키고자 분투했다.

이와 같이, 스탈린주의자들이 세계적으로 보다 강력한 세력이었을 때, 즉 1989-91년 소련 붕괴 전에 그들은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반동적” 분파에 대하여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민주적” 분파, “반파쇼” 분파, “애국적” 분파와의 협조를 찾곤 했다. 이것은 제국주의 당들과 함께 하는 인민전선 정부에 참가하는 (예를 들어 1936년, 1945년, 1981년, 1997년 프랑스에서, 1945년, 1996년, 2004년 이탈리아에서) 것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였다.⁵⁶⁷⁾ 그리고

567) 스탈린주의 인민전선 정책에 대한 방대한 문헌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Tom Kemp:

또 제국주의 국가들의 한 진영에 대항하여 다른 진영을 지지하는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탈리아에 대항하여 미·영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이기도 했다.

모택동 시대 및 탈 모택동 시대 중국의 경우에는 심지어 이 개량주의적 이론이 이른바 “사회제국주의” 소련에 대항하여 미·유럽 제국주의와의 초반동적 협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기까지 했다.⁵⁶⁸⁾ (당시에 모든 스탈린주의 국가들 - 소련 주도 진영의 국가들과 중국 주도 진영의 국가들 양 진영 모두 - 은 자본주의 국가나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탈자본주의 계획경제의 기초 위에서 관료층이 노동자계급과 농민에 대해 지배자로 군림한 타락한 노동자국가였다.⁵⁶⁹⁾ 기괴한 일화 하나를 언급하자면, 1970년대에 서유럽의 마오주의 (모택동주의) 그룹 회원들은 “동[東; 소련을 뜻함]으로부터의 사회제국주의적 위협”에 대항하여 “조국”을 방어하기 위해 제국주의 군대에 들어가라는 훈령을 받았다!

요컨대, 스탈린주의 당들은 부르주아지의 한 진영에 대항하여 다른 한 진영과의, 또 제국주의 국가들의 한 진영에 대항하여 다른 한 진영과의 협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러한 협조가 “사회주의” 국가 (소련, 중국, 동유럽, 베트남,

Stalinism in France, New Park Publications, London 1984; Jaques Danos, Marcel Gibelin: Die Volksfront in Frankreich, Generalstreik und Linksregierung im Juni '36, Junius Verlag, Hamburg 1982, 레온 트로츠키는 이러한 스탈린주의적 관점에 대해 광범위하게 비판했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Leo Trotsky: Whither France? New Park Publications, London, 대표적인 스탈린주의 이론가 디미트로프는 인민전선 개념을 1935년 이후 각종 연설과 저술들에서 밝히고 있다. 다음 책에 이 연설과 저술들이 요약 정리되어 있다. Georgi Dimitroff: The United Front, The Struggle Against Fascism and War, Proletarian Publishers, San Francisco 1975

568)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팸플릿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의 한 장 “The Maoist Origin of the Super-Power Theory”을 보라. (전체 제목과 링크는 위의 각주를 보라).

569) 스탈린주의 국가들에 대한 트로츠키주의 이론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는 다음을 보라. Leon Trotsky The Revolution Betrayed (1936), Pathfinder Press 1972, RCIT의 분석이 다음의 우리 책 II장에 요약 정리되어 있다. Michael Pröbsting: Cuba's Revolution Sold Out? The Road from Revolution to the Restoration of Capitalism, Vienna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uba-s-revolution-sold-out/>. 다음도 보라. Yossi Schwartz: Was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Yemen a Deformed Workers State? August 201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outh-yemen/>

북한, 쿠바 등)를 방어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이들 스탈린주의 당들은 타락한 노동자국가의 스탈린주의 지배 관료에 봉사하는 친자본주의·친제국주의적 사이비 사회주의자들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상황과는 다른 것인데, 왜냐하면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 즉 타락한 노동자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들 스탈린주의 당들은 지배계급 한 분파를, 제국주의 한 진영을 *직접적으로* – 타락한 노동자국가의 보수 관료층을 매개로 한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 섬긴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사회제국주의가 *부르주아 지정학주의*의 형태를 취하는 이유다. 우리가 부르주아 지정학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회제국주의가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의 대의를 밀어올리기 위한 국제 계급투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세계질서 재편의 관점에서, 즉 기존 강대국들(미국, EU, 일본)에게 불리하게, 신흥 강대국들(중국과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세계질서의 재정립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정세와 투쟁과제를 규정하려 하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지정학주의는 고전적인 스탈린주의 “일국 사회주의”론의 사생아다. 그것은 “사회주의”를 삭제하고 모종의 “일국 자본주의”에 만족한다.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 를 중심으로 한 스탈린주의 연합

소련 붕괴 이후 스탈린주의 당들은 쪼개지고 분열해서 그 어떤 국제 중앙 조직도 없는 상태다. 많은 나라에서 스탈린주의 조직들이 여러 개씩 병존하고 있다. 그들의 “일국 사회주의” 도그마에 충실하게도 스탈린주의 조직들은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일국적·민족적 당으로 존재하며 그 어떤 국제적 전술도 일

국적 이익에 종속시킨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스탈린주의 당들이 세계정치 이슈들에 대해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 국제적 공조를 추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오늘 많은 스탈린주의 당들은 이른바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IMCWP) 중심으로 느슨하게 연합하고 있다. 이 연례 국제회의는 1998년에 그리스공산당(KKE)의 발의로 시작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당들은 공동성명을 낸다. 그들 중 다수의 당들이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국제공산주의평론>>⁵⁷⁰⁾이라는 이름의 잡지를 발행한다. 이러한 조직 구조들이 매우 연방주의적으로 느슨한 기초 위에서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세계정치 사건들에 대한 공동성명을 때로는 내곤 한다.

위에서 언급한 스탈린주의 당들 상당수가 이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에 종종 참가한다. 그들 가운데는 중국, 베트남, 쿠바, 북한, 라오스 등의 집권 스탈린주의 당들이 있다. 그리고 인도의 양대 공산당 — CPI와 CPI(M) —, 러시아의 KPRF와 RKRП, 남아공, 브라질, 베네수엘라, 시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을 비롯한 그 밖의 보다 작은 당들도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들 당 가운데 일부는 제국주의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보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 중국, 쿠바 등과 같은 국가 당들과 그 외에 남아공공산당 같은 당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스탈린주의 당들이 러시아·중국의 계급적 성격에 대해 통일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그리스공산당은 보다 비판적이며, 시장 개혁에 관한 자신의 불만을 표한다. 또 러시아의 계급적 성격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다 (우리가 위에서 보여주었듯이, 회의 참가 러시아 당들 사이에서도).

570) 지금까지 이 잡지 8호가 나왔다. 다음은 이 잡지의 웹사이트다. <https://www.iccr.gr/en/home/>.

그러나 그들 모두 세계를, 서로 다른 제국주의 강대국들 (중·러를 포함하여) 간의 패권쟁투로 특징지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하나의 제국주의 진영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로 보는 데 모두 일치하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은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중·러 진영과 갈등 관계에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데서도 모두 일치를 이루고 있다.

연례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의 각종 공동선언을 보면 이 점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2018년 11월 아테네 회의에서 채택된, 그들의 가장 최근 선언 속에서 스탈린주의 당들은 ‘제국주의’라는 범주를 오직 미국과 그 동맹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만 사용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언급되지 않으며, 이 두 강대국에 대항하는 피억압 인민들의 투쟁은 그 어떤 것도 입에 올리지 않는다.

“공산당·노동당은 제국주의의 공세에 대항하는, 점령에 대항하는, 주권과 민족 독립에 대한 위협에 대항하는, 평화를 위한, 사회적·민주적 제 권리의 방어와 확대를 위한 전 세계 노동자·인민의 투쟁을 환영한다. 많은 나라들에서 미국, 나토, EU 및 그들의 동맹들의 제국주의적 계획과 정치방침에 대항하는 투쟁으로부터 얻은 경험은 소중한 가치가 있다.

모순이 첨예화함에 따라 부를 낳는 자원과 시장,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장악하려는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의 위험이 수반되고 있다. 이 위험이 노동자 운동과 공산주의자들에게, 평화와 군비철폐를 위한 광범한 반제국주의 투쟁을 강화하고 대자본의 이윤과 제국주의 도발·전쟁에 봉사하는 부르주아 정부들의 정치방침에 대항하는 투쟁을 강화하는 중대한 과제를 제기한다...

공산당·노동당은 시리아, 팔레스타인, 키프로스 인민들과의, 레바논, 수단, 쿠바, 베네수엘라, 브라질, 이란 인민들과의, 제국주의 공격과 위협에 직면한 모든 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 연대를 재확인했다...”

이들 스탈린주의 당들이 촉구하는 활동들을 보면, 오로지 미국과 그 동맹들을 겨냥한 것들임을 (이에 더해 메이데이와 각종 기념행사 등을 중심으로 한 활동들도 촉구한다)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공산당·노동당은 이들 주요 축을 따라 차기 공동 집중행동을 전개할 것을 요구한다.

제국주의 전쟁, 개입, 군사화 반대.

상설구조적협력(PESCO)을 비롯한 그 밖의 메커니즘들로 가일층 군사화하고 있는 EU와 나토 - 그 70주년이 2019년 4월 4일이다 - 에 반대하는 행동...

점령과 제국주의 위협 및 개입에 직면하여 투쟁하고 있는 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 연대 강화.

미국의 쿠바 봉쇄와 볼리바르주의 베네수엘라 개입·위협의 종식을 요구하는 국제주의적 연대와 투쟁의 강화.

점령 종식과 자결을 위한, 유엔 결의에 따라 동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 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팔레스타인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의 범죄적 정책을 규탄한다. 조선반도에서 제국주의 개입을 비난하고 독립과 평화 통일을 위해 조선 인민과의 연대를 표한다. 난민과의 연대, 그리고 제국주의의 점령, 개입, 봉쇄에 직면한 모든 인민들과의 연대를 표한다.”⁵⁷¹⁾

우리는 스탈린주의 당들이 미 제국주의와 그 동맹들은 비난하면서도 강대국 패권쟁투의 다른 축, 다른 국가들 - 중국과 러시아 - 은 “무시”하는 것을 본다. 스탈린주의 당들은 러시아의 대규모 군사개입에 의해 임시 구조된 아사드 정권을 편든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인민을 방어하지만, 시시 장군의 군사독재

571) Appeal of the 20th International Meeting of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29.11.2018, <http://www.solidnet.org/article/20-IMCWP-Appeal-of-the-20th-International-Meeting-of-Communist-and-Workers-Parties/>

에 의해 잔인하게 억압당하고 있는 이집트 인민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흘리지 않는다. (시시는 러시아 푸틴 정부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2013년 7월 그 쿠데타는 이집트공산당의 지지를 받았다). 러시아에게 억압 받고 있는 체첸 인민, 또는 중국의 강제수용소에서 탄압 받고 있는 위구르 인민에 대해서도 일 절 함구하고 있다. 심지어는 북한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의 김정은 승배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기까지 하고 있다!⁵⁷²⁾

스탈린주의와 시리아에서의 반혁명

이들 스탈린주의 당들의 반동적이고 반해방주의적인 친러/친중 성격을 잘 보여주는 실제 예가 시리아 내전이다. 2018년 4월 트럼프 정부가 (시리아 인민에 대한 아사드 군대의 또 한 차례 화학무기 학살에 대한 “보복”으로) 미 해군에 명령하여 빈 건물들에 미사일 몇 발을 쏘게 했을 때 스탈린주의 당들은 한 목소리로 이 러시아의 꼭두각시 정권을 방어했다.⁵⁷³⁾

572) 2018년 11월 제20차 연례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에 참석한 63개 스탈린주의 당들은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우리, 2018년 11월 23~25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20차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 참석자들은 조선의 독립과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조선노동당과 조선 인민의 정당한 대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는 바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고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조선노동당과 조선 인민의 정당한 대의는 국제정의와 평화를 보장하고 전 세계적 규모로 사회주의의 대의를 승리적으로 밀어가는 공산당·노동당의 투쟁에 적극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화해를 위해 조선인민공화국이 선의로 취한 조치에 대해 적극 반응하기를 바라며, 모든 공산당·노동당과 전 세계의 진보적 단체들에게 조선노동당과 조선 인민의 정당한 대의를 위해 국제 연대운동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Statement of Solidarity of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in Support of the Just Caus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the Korean People for an Independent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and for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20 IMCWP, Statement of Solidarity of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November 25, 2018 Athens, Greece, <http://www.solidnet.org/article/20-IMCWP-Statement-of-Solidarity-of-Communist-and-Workers-Parties/>)

57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RCIT 문서들을 보라. Down with Imperialist Warmongering of All Great Powers! Syria attack, Protectionist Tariffs and Salisbury poisoning: Against all imperialist diplomatic, economic and

우리가 다른 기사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이 사건에 대한 스탈린주의자들의 반응은 특히 그들다운 것이었다.⁵⁷⁴⁾ 수십 개 스탈린주의 당들이 서명한 두 성명 속에서 스탈린주의자들은 그들의 규탄을 오로지 미 제국주의의 행동에 대해서 만으로 제한했다. 러시아가 – 러시아 자신의 보고에 따르면 – 2015년 9월 군사개입을 시작한 이래 63,000명의 병력을 시리아에 보내 85,000명의 “테러범”을 사살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다문다.⁵⁷⁵⁾

“서명 당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자행한 시리아아랍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 군사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⁵⁷⁶⁾

“유럽의 공산당 · 노동당은 화학무기 사용을 구실로 한 시리아 폭격에 관한 4월 11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성명 이후 시리아와 역내에서 제국주의 호전성의 고조와 상황 악화를 규탄한다.”⁵⁷⁷⁾

military aggression! In U.S., EU, Russia and China: The Main Enemy is at Home! Support democratic and national liberation struggles of oppressed people! Joint Statement of the RCIT and the Marxist Group 'Class Politics' (Russia), 13,04,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syria-down-with-imperialist-warmongering-of-all-great-powers/>; ISL: On Trump's attack on Syria, 15,04,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on-trump-s-attack-on-syria/>

57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Syria and Great Power Rivalry: The Failure of the „Left“. The bleeding Syrian Revolution and the recent Escalation of Inter-Imperialist Rivalry between the US and Russia – A Marxist Critique of Social Democracy, Stalinism and Centrism, 21 April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yria-great-power-rivalry-and-the-failure-of-the-left/>

575) AFP: Russia says over 63,000 troops have fought in Syria, August 22, 2018, <https://www.yahoo.com/news/russia-says-over-63-000-troops-fought-syria-141424820.html>; TASS: Russia lost 112 service-men over three years of counter-terror operation in Syria – MP, September 30, 2018, <http://tass.com/defense/1023714>;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63,000 Troops, Russian Imperialist Forces back up the Reactionary Assad Regime in Syria, 27,08,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63-000-russian-troops-in-syria/>

576) Joint statement: Condemnation of the bombing of Syria by the USA, United Kingdom and France, 17 April 2018, <http://www.solidnet.org/portugal-portuguese-communist-party/portuguese-cp-condemnation-of-the-bombing-of-syria-by-the-usa-united-kingdom-and-france-en-fr-es-pt>

577) Statement of the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of Europe condemning the escalation of the imperialist aggressiveness in Syria, 13 April 2018, <http://www.solidnet.org/greece-communist-party-of-greece/cp-of-greece-statement-of-the-communist-and-workers-parties-of-europe-condemning-the-escalation-of-the-imperialist-aggressiveness-in-syria-en-ru-es-ar-fr-sq>

또 그들은 시리아의 인민항쟁에 대해서도, 이에 반대하며 아사드 정권에 대한 지지를 다소간에 명시적인 용어로 표명한다.

“서명 당들은 7년 동안 미 제국주의와 그 동맹들의 침략 - 직접적인 침략이든, 테러 집단의 대리 행동에 의한 것이든 - 에 맞서 조국의 주권과 독립과 영토 보전을, 그리고 어떠한 개입으로부터도 자유롭게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저항하고 싸운 시리아 인민과의 연대를 요구한다.”

“공산당·노동당은 시리아 인민을 비롯한 그 밖의 역내 인민들에 대한 국제주의적 연대를 표하며, 노동자계급·인민 제 세력에게 나토와 미국, 유럽 연합의 제국주의 개입 및 전쟁에 대항하여 투쟁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두 성명 중 하나에 아사드의 사이비 의회 내 공식 집권 블록에서 하위 파트너로 복무하고 있는 시리아공산당이 서명 당으로 참가한 것은 지극히 논리적인 것이다.

우리는 스탈린주의 주도의 세계노동조합연맹(WFTU)이 같은 시간에 낸 성명에서 동일한 입장을 발견한다. 그들은 “전쟁 준비를 진행하며 미사일 공격으로 시리아와 시리아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영국 및 그들의 동맹들의 정부들”을 날카롭게 비난한다. 그들은 아사드 정권에 의한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고발은 “허구”라고 주장하며, “화학무기 운운하는 도발을 획책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는 NGO들 마냥 대다수 NGO의 더러운 역할”에 대해 비난한다. 마찬가지로 이들 스탈린주의자들은 “이라크, 리비아, 레바논, 시리아에서 제국주의 개입을 지지하며, 지금 나토와 유럽연합의 전략을 다시금 정당화해주고 있는 황색 노조 지도부의 더러운 역할”에 대해서도 비난한다.⁵⁷⁸⁾

578) WFTU on the Situation in S.E. Mediterranean, 12 Apr 2018, <http://www.wftucentral.org/wftu-on-the-situation-in-s-e-mediterranean/>

여기서도 다시, 서방의 군사개입보다 훨씬 더 대규모이고 훨씬 더 치명적인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개입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다. 또 시리아 인민을 도살하고 있는 폭압 아사드 정권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다.

또 다른, 보다 먼저 나온 성명에서 그리스공산당도 아랍 혁명과 특히 시리아 봉기에 대한 비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2011년 그 첫 시점부터 그리스공산당은 시리아 인민과 역내의 인민들에게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개입에 대해 비난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부르주아 당들과 기회주의 당들이 이른바 ‘아랍의 봄’을 찬미했을 때, 우리 당은 제국주의 열강이 이른바 시리아 반정부 세력에게 자금을 대주고 무장시키기 위해 조직된 노력을 펼친 것을 폭로했다.”⁵⁷⁹⁾

우리가 앞서 여러 차례 명기해놓았듯이, 강대국들의 시리아 개입에 대한 스탈린주의자들의 위선적인 접근방식을 보고 있으면, 1939-41년에 그들 선배들의 정책이 생각난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 일방적으로 영·불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그 식민 정책과 호전적인 대외정책에 대해 비난하지만, 그러나 나치 독일 제국주의와는 손 붙잡고 스파링 연습을 하던 모습 말이다.

이제 몇몇 주요 스탈린주의 당들로 넘어가보자. 우리는 공식 국가 당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의 정책은 중국, 쿠바, 베트남 등등의 국가기구의 정책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당은 실질적 의미에서 당이라기보다는 국가기구의 - 처음에는 타락한 노동자국가의, 나중에는 자본국가의 - 핵심 구성부분이다.

579) Elisseos Vagenas: The Military-Political Equation in Syria, (Extensive excerpts from the article published in “Kommounistiki Epitheorisi”, the political-theoretical journal of the CC of the KKE, issue 1 of 2016), <https://inter.kke.gr/en/articles/THE-MILITARY-POLITICAL-EQUATION-IN-SYRIA/>.

러시아의 사회제국주의 당들 : KPRF, RKRP, OKP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겐나디 주가노프가 이끄는 KPRF(러시아연방공산당)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스탈린주의 당이다. 이 조직은 러시아를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보기를 거부하는 투철한 “조국”방위주의자다. 실제로 KPRF는 대 러시아 사회제국주의 당이다.

KPRF는 러시아를 서방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그리고 “동성애자”와 “이주자”에 의해서도) 위협받는 나라로 본다. 이러한 외국 위협에 대하여 KPRF는 “민족해방투쟁”을 요구한다. 마치 러시아가 피억압 반식민지 나라인 양 말이다!

당의 강령에서도 이렇게 천명하고 있다.

“현 조건에서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사회계급해방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을 단일한 인민전선으로 묶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한다... 우리 당은 조국의 통합과 영토보전과 독립을 위해, 소연방 인민들의 형제적 연합의 회복을 위해, 시민의 안녕과 안전, 도덕적·신체적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영토보전과 재외동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국제분쟁의 불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러시아 문제는 자본주의 부활기 이후 비상한 긴급함을 띠고 있다. 오늘, 러시아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게 분열된 민족이 되었다. 솔직히 말해 대국의 대량학살이 존재한다. 러시아인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역사적으로 확립된 문화와 언어가 파괴되고 있다. 러시아 문제의 해결 과제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 과제는 본질적으로 같다.”⁵⁸⁰⁾

580) KPRF: Party Programme (2008), <https://kprf.ru/party/program> (영역은 저자)

솔직하게도 이것은 대러시아 배외주의의 강령이다. 조국의 “통합과 영토보전”을 위해 싸우는 것은 다름 아니라 체첸인 같은 민족 소수자의 분리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을 뜻한다. “러시아 재외동포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팽창주의의 강령이다.

그리고 실제로 KPRF는 대러시아 제국 창설을 위해 팽창주의를 요구한다. 그 지도자 주가노프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돈바스의 병합을 요구했다. “내가 대통령 [러시아연방의]이라면, 돈바스를 즉각 러시아의 일부로 만들었을 것이다. 첫째, 우리는 전에 남 오세티야·압하지야의 경우처럼 도네츠크·루간스크 공화국을 승인한다.”⁵⁸¹⁾

또 KPRF는 푸틴 정권이 1999년 체첸에 대한 2차 전쟁을 시작했을 때도, 그리고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개입 때도 푸틴 정권을 편들었다.⁵⁸²⁾ 달리 말하면, 주가노프는 “러시아를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이 적힌 야구 모자를 곧 쓸지도 모르는 그 정도로 투철한 “애국자”다.

KPRF도 같은 대러시아 정신으로 고무되어서 러시아 내 민족 소수자들 사이에 러시아어를 진흥시키기 위한 푸틴 정권의 노력을 지지한다. KPRF 소속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국회의원 아르템 프로코피예프는 다음과 같이 당의 입장을 표명했다. “타타르스탄에서 러시아어는 러시아 전체 평균보다 교습 시

581) Зюганов попросил признать Донбасс территорией России (Zyuganov asked to recognize the Donbass as territory of Russia), dp.ru, 11.09.2018, <https://www.msn.com/ru-ru/news/featured/%D0%B7%D1%8E%D0%B3%D0%B0%D0%BD%D0%BE%D0%B2-%D0%BF%D0%BE%D0%BF%D1%80%D0%BE%D1%81%D0%B8%D0%BB-%D0%BF%D1%80%D0%B8%D0%B7%D0%BD%D0%B0%D1%82%D1%8C-%D0%B4%D0%BE%D0%BD%D0%B1%D0%B0%D1%81%D1%81-%D1%82%D0%B5%D1%80%D1%80%D0%B8%D1%82%D0%BE%D1%80%D0%B8%D0%B5%D0%B9-%D1%80%D0%BE%D1%81%D1%81%D0%B8%D0%B8/ar-BBN8FXU> (our translation)

582)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Gennady Zyuganov: The crisis in Ukraine and its deep roots, September 2014, <http://cprf.ru/2014/09/1108/>

간이 훨씬 더 적다. 그러나 러시아어 통합 국가시험 결과에 따르면 타타르스탄은 매우 양호한 지위에 있다. 러시아어 교습 시간이 늘어나면, 결과는 한결 더 좋아질 것이다.”⁵⁸³⁾

“러시아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자명한 제목 (정말로? 푸틴 러시아에서 러시아어가 사멸 위기에 처했다고?!)을 단 글에서 KPRF와 가까운 저자는 “국가 언어 옹호”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⁵⁸⁴⁾

또한 진정 “애국적인” 당으로서 주가노프의 KPRF는 푸틴 정권의 반 이주민 정책을 지지하고 “동성에 선전”에 반대하며 러시아 정교회의 역할을 칭찬한다.⁵⁸⁵⁾

따라서 KPRF가 시리아에서의 푸틴의 전쟁도 처음부터 지지한 것은 지극히 논리적이다. 예를 들어 KPRF는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공산당과 그 지도자 G.A. 주가노프의 도움을 찬양했다”라는 제목이 붙은 글에서 아사드 폭정에 대한 찬사를 표하고 있다.⁵⁸⁶⁾ 또 다른 글에서 KPRF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실은 이들 50만 명을 학살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 시리아의 합법 정부”에게 갈채를 보낸다.⁵⁸⁷⁾

KPRF는 확실히 제국주의 강대국을 섬기는 가장 솔직한, 숨김없는 스탈린주의적 사회배외주의 당들 중의 하나다. KPRF는, 많은 스탈린주의자들조차

583) Екатерина Коростиченко: «Изучение татарского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муку для родителей», 8 сентября 2017, <https://vz.ru/society/2017/9/8/886257.html> (영역은 저자)

584) Viktor Kozhemyako: How to protect the Russian language? 15.06.2012, <https://kprf.ru/russoc/107254.html> (영역은 저자)

585) 예를 들어 주가노프는 2012년에 “단합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과 정교회의 신성한 의무다”라고 썼다. (Mansur Mirovalev: Russia's Communist Party turns to the Orthodox Church. After decades of militant atheism, Russian Communists turn to religious establishment to gain supporters, 2016-12-12, <http://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2016/12/russia-communist-party-turns-orthodox-church-161212075756966.html>)

586) Президент Сирии Башар Асад высоко оценил помощь КПРФ и ее лидера Г.А. Зюганова, 25.10.2015, <https://kprf.ru/dep/gosduma/activities/147743.html> (영역은 저자)

587) Сирия: Так было и так будет! 17.04.2018, <https://kprf.ru/party-live/opinion/174882.html> (영역은 저자)

이 당에 대해 당혹스러워 할 정도로 배외주의적인 사회제국주의 당이다. 그럼에도 KPRF는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에 20차례 모두 참가해 왔고, 이 느슨한 스탈린주의 “인터내셔널”의 중심 세력이다.

이미 위에서 말했듯이, 빅토르 톨킨이 이끄는 RKRP-RPK (러시아 공산주의노동자당—공산주의자혁명당)는 보다 분화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RKRP-RPK는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정한다. 불행히도, 부끄럼 없는 스탈린 찬미자로서 당 지도부는 “민주적”, “반파쇼적” 제국주의 국가와 “반동적”, “파쇼적” 제국주의 국가를 구분하는 고전적 스탈린주의 이론을 고수하며, 이 후자의 제국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전자의 제국주의 국가를 지지한다. 그릇된 이론의 그릇된 적용 속에서 누구든 역설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민주적” 제국주의 국가와 “반동적” 제국주의 국가를 구분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RKRP는 - 일관되게 자신의 그릇된 논리를 따라서 - 오히려 러·중에 대항하여 서방을 편들어야 할 의무에 있게 된다. 러시아와 중국에서보다 북미와 서유럽, 일본에서 더 많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RKRP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RKRP 지도부는 맑스주의 이론을 과학적 지침으로서가 아니라 대러시아 제국주의를 지지하기 위한 실용적 방편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RKRP 지도부는 푸틴 러시아의 반동적 대외정책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좋은” 제국주의와 “나쁜” 제국주의라는 스탈린주의적 구분법을 억지로 되살려냈다. 그리하여 RKRP 지도부는 -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또는 시리아에서의 군사개입처럼 - 러시아의 국외 군사개입을 지지한다. “오늘날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 자본의 이익을 표현하면서 시리아와 돈바스의 정의로운 투쟁

을 지지한다.”⁵⁸⁸⁾

푸틴 정권에 대한 이 당의 비판을 보면, 푸틴 정권이 제국주의적 개입을 실행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정력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다! RKRP 중앙위원회 제1서기 빅토르 툴킨은 이렇게 썼다.

“예를 들어 돈바스와 시리아에서 우리는 이러한 투쟁을 본다. 러시아연방의 입장은 이 투쟁에서 포로셴코 파쇼 정권에 대항하는 돈바스 민병대의 싸움에 객관적으로 기여한다. RKRP는 러시아 당국의 돈바스 지원을 승인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며, 파쇼 정권으로서의 포로셴코 정권에 대한 원칙 있는 평가를 요구하며, 더 많은 일관성을 요구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제국주의 나라들로서 모종의 연합을 (브릭스 국가들을 포함하여) 형성하여 보다 공격적이고 뻔뻔스런 미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지극히 이해할 만한 것이며, 일정 단계에서는,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는 노동자계급과 세계에 이익이 되도록 이 투쟁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⁵⁸⁹⁾

이런 맥락에서는 푸틴 정권에 대한 “비판”이 그 자체로 진보적인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비유를 들어보자. 앙겔라 메르켈의 보수당이 이끄는 독일 정부는 지난 수년 간 자신의 난민 정책과 관련하여 각종 비판에 직면해왔다. 진보적, 국제주의적 세력들은 독일 정부의 난민 정책이 제한적이고 차별적이라고 규탄해왔다. 우익 및 준 파시스트 세력 (“독일을 위한 대안”

588) RKPR: Against war! Against warmongering! 16.04.2018, <https://rkrp-rpk.ru/2018/04/16/%D0%BF%D1%80%D0%BE%D1%82%D0%B8%D0%B2-%D0%B2%D0%BE%D0%B9%D0%BD%D1%8B-%D0%BF%D1%80%D0%BE%D1%82%D0%B8%D0%B2-%D0%BD%D0%B0%D0%B3%D0%BD%D0%B5%D1%82%D0%B0%D0%BD%D0%B8%D1%8F-%D0%B2%D0%BE%D0%B5%D0%BD%D0%BD/> (our translation)

589) Viktor Tyulkin: Some words on the Russian imperialism, 09.10.2017, <https://rkrp-rpk.ru/2017/10/09/%D0%BD%D0%B5%D1%81%D0%BA%D0%BE%D0%BB%D1%8C%D0%BA%D0%BE-%D1%81%D0%BB%D0%BE%D0%B2-%D0%BE-%D1%80%D0%BE%D1%81%D1%81%D0%B8%D0%B9%D1%81%D0%BA%D0%BE%D0%BC-%D0%B8%D0%BC%D0%BF%D0%B5%D1%80%D0%B8%D0%B0%D0%BB/> (our translation)

당 [AfD]을 포함하여)은 난민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메르켈을 격렬히 공격했다. 이와 같이 메르켈의 난민 정책에 대한 비판은 그 자체로 진보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한 비판이 반동적,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것인지, 진보적,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것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푸틴의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로 경우다. 배외주의적이고, 아사드 같은 반동 세력에 지지를 보내기 때문에 푸틴의 대외정책을 공격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러한 제국주의적 목표를 위해 충분할 만큼의 지지를 아사드에 보내지 않고 있다고 공격할 수도 있다. 첫 번째 비판은 진보적이고, 두 번째 비판은 초반동적이다. 불행히도 스탈린주의자들은 두 번째 옵션을 택한다.

러시아의 반동적 대외정책에 대한 RKRP 지지의 한 측면은 돈바스의 자칭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군사 지휘관이었던 고 알렉세이 모즈고보이에 대한 RKRP의 다음과 같은 무비판적 평가 속에서 볼 수 있다. RKRP는 사망 기사에서 모즈고보이를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라고 칭찬했다.

“그는 근로자들과 매우 가까웠다. 그는 지휘관들 중에서 가장 ‘붉은’ 색이었다. 그에게는 가장 많은 공산주의자를 보유한 사단이 있고 ‘파시스트 침략자들에게 죽음!’이라는 슬로건이 박힌 붉은 배너들이 있다. 그는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정부가 거부한 국제 반파시스트 포럼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의 의도와 정신에서 자생적인 공산주의자였다. 이러한 인물들을 보통 무당파 공산주의자라고 부른다.”⁵⁹⁰⁾

그러나 실제로는, 모즈고보이는 공산주의적 미사여구를 대러시아 배외주의 및 반유대주의 (또는 유대인 혐오)와 결합시켰다. 그의 공개된 일기장이 보여

590) On the death of comrade, 24.05.2015, <https://rkrp-rpk.ru/2015/05/24/%D1%83%D0%B1%D0%B8%D1%82-%D0%B0%D0%BB%D0%B5%D0%BA%D1%81%D0%B5%D0%B9-%D0%BC%D0%BE%D0%B7%D0%B3%D0%BE%D0%B2%D0%BE%D0%B9/> (영역은 저자)

주듯이, 그는 “유대인 나치들”을 가장 얼토당토 않는 것들이라고 고발하며 고전적인 반유대주의적 음모론에 찬성을 보냈다.

“그들 [유대인 나치들]은 돈바스의 농촌과 도시를 파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군대도 파괴하고 있다... 그들의 의사들과 위생병들은 우크라이나 군 병사들과 돈바스 민간인들의 시신을 절단한다. 이스라엘, 유럽,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인간 장기를 노획물로 해서 부를 끌어 모으고 있다.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바 있다. 그들은 러시아의 올리가르히 [소련 붕괴 뒤의 과두 재벌]와 손잡고 이 짓을 하고 있다.... 작가와 목사와 국회의원의 살해는, 언론매체에서 말하듯이 "키예프 군사정권의 단말마"와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의 분노"와도 관계가 없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한 유대인 혁명에 뒤이은 유대인의 테러다. 그것은 1917년 때와 같다. 그것이 이제 우리 돈바스에서 펼쳐졌다.”⁵⁹¹⁾

RKRP가 실제로 반유대주의 미치광이였던 모즈고보이를 공산주의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것은 얼마나 얼토당토않은가! 모즈고보이를 공개적으로 찬미한 많은 서방의 “반파쇼” 돈바스 공화국 지지자들의 경우도 이 점에선 마찬가지다.

요컨대, RKRP는 러·중 제국주의를 서방 라이벌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지지하는 것, 나아가 아사드 또는 돈바스 꼭두각시 정권들 같은 반동적, 반인민적 독재를 편드는 것이 계급투쟁을 도울 것이고 국제 노동자계급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 같은 접근법은 부르주아적 또는 사회제국주의적 지정학주의다. 볼셰비키 지도자들은 이미 오래 전에 이 같은

591) 다음에서 인용. Дневник комбрига, Алексей Мозговой, 22.06.2016, <http://rusdozor.ru/2016/06/22/dnevnik-kombriga-aleksej-mozgovoj/> (영역은 저자)

잠꼬대를 겨냥해 다음과 같이 논박했다.

“부르주아적 정의와 민족적 자유 (또는 민족의 생존권)라는 관점에서 보면 독일이 영국·프랑스와 대비하여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될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은 식민지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의 적들은 독일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민족들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독일의 동맹국 오스트리아에게 억압받고 있는 슬라브인들은 그야말로 ‘민족들의 감옥’이라 할 수 있는 차르 치하 러시아의 슬라브인들보다 의심할 바 없이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독일은 민족들의 해방이 아니라 민족들의 억압을 위해 싸우고 있다. 보다 젊고 보다 강한 강도(독일)가 늙고 너무 처먹어서 비만한 강도를 강탈하도록 돕는 것이 사회주의자의 할 일은 아니다. 사회주의자는 이들 강도 모두를 타도하기 위해 이들 간의 싸움을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자는 우선 사람들에게 진실, 즉 이 전쟁이 세 가지 점에서 노예제 강화를 목표로 하는 노예주들 간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폭로해야 한다. 첫째, 이 전쟁은 식민지에 대한 ‘보다 공평한’ 분할과 후속되는 보다 일사불란한 착취를 통해 예측화를 강화시키기 위한 전쟁이다. 둘째, ‘강대’국 내 소수민족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기 위한 전쟁이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는 (러시아가 오스트리아보다 더 심하고 더 악랄하지만) 그 같은 억압을 통해서만 그들의 지배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전쟁을 통해 이 억압의 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임금노예제를 확대하고 연장하기 위한 전쟁이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트는 전쟁으로 분열되어 있고 탄압 당하고 있는 반면, 자본가들은 전쟁으로 부를 모으고, 민족적 편견에 불을 붙여 반동을 강화시킴으로써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모든 나라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공화제적인 나라에서조차 반동이 득세하고 있다.”⁵⁹²⁾

592) G. Zinoviev / V. I. Lenin: Socialism and War (1915) ; in: LCW Vol. 21, pp. 303-304. [레닌 〈사회주의와 전쟁〉,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35-6쪽]

위에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러시아의 OKP(통합공산당)는 러시아를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주변부 자본주의 나라”로 규정한다. (OKP는 사이비 트로츠키주의 조직 아르헨티나 노동자당 [PO]을 중심으로 한 ‘제4인터내셔널 재건을 위한 조정위원회’ [CRFI]의 동맹 세력이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서방 제국주의자에 대항하여 “조국”을 방어하는 “애국적” 정책을 실행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위에서 우리는 쿠릴열도 일본 반환을 요구하는 “애국적”인 일본공산당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같은 사회제국주의적 배외주의에 의해 추동된 OKP는 일본에 대한 그 어떤 양보도 강력히 거부한다. OKP는 확실히 일본 “동지들” 못지않게 “애국적”이다! “우리는 러시아의 노동인민의 의지에 반하여 취해지는 영토 양보를 거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OKP 지도부는 일본이 “남쿠릴열도 부분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을 무효화”시키려 한다고 비난한다.⁵⁹³⁾

또 OKP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각종 국외 군사개입도 지지한다. OKP의 핵심 리더 다리야 미티나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외무부 모스크바 지국장으로 한 동안 복무했다.⁵⁹⁴⁾ 마찬가지로 OKP 지도자들은 친제국주의적인 PKK(쿠르드 노동자당)/YPG(인민수비대)뿐만 아니라 폭압 아사드 정권도 “비판적으로” 지지한다. “오늘 PKK와 아사드 정권이 사회주의와 맑스주의의 이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중동에서의 분쟁에 진정한 국제주의를 가져온 아마도 유일한 세력들이다.”⁵⁹⁵⁾ 다리야 미티나는 심지어 거대한 아사드 초

593) Заявление Президиума ЦК ОКП: Мы отвергаем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уступки, осуществленные против воли трудящихся, 21 Дек. 2016 <http://ucp.su/category/news/683-my-otvergaem-territorialnye-ustupki-osushhestvlenny/> (Statement of the Presidium of the CC OKP: We reject territorial concessions made against the will of the working people, 21 December 2016) (영역은 저자)

594) https://wikivisually.com/wiki/Darya_Mitina

595) UCP commentary about destruction of statues in Palmira, https://vk.com/wall-9225_48085 (영역은 저자)

상화 앞에서 감탄스러워 하는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

한 논평에서 다리야 미티나가 자신은 아프간 인민반란의 주도적 지위에 있는 소부르주아 이슬람주의 탈레반에 대항하여 제국주의 꼭두각시 정권을 쫓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OKP의 사회제국주의적 입장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다리야 미티나는 아프간에서의 전쟁 당사자들 간의 협상 회담을 주최하려는 모스크바 당국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

“나는 내가 그런 치욕을 감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테러범, 살인범, 식인종들과 손을 흔들며 그들의 의견을 묻고 고위급의 모스크바 국가 상징을 배경으로 함께 사진을 찍는다. 탈레반의 대외협상 최고책임자인 모하마드 아바스 스타나크자이는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와 직접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들 [아프간 정부]과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 생각에는 아프간 정부가 절대적으로 옳다. 누구도 테러범들과 함께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차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들은 파괴되어야 한다.”⁵⁹⁶⁾

의심의 여지없이, 이것은 반제국주의 인민봉기의 편에 서는 사회주의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제국주의 상전들을 위해 조언하는 특별보좌관의 역겨운 목소리다!

596) Darya Mitina: Comment on the Taliban in Afghanistan, Не думала, что доживу до такого позорища, November 10th, 2018, <https://kolobok1973.livejournal.com/4688030.html> (영역은 저자)

“그리스 주권적 권리의 방어” : 부르주아 사회배외주의의 한 예로서 스탈린주의 KKE

이미 위에서 말했듯이, KKE(그리스공산당)는 유럽 및 전 세계 스탈린주의 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⁵⁹⁷⁾ KKE는 전통적 스탈린주의, 즉 일국 중심적 개량주의의 고전적 예다.⁵⁹⁸⁾ KKE는 일반적 선언에서는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을 규탄한다. 그러나 ‘자’국 부르주아 국가와 ‘자’국 부르주아지의 배외주의 문제에 이르면, 국제주의 대신 사회배외주의로 말을 갈아탄다. 국제주의는, 외적을 겨냥할 때는 훌륭하다. 그러나 KKE가 신성한 “그리스의 주권적 권리”를 취급해야 할 때는 국제주의는 걸림돌이 된다.

그리스가 1990년대에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데 실패한 발달한(선진) 반식민지 나라라는 것은 이 문제에선 중요치 않다.⁵⁹⁹⁾ 그것이 이 맥락에 관련이 없는 이유는, 정작 KKE 지도부 자신이 그리스의 반식민지 성격을 부정하고, (그릇

597) KKE에 대한 RCIT의 평가로는 다음을 보라. RKOB: Perspectives on the Greek Revolution, 10.11.201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greece-revolution-or-tragedy/>; Michael Pröbsting: Greece: For a Workers' Government! Critical electoral support for SYRIZA and KKE! Workers: Organize and prepare yourselves for the struggle for power! 6.6.201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greece-for-a-workers-government/>; Michael Pröbsting: After SYRIZA's victory in the Greek elections: The question of a Workers Government and the revolutionary way forward, June 201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after-the-greek-elections/>; Michael Pröbsting: Greece: A Modern Semi-Colony. The Contradictory Development of Greek Capitalism, Its Failed Attempts to Become a Minor Imperialist Power, and Its Present Situation as an Advanced Semi-Colonial Country with Some Specific Features (chapter IV.4 Excurse: The KKE and the Class Character of Greece),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ece-semi-colony/>

598) RCIT과 그 전임 조직은 여러 차례 스탈린주의를 노동자운동에 난 고름자운동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uba's Revolution Sold Out? The Road from Revolution to the Restoration of Capitalism, August 2013, RCIT Books,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uba-s-revolution-sold-out/>, 다음도 보라. LRCI: The Degenerated Revolution: The Origin and Nature of the Stalinist States,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talinism-and-the-degeneration-of-the-revolution/>

59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Greece: A Modern Semi-Colony (III장과 IV장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ece-semi-colony/>

되게) 그리스가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⁶⁰⁰⁾ 더욱이 사회배외주의적 KKE가 “그리스의 주권적 권리”를 그들로부터 방어한다고 하는 그 적들이란 것이 그리스를 공격하는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라 그리스의 오랜 “적”들이자 이웃 나라들 – 특히 터키와 마케도니아 – 이기 때문이다. 이 두 나라는 다름 아닌 반식민지 국가이며, 그 중 마케도니아는 1991년 독립을 선언한 이래 그리스에게 협박, 착취당하는 관계를 겪어 왔다.⁶⁰¹⁾

600) 2013년에 채택된 강령에서 KKE는 이렇게 밝힌다. “그리스의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적 발전 단계에 있는데, 국제 제국주의 체제에서 중간적 위치를 점하며 미국과 EU에 강하게, 불균등한 관계로 의존해 있다... 그리스의 나토 참가, EU와 미국에 대한 경제적-정치군사적 의존 등은 그리스 부르주아지가 독립적으로 운신할 여지를 제약한다. 모든 자본의 동맹 관계들이 경쟁과 불균등한 관계에 의해 지배되며, 그리고 그로 인해 최강자의 유리한 위치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이다. 자본의 동맹 관계들은 불균등한 상호의존 관계로 형성된다.” (2013년에 채택된 KKE 강령, <http://inter.kke.gr/en/articles/Programme-of-the-KKE/>)

또 당시 KKE 총서기 Aleka Parariga도 다음과 같이 썼다. “그리스에서 기회주의의 기본 입장은, 그리스가 독일 점령 하에 있으며,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고 또는 이미 전락되어 우선적으로 채권자 메르켈 씨에 의해 약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외 부채 및 재정적자 관리를 감독하고 결정하는 EU, 유럽중앙은행, IMF의 대표자 3인방이 독일과는 별도로 주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기회주의자들은 그리스의 부르주아 계급과 집권당들을 배신적, 비애국적이며 독일에게, 채권자나 은행가들에게 종속적, 복종적이라고 비난한다. 종속과 점령 운운하는 자들은 위기 이전에 상당액을 이루었고 위기 조건 속에서도 줄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그리스의 자본수출(제국주의 단계에 있는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본수출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생산적 투자를 위해 – 그리고 물론 유럽 은행들에 대한 생산적 투자를 위해 –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투자가 최대한의 이윤을 보장하는 과정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조건이 형성될 때까지 말이다. 기회주의자들은 과잉축적이 아니라 자본의 부족을 본다. 기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성격이 어쩔 수 없이 역지로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과잉축적 문제 – 자신들의 친 독점 정책을 산산조각 날 – 를 회피한다. 기회주의자들과 부르주아 당들은 그들 간의 여러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내국 독점체들의 경쟁력 보호 정책을 지지한다. 이 정책은 필연적으로 반동적 구조조정, 값싼 노동력 확보, 국가 탄압 및 반공주의 강화를 전연화하며, 동시에 그리스 자본을 더 넓은 지역(발칸 반도와 동 지중해, 흑해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특히 초점을 둘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더 깊은 위기 사이클을 낳는 약소환이다. 레닌과 그의 제국주의 연구는,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와 뒤떨어진 자본주의 나라 간의 비교는 가능하지 않으며, 가능한 것은 자본수출 간의 비교임을 부연 설명한다. 그리스 점령과 관련하여 그리스가 식민지라는 자신들의 견해가 이 기준만으로도 논파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기회주의자들이 인정하고 싶지도 않을뿐더러 감히 인정할 수도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자본수출 문제다... 따라서 그리스가 제국주의 체제에 속하며,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선두 주자들의 동맹군으로서 전쟁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KKE의 입장은 절대적으로 그 옳음을 입증된다. 이것은 무장한 인민을 군대와 무기와 직접적인 군사작전으로 분쇄하기 위해 영·미 제국주의를 두 번이나 불러들인 부르주아지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이다.” (Aleka Parariga (KKE General Secretary): The Position of Greece within International Capitalism, Article for “El Machete,” the Theoretical and Political Review of the CP of Mexico, <http://mltoday.com/the-position-of-greece-within-international-capitalism>)

KKE의 그리스 자본주의 분석에 대한 RCIT의 비판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우리의 책 Greece: A Modern Semi-Colony의 4장 4절 (Excuse: The KKE and the Class Character of Greece)을 보라.

601) 선진 반식민지로서의 터키에 대한 RCIT의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Chapter V), RCIT Books, Vienna 2018,

실제로 그리스 부르주아 국가는 자신의 영토에서 민족 소수자들을 억압하고 인종청소를 자행한 오랜 불명예스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1920년대부터 터키인과 마케도니아인 시민을 비롯한 그 밖의 민족 소수자 시민 수십만 명을 자국 영토에서 추방했다. 언제나 맑스주의자들은 이들 소수자를 겨냥한 모든 형태의 그리스 배외주의에 단호히 반대해왔고, 이들의 민족자결권을 옹호해왔다.⁶⁰²⁾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8/>;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Chapter 9), RCIT Books, Vienna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TEK YOL DEVRİM! Action Program for Turkey by Sinif Savaşı (RCIT 터키 지부), October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rogram-turkey/>; 마케도니아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Macedonia: Stop the Police Violence! Support the National Self-Determination of the Albanian Minority! For a Workers and Peasants Government! For a Socialist Federation of the Balkan People! 8,5,201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macedonia-statement/>; 또 위에서 언급한 우리의 책 Greece: A Modern Semi-Colony의 2장 3절 (Excuse: Greek Chauvinism and the Macedonian Question)을 보라.

60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Greece: A Modern Semi-Colony (2장 3절 Excuse: Greek Chauvinism and the Macedonian Question과 5장3절 The Struggle against Greek Chauvinism: The Macedonian Question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ece-semi-colony/>, 그 책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듯이, 레온 트로츠키와 그리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언제나 일관된 국제주의적 입장을 취했다. 그들은 그리스 배외주의에 반대했고, 민족 소수자들의 권리를 방어했다. 예를 들어 트로츠키는 마케도니아 문제에 관해 그리스 맑스주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마케도니아 인들이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편을 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결정을 하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들의 결정을 또한 지지할 것이라는 것, 이 점만을 말하겠다. 내가 신경 쓰이는 문제는 마케도니아 농민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리스 노동자들에게 배외주의적인 독소의 기미가 없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 발칸 소비에트 국가 연방에 찬성하는 우리로서는 마케도니아가 자치체 전체로서 이 연방에 속하나, 다른 국가의 일부로서 이 연방에 속하나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나 마케도니아 인들이 부르주아 정부에 의해 억압받고 있거나, 억압 받는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Leon Trotsky: A Discussion on Greece (Spring 1932), In: Writings of Leon Trotsky: Supplement (1929–33), Pathfinder, New York 1979, pp. 129–130). 1920년대 및 1930년대에 KKE의 첫 번째 총서기이자 그리스 트로츠키주의의 역사적인 지도자 Pantelis Pouliopoulos도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천명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에서 마케도니아 민족 문제 — 오늘날까지 미해결로 있는 — 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의심할 바 없이 부르주아지의 애완견이다. 마케도니아인들의 역사적 해방운동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무지하여 그 운동의 역사와 민족적 영웅들을 배워야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역시 애완견, 즉 세 억압민족 부르주아자들 중 하나인 애완견이다.” (Pantelis Pouliopoulos: Communists and the Macedonian Question [May 1940], Republished in Spartakos No. 30, 1991, <https://www.marxists.org/archive/pouliop/works/1940/05/commac.htm>)

“감히 그리스를 공격하는 외국 침입자는 그 누구든 전멸시킬 것” 이라고 KKE가 약속하다

그러나 스탈린주의 KKE는 이 같은 공산주의적인 반배외주의적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2013년 대회에서 채택한 강령에서 KKE는, 그리스에서의 “사회주의”를 위한 KKE 강령은 그리스의 현 국경 및 “그리스의 주권적 권리”의 방어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국경 및 그리스의 주권적 권리에 대한 방어투쟁은 노동자계급과 인민 계층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 권력 타도투쟁의 뗄 수 없는 일부다.”⁶⁰³⁾

이것은 “적”에 대하여 자본가 국가를 방어하겠다는 뜻이며, 나아가 피억압 소수자들의 민족적 권리에 대하여 이 자본가 국가를 방어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민족 소수자들의 권리는 배외주의적인 “그리스의 주권적 권리”를 위협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KKE의 “반제국주의”적 포장이 부르주아 사회배외주의적 내용물을 숨긴다.

이른바 “그리스의 주권적 권리”가 위협에 처할 때 – 적어도, 히스테릭한 부르주아 언론에 의하면 그러한 위협이 존재할 때 – 에는 이것은 분명해진다. 두 개의 최근 예를 가지고 이 점을 증명해보자. 2018년 그리스와 터키 간 긴장이 고조되던 기간에 그리스 파시스트들은 KKE가 터키와의 전쟁 시에 그리스를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KKE는 이에 대해 분개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KKE 총서기 디미트리스 코츨파스는 테살로니키에서 있는 대중집회에서 문자 그대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1백년 역

603) 2013년 4월 11-14일 KKE 19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KKE 강령, <http://inter.kke.gr/en/articles/Programme-of-the-KKE/>

사 속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의 영토보전과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방어하는 맨 앞줄에 설 것이다. 우리는 감히 그리스를 공격하는 외국 침입자는 그 누구든 전멸되도록 할 것이다.”⁶⁰⁴

KKE는 맑스-레닌주의와 반제국주의적 국제주의 원칙을 잘도 찬양하곤 한다. 하지만 ‘자’국의 “영토보전과 주권적 권리”가 터키에 의해 (이른바) 위협에 처해질 때는, KKE 지도부는 자국의 이웃들을 전멸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맹렬한 배외주의자로 일순 변모한다.

KKE 지도자의 이 연설은, 위 인용문이 증명하듯이 그 당이 만족스럽게 연설문을 당 신문에 게재한 것으로 보아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발언 실수가 아니었다. 이 점은 그 당이 2018년 4월에 있는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강령적 테제 속에서 이러한 사회배외주의적 노선을 되풀이하고 있는 사실로도 확인된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개입으로 그리스와 터키 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터키 부르주아 계급 측에서 그리스의 국경 및 주권적 권리를 문제 삼는 것은 지역에서 그리스 부르주아 계급과의 경쟁 관계의 일환이다. 그리스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의 지위를 보다 넓은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자신의 목표에 이끌려 제국주의적 계획과 개입과 경쟁과 전쟁에 능동적으로 참가한다. 그리스가 전쟁에 휘말릴 경우 그 책임은 그리스 부르주아 계급에게 있다. 당 강령은 제국주의 전쟁에 관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활동방침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국경 및 그리스의 주권적 권리에 대한 방어투쟁은 노동자계급과 인민 제 계층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 권력 타도투쟁의 떼어낼 수 없는 일부다. 그러한 방어투쟁은 제국주의의 어느 한 축의 계획 및 어느 한 독점 그룹의 이윤에 대한 방어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604) 다음에서 인용, Nikos Mottas: Was werden die griechischen Kommunisten im Falle eines Krieges tun?; in: Einheit und Widerspruch (Theoretisches und Diskussionsorgan der Partei der Arbeit Österreichs), Heft 6, Juni 2018, p. 117, http://parteidearbeit.at/?page_id=1915 (영역은 저자)

방어적 전쟁이든 공격적 전쟁이든 그리스의 제국주의 전쟁 연루 시에는 당은 부르주아 계급 — 내국 부르주아 계급과 외국 침략자 모두 — 의 완전한 패퇴로 이어지도록 모든 형태의 노동자 · 인민 투쟁의 독립적 조직화를 이끌어야 하며 이를 실제로 권력 장악과 연결시켜야 한다.”⁶⁰⁵⁾

“제국주의 전쟁 반대”와 “권력 장악”에 관한 KKE의 모든 담화는 그리스 배외주의에 대한 사회애국주의적 투향을 숨기기 위한 공문구다. 실제로 이 당은 권력 장악과는 거리가 멀다. 이 점은 지난 십년 동안 그리스에서의 준 혁명적 위기 동안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는 데 철저히 실패한 — 권력을 잡는 것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 것에 의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실제로 35차례의 총파업과 수많은 맹렬한 계급투쟁 이후에 KKE는 선거에서 이전보다 표를 더 적게 받는다!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먼 미래의 불확실한 가능성이라면, 터키와의 또는 마케도니아와의 긴장과 그리스 여론에 대한 배외주의적 선전은 오늘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긴장 · 충돌에서 KKE는 “외국 침략자”에 대항하여 그리스 자본가 국가의 “영토보전과 주권적 권리”를 방어하겠다고 약속한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그리스에게도, 터키에게도 지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 두 나라 모두 미국, EU, 러시아 같은 제국주의 열강에 협력하고 있는 반동 부르주아지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반식민지 국가다. 둘 가운데 어디도 “차악”이 아니다. 레닌주의적인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은 점령지 팔레스타인의 우리 동지들이 이미 몇 년 전에 밝혔듯이, 이 경우에 완전하게 적용될 수 있다.

605) The danger of the imperialist war and the stance of the Communists, Theses of the Communist Party of Greece (KKE) at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V.I. Lenin and the Contemporary World”, 20.04.2018, <https://inter.kke.gr/en/articles/THESES-OF-THE-COMMUNIST-PARTY-OF-GREECE-KKE-AT-THE-12TH-INTERNATIONAL-CONFERENCE-V.I.-LENIN-AND-THE-CONTEMPORARY-WORLD/>

“단지 터키와 그리스 간의 전쟁 시에는 RCIT는 양측 모두에서 혁명적 패전주의를 요구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자들이 각국에서의 전쟁 수행을 지지해선 안 되며 ‘자’국 국가의 패배를 내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각 측에 제국주의 열강이 연루될 경우 (두 나라 모두 강대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할 때 이러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전쟁의 성격은 바뀔 수 있다. 총괄적 원칙으로서 RCIT는 미국·EU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 모두 반대한다는 것을 밝히는 바다.”⁶⁰⁶⁾

KKE가 마케도니아의 민족적 권리를 부정하다

KKE는 또 마케도니아가 그 공식 명칭 변경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실시했을 때도 동일한 역겨운 배외주의를 과시했다. 이 국민투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웹사이트에 (간단한 서문을 달고) 실은 그리스 공산주의국제주의자조직(OKDE)의 성명을 참조할 것을 독자들에게 권하고⁶⁰⁷⁾, 여기서는 KKE의 입장과 논거를 검토하는 것에 집중하겠다.

최근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KKE는 그리스 정부와 마케도니아 정부 간의 합의를 비판하는데, 비판하는 이유가 그 합의의 친(親) NATO적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이 친 나토 내용에 대해서는 혁명가들도 당연히 거부한다), 그 합

606)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자본주의 그리스에 관한 우리의 책 이외에 다음을 보라. Max Bonham: On the Escalating Greek-Turkish Tensions, Internationalist Socialist League (RCIT 이스라엘/ 점령지 팔레스타인 지부), 30 April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escalating-greek-turkish-tensions/>

607) OKDE: Prespa Agreement – Referendum in neighboring Macedonia, 24.9.2018, <https://www.thecommunists.net/forum/okde-greece-referendum-in-neighboring-macedonia/>

의가 이른바 “마케도니아 실지(失地) 회복주의”에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리스 정부와 FYROM [전(前)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정부 간의 합의는 미국, 나토, EU의 노골적인 개입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들의 보증인 직인이 찍혀 있다. 또 그 합의는 이들이 유럽-대서양 통합을 서 발칸에서 진전시키기 위해 결정한 데드라인과 의제를 전제로 해서 조인된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합의문 전문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이 합의를 가장 먼저 환영한 것이 미 국무부와 나토와 유럽연합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웃 나라의 이름 문제에 전 과정의 초점이 맞춰진 데 반해 이웃 나라의 헌법 개정을 요하는 실지 회복주의에 대한 대응 같은 일련의 중대한 문제는 불확실한 미래로 연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시민”과 “마케도니아 어”에 관한 입장들, 즉 실지 회복주의의 본질에 해당하는 입장들을 그리스 정부가 수용함에 따라 해결 또한 더 복잡해진 것이다. 따라서 그 합의는 그리스 인민, 인접국 인민, 지역의 인민 그 누구에게도 이로운 해결을 보장할 수 없는 합의다.”⁶⁰⁸⁾

이보다 더 터무니없는 논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스 국가는 마케도니아 인민을 잔인하게 억압하여 그들 거의 모두의 추방으로 귀착된 오랜 압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늘 단지 아주 작은 소수의 마케도니아 인들만이 북부 그리스에 계속 살고 있다. 마케도니아는 외국 독점체들에 의해 (이 중 적지 않은 수가 그리스 독점체들이다) 착취당하는 작고 가난한 나라다. 그리스는 반 마케도니아 배외주의의 오랜 불명예스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독립 공화국 마케도니아가 공식 명칭으로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을 감히 택했다고 이에

608) KKE: On the agreement between Greece-FYROM, 14/6/2018, Press Office of the CC of the KKE, <http://www.solidnet.org/article/CP-of-Greece-On-the-agreement-between-Greece-FYROM/>

대해 1992년과 1994년에 그리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의시위가 일어났다!)

이러한 배외주의 전통과 관계없이, 아니 그 때문에 KKE는 그리스 민족주의 주류 흐름에 합류하여 마케도니아를 “실지 회복주의”라고 비난한다! (그리스 국가의 극악한 배외주의를 비난하는 대신). KKE는 심지어 개량주의 시리자(SYRIZA) 정부에 대해 “마케도니아 실지 회복주의”에 양보했다고 비난한다. 시리자 정부가 “마케도니아 시민”과 “마케도니아 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수용했다는 이유다!

이 성명은 배외주의 그리스 국가가 그 전 역사를 통해 퍼뜨려온 가장 반동적인 거짓말, 마케도니아 민족의 존재를 간단히 부정하는 (그 민족적 권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거짓말을 KKE가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성명이다.

이 점은 최근 KKE의 이론지에 발표된 논설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바다. “진정한 해결은 실지 회복주의와 민족주의와 영토권 주장의 제거를 확실히 하고, FYROM 헌법의 즉각 개정 –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지금 개정 – 을 의미하는 국경 불가침을 보장하는 것이다.” KKE는 그 공화국이 채택할 이름은 [“마케도니아”가 아니라] “엄격히 지리적인 규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KKE는 다른 발칸 인민들의 민족적 존재를 부정하는 고전적인 그리스 배외주의 신화를 조금도 부끄럼 없이 되낸다. “실지 회복주의의 기초를 이루며 소수자의 존재, 소수자 권리의 주장 및 옹호 문제를 제기하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마케도니아’ 민족, ‘마케도니아’ 종족, ‘마케도니아’ 어 등은 실존하지 않는다.”⁽⁶⁰⁹⁾

609) Kommunistiki Epitheorisi (No. 2, 2018), quoted in SL: For a Socialist Federation of the Balkans! Greece: Chauvinist Frenzy over Macedonia, Part One, Workers Vanguard No. 1142, 19 October 2018, <https://www.icl-fi.org/english/wv/1142/macedonia.html>

결어

레닌은 배외주의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데 실패한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말하곤 했다. “일부 공산주의자들을 파헤쳐보라. 그러면 당신은 대러시아 배외주의자들을 발견할 것이다.”⁶¹⁰ KKE 지도부의 거리낌 없는 반동적 그리스 배외주의를 보기 위해서는 전혀 파헤쳐볼 필요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요컨대, KKE는 부르주아 개량주의 조류로서의 스탈린주의의 표본이다. 제국주의와 전쟁 문제에 이르면 스탈린주의자는 맑스주의 고전을 언급하고 제국주의에 관한 레닌의 인용문을 암송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질에서는, 스탈린주의자는 반동적 배외주의 노선을 좇아, “외국 침략자”에 대항하여 그리스 자본가 국가와 그 현 국경을 방어한다. 스탈린주의자는 ‘자’국 부르주아지에 대해서는 패전주의 입장이 아니다. 오직 국제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에 대해서만 패전주의 입장이다!

스탈린주의자들이 코소보 알바니아인을 적으로 하여 세르비아 배외주의를 응원하다

610) V. I. Lenin: Speech Closing The Debate On The Party Programme, Eight Congress of the R.C.P.(B.) March 18-23, 1919, in: LCW Vol. 29, p. 194,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19/rcp8th/04.htm>

이러한 배외주의의 분출이 그리스 KKE만의 독특한 문제 같은 것으로 상상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억압 민족들의 배외주의에 영합하는 것은 스탈린주의의 정치적 DNA에 새겨져 있다. 스탈린주의가 지배 관료나 동맹 국가의 이익에 봉사할 때는 언제나 스탈린주의자들은 민족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을 기꺼이 지지하고 배외주의를 전도한다. 대러시아 배외주의를 소련의 공식 방침으로 만들고 1944년에 잔인하게 카프카스 인민을 추방한 스탈린의 정책은 잘 알려져 있다.⁶¹¹⁾

스탈린주의자들은 1989-91년에 동유럽과 소련에서 관료 정권들의 붕괴로 인해 자신의 관료적 권력의 거점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배외주의에 영합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 KKE의 예를 제시했다. 여기 또 다른 실례가 있다.

많은 스탈린주의 당들은 오늘날까지 코소보 (알바니아 어로는 코소바)에 대한 세르비아의 팽창주의적 영유권 주장을 지지한다. 2018년 11월에 있는 연례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 20차 총회에 참석한 36개 스탈린주의 정당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세르비아공화국의 뿔 수 없는 일부로서의 코소바 [글자 그대로] 지지
‘세르비아공산당’은 세계 공산당·노동당으로부터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1999년 이래 나토의 점령 하에 종속적인 알바니아 분리주의자 정권이 지배해온 코소보를 세르비아공화국의 뿔 수 없는 일부로 지지할 것을 요청

611)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William Flemming: *The Deportation of the Chechen and Ingush Peoples: A Critical Examination*, in: Ben Fowkes (Ed.): *Russia and Chechnia: The Permanent Crisis, Essays on Russo-Chechen Relations*, Macmillan Press Ltd 1998, pp. 65-88; Alex Marshall: *The Caucasus under Soviet rule*, Routledge, London 2010, pp. 244-271; Brian Glyn Williams: *Inferno in Chechnya*,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2015, pp. 46-75; John Dunlop: *Russia Confronts Chechnya, Roots of a Separatist Confli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p. 46-74; Amjad Jaimoukha: *The Chechens, A handbook*, Routledge-Curzon 2005, pp. 60-73

하는 것이다.”⁶¹²⁾

또 이 총회에 참가한 오스트리아 스탈린주의자들 - 노동당(Partei der Arbeit) - 도 같은 세르비아 배외주의 정신으로 코소보에 대해 언급한 (“세르비아의 코소보 주”) 자신의 활동보고를 발표했다.⁶¹³⁾

이것은 코소보 주민의 90%가 알바니아인이라는 사실에 비출 때 후안무치한 스캔들이다! 코소보의 알바니아인들은 1913년에 세르비아에 의한 식민지 강점 이래 민족적 억압을 받아왔으며, 언제나 세르비아로부터의 독립을 갈구해 왔다. 세르비아에 의한 강점기 역사 전체를 통틀어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은 계속 저항하며 민중봉기를 시도했지만 세르비아 점령군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당했다. 마침내, 1997년에 시작된 무장봉기가 성공하여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은 세르비아 폭정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소부르주아 민족주의 조직 UÇK [코소보 해방군]가 이끈 코소바르 [코소보 인]의 정당한 해방투쟁은 1999년 나토 제국주의에 의해 이용당하고 새로운 공화국이 점령당하는 것으로 끝나버렸다.

RCIT 및 우리의 전임 조직은 봉기의 승리를 내걸고 코소바 노동자공화국을 요구했다. 우리는 UÇK 지도부에 어떠한 정치적 지도도 보내지 않았으며, 나토 폭격에 대항하여 세르비아를 방어했다. 우리의 오스트리아 지부는 1997/98년의 봉기 동안 알바니아인 커뮤니티와의 연대활동에 참가했다. 오늘 RCIT는 나토/EU의 점령에서 벗어나 완전한 독립국가 - 우리 의견으로는

612) 20 IMCWP, SUPPORT FOR KOSOVA AS AN INTEGRAL PART OF THE REPUBLIC OF SERBIA, 12/10/2018 <http://www.solidnet.org/article/20-IMCWP-SUPPORT-FOR-KOSOVA-AS-AN-INTEGRAL-PART-OF-THE-REPUBLIC-OF-SERBIA/>, 무심코 그 성명의 알바니아어판 제목에 “코소보”라고 명칭을 써넣고서 명칭한 스탈린주의자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넘어가버린 우스운 일화가 있다. 어쩌면 원문을 영어로 옮긴 번역자가 이 성명에 대한 혐오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일까?

613) 20 IMCWP, Informative note of Party of Labour of Austria, 11/19/2018 <http://www.solidnet.org/article/20-IMCWP-Informative-note-of-Party-of-Labour-of-Austria/>, <http://parteiderarbeit.at/?p=5020>

노동자공화국이어야 할 — 를 가지고자 하는 코소보 인민의 바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코소보의 세르비아계 주민에 대해 소수자 권리들을 지지하는 한편, 코소보를 재점령하려는 세르비아 국가의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난한다.⁶¹⁴⁾

이삼십년 전에 스탈린주의자들은 구 유고슬라비아 티토 정권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들어 세르비아 배외주의에 대한 자신들의 지지를 정당화했다. 물론 이것은 알바니아인의 독립 갈망을 억누를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의 조건 하에서 세르비아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지지는 이러한 사이버 정당화조차도 결여하고 있다. 더 이상 티토도, 유고슬라비아도 없으며, 세르비아는 자본가 국가가 되었다. 더더군다나 세르비아는 알렉산다르 부치치 정부와 그의 세르비아혁신당(SNS)이 지배하고 있다. 이 세르비아혁신당은 악명 높은 전범 보이슬라브 세셀리가 이끈 준 파시스트 체트니크 [세르비아 민족주의 유격대] 당인 세르비아급진당(SRS)에서 분리해 나간 조직이다. 이들 극 반동들은 신화로 덮여져 있는 1389년의 이른바 코소보 평원 전투를 들먹이는 것으로 자신들의 역사적 주장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은 스탈린주의자들이 “세르비아공화국의 뿔 수 없는 일부로서 코소보를 지지”하고 “알바니아계 분리주의자들”을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데 아무 걸림돌도 되지 않는다. 이는 코소보의 거의 전 인민의 의지를 적으로 하는 반동적인 세르비아 팽창주의에 대한 후안무치한 지지에 다름 아니다!

물론, 스탈린주의자들의 논리는 반동적인 만큼이나 투명하다. 그들이 볼 때

614)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Johannes Wiener and Ime Berisha: Freedom and Self-Determination for Kosovo! Down with the Government of Isa Mustafa Hashim Thaçi, Lackeys for the Rich and Imperialism! 31.01.201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freedom-for-kosova/>

미국과 EU와 일본만이 제국주의인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사회주의” (또는 적어도 “진보”, “반제국주의”) 세력이다. 그 결과, 스탈린주의자들은 러·중과 동맹 관계에 있는 정권들과 세력들 - 예를 들어 돈바스의 군주제주의자들, 파시스트들, 준 파시스트들을 포함하여 - 은 모두 지지한다.

아사드의 아첨꾼 시리아공산당과 각종 러시아 스탈린주의 당들 (예를 들어 주가노프의 KPRF와 툴킨의 RKRP-RPK), 그리스 KKE, 독일 DKP, 이탈리아 CP 등이 이 성명에 서명한 것은 상징적이다.

끝으로, 스탈린주의자들이 세르비아 배외주의를 지지함으로써 각종 초반동 세력과 한 무리를 이루고 있음을 또한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대러시아 배외주의자들 - 백 러시아 군주제주의자들을 포함하여 - 은 세르비아의 코소보 영유권 주장을 지지한다. 서유럽의 각종 급진 우익 당들도 동일한 틀 속에 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자유당 (FPÖ)은 코소보는 세르비아의 일부라고 항상 선언해왔다. 그 지도자 HC 슈트라헤는 이른바 브로자니카 - 세르비아 정교회 목주 - 를 자랑스럽게 손목에 차고 있다.⁶¹⁵⁾ “좌”-우 배외주의자들의 신성동맹이다!

이 모든 것은, 스탈린주의는 결코 노동자계급 국제주의 세력이었던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해준다. 스탈린주의는 유기적으로 썩어가는 배외주의다. 현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스탈린주의자들은 불가피하게 이 또는 저 제국주의 강대국의 시종으로 봉사한다. 혁명가들은 이 부르주아 개량주의 조류를 무자비하게 폭로해야 한다.

615)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Solidarität mit Serbien”: Jubel für Strache in Belgrad, Der Standard, 5. Mai 2008, <https://derstandard.at/3290627/Solidaritaet-mit-Serbien-Jubel-fuer-Strache-in-Belgrad>

초 스탈린주의 CPGB-ML : 러 · 중 제국주의의 총성스런 치어리다

우리는 위에서 이미 초 스탈린주의 CPGB-ML(영국공산당-ML)에 대해 언급했다. 이 그룹은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을 “진보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이라고 본다. 이들 스탈린 · 카다피 · 아사드 숭배자들이 맑스주의 이론 방면에서는 얼치기임에도, 그들이 그들의 스탈린주의 동료들 대부분보다는 더 일관되고 솔직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들은 아사드를 환영하며 “시리아 대통령, 정부, 군대, 인민 [이 순서대로!]에게 승리를!” 요구한다.⁶¹⁶⁾

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조티 브라르는 CPGB-ML이 서방 라이벌들에 대항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승리를 내걸고 있음을 한 점 모호함 없이 분명하게 밝힌다.

“게다가, 만약 영국과 미국이 실로 러시아 또는 중국과 전쟁을 시작한다면, 진정한 반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 중국에 대한 방어를 지지하고 자국 지배계급의 패배를 위해 힘쓸 것이라는 것이 우리 CPGB-ML의 견해다. 이러한 경우에 진정으로 반제국주의적인 반전운동의 슬로건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러시아 · 중국에 승리를!’, ‘영국 제국주의에 패배를!’, ‘영국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협력 반대!’”⁶¹⁷⁾

616)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 CPGB-ML의 최근 논설을 보라. “시리아 인민을 속여 그 승리를 빼앗으려는 제국주의의 모든 음모에 단호히 맞서면서 아사드는 이렇게 단언했다. “이 곳은 우리의 땅이고, [이 점령지를] 해방시키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며 우리의 의무다. 미국인들은 떠나야 한다. 어떻게든 그들은 떠날 것이다.” 시리아의 대통령과 정부와 군대와 인민에 승리를!” (CPGB-ML: Syria advances to liberation, The Syrian people are standing firm against all the plots and intrigues by which imperialism hopes to cheat them of their victory, 10 July 2018, <https://www.cpgb-ml.org/2018/07/10/news/syria-advances-to-liberation/>); 다음도 보라. CPGB-ML: US imperialism losing the plot in Syria. The imperialists are raging as strong diplomacy combined with military advances edge the Syrian people ever closer to their final victory, 9 December 2018, <https://www.cpgb-ml.org/2018/12/09/news/us-imperialism-losing-the-plot-in-syria-war/>

617) Joti Brar: The Drive to War Against Russia and China, CPGB(ML), Shakun Printers, Shahdara 2017,

그들의 가장 최근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도 같은 노선이 확인된다.

“당 대회는, 그러한 전쟁 발발 시에 영국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자’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승리는 무엇 하나 이익이 되지 않으며, 반제국주의 세력들의 승리는 하나 같이 다 이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나아가 전쟁 발발 시에 우리 당은 러시아·중국의 승리를 요구할 것이며, 현대 세계에서 모든 전쟁의 원인인 제국주의체제 자체에 대항하여 대중을 결집하기 위해 애쓸 것임을 결의한다.”⁶¹⁸⁾

이들 초(超)스탈린주의자들은 그 밖의 대부분의 러·중 제국주의 지지자들보다 전술적 결론을 끌어내는 데서 확실히 더 일관된다. 이들이 서방 라이벌들에 대항하여 러시아·중국의 승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이들은 완전한 친러·친중 사회제국주의자들로서의 자격에 모자람이 없다. 이것은 자유를 위해 펼쳐 일어선 인민을 학살한 아사드·카다피 자본가독재에 대한 반동 지지자들로서의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는 보완물이다!

의심할 바 없이, 이들 영국 스탈린주의자들은 ‘자’국 부르주아지에 반대하고 나토의 라이벌들을 지지하므로 스스로를 강경 반제국주의자로 보고 있다. 그들의 입장은 과거 히틀러-스탈린 조약 시기의 영국 스탈린주의자들의 “패전주의”적 접근방식과 닮았다. 당시 CPGB(영국공산당)는 영국이 유일하게 세계대전에 책임이 있다며 영국 제국주의를 맹렬히 비난했다 (반면 독일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히틀러의 이른바 “평화 이니셔티브”를 칭찬했다!). 물론 이 사이

p. 45

618) CPGB(ML): Beware the drive to WW3 with Russia and China, Party statement of the CPGB(ML) 8th Congress, 21 November 2018 <https://www.cpgb-ml.org/2018/11/21/news/beware-the-drive-to-ww3-with-russia-and-china/>

비 패전주의 입장은 1941년 6월 22일 이후 모스크바가 요구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초 맹목적 애국주의로 대체되었다.

명백하게도 당시의 이런 종류의 “패전주의”는 “반제국주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었다. 그것은 제국주의를 겨냥하여 취해지는 패전주의가 아니라, 한 강대국의 이익을 겨냥하여 취해지는 – 다른 한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서 – 패전주의였을 뿐이다. 트로츠키는 1933년 이후 독일 개량주의자들에 의해 비슷한 정책이 제시되었을 때 그러한 사이비 패전주의를 올바르게 비난했다.

“국외로 떠난 모든 독일 사민주의 지도자들은 자기 방식대로의 “패전주의자”다. 이 점을 상기하자. 히틀러는 그들에게서 그들의 영향력과 수입의 원천을 빼앗아버렸다. 이 “민주적”, “반파쇼적” 패전주의의 진보적 성격은 정확히 제로다. 그것은 혁명적 투쟁과 결부되어 있지 않고, 프랑스 제국주의 또는 어느 다른 제국주의의 “해방” 역할에 희망 걸기와 결부되어 있다. 문서의 저자들은 명백히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바로 이 방향으로 걸음을 내디뎠다.”⁶¹⁹⁾

그리고 트로츠키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치명적 적인 제국주의 정부가 이끄는 전쟁을 통해 프롤레타리아트가 위대한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절대적으로 틀렸다.”⁶²⁰⁾

요컨대 CPGB-ML의 철면피한 러시아·중국 찬양은 스탈린 사회제국주의 정책의 현대적 버전일 따름이다.

619) Leon Trotsky: A step towards social patriotism (1939), in: Writings of Leon Trotsky, 1938-39, p. 209

620) Leon Trotsky: A step towards social patriotism (1939), in: Writings of Leon Trotsky, 1938-39, p. 211

“평화주의적” 사회제국주의자들과 “호전적” 사회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약간의 논평

이 지점에서 우리는 친 서방 사회제국주의자들과 친 중·러 사회제국주의자들 간의 흥미로운 중요한 “방법론적” 차이에 대해 논평하고자 한다. 전자, 즉 유럽좌파당과 일본공산당은 보통 자국 정부를 러시아·중국에 대해 너무 공격적이고 대결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들은 자국 정부에게 푸틴과 시진핑의 각종 이니셔티브(예를 들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창설)에 동의하라고 요구한다. 그들은 평화주의에 대한 필요 및 서방과 러·중 간 이해관계의 화해를 설파한다. 친 중·러 사회제국주의자들에게는 사정이 다르다. 이들이 대외정책 영역에서 푸틴과 시진핑 정권에 대한 비판을 표할 경우, 그것은 푸틴·시진핑 정권이 서방에 너무 적대적이라는 비판이 아니라 반대로 너무 타협적이라는 비판이다. 일부 러시아 스탈린주의자들은 심지어 크레믈린이 미국의 따카리가 되려 한다고 주장한다!⁶²¹⁾ 이들 스탈린주의자들과 그 밖에 부즈갈린과 카갈리츠키 같은 좌익 지식인들은 러시아 국가를 반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충분히 공격적이지 못하다”고, 아사드에게 약속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푸틴 정부의 정책을 공격한다. 웹사이트 베스트니크 부리(Vestnik Buri; 폭풍의 전령)는 최상의 예다. 그들의 SNS 선전에서 이렇게 천명하고 있다.

“각종 상황에서 잃은 수호이 Su-24와 Su-25 전폭기, 투폴레프 Tu-154

621) 예를 들어 다음의 스탈린주의 웹사이트를 보라. Politsturm: Почему Путин помог Майдану победить? (Why Putin helped Maidan to win), 16.08.2018, <https://politsturm.com/pochemu-putin-pomog-majdanu-pobedit/>

여객기 (소치에서), 안토노프 An-26 수송기, 수호이 Su-30 전폭기 (소치에서)의 격추를 떠올려보라. 숨겨진 정규군 손실을 상기하라. 미국/이스라엘 주도 연합군이 우리와 동맹을 맺고 있는 주권국 (글자 그대로!)에게 가한 가격 — 이에 대해 아무 대응도 못한 — 을 상기하라. 바샤르 아사드가 2011년에 방공 시설을 포함해 러시아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는가. 상황이 거의 절망적인 2014년에 가서야 비로소 도움이 갔다. 시리아가 세력권들로 나뉘어져 있고 우리 (글자 그대로!) 군의 임무 중 하나 (시리아의 영토보전)가 실패했다는 사실.....”⁶²²⁾

베스트니크 부리의 러시아 정책 비난은, 만약 그 저자들 자신들이 러시아 국가를 담당하고 있다면 이른바 “연약한” 현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라이벌들을 즉각 잔인하게 짓눌렀을 것이라고 암시하는 방식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제국주의 정책은 종종 의식적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개량주의 세력 - 베스트니크 부리의 경우에는 이 개량주의 세력이 CLR 노동조합 관료 지도부다 - 에게 영합하는 과정에서의 부산물로 만들어진다.

그리하여 친 서방 사회제국주의자들이 자국 정부에게 러시아·중국을 보다 협력적으로 다루라고 촉구하는 데 비해 친 러·중 사회제국주의자들은 자국 정부에게 보다 적대적으로 행동하라고 촉구한다.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 당의 이념이나 강령에서는 그 주된 이유를 그리 발견할 수 없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지배계급 부분들에 영합하는 개량주의 세력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영합해야 하는 지배계급들은 서로 다른 나라들의 지배계급이다. 경제적 토대와 정치적 상부구조의 구체적 조건이 서로 다른 지배계급들인 것이다.

우리가 위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서방 강대국과 중·러 강대국의 지배계

622) https://vk.com/wall-73211733_50539

급들은 서로 다른 동역학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서방 일반은, 그리고 특수하게는 미국은 쇠퇴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와, 특히 중국은 떠오르고 있다. 이 사실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이 나온다.

a) 전자의 사회들에서는 상대적 비관주의 사회정서가, 후자에서는 상대적 낙관주의 사회정서가 존재한다.

b) 서방 강대국들에게는 국내적 위기와 부르주아지 내부의 깊은 분열, 그리고 그와 함께 지배계급/중간계급/노동귀족의 “역사적 블록 (*historic bloc*)” 내의 심각한 파열이 존재한다. 대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는 정권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력한 사회적 지지가 존재한다. 또는 적어도 깊은 분열과 강력한 반대세력이 부재한다.

그 결과로 유럽·일본 부르주아지 및 중간계급 중에는 러·중과의 대결이 아닌 협력을 찾는 (또는 심지어 러·중의 지배 유형에 공명하기까지 하는) 부문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전통적 패권국 미국과는 보다 독립적으로 되길 원한다. 친 서방 사회제국주의 당들은 이들 부문에 영합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친 러·중 사회제국주의자들은 러·중 부르주아지 및 중간계급 중에 서방 라이벌들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접근법을 지지하고 서방의 신자유주의를 싫어하는 부문들에 영합한다. 이것이 “평화주의적” 사회제국주의자들과 “호전적” 사회제국주의자들 간 차이의 물질적 토대다.

25장. 강대국 패권쟁투에 직면한 좌익

: 친 중 · 러 사회제국주의자들 (비 스탈린주의자들)

친 중 · 러 사회제국주의자들이 스탈린주의 당들에 한정될 거라 상상한다면 그것은 틀렸다. 실제로는 러 · 중 제국주의를 동맹군으로 보는 - 다소간에 비평을 곁들여서 - 비스탈린주의 세력들도 많다. 이 장에서는 몇몇 대표적 예들을 다룰 것이다.

보리스 카갈리츠키와 <<라브코르>>: 모스크바의 이익을 위해 “피와 철” (鐵血)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대러시아 “맑스주의자들”

이미 위에서 우리는 모스크바에 있는 ‘세계화와 사회운동 연구소’(IGSO) 소장이자 온라인 잡지 <<라브코르>>의 편집자인 보리스 카갈리츠키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가 당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이론들은 러시아 좌익에 아주 영향력이 크고 서방 좌파들 사이에서도 높은 존중을 받고 있다. 결코 스탈린주의자였던 적이 없는 (그는 1980년대에 반체제 사회주의자였다) 카갈

리츠키는 불행히도, 점점 더 대러시아 배외주의의 “맑스주의적” 지지자가 되고 있다.

8장에서 보여주었듯이, 그는 러시아를 제국주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멕시코나 인도 같은 보다 큰 반식민지 나라들에 비견되는 “주변부 자본주의 국가”로 간주한다. (LIT와 UIT의 입장과 비슷한). 이러한 평가 규정은 러시아 제국주의와 그 반동적 동맹세력들을 실천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카갈리츠키와 <<라브코르>> 지(紙)는 2014년 이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에 대한 지지자가 되었다. 2016년에 이 잡지는 “바이마르에서 새 제국으로 (from Weimar into a new Reich)”의 우크라이나의 탈바꿈 – 히틀러의 제3제국(Third Reich)을 연상시키는! – 에 대해 경고하는 논설을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라브코르>>는 모스크바 측에 우크라이나를 “피와 철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그와 같이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제3제국으로 전화하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그 제국을 처리할 용의가 없다하더라도, 이것이 그 제국이 러시아를 평화롭게 놓아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아니, 러시아는 향후 탈바꿈한 우크라이나를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오직 피와 철만이 이 문제를 처리할 유일한 도구일 것이다.”⁶²³⁾

이렇게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하는 것에서 단 한 걸음 내딛자 반동적 전쟁몰이의 열혈 채찍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623) Ivan Lisan: Weimar republic to Reich, 01.02.2016, <http://rabkor.ru/columns/debates/2016/02/01/weimar-republic-to-reich/> (영역은 저자)

카갈리츠키와 그의 <<라브코르>>가 극우 모험주의자 이고르 스트레코프를 위해 지면을 제공하는 것 또한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스트레코프는 GRU(러시아의 대외 군사정보기관)의 퇴역 대령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4년에 돈바스 공화국 그 첫 국면에서의 군사 지도자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대러시아 배외주의자이자, 백계 러시아 군주제주의자이며 반유대주의자다. 그는 공공연하게 자신을 이렇게 규정한다. “나는 나 자신을 러시아 전체군주제의 지지자라고 본다.” 자기규정에 걸맞게도 그는 자신의 반대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들의 이해는 국제 유대계-앵글로색슨 자본과 뿔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⁶²⁴⁾ 2016년에 그는 ‘러시아민족운동’이라는 이름의 새 당을 창설하였는데, 이 당은 그 선언문에서 “러시아연방과 우크라이나, 벨로루시를 비롯한 그 밖의 러시아 땅들을 하나의 전 러시아 국가로 통합하여 구소련 영토 전체를 절대적인 러시아 세력권으로 전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 당은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의 구소련 공화국들에서 넘어온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엄격한 할당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⁶²⁵⁾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카갈리츠키와 그의 <<라브코르>>는 계속해서 스트레코프를 복돋우며 그의 반동적 선전을 위한 연단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 <<라브코르>>는 스트레코프와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거기서 그는 적-갈(red-brown) 동맹의 결성을 촉구했다.⁶²⁶⁾

624) 두 인용문 모두 출처는 다음과 같다. Zbigniew Marcin Kowalewski: Ukraine: Russian White Guards in the Donbass, 29 June, 2014, <https://www.nihilist.li/2014/07/25/russkie-belogvardejtsy-na-donbasse/#english>

625) Ex-Separatist Leader Launches Party Aimed at Restoring Russia's Empire, <https://web.archive.org/web/20160602041435/http://georgiatoday.ge/news/3927/Ex-Separatist-Leader-Launches-Party-Aimed-at-Restoring-Russia%E2%80%99s-Empire>

626) Стрелков рассказал, что сейчас объединяет “красных” и “белых”, 24.01.2015 <http://rabkor.ru/columns/events/2015/01/24/conference-novorossia/>, 러시아 과학원 중앙 경제학·수학연구소 연구원이자 카갈리츠키의 동료인 Dzarasov Ruslan Soltanovich는 동일한 적-갈 연대에 추동되어 2016년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스트레코프의 반공산주의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숨기지 않겠다. 그러나 노보로시야 반란의 상징이 된 그를 겨냥한 이념 캠페인을 간접적으로라도 지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를 비판하는 것

그리고 카갈리츠키로 하여금 알렉산드르 두긴의 유라시아운동 당 출신의 파시스트·준파시스트 인물들과의 회담에 참가하도록 이끈 것도 동일한 반동적 적-갈 동맹 정신이다.⁶²⁷⁾

말 나온 김에, 카갈리츠키가 대러시아 배외주의에 처음 영합한 것은 이미 2014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훨씬 전임을 지적해둔다. 러시아 역사에 관한 자신의 책 - 2008년에 출간된 책으로 러시아의 가장 최근 사건들까지 다루고 있다 - 에서 그는 20세기에 체첸인들의 비극적 운명을 철저히 무시한다. 스탈린에 의한 이 작은 카프카스 인민의 야만적인 추방과 두 차례에 걸친 러시아의 대량학살 전쟁 - 첫 번째는 1994-96년 예친이 벌인, 두 번째는 1999-2002년 푸틴이 벌인 - 등, 이 모든 것이 이 대러시아 “맑스주의자”한테는 단 한마디도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⁶²⁸⁾

대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이 같은 반동적인 영합은 필연적으로 그 밖의 다른 주제들에 대한 카갈리츠키의 견해도 크나큰 결과를 미칠 수밖에 없다. 카갈리츠키의 <<라브코르>>는 그 사설에서 레닌이 정립한 바의 혁명적 패전주의는 더 이상 유효타당하지 않다고 선언한다. “패전주의”는 “부르주아적”인 것이 되었다고 카갈리츠키는 주장한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백년이 지난 지금 레닌과 치머발트 회의와 반 제국주의적 ‘패전주의’를 끄집어내봐야 소용없다. 첫째, 1914년 초와는 반대로, 어떤 전쟁도 없으며,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일어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20세기 초의 패전주의는 반체제적이었고 반 부르주아적이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든 사회주의자가 대적해야만 하는

은 자제하겠다.”

62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Anton Shekhovtsov: Boris Kagarlitsky, a Kremlin's mole in the leftist movement, <http://anton-shekhovtsov.blogspot.co.uk/2014/09/boris-kagarlitsky-kremlins-mole-in.html>

628) Boris Kagarlitsky: Empire of the Periphery, Russia and the World System, Pluto Press, London 2008

동일한 신자유주의 정치의 확장을 도모하는 완전히 부르주아적인 이데올로기를 다루고 있다. 1914년에 레닌이나 마르토프의 입장을 어떻게 평가하건간에 그들은 독일·오스트리아 국기 아래 시위에 나가지 않았고, 이들 제국에게 러시아 군에 대한 압력을 증대시키라고 촉구하는 팸플릿을 쓰지도 않았다.”⁶²⁹⁾

카갈리츠키는 카탈루냐 인민의 독립 투쟁에 관한 논설에서 이 반란을 날카롭게 비난한다.⁶³⁰⁾ “카탈루냐 반란은 스코틀랜드 분리주의처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부자들의 봉기다. 재분배 사회-국가의 잔재에 대한 자유주의 사회의 항의다.” 그는 심지어 피억압 인민의 민족주의를 비난하기까지 한다. 억압 민족의 배외주의와 동렬에 올려놓고 말이다. “그와 같이, 좌익은 소수자의 민족주의가 다른 어느 민족주의에 못지않게 근로자의 이익에 적대적이라는 것을 과감히 인정하지 못한다.”⁶³¹⁾

따라서 카갈리츠키가 초반동적인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를 환영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기보다 오히려 그가 푸틴 정권의 “비판적” 대변자로 변신한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이었다. 그는 트럼프를, 금융과두제의 적수이자 제국주의적 보호무역주의 - 그가 제국주의적 세계화에 대항하여 지지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 - 의 반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대표자라고 칭송했다. 그는 심지어 노동자계급에게 이 점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라고 촉구하기까지 했

629) Editorial : Russia and Crimea, 24.03.2014, <http://rabkor.ru/columns/editorials/2014/03/24/russia-and-crimea/> (영역은 저자)

630) RCIT는 카탈루냐 인민의 독립투쟁에 관한 여러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이 문서들을 모아놓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collection-of-articles-on-catalunya-s-independence-struggle/>. 특히, 이 투쟁의 배경에 관한 보다 긴 논문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atalunya's Struggle for Independence and its Pseudo-“Left-Wing” Critiques, 27.10.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atalunya-s-struggle-for-independence-and-its-pseudo-left-wing-critiques/>

631) Boris Kagarlitsky Revolt of the Rich, 06.10.2017, <http://rabkor.ru/columns/editorial-columns/2017/10/06/bunt-bogatih/> (영역은 저자)

다. <<카운터펀치>>에 실린 한 논설에서 그는 트럼프 승리에 난처해하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게다가 트럼프는 친구에게 수년 전 어떤 여성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했다고 말한 사적 대화를 제외하고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여성이나 동성애자에 대해 어떤 잘못된 말도 한 적이 없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는 미국의 시장과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은 것을 하도록 고무하며, 미국에 본사들 둔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이들 기업을 미국에 주된 위협거리로 보고 있다.”

“부르주아지의 이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초국적 기업들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다... 초국적 과두제에 맞서 반기를 든 중간 수준의 업계는 동맹군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수십 년 동안 고통 받은 사회의 하층 계급들이 열정적으로 반란에 합류했다. 이러한 동맹이 너무 오랜 동안 지속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우연은 아니다. 노동자운동이 회복되고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지위를 강화시키고 그들에게 자신감을 줄 산업·국내시장·사회정책의 발전이 요구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보호주의가 필요하다.”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 45대 대통령의 이데올로기는 모순들로 짜여 있고, 그의 프로그램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수립된 사회세력들의 연합도) 과도기적인 것으로 한 가지 과제의 결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과제다. 금융과두제의 지배를 타격하는 과제 말이다. 시리아나 이란으로부터 무슬림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의 행동을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 밖에 트럼프의 결정과 정책에는 좌익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들이 많다. 그럼에도 워싱턴의 행정부는 적어도 1999년 시애틀 시위 때부터 급진적 활동가들이 제기한 요구

들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한 정치가가 마침내 그 수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 그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적 쿠데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고 어디서 위협이 오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 그는 하층 계급들의 동원과 조직화에 기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노동자계급 말고는 아무도 그를 돕지 않을 것이다.”⁶³²⁾

트럼프가 부패한 투기꾼 과두재벌의 화신이라는 것, 노동자와 이주자, 여성들의 반동적 적이라는 것, 미국의 라이벌 국가들을 겨냥한 냉전몰이꾼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푸틴주의 “맑스주의자”에 의해 편리하게 덮여 가려졌다.

한 가지 지적하고 이 장을 마무리하겠다. 알렉산더 부즈갈린과 루슬란 자라소프 같은 개량주의 세계체제론자들도 러시아 국가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카갈리츠키와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즈갈린은 좌익이 러시아 국가와 동맹을 맺어야 한다면, 국가자본주의적 계획의 요소들 (부즈갈린의 “21세기 고스플란”)과 결합된 모종의 사회복지를 확립하기 위한 개혁을 요구한다. 세르게이 글라지예프 같은, 국가와 연결된 친러 제국주의 경제학자들도 반복적으로 세계체제 분석을 언급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⁶³³⁾

632) 모든 인용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Boris Kagarlitsky: The Choices for the Left in the Age of Trump, February 7, 2017, <http://www.counterpunch.org/2017/02/07/the-choices-for-the-left-in-the-age-of-trump/>

633)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Why Does the West Hate Putin? – RAI with A. Buzgalin (10/12), July 25, 2018, <https://therealnews.com/stories/why-does-the-west-hate-putin-rai-with-a-buzgalin-10-12> ; Демидова Светлана Евгеньевна Особенности индикативного планирования в России // Вестник Пск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рия: Экономика, Право, Управление, 2016, №3, URL : <https://cyberleninka.ru/article/n/osobennosti-indikativnogo-planirovaniya-v-rossii>; Александр Бузгалин: «Российский капитал не пустили на рынки – и он начал драться», 16.03.2018, <https://www.business-gazeta.ru/article/382298>.

우리는 몇몇 예외도 있다는 것을 적어둔다. 예를 들어 Alexander Tarasov는 세계체제론의 좌익적 지지자로서 러시아를 반주변부·반식민지로 본다. 그러나 카갈리츠키, 부즈갈린, 자라소프 같은 사회제국주의자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러시아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옹기 있는 반대자다. 이미 그는 스탈린주의 치하에서 반체제파로서 1970년대 초에 “신 공산주의자 당”이라는 비밀 그룹을 건설하여 KGB에게 체포, 투옥되었다. 다른 한 때의 반체제파들과는 반대로 그는 1989년 이후 자본가 국가와의 그 어떤 협력도 거부하였다. 그는 여전히 명예

친 중 · 러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 (PO/CRFI)

러시아 · 중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정하길 거부하고, 따라서 서방 라이벌들에 대항하여 러 · 중을 공공연하게 편드는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도 있다. 이들 사회제국주의적 “트로츠키주의자들” 중 가장 큰 집단이 아르헨티나 노동자당(PO)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경향인 제4 인터내셔널 재건 조정위원회(CRFI)다. 여기에는 PT (우루과이), EEK (그리스), DIP (터키)도 포함되어 있다.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PO/CRFI는 OKP(통합공산당)와 같은 러시아 스탈린주의자들 (및 아사드 지지자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위에서 상세하게 기술했듯이, PO/CRFI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자본주의 복고가 완성되었음을 부정한다. 따라서 그들은 이들 국가가 강대국이 되었다는 생각을 강하게 거부한다. 최근 채택한 성명에서 그들은 러 · 중이 제국주의 국가가 되지 않았으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서방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거나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거나 일 뿐, 그 이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들은 중 · 러에 대한 우리의 계급적 성격규정을 “제국주의적 프로파간다”로 간주한다. “이 제국주의적 프로파간다가 좌익에 반영되어 나온 –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 것이 러시아 · 중국을 제국주의 열강으로 묘사하는 것이다.”⁶³⁴⁾

이로부터 불가피하게 그들은 미국 · EU · 일본에 대항하여 러 · 중을 방어해야 한다는 결론을 끌어낸다. PO/CRFI가 자신의 이론을 일관되게 가져간

로운 좌파 활동가이자 작가로 남아 있다. 비록 그의 입장 가운데 많은 부분이 “포스트 맑스주의적”이고 초좌익적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634) Levent Dölek: The Character of War in 21st Century: Are China and Russia a target or a side of the war? In: World Revolution / Revolución Mundial Issue 1 (Autumn 2018), p. 49

면, 되돌아보건대 1917년 이전의 경우 자본주의 러시아가 독일 또는 영국과의 단독 전쟁 시에 PO/CRFI는 당시도 러시아를 편들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았을까.⁶³⁵⁾

레닌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의 이론은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다.”⁶³⁶⁾ 올바른 이론은 당을 올바른 실천으로 인도한다. 역으로, 수정주의적 이론은 당을 수정주의적 실천으로 인도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불행히도, 이것이 PO/CRFI의 현실이다. PO/CRFI는 러·중이 제국주의의 열강이 아니라는 자신의 분석으로부터 러·중을 그 서방 라이벌들에 대항하여 지지해야 한다는 전략적 결론을 끌어낸다. 이것은 최근 강대국들 간의 긴장 고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공동성명을 볼 때 분명해진다.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간에 고조되고 있는 국제 무역전쟁은 어디서나 제국주의 전쟁물질을 강화시키고 있다. 전쟁 활화산 증동으로부터 발칸

635) 우리가 위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PO/CRFI의 새로운 이론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오늘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1917년 이전 시기에 대해서까지도 부정한다. 다음 인용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PO/CRFI는 볼셰비키의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을 거의 포기하는 지점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러시아 제국주의를 지배했던 군사주의와 봉건주의의 요소들은 오스만 제국주의에도 존재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은 반식민지였으며, 자본주의 최고 단계로 정의되는 제국주의의 뚜렷한 특징을 지니지 않았다. 따라서 러시아도, 오스만 제국도 1차 세계대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규정한 제국주의 열강으로 볼 수 없다. 그들은 거대 제국주의 열강에 종속적이었고, 따라서 제국주의 간 경쟁에서 (잘해야) 이차적인 위치를 점했다. 이와 같이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의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보다는 대로마의 제국주의를 닮았다... 레닌은 특히 러시아와 관련하여 이러한 차별점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 레닌은 영·불 제국주의 진영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식민지 전쟁/약탈 전쟁의 성격을 가진 전쟁을 수행한 러시아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혁명적 패전주의” 전술과 “전쟁을 내란으로 전화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의심할 바 없이, 이러한 투쟁은 러시아의 지배적인 계급들이 이끄는 전쟁의 부정의한 제국주의적 성격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러시아가 언제나 제국주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오류는 이러한 강조점에 대한 오독에서 비롯한다.” (Levent Dilek: The Character of War in 21st Century, pp. 52–53)

이 말이 사실상 뜻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수정주의적 사상이다.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러시아는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라 반식민지 (“오스만 제국처럼”)였다. 만약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에서 제국주의 열강인 영국과 프랑스의 편에 가담하지 않고, 오로지 독일 (PO/CRFI의 기준으로도 명백히 제국주의 열강인)과만 전쟁을 벌였다면, PO/CRFI 동지들은 (제국주의) 독일에 대항하여 (“반식민지”) 러시아를 방어해야 할 의무가 있었을 것이다! PO/CRFI의 입장에 관해 레닌과 볼셰비키가 듣고서 느꼈을 소름 돋음을 상상하는 데는 단 1초만 생각하면 될 것이다!

636) V.I. Lenin: Certain Feature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Marxism (1910); in: CW 17, p. 39

반도와 우크라이나의 유럽 동부 국경지대에 이르기까지, 카프카스로부터 중앙아시아, 남중국해와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는 이미 러시아·중국과 직간접적으로 대결하면서 러·중을 부수고 조각내서 재식민지화 시키고 세계 자본주의 속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노동자계급·인민 운동은 인류를 비롯하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세계대전과 핵 절멸로 위협하고 있는 이 대결에서 중립일 수 없다. 우리는 러·중을 재식민지화 시키기 위한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하여 전쟁을 선포한다. 크레믈린이나 베이징의 복고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 엘리트들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지지하거나 배양하지 않고서 말이다.”⁶³⁷⁾

PO/CRFI 동지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러·중은 반(半)식민지다” 테제의 파괴적인 결론을 어느 다른 지지자들보다도 더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4월 CRFI 대회에서 채택된 성명에서도 같은 입장이 표명되었다.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제국주의적 자본이 창출된 바 없으며, 오로지 국가

637) Emergency Euro-Mediterranean Encounter Final Resolution: Fight imperialism and war with the international socialist revolution! Forward to the revolutionary International! Eretria, Greece, 25 July 2018 (Thesis 3), <http://redmed.org/article/emergency-euro-mediterranean-encounter-final-resolution-fight-imperialism-and-war>.

PO/CRFI의 최근 논설에도 같은 사상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가 새로운 전쟁의 바람에 서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고 있다. 미국이 교전 세력들 중 한 진영을 이룰 것이고, 러시아와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에 대항하는 편제를 취할 것이라는 것은 지금 널리 인정되는 사실이다.” (Levent Dölek: The Character of War in 21st Century, p. 49) 다음도 보라. “21세기에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미 제국주의에 의한 러·중 봉쇄다. 즉 미 제국주의가 러시아와 중국에서의 자본주의 복고 과정을 최종 완성시킴으로써 러·중을 거침없이 제국주의 세계체제로 통합시키기 위해 자신의 하위 동맹들인 유럽 및 일본 제국주의와 연합하여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하는 것 말이다...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은 제국주의의 패배에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은 제국주의 침략 가능성을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떨어뜨린다. 그러나 군사적 공격을 받기 전에 이들 나라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모든 성과물이 파괴되고 모든 자본주의 위기 동역학이 이들 나라로 급격히 이동하는 데서 비롯하는 경제적·정치적 붕괴 위험에 직면한다. 즉 이들 열강이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는 있을지라도 제국주의를 패퇴시킬 수는 없다. 반면 제국주의의 손에 의해 이들 러·중이 패배한다면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역행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와 이들 나라 간의 불편부당이란 가능하지 않다. 반대로 제국주의가 가격을 받는다면, 매 일격 하나하나가 혁명적 동역학을 위한 길을 닦을 것이다.” (같은 글 58-59쪽)

기반 제국주의의 가능성은 빈약한 가설이다. 이들 자본주의로의 이행 체제들은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식민지화 (및 전쟁)에, 다른 한편으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직면해 있다. 러·중에 대한 제국주의 전쟁, 즉 식민지적 성격의 자본주의 복고를 수행하는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가설을 감안할 때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의 완전한 패배를 위해 싸울 것이다. 또 10월 혁명의 혁명적·국제주의적 기원으로 [고무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재건의 전망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권력으로서의 소비에트 부활을 촉진하고, 올리가르히와 관료층을 수탈하여 사회주의혁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자유로운 자기결정을 방어하기 위해 이 투쟁을 활용할 것이다.”⁶³⁸⁾

이 성명에 담긴 사회제국주의적 입장을 사이비 사회주의적 미사여구로 숨길 수는 없다. 러·중은 제국주의가 아니고 서방 강대국들은 제국주의라면 (실제로 PO 지도부에 의하면, 러·중은 심지어 온전히 자본주의적인 나라도 아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의 완전한 패배를 위해 싸울 것이다”라는 정식화는 오직 하나의 의미만을 가질 수 있다. 즉 PO는 기존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여 러·중을 편들 것이라는 것 말이다.

이것이 바로 PO/CRFI 지도부가 러시아의 스탈린주의 당, 즉 다리야 미티나의 OKP와 함께 결성한 그 동맹의 이론적·전략적 기초다. 우리가 위에서 보여주었듯이, 이 당도 러시아를 제국주의 국가로 보길 거부하고, “주변부 자본주의 나라”로 간주한다. 이러한 공통의 기초 위에서 이들 세력은 러·중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이론적 혼란으로 세계정치의 사회-역사적 발전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 같은 최악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계급투쟁에서 잘못된 편을 들고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와 피억압 인민들의 해방의 대의를 공

638) Partido Obrero, PT (Uruguay), DIP (Turkey), EEK (Greece): Decla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13 April 2018, <http://www.prensaobrera.com/prensaObrera/online/internacionales/declaration-of-the-international-conference>

공공연하게 배반하는 것으로 결과한다! 수정주의적 이론은 중·러 제국주의에 대한 수정주의적 축소은폐자들을 낳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맑스주의”와 “반제국주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 가지만큼은 PO/CRFI 동지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다른 글들에서 보여주었듯이, 많은 자칭 “트로츠키주의” 조직들이 러·중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테제를 공유한다. 하지만 이 입장의 파멸적인 결론, 즉 중·러의 서방 라이벌들에 대하여 중·러를 방어하라는 요구를 일관되고 명시적으로 표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조직은 극소수뿐이다.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은 일관된 반제국주의와 친 러·중 사회제국주의를 가르는 선을 긋는다. 일관된 반제국주의는 모든 강대국에 반대하며, 그들에 대하여 피억압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지한다. 친 중·러 사회제국주의는 중·러의 서방 라이벌들에 대하여 중·러를 편들며, 푸틴 정권과 시진핑 정권, 그리고 그들의 현시 동맹들에 맞선 피억압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지하길 거부한다. 정말이지, PO/CRFI 지도부가 아사드 독재와 아사드의 러시아 제국주의 상전에 대하여 싸우는 시리아 인민에 어떠한 지지도 보내길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이다. 실제로 그들은 공공연하게 아사드 캠프에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공동 성명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2017년 5월 제4차 유로-지중해 회의에서는 트럼프가 미국 바깥의 첫 외유를 사우디와 이스라엘로 가는 것의 합의를 강조했었다. 즉 이란과 역내의 이란 동맹들 — 무엇보다도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 을 겨냥하여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수단 등의 친 제국주의 전쟁 축을 결성하는 것 말이다.”⁶³⁹⁾

639) Emergency Euro-Mediterranean Encounter Final Resolution: Fight imperialism and war with the international socialist revolution! Forward to the revolutionary International! Eretria, Greece, 25 July 2018 (Thesis

그들은 이란과 시리아의 상전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하고서, 중동에서의 정치적 사건들을 오로지 반 서방 제국주의 프리즘을 통해서만 본다. 따라서 PO/CRFI가 “시리아에서 제국주의자들은 나가라”라는 요구를 제기 – 그들이 이 성명에서 그러듯이 – 하면서 러시아와 이란 군대를 시리아에서 쫓아내야 할 필요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인민 해방투쟁을 진압하기 위해 시리아 땅에 배치된 반혁명 러시아·이란 군대의 계속 주둔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없다. 분명히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은 중·러 제국주의에 대한 이러한 수정주의적 축소은폐에 날카롭게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에서 개괄한 우리의 입장을 여기에 옮기는 것으로 이 장을 맺는다.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분쟁 시에 RCIT는 전 세계의 노동자·인민 조직들에게 단호히 국제 노동자계급 연대의 원칙을 기초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그들이 양쪽 어느 진영도 지지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상대방 제국주의 진영뿐만 아니라 ‘자국’ 지배계급을 편드는 것 또한 거부해야 한다.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들을 타도하라. 그것이 미국이든 EU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이든!”

“현 시기의 핵심 특징으로서 강대국 패권쟁투를 인정하길 거부하는 것, 그리고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정하길 거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러·중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결과한다.⁶⁴⁰⁾

4), <http://redmed.org/article/emergency-euro-mediterranean-encounter-final-resolution-fight-imperialism-and-war>

640) RCIT: Theses on Revolutionary Defeatism in Imperialist States, 8 Sept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ses-on-revolutionary-defeatism-in-imperialist-states/> [국역: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theses-on-revolutionary-defeatism-in-imperialist-states/>]

스파르타시스트 종파들과 중국 “기형화된 노동자국가” 방어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언급하고 넘어가자. 스탈린주의자들과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 사이비 맑스주의 그룹들도 있다. 미국의 WWP(노동자세계당)와 PSL(사회주의해방당)이 그런 예들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부 “트로츠키주의자들” – 트로츠키주의의 회화라고 하는 편이 나올 것이다 – 도 포함된다. 스파르타시스트 ICL이나 IBT나 안 노르덴의 IG/LFI 같은 스탈린 혐오주의 종파들은 중국이 여전히 “기형화된 노동자국가”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복고가 있는 지 4반세기도 더 지났는데 말이다! 수백만 명의 중국 억만장자들이 어찌다가 이 얘기를 듣는다면 아마도 웃음을 멈추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또 러시아도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⁶⁴¹⁾ 위에서 언급했듯이, WWS(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는 RCIT가 감히 중·러를 제국주의 열강이라고 성격규정했다고 우리를 겨냥한 논쟁 글을 실었다.

이로 인해 그들 모두가 아사드 독재에 대하여 시리아 인민의 현재 진행 중인 해방투쟁을 지지하길 거부한다. 미국의 WWP와 PSL이나 영국의 소그룹 ‘사회주의투쟁’(Socialist Fight)은 시리아 혁명에 대하여 러시아와 아사드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기까지 했다.

그리하여 이들 그룹은 미국에 대하여 러시아와의 사회제국주의 통일전선

641) 소그룹 IBT는 최근에 둘로 쪼개졌는데, 스스로를 계속해서 IBT라고 부르는 한 쪽이 다른 쪽의 반대를 딛고서 러시아에 관한 자신들의 전통적 입장을 바꿨다. 이제 이 흐름은 러시아가 2000년대에 제국주의 열강이 되었다고 인정한다. 이들은 또 그로부터 필요한 전술적 결론을 끌어내서 러시아에 대해 패전주의 입장을 내걸고 있다. (다음은 보라, IBT: A Note on the World Situation, Recent Departures & Line Change on Russia, 27.10.2018, http://www.bolshevik.org/statements/ibt_20181019_world_situation.html). 안타깝게도, 이 동지들은 여전히 – 2018년 말에! – 중국이 “기형화된 노동자국가”라고 믿고 있다!

을 내걸고 있다. 그들은 이것을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이라고 강변하지만 말이다. “우리는 러시아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미국/나토 제국주의자들과 이들이 지지하는 지하드 파 그룹들 (및 이들이 반대하는 그룹들, 즉 I.S.)을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시리아의 러시아군을 직접 공격한다면, 우리는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러시아군을 방어 [원문 그대로!]할 것이다.”⁶⁴²⁾

사회주의투쟁 그룹도 같은 정신으로 “시리아와 러시아를 방어하라: 제국주의는 중동에서 나가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⁶⁴³⁾

겉으로 볼 때는 시리아와 중동 전역에서의 미 제국주의의 군사 개입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맑스주의자들이 스탈린주의자들 및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과 같은 입장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실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 대외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주 서로 다른 이유에서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혁명적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관점에서 반대할 수 있는가 하면, 소부르주아 평화주의, 자유주의-휴머니즘 관점에서, 또는 친러 사회제국주의, 친 아사드 관점에서, 심지어는 파시즘 관점에서 반대할 수도 있다.⁶⁴⁴⁾

변증법적 사고를 위해서는 세계정세에 대한 일반적 분석을 결정적인 요인들 및 그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융합시켜야 한다고 트로츠키는 말한 적

642) 다음을 보라. IG: Drive the Imperialists Out of the Middle East! U.S./NATO: Get Your Bloody Claws Off Syria! <http://www.internationalist.org/syriausnatobloodyhands1804.html>

643) 다음을 보라. SF: Defend Syria and Russia: Imperialism out of the Middle East, 14/04/2018 <https://socialistfight.com/2018/04/14/defend-syria-and-russia-imperialism-out-of-the-middle-east/>

644) 많은 파시스트 조직들이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록으로 입증해주고 있는 일련의 기사들이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Alex Rowell: Small wonder: The global fascist love affair with the Assad regime, <https://pulsemedia.org/2017/08/20/small-wonder-the-global-fascist-love-affair-with-the-assad-regime/>; Patrick Strickland: Why do Italian fascists adore Syria's Bashar al-Assad? 14 Feb 2018, <http://www.aljazeera.com/news/2018/01/italian-fascists-adore-syria-bashar-al-assad-180125115153121.html>. 미국 나치들이 최근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the statement of Gregory Conte and Richard Spencer: Stay Out Of Syria, April 14, 2018 <https://nationalpolicy.institute/2018/04/14/stay-out-of-syria/>

이 있다. 지난 십년, 이십년 사이에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를 인식함이 없이 “제국주의”에 관한 상투적 공문구를 반복하며 오직 기존 서방 강대국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 같은 도식적, 기계론적 사고로는 불가피하게 세계정세의 역학관계와 그에 따른 계급투쟁 과제에 대한 심대한 오판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맑스주의적 사고는 구체적이다. 즉 주어진 사안의 모든 결정적인 또는 중요한 요인들을 그것들의 상호관계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발전의 관점에서 또한 고려한다. 맑스주의적 사고는 매 순간의 정세를 결코 일반적 조망 내로 해소해버리지 않는다. 반대로 일반적 조망에 의해 매 시기 정세를 그 모든 특수성 속에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정치의 출발점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구체적 분석에 있다. 기회주의적 사고와 종파주의적 사고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렇다. 그들은 상황들과 세력들의 복잡함 속에서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한 두 요인을 뽑아내 그것들을 복잡한 현실로부터 격리시켜 무한정의, 무제한의 권능을 그것들에 귀속시킨다.”⁶⁴⁵⁾

실로, 객관적 현실 - 격화하고 있는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패권쟁투와 현재 진행 중인 피억압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특징으로 하는 - 은 이들 그룹에게 ‘이해불가’다. 어떠한 이론적 나침반도 결여한 상태에서, 애처롭게도 대부분의 스탈린주의자들보다도 훨씬 더 일관되게 러시아 제국주의 진영에서 있다가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

레닌은 이런 혼란스런 조직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계를 요구했다. “우리는 러시아에서 끊임없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 특정 당 또는 그룹의 슬로건과 전술을, 그 일반적 경향을, 그 그룹이 스스로에 대해 내세우는 의도나 동기를

645) Leon Trotsky: *Ultralefts in General and Incurable Ultralefts in Particular (A Few Theoretical Considerations)*, 1937, in: *Leon Trotsky: The Spanish Revolution (1931-39)*,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3, p. 292, <https://www.marxists.org/archive/trotsky/1937/1937-ultra.htm>

가지고 판단하는 오류 말이다. 그러한 판단은 무가치하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 오래 전에 회자됐던 것처럼 -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주어진 당 또는 그룹의 슬로건과 전술의, 또는 일반적으로 그 경향의 운명과 의의를 결정하는 것은 의도나 동기, 또는 말이 아니라 이것들과 독립된 객관적 상황이다.”⁶⁴⁶⁾

오늘날 친 중·러 사회제국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반제국주의와 그 밖의 많은 좋은 것들을 찬양한다. 그러나 몇 가지 트로츠키주의적 언사로 자신들의 친러 또는 친중 사회제국주의 정치를 숨길 수는 없다. 죄인이 서둘러 기도를 했다고 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위장한 준 스탈린주의자들이 트로츠키의 책에서 암기한 인용문을 몇 개 외운다고 해서 노동자계급 국제주의 진영에 합류할 수도 없다.

쓰디쓴 진실을 무시해선 안 된다. 붉은군대 창설자에 대한 의미 없는 공허한 찬양을 중·러 제국주의에 대한 수정주의적 축소은폐와 결합시키고 있는 친러·중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은 “트로츠키주의” 양의 탈을 쓴 스탈린주의 늑대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진실 말이다.

646) V. I. Lenin: Word and Deed (1913); in: LCW 19, p. 262

24장. 전도된 사회제국주의에 대하여

이 장에서는 신흥 제국주의 강대국으로서 중·리의 특수한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몇 가지 쟁점들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이 특수성이 사회제국주의의 정치적 외형에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친 러·중 사회제국주의자들의 “반제국주의” 호소력?

친 중·리 사회제국주의가 많은 활동가들에게 모종의 호소력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 호소력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다. 러·중을 편드는 이들 세력 일부가 친 서방 사회제국주의자들보다 더 급진적, 더 “반제국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대부분의 진보적 활동가들에게 미국이나 유럽 열강, 또는 일본이 왜 제국주의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이들 제국주의 열강은 수십 년, 심지어는 수백 년 동안 남반구 인민에 대한 직간접적 억압과 착취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억압적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역사는 1839-42년에 서방 열강이 중화제국을 공격하여 이 자공심에 찬 민족에게 굴욕감을 안기기 시작한 제1차 아편전쟁으로 끝이 났다. 그 전까지는 중국이 각종 무슬림 인민과 조선, 베트남, 태국 등등에 대해 - 조공제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 지배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부터는 유럽 열강과 러시아와 일본의 지배에 대항하여 싸웠다. 1949년 혁명 이후 중국은 스탈린주의 국가로 스스로를 재건했다. 지난 일십년에 와서야 비로소 중국은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열강으로서 중화제국 재건을 시도했다.

러시아의 경우도 비슷하다. 러시아는 수백 년 동안 팽창하는 억압적 강대국이었지만, 1917년 사회주의 10월혁명으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소비에트 연방의 창설로 러시아는 더 이상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라, 반대로 강대국들의 최대 적수이자, 제국주의 지배에 대항하여 싸우는 많은 피억압 인민의 핵심 동맹군이였다. 소련이 스탈린주의적 타락으로 그 혁명적 호소력을 잃었지만, 미 제국주의와 그 동맹군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어느 정도는 진보적 요인으로 남아 있었다. 1991/92년 자본주의 복고 이후 러시아는 그 초기 몇 년 동안 다소 약한 국가로 머물러 있었다. 러시아의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부상은 중국의 경우에서처럼 최근 현상이다.

베이징과 모스크바 모두 자신들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그들의 선전에서 중심 테마는 “단극 세계질서” 반대와 “다자주의” - 즉 동·서 강대국들의 공존 - 옹호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객관적 현실에 토대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중국도 현실적으로 미국을 패퇴시키고, 예견 가능한 미래에 미국을 대신하여 새로운 세계 패권국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는, 그들의 지위는 19세기 말-20

세기 초에 “후발”, 신흥 열강이었던 미국이나 일본, 또는 독일과 비슷하다. 영국이나 프랑스 또는 러시아와는 대조적으로 이들 신흥 열강은 거의 식민지를 보유하지 못한 조건에서 자신의 “공평한 몫”을 요구했다.

이 모든 이유들로 인해 러시아·중국이 전 세계의 많은 진보 활동가들에게 “제국주의자들”이 아니라 서방의 기존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적수 또는 도전자로 비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윌슨 대통령 하의 미국도 당시 많은 이들에게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라 “진보적” 세력으로 다가왔다.) 실제로 양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와 비슷하게도, 세계정세는 기존 열강에 도전하고자 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부상으로 특징지어진다. 그 결과, 기존 제국주의 열강과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 둘 다 군비경쟁에 기름을 붓고 있고 피억압 인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RCIT가 신흥 강대국들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어떠한 지지도 모두 경계시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1930년대에 트로츠키는 스탈린주의 코민테른이 해방투쟁에 가장 위험한 적인 이유가 사민주의자들보다 신뢰가 덜 실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과 분리될 수 없다. 화해할 수 없는 계급의식이 전쟁에 대항하는 성공적인 투쟁의 첫 번째 조건이다. 현 시기 최악의 계급의식 파괴자이자 최악의 혁명투쟁 사보타지 분자는 이른바 ‘공산주의자들’이다....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이 마침내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하수인이 된 코민테른의 배신자 짓거리에 대한 폭로로 시작해서 그 폭로로 끝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제2 인터내셔널도 물론 더 낫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더 더럽혀졌고 따라서 덜 위협하다.”⁶⁴⁷⁾

647) Leon Trotsky: How to Struggle against War (1937), in: Trotsky Writings 1937–38, p. 54

따라서 “다자간 세계질서” - 친 중 · 러 개량주의자들이 말하는 - 라는 중 · 러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그 어떤 지지도 본질적으로 사회제국주의적이다. “다자간 세계질서”라는 것이 결국 그 본성상 서로에 대해 철저히 경쟁관계에 있는 몇몇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의미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목표에 대한 스탈린주의자들의 지지는 사회주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철두철미 부르주아 지정학주의일 뿐이다. 이러한 세계질서가 지난 세계질서보다 더 평화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적어도 그에 못지않게 위기로 차 있는 전쟁몰이 질서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누구도 아인슈타인이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다자간 세계질서”라는 이러한 개량주의적 백일몽 뒤에는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에게 압력을 가해 팽창 노력을 중단하고 라이벌 국들과의 평화공존에 합의하도록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수정주의적 환상이 있다. 위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그것은 “세계 부르주아지의 중립화”가 가능하다는 허구적인 스탈린주의 이론의 결과다. 트로츠키의 비판은 그 유효성을 잃지 않고 있다.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은 정부에 대한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혁명적 권력 투쟁에 의해서 결판난다.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평화주의적’ 결과물은 그것의 개량주의적 결과물처럼 오직 혁명적 권력 투쟁의 부산물일 뿐이다. 그러한 결과물은 단지 상대적인 강점을 가질 뿐, 쉽게 대립물로 전환될 수 있다. 즉 그러한 결과물은 부르주아지를 추동하여 전쟁으로 가는 길에 나서게 할 수 있다.”⁶⁴⁸⁾

그와 같이 이들 사회제국주의자들은 노동자 · 피억압자의 해방투쟁들을, 이 투쟁들이 러 · 중에 이롭게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목표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

648) Leon Trotsky: The Permanent Revolution (1929), Pathfinder Press, New York 1969, p. 268

는가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들 사회제국주의자들은 서방을 약화시키고 러·중의 글로벌 지위를 강화시켜줄 투쟁들만을 지지하려 한다. 그리하여 미국의 동맹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항하는 예멘 인민의 저항은 ‘굿’(good)이다. 미국에 대항하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저항도 굿이다. 대중적인 “노란조끼” 운동도 굿인데, 그 운동이 EU 정부를 겨누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노동자 또는 러시아 노동자의 파업투쟁은 그와는 다르다. 또 체첸 인민 또는 위구르 인민의 민족투쟁도, 러시아의 동맹 아사드에 대항하는 시리아 인민의 민족투쟁도 그와는 다르다.

여기서도 스탈린주의적 “반제국주의”는 오직 강대국 한 진영에 대항해서만 - 다른 진영에 대해서는 아니고 - “반제국주의적”이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자유주의 세력들보다 나올 게 없다. 즉 자국에서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자국 정부에 대한 서방의 제재와 “국제사회”의 압력을 지지하는 자유주의 세력들 말이다. 실로 서방 나라들의 스탈린주의자들이 통상 러·중에 대한 자신들의 지지를 “사회주의적” 언어로 포장한다면, 러·중의 소부르주아 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은 유엔 인권현장에 기대어 서방의 제재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의 본질을 가리는 포장지가 다를 뿐 양쪽 모두 내용물은 다르지 않다. 즉 경쟁 상대방 강대국에 대한 전도된 사회제국주의적 지지 말이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반제국주의”는 단지 반(半)만 “반제국주의”고, 다른 반은 “친제국주의”로서, 결국은 사회제국주의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사이비 “반제국주의”는 종종 고립주의적인 일국중심성과 결합된다. 이러한 스탈린주의자들 또는 준 스탈린주의자들은 자국 부르주아지에 반대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은 “주적은 국내에 있다”라는 유명한 정식에 기대다. 물론 이러한 정

당화 논리는 전혀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마치 레닌과 리프크네히트가 오직 러시아의 또는 독일의 지배계급에만 반대했다는 듯이 말이다! 1차 세계대전 중의 노동자운동 역사에 대한 그 어느 초심자도 알고 있듯이, 맑스주의자들은 ‘자’국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강대국 지배계급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대했다.

자국 부르주아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만족한 채 남아있는 것은 스탈린주의 “일국 사회주의”론의 반영이다. “일국 사회주의”론은 순 일국적 차원에서, 자국 국경 안의 관련 쟁점들에 대해서만 입장을 취함으로써 진정한 사회주의적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잘못된 사상을 표현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은 사회주의자들에게 불가능한 것이다! 어느 한 일국의 정치 쟁점들은 글로벌 쟁점들과 떼어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제국주의는 세계적 체제다.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는 오직 세계적 규모로만 가능할 뿐, 단지 일국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사회주의자들”이 ‘자’국 제국주의 지배자들에 대해 반대하지만 경쟁 상대국 제국주의 지배자들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면, 그들은 자국 부르주아지와 관련해서는 사회제국주의자가 아니지만, 경쟁 상대국 부르주아지와 관련해서는 사회제국주의자다! 즉 그들은 *전도된 사회제국주의자*다. 제4 인터내셔널이 그 같은 세력을 두고 그렇게 불렀듯이 말이다.⁶⁴⁹⁾

제국주의 강대국이 라이벌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항하는 피억압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일이다. 1904/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 그리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영국에 대항하여 아일랜드

649) “망명한 독일 스탈린주의자들은 전도된 사회애국주의자들이 되었다. 그들은 베르사유 강화조약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챔피언이었다가, 이 동일한 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현상(status quo) 유지의 방어자로 변신했다. 독일 스탈린주의자들의 현 위치에서 볼 때 결국 그들은 독일에서 파시스트 독재가 또 다른 유형의 부르주아 정권으로 대체되자마자 자신들을 진정한 사회애국주의자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The Evolution of the Comintern, Resolution of the First Conference for the Fourth International in July 1936,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New York 1973, p. 127)

드 혁명가들을 지지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은 수바스 찬드라 보세의 인도국민군을 지지했고,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일본과 싸우는 중국군을, 또 독일과 싸우는 발칸의 파르티잔을 지지했다. 더 많은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라이벌 강대국에 대항하는 해방투쟁을 지지하는 것이 반드시 반제국주의의 증거서가 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한 제국주의 진영에 이롭게 강대국들을 돕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짚고 가자. 열강이 때로는 반식민지 나라의 특정 세력이나 운동에 대항하여 싸우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힘을 합칠 수도 있다. 이미 1850년대 및 60년대 중국에서 태평천국 봉기, 또는 1899-1901년 의화단 봉기 당시 그러했다. 오늘의 예로는 2011년 이래의 아랍 혁명에 대한, 그리고 각종 소부르주아 이슬람주의 세력들에 대한 강대국들의 공통의 적대가 대표적인 예다. 그러므로 때때로 친 러·중 사회제국주의 당들과 친 서방 사회제국주의 당들이 일치를 보는, 예를 들어 이른바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일치를 이루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진정한 혁명가들의 임무는 이 또는 저 강대국에 유리하게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데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강대국에 대항하여 싸우며 제국주의 질서를 완전하게 파괴하고 그것을 사회주의 세계로 대체하는 것이다!

전도된 사회제국주의 - 계급협조의 변주

이 대목에서 전도된 사회제국주의 현상의 역사적 뿌리를 간략히 다루는 것

이 필요하다. 막 설명했듯이, 이 범주는 자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가 아니라 경쟁 강대국의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를 — 공공연하게든, 은폐된 형태로든 — 지지하는 그러한 사이비 사회주의 세력들을 성격규정 하는 범주다. 맑스주의 고전은 단지 한 형태의 사회배외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범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환기시켰다. 레닌과 트로츠키는 자국 지배계급에게 투항하는 사회배외주의 이외에 경쟁 상대방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계급에게 투항하는 사회배외주의도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의 소부르주아적 유대인 분트(이들은 제2 인터내셔널의 일부였다)의 상당 부분이 독일 제국주의 진영을 지지했다. 그들은 차르를 주적으로 간주했다. 또 다른 유명한 예는 젊은 시절의 트로츠키와 한 때 긴밀히 협력했고 독일 사회민주주의 내 좌파에 속했었던 러시아계 유대인 사회주의자 알렉산더 파르부스다. 나중에 그는 개량주의자이자 독일 제국주의의 협력자가 되었다.

1920년대에, 이른바 자본주의 “안정”기 동안에 유럽의 사민주의는 도즈 안(Dawes Plan)의 옹호자가 되어 구대륙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지지했다. 나아가 미 제국주의와 협력했으며 ‘자’국 지배계급에 대한 일종의 반대파로 존재했다. 당시에 트로츠키가 표현했듯이, “유럽 사민주의는 바로 우리 눈앞에서 미국 자본주의의 정치적 하수인이 되어가고 있다.”⁶⁵⁰⁾

비슷한 형태로, 1930년대 및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사민주의자들과 스탈린주의자들, 그리고 SAP(독일 사회주의노동자당) 같은 대부분의 중도주의자들은 서방 제국주의를 지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적이 국내의 파시스트 지배계급이라고 천명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프랑스 ·

650) Leon Trotsky : Perspectives of World Development (1924), <https://www.marxists.org/archive/trotsky/1924/07/world.htm>

영국·미국 제국주의 지지를 정당화했다. 소련의 지배 관료가 1939-41년에 히틀러와 동맹을 맺자 스탈린주의자들은 나치에게 접근하는 한편, 포화를 영국·프랑스의 전쟁물이 “금권 민주주의 체제”에 집중시켰다.⁶⁵¹⁾

언제나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이러한 전도된 사회제국주의자들을 “통상적인” 사회제국주의자들 못지않게 날카롭게 비난했다. 1933년 이후 추방당한 독일 사민주의 지도자들의 무기력한 본질에 대해 미국의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이렇게 썼다.

“어느 정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한 나라에서 유지되는 동안은, 즉 사민주의가 용인되는 동안은 사민주의는 자신이 모든 위기 시에, 특히 전쟁 발발 시에 부르주아지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을 증명한다. 이런 동안은 애국적인 열정에서 그 누구한테도 뒤지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파시즘이 사민주의를 난폭하게 탄압하고 추방한 나라의 사민당은, 민주주의의 가면조차도 벗어던진 나라의 사민당은 어떠한가? 그 당은 어떻게 ‘조국 방어’에 찬성하고 나설 수 있을까? 그 당은 ‘조국 방어’에 찬성할 수 없고, 대체로 찬성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당이 실제로 하는 일은 봉사할 주인을 바꿔 외국 민주주의체제의 지배계급에게 봉사하고, 그 대가로 임시 외국인 고용주의 총기 운반차에 실려서 한 때 본국 땅에서 자신이 점했던 위치로 되돌려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추방당한 독일 사민주의 지도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계정세에서 별 볼일 없는 역할이다. 적

651) 제4 인터내셔널은 히틀러-스탈린 조약의 서명 이후 스탈린주의자들의 180도 급선회를 비난했다. “언뜻 볼 때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프랑스·영국 지부의 행동은 정반대로 비쳤다. 독일 지부와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자국 정부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갑작스런 패전주의는 국제주의가 아니라, 애국주의의 일그러진 변종이었다. 이들 신사양반들이 생각하는 조국은 자신들의 안명이 달려 있는 크레믈린이다. 프랑스 스탈린주의자들 중 많은 이들이 박해 속에서 의심할 바 없이 용기 있게 행동했다. 그러나 적 진영의 탐욕스런 정책을 그들이 운색해줌으로써 이 용기의 정치적 내용은 더럽혀졌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그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할까?” (Fourth International: Imperialist War And The Proletarian World Revolution, Adopted by the Emergency Conference of the Fourth International, May 19-26, 1940;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The Formative Years (1933-40),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3, p. 337, <http://www.marxists.org/history/etol/document/fi/1938-1949/emergconf/fi-emerg02.htm>)

나라한 예는 1년 반 전 자를란트 사민주의의 가련한 영웅 막스 브라운이 프랑스에 이주해 온 독일 청년들 사이에서 군 입대 선전을 하여 그들을 "독일 파시즘에 대항하는" 프랑스 군을 위한 열혈 병사들로 바꿔내는 대가로 프랑스 정부에게 자신의 신문과 자신의 운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자신들의 지휘 하에 무적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파시즘에 비겁하게 투항하더니 이제는 "외국 총검에 의한 구원을 기대하는 정책"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회복하길 바라는 독일 사민주의 지도자들의 도착(倒錯)된 전쟁물 이는 프랑스에서만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 독일 사민주의자들은 새로운 성전 — 이번에는 "차리즘에 대항하는" 성전이 아니라 "파시즘에 대항하는" 성전 — 을 위해 노동운동을 동원하는 데 활동의 주목적이 있는 사절단과 대사관을 모든 제국주의적 "민주주의" 나라들에 두고 있다. 미국에도 이들 신사 숙녀 분들이 있다. 주로 전 바이마르공화국 국회의원들이다."⁶⁵²⁾

트로츠키도 파시즘과 싸울 필요를 논거로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지지를 정당화한 자들의 주장을 전면 거부했다. 그는 1933년 히틀러에 대항하여 소련 적군(赤軍)의 개입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왜곡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신이 이끄는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속적인 제국주의 정부가 이끄는 전쟁을 통해 위대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틀렸다. 그 문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즉 체코슬로바키아를 둘러싼 위기 동안에 우리의 프랑스 또는 영국 동지들은 자국 부르주아지의 군사개입을 요구했어야 했고, 그리하여 전쟁에 대한 책임을 — 전쟁 일반에 대한 책임이 아닌, 물론 혁명전쟁에 대한 책임도 아닌, 해당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책임을 — 떠안았

652) Max Shachtman: Old Garbage in New Pails, in: New International, Vol.5 No.6, June 1939, <https://www.marxists.org/archive/shachtma/1939/06/garbage.htm>

어야 했다고. 그 문서는 히틀러가 무서운 위협거리가 되기 전인 1933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를 분쇄하는 데 모스크바가 이니셔티브를 취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트로츠키의 말들을 인용한다. (반대파 회보, 1933년 3월 21일). 그러나 이 말들은 노동자국가의 진정한 혁명적 정부라면 그렇게 행동했어야 했다는 뜻일 따름이다. 하지만 같은 요구를 제국주의국가의 정부에 제기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⁶⁵³⁾

오늘 우리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의 이른바 “반 독일파” 또는 “반 민족파”에게서 비슷한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들은 아주 반동적인, 사이비 좌익 조류로서 극단적으로 친 시온주의적이고 친미적이다. 이들은 독일 ·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배외주의와 생래적인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시온주의 · 미제국주의 지지를 정당화한다.

레닌과 지노비에프는 사회배외주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정의를 제시하여, ‘자’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를 지지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경쟁 상대방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계급을 지지하는 자들도 이 사회배외주의 조류에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사회배외주의란 현 전쟁에서 ‘조국방위’ 사상을 주창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상은 논리적으로 볼 때, 전쟁 중에 계급투쟁의 포기, 전쟁공채에 대한 찬성투표로 이어진다. 실제로 사회배외주의자들은 반프롤레타리아적, 부르주아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실제로 그들이 옹호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억압에 대해 싸운다는 의미에서의 ‘조국방위’가 아니라, ‘강대’국의 한나라로서 식민지를 약탈하고 타민족을 억압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사회배외주의자들은 전쟁이 민족들의 자유와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는 부르주아적 기만을 되풀이하며, 그럼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에 맞서 부르주

653) Leon Trotsky: A step towards social patriotism (1939), in: Writings 1938–39, p. 211

아지의 편으로 넘어간다. 사회배외주의자들의 범주에는 카우츠키처럼 모든 교전국의 사회주의자들이 동등하게 '조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교전국 양 진영 중 일방의 정부와 부르주아지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자들이 있다. 사회배외주의는 실제로 '자'국의 (혹은 모든 나라의)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특권과 이익, 약탈과 폭력에 대한 옹호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회주의적 신념들과 바젤 국제사회주의대회에 결정에 대한 전적인 배반이다."⁶⁵⁴⁾

트로츠키와 제4 인터내셔널이 전도된 사회배외주의의 이 같은 모든 표현 형태들을 단호히 비난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진정한 맑스주의는 일관되게 국제주의적이며 동시에 반제국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전혀 맑스주의가 아니거나 다! RCIT는 일관된 반제국주의 강령에 기초한 새로운 혁명적 세계당을 위해 싸운다. 이러한 강령은 모든 형태의 사회제국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포함한다.

전도된 사회배외주의자들은 본격 전쟁 시에 무엇을 할 것인가?

제국주의 간 갈등이 질적으로 가속화하는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전도된 사회배외주의자들은 라이벌 강대국의 충성스런 지지자로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붕괴하여 자국 지배계급에 투항할 것인가?

1930년대 및 40년대에 스탈린주의자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654) G. Zinoviev / V. I. Lenin: Socialism and War (1915) ; in: LCW Vol. 21, pp. 306-307 (강조는 인용자). [레닌 (사회주의와 전쟁),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41쪽]

그들은 모스크바가 지시하는 대로 매 전환 때마다 충성스럽게 따라갔다. 그들은 자국 부르주아지를 섬기다가도 코민테른 본부가 요구하면 곧바로 라이벌 국가의 부르주아지를 섬겼다. 1939년 가을에 프랑스·영국의 스탈린주의자들이 ‘자’국 부르주아지를 (히틀러 대신에) 주적으로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때 모종의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스탈린주의 국회의원들 1/3이당을 떠났으며, 당시 “공산”당들에서 많은 당원들이 탈당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큰 파열을 피하는 데 대체로 성공했다.

미래의 전쟁 시기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반복될 것인가? 물론 이것은 예견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반복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와 당시 상황 간의 차이가 유사점을 능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첫째, 당시의 스탈린주의자들은 소련을 여전히 10월혁명의 조국으로 본 매우 충성스런 많은 간부들을 지닌 공고한 국제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간부들이 모스크바에서 시간을 보냈고 수년 동안 거기서 훈련받았다. 오늘 이런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코민테른 같은 것은 없다.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IMCWP)는 그 어떤 조직적 중앙도 없는 느슨하고 이질적인 연합이다. 즉 단일한 조직이 전혀 아니다. 스탈린주의자들은 러시아를 편들지만, 그들을 푸틴 정권의 통치기관의 유기적 일부로 본다면 이는 완전히 넌센스일 것이다. 베이징은 코민테른 형 조직에 가까운 그 어떤 것도 건설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 마오주의 황금기에조차 - 없다. 그들은 언제나 모스크바 라이벌보다 훨씬 더 일국 중심적이었다.

더욱이 스탈린주의 코민테른은 많은 지부들의 당 기구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많은 돈을 지출했다. 그 결과로 이들 지부는 소련 관료에 매우 의존적이었다. 오늘 모스크바도, 베이징도 비슷한 액수의 돈을 쓰지 않는다. <<러

시아 투데이》》 같은 각종 언론매체나 중국에 본부를 둔 세계정치경제학협회(WAPE) 같은 학술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소련이 들인 공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압박이 가해지면 사회제국주의자들 - 애국주의 사고 방식으로 훈련된 - 은 그 다수가 사이비 패전주의를 버리고 애국주의적 조국 방위주의자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유일한 요인은 1933년 이후의 독일 같은 상황, 즉 신정권이 들어서면 모든 반대세력을 깡그리 투옥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일 것이다. 그런 조건에서는 개량주의자들조차도 사회애국주의자가 되는 것에 아무 메리트를 느끼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라이벌 제국주의 국가에게 자신들의 지위를 되찾을 희망을 걸고자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이 개량주의자들이 더 이상 “살찌지” 않고 꽤 “아위어진” - 트로츠키의 적절한 성격규정 표현을 옮겨 사용하자면 - 상황이다.

“야원 당들 진영이 묘사되고 있는 그림은 다르다. 이들 당은 그 지배관료의 성격에서, 그 과거 전체에서, 그 열망에서 살찐 당들과 다르지 않다. 아아,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쫓아낸 제국주의 조국이 식민지를 빼앗긴 것과 똑같이 목초지를 빼앗겼다. 살찐 당들이 무엇보다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자국 내에서나 국제적으로나 현상을 유지 보존하는 것이다. 야원 당들에게 현상 유지란 무기력과 추방과 빈약한 식량배급을 의미한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의, 그리고 이제는 스페인의 사회주의 당들도 자국 제국주의 - 이 당들의 서비스를 발로 걷어 차버린 - 의 규율에 직접적으로 묶여 있지는 않다. 그 당들은 자신들의 전통 및 자신들의 최선의 의도와와는 반대로 불법 지위로 내던져졌다. 당연한 바이지만, 이것 때문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혁명적으로 되지는 않았다. 물론 사회주의혁명을 준비하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애국주의는 일시적으로 안과 밖이 뒤집어졌다. 그들은 "민주

주의"국들의 무력이 자국 파시스트 정권을 타도하고 자신들의 이전 지위를, 편집 사무실을, 의회 의석을, 노동조합 지도 기관들을 되찾게 해주고 은행계좌를 다시 개설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는 꿈을 완고하게 꾀다. 살찐 당들이 오직 평화롭게 남아 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반대로 야원 당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적극적인 국제 정책에 관심이 있다."⁶⁵⁵⁾

655) Leon Trotsky: Progressive Paralysis, The Second International on the Eve of the New War (1939), in: Writings of Leon Trotsky, 1939-40, p. 37

27장. 강대국 패권쟁투에 직면한 좌익 :

러 · 중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하지만

결론을 끌어내지는 않는 조직들

러 · 중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하지만, 앞서 논의한 세력들과는 달리 서방 열강에 대항하여 러 · 중을 편드는 결론을 일관되게 끌어내지는 (아직) 않는 조직들이 있다. 2부에서 논의했듯이, 이들 조직 - 모레노 파의 LIT, UIT와 그리고 FT - 은 러 · 중을 브라질과 같은 상대적으로 큰 반식민지 나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상세히 설명했듯이, 러 · 중을 그와 같이 비제국주의, 반식민지 나라로 성격규정 한다면 이 조직들은 - 그들이 문제를 그 논리적 결론으로까지 일관되게 사고하려 한다면 - 러 · 중을 라이벌 서방 열강에 대항하여 편들지 않을 수가 없다. 잘 알다시피, 그 어느 분쟁에서든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여 반식민지 나라를 지지하는 것은 맑스주의자들에게 고전적이고 올바른 입장이기 때문이다. 반식민지 브라질과 제국주의 영국 간의 분쟁을 예로 들면서 트로츠키는 이 점을 혼동의 여지없이 명확히 했다.

“가장 단순하고 명백한 예를 들어보겠다. 지금 브라질에는 혁명가 누구도 중요성을 가지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준 파시스트 정권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 영국이 브라질과 군사 분쟁에 들어간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에게 묻겠다. 노동자계급은 분쟁의 어느 쪽을 편들 것인가? 나로서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이 경우에 나는 "민주주의적" 영국에 대하여 "파시스트" 브라질을 편들 것이다. 왜인가? 그 둘 간의 분쟁에서 문제는 민주주의나 파시즘이냐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영국이 승리한다면, 영국은 리오데 자네이로에 또 다른 파시스트 정권을 앉힐 것이고 브라질에 이중의 족쇄를 걸어놓을 것이다. 반대로 브라질이 승리한다면, 이 승리는 그 나라의 민족적·민주주의적 의식에 강력한 자극을 주어 바르가스 독재의 타도로 이어질 것이다. 동시에 영국의 패배는 영국 제국주의에 타격을 안겨 영국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운동에 자극을 줄 것이다. 정말이지, 세계의 적대적 충돌들과 군사적 분쟁들을 모두 파시즘과 민주주의 간의 투쟁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머리가 텅 비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가면 아래 있는 착취자들과 노예소유주들과 강도들을 구별하는 법을 알아야만 한다."⁶⁵⁶⁾

LIT와 UIT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미국에 대하여 러·중 제국주의를 편드는 결론을 다행히도 끌어내지 않는 (현재까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올바른 분석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들의 정치적 나태함의 결과다. 무엇이 제국주의이고 무엇이 제국주의가 아닌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이론적 실패는 가벼운 착과상이 쉽게 괴저(壞疽)로 될 수 있는 것과 같다.

FT도 그러한 사회제국주의적 결론을 끌어내지는 않고 있지만, 러·중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분석에 내재하는 위험성을 반영하는 성명들을 낸 게 있다. 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프랑스의 필립 알코이는 최근에 발표한 성명 속에서 푸틴 정권이 반동적이긴 하지만 제국주의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권이 제국주의 공세에 *대항하는* (틀린) 대응을 대표한다고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은 노동계급 운동과 혁명적 좌익이 푸틴을 일종의 "반제국주의

656) Leon Trotsky: Anti-Imperialist Struggle is Key to Liberation, An Interview with Mateo Fossa (1938); in: Writings of Leon Trotsky 1938-39, p. 34

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푸틴은 반동적 정권의 꼭대기에 있다. 그는 당대 러시아 자본주의의 얼굴이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러시아 자본가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푸틴은 인도주의적 재난과 학살을 만들어내고 시리아의 아사드 같은 살인 독재자들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혁명적 좌익이 명확한 반제국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러시아 노동자계급과 인민 속에서 푸틴의 영향력에 맞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푸틴은 1990년대 러시아에서의 제국주의적 공세의 결과물로서, 이 공세에 대한 러시아 자본주의의 반동적 대답을 대표한다. 혁명적 좌익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공세 – 올리가르히보다는 러시아 노동자계급과 대다수의 일반 민중에게 타격을 주는 경제제재를 포함하여 – 를 비난하고 규탄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결코 푸틴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역시, 제국주의 공격에 대항하는 계급적 입장이 푸틴과 싸우는 더 나은 길이다.”⁶⁵⁷⁾

이 성명은 공공연히 사회제국주의적 결론을 끌어내지는 않지만, 그 같은 방향으로 문을 열어놓는다. 푸틴 정권을 “제국주의 공세에 대항하는 대응”이라고 성격규정 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며 (그러나 그 역, 즉 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며), 서방을 규탄하라고 (그러나 러시아는 규탄하지 말라고) 노동자운동에 촉구하는 등,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양 제국주의 진영 모두에 대한 패전주의적 입장 견지가 아니라 러시아 편들기다.

이 성명에서 러시아의 푸틴 정권에 대한 FT의 성격규정을 보면 거의 반식민지 부르주아 정권들 (예를 들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독재와 같은)에 대한 것처럼 보인다. 앞에서 밝혔듯이, 맑스주의자들은 이러한 정권들을 비난하고 반

657) Philippe Alcoy (FT in France), in: Rossen Djagalov: We Asked: Geopolitics and the Left (Part I: Russia & the West), Left East April 19 2018, <http://www.criticatoc.ro/lefteast/we-asked-russia-and-the-west/>

동 정권으로 성격규정 하지만, 그러나 또한 이러한 반동 정권이 키를 쥐고 있는 경우에조차도 그러한 반식민지 나라들을 방어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반식민지 나라의 경우에 완전히 정당했고 여전히 정당하지만, 강대국들의 경우에는 그것은 전적으로 오류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적인 사회제국주의적 러·중 방어 (미국이나 일본에 대항하여)는 이들 강대국을 비제국주의 국가로 분석하는 FT의 치명적 오류의 논리적 귀결일 따름이다.

강대국 패권쟁투 분야에서 LIT와 UIT와 FT의 이론적 혼란이 다른 중요한 세계정치 사건들에서의 비슷한 혼란과 조응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명예롭게도 여전히 LIT와 UIT는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여 시리아 혁명을 - 다른 많은 중도주의자들과는 대조적으로 - 방어한다. 여기서는 그들의 시리아 혁명 연대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다룰 자리가 아니므로 그들이 시리아 해방투쟁에 대한 지지를 이어가고 있는 작은 사회주의자 소수파의 일부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명예가 다른 주요 투쟁들 - 이 투쟁들에서 그들은 반혁명을 편들었다 - 에 대한 파멸적인 입장으로 인해 손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로서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의 우익 준 파시스트 반란⁶⁵⁸⁾ 또는 베네수엘라의 좌파 부르주아 보나파르트주의 마두로 정부에 대한 우익 야당의 반동적 도발⁶⁵⁹⁾을 그들이 지지한 것을 들 수 있다. LIT 지도부는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 2013년 7월 이집트 시시 장군의 군사 쿠데타를 “제2

658)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RCIT 분석의 개요 및 개량주의·중도주의 좌익 비판으로는,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유럽 섹션에 있는 이 주제에 관한 여러 기사들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

659)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RCIT 분석의 개요로는,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라틴아메리카 섹션에 있는 이 주제에 관한 여러 기사들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latin-america/>

의 혁명”이라고 칭찬했으며, 브라질에서 반동 부르주아지에 의한 호세프 탄핵과 룰라 체포를 환호했다.⁶⁶⁰⁾

마찬가지로 FT 동지들도 세계 계급투쟁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심각한 방향감각 상실을 겪고 있다. 그들은 시리아 혁명을 “바샤르 알 아사드 전제 정권”과 “이른바 ‘반군’” 간의 “반동적 내전”으로 성격규정 한다. (예멘에서의 민족 해방투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반동적 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⁶⁶¹⁾

FT 동지들은 최근 11차 총회에서 이러한 평가 규정을 확인했다. 그들은 세계 정세전망에 관한 핵심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아랍의 봄’의 일부인 반 아사드 민주주의 봉기는 이미 오래 전에 완전히 반동적인 내전으로 전화하였다.”⁶⁶²⁾

내친 김에 언급하자면, “제5인터내셔널 동맹”(L5I)⁶⁶³⁾이나 영구혁명 콜렉티브(*Permanent Revolution Collective; CoReP*)⁶⁶⁴⁾ 같은 보다 작은 그룹들도 현

660) LIT/PSTU에 대한 우리의 비판의 개요로는,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RCIT: In the Wake of the PSTU/LIT- CI Split, What Lessons Can Be Learned? An Open Letter to Members and Sympathizers of the International Workers League (Fourth International), 11.7.2016, <https://www.thecomunists.net/rcit/open-letter-lit-cj/>

661) Claudia Cinatti: The Geopolitics of the Civil War in Syria, September 14, 2016, <http://www.leftvoice.org/The-Geopolitics-of-the-Civil-War-in-Syria>

662) 위에서 인용한 최근의 FT 총회에서 채택된 핵심 결의사항을 보라.

663) 제5 인터내셔널 동맹 (L5I) 동지들은 몇 년 동안 시리아 혁명을 편들었지만, 이후 지지 입장을 버리고, “시리아 혁명이 패배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들은 아랍 혁명이 최종적으로 끝났으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제는, 이틀리브를 비롯한 그 밖의 남아 있는 해방된 지역들이 새로 공격을 받으면서 시리아의 잔혹한 내전이 재개되더라도 우리는 6년 전에 시작된 시리아 혁명이 전략적 패배를 겪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실로 우리는 리비아와 예멘에서의 내전의 반동적 성격을 감안할 때 아랍의 봄 전체에 이 판단을 적용할 수 있다. 아랍의 봄은 일련의 반혁명 세력, 즉 엘시시나 아사드 같은 군사적 보나파르트주의자들, 바레인에서와 같은 군주제 지지자, 또는 저항투쟁 속에서 부상한 살라피스트-지하드파 등에 의해 패배하였다. 중동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혁명가들의 임무는, 아무리 쓰디쓰더라도 진실을, 즉 이제 반혁명기 —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대중투쟁의 재등장이 있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반혁명기 — 를 맞고 있다는 진실을 대면하는 것이다.” (L5I: Resolution on Syria, 02/03/2017, <http://www.fifthinternational.org/content/resolution-syria>) 참담하게도, L5I는 이른바 “후진적인” 무슬림 인민의 해방투쟁을 경멸로 대하는 서유럽의 중간계급 좌파 풍토에 기회주의적으로 영합하고 있다!

664) CoReP: The Liaison Committee of Centrists capitulates in front of Islamism, 2 October 2016, <http://www.revolucionpermanente.com/english/?p=250>. 이 기괴한 성명에서 CoReP 그룹은 RCIT를 포함하여 시리아에서의 해방투쟁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을 “이슬람주의에 대한 투항자들”이라고 공격한다. 사실, 이 기사는 제국주의 프랑스의 이슬람 혐오 사회배외주의적 여론에 프랑스 CoReP 지도부가 영합한

재 진행 중인 시리아 인민의 해방투쟁을 지지하길 똑같이 거부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적어도 러·중의 제국주의적 성격은 인정하면서도 서방의 이슬람 협오주의에 투항하여 아사드 독재에 대항하는 인민 투쟁에 대해 그 이슬람 지도부를 구실 삼아 기권주의적, 제3진영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러·중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하지만, 그러나 논리적 (적어도 맑스주의자들에게는 논리적인) 결론을 끌어내길, 즉 서방 강대국들에 대항하여 러·중의 승리를 요구하길 거부하는 동지들은 다음과 같은 좌익반대파의 강령적 성명을 염두해야 한다. (이 성명은 1927년 스탈린주의 관료에 대항하는 좌익반대파 정강 속에 정식화되어 있는 내용이다).

“"조국 방어" 슬로건은, 제국주의자들에 맞서 민족혁명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식민지·반식민지 나라들을 제외한 모든 부르주아 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거짓 위장이다. [1927년에] 소련에서는 "조국 방어" 슬로건이 옳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주의 조국과 세계 노동자계급 운동의 기지를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⁶⁶⁵⁾

둘 중 하나다. 중·러가 정말로 반식민지 나라라면, 서방 제국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중·러를 편드는 것이 LIT·UIT·FT 동지들의 의무일 것이다. 만약 이 동지들이 정치적 본능에 의해 중·러를 편들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론적 결론을 끌어내서 이 신흥 강대국들이 제국주의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둘 중 하나다!

것에 대한 꿈쩍달싹할 수 없는 고발장이다!

665) The Platform of the Opposition (1927), in: Leon Trotsky: The Challenge of the Left Opposition (1926-27), pp. 367-368

28장. 강대국 패권쟁투에 직면한 좌익 :

절충주의적 사회평화주의자들

우리는 위에서 피터 타페의 CWI와 앨런 우드의 IMT,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IST 같은 몇몇 중도주의 조직들이 러·중을 적어도 이따금씩은 “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설명했듯이, 이것은 이들 세력의 세계정치 분석으로 표현되지 않는 순수관념적인 “욕하기”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불행히도 그러한 이론적 혼란은 레닌주의적인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을 이해 - 그 강령을 적용하는 것은 고사하고 - 하지 못하는 실패와 결합되어 있다.

우리는 <<남반구에 대한 대 강탈>>에서 CWI와 IMT 모두 공공연하게 레닌의 혁명적 패전주의 전략을 거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⁶⁶⁶ 여기서 간략히 우리의 비판을 요약해보자. 기본적으로 이 두 조직은 강대국에 대한 자신들의 사회평화주의적 영합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레닌 이론에 대한 기회주의적 해석 — 좋게 말해서 ‘해석’이지 실은 왜곡이다 — 을 옹호한다. (말 나온 김에,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이 CWI와 IMT는 노동자계급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의회주의적 개혁조치를 통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개량주의 이

666)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hapter 13 (Sub-Chapter: Is Revolutionary Defeatism too much for the Working Class? On the CWI' and IMT's Falsification of Lenin's and Trotsky's Method, pp. 357-365)

론을 또한 전도하기도 한다는 것을 언급해둔다).

CWI와 IMT가 레닌주의에 대한 이 같은 날조를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유는 강대국에 대항하는 - 특히, 이들 조류의 “모(母) 지부”가 있는 영국에 대항하는 - 반식민지 나라들과 피억압 인민의 정당한 해방투쟁에 대한 자신들의 거듭된 배반을 정당화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다.

CWI/IMT :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반식민지 나라들을 방어하길 거부하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상세히 보여주었듯이, CWI/IMT는 - 당시에는 아직 그들이 단일 조직으로 통합되어 있었다 - 1982년 말비나스 전쟁 동안 영국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반식민지 아르헨티나를 방어하길 거부했다. 당시 영국은 이 지역에서 자신의 식민지 보유를 지키기 위해 남대서양에 함대를 파견하고 있었다. (SWP/IST도 이 전쟁에서 아르헨티나를 방어하길 거부했다.⁶⁶⁷) 이들 중도주의자들은 아르헨티나를 편드는 것은 “초좌익”이라며, “아르헨티나에 대항하여 사회주의적 전쟁을 수행하는 노동당 정부”를 요구했다! 25년 뒤에 발표한 한 논설에서 CWI는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자신들의 파렴치한 투항을 여전히 옹호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비타협적인 ‘맑스주의적’ 접근법을 과시하기로 마음먹은 오늘날의 초좌익 종파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패전주의’관에 기초한 슬로건을 계속해서 제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를 편드는 것은 영국 노동자들을 떨어뜨려나가게 할 (이것이 이들 “국제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 듯하다) 뿐이라

667) SWP/IST는,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전쟁에서는 “진보적 진영도, 반동적 진영도 없었다”고 선언한다. (Alex Callinicos: Marxism and Imperialism today, in: A. Callinicos, J. Rees, C Harman & M. Haynes: Marxism and the New Imperialism , London 1994, p. 51)

고 CWI는 선포한다. “그들 [이른바 “종파들” -편집자]은 Junta [junta; 아르헨티나 군사정부를 말함 -역자]를 지지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파시스트’ 정권이라고 보아 그것에 대해 본능적인 증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패퇴당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이해할 수 있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물론 토리당 [영국 보수당 - 역자]은 노동자의 반파시스트 감정을 냉소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Junta 지지는 맑스주의자들을 노동자들의 눈 밖에 나게 할 것이며, 토리당이 ‘파시즘에 대항하는 싸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게다가 아르헨티나 해안 앞의 말비나스 섬에 사는 소규모의 영국인 정주자 집단의 권리를 방어하는 것이 이들 “반제국주의자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포클랜드 섬 [말비나스 섬의 영국 식 표현 - 역자] 주민들을 Junta의 처분에 내맡김으로써 주민들이 밭 딛고 있는 땅에 대한 Junta의 법리주의적 주장에 유리한 쪽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무효화시키는 정책을 통해서 사회주의적 반전 입장이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사이비 맑스주의자들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에 따라 CWI는 영국 해군 (“태스크포스”)의 패배를 요구하는 레닌주의적 입장의 적용을 비난했다. “그러나 종파들의 입장 중 가장 어처구니없는 것은 태스크포스의 패배를 요구하는, 글자 그대로 “함대 침몰” 요구 — 종파들의 대표자들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 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입장 쪽으로 노동자들을 전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들은 육해군 대열에 있는 노동자들의 학살에 찬성하며, 이를 근거로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대중적 지지를 얻을 것이다! 이것은 맑스주의의 모조품으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다면 오직 토리당과 노동당 우파의 손에 놀아나 이들이 ‘맑스주의자들’을 아르헨티나 Junta를 지지하는 바보들로 묘사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 밖에 없을 것이다.”⁶⁶⁸⁾

668) Socialist Party (CWI): Falklands war: what lessons for the labour movement? In: Socialism Today, No 108, April 2007, <http://www.socialismtoday.org/108/falklands.html>

나아가 CWI/IMT는 심지어 전쟁 종식 요구, 또는 영국 함대 철수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했는데, “노동자들이 그 요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태스크포스의 철군을 강제하는 데는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수반될 것이며, 또 총파업 조직 그 자체는 사회주의 정부의 집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전쟁 당초에 그 같은 요구는 영국 노동자들로부터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전쟁 중단 요구나 함대 철수 요구 역시도 시위, 집회, 선동 등 대중 캠페인을 위한 기초조차 공급하지 못하는 요구가 될 것이다.”⁶⁶⁹⁾

영국 노동귀족 사이에 퍼져 있는 가장 후진적인 사회제국주의적 편견에 영합하려는 이 같은 당혹스런 행보는 어쩌다 받을 한 번 잘못 디딘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다. 그렇기보다는 이 조류의 정치 DNA의 표현 - 이 조류의 사회평화주의적, 중도주의적 방법 - 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이것을 1914년 1차 세계대전 초기 볼셰비키의 태도와 비교해보라. 탄압과 불법 조건 하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제국주의 전쟁에서 맑스주의자들이 어느 편도 지지할 수 없었다는 (1982년의 말비나스 전쟁과는 대조적으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 관계없이 그 러시아 혁명가들은 결코 CWI/IMT가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비겁한 사회애국주의적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우리가 앞의 18장에서 보여주었듯이, 볼셰비키는 1차 세계대전 개전 당초에 가두와 공장에서의 반전 선동을 확산시키는 데 열정적인 활동을 보였다. 그들은 페테르부르크에서 “전쟁 타도!”와 “전쟁과의 전쟁”을 선포한 전단들을 발행했다. 제국주의 전쟁에서 CWI와 IMT가 취하고 있는 애처로울 정도로 비겁한 입장과 얼마나 다른가!

669) Peter Taaffe: The Rise of Militant, London 1995, Chapter 20 “The Falklands/Malvinas War”, <http://socialistalternative.org/literature/militant/>

2001년 이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제국주의 전쟁 및 점령 - 영국의 또 다른 중요한 군사적 모험 - 기간 동안 또 다시 CWI는 점령군과 그들의 꼭두각시 정권 (소부르주아 이슬람주의 탈레반 운동이 주도한 정권)에 대항하는 아프간 투쟁에 어떠한 지지도 보내길 강하게 거부한다.

한 강령적 글에서 CWI 핵심 지도자 피터 타페는 CWI 정책을 우리 조직 같은 원칙 있는 반제국주의자들의 정책과 대조시켰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전쟁을 제국주의 측에서의 철저히 반동적인 전쟁으로 인식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거대 미국에 이른바 ‘저항’한 자들 (말하자면 빈 라덴과 그의 알 카에다와 탈레반 정부)과 운명을 같이 하는 — ‘비판적으로’ 일지라도 — 것을 의미하는가? 믿기 어렵게도 이것이 노동자권력 (Workers Power) 그룹 (우리의 전임 조직 - 편집자)과 모레노 파 LIT 같은 몇몇 소규모 트로츠키주의 그룹들의 입장이다. LIT는 대부분이 라틴아메리카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그들의 접근법은 절대로 세계 노동자계급 사이에서, 특히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의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서 아무 반향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과거 트로츠키의 글 일부를 이용하여 전쟁 동안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바람에 그들과 접촉한 일부 청년 및 노동자들을 혼란과 당혹감에 빠뜨릴 수 있었으며, 또 실제로 몇몇 경우에는 그렇게 빠뜨리기도 했다.”⁶⁷⁰⁾

이 인용문을 보면 저자 타페는 CWI의 입장이 트로츠키의 방법과 명백히 충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가 위에서 보여주었듯이, 심지어 트로츠키는 “민주주의적” 영국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준 파시스트” 브라질을, 또는 1935년 이탈리아에 대항하여 절대군주제 에티오피아를 방어할 것을 요구하기조차 했다. 그러나 CWI는 트로츠키의 접근법이 오늘날 더 이상 유효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파주의적 조직들이 트로츠키

670) Peter Taaffe: Afghanistan, Islam and the Revolutionary Left (2002), <http://www.socialistworld.net/pubs/afghanistan/afghanchp1.html>

의 이 말들을 인용하면서 그러듯이, 대부분의 산업화된 나라들에서의 주민 대중이 오늘날 빈 라덴과 탈레반에 대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넌센스다.”⁶⁷¹⁾

간단히 말해서, CWI나 IMT 또는 IST 같은 세력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국주의 강대국들에서의 정치적으로 후진적인 노동자들은 “그러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반식민지 나라들과 피억압 인민을 방어하길 거부한다. 이것은 사민주의가 1914년에 “제국주의 조국 방어”에 대한 자신들의 지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고전적인 논리다. “우리가 전쟁에 반대했다 라면 노동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선언은 1차 세계대전 초기에 노스케, 에버트, 카우츠키의 단합구호였다. “우리가 탈레반이나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이 이끄는 쪽을 편든다면 노동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 CWI와 IMT의 단합구호다. 시대는 다르지만 사회평화주의적 논리는 같다!

이들 중도주의자들은, 레닌과 트로츠키가 되풀이해서 설명했듯이, 전쟁 초기 노동자계급 다수자는 보통 제국주의 조국 방어를 지지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다. 1922년에 레닌은 1차 세계대전 동안의 볼셰비키의 경험을 총괄하면서, 도래하는 전쟁과 관련하여 노동자운동에 건네는 정책에 관해 이렇게 썼다. “‘조국 방어’ 문제가 불가피하게 대두할 것이고 근로인민의 압도적 다수는 불가피하게 그 문제를 자국 부르주아지에게 유리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⁶⁷²⁾

트로츠키도 1938년 <<이행강령>>에서 이 사상을 강조했다. “전쟁 초기에는 제4 인터내셔널 지부들은 불가피하게 자신들이 고립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모든 전쟁은 국민 대중을 깜짝 놀라게 하여 그들을 통치기구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국제주

671) 같은 글

672) V.I. Lenin: Notes on the Tasks of our Delegation at The Hague (1922); in: LCW 33, p. 447

의자들은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⁶⁷³⁾

CWI로 하여금 이스라엘 – 원주 아랍 주민을 내쫓고 제국주의 열강이 들어
앉힌 식민 정착민 국가 – 의 존속을 방어하도록 이끈 것도 바로 그 동일한 방
법이다.⁶⁷⁴⁾ 피터 타페가 말했듯이, CWI는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의 파
괴와 팔레스타인 국가 –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소수자 권리를 부여하는 – 에
의한 그것의 대체를 지지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것에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소수자 권리를 부여하
는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사상이 여전히 등장한다. 그러한 추상적 슬로건은 이
스라엘 주민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⁶⁷⁵⁾

CWI와 IMT는 사회제국주의에 장단 맞추는 그 동일한 영합 논리를 좇아서
– 다른 수많은 중도주의 세력들처럼 – 오래 전에 시리아 혁명 지지 입장을 폐
기해버렸다. 벌써 수년 전부터 두 조직 모두 해방투쟁이 “종파적 내전”으로 타
락하여 어느 편도 지지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상황은 중동 지역을 집어삼키고 있는 위기의 진원지
가 지금 되고 있다. 제국주의의 유산으로부터 물려받은 질서가 각종 반동 세
력들 및 정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력 다툼의 영향으로 가장 잔혹
한 방식으로 폭발하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그릇되게도 일부 국제 좌파가

673) Leon Trotsky: The Death Agony of Capitalism and the Task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The Transi-
tional Program (1938);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New York 1973, p. 200. [트로츠키 <이행기
강령>, <사회혁명을 위한 이행기 강령>, 김성훈 옮김, 풀무질, 2003년, 87쪽]

674) CWI의 반동적인 이스라엘 국가 지지에 대한 RCIT의 비판으로는 다음을 보라. Yossi Schwarz: Occupied
Palestine / Israel: Dead End for the Two-State Solution, The Palestinian Liberation Struggle and the CWI's
Centrist Adaptation to Zionism, 12.11.2015, <https://www.theco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palestine-and-cwi/>; Michael Pröbsting: The CWI's "Socialist" Zionism and the Palestinian Liberation
Struggle. A Reply from the RCIT, 15.9.2014, <https://www.theco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wi-and-israel/>

675) Peter Taaffe: A socialist World is possible – the history of the CWI, 31.08.2004 <http://www.socialistworld.net/doc/4779>

아사드와 싸우는 무장 반군 — 대부분이 지하드 파 — 을 미화하거나, 아니면 이들을 위한 변호에 나서거나 하는 식으로 모종의 "진영론적" 태도를 취했다."⁶⁷⁶⁾

“이것은 근본적으로 튀니지와 이집트의 혁명적 운동들에 의해 고무 받은, 2011년 아사드 지배에 대항하는 진정한 대중봉기에 뒤이어 시리아에서 펼쳐진 반혁명의 결과다. 강력한 통일된 노동계급 조직들과 사회주의적 지도부가 부재한 가운데 종파 이슬람 세력들이 힘의 공백을 파고 들 수 있었고, 이를 반동 걸프 국가들과 터키, 그리고 서방 열강이 도왔다. 이로 인해 대중봉기가 잔악한, 다면적인 내전으로 타락했다.”⁶⁷⁷⁾

“체첸 분리주의” 를 지지해선 안 된다는 IMT 러시아

이와 같이 사회배외주의에 영합하는 또 다른 예는 체첸 인민의 독립 투쟁에 대해 IMT와 그 러시아 지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가 위에서 밝혔듯이, 체첸 인민은 1991/92년 소련 붕괴 이후 독립 국가를 선언하였고, 압도적인 러시아의 군사적 공격에 대항하여 2년간 영웅적으로 그들의 민족적 권리를 방어했다. 오늘, 러시아 제국주의의 현지 마름인 도살자 람잔 카디로프의 잔인한 억압에 대항하여 체첸 인민을 방어하는 것이 러시아 맑스주의자들의 임무다.

그러나 IMT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신의 국가를 세우길 바라는 체첸

676) CWI: Theses on Middle East, December 2016, <http://workerssocialistparty.co.za/committee-for-a-workers-international/cwi-international-executive-committee-2016/cwi-international-executive-committee-2016-doc-3/>

677) Niall Mulholland: Trump orders missile strikes against Shayrat air base, Committee for a Workers' International, The Socialist issue 944, 12 April 2017 https://www.socialistparty.org.uk/keyword/Committee_for_a_Workers_International/Cwi/25244/12-04-2017/attacks-ratchet-up-syrian-conflict-and-fuel-tensions-between-powers

인민의 명시적인 소망에도 불구하고 IMT는 러시아 사회배외주의에 영합한다. IMT는 “분리주의”를 비난하며 체첸 인을 비롯한 그 밖의 피억압 인민들에게 제국주의 러시아에 머물러 있으라고 요구한다.

“이와 같이 분리주의 — 그것이 러시아에서의 분리주의든, 우크라이나에서의 분리주의든 — 에 대하여 영토보전을 방어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그 문제의 군사적 해결 — 그것이 가능한 한 — 에 반대해선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또 우리가 부르주아 군대의 잔학행위에 반대해선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등등. 그러나 자결을 위한 민족 투쟁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분리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돈바스나 카프카스, 북동인도에서처럼 무장투쟁의 성격을 갖는 분리주의는 특히 그렇다. 종종 그러한 분리주의는 그 지역에서의 생산력 발전을 낮추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 여기서는 그러한 분리주의를 식민지의 해방을 위한 투쟁과 분리할 가치가 있다. 베트남, 알제리, 팔레스타인의 거주자들은 자신들의 억압국의 시민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 같은 경우에 민족국가 창설을 위한 투쟁은 평등을 위한 투쟁과 어우러진다... 민족적으로 동질적인 국가들은 민족적 문제들보다는 계급적 문제들로의 이동을 경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다. 아마도 이것은 20세기 전반부에서 진실이었다. 그러나 많은 다민족 제국들이 이미 붕괴했고, 현대 러시아는 이미 지난 세기 초에 비해 동질적이다. 따라서 동질성을 절대치로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다... 만약 우리가 소민족들이 거주하는 영토를 나라에서 분리한다면, 어디서도 이주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 민족주의는 주로 이주민을 겨냥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지시하는 것은, 자본주의 발전의 현 단계에서 어떤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분리하는 투쟁을, 특히 무장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다. 부르주아 정부들이 벌이고 있는 전쟁에 반대하여

싸우는 것, 그리고 미래의 사회주의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더 낫다.”⁶⁷⁸⁾

러시아 IMT 동지들의 이 발언에서는 사회배외주의에의 역겨운 영합이 배어나온다! 베트남, 알제리, 팔레스타인 인민의 민족해방 투쟁을 체첸 또는 카슈미르 인민의 민족해방 투쟁에 맞세우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억압 국가의 여권 [말하자면 주민증]을 가질 수 있느냐는 단지 형식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자신들의 억압 국가의 여권을 갖는 것은 확실히 체첸 인민이나 카슈미르 인민의 자발적인 소망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강요된 것이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실이 이들의 민족해방 투쟁을 지지하길 거부하기 위해 “맑스주의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

러시아가 “이미 지난 세기 초에 비해 동질적이다”라는 것은 확실히 맞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IMT는 러시아가 20세기 초에 했던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민족을 억압할 권리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런 권리는 없다. 맑스주의자들은 민족 억압의 모든 개별 케이스에 대해 건건이 반대한다. 우리는 피억압 민족의 해방투쟁을 지지한다. 그 투쟁이 무장투쟁이냐 비무장투쟁이냐에 관계없이, 그리고 억압 국가가 소민족을 하나만 지배하에 두느냐, 아니면 다섯 또는 열을 지배하에 두느냐에 관계없이 말이다!

CWI 정책의 사회배외주의적 논리를 드러내는 또 다른 예는 2008년 “영국 일자리는 영국 노동자에게” 구호 하에 벌인 파업에 대한 지지다. 당시 린지 정 유사의 영국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 고용을 중단시키기를 원했다. 후안무치하게도 이 반동적 파업은 노동조합 관료를 비롯하여 CWI와 IMT 같은 몇몇 사이비 트로츠키주의 조직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오늘 현재까지도 당당하게

678) IMT Russia: Украина и национальный вопрос (Ukraine and the national question), <http://www.1917.com/XML/E3YCowmZXwKhYk2bWYgKwrZ-I24.xml> (영역은 저자)

CWI 영국 지부는 자기 회원이 이 파업에서 리더였다고 자랑하기까지 한다.

같은 논리에서 CWI 지도부는 제국주의적 국경 통제 없이 국경을 넘을 이주자의 권리에 반대한다. 왜 반대인가? 다름 아니라 “노동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까. (명백히 CWI가 오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영국 노동귀족 노동자들이지, 남반구에서 살며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의 노동자 대중이 아니다!)⁶⁷⁹⁾

“물론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그 밖의 이주민들을 포함하여 노동자 계급의 가장 억압 받는 부분들을 방어해야 한다. 우리는 강고히 인종주의에 반대한다. 우리는 망명권을 방어하며, 구금 센터와 같은 억압적 조치의 종식을 주장한다. 동시에, 노동자계급 다수의 시각을 고려할 때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이민뿐만 아니라 그 외의 문제들에 관한 사회주의 강령을 설득시키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국경 개방’이나 ‘이민 통제 반대’ 같은 적나라한 [원문 그대로] 슬로건을 제출할 수 없다. 그러한 요구는 더 많은 수의 오랜 이주자들을 포함하여 노동자계급 대다수를 소외시킬 것이다. 그들은 그러한 요구를 일자리와 임금, 생활조건에 대한 위협으로 볼 것이다. 또 우리는 이민에 관해 우려를 표하는 노동자들을 ‘인종주의자’라고 내치는 오류를 범할 수 없다. 인종주의와 민족주의가 명백히 반 이민 감정의 요소들이지만, 이민 규모에 관해 우려하는 의식적으로 반인종주의적인 노동자들도 많다.”⁶⁸⁰⁾

679) 우리는 “진보적 입장”에서의 “국경 개방” 거부가 CWI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 예를 들어 Angela Nagle가 최근 발표한 논문 “The Left Case against Open Borders”는 우익 배외주의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American Affairs, Volume II, Number 4 (Winter 2018), pp. 17-30, <https://americanaffairsjournal.org/2018/11/the-left-case-against-open-borders/>). CWG 같은 일부 그룹들은 국경 개방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를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적 “논거”로 정당화하려고까지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Patriotic “Anti-Capitalism” for Fools. Yet Again on the CWG/LCC’s Support for “Workers” Immigration Control and Protectionism in the US, 30,5,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wg-lcc-us-protectionism/>; Michael Pröbsting and Andrew Walton: The Slogan of “Workers” Immigration Control: A Concession to Social-Chauvinism, 27,3,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kers-immigration-control/>; Michael Pröbsting and Andrew Walton: A Social-Chauvinist Defence of the Indefensible. Another Reply to the CWG/LCC’s Support for “Workers” Immigration Control, 14,5,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wg-immigration-control/>)

680) Socialist Party: British Perspectives 2013 (Congress Document), http://www.socialistparty.org.uk/partydoc/British_Perspectives_2013_a_Socialist_Party_congress_document/16413

CWI의 사회배외주의에의 영합은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한 별도의 소책자에서 보여주었듯이, CWI 지도부는 (제국주의) 민족국가가 (제국주의) 유럽연합보다 낫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입장을 정당화한다.⁶⁸¹⁾

이들 비겁한 기회주의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맑스주의자들은 모든 형태의 사회배외주의와 제국주의적 공격에 대하여 일관되게 싸운다. RCIT는, 그리고 비슷한 성향의 혁명가들은 추상적인 “반제국주의” 언사들에 만족하지 않고,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하여 싸우는 피억압 인민들을 편든다. 이미 노동자 다수자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것이 어느 입장인가, 이 입장인가 저 입장인가? 이것은 맑스주의자들에게 결정적 기준이 아니다. 그러한 압력을 견뎌내고 맑스주의 강령에 근거한 입장을 방어하는 것이 정확히 혁명적 전위조직의 임무다. 그러한 올바른 사상을 노동자계급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지, 노동자 다수자가 스스로 그러한 입장을 발전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투쟁의 상층에 있는 비혁명 세력을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그러한 견해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구실 삼아 정당한 해방투쟁을 버리는 짓은 하지 않는다. 반대다. 혁명가들은 강대국에 대항하는 모든 정당한 해방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그 투쟁이 비혁명 세력에 의해 이끌리는 투쟁일지라도 말이다. 이것이 볼셰비키와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방법이었고, 오늘 우리의 방법이다!

681)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British Left and the EU-Referendum: The Many Faces of pro-UK or pro-EU Social-Imperialism (Chapter II,2, SPEW/CWI: The Hidden Patriotic “Socialists”), August 2015,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british-left-and-eu-referendum/>

“식민지·보호령 체제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인도에서 영국 자본의 지배를, 조선 또는 만주에서 일본의 지배를, 인도차이나 또는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지배를 지지하는 자는 그 누구든, 식민지 노예화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는 자는 그 누구든, 간디주의, 즉 오직 무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에서 수동적 저항 정책을 방어하거나 이상화하는 자는 그 누구든... 제국주의자들과 노예소유주들과 군국주의자들의 시종, 변호론자, 하수인이며, 이들 상전이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돕는 자들이다.”⁶⁸²⁾

레닌은 자신의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을 “정정” 했는가?

불행히도, CWI와 IMT의 수정주의는 너무도 멀리까지 가버린 나머지 레닌이 그의 혁명적 패전주의 공식을 “과장”했고 나중에 스스로 정정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들 중도주의자들은 패전주의를 폐기하고 사회제국주의에 영합한 것에 대한 정당화를 이 같은 역사 날조에 근거하여 찾고 있다.

장문의 강령적 글에서 IMT의 핵심 지도자 앨런 우즈는 이 날조 건(件)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어 논증을 시도한다.

“추상적 정치와 변증법적 방법 간의 차이를, 1914-17년 기간에 혁명적 전술에 관한 레닌의 입장 진화가 보여준다. 1914년 8월에 제2인터내셔널의 분열은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낳았다. 사회민주주의의 전례 없는 배반에 비추어 볼 때 작고 고립된 맑스주의 세력들을 국제적으로 재정비하고 재교육하는 것이 필요했다. 레닌은 이 시기에 혁명적 국제주의의 기본 원칙들,

682) Leon Trotsky: Declaration to the Antiwar Congress at Amsterdam (1932), in: Writings 1932, S. 153

무엇보다도 구 인터내셔널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모든 형태의 애국주의에 대한 완강한 반대 (혁명적 패전주의)에 육중한 강조점을 두었다. 볼셰비키 지도자들의 의심과 동요에 맞서 싸우기 위해 레닌은 "제국주의 전쟁을 내란으로 전화하라", "자국 부르주아지가 패전하는 것이 가장 해악이 작다"와 같은 사상들을 가능한 한 가장 날카롭게 표현하였다. 때때로 그가 과장했다 [원문 그대로]는 주장도 가능하다. "막대를 곧게 펴기" 위해 레닌이 막대를 반대 방향으로 너무 구부린 것 [원문 그대로]은 처음이 아닐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서는 레닌이 옳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단지 그가 무엇을 썼는가가 아니라 왜 그것을 썼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혼란 상태로 끝나버릴 수 있다.

초좌익 종파주의 그룹들은 언제나 레닌의 말을 단 한 줄도 이해함이 없이 그저 반복할 뿐이다. 그들은 전쟁에 관한 그의 글들을 절대적인 그 무엇으로,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것으로 부여잡는다. 그들은 이 시기에 레닌이 대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층의 간부들을 위해 쓰고 있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배외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와의, 특히 그 왼쪽 날개 (카우츠키와 "중양"파)와의 그 어떤 화해도 불가능함을 강조하기 위해 레닌은 의심할 바 없이 과장된 [원문 그대로] 몇몇 정식화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과장은 레닌으로 하여금 트로츠키의 입장을 "중도주의"로 성격규정 하도록 이끌었는데, 이러한 규정은 전적으로 부정확했다. 이 시기 레닌의 입장에 대한 일면적인 해석으로부터 끝없는 혼란이 일었다.

1917년 3월 이후 러시아로 귀환해서 레닌은 자신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수정했다 [원문 그대로].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그의 반대, 또는 사회배외주의에 대한 그의 반대는 완강함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 그는 전쟁 문제에 관한 볼셰비키 지도자들의 그 어떤 뒷걸음질에 대해서도 계속 경계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대중의 살아 있는 운동이다. 1917

년 3월 이후 레닌의 입장은 그가 그 이전에 제출한 슬로건과 거의 닮은 구석이 없었다 [원문 그대로]. 그는 구체적 상황에서 노동자·농민 대중이 "혁명 방어" - 그들이 이해한 바의 - 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볼셰비키가 대중의 실제 분위기와 연결되려면,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만약 레닌이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면, 그것은 단지 교조적 공론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볼셰비키를 노동자·농민의 현실 운동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놓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오직 가망 없는 종파주의자들과 교조적 공론가들만이 그 차이를 보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실제로 "혁명적 패전주의" 슬로건은 대중을 10월혁명으로 준비시키는 데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⁶⁸³⁾

이 긴 인용문의 어느 문장 하나 맞는 것이 없다. "초좌익 종파들"을 조롱하는 앨런 우즈는 레닌과 트로츠키의 입장도, 역사적 사실들도 다 이해하지 못한다.

우즈는 레닌이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볼셰비키의 패전주의 강령을 "과장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는 나중에 레닌이 그것을 철회했다는 얘기가 된다. 실제로는, 우리가 위에서 보여주었듯이, 볼셰비키와 코민테른과 그리고 이어서 제4 인터내셔널은 레닌이 1914년에 제기한 모든 본질적인 사상과 슬로건을 확인하였다.

트로츠키 자신은 제4 인터내셔널 강령에서 혁명적 패전주의 원칙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국제 프롤레타리아트 정치의 근본 내용은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주적은 '자'국 내에 있다." 또는 "자'국 (제국주의) 정부가 패배하는 것이 가장 해악이

683) Alan Woods: Marxism and the State, International Marxist Tendency, December 2008, [http:// www.marxist.com/marxism-and-the-state-part-one.htm](http://www.marxist.com/marxism-and-the-state-part-one.htm)

작다." ... 억압국에 대항하는 피억압국의 전쟁에서 피억압국을 원조하는 것이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다. 소련을 원조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또는 전쟁 전이나 전쟁 중에 등장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노동자정부를 원조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 노동자국가나 식민지 나라와의 투쟁에서는 언제나 제국주의 정부가 패배하는 것이 가장 해악이 작다."⁶⁸⁴⁾

제4 인터내셔널의 또 다른 지도자 루돌프 클레멘트는 레닌주의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의 유효타당성을 다시 환기시켰다.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와 그 국가에 대항하여 혁명적 패전주의를 적용하는 데서 어떤 근본적인 차이도 존재할 수 없다. 즉 프롤레타리아트가 지지하는 대의에 그 제국주의 국가가 "우호적"인가, 적대적인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혁명적 패전주의는 적용된다. 또 그 제국주의 국가가 프롤레타리아트의 동맹군들(스탈린, 반식민지 나라의 부르주아지, 식민지 민족들, 반파쇼 자유주의)과 동맹 관계 - 기만적인 - 에 있는가, 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동맹군들에 대항하여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패전주의는 적용된다. 혁명적 패전주의의 방법들은 변경 없이 그대로다. 즉 혁명적 선전, 체제에 대한 비타협적인 반대, 그 순 경제적 형태로부터 그 가장 높은 정치적 형태(무장봉기)로까지 계급투쟁, 교전국 병사들 간의 친교, 전쟁의 내란으로의 전화."⁶⁸⁵⁾

엘런 우즈는 레닌이 1917년 2월 혁명 이후 러시아로 귀환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중도주의적 발명품일 뿐이다. 레닌이 한 것은 패전주의 입장이나 전쟁을 내란으로 전화할 필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

684) Leon Trotsky: The Death Agony of Capitalism and the Task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p. 200 (강조는 원저자). [트로츠키 〈이행기 강령〉, 〈사회혁명을 위한 이행기 강령〉], 김성훈 옮김, 풀무질, 2003년, 87쪽)

685) Rudolf Klement: Principles and Tactics in War

은 강령을 새로운 조건에 맞춰 변용하고 그것을 교육학적으로 대중에게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입장의 변화가 아니라 그 동일한 입장을 제시하는 방식의 변화다. 이는 1921년 코민테른 3차 대회 대표단에게 레닌이 한 다음과 같은 연설 내용으로부터 볼 때 분명해진다.

“전쟁 당초 우리 볼셰비키는 하나의 슬로건 - 내란 슬로건, 그것도 가차 없는 내란 - 을 고수했다. 우리는 내란 사상을 지지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배반자로 낙인찍었다. 그러나 우리가 1917년 3월에 러시아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 우리가 러시아에 귀환하여 농민과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우리는 그들이 모두 조국방위를 지지하는 것을 보았다. 물론 이 조국방위는 멘셰비키와는 아주 다른 의미에서였고, 우리는 이들 평범한 노동자·농민을 사기꾼, 배반자로 부를 수 없었다. 우리는 이를 "위선적이지 않은 방위주의"라고 지칭했다. 나는 이에 대해 장문의 논설을 쓰고 모든 자료를 공개할 작정이다. 4월 7일에 나의 테제를 발표했는데 거기서 나는 조심과 인내를 요구했다. 전쟁 당초 우리의 원래 입장은 옳았다. 그때 확실하고 단호한 중혁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했다. 우리의 그 뒤의 입장 또한 옳았다. 그 입장은 대중을 전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에 우리는 이미 즉각적인 임시정부 타도라는 생각을 거부했다. 나는 이렇게 썼다. "임시정부는 타도되어야 한다. 그것은 과도계 정부이지 인민의 정부가 아니며, 평화나 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바로 지금 타도될 수는 없다. 그것은 노동자 소비에트에 의해 권력을 유지해가고 있고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신임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블랑키주의자가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계급 다수자에 대항하여 소수자로 지배하기를 원치 않는다." 영악한 정치가들인 카데츠는 우리의 이전 입장과 새 입장 간의 모순을 즉시 알아차리고 우리를 위선자라고 불렀다. 그러더니 침도 마르기 전에 다시 우리를 간첩, 반역자, 사기꾼, 독일

하수인이라고 부르자 이전 호칭은 아무 인상도 주지 못했다. 4월 20일에 첫 위기가 발생했다. 밀류코프의 다다넬스 해협 각서를 통해 정부가 제국주의 정부임이 폭로된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 무장한 병사 대중은 정부 건물을 향해 이동하여 밀류코프를 타도했다. 그들을 이끈 것은 린데라는 이름의 무당파 사람이었다. 이 운동은 당이 조직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당시 이 운동을 다음과 같이 성격규정 했다. 무력시위보다는 그 이상의 것이고 무장봉기보다는 못한 것이라고. 4월 22일 열린 우리 총회에서 좌익 조류는 즉각적인 정부 타도를 요구했다. 반대로 중앙위원회는 내란 슬로건에 반대한다고 선언했고, 우리는 불세비키기 내란을 원하고 있다는 동의 터무니없는 거짓 말을 부인하라고 각지의 모든 선동가들에게 지시했다. 4월 22일에 나는 "임시정부 타도" 슬로건은 부정확하다고 썼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뒤에 다수자의 지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슬로건은 공문구이거나 아니면 모험주의일 것이기 때문이다."⁶⁸⁶⁾

이와 같이 우리는 레닌과 불세비키가 이 기간 내내 바로 그 동일한 전략 목표 - 제국주의 전쟁의 내란으로의 전화, 부르주아 정부 타도와 노동자계급 권력 쟁취 - 를 위해 싸운 것을 본다. 레닌과 불세비키는 이러한 강령 쪽으로 먼저 전위를, 그리고 나중에 대중을 전취하고자 했다. 이것 말고 다른 방식일 수가 없을 터, 왜냐하면 전위를 앞서 전취해놓지 않고서 대중을 전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CWI와 IMT는 대중은 고사하고 전위를 혁명적 패전주의 쪽으로 전취하고자 해본 적조차도 없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구실을 대며 변명한다. 마치 CWI와 IMT가 노동자계급 다수자를 전취하는 과제와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불세비키가 그 세가 가장 약했던 단계 만큼에도 가까이 가본 적이 없다. 그들은 노동자

686) V. I. Lenin: The Third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Speeches At A Meeting Of Members Of The German, Polish, Czechoslovak, Hungarian And Italian Delegations, 11.7.1921, in: LCW Vol. 42, p. 325

제공 다수자를 전취하는 과제를 가지고 머리를 쥐어짜기 전에 전쟁에서 혁명적 패전주의 쪽으로 이삼천 명의 전위 노동자들을 전취하려고 노력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들은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 왜인가? 그들 자신이, 지도부를 비롯해 수년간 기회주의로 훈련된 회원들 다수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맑스주의적 입장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CWI와 IMT 지도자들이 노동자들이 소위 이해한다고 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관한 그들의 언사 뒤에 감추려고 하는 진실이 바로 이것이다.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고전적 맑스주의 입장에 대한 CWI와 IMT의 해석은 철저한 날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발적인 날조가 아니다. 피터 타페의 CWI와 앨런 우즈의 IMT가 서 있는 테드 그란트의 전통 전체가 개량주의 관료의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체계적으로 영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CWI/IMT의 년센스가 나온다. 즉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평화적인 이행, 부르주아 의회에서 “사회주의적 다수파”를 통한 변혁 가능성이라는 낯선 사상, 경찰을 “제복 입은 노동자”라는 성격규정 등등과 같은 헛소리 말이다.⁶⁸⁷⁾ 이러한 극단적인 우익 기회주의가 제국주의의 가장 날카로운 형태 중 하나인 제국주의 전쟁 문제에서도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이 바로 위와 같은 내용이다.

CWI와 IMT가 가속화하고 있는 강대국 패권쟁투와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에서 쓸모없는 중도주의자들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사회제국주의 논리의 탓에 빠진 그들로서는 강대국 간 충돌에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을 적용하는 것도, 피억압자의 투쟁을 지지하는 친 해방주의 강령을 위해 싸우

68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Five days that shook Britain but didn't wake up the left, The bankruptcy of the left during the August uprising of the oppressed in Britain: Its features, its roots and the way forward,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1, pp. 30-31 (September 2011),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britain-left-and-the-uprising/sp-and-committee-for-a-workers-international>

는 것도 모두 가능하지 않다.

러시아사회주의운동(RSM): 뒤죽박죽 절충주의자들

마지막으로, 만델주의 “제4인터내셔널” 성원들 다수를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러시아의 중도주의 그룹을 간략히 다루어보자. 명예롭게도 이 조직은 러시아 내 제 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하며 비 러시아 계 인민을 차별하는 언어 법에 반대한다. 또 그들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에 반대한다. 이 점에서 그들은 주가노프 등등과 같은 대러시아 스탈린주의자들과는 명백히 대조된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독립 체첸 국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할 의무감을 느낀다! 그들의 강령에서 바로 그렇게 쓰고 있다.

“우리 RSM은 민족자결권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강제로 제 민족을 러시아 내에 묶어두는 것은 유혈 충돌과 나라의 붕괴만을 가져올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체첸 또는 그 밖의 민족들의 분리는 이들 민족의 근로인민에게 진정한 독립도, 평화도, 번영도 그 어느 것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작은, 경제적으로 약한 국가들의 수립은 불가피하게 그 국가들을 제국주의 나라들의 빈곤한 반식민지로 전화시켜 약탈과 정치적 불안정의 운명으로 빠져들게 한다.”⁶⁸⁸⁾

진정한 번영은 체첸과 러시아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사회주

688) Russian Socialist Movement: Программа (Program), <http://anticapitalist.ru/programm/> (영역은 저자)

의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확실히 진실이다. 그러나 도대체 왜 체첸인이 러시아 군인들과 그들의 현지 시종들에 의해 매일매일 굴욕당하고 위협받는 것은 적어도 면한 빈곤한 반식민지 대신 빈곤한 식민지에 사는 것을 선호해야 한다는 것인가?! 혹은 체첸이 푸틴과 카디로프의 피 묻은 군화 아래 있는 황폐화된 식민지라는 사실을 RSM은 부정하길 원하는 것인가?!

불행히도 RSM은 러시아 배외주의에 대한 이 같은 양보를 유럽 제국주의에 대한 기괴한 환상 전파와 결합시켜나간다. “사회주의 러시아는 유럽연합에 합류해야 한다”! 이러한 백치 같은 제안이 EU를 개혁한다는 개량주의적 전망에 대한 지지와 결합되어 있다. 나아가 RSM은 유럽좌파당의 이러한 헛소리를 반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가서 이것이 “세계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가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러시아가 유럽연합 구조들을 비롯한 그 밖의 통합 구조들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다. 그러한 가입이 국제 제국주의와 자본축적 논리에 대한 우리의 예측을 뜻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말이다. 우리는 EU의 탈 관료화와 현 상층 차원의 국가연합으로부터 단일한 “정치적 국민국가”로의 전화를 위한 유럽 좌파 정당들 및 정치가들의 제안을 지지한다. 아마도 이러한 시나리오가 우리나라에서 백 년 전 우리가 꿈꾼 세계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가는 오늘날 최선의 길이 아닌가 한다.”⁶⁸⁹⁾

사실을 말하자면, EU는 언제나 제국주의 기구였고, 그 말고는 다른 것일 수가 없다. 그 EU에 합류할 것, “그러나 제국주의 예측은 없이” 합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동굴에서 회색곰에 합류하라는, “그러나 곰이 당신을 건드리지

689) Russian Socialist Movement: Социализм и загадка наций (No to Imperial language policies!), 27.06.2016, <http://anticapitalist.ru/2016/06/27/337/> (영역은 저자)

않는다는 조건 하에” 합류하라는 것만큼 현실적이다. RSM 지도자들은 이 같은 엽기적인 생각에 만족하지 않고, “EU의 탈 관료화”는 EU를 선진 사회주의의 도구로 되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제안하기까지 한다! 러시아에서든, 유럽에서든 “탈 관료화”에 의해 사회주의혁명이 가능한 곳은 없다. 그러한 전진은 “탈 관료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본가계급을 수탈 몰수하고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파괴함으로써만 가능하다.

RSM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 같은 친 EU 제국주의적 결론에 도달하는가? RSM은 그 간부들 다수가 EU가 자금을 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유럽대학원(EUSP)과 친해지는 데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일종의 ILO 식 계급협조주의를 진흥하는 CLR(노동자권리캠페인) 노조의 관료 지도부들에게 목표 지향을 맞추는 간부들의 행보와 접점을 만들 수 있을까?

5부:
반제국주의 투쟁을
조직하는 임무

29장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혁명적 세계당 건설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도 세계가 파국과 격변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자본주의의 쇠퇴·부후화(腐朽化)는 강대국들을 - 오랜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강대국들도 - 밀어부쳐 서로 싸우게 하고 피억압 인민들에 대한 착취의 끈을 바짝 조이게 하고 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무역전쟁과 외교적 긴장, 그리고 중국에는 제국주의 열강 간의 본격적인 전쟁과 나아가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킨다. 똑같이 불가피하게도 그것은 제국주의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한 군사개입의 증대와 함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 수탈로 결과한다.

이러한 사태 전개가 특별히 나쁜 개인들에 의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다른 누군가로 대체된다면 미국이 트위터 메시지를 덜 날리고 영문법을 잘 지키는 대통령을 가지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세계정치의 근본적인 동역학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세계를 나락으로 몰고 갈 기세로 위협하고 있는 것은 미치광이 개인들이 아니라 쇠퇴·부후화에 처한 자본주의다.

구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구원은 오직 집행될 수 있을 뿐이다. 제국주의 독점체와 제국주의 정부를 겨냥한 집행이다.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의

강력한 개입에 의한 집행이다. 자생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일어날 수도 없는 개입, 오직 계획되고 조직되어야만 하는 개입이다. 계획자들 없이는 계획이 있을 수 없고, 조직자들 없이는 조직이 있을 수 없다. 달리 말하면, 혁명당 없이는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의 의식적 개입이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에 앞서 준(準)당적 조직의 창건 없이는 당이 존재하게 될 수 없다.⁶⁹⁰⁾ 그러한 당은 강령과 전략·전술과 투쟁 계획을 정립할 수 있다. “공산당은 노동자계급 해방을 위한 주요 근본 무기다”⁶⁹¹⁾라는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테제는 그 유효 타당함을 잃지 않고 있다.

레온 트로츠키는 1924년 그의 핵심 문서 중의 하나인 <<10월의 교훈>>에서 다음과 같은 통렬한 말로 이러한 결론을 요약했다.

“당이 없이는, 또는 당과 떨어져서는, 당의 머리 위에 있어서는, 당의 모조품을 가지고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승리할 수 없다. 이것이 지난 10년의 주요 교훈이다.”⁶⁹²⁾

자본주의는 세계적 체제로 존재하고 또 세계적 체제로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노동자계급은 일국적 지형 위에서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제적 지형 위에서도 조직하고 싸워야 한다. 일국적으로 고립된 조직으로 아메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일국 중심

690) 혁명당에 대한 RCIT의 분석은,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Building the Revolutionary Party in Theory and Practice, Looking Back and Ahead after 25 Years of Organized Struggle for Bolshevism, Vienna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cit-party-building/>

691) Communist International: Theses on the Role of the Communist Party in the Proletarian Revolution, approved by the Second Comintern Congress (1920); in: John Riddell (Ed.): Workers of the World and Oppressed Peoples, Unite! (Volume 1), Proceedings and Documents of the Second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920, p. 200

692) Leon Trotsky: The Lessons of October (1924); in: Leon Trotsky: The Challenge of the Left Opposition (1923-25),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5, p. 252

주의는 언제나 틀렸다.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일국적·민족적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강령을 일국적 경계 위로, 일국 중심적 이해관계 위로 치켜들 수 있는 조직이 (노동자계급에게) 필요한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그러한 일국 중심주의는 파멸적이다.

RCIT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것을 반복해보겠다. 그 시작부터 진정으로 혁명적인 당 또는 준 당적 조직은 국제적 대형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국제적 조직으로만 우리는 진정으로 국제주의적인 시각과 전망을 발전시킬 수 있고, 국제적 경험을 내면화할 수 있으며 국제주의적 혁명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한 그룹이 일국적 조직으로 너무 오랜 동안 존재하면, 일국 중심적 경험과 시각을 발전시킬 심각한 위험으로 치달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비혁명적 경험과 시각을 뜻한다!

또 당의 국제적 성격은 혁명적 강령과 혁명적 활동의 본성에 부합한다. 혁명적 강령이 오직 혁명적 투사들의 조직으로 살아 숨 쉬고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국제적 강령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연대도 오직 국제적 조직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이 없이는 일국 중심주의가, 그리고 끝내는 민족주의적 일탈이 불가피하다. 올바르게도 트로츠키는 “‘일국에서’의 맑스주의적 정책이란 ‘일국에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만큼이나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⁶⁹³⁾

이러한 인식은 트로츠키가 여러 논설과 편지 속에서 설명했듯이, 당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준 당적 조직에 대해서도 진실이다.

“바로 그 첫 발걸음부터 좌익반대파는 국제적 정파로 행동해야 한다. <<공산당 선언>> 발표 당시의 공산주의자들 또는 전쟁 초기 치머발트 좌파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랬듯이 말이다. 이 모든 경우에서 그 그룹들은 대부분 수

693) Leon Trotsky: Unifying the Left Opposition (1930); in: Writings 1930, p. 99

적으로 소규모였거나 고립된 개인들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제적 조직으로 행동했다. 제국주의 시대에 이러한 입장은 맑스의 시대에 그랬던 것보다 백배는 더 필요하다.

국제적 좌익이 어느 날 일국 그룹들의 단순한 총합으로 형성될 것으로 믿는, 따라서 국제적 통합은 일국 그룹들이 "성장해서 강력해질" 때까지 무한정 연기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국제적 요인에 단지 부차적 중요성만 두며, 바로 이 이유에 의해 일국적 기회주의의 길을 밟는다.

각 나라가 자신의 고유한 특수성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이러한 특수성은 오직 국제주의적 관점으로부터만 혁명적 방식으로 검증되고 활용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직 국제적 조직만이 국제적 이데올로기의 담지자가 될 수 있다.

각자로 나누어지고 각자 자신의 자원만 남겨진 고립된 좌익반대파 일국 그룹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그 누구든 진지하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일국적 타락과 종파주의와 파멸로 가는 확실한 길이다. 국제 반대파가 직면한 임무는 굉장히 어렵다. 오직 뗄 수 없이 함께 묶임으로써만, 모든 현안에 공동으로 답을 만들어냄으로써만, 자신의 국제적 정강을 만들어냄으로써만,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상호 검증함으로써만, 즉 단일의 국제 조직으로 통일함으로써만 좌익반대파의 일국 그룹들은 자신의 역사적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⁶⁹⁴⁾

혁명적 세계당 건설 조건의 변화

혁명당 건설의 조건이 레닌 시대와는 아주 다르다고 반론할지 모른다. 이것

694) Leon Trotsky: An Open Letter to All Members of the Leninbund (1930); in: Writings 1930, pp. 91–92

은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정확히 어디에 차이가 놓여 있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산력의 발전은 교육수준, 숙련, 통신기술 등등에 확실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오늘, 노동자계급의 교육수준은 과거보다 명백히 훨씬 더 높다. 이것은 혁명가들이 그들의 선동·선전을 확산시키는 것을 더 쉽게 해준다. 인터넷과 스마트폰도 소통 방식을 변화시키고 국제 협력을 훨씬 더 쉽게 해준다. 인명 살상도 군대가 현대식 기관총과 드론, 핵무기를 가지면서 훨씬 더 쉬워졌다.

그러나 이 모든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핵심은 바뀌지 않았다. 노동자계급의 착취는 가난한 농민들의 참상과 함께 계속해서 존재한다. 무기는 바뀌었지만, 제국주의 전쟁의 반동적 성격은 그대로 같다.

그렇다고 혁명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부정해선 안 된다. 이미 우리가 <<남반구에 대한 대 강탈>>에서 설명했고, 본서에서도 간략히 개괄했듯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중요한 이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 기존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중국과 반식민지 남반구로 국제 노동자계급의 중요한 이동이 있었다. 이것은 혁명적 세계당 건설의 우선순위에 심원한 결과를 미쳤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조직은 오늘날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약 85%가 일하며 싸우고 있는 나라들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백 년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3/4이 유럽과 북미에 포진해 있었을 때 이들 지역에 혁명 사업의 초점을 두는 것은 어느 정도 정당화의 여지가 존재했다. 그러나 당시에조차 공산주의자들은 식민지 인민 속에서의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오늘, 역관계가 뒤집어져서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4/5가 중국과 러시아 같은 새로운 제국주의 나라들 및 반식민지 나라들에 포진해 있는 조건에서 여전히 기존 제국주의 국가들에 당 건설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후진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후진적인 *제1세계주의*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제1세계주의는 철저히 반동적이고 혁명적 세계당 건설에 방해물이다!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하나 변화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훨씬 더 부유해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지배계급이 노동자계급과 청년층을 포섭하고 조종하기 위해 더 촘촘히 짜인 상부구조를 구축할 기회를 벌였음을 의미한다. 그와 함께 지배계급이 노동귀족을 매수하고 포섭할 자원 또한 늘어났다.

덧붙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도로 모순적인 사태 전개를 볼 수 있다. 지난 몇 십 년의 세계화 기간 동안 특수한 불일치가 생겨나 더 강화되었다. 한편으로 세계는 어느 때보다도 더 -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권 (인터넷, 스마트폰 등)과 이민, 여행 등등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 “통합”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불평등도 - 나라들 간에, 그리고 각국 내에 - 증대했다.

이러한 조합의 결과로 두 세계 - 부국과 빈국, 상층과 하층 - 간의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태 전개에 대한 우익적 반영이 새뮤얼 헌팅턴의 유명한 “문명 충돌” 테제다.⁶⁹⁵⁾ 이러한 충돌이 자유주의적 중간계급과 노동귀족을 떠밀어 도심과 교외의 “서민들” 및 남반구의 “뒤떨어진 야만인들”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특권을 완고히 방어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광신적인 무슬림들”에 대항하여 부르주아 세속주의를 옹호하는, 또는 “어리석은, 가짜뉴스에 조종 받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교육 받은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는 기관들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들이 이를 정당화해준다. 물론 중간계급과 노동귀족도 긴축 시대에 고통 받고 있다. 그러나 세계 노동자계급의 거대 다수 - 중간계급과 노동귀족은 이들 거대 다수와의 접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 와 비교할 때 그들은 여전히 고도로 특권적이다. 이러한 모순은 그 동안 전 세계

695) 다음을 보라.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Simon & Schuster, New York 1996

자본주의적 가치의 태반이 더 이상 기존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창출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의해 강화되었다.

이것은 유일한 요인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요인인데⁶⁹⁶⁾, 왜냐하면 제국주의 나라들의 이른바 좌익 내부에 양극화가 증대하고 있고, 많은 개량주의자들과 중도주의자들이 이주 청년들의 봉기와 아랍 혁명에 대해 적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사태 발전이 개량주의적·중도주의적 좌익 속에서 귀족주의 경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혁명가들이 귀족주의와 싸우고, 방향성을 프롤레타리아트 하층 및 반식민지 나라의 인민대중에게 맞출 것을 더욱 더 긴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혁명적 세력은 오늘 훨씬 더 약하며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의식은 백 년 전 보다 더 뒤떨어져 있다. 동시에, 개량주의 관료와 소부르주아 인민주의 세력의 영향은 상당히 증대했다.

이러한 불리한 사태 발전을 인정하는 것이 비관주의와 같은 것이 아니며, 이른바 좌익 사이에 그리도 널리 퍼진 회의주의와 냉소주의를 정당화하는 것도 확실히 아니다.

첫째, 대중의 의식 발전에 작용하는 주된 요인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 및 계급 간, 국가 간 모순의 객관적 발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와 가난한 농민들의 의식을 깨운 것은 소수 불세비키의 비합법 문헌이었다기보다는, 일차적으로 그들의 잔혹한 생활 조건과 함께 1904/5년 및 1914-17년의 전쟁 - 특히 지배계급이 심한 패전을 당하고 위신을 잃었을 때 - 이었다. 의심

696) 기존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개량주의·중도주의 계열 내 상당 부문들 속에서 반동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a) 격화하는 강대국 간 패권쟁투, b) 1968년 이후, 그리고 1989-91년 스탈린주의의 붕괴 이후 노동운동이 겪은 정치적 패배들 (이 패배는 노동운동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조직적 쇠퇴로 표현되었다).

할 바 없이, 다가오는 시기는 경제적·생태적 파국과 정치적 위기, 군사적 재앙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맑스주의자들에게 계급투쟁에 관여하여 노동자와 피억압자에게 혁명적 강령의 기초 위에서 조직화해야 할 필요를 설명할 풍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오늘날 혁명가들이 백 년 전에 비해 수적으로 훨씬 더 소규모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 간, 계급 간 모순의 가속화가 불가피하게 개량주의·인민주의 기구를 약화, 실추시키고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을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다. 사회제국주의와 평화주의 사상들이 반동적인 강대국 정책과 정치적 위기에 의해 폭로될 것이다. 모든 강대국으로부터의 독립과 모든 해방투쟁에 대한 지지에 기초한 노동자계급 국제주의 노선이 그 흡입력을 높여갈 것이다.

우리는 혁명가들이 이러한 평가, 판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a) 소규모 세력들을 원칙 있는 기초 위에서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b) 새 당은 투쟁 속에서 경험을 획득하고 있는 새로운 노동계급·청년 활동가 층과 우리의 강령을 융합시키는 것에 의해서만 건설될 수 있다. 그들은 아직 정치적으로 미숙하지만 전투적이고 새로운 사상에 열려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혁명가들이 향해야 할 환경이며, 이러한 환경의 도움으로 혁명적 세계당이 건설될 것이다!

새로운 전투적 노동자계급·청년층을 향하여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이슈에 주목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오늘 혁명적 맑스주의와 각종 색조의 중도주의를 가르치는 주된 분할 선은 “후진” 대중에 대한

접근방식이다. 그러한 “후진” 대중은 종교적 영감으로 고무된 소부르주아 이데올로기들 아래 결집하여 강대국과 그들의 현지 마름 독재자에 대항하여 싸우는 노동자와 가난한 농민들일 수 있고, 민족주의 깃발 아래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피억압 인민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2005년 파리 외곽 방리유의 전투적 청년들일 수도, 혹은 2011년 토트넘의 흑인들과 전투적 청년들일 수도, 2018년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를 벌이는 도시 근교의 대중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러 차례 논의했듯이, 맑스주의자들은 이러한 투쟁들을 정력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그 투쟁들의 소부르주아 지도부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정치적으로 덜 발달한 대중의 의식에도 불구하고 말이다.⁶⁹⁷⁾ “후진” 대중을 오만하게 내려다보며 그들의 투쟁에 비켜서 있길 좋아하는 (또는 심지어 “세속주의”나 “공공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적들을 지지하길 좋아하는) 각종 중도주의자들과는 대조적으로, 혁명가들은 전심전력으로 그러한 노동자·피억압자의 해방투쟁들을 편들고 함께 한다. 중도주의자들은 그러한 대중은 절망적으로 뒤떨어져 있고, 그들이 깨우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 때서야 비로소 그들과 힘을 합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와는 달리 맑스주의자들은 이들 대중이 여전히 잘못된 이데올로기들을 따르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억압자들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만큼 이들 싸우는 대중과 지금 바로 함께 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정치적으로 깨우치고 의식

69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France: Defend the “Yellow Vests” Movement against State Repression! 03.12.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france-defend-the-yellow-vests-movement-against-state-repression/>; Nina Gunić and Michael Pröbsting: These are not “riots” – this is an uprising of the poor in the cities of Britain! The strategic task: From the uprising to the revolution!, 10.8.2011, <http://www.rkob.net/new-english-language-site-1/uprising-of-the-poor-in-britain/>; Michael Pröbsting: The August uprising of the poor and nationally and racially oppressed in Britain: What would a revolutionary organisation have done?, 18.8.2011, <http://www.rkob.net/new-english-language-site-1/august-uprising-what-should-have-been-done/>; Bericht der RKOB-Delegation über ihren Aufenthalt in London 2011, <http://www.rkob.net/international/berichte-uprising-in-gb/>, Michael Pröbsting: Britain: “The left” and the August Uprising, 1 September 201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britain-left-and-the-uprising/>

을 발전시키는 것을 도울 것이다.

트로츠키는 이들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적확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했다.

“이 문제에서조차도 레데부어의 입장은 중도주의의 경내를 떠나지 않는다. 레데부어는 식민지 억압에 대하여 전투를 벌일 것을 요구한다. 그는 의회에서 식민 공채에 반대투표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진압 당한 식민지 봉기의 희생자들에 대한 두려움 없는 방어를 떠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식민지 봉기를 준비하는 데 참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일을 폭동주의, 모험주의, 불세비즘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민족 문제에서 불세비즘을 특징짓는 것은, 불세비즘이 피억압 민족에 대한 – 심지어 가장 뒤떨어진 민족에 대해서도 – 그 태도에서 그들을 정치의 대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도 또한 간주한다는 것이다. 불세비즘은 그들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이 권리를 짓밟는 것에 대한 의회적 항의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는다. 불세비즘은 피억압 민족의 한가운데로 침투한다. 불세비즘은 그들을 그들의 억압자들에 대하여 일으켜 세운다. 불세비즘은 그들의 투쟁을 자본주의 나라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과 하나로 묶는다. 불세비즘은 억압 받는 중국인이나 힌두인 또는 아랍인에게 봉기의 기술을 가르치고, 문명화된 처형자들에 맞서서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여기서 비로소 불세비즘이 시작된다. 즉 혁명적 맑스주의가 작동한다. 이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은 모두 중도주의로 남아 있다.”

이것은 당 건설에서 어느 층들한테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에서 맑스주의와 중도주의 간의, 불세비즘과 멘세비즘 간의 전략적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멘세비키는 언제나 인텔리와 노동자계급 상층을 향한 데 반해 불세비키는 우선하여 노동자계급 하층(청년을 포함하여)을 향했다. 트로츠키

는 다음과 같은 정식화로 이 접근법을 요약했다. “볼셰비즘의 강점과 의미는 볼셰비즘이 노동자계급의 상층이 아니라 피억압·피착취 대중에게 호소한다는 사실에 있다.”⁶⁹⁸⁾

당 건설에서 볼셰비즘과 멘셰비즘 간의 이러한 차이는 혁명의 전략적 노선에서의 차이와 관련된 것이다. 멘셰비키는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를 다가오는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핵심 동맹군으로 간주했다. 반면에 그들은 농민에 대해서는 계급투쟁에서 어떠한 진보적 역할도 담당할 수 없는 보수적인, 뒤떨어진 대중이라고 생각했다. 대조적으로 볼셰비키는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를 혁명적 투쟁에서 핵심 적군으로 간주하는 반면, 가난한 농민 대중에 대해서는 노동자계급의 가장 중요한 동맹군이라고 보았다. 레닌은 이러한 전략적 방향상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러시아의 1905년 혁명과 그 뒤의 반혁명기의 경험은, 우리나라에서 대중에 대한 지도력을 놓고 두 계급 — 프롤레타리아트와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 — 간의 투쟁이 있었다는 의미에서 혁명의 두 가지 방향이 제기되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프롤레타리아트는 혁명적 방식으로 앞장서서, 군주제와 지주 타도 쪽으로 민주주의적 농민을 이끌었다. 농민이 민주주의적 의미에서 혁명적 경향을 드러냈음은 모든 거대한 정치적 사건들에 의해 대대적인 규모로 증명되었다...”

‘전략적’ 수단으로부터가 아니라, 사실들로부터 추론한 바, 러시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제1방향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저 없는 투쟁과 그 뒤를 농민이 주저하면서 쫓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 두 계급은 군주제와 지주에 반대하여 싸웠다. 이 두 계급의 힘과 결의의 부족이 결국 패배를 초래했다. (전제정에 부분적인 파열을 냈음에도 말이다).

698) Leon Trotsky: Perspectives and Tasks in the East, Speech on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Communist University for the Toilers of the East (21, April 1924); in: Leon Trotsky Speaks, Pathfinder 1972, p. 205

제2의 방향은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의 행태로 나타났다. 통일된 세력으로서 카데츠와 10월당원들이 이 방향을 대표한다고, 우리 볼셰비키는, 특히 1906년 봄 이래 항상 말해왔다. 1905-15년의 10년은 우리의 견해가 옳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투쟁의 결정적 순간에 카데츠는 10월당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파를 배반하고, 짜르와 지주를 살리는 일에 나섰다...

볼셰비키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의식적으로 제1의 방향을 밝아, 최고의 용기로 싸워서 농민을 이끌도록 도왔다. 멘셰비키는 끊임없이 제2의 방향으로 빠져 들어갔다. 불리긴 두마(1905년 8월)에 들어가는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1906년에는 카데츠 내각을 지지하고 1907년에는 민주주의의 파에 반대하여 카데츠와 블록을 형성하는 등, 프롤레타리아트의 운동을 자유주의자들에게 순응시킴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를 타락시켰다...

오직 이 조류들 - 볼셰비키적 조류와 멘셰비키적 조류 - 만이 1904-06년에도, 그 후의 1908-14년에도 대중의 정치 속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이것은 왜인가? 오직 이 조류들만이 확고한 계급적 뿌리를 - 제1조류는 프롤레타리아트에, 제2조류는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에 -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⁶⁹⁹⁾

당연히, 21세기 초 세계자본주의의 구체적 상황은 한 세기 전 러시아와는 다르다. 그러나 계급적 방향에서 기회주의와 맑스주의 간의 기본 차이는 여전히 같다. 개량주의자들은 “진보적” 부르주아지 부문과의 동맹을, 미 제국주의와 대립하는 다른 강대국과의 동맹을, 계몽된 지식인과의 동맹을 지향한다. 한편 그들은 “초보적” 대중, “교육 받지 못한” 하층, 종교적 성향의 이주자 청년, “알라후 아크바르 (신은 위대하시다)”를 외치는 남반구의 “광신적인” 사 람들을 경멸한다. 중도주의자들은 통상 개량주의자들을 뒤 따라, 정치적 신참

699) V. I. Lenin: On the Two Lines in the Revolution (1915), in: LCW Vol. 21, pp. 416-417. [레닌 <혁명의 두 가지 방향에 대하여>,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257-9쪽]

노동자들과 방리유의 이주자 청년들보다 대학의 “교육 받은” 사람들과 노동관료들을 좋아한다.

21세기의 불세비즘은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나 강대국과의 어떠한 동맹도 단호히 반대한다. 혁명가들은 대중을 결집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통일전선 전술을 노동관료들과 진보 지식인들에게 적용하지만 그 초점은 이들 “후진” 대중 속에서 활동하는 것에 둔다. 이 문제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않고서 21세기에 혁명당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방해물로서의 개량주의 · 중도주의

제국주의와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은 두 가지 상호 연관된 기본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a) 모든 강대국 - 동 · 서 강대국들 모두 - 에 대항하여 싸운다.

b) 강대국 또는 강대국의 반동적 마름에 대항하여 노동자와 피억압 인민들의 모든 해방투쟁을 지지한다.

자기 정책의 기초를 이 두 상호 연관된 원칙에 두지 않는 그 어떤 조직도 일관된 반제국주의 강령을 실행할 수 없다.⁷⁰⁰⁾

제국주의와 전쟁에 대항하여 노동자계급을 결집시키는 투쟁은 진공 속에서

700) 다음의 RCIT 강령 문서들을 보라. “The Revolutionary Communist Manifesto” (2012)와 “Manifesto for Revolutionary Liberation” (2016). 두 문서 모두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온라인상에서 읽을 수 있고,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rcit-manifesto/>, <https://www.thecommunists.net/rcit-program-2016/>. [후자의 문서는 국역되어 있다. <쇠퇴하는 자본주의에 맞선 해방투쟁의 임무;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강령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rcit-manifesto-2016-korean/>]

일어나지 않는다. 이 점은 분명하며, 본서에서 우리는 이 점을 상세히 증명해 보였다. 실제로 공식 노동자운동은 친 서방 또는 친 동방(친 중·러) 사회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중간에서 동요하는 각종 중도주의 세력은 자신들의 지난 강령적 실패 지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개량주의 관료에 기회주의적으로 영합한 과오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

따라서 노동자 전위를, 그리고 노동자 전위를 통한 프롤레타리아 대중을 전취하기 위한 혁명적 조직의 투쟁은 불가피하게 이들 사회제국주의·사회평화주의 세력들과의 투쟁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지배계급이 그 지배를 성공적으로 유지해 온 것은 지배계급 자신의 내적 힘 때문이 아니라 지배계급이 노동관료로부터 받는 지지 때문임을 맑스주의자들은 반복해서 강조해왔다. 미국 공산주의 및 트로츠키주의의 역사적인 지도자 제임스 캐넌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자본주의의 힘은 그 자신 및 자신의 제도·기관들에 있지 않다. 자본주의가 살아남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가 노동자 조직들에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다.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 혁명과 그 여파로부터 우리가 배운 것에 비추어 볼 때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열에 아홉은 노동자 조직들 – 당을 포함하여 – 내에서 부르주아적 영향력과의 투쟁이다.”⁷⁰¹⁾

그리고 실로 모든 친 서방·친 중러 사회제국주의 세력들은 이러한 부르주아 영향력을 노동자운동에 실어 나르는 하수인들이다. 그들은 이 또는 저 강대국을 돕고, 이로써 국제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고 혼란시킨다.

우리가 앞 장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스탈린주의, 전(前)스탈린주의, 준 개량

701) James P. Cannon: E.V. Debs (1956); in: James P. Cannon: The First Ten Years of American Communism, Pathfinder Press, New York 1962, p. 270

주의 세력들은 이 또는 저 제국주의 강대국에 - 공공연하게든 은폐된 형태로든 - 봉사한다. 각종 중도주의자들은 러시아·중국의 진정한 성격을 이해할 수 없고, 그리하여 가속화하는 강대국 패권쟁투 시기 - 혁명가들이 모든 제국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시기 - 로서의 현 시기의 본질을 인정하는데 실패한다. 마찬가지로 그들 중의 많은 이들이 이 또는 저 강대국에 대항하여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데도 실패한다.

이들 개량주의·중도주의 세력들이 국제 노동자계급의 해방투쟁에 *방해물*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노동자 전위를 일관된 반제국주의 강령 쪽으로 전취하는 투쟁은 사회제국주의자들 및 사회평화주의자들의 영향력과의 정력적인 투쟁 없이는 전진할 수 없다.

실제로 이들 개량주의·중도주의 세력들 다수는 향후 계급투쟁에서 그 어떤 진보적 역할도 담당하기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썩었다. RCIT는 수년, 수십년 이래 부르주아 질서에 영합해오고 있는 이러한 세력들의 일종의 자기 치유 과정을 혁명가들이 기대한다면 이는 오류라고 본다. 일차적으로 미래의 혁명당은 개량주의 당이나 중도주의 당의 파편들로부터가 아니라, 새로 부상하는 전투적 노동자계급·피억압자 층들로부터 건설될 것이다. 이들 신참 분자들은 건강한 기풍과 해방투쟁의 대의에 대한 전투적 헌신으로 혁명당 건설을 위한 역동적이고 풍성한 재료를 공급해줄 것이다.

우리가 위에서 밝혔듯이,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은 동시에 노동자·피억압자의 해방에 *찬성*하는 투쟁이다. 혁명적 조직은 프롤레타리아트를 대신하는 대리주의적 투쟁으로 이러한 투쟁을 수행할 수 없고, 오직 프롤레타리아 대중 속에 박힌 강력한 뿌리를 가지고서만, 그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만 이러한 투쟁을 수행할 수 있다.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개량주의·중도주의 세력들이

배외주의적 압력에 굴복한 수많은 경우들은 자신의 기초를 노동자계급 하층에, 피억압 대중에, 이주자에, 유색 인민에 두는 데 실패한 것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혁명적 조직은 지식인과 노동관료들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하층·피억압층에서 나온 활동가들이 주도적 다수를 이루는 조직원 구조와 지도부를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오늘 혁명적 인터내셔널은 그 주요 토대를 북미와 서유럽의 기존 제국주의 대도시들에 두어서는 안 된다. 21세기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거대 다수 - 약 85% - 가 남반구에, 즉 기존 제국주의 대도시의 외부에 살고 있는 시대에 혁명적 세계당은 주되게 이들 대중 속에서 건설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 진정한 혁명적 세력이 약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주의혁명 세계당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당을 건설하는 데는 대중 속에서 뿌리를 구축하고 기간 활동가들을 교육하고 실천적 검증을 거치는 등등의 보다 긴 과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어려움과 취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실망할 이유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기존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정력적으로 일에 착수할 이유가 될 따름이다.

유명한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다음과 같은 말은 그 의의를 잃지 않고 있다. *Fata volentem ducunt, nolentem trahunt* (운명은 의지를 보이는 자는 인도해 주고, 내켜하지 않는 자는 끌고 간다). 의심의 여지없이, “운명” (즉 계급투쟁의 법칙)은 수정주의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싸우고 배울 의지를 보이는 혁명가들은 다가오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계급투쟁의 폭풍을, 해방투쟁의 강력한 도구 제작을 앞당기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오늘 RCIT는 이러한 세계당 건설에 투신한 준 당적 조직이다. 우리는 아직 작은 조직이지만, 지난 7년을 거치면서 모든 대륙의 18개 나라에 지부와 자매

그룹을 가진 국제 조직을 만들 수 있었다. 우리는 세계 계급투쟁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서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하는 전 세계의 모든 혁명적 조직들과 활동가들에 손을 뻗는다. 혁명적 세계당 건설에 힘을 합치자! 모든 강대국에 대항하여 싸우는, 그리고 노동자·피억압자의 모든 해방투쟁을 지지하는 공동의 국제 조직을 건설하자.

이 투쟁에 우리와 함께 하자! RCIT와 함께 하자!

부록 :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집행위원회 결의,
2018년 9월 8일

1. 격화하고 있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미국 · 유럽연합 · 중국 · 러시아 · 일본) 간 패권 경쟁이 세계 무역전쟁 발발과 함께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로써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모든 사회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2.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과 그로 인한 모든 강대국들 간 패권쟁투의 가속화는 (RCIT가 여러 차례 설명해 왔듯이) 2008년에 그 뚜껑이 열린 새로운 역사적 시기의 핵심 특징이다. 이 역사적인 자본주의 위기의 시기에 모든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계급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공격의 고삐를 죄고 있다.

- i)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의 강화
- ii) 이들 나라의 이주민 소수자에 대한 억압 및 초과착취의 강화

- iii) 반(半)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억압 및 초과착취의 강화
- iv) “테러와의 전쟁” 같은 위선적인 구호 하에 반식민지 세계에 대한 군사개입 및 침략전쟁의 강화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 v) 상대방 경쟁국에 대한 경제제재와 무역전쟁의 사용 증가
- vi) 상대방 경쟁국을 겨냥한 군비 및 군국주의 프로파간다의 강화 (미국 · 일본 대 중국, 미국 · EU 대 러시아 등등)

3. 이런 목적으로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계급들 (트럼프, 시진핑, 푸틴 정부들로 대표되는)은 대국 배외주의(쇼비니즘) 공세를 대폭 강화해 왔고, 이후에도 이를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국수주의(군국주의적, 공격적 배외주의)는 경쟁 강대국 및 특히 피억압 민족과 민족 소수자 (즉 반식민지 나라의 인민과 제국주의 국가의 이주자 · 민족소수자)를 상대로 한 것이다.

4. 만약 노동자계급이 제국주의 전쟁광들에 반대하여 나서서 그들을 타도하지 못하면, 이 무역전쟁과 전쟁 위협은 최종적으로는 3차 세계대전으로 결과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당면한 미래에 일어날 법하지는 않지만, RCIT는 노동자 전위에게 강대국 패권쟁투의 역사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가능한 빠르게 혁명적 투쟁 강령의 기초 위에서 결집할 것을 촉구한다.

5. 제국주의 나라의 혁명가들은 이 같은 제국주의적 배외주의와 군사주의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여 싸우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RCIT는 우리 운동의 고전적 강령인, 통상 혁명적 패전주의 정식(定式)으로 요약되는 강령에 입각해 있다. 기본적으로 이 혁명적 패전주의는 맑스주의 강령 및 일반 계급투쟁 방법을

반배외주의·반군국주의 투쟁의 지형에 적용한 것에 다름 아니다.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은, 노동자계급은 그 본질상 국제적 계급이라는 공리에 기초해 있다. 그와 같이 노동자계급의 이해는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이해와 가장 침예하게 대립한다.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이 그들의 사장과 그 어떤 공통의 이해도 가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은 해당 자본주의 국가의 지배계급과 그 어떤 공통의 이해도 가지지 않는다. 아니, 정반대로 노동자들이 ‘자기’ 회사의 오너를 타격하고 패배를 안기고 마침내 몰수 수탈하길 원하듯이, 해당 자본주의 나라의 노동자들도 ‘자국’ 지배계급을 타격하고 패배를 안기고 마침내 타도하길 원한다. (이와 같이, “패전주의” 범주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제국주의 전쟁에서 지배계급의 패배를 요구한 볼셰비키의 입장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들의 계급적 적이 연루된 모든 분쟁·충돌을 그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투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활용할 것이다.

6.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분쟁·충돌 시에 RCIT는 전 세계의 노동자·인민 조직들에게 단호히 국제 노동자계급 연대의 원칙을 기초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그들이 *양쪽 어느 진영도 지지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상대방 제국주의 진영뿐만 아니라 ‘자’국 지배계급을 편드는 것 또한 거부해야 한다.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들을 타도하라 — 그것이 미국이든 EU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나아가 강대국이 아닌, 호주, 남한 같은 하위의 제국주의 국가도 마찬가지다). 사회주의자는 지배계급의 그 어떤 배외주의적 선전도 전면 거부한다. 사회주의자는 ‘자’국 지배계급을 지지하지 않으며, 비타협적인 계급투쟁을 제창한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혁명가 칼 리프크네히트가 제창한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유명한 구호를 받아 안아). 전쟁 시

에 이 전략은, 1914년에 레닌과 볼셰비키 당이 정식화한 바, 혁명가들은 “제국주의 전쟁의 내란으로의 전화”를 위해 투쟁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전쟁 조건 하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력 쟁취 투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같은 정신으로 우리는 세계무역전쟁을 국내의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정치적 계급투쟁으로 전화할 것을 제창한다. 이 같은 강령이야말로 세계의 노동자계급을 국제주의적 기초 위에서 통일 단결시키는 단 하나의 길이다. 또 “애국주의적” 단결로 노동자들을 ‘자국’의 제국주의 부르주아지 및 노동자운동 내 이들 부르주아지의 시종들과 한 데 묶어놓고 있는 사슬을 깨는 단 하나의 길이다.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은 단지 전쟁이 발발해야만 유효성을 가지기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때에야 비로소 그 강령을 위해 투쟁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늦을 것이다), 지금부터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프로그램이다.

7. 보다 구체적으로, RCIT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제국주의 국가 간 충돌에서 다음과 같은 전술을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i) 사회주의자들은 한 나라 인민의 다른 나라 인민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적 배외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 같은 국수주의는 노동 인민의 의식을 타락 오염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그 어떤 형태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강대국 지지에 대해서도 단호한 반대 투쟁을 펼쳐야 한다. 그 강대국이 ‘자’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든, 외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든.

ii) 제국주의 경쟁국에 대한 모든 종류의 경제제재 및 무역전쟁 조치에 반대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의무다.

iii)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형태의 강대국 간 군사주의와 군비경

쟁과 전쟁에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

iv) 노동계급 조직들이 의회 기구에 대표자를 두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 같은 일체의 배외주의적 조치들에 반대투표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 그러나 결정적 계급투쟁 영역은 의회가 아니라 공장·직장을 비롯하여 지역, 학교·대학, 병영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선전물을 배포하고 계급투쟁적 행동(시위, 총파업으로 나아가는 파업, 항쟁·봉기 등)을 선동해야 하는 곳은 여기다.

v) 분쟁에 있는 제국주의 나라들 각각에서 혁명가들은 국경을 가로질러 사회주의자들, 노동조합, 그리고 그 밖의 노동자·인민 대중조직들의 공동 성명과 공동 활동을 제창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들은 구체적인 국제적 노동자계급 연대의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8.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와 피억압 인민 간의 분쟁·충돌 시에 RCIT는 전 세계 노동자·인민 조직들에게 단호히 혁명적 반제국주의와 노동계급 국제주의의 정신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제국주의 침략자에 반대하여 피억압 인민을 무조건 지지하고 제국주의 침략자의 패배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들은 반제국주의 통일전선 전술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는 피억압 인민을 대표하는 세력을 편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력의 지도부(보통 소부르주아 민족주의자나 이슬람주의자, 때로는 심지어 식민지 부르주아 국가)에게 정치적 지지를 보내지 않으면서 말이다. 제국주의 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은 대국 특권을 지지하는 사회배외주의자들에 대항하여, 그리고 또한 피억압자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기를 기피하고 기권하는 비겁한 중도주의자들에 대항하여 가차 없이 투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피억압자들의 반제국주의적 애국주의를 지지하여 그들이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적 의식을 발전시키도

록 돕는다. 오직 이 같은 강령의 기초 위에서만 사회주의자들이 피억압 민족의 노동자·빈농과 제국주의 나라의 진보적 노동자 간의 신뢰와 통일 단결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오직 이 같은 토대 위에서만 국제 노동자계급을 국제주의적 기초 위에서 통일 단결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9, 보다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RCIT는 다음과 같은 전술을 제창한다.

i) 반식민지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의 비군사적 공격(예를 들어 북한, 이란,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경제제재) 시에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공격에 무조건 반대하여, 그것을 타격, 저지하고 중단시킬 조치들을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해 투쟁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또는 보유하려고 하는) 반식민지 나라에 대한 그 어떤 제국주의적 공격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

ii) 반식민지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 전쟁 및 점령(예를 들어 2001년 아프간, 2003년 이라크에서 미국, 2013년 이레 말리에서 프랑스, 2015년 이레 시리아에서 러시아,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식민 정주자 국가) 시에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침략자의 패배와 피억압 인민을 대표하는 세력의 군사적 승리를 요구한다. 강대국을 대신하여 그 대리인 군대가 침략할 시에도 동일한 전술이 요구된다.(소말리아에서 아프리카연합군 [AU forces], 서아프리카에서 사헬 지대 G5 합동군).

iii)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들은 민족 소수자에 대한 억압에 무조건 반대하며, 피억압 인민의 민족자결권을(예를 들어 러시아의 체첸 인을 비롯한 그 밖의 카프카스 인, 중국의 위구르인과 티베트인, 스페인의 카탈루냐) 완전히 지지한다. 이는 그들의 모든 민족적, 민주적, 문화적 권리들을(그들이 원할 경

우 독자 국가를 가질 권리를 포함하여)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로마 족,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 등과 같은 인종 소수자의 자치정부를 지지한다.

iv) 같은 정신으로 사회주의자들은 민족 억압과 인종 차별에 반대하여 이주민과 난민을 방어한다. 이 같은 방어에는 이주민의 완전한 평등권 (모어[母語] 사용, 시민권, 동일임금, 이슬람 혐오 인종주의에 맞서 무슬림 이주민과의 완전한 연대 등등)이 포함된다. 또 우리는 인종주의적 공격에 맞서 이주민과 난민을 물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통일전선 (정당방위대 등)을 요구한다. 이는 또한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인종주의적 이민 통제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과 난민에 대한 “국경 개방”을 방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실제 사례가 트럼프의 이민자 집단 추방과 “무슬림 입국 금지”, EU의 국경관리기구 '프론텍스'(Frontex), 러시아의 카프카스 및 중앙아시아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다.

v) 피억압 인민의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 · 소부르주아 세력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독자적 조직화를 촉진토록 하는 것, 여기에 전략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오직 이 같은 정치적 · 조직적 독자화의 기초 위에서만 노동자계급은 피억압 인민의 여타 계급 · 계층들을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굴레로부터의 해방으로 이끌 수 있다.

vi) 이러한 목표를 위한 투쟁을 밀어가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은 작업장 · 직장, 지역, 학교 · 대학, 참호에서 선동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세국주의 침략자를 패퇴시키기 위한 피억압자의 투쟁을 촉진하는 것을 도울 일체의 실천 행동을 지지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모든 형태의 계급투쟁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시위, 총파업에 이르는 파업, 항쟁 · 봉기, 참전 등등). 또 ‘자’국 지

배계급의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는 사보타지 행동 (제국주의 전쟁기구를 겨냥한 선별 파업, 억압에 봉사하는 노동을 집단 거부하기, 난민이 제국주의 요새의 야만적 장벽을 넘도록 돕기 등등)도 포함된다. 나아가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군대의 일반 사병들 속에서, 군 장성들의 반동적 통제를 와해시키고 대량 탈영 및 “적군”과의 친교를 촉진하기 위한 정치선동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피억압 인민이 다른 국가들 (제국주의 국가들을 포함하여)로부터 군사적 원조를 비롯한 그 밖의 물질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방어한다. 그 원조가 이들 국가에 대한 정치적 종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한에서 말이다. 이에 대한 네거티브 사례가 미 제국주의의 대리인이 된 시리아의 소부르주아 쿠르드 ‘인민수비대’(YPG)다. 해방투쟁에 대한 이 같은 물질적 원조에 대해 이들 국가의 노동자들은 마땅히 지지해야 하며,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vii) 최근 역사에는 UN (또는 개별 국가)이 특히 반동적인 국가에 대해 정식으로 제재 (예를 들어 1994년 이전의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한 — 진보적 대중운동의 압력 하에 — 드문 경우들이 있었다. 현재 많은 무슬림 국가들이 제국주의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반식민지 나라들이 가하는 그 같은 제재에 대해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비판적으로 지지한다. 제국주의 국가가 그러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것이 경쟁 상대방 제국주의 국가나 또는 순종하지 않는 반식민지 나라에 가하는 반동적인 제재와는 같은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로서 우리는 시온주의 국가 같은 반동 세력에 대한 노동자·인민 제재를 제창한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 및 군사 원조를 저지하는 노동자 행동, 소비자 보이콧 등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BDS 캠페인 (이스라엘 제품에 대한 불매[Boycott], 투자 철회

[Divestment], 경제제재[Sanction]를 뜻하는 약자)을 비판적으로 지지한다.

viii) 마찬가지로 혁명가들은 제국주의 나라와 반식민지 나라 각각의 사회주의자들, 노동조합, 그리고 그 밖의 노동자·인민 대중조직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공동 성명과 공동 활동을 제창한다.

10. 혁명적 패전주의의 두 가지 근본적인 측면 – (i) 강대국 간 분쟁에서 어느 쪽 편들기도 거부하기, (ii) 제국주의자들을 패퇴시키기 위해 피억압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기 – 은 **떨 수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강대국 간 긴장은 많은 부분 각 강대국 지배계급들이 서로 경쟁 상대방을 희생시켜 남반구에서 자신의 세력권을 확대시키려는 데서 비롯한다. 피억압 인민에 대한 억압과 초과착취는 강대국들의 세계 지배 드라이브에 의해 결정된다.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에 대한 완전한 지지 없는 강대국 반대는 잘해야 “순수관념적 반제국주의”고, 최악으로는 “은폐된 사회제국주의”다. 모든 강대국에 대한 단호한 반대 없이 이 또는 저 해방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하나의 제국주의 진영에 대해 다른 한 제국주의 진영을 편드는, 그리하여 해방투쟁 세력을 이 또는 저 강대국의 대리인으로 전화시키는 위험을 수반한다.

11. 강대국 간 모순이 격화하고 있는 최근의 사태 전개는 맑스주의의 기본 진실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는, 그리고 특수하게 제국주의는 **세계 체제**이며, 세계 체제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진실 말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 고통과 참화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답은 일국적·민족적 고립이 될 수 없다. 이는 현대 생산력의 국제적 성격을 전제할 때 불가피하게 빈곤과 낙후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공상적 대안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적 세계화도, 제

국주의적 보호주의도 모두 반대한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사회주의 세계경제와 세계적 규모의 노동자·농민 공화국 연방* 창설을 위한 국제적 계급투쟁이다. 이러한 강령은 세계당을, 즉 *일국적으로 고립된* 그룹들이 아닌 *국제적* 조직을 요구한다.

12. 이로부터, 수많은 운동들, 즉 이 또는 저 신자유주의 공격에 대항하는, 이 또는 저 전쟁에 대항하는 운동들을 *국제적 규모*로 모아내야 할 긴급함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이 모든 운동들이 *일국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그나마 가장 나은 경우가 *역내 협력·연대*다. 그러나 세계무역전쟁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 간 긴장 고조 시대에, 전 세계에 걸친 제국주의적 도발·침략 시대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노동자·인민 운동들(노동조합을 포함하여)*을 국제 수준에서 통일 단결시키는 것이다. 2003년 2월 15일에 1500만-2000만 명이 참가한 이라크 전 반대 글로벌 행동의 날, 세계사회포럼 운동, 국제노동조합연맹들의 창설 등은 국제적 단결이 가능한 사례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하루를 넘어 그 이상으로 지속하는, *관료적 기획조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국제적 단결이 필요하다. 우리는 새로운 노동자·청년·피억압인민의 전 세계 대중운동이 필요하다!*

13. RCIT는 피억압자의 폭력 없이 제국주의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하는 소부르주아 평화주의 강령을 비난한다. 역사는 그와는 다른 것을 증명한다. 반전/평화 투쟁이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혁명적 타도와 결합하지 않는 한 그 같은 반전 평화 전략은 전전(戰前)의 제국주의적 “평화” - 즉 불가피하게 제국주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평화 - 로 돌아가자는 것을 의

미할 뿐이다. 혁명가들은 혼란을 조성하는 전문가 평화주의자들에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지만, 일반 대중들 속에서의 평화 염원에 대해서는 교육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평화 슬로건은 그것이 혁명적인 반(反)군국주의 투쟁 강령 속에 통합될 때에만 진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14. 지난 몇 십 년 사이에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이민이 대대적으로 증가하고 그로 인해 제국주의 대도시에서 이주민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은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에 아주 중대한 의미를 던지고 있다. 이들 이주민 (2세대, 3세대 자녀들을 포함하여)은 민족 소수자로서 체계적으로 억압 받고 초과착취 당하며,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노동자계급의 유의미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이주민은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데, 일반적으로는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에, 특수하게는 혁명적 패전주의 전략에 미치는 중요성에서 그러하다. 실제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정책은 모든 진보적 조직에게 리트머스 시험지다. 진보적 조직들이 제국주의 전쟁의 압력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시험대인 것이다. 이주민들 속에는 모종의 출세주의자나 일종의 부역자 같은 “초애국주의자”가 있지만, 이주민의 절대 다수는 보통 가난한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로 그들의 새로운 제국주의 “조국”에 대한 일체성은 사실상 극히 낮다. 이 점은 제국주의 나라에 살고 있는 이주민의 원래 모국과 그 제국주의 나라 간의 모든 축구경기에서 상징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주민은 제국주의 정착국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모국에 열정적으로 편을 든다.(예를 들어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 대 터키, 프랑스 대 알제리, 미국 대 멕시코). 요컨대 혁명가들은 이주민에 대한 배외주의적 증오와 이른바 “난민 위기” 운운 공포 분위기 조성을 각국 노동자·피억압자의 국제적 통일 단결을 만들어내

는 방향으로 바꿔내고자 분투한다. 이러한 통일 단결은 당면의 경제적·정치적 요구를 위한 공동 투쟁, 이민자의 민주적 제 권리를 위한 공동 투쟁, 남반구 노동자·피억압자의 해방투쟁과의 국제 연대를 위한 공동 투쟁의 기초 위에서 이룩될 수 있다

15. 최근의 또 하나 중요한 발전은 국제 노동자계급의 4분의 3 이상이, 즉 세계 노동자 거대 다수가 더 이상 기존 제국주의 국가들(미국, 서유럽, 일본)이 아니라 반식민지 나라들과 중국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나라에서의 노동자·피억압자의 투쟁은 기존 제국주의 나라들에서의 생활수준을 좌우하는 전 세계 자본주의 가치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6. 반면, 제국주의자들은 오늘날 노동자계급과 피억압자들을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조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본주의 미디어의 두터운 거미줄(TV, 인터넷, 소셜 미디어, 무료 신문 등)을 쳐놓고 있다. 이것은 사회가 “테러 공격”과 “난민 유입 물결”의 상시적인 위협에 처해 있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특수 효과를 노리고서 활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부르주아지는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권리 축소나 반식민지 나라들에서의 쿠데타 지원(2016년 브라질에서와 같은)을 위해 독점화된 미디어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소셜 미디어를 포함하여)의 대량 보급이 노동자와 피억압자에게 세계적 규모로 정보를 교환하고 운동을 조직하는 훨씬 더 효과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다. 피억압자의 목소리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이들 미디어를 활용하도록 노동자 전위를 고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17.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은 각국 지배계급들이 *국내 전선에서 노동자·인민 대중의 정치적 지지에 더욱 더 의존하는* 상황을 낳았다. 이러한 상황은 제국주의자들이 그들 군대의 사상자를 가능한 한 줄이도록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는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자국 군대의 상당 부분을 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그 손실이 베트남 전쟁이나 한국 전쟁 때보다 훨씬 더 적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마찬가지로 경우로, 이스라엘은 2006년 여름 헤즈볼라와의 전쟁에서 (배치된 군인 3만 명 중) 단지 122명 전사만으로도 패전했다. 요컨대 퇴락해가는 제국주의 사회들은 정의로운 대의를 위해 싸우는 피억압 인민보다 *타격 흡수 능력이 훨씬 더 저하되어 있다.* 제국주의 국가의 혁명가들은 이를 활용하여 인민들 속에서의 배외주의적 “모랄”을 더 한층 약화시키고 국제주의적 연대를 제창함으로써 피억압자의 투쟁을 원조할 수 있다.

18. 맑스주의 전통은 개량주의 세력을 노동운동 내 부르주아지의 하수인으로, 중도주의자들을 이들 개량주의 세력에 기회주의적으로 영합하는 자들로 항상 규정해 왔다. 기존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노동자운동의 대대적인 부르주아화, 개량주의 당들이 노동귀족 중심으로 점점 더 협소화되고 제한되는 상황, 중도주의 세력 다수의 일차적인 지향이 개량주의적인 학술 씨클들의 소부르주아 세계로 맞춰지고 있는 상황, 이 모든 것이 제국주의와의 관계에서 이들 세력의 정치적 타락 심화를 가져오고 있다.

19. 많은 개량주의자·중도주의자들의 수정주의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취하고 있다.

1) *현 시기의 핵심 특징으로서 강대국 패권쟁투를 인정하길 거부한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정하길 거부한다.* 유럽좌파당은 맑스주의적 제국주의론 전반을 공공연하게 거부한다. CWI(노동자 인터내셔널 위원회)나 IMT(국제 맑스주의 경향) 같은 조직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이따금씩 인정하지만, 이로부터 어떠한 결론도 끌어내지 않는다. 대부분의 스탈린주의자들과 일부 중도주의자들 (예를 들어 PO/CRFI [아르헨티나 노동자당/제4인터내셔널 재건 위원회], 이른바 스파르타시스트 등)은 심지어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 또는 “기형화된 노동자국가”라고 규정한다. 그 결과로 많은 개량주의·중도주의 세력들이 서방 제국주의나 중·러 제국주의 어느 한 편에 기회주의적으로 영합한다. (친 서방 사회제국주의와 친 중·러 사회제국주의). 이 같은 예로 남아공공산당의 친중 행보, EU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그리스 시리자(SYRIZA; 유럽좌파당 소속)의 지지, 2014년 이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각종 러시아 스탈린주의 조직들 (추가노프의 KPRF, 라케프의 UCP, 툴킨의 RKRP)의 제국주의 러시아 지지, 일본공산당이 중국에 반대하여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을 지지하는 것, CWI의 서방 제국주의에의 영합 (1982년 말비나스 전쟁에서 은밀한 영국 지지, 시온주의 지지, 미국/영국에 맞서 이라크, 아프간을 방어하길 거부하기) 등등을 보라. 개량주의·중도주의 세력들이 사이비 패전주의를 전도하는 모습도 보인다. 실제로는 전도된 *사회 배외주의*인 이 까자 패전주의는 ‘자’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와 대립 충돌하고 있는 다른 강대국에 기회주의적으로 영합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는 1933-45년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개량주의자·중도주의자들이 친 영·불 입장을 취한 것과 1940-41년에 스탈린주의자들이 나치 독일에 추파를 보낸 것 등이 있다.) 현재 우리는 미국과 서유럽의 각종 스탈린주의자들과 중도

주의자들이 러·중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을 본다. (두건의 유라시아주의를 지지하여 러시아 제국주의 쪽으로 기울고 있는 서유럽의 각종 초 반동 파시스트 그룹들도 이러한 반동적 “패전주의”를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ii) 개량주의·중도주의 세력들은 *제국주의 침략자와 그들의 남반구 현지 마름들에 맞서 피억압 인민의 민족·민주주의 해방투쟁을 지지하길 거부한다.* 각종 스탈린주의자들과 중도주의자들은 심지어 제국주의 전쟁을 부끄럼 없이 지지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공산당은 ‘자국’의 연립정부 참가 정당으로서 1999년 유고슬라비아, 2001년 아프간에 대한 침공 전쟁을 지지했고, 또 2013년 말리, 2014년 이라크에 대한 군사 개입도 지지했다. 또 하나의 예로 러시아의 스탈린주의 조직들이 푸틴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 전쟁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들 스탈린주의자들과 중도주의자들은 또 시리아의 아사드나 이집트의 시시 군부정권 같은 친 제국주의 독재를 편든다. (미국의 WWP, PSL, ANSWER, 영국의 “맞불”[Counterfire] 그룹과 “전쟁저지연합” 등. 또 앨런 우즈의 IMT와 모레노 파의 LIT는 2013년 7월 이집트에서의 군사 쿠데타를 “제2의 혁명”이라고 찬양했다.)

iii) 거의 모든 개량주의자들·중도주의자들은 *이주민의 완전한 평등권을 일관되게 지지하길 거부한다. 또 난민에 대한 국경 개방을 위해 투쟁하길 거부한다.* 집권당으로서 그리스의 시리자는 EU 제국주의의 난민 공격 (프론텍스 프로그램 등)에 완전한 공동 책임이 있다. 각종 가짜 사회주의자들은 노동 시장에서 이주민 배제를 위한 사회배외주의 캠페인을 지지한다. (예를 들어 2009년 “영국의 일자리는 영국 노동자에게” 구호 하의 파업을 지지한 영국 노조관료, 스탈린주의 영국공산당(CPB), 중도주의 CWI/ IMT 등). 사회배외주의의 또 다른 예를 보라. 프랑스공산당은 이슬람 혐오 잡지 샤를리 엡도를 위한 반

동적인 “내가 샤를리 엡도다” 캠페인을 지지했다. 또 2015년 테러 공격 후 올랑드 정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의회에서 찬성투표를 했다.

20. 결론적으로 RCIT는 현 시기 도전 과제들에 대한 대응으로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강령 없이는 그 어느 사회주의 조직도 격화하는 강대국 간 패권쟁투 및 노동자계급·피억압인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 및 그들 마름들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특징지어지는 현 시기에 올바른 투쟁방향을 찾을 수 없다. RCIT는 모든 해방전사들에게 혁명적 세계당 건설 투쟁에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요구한다. 전 세계적 제국주의 타도와 억압·착취 없는 사회주의 사회 쟁취를 위해 일관되게 투쟁하는 세계당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 이러한 세계당 건설은 무엇보다도 ‘자’국 강대국 또는 어느 다른 강대국에 영합하는 모든 사회제국주의자들에 맞선 단호한 투쟁을 요구한다. 또 강대국들 및 그들의 남반구 현지 마름 정권들에 맞서 피억압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길 거부하는 모든 수정주의자들을 노동자운동에서 몰아내는 투쟁을 또한 요구한다. 세계당 없이는 국제적 규모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대항하는 일관된 강령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21. 당연히, 그러한 세계당 건설은 대중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기간 활동가들을 교육하고 실천적 검증을 거치는 등등의 보다 긴 과정을 요구한다. 오늘 RCIT는 그러한 세계당 건설에 투신한 준 당적 조직이다. 현재 우리는 미래 세계당의 중핵일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세계당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세계당은 단독으로 일국적 지형 위에서 건설될 수는 없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모든 정치적 기형성을 지닌 일국 중심적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밖에 되

지 않을 것이다. 오직 국제적 강령을 기초로 한 국제 계급투쟁의 참호 속에서만 세계당 건설은 이루어질 수 있다. RCIT는 전 세계의 모든 혁명가들에게 이 가장 중요한 임무에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자 · 피억압자: 모든 강대국 (미 · 중 · EU · 러 · 일)에 맞서 투쟁하자!

모든 강대국에 반대하는 투쟁의 국제적 통일 단결!

강대국들 간 분쟁 · 충돌에서: 주적은 국내에 있다! 세계무역전쟁을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으로 전화시키자! 제국주의 전쟁을 혁명적 내란으로 전화시키자!

강대국들 및 그들의 남반구 현지 마름 정권들에 맞선 노동자 · 피억압자의 모든 해방투쟁을 지지하자! 그러나 이들 투쟁의 비혁명적 지도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보내서는 안 된다!

이주민에 대한 배외주의적 증오와 이른바 “난민 위기” 운운 공포 분위기 조성을 각국 노동자 · 피억압자의 국제적 통일단결 구축으로 전화시키자! 당면의 경제적 · 정치적 요구를 위해, 이주자의 민주적 제 권리를 위해, 남반구 노동자 · 피억압자의 해방투쟁과의 국제 연대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

만국의 노동자 · 피억압자여, 단결하라!

사회주의 없이 미래는 없다! 혁명 없이 사회주의는 없다! 혁명적 세계당 없이 혁명은 없다!

RCIT 건설로, 새로운 사회주의혁명 세계당 건설로 전진하자!

참고문헌 Bibliography

Many works of Karl Marx, Friedrich Engels, Vladimir Illich Lenin, Leon Trotsky and Rosa Luxemburg are available in the internet at www.marxists.org.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레온 트로츠키, 로자 룩셈부르크의 저작들은 인터넷 사이트 www.marxists.org. 에서 구해 볼 수 있다.

Abraham Ascher: The Revolution of 1905. Vol. 1 and 2,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1992

Agence France-Presse: Chinese companies push out Japan on Fortune Global 500 list, July 9, 2012, <http://www.rawstory.com/rs/2012/07/09/chinese-companies-push-out-japan-on-fortune-global-500-list/>

Russia says over 63,000 troops have fought in Syria, August 22, 2018, <https://www.yahoo.com/news/russia-says-over-63-000-troops-fought-syria-141424820.html>

Allen, Barbara C.: Alexander Shlyapnikov, 1885-1937. Life of an Old Bolshevik, Haymarket Books, Chicago 2015

Allison, Graham T.: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 s Trap? Houghton Mifflin Harcourt, New York 2017; Graham Allison: China and Russia: A Strategic Alliance in the Making, December 14, 2018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china-and-russia-strategic-alliance-making-38727>

The Thucydides Trap: Are the U.S. and China Headed for War? Sep 24, 2015 The Atlantic,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5/09/united-states-china-war-thucydides-trap/406756/>

Alvaredo, Facundo, Lucas Chancel, Thomas Piketty, Emmanuel Saez, Gabriel Zucman:

World Inequality Report 2018

Armstrong, Martin: World Trade - Who is Really Hurt in the Trade War,

- April 7, 2018 Arrighi, Giovanni and Beverly J. Silver: Chaos and Governance in the Modern World Syste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1999
- Arslanalp, Serkan and Takahiro Tsuda: Tracking Global Demand for Emerging Market Sovereign Deb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king Paper, March 2014
- Astrow, W., A. Slepko, J. Thomas (Eds): Illustrierte Geschichte der Russischen Revolution 1917 (published in 1928, reprinted by Verlag Neue Kritik, Frankfurt am Main 1970)
- Attard, Joe: US-China trade dispute: Trump's recklessness deepens instability, 17 May 2018 <https://www.marxist.com/us-china-trade-dispute-trump-s-recklessness-deepens-instability.htm>
- Autorenkollektiv: Studien zur Geschichte der Kommunistischen Internationale, Dietz Verlag, Berlin 1974
- Avrich, Paul: Russian Rebels, 1600-1800, Schocken Books, New York 1972
- Babones, Salvatore: American Tianxia, Chinese money, American power, and the end of history, Policy Press, Bristol 2017
- Bachtell, John: A new era for building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June 14, 2018, <http://www.cpusa.org/article/a-new-era-for-building-socialism-with-chinese-characteristics/>
- Bairoch, Paul and Richard Kozul-Wright: Globalization Myths: Some Historical Reflections on Integration, Industrialization and Growth in the World Economy, UNC-TAD Discussion Papers No. 113, 1996
- Balabanova, Angelica: Die Zimmerwalder Bewegung 1914 - 1919. Hirschfeld, Leipzig 1928
- Barber, John: Soviet Historians in Crisis, 1928-32, Macmillan Press, London 1981
- Baron, Samuel H.: Plekhanov, Trotsky and the Development of Soviet Historiography, in: Soviet Studies, Vol. 26 (1974), No. 3
- Barmin, Yury: Russia and Israel: The Middle East vector of relations,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Afro-Middle East Centre (AMEC) Briefing No. 13/2018 10 November 2018
- Bassin, Mark: Imperialer Raum / Nationaler Raum,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Vol. 28 (2002)
- Batsaikhan, Uuriintuya, Zsolt Darvas and Inês Gonçalves Raposo: People on the move: migration and mobility in the European Union, Bruegel Blueprint Series Volume XXVIII, Bruegel, Brussels 2018
- Battilossi, Stefano: The Determinants of Multinational Banking during the First Globalization, 1870-1914, Working Papers 114, Oesterreichische Nationalbank (Austrian Central Bank), 2006
- Bayerlein, Bernhard H.: Der Verräter, Stalin, bist Du! Vom Ende der link-

- en Solidarität 1939–1941. Komintern und kommunistische Parteien im Zweiten Weltkrieg, Aufbau Verlag, Berlin 2009
- BBC: Xi Jinping: ‘Time for China to take centre stage’, 18 October 2017, <http://www.bbc.com/news/world-asia-china-41647872>
- Behrendt, Lutz-Dieter: M.N. Pokrovskij als Historiker der Großen Sozialistischen Oktoberrevolution, in: Jahrbuch für Geschichte der sozialistischen Länder Europas, Jg. 22, Berlin 1978
- Beiträge zur Marx-Engels-Forschung: David Borisovič Rjazanov und die erste MEGA. Beiträge zur Marx-Engels-Forschung. Neue Folge. Sonderband 1. Argument, Hamburg 1996
- Biffi, Gudrun: Die Zuwanderung von Ausländern nach Österreich. Kosten-Nutzen-Überlegungen und Fragen der Sozialtransfers (1997), WIFO
- Bishop, Bill: China wants to reshape the global order, in: Axios China, Jan 19, 2018, https://www.axios.com/china-growing-global-aspirations-in-the-xi-jinping-era-1516305566-aa5be206-c156-4313-8229-cfa88af9b75a.html?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ampaign=&stream=top-stories
- Bisovsky, Gerhard, Hans Schafranek und Robert Streibel (Ed.): Der Hitler-Stalin-Pakt, Verlag: Picus Verlag, 1990
- Blanco, Roberto Mansilla: Russia in Latin America: Geopolitics and pragmatism, November 28, 2018 <https://theglobalamericans.org/2018/11/russia-in-latin-america-geopolitics-and-pragmatism/>
- Bloomberg: China Built a Global Economy in 40 Years. Now It Has a New Plan, 16 December 2018, <https://www.bloomberg.com/news/features/2018-12-15/president-xi-jin-ping-s-next-moves-dictate-china-s-economic-future?srnd=premium-europe>
- Bond, Patrick: BRICS and the tendency to sub-imperialism, 2014-04-10, Pambazuka, Issue 673, <http://www.pambazuka.org/en/category/features/91303>
- and Ana Garcia (Eds.): BRICS - An Anti-Capitalist Critique, Pluto Press, London 2015; Patrick Bond: Towards a Broader Theory of Imperialism, 2018-04-19, <http://roape.net/2018/04/18/towards-a-broader-theory-of-imperialism/>
- Bonham, Max: On the Escalating Greek-Turkish Tensions, International Socialist League (RCIT Section in Israel/Occupied Palestine), 30 April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escalating-greek-turkish-tensions/>
- Bonwetsch, Bernd: Das ausländische Kapital in Russland, in: Jahrbücher für Geschichte Osteuropas, Vol. 22 (1974)

- Boston Consulting Group: The Global Workforce Crisis: \$10 Trillion at Risk, BCG Report, June 2014
- Boyd, Alan: Why the Quad can't get it together, November 20, 2018 <http://www.atimes.com/article/why-the-quad-cant-get-it-together/>
- Brar, Joti: The Drive to War Against Russia and China, CPGB(ML), Shakun Printers, Shahdara 2017
- Brenner, Richard, Michael Pröbsting, Keith Spencer: The Credit Crunch – A Marxist Analysis, London 2008
- Brügel, J.W.: Stalin und Hitler. Europaverlag, Wien 1973
- Buber-Neumann, Margarete: Als Gefangene bei Stalin und Hitler, Seewald Verlag, Stuttgart 1985
- Budd, Adrian: Rulers make ready for discontent, Socialist Review, Issue: October 2018 <http://socialistreview.org.uk/439/rulers-make-ready-dis-content> China: New strains on state capitalism, Socialist Review, Issue: May 2018, <http://socialistreview.org.uk/435/china-new-strains-state-capitalism>
- Bukharin, Nikolai: Toward a Theory of the Imperialist State (1915), in: Robert V. Daniel: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Vol. 1, Vintage Russian Library, Vintage Books, New York 1960, <https://www.marxists.org/archive/bukharin/works/1915/state.htm>
- Ökonomik der Transformationsperiode. Mit Randbemerkungen von Lenin, Dietz Verlag, Berlin 1990
- and Evgenii Preobrazhensky: The ABC of Communism (1920), published by the Communist Party of Great Britain, 1922
- Burkhard, Bud: D. B. Rjazanov and the Marx-Engels Institute: Notes toward further Research, in: Studies in Soviet Thought 30 (1985)
- Burnham, James: (John West): War and the Workers (1936), Workers Party Pamphlet, <https://www.marxists.org/history/etol/writers/burnham/1936/war/index.htm>
- How to fight war - Isolation, Collective Security, Relentless Class Struggle?(1938), SWP Pamphlet
- Buzgalin, Alexander: «Российский капитализм не пустит лина рынок - и она чал дра ть - ся», 16.03.2018, <https://www.business-gazeta.ru/article/382298>
- Why Does the West Hate Putin? - RAI with A. Buzgalin (10/12), July 25, 2018, <https://therealnews.com/stories/why-does-the-west-hate-putin-rai-with-a-buzgalin-10-12>
- Byrnes, Robert F.: Creating the Soviet Historical Profession, 1917-1934, in: Slavic Review, Vol. 50 (1991), No.2
- Callinicos, Alex: Marxism and Imperialism today, in: A. Callinicos, J. Rees, C Harman & M. Haynes: Marxism and the New Imperialism, London 1994

- Trump' s tradewar means chaos for the ruling class, 6 Mar 2018, Socialist Worker, Issue No. 2594 <https://socialistworker.co.uk/art/46224/Trumps+trade+war+means+chaos+for+the+ruling+class>
- Trump gets serious, International Socialist Journal, Issue: 158 (2018), <http://isj.org.uk/trump-gets-serious/>
- Darkening prospects, International Socialist Journal, Issue: 159 (2018), <http://isj.org.uk/darkening-prospects/>
- The global trade war hasn' t been resolved, 31 Jul 2018, Socialist Worker, Issue No. 2615, <https://socialistworker.co.uk/art/46986/The+global+trade+war+hasnt+been+resolved>
- Cannon, James P.: E.V. Debs (1956); in: James P. Cannon: The First Ten Years of American Communism, Pathfinder Press, New York 1962
- China Labour Bulletin: Migrant workers in China, 6 June, 2008, <http://www.clb.org.hk/en/node/100259>
- Chu, Daye and Zhang Dan: Results underpin economy amid downward pressure, Global Times 2019/1/17 <http://www.globaltimes.cn/content/1136176.shtml>
- Cinatti, Claudia: The Geopolitics of the Civil War in Syria, September 14, 2016, <http://www.leftvoice.org/The-Geopolitics-of-the-Civil-War-in-Syria>
- Clarke, Renfrey and Roger Annis: The myth of 'Russian imperialism' : In defense of Lenin' s analyses, Link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ist Renewal, February 29, 2016, <http://links.org.au/node/4629>
- Clausewitz, Carl von: Vom Kriege (1832), Hamburg 1963; in English: Carl von Clausewitz: On War, <http://www.gutenberg.org/files/1946/1946-h/1946-h.htm>
- Cohen, Michael, Samer Al-Atrush, Henry Meyer, and Margaret Talev: America' s Moment of Truth in Africa: It' s Losing Out to China, 14. Dezember 2018,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12-14/-1-billion-a-month-the-cost-of-trump-s-tariffs-on-technology>
- Cohen, Stephen F.: Soviet fates and lost alternatives: from Stalinism to the new Cold War;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 Committee for a Workers International: World Perspectives – New Period of Instability and Revolutions, Thesis of the European Bureau of the CWI, May 6, 2011, <http://www.socialistalternative.org/news/article11.php?id=1590>
- World perspectives, Thesis for the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IEC) of the

- CWI 2013, 22/11/2013, <http://www.socialistworld.net/doc/6565>;
- World Perspectives: A turbulent period in history, International Secretariat of the CWI, 27 November 2014 <http://www.socialistworld.net/index.php/other-topics/activities/6995-World-Perspectives-A-turbulent-period-in-history>
- CWI World Congress 2016 World Perspectives, <http://www.socialist-world.net/in-dex.php/other-topics/activities/7517-11th-CWI-World-Congress--World-Perspectives>
- Theses on Middle East, December 2016, <http://workerssocialistparty.co.za/com-mittee-for-a-workers-international/cwi-international-executive-committee-2016/cwi-international-executive-committee-2016-doc-3/>
- World Perspectives, 08 December 2017, CWI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http://www.socialistworld.net/index.php/theory-analysis/9544-cwi-world-perspectives>
- Communist International: A Manifesto to the Peoples of the East, issued by the Congress of the Peoples of the East, Baku 1920, in: Baku: Congress of the Peoples of the East, New Park Publication 1977, online: http://www.marxists.org/subject/arab-world/documents/ppls_of_east.htm
- Theses on the Role of the Communist Party in the Proletarian Revolution, approved by the Second Comintern Congress (1920); in: John Riddell (Ed.): Workers of the World and Oppressed Peoples, Unite! (Volume 1), Proceedings and Documents of the Second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920
- Theses on the Fight against the War Danger (1922), in: Jane Degras: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919-1943. Documents Volume I 1919-1922
- Theses on the Eastern Question, Fourth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December 1922, in: Jane Degras: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919-1943. Documents. Volume I 1919-1922, <http://marxists.org/history/international/cominter-n/4th-congress/eastern-question.htm>
- Communist Party of Great Britain (Marxist-Leninist): Syria advances to liberation. The Syrian people are standing firm against all the plots and intrigues by which imperialism hopes to cheat them of their victory, 10 July 2018, <https://www.cpgb-ml.org/2018/07/10/news/syria-advances-to-liberation/>
- Beware the drive to WW3 with Russia and China, Party statement of the CPG-B(ML) 8th Congress, 21 November 2018 <https://www.cpgb-ml.org/2018/11/21/news/beware-the-drive-to-ww3-with-russia-and-china/>
- US imperialism losing the plot in Syria. The imperialists are raging as strong diplomacy combined with military advances edge the Syrian people ever closer to their final victory, 9 December 2018, <https://www.>

- cpgb-ml.org/2018/12/09/news/us-imperialism-losing-the-plot-in-syria-war/
- Communist Party of Greece: Programme of the KKE, adopted at the 19th Congress of the KKE, 11-14 April 2013, <http://inter.kke.gr/en/articles/Programme-of-the-KKE/>
- The danger of the imperialist war and the stance of the Communists, Theses of the Communist Party of Greece (KKE) at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V.I. Lenin and the Contemporary World", 20.04.2018, <https://inter.kke.gr/en/articles/THESES-OF-THE-COMMUNIST-PARTY-OF-GREECE-KKE-AT-THE-12TH-INTERNATIONAL-CONFERENCE-V.I-LENIN-AND-THE-CONTEMPORARY-WORLD/>
- On the agreement between Greece-FYROM, 14/6/2018, Press Office of the C of the KKE, <http://www.solidnet.org/article/CP-of-Greece-On-the-agreement-between-Greece-FYROM/>
- Kommunistiki Epitheorisi (No.2, 2018), quoted in SL: Fora Socialist Federation of the Balkans! Greece: Chauvinist Frenzy over Macedonia, Part One, Workers Vanguard No. 1142, 19 October 2018, <https://www.icl-fi.org/english/wv/1142/macedonia.html>
- Communist Party of the Russian Federation: Party Programme (2008), <https://kprf.ru/party/program>
- Condemnation of the bombing of Syria by the USA, United Kingdom and France, 17 April 2018, <http://www.solidnet.org/portuguese-com-munist-party/portuguese-cp-condemnation-of-the-bombing-of-syria-by-the-usa-united-kingdom-and-france-en-fr-es-pt>
-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npc.gov.cn/englishnpc/Constitution/2007-11/15/content_1372963.htm
- Conte, Gregory and Richard Spencer: Stay Out Of Syria, April 14, 2018 <https://national-policy.institute/2018/04/14/stay-out-of-syria/>
-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Refoundation of the Fourth International: Draft of programmatic thesis for the Congress for the Refoundation of the IV International, 2004, <http://www.progettocomunista.it/04BairesTesiProgrammaticheing.htm>
- Emergency Euro-Mediterranean Encounter Final Resolution: Fight imperialism and war with the international socialist revolution! Forward to the revolutionary International! Eretria, Greece, 25 July 2018, <http://redmed.org/article/emergency-euro-mediterranean-encounter-final-resolution-fight-imperialism-and-war>.
- CoReP: Down with the French imperialist intervention in Mali, <http://www.revolution-socialiste.info/CoRePCCIItMaliEV.htm>
- The Liaison Committee of Centrists capitulates in front of Islamism, 20 October 2016, <http://www.revolucionpermanente.com/english/?p=250>
- Craipeau, Yvan: Swimming Against the Stream. Trotskyists in German Occupied France, Merlin Press, Pontypool 2013

- Crawford, Neta C.: Human Cost of the Post-9/11 Wars: Lethality and the Need for Transparency, November 2018, Wat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at the Brown University
- Credit Suisse Research Institute: Global Wealth Report 2013
- Getting over Globalization, 2017
- Global Wealth Databook 2018, October 2018
- Crouzet, François: A History of the European Economy, 1000 - 2000,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2001
- Cuba Congratulates China on Communist Party Congress, 18 October 2017 <https://www.telesur.tv/english/news/Cuba-Congratulates-China-on-Communist-Party-Congress-20171018-0029.html>
- Демидова Светлана Евгеньевна Особенности индикативного планирования в России // Вестник Пск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рия: Экономика. Право. Управление. 2016. №3. URL: <https://cyberleninka.ru/article/n/osobennosti-indikativnogo-planirovaniya-v-rossii>
- Дневник комбрига. Алексей Мозговой, 22.06.2016, <http://rusdozor.ru/2016/06/22/dnevnik-kombriga-aleksej-mozgovoj/>
- Доходы Москвы от мигрантов превысили налоги нефтяных компаний, 6.8.2016, https://lenta.ru/news/2016/08/06/migrants_pay/
- Dahlmann, Dittmar: Zwischen Europa und Asien. Russischer Imperialismus im 19. Jahrhundert, in: Wolfgang Reinhard (Ed): Imperialistische Kontinuität und nationale Ungeduld im 19. Jahrhundert, Fischer Taschenbuch Verlag, Frankfurt a.M. 1991
- Danos, Jaques, Marcel Gibelin: Die Volksfront in Frankreich. Generalstreik und Linksegerung im Juni '36, Junius Verlag, Hamburg 1982
- Dalvit, Paolo: Die Außenpolitik im Klassenkampf. Die Position von Marx und Engels zum Krimkrieg, in: Marx und Russland. Beiträge zur Marx-Engels-Forschung Neue Folge 2012, Argument, Hamburg 2014
- Dao, Mai Chi, Mitali Das, Zsoka Koczan, Weicheng Lian: Why is Labor Receiving a Smaller Share of Global Income?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IMF Working Paper, July 2017
- Davis, Donald E. and Walter S.G. Kohn: Lenin on Clausewitz, in: Soviet Armed Forces Review Annual, Vol. I, Academic International Press, 1977, Gulf

- Breeze, Florida Day, Richard B., Daniel F. Gaido (Eds): *Discovering Imperialism: Social Democracy to World War I*, Historical Materialism Book Series Vol. 33, Leiden 2012
- Deborin, Abram: Lenin als revolutionärer Dialektiker (1925); in: Nikolai Bucharin/ Abram Deborin: *Kontroversen über dialektischen und mechanistischen Materialismus*, Frankfurt a.M. 1974
- Dessein, Bart: Faith and Politics: (New) Confucianism as Civil Religion, in: *Asian Studies* II (XVIII), 1 (2014)
- Dicken, Peter: *Global Shift. Mapping The Changing Contours Of The World Economy (Sixth Edition)*, The Guilford Press, New York 2011
- Dimitroff, Georgi: *The United Front. The Struggle Against Fascism and War*, Proletarian Publishers, San Francisco 1975
- Djagalov, Rossen: We Asked: Geopolitics and the Left (Part I: Russia & the West), *Left– East* April 19 2018, <http://www.criticatac.ro/lefteast/we-asked-rusia-and-the-west/>
- Dölek, Levent: The Character of War in 21st Century: Are China and Russia a target or a side of the war? In: *World Revolution / Revolución Mundial* Issue 1 (Autumn 2018)
- Dollar, David: China's Rebalancing: Lessons from East Asian Economic History, The Brookings Institution, Working Paper Series, October 2013
- Donnert, Erich: Pokrovskijs Stellung in der sowjetischen Geschichtswissenschaft, in: *Jahrbuch für Geschichte der sozialistischen Länder Europas*, Jg. 7, Berlin 1963
- Draper, Hal: The Myth of Lenin's "Revolutionary Defeatism (1953/54)", <http://www.marxists.org/archive/draper/1953/defeat/index.htm>
- Dugin, Aleksandr: *The Fourth Political Theory*, Arktos, Eurasian Movement, London 2012
- _____: *Putin vs Putin - Vladimir Putin Viewed from the Right*, Arktos, London 2014
- _____: *Eurasian Mission: An Introduction to Neo-Eurasianism*, Arktos, London 2014
- _____: *Last War of the World-Island - The Geopolitics of Contemporary Russia*, Arktos, London 2015
- Dunlop, John: *Russia Confronts Chechnya. Roots of a Separatist Confli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Dzarusov, Ruslan: *The Conundrum of Russian Capitalism. The Post-Soviet Economy in the World System*, Pluto Press, London 2014
- Екатерина Коростиченко: «Изучение татарского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муку для родителей», 8 сентября 2017, <https://vz.ru/soci->

[ety/2017/9/8/886257.html](http://www.nytimes.com/2017/09/08/886257.html)

Eastspring Investments: Trade and Tariffs, Lessons from History, 2018
Economy, Elizabeth: The Third Revolution. Xi Jinping and the New Chinese Stat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8

Engdahl, William F: Target: China. How Washington and Wall Street Plan to Cage the Asian Dragon, Progressive Press, 2014

___The Lost Hegemon. Who the Gods Would Destroy, mineBooks, Wiesbaden 2016

___The Eurasian Century Is NOW Unstoppable, October 7, 2016, <http://www.4thme-dia.org/2016/10/the-urasian-century-is-now-unstoppable/>

___Transformational Projects in Eurasia Land Space, 2016-09-10, <http://journal-neo.org/2016/09/10/transformational-projects-in-urasia-land-space-3/>

org/2016/09/10/transformational-projects-in-urasia-land-space-3/

Eiermann, Karin-Irene: The Russian Concession in Wuhan (1896-1925) - Imperialism and Great Power Rivalry, in: COMPARATIV Vol. 15 (2005), No. 5/6

Engels, Friedrich: The European War (1854), in: MECW 12

___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In the Light of the Re- searches by Lewis H. Morgan (1884), in: MECW Vol.26

___Letter to Joseph Bloch (1890); in: MECW Vol.49

Enteen, George M.: Marxists versus Non-Marxists: Soviet Historiography in the 1920s, in: Slavic Review, Vol. 35 (1976), No. 1

Soviet Historians review their own Past: The Rehabilitation of Pokrovsky, in: Soviet Studies, Vol. 20 (1969), No.3

The Soviet Scholar-Bureaucrat: M. N. Pokrovskii and the Society of Marxist Historian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8

and Tatiana Gorn, and Cheryl Kern: Soviet Historians and the Study of Russian Imperialism,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79

Escobar, Pepe: Liquid War Across Eurasia and the Asia-Pacific: Postcard from Pipe- lineistan, in: The Asia-Pacific Journal, Vol.21, May 23, 2009, <http://www.japanfocus.org/-Pepe-Escobar/3149/article.html>

The Geopolitical Earthquakes Reshaping Eurasia's Economy, May 19, 2014, <http://www.thenation.com/article/179916/geopolitical-earthquakes-reshaping-urasias-economy>

Empire of Chaos. The Roving Eye Collection, Vol.1, Nimble Books 2014

What the BRICS plus Germany are really up to? February 27, 2015 <http://rt.com/>

[op-edge/236219-russia-china-germany-trade-axis/](http://rt.com/op-edge/236219-russia-china-germany-trade-axis/)

The Eurasian Big Bang. How China and Russia Are Running Rings Around Washington, 23.7.2015, <http://www.huffingtonpost.com/pepe->

- escobar/the-urasian-big-bang_b_7856614.html
 ThePivottoEurasia, July 23, 2015, http://www.tomdispatch.com/post/176026/tom-gram%3A_pepe_escobar%2C_the_pivot_to_eurasia/
- Eagle-meets-Bear and the Syria tug-of-war, July 5, 2018 <http://www.atimes.com/article/eagle-meets-bear-and-the-syria-tug-of-war/>
- ____ Tariffs ‘kickoff 50-year tradewar’ with China; July 6, 2018 <http://www.atimes.com/article/tariffs-kick-off-50-year-trade-war-with-china/>
- ____ Trump, NATO and ‘Russian aggression’, July 13, 2018 <http://www.atimes.com/article/trump-nato-and-russian-aggression/>
- ____ ‘Here’ s the real reason the US must talk to Russia, July 21, 2018 <http://www.atimes.com/article/heres-the-real-reason-the-us-must-talk-to-russia/>
- How BRICS Plus clashes with the US economic war on Iran, July 28, 2018 <http://www.atimes.com/article/how-brics-plus-clashes-with-the-us-economic-war-on-iran/>
- Economic war on Iran is war on Eurasia integration, August 14, 2018 <http://www.atimes.com/article/economic-war-on-iran-is-war-on-urasia-integration/>
- ____ Here comes the 30-year tradewar; September 23, 2018 <http://www.atimes.com/article/here-comes-the-30-year-trade-war/>
- ____ Pepe Escobar: Welcome to the G-20 from Hell, October 14, 2018 <http://www.atimes.com/article/welcome-to-the-g-20-from-hell/>
- How the New Silk Roads are merging into Greater Eurasia, December 13, 2018 <http://www.atimes.com/article/how-the-new-silk-roads-are-merging-into-greater-urasia/>
- Chinese scholar offers insight into Beijing’ s strategic mindset. Essay by security expert Professor Zhang Wenmu gives a glimpse of China’ s geostrategic outlook, from the ‘Western Pacific Chinese Sea’ to the far side of the moon, January 5, 2019 <http://www.atimes.com/article/chinese-scholar-offers-insight-into-beijings-strategic-mindset/>
- All under Heaven, China’ s challenge to the Westphalian system. Beijing is tweaking the rules of the Western order to reflect its revitalized geopolitical and economic power, but some Americans see this as a threat to their way of life, January 10, 2019 <http://www.atimes.com/article/all-under-heaven-chinas-challenge-to-the-west-phalian-system/>
- Eurasia Group: Top Risks 2018
- Ex-Separatist Leader Launches Party Aimed at Restoring Russia’ s Empire, <https://web.archive.org/web/20160602041435/http://>

georgiatoday.ge/news/3927/Ex-Separatist-Leader-Launches-Party-Aimed-at-Restoring-Russia%E2%80%99s-Empire

- Faiola, Anthony and Karen DeYoung: In Venezuela, Russia pockets key energy assets in exchange for cash bailouts, Washington Post, December 24, 2018,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in-venezuela-russia-pockets-key-energy-assets-in-exchange-for-cash-bailouts/2018/12/20/da458db6-f403-11e8-80d0-f7e1948d55f4_story.html?noredirect=on&utm_term=.4c57edeb1009
- Falletti, Sebastien: US trade war raises the specter of new Cold War, December 25, 2018 <http://www.atimes.com/article/us-trade-war-raises-the-specter-of-new-cold-war/>
- Ferre, Juan Cruz: 21st Century Economic Nationalism, March 26, 2018 <http://www.left-voice.org/21st-Century-Economic-Nationalism>
- Fickling, David: Globalists Will Love Trump's New Nafta Deal. Despite the fanfare, the agreement doesn't change much. 1. Oktober 2018, <https://www.bloomberg.com/view/articles/2018-10-01/globalists-will-love-trump-s-new-nafta-deal?srnd=premium-europe>
- Financial Times: Fortunes of Nigeria's banks tied to the oil price, 20.11.2018, <https://www.ft.com/content/370057c8-c71f-11e8-86e6-19f5b7134d1c>
- Fisher, Olga Hess, H.H. Gankin: The Bolsheviks and the World War; the Origin of the Third International,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1940
- Flemming, William: The Deportation of the Chechen and Ingush Peoples: A Critical Examination, in: Ben Fowkes (Ed.): Russia and Chechnia: The Permanent Crisis. Essays on Russo-Chechen Relations, Macmillan Press Ltd 1998
- Forbes Global 2000 List (2017), <https://www.forbes.com/global2000/list/45/#tab:overall>
- Fortune: Fortune Global 500 List 2018: See Who Made It, <http://fortune.com/global500/list/>
- Fourth International: The Evolution of the Comintern. Resolution of the First Conference for the Fourth International in July 1936,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New York 1973
- A Manifesto against Imperialist War!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Fourth International (World Party of the Socialist Revolution) September 1938,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New York 1973
- Imperialist War And The Proletarian World Revolution, Adopted by the Emergency Conference of the Fourth International, May 19-26, 1940;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The Formative Years (1933-40),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3, <http://www.marxists.org/history/etol/document/fi/1938-1949/emergconf/fi->

- [emerg02.htm](#)
- Fracción Leninista Trotskista Internacional – Colectivo por la Refundación – de la IV Inter – nacional: Vienna Summit with US, Putin, Iranian Ayatollahs, the genocidal Assad, Zionism, Qatar, Turkey taking in itsh and bourgeois generalsof FSA, the chiefs of ISIS of Saudi Arabia, the Kurdish bourgeoisie... Under the command of Obama, all the executioners of the revolutions in the Maghreb and the Middle East are meeting, 4.11.2015, https://www.flti-ci.org/ingles/medio_oriente/noviembre2015/proclama_viena03nov2015.html
- Franks, Don: Mali invaded in new ‘scramble for Africa’ , February 2, 2013, <https://rdln.wordpress.com/2013/02/02/mali-invaded-in-new-scramble-for-africa/>
- French Communist Party : C’ est le Mali qu’ il faut reconstruire, (11.1.2013), <http://www.pcf.fr/33940>
- ___L’ intervention militaire française comporte de grands risques – de guerre (12.1.2013), <http://www.pcf.fr/33977>
- Fukuyama, Francis: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Free Press, New York 1992 Furtado, Celso: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Historical Background and Contemporary Problems, New York 1984
- Gan, Nectar: Make China great again: Communist Party seeks to seize ‘historic’ moment to reshape world order. High-profile comment piece urges country to rally around Xi and realise nation’ s global aspirations, 18 January, 2018, <http://www.scmp.com/news/china/policies-politics/article/2128711/make-china-great-again-communist-party-seeks-seize>
- Getzler, Israel: Lenin’ s Conception of Revolution As Civil War, in: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74, No. 3 (Jul., 1996)
- Geyer, Dietrich: Der russische Imperialismus. Studien über den Zusammenhang von innerer und auswärtiger Politik 1860 - 1914,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1977
- (Ed.): Wirtschaft und Gesellschaft im vorrevolutionären Rußland, Kiepenheuer & Witsch, Köln 1975
- Ghelli, Nathan: Russian Investment in Africa Contributes to Its Development, June 18, 2018 <https://www.borgenmagazine.com/russian-investment-in-africa/>
- Giannopoulou, Angelina: The Party of the European Left, Diem 25 and the transnational campaign of Jean-Luc Mélenchon towards the European Elections in 2019, trans – formeurope! 2018; Cécile Barbière: La France Insoumise want to turn European

elections into anti-Macron referendum, 3. Okt. 2018, <https://www.euractiv.com/section/eu-elections-2019/news/la-france-insoumise-wants-to-turn-european-elections-into-anti-macron-referendum/>

Gilbert, Simon: Focus on China: Workers and the national question, Socialist Review, Issue: September 2018 <http://socialistreview.org.uk/438/focus-china-workers-and-national-question>

China: A labour movement in the making, Socialist Review, Issue: April 2018,

<http://socialistreview.org.uk/434/china-labour-movement-making>

Gluckstein, Donny: The Paris Commune: A Revolution in Democracy, Bookmarks Publication, London 2006

Gmundner, Hans: Straches Handlangerdienste, KPÖ, 10.11.07, [http://www.kpoe.at/index.php?id=23&tx_ttnews\[tt_news\]=105&tx_ttnews\[backPid\]=2&cHash=-7fe484e968](http://www.kpoe.at/index.php?id=23&tx_ttnews[tt_news]=105&tx_ttnews[backPid]=2&cHash=-7fe484e968)

Godeiro, Nazareno: The validity of Lenin's imperialism theory, LIT-CI, International Courier, 09 October 2014, http://www.litci.org/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568:the-validity-of-lenins-imperialism-theory&catid=729:international-courier&Itemid=39

Godfrey, John: Capitalism at War: Industrial Policy and Bureaucracy in France, 1914-1918, Berg Publishers, Leamington Spa 1987

Guarino, Arthur S.: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an Aging Global Population, 02.08.2018, <https://www.focus-economics.com/blog/economic-implications-of-an-aging-global-population>

Gunić, Nina: Gegen das Verhüllungsverbot! Für Religionsfreiheit und Frauenrechte! Kampf dem islamophoben Rassismus und der Diskriminierung muslimischer Frauen! <https://www.rkob.net/aktuell/kurzmeldungen/kurzmeldungen-september-1/>

_____ and Michael Pröbsting: These are not "riots" - this is an uprising of the poor in the cities of Britain! The strategic task: From the uprising to the revolution!, 10.8.2011, <http://www.rkob.net/new-english-language-site-1/uprising-of-the-poor-in-britain/>

Guriev, Sergei and Andrei Rachinsky: Oligarchs: the past or the future of Russian capitalism? July 2004

Guschanski, Alexander and Özlem Onaran: Why is the wage share falling in emerging economies? Industry level evidence, University of Greenwich, 2017

Gysi, Gregor: Die Haltung der deutschen Linken zum Staat Israel, Vortrag von Dr. Gregor Gysi auf einer Veranstaltung „60 Jahre Israel“ der Rosa-Luxemburg-Stiftung am 14.4.2008, http://www.juedische.at/TCgi/_v2/TCgi.cgi?target=home&Param_Kat=3&Param_RB=33&Param_Red=9722

An Internationalist Answer, Speech, President of the European Left, held

- at the Federal Party Congress in Leipzig, 9 June 2018, on the dispute on refugees and migration, <https://www.transform-network.net/blog/article/an-internationalist-an-swer/>
- Haberly, Daniel and Dariusz Wójcik: Tax havens and the production of off-shore FDI: An empirical analysis (2013)
- Hagen, Manfred: Der Russische “Bonapartismus “ nach 1906, in: Jahrbücher für Geschichte Osteuropas, Vol. 24 (1976), No. 3
- Hallgarten, G.W.F. : Das Schicksal des Imperialismus im 20. Jahrhundert. Drei Abhandlungen über Kriegsursachen in Vergangenheit und Gegenwart, Europäische Verlagsanstalt, Frankfurt a.M. 1969
- Hardach, Gerd: First World War, 1914–1918, Penguin Books, New York 1987
- Hardcastle, Edgar: Socialists and War (on Boris Souvarine), Socialist Standard, August 1932, https://www.marxists.org/archive/hardcastle/1932/socialists_war.htm
- Hardy, Jane and Adrian Budd: China’s capitalism and the crisis, International Socialist Journal, Issue: 133, 9th January 2012, <http://isj.org.uk/chinas-capitalism-and-the-crisis/>
- Haumann, Heiko: Staatsintervention und Monopole im Zarenreich – ein Beispielfür Organisierten Kapitalismus?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Vol. 5 (1979), No. 2
- Henry, James S.: The Price of Offshore Revisited. Tax Justice Network 2012
- Hiratuka, Celio: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Brazil: Recent Trends and Impacts on Economic Development, April 2008
- Histor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Bolsheviks): Short Course, Edited by a Commission of the C.C. of the C.P.S.U. (B.), International Publishers, New York 1939
- Heer, Jeet: Are We Witnessing the Fall of the American Empire? Trump’s presidency is often compared to the decline of Rome, but the reality is much more complicated, March 7, 2018 <https://newrepublic.com/article/147319/witnessing-fall-american-empire>
- Heller, Pablo: China: El otro bonapartismo, March 9, 2017, Prensa Obrera # 1449 <http://www.prensaobrera.com/prensaObrera/1449/internacionales/china-el-otro-bonapartismo>
- Adónde va China. Entre la guerra comercial y la restauración capitalista, 26 de abril de 2018, <http://www.prensaobrera.com/prensaObrera/1499/internacionales/a-don-de-va-china>
- Henehan, Kathleen: The £ 3.2bn pay penalty facing black and ethnic minority workers, 27 December 2018 Job <https://www.resolutionfoundation.org/media/>

[blog/the-3-2bn-pay-penalty-facing-black-and-ethnic-minority-workers/](#)

- Hilferding, Rudolf: Finance Capital. A Study of the Latest Phase of Capitalist Development (1910),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81.
- Hobsbawm, E. J. : The Age of Empire, Vintage Books, New York 1989
- Hofmeister, Ulrich: Zwischen Kontinentalimperium und Kontinentalmacht. Repräsentation der russischen Herrschaft in Turkestan, 1865 - 1917, in: Martin Austand Julia Obertreis (Eds.): Osteuropäische Geschichte und Globalgeschichte, Franz Steiner Verlag, Stuttgart 2014
- Holland, Steve, Lesley Wroughton: U.S. to counter China, Russia influence in Africa: Bolton, December 13, 2018,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rump-africa/u-s-to-counter-china-russia-influence-in-africa-bolton-idUSKBN1OC1XV>
-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Changing Global Production Landscape and Asia's Flourishing Supply Chain, 3 October 2017
- Horwitz, Josh: China's Communist Party is all in on the power of technology, October 25, 2017, <https://qz.com/1102948/chinas-communist-party-is-all-in-on-the-power-of-technology-and-thats-tricky-for-its-tech-giants/?fbclid=IwAR3F7pagTdwL-CempaER6LSBBUEu4wN1P66YArkLh7SXXIA0gWy4GMUv3x4>
- Hoston, Germaine A.: Marxism and the Crisis of Development in Prewar Jap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86
- House of Lords (Britain): Report - Economic Impact of Migration in UK (2008)
- How Russia is boosting its role in Africa with weapons, investment and 'instructors', 14 August, 2018, <https://www.scmp.com/news/world/africa/article/2159622/how-russia-boosting-its-role-africa-weapons-investment-and>
- Huang, Yang: Perceptions of the Barbarian in Early Greece and China, in: CHSR Research Bulletin 2, No. 1 (2013). http://nrs.harvard.edu/urn-3:hnc.essay:HuangY.Perceptions_of_the_Barbarian_in_Early_Greece_and_China.2013
- Huang, Yukon: Opinion: China's Trade War With U.S. Is About Technological Dominance, May 16, 2018 <https://www.caixinglobal.com/2018-05-16/opinion-chinas-trade-war-with-us-is-about-technological-dominance-101250670.html>
- Humbert-Droz, Jules: Der Krieg und die Internationale. Die Konferenzen von Zimmerwald und Kienthal, Wien 1964
-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Simon & Schuster, New York 1996
- Hurun Global Rich List 2017, <http://www.hurun.net/EN/HuList/Index?num=8407ACF-CBC85>
- Hutt, David: Eye on US, Europe looks askance at Huawei, January 14, 2019 <http://www>.

- atimes.com/article/eye-on-us-europe-looks-askance-at-huawei/
 ING: Russia intensifies net foreign debt redemption in 3Q, 11.10.2018, <https://think.ing.com/snaps/russia-intensifies-foreign-debt-redemption-in-3q/>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The Labour Share in G20 Economies, Report from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ith contributions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World Bank Group, Report prepared for the G20 Employment Working Group, Antalya, Turkey, 26-27 February 2015
-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 Trends 2015, Supporting Data International Bolshevik Tendency: A Note on the World Situation. Recent Departures & Line Change on Russia, 27.10.2018, http://www.bolshevik.org/statements/ibt_20181019_world_situation.html
- International Marxist Tendency: Perspectives for World Revolution 2014, 29 January 2014, <http://www.marxist.com/world-perspectives-2014.htm>
- __Crisis and Class Struggle: World Perspectives 2016, 26 March 2016 <https://www.marxist.com/crisis-and-class-struggle-world-perspectives-2016-part-one.htm>
- __World Perspectives 2016 - An update, 06 December 2016, <https://www.marxist.com/world-perspectives-2016-an-update.htm>
- __World perspectives: 2018 - a year of capitalist crisis, 05 April 2018 <https://www.marxist.com/world-perspectives-2018-a-year-of-capitalist-crisis.htm>
- IMT Russia: Украина и национальный вопрос (Ukraine and the national question), <http://www.1917.com/XML/E3YCowmZXwKhYk2bWYgKwrZ-lZ4.xml>
- International Meeting of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Appeal of the 20th International Meeting of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29.11.2018, <http://www.solidnet.org/article/20-IMCWP-Appeal-of-the-20th-International-Meeting-of-Communist-and-Workers-Parties/>
- Statement of Solidarity of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in Support of the Just Caus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the Korean People for an Independent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and for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20 IMCWP, Statement of Solidarity of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November 25, 2018 Athens, Greece, <http://www.solidnet.org/article/20-IM-CWP-Statement-of-Solidarity-of-Communist-and-Workers-Parties/>
- 20 IMCWP, SUPPORT FOR KOSOVA AS AN INTEGRAL PART OF THE REPUB-

- LIC OF SERBIA, 12/10/2018 <http://www.solidnet.org/article/20-IMCWP-SUPPORT-FOR-KOSOVA-AS-AN-INTEGRAL-PART-OF-THE-REPUBLIC-OF-SERBIA/>
- 20IMCWP, InformativenoteofPartyofLabourofAustria, 11/19/2018 <http://www.solidnet.org/article/20-IMCWP-Informative-note-of-Party-of-Labour-of-Austria/>, <http://parteiderarbeit.at/?p=5020>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Gaining Momentum? Washington, April 2017
- International Workers Unity - Fourth International: Global Policy Theses, discussed and voted at the Fourth Congress of the IWU-FI, Chapter "VI. China: Towards a new hegemonic power?" , <http://uit-ci.org/index.php/mundo/2018-04-05-19-24-25/1912-vi-china-towards-a-new-hegemonic-power>
- We repudiate the imperialist shelling on Syria! No to Trump's killer missiles! April 14, 2018, <http://uit-ci.org/index.php/news-a-documents/1985-we-repudiate-the-imperialist-shelling-on-syria-no-to-trumps-killer-missiles>
- Internationalist Socialist League (RCIT Section in Occupied Palestine / Israel): On Trump's attack on Syria, 15.04.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on-trumps-attack-on-syria/>
- Internationalist Group: Drive the Imperialists Out of the Middle East! U.S./ NATO: Get Your Bloody Claws Off Syria! <http://www.internationalist.org/syriausnatobloody-hands1804.html>
- Iturbe, Alejandro: Certainties and questions raised by China's economic crisis - Part 1, March 30, 2016 <https://litci.org/en/certainties-and-questions-raised-by-chinas-economic-crisis-part-1/>
- Certainties and questions raised by China's economic crisis - Part 2, March 22, 2016 <https://litci.org/en/certainties-and-questions-raised-by-chinas-economic-crisis-part-2/>
- Capitalist Restoration in China, September 7, 2017 <https://litci.org/en/capitalist-restoration-in-china-special/>
- Trump's trade sanctions against China, March 29, 2018 <https://litci.org/en/trumps-trade-sanctions-against-china/>
- Jaimoukha, Amjad: The Chechens. A handbook, RoutledgeCurzon 2005
- Japanese Communist Party: The Senkaku Islands--Japanese Territory. Press Conference by Tomio Nishizawa, JCP Standing Presidium Member, Akahata, 31.3.1972; http://www.japan-press.co.jp/modules/feature_articles/index.php?id=34
- __The Fifty Years of the Communist Party of Japan, published by the Publication Bureau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Japan, Tokyo

1973

- JCP' s view on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 s Article 9 and the Self-Defense Forces, September 30 2000, https://www.jcp.or.jp/english/jps_weekly/e000930_03.html
- Program of the Japanese Communist Party, adopted on January 17, 2004 at the JCP 23rd Congress, http://www.jcp.or.jp/english/23rd_congress/program.html
- ___ How to solve the issue of the Senkaku Islands: Japan justifiably claims sovereignty; 20.9.2010, http://www.japan-press.co.jp/modules/feature_articles/index.php?id=34
- ___ Takeshima issue should be solved through diplomacy: JCP chair; August 11, 2012, http://www.jcp.or.jp/english/jps_2012/20120811_01.html
- ___ Calm diplomatic efforts needed to solve territorial issues: JCP Ichida; 21.8.2012, http://www.jcp.or.jp/english/jps_2012/20120821_04.html
- ___ Not too late for Japan to join AIIB: Shii, April 2, 2015 <http://www.jcp.or.jp/english/jcpcc/blog/2015/04/20150402i.html>
- Shii condemns terror attacks in Paris, November 15, 2015 <http://www.jcp.or.jp/english/jcpcc/blog/2015/11/20151115-shii-condemns-terror-attacks-in-paris.html>
- Shii welcomes new UNSC sanctions on North Korea, March 4, 2016 <http://www.jcp.or.jp/english/jcpcc/blog/2016/03/20160304-shii-welcomes-new-unscc-sanctions-on-north-korea.html>
- Shii protests North Korea' s missile launch, February 14, 2017 <http://www.jcp.or.jp/english/jcpcc/blog/2017/02/20170214-shii-protests-north-korea.html>
- ___ Shii explains to press JCP proposal on North Korea issue, February 20, 2017 <http://www.jcp.or.jp/english/jcpcc/blog/2017/02/20170220-shii-explains-to-press.html>
- JCP Chair Shii issues statement to welcome the nuclear weapons ban treaty, July 9, 2017 <http://www.jcp.or.jp/english/jcpcc/blog/2017/07/20170709jcp-chair-shii-is-sues-statement.html>
- Shii issues statement protesting against N. Korea' s ballistic missile launch, May 22, 2017 <http://www.jcp.or.jp/english/jcpcc/blog/2017/05/20170522shii-issues-statement.html>
- Shii issues statement welcoming draft N-ban treaty, May 24, 2017 <http://www.jcp.or.jp/english/jcpcc/blog/2017/05/20170524shii-issues-statement.html>
- ___ Shii issues statement condemning N. Korea' s missile launch, August 30, 2017 <http://>

www.jcp.or.jp/english/jcpc/blog/2017/08/20170830-shii-issues-statement.html

JCP condemns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again calls for direct talks to defuse current crisis, September 4, 2017, <http://www.jcp.or.jp/english/jcpc/blog/2017/09/20170904-jcp-condemns-north-koreas-nuclear.html>

What is the JCP? A Profile of the Japanese Communist Party (November, 2017), https://www.jcp.or.jp/english/2011what_jcp.html

Kazuo Shii: JCP strongly condemns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launch and again calls for immediate direct talks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November 29, 2017 <http://www.jcp.or.jp/english/jcpc/blog/2017/11/20171129-jcp-strongly-condemns-north-koreas.html>

JCP opposes the Japan-U.S. trade negotiations which disregards Japan's economic sovereignty, September 28, 2018, <http://www.jcp.or.jp/english/jcpc/blog/2018/09/20180928-jcp-opposes-the-japan-us-trade.html>

Jeffreys, Alan, Patrick Rose (Eds): The Indian Army, 1939-47: Experience and Development, Ashgate Publishing Limited, Farnham 2012

Jiang, Jingyi and Kei-Mu Yi: How Rich Will China Become? A simple calculation based on South Korea and Japan's experience,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in: The Region, June 2015

Jordan, Serge: No to the bombing of Syria! Build a mass movement against the war, CWI 12 April 2018 <http://www.socialistworld.net/index.php/international/middle-east/151-syria/9750-no-to-the-bombing-of-syria-build-a-mass-movement-against-the-war>

Joll, James: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Longman, New York 1984

Kagarlitsky, Boris: Empire of the Periphery. Russia and the World System, Pluto Press, London 2008

The Choices for the Left in the Age of Trump, February 7, 2017, <http://www.coun-terpunch.org/2017/02/07/the-choices-for-the-left-in-the-age-of-trump/>

Revolt of the Rich, 06.10.2017, <http://rabkor.ru/columns/editorial-columns/2017/10/06/bunt-bogatih/>

Kahanec, Martin and Martin Guzi: How Immigrants Helped EU Labor Markets to Adjust during the Great Recession, IZA -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Discussion Paper No. 10443, December 2016

Kappeler, Andreas: Rußland als Vielvölkerreich. Entstehung, Geschichte, Zerfall. Beck, München 1992

Karabarbounis, Loukas and Brent Neiman: The Global Decline of the Labor Share, NBER Working Paper 19136, June 2013

_____. The Global Decline of the Labor Share (And Follow-up Thoughts),

- University of Chicago, March 2014
- ____ The Global Decline of the Labor Shar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14), Presented by Sergio Feijoo, March 29, 2017
- Kautsky, Karl: *Der Imperialismus*, in: *Die Neue Zeit* 32-II., 1914, in: English: Karl Kautsky: *Selected Political Writings* (edited and translated by Patrick Goode), The Macmillan Press, Hong Kong 1983, <http://www.marxists.org/archive/kautsky/1914/09/ultra-imp.htm>
- Kemp, Tom: *Stalinism in France*, New Park Publications, London 1984
- Khlebnikov, Alexey: 2018: A year of many challenges for Putin in the Middle East. If Russia fails to meet regional actors' expectations over Syria, Libya or Israel/Palestine, it will ruin its image as a credible partner, *Middle East Eye*, January 15, 2018, <http://www.middleeasteye.net/columns/russia-middle-east-2018-533160191>
- Kim, Kwan S.: *The Korean Miracle (1962-1980) Revisited: Myths and Realities in Strategy and Development*, Kellogg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Working Paper #166, November 1991
- Kincaid, Sally: Women and China: what has changed? *Socialist Review*, Issue: June 2018, <http://socialistreview.org.uk/436/women-and-china-what-has-changed>
- Kimber, Charlie: Trump ramps up trade wars to boost his flagging support, 18 September 2018, *Socialist Worker* Issue No. 2622, <https://socialistworker.co.uk/art/47220/Trump+ramps+up+trade+wars+to+boost+his+flagging+support>
- Kipp, Jacob W.: *Lenin and Clausewitz: The Militarization of Marxism, 1914-1921*, in: *Military Affairs* Vol. 49, 1985
- Klare, Michael: Is a War With China on the Horizon? June 19, 2018, http://www.tom-dispatch.com/post/176438/tomgram%3A_michael_klare%2C_is_a_war_with_china_on_the_horizon/#more
- Klein, Fritz (Ed.): *Deutschland im ersten Weltkrieg*, Vol. 1-3, Akademie-Verlag, Berlin 1968
- Neue Studien zum Imperialismus vor 1914, Akademie-Verlag, Berlin 1980
- Klement, Rudolf: *Principles and Tactics in War* (1938); in *The New International* (Theoretical journal of the Socialist Workers Party, US-American section of the Fourth International), May 1938, Vol. 4, No. 5, <https://www.marxists.org/history/etol/revhist/backiss/vol1/nol/printact.html>
- Kolbl, Otto: Chinese development, <http://www.rainbowbuilders.org/china-entwicklung/> Kolo, Vincent: 'Belt and Road': Imper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Gigantic Belt and Road infrastructure plan - spearhead for Chinese dictatorship's economic and geopolitical strategy, February 19, 2018 <http://chinaworker.info/>

- [en/2018/02/19/16985/Kolonickij,Boris:100JahreundkeinEnde.SowjetischeHistorikerundderErsteWeltkrieg](#), in: Osteuropa Jg. 64 (2014), Bd. 2-4
- Kowalewski,ZbigniewMarcin:Ukraine:RussianWhiteGuardsintheDonbass, 29June, 2014, <https://www.nihilist.li/2014/07/25/russkie-belogvar-dejtsy-na-donbasse/#eng-lish>
- Kowner, Rotem: The Impact of the Russo-Japanese War, Routledge, New York 2007
- Kozhemyako, Viktor: How to protect the Russian language? 15.06.2012, https://kprf.ru/rus_soc/107254.html
- Kreiner, Josef (Ed.): Der Russisch-Japanische Krieg (1904/05), V&R unipress, Göttingen 2005
- Kroeber,ArthurR.:China'sEconomy.WhatEveryoneNeedsToKnow,OxfordUniver-sity Press, New York2016
- Kroll, Luisa and Kerry A. Dolan: Forbes 2017 Billionaires List: Meet The Richest People On The Planet, 20.3.2017, <https://www.forbes.com/sites/kerryadolan/2017/03/20/forbes-2017-billionaireslist-meet-the-richest-people-on-theplanet/#2084cc6362ff>
- Kuczynski, Jürgen: Studien zur Geschichte der Weltwirtschaft, Berlin 1952
- Kumaran Ira: French Left Front promotes war in Mali, WSWS, 22 January 2013, <https://www.wsws.org/en/articles/2013/01/22/left-j22.html>
- Kusber, Jan: Krieg und Revolution in Russland 1904-1906. Das Militär im Verhältnis zu Wirtschaft, Autokratie und Gesellschaft, Franz Steiner Verlag, Stuttgart 1997
- L' intervention jugée nécessaire par les députés, 16 Janvier, 2013, <https://www.humanite.fr/politique/l-intervention-jugee-necessaire-par-les-deputes-513009>
- Lademacher, Horst: Die Zimmerwalder Bewegung. Vol. 1 and 2, Den Haag 1967
- Landes, David S.: The Unbound Prometheus. Technological change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from 1750 to the pres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69
- Laruelle, Marlene: Russian Eurasianism: An Ideology of Empire,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8
- Laschitza, Annelis: Zur Rolle des Zentrismus 1911/12. Ein Beitrag über den Zusammenhang von Imperialismus und Opportunismus, in: Fritz Klein (Ed.): Studien zum deutschen Imperialismus vor 1914, Berlin 1976
- Lavrov, P. L.: Die Pariser Kommune vom 18. März 1871, Verlag Klaus Wagenbach, Berlin 1971;
- Laverycev, Vladimir: Der staatsmonopolistische Kapitalismus in Ruß-

- land. Ergebnisse und Aufgaben der weiteren Forschung, in: Jahrbuch für Geschichte der sozialistischen Länder Europas, Jg. 29, Berlin 1985
- League for the Fifth International: Resolution on Syria, 02/03/2017, <http://www.fifthinternational.org/content/resolution-syria>
- League for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he Degenerated Revolution: The Origin and Nature of the Stalinist States,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talinism-and-the-degeneration-of-the-revolution/>
- Barbaric Trotskyism: a History of Morenoism (1992), Part 1 and 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morenoism-part-1/> and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morenoism-part-2/>
- Russian Troops Out! Self-determination for Chechnya! Joint Statement of theLRCI and the Trotskyist Faction, 30.06.199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freedom-for-chechnya/>
- Leckey, Colum: David Riazanov and Russian Marxism, in: Russian History/Histoire Russe, Vol. 22, N° 2 (1995)
- Lenin, Vladimir Illich: The Autocracy and the Proletariat (1904), in: Lenin Collected Works (LCW) Vol. 8, Progress Publishers, Moscow, 1960–1980
- ____The Fall of Port Arthur (1905), in: LCW Vol.8
- ____Certain Feature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Marxism (1910); in: LCW17
- ____Word and Deed (1913); in: LCW 19
- ____Conspectus of Hegel’ s Science of Logic (1914); in: Collected Works Vol.38
- ____The European War and International Socialism (1914); in: LCW21
- ____The War and Russian Social–Democracy (1914); in: LCW21
- ____The Position and Tasks of the Socialist International (1914), in: LCW Vol.21
- ____The European War and International Socialism (1914); in: LCW21
- ____Under A False Flag (1915); in: LCW Vol.21
- ____On the Question of Dialectics (1915); in: LCW Vol.38
- ____TherevolutionaryProletariatandtheRightofNationstoSelf–Determination(1915); in: LCW Vol. 21
- The Conference of the R.S.D.L.P. Groups Abroad (1915); in LCW 21
- Preface to N. Bukharin’ s Pamphlet, Imperialism and the World Economy (1915), in: LCW Vol. 22
- Opportunism and Collapse of Second International (1915), in: LCW 22
- ____The Collapse of the Second International (1915), in: LCW Vol.21
- ____On the Two Lines in the Revolution (1915), in: LCW Vol.21
- ____On the Slogan for a United States of Europe (1915), in: LCW21
- ____Social–ChauvinistPolicyBehindACoverOfInternationalistPhras–

- es(1915);in:CW
 Vol. 21
 ___Imperialism and Socialism in Italy (1915), in: LCW Vol.21
 ___The Defeat of one's own Government in the Imperialist War (1915);
 in: LCW 21
 ___The Junius Pamphlet (1916); in: LCW22
 ___The Discussion on Self-Determination Summed Up (1916); in: CW
 Vol.22
 ___German and Non-German Chauvinism (1916); in: LCW22
 ___The Socialist Revolution and the Right of Nations to Self-Determina-
 tion (1916);in:
 LCW Vol. 22
 ___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1916); in: LCW Vol.22
 ___Imperialism and the Split in Socialism (1916); in: LCW Vol.23
 ___A Caricature of Marxism and Imperialist Economism (1916); in: LCW
 Vol.23
 ___The Military Programme of the Proletarian Revolution (1916); in: LCW
 Vol.23
 ___War and Revolution (1917), in: LCW24
 ___The Impending Catastrophe and how to Combat it (1917); in: LCW
 Vol.25
 ___The State and Revolution. The Marxist Theory of the State and the
 Tasks of the Proletariat in the Revolution (1917), in: LCW Vol.25
 ___The Proletarian Revolution and the Renegade Kautsky (1918), in:
 LCW Vol.25
 ___Report on the Review of the Programme and on Changing the Name
 of the Party, March 8 (1918), in: LCW Vol.27
 ___The Heroes of the Berne International (1919); in: LCW29
 ___Speech Closing The Debate On The Party Programme, Eight Con-
 gress of the R.C.P.(B.) March 18-23, 1919, in: LCW Vol.29
 ___The Constituent Assembly Elections and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in: LCW 30
 The Third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Speeches At A
 Meeting Of Members Of The German, Polish, Czechoslovak, Hun-
 garian And Italian Delega- tions, 11.7.1921, in: LCW Vol. 42
 Notes on the Tasks of our Delegation at The Hague (1922), in: LCW Vol.
 33
 On the Question of Imperialism, in: LCW 39
 SämtlicheWerke,BandXVIII(DerimperialistischeKrieg1914-15),Verlag-
 fürLiter- atur und Politik, Wien1929
 Clausewitz' Werk 'Vom Kriege' . Auszüge und Randglossen, Verlag
 des Ministeri- ums für nationale Landesverteidigung, Berlin 1957
 andG.Zinoviev:Socialism and War. The Attitude of the R.
 S.D.L.P.towardtheWar (1915); in: LCW 21

- Leonard, Jenny, Josh Wingrove, Jennifer Jacobs, and Andrew Mayeda: Trump Clinch— es Rebranded Nafta as Canada Joins Pact With Mexico, 1. Oktober 2018, [https:// www.bloomberg.com/news/arti-
cles/2018-10-01/u-s-canada-agree-to-nafta-replace-ment-
that-will-include-mexico?srd=premium-europe](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10-01/u-s-canada-agree-to-nafta-replacement-that-will-include-mexico?srd=premium-europe)
- Lieven, D. C. B.: Russia and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Palgrave Macmillan, London 1983
- Linke, Horst Gunther: Das zarische Russland und der Erste Weltkrieg. Diplomatie und Kriegsziele 1914-1917, Wilhelm Fink Verlag, München 1982
- LINKE: LINKE weist Antisemitismus-Vorwürfe zurück. Der Par- teivorstand der LINK- ENhatam21.Mai2011ohneGegenstimmend- iefolgendeErklärungverabschiedet: [http://www.die-linke.de/partei/
organe/parteivorstand/parteivorstand20102012/beschluesse/linke-
weistantisemitismusvorwuerfezurueck/](http://www.die-linke.de/partei/ organe/parteivorstand/parteivorstand20102012/beschluesse/linke- weistantisemitismusvorwuerfezurueck/)
- Parliamentary Group of the LINKE: Entschieden gegen Antisemitismus, 8. Juni 2011, [http://www.die-linke.de/nc/dielinke/nachrichten/detail/
artikel/entschieden-gegen-antisemitismus](http://www.die-linke.de/nc/dielinke/nachrichten/detail/ artikel/entschieden-gegen-antisemitismus)
- Lisan, Ivan: Weimar republic to Reich, 01.02.2016, [http://rabkor.ru/col-
umns/de-bates/2016/02/01/weimar-republic-to-reich/](http://rabkor.ru/col- umns/de-bates/2016/02/01/weimar-republic-to-reich/)
- Lissagaray, Prosper: Geschichte der Kommune von 1871, Rütten & Loen- ing, Berlin 1956
- Lo, Bobo: Russia and the new world order, Chatham House, London 2015
- Lopes, Tiago Camarinha: Marx and Marini on Absolute and Relative Sur- plus Value, on: International Critical Thought, Vol. 3, Issue 2 (2013)
- and Mário Costa de Paiva Guimarães Júnior: Trotsky' s Law of Uneven and Com- bined Development in Marini' s Dialectics of Depend- cy, Fourth Annual Confer- ence in Political Economy, July 9-11, 2013, The Hague, The Netherlands
- Longworth, Philip: Peasant leadership and the Pugachev revolt, in: The Journal of Peas- ant Studies, 2:2 (1975)
- Löw,Raimund:DerZerfallderKleinenInternationale:Nationalitätenkonflikteind er Arbeiterbewegung des alten Österreich (1889-1914), Europaver- lag, Wien 1984 Löwy,Michel:MarxistsandtheNationalQuestion,in:NewLeft Review96,March- April 1976
- Ludeña, Miguel Perez: Adapting to the Latin American experience; in: EAST ASIA FO- RUM QUARTERLY, Vol.4 No.2 April - June 2012
- Luft, Paul: Strategische Interessen und Anleihenpolitik Ru ßlands im Iran,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Vol. 1 (1975), No. 3
- Luxemburg, Rosa: Peace Utopias (1911), in: Richard B. Day and Daniel F. Gaido (Eds): DiscoveringImperialism:SocialDemocracytoWorldW

- arI, Historical Materialism Book Series Vol. 33, Leiden 2012, online:
<https://www.marxists.org/archive/luxemburg/1911/05/11.htm>
- Maddison, Angus: The World Economy: A Millennial Perspective, Vol. 1, 2001
- Maito, Esteban Ezequiel: The historical transience of capital. The downward trend in the rate of profit since XIX century, 2014
- Mandel, Ernest: Die EWG und die Konkurrenz Europa - USA, Europäische Verlagsanstalt, Frankfurt a.M. 1968
- The Meaning of the Second World War, Verso, London 1986
- Mandelbaum, Kurt: Sozialdemokratie und Imperialismus (1928), in: Kurt Mandelbaum: Sozialdemokratie und Leninismus, Rotbuch Verlag, Berlin 1974
- Marini, Ruy Mauro: Brazilian Subimperialism, in: Monthly Review Vol. 23, No. 9 (February 1972)
- Marshall, Alex: The Caucasus under Soviet rule, Routledge, London 2010
- Martin, Neil A.: Marxism, Nationalism, and Russia, in: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29, No. 2 (April-June 1968)
- Martin, Simon Zamora: Neue Eskalationsstufe im Handelskrieg der USA gegen China, 19. Sep 2018, <https://www.klassegegenklasse.org/neue-eskalationsstufe-im-handelskrieg-der-usa-gegen-china/>
- Martow, Julius: Geschichte der russischen Sozialdemokratie (1918/26), Erlangen 1973
- Marx, Karl: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1852), in: Marx Engels Collected Works, Vol. 11
- ____ The Civil War in France, in: MECW, Vol.22
- ____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in: MECW, Vol.29
- ____ Die Geschichte der Geheimdiplomatie des 18. Jahrhunderts. Über den asiatischen Ursprung der russischen Despotie, Berlin, Olle & Wolter, Berlin 1977
- The Eastern Question. A Reprint of Letters written 1853-1856 dealing with the events of the Crimean War, Edited by Eleanor Marx Aveling and Edward Aveling, Swan Sonnenschein & Co, London 1897
- and Frederick Engels: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1847), in: MECW Vol. 6
- and Friedrich Engels: German Foreign Policy and the Latest Events in Prague (in: Neue Rheinische Zeitung 12 July 1848), in: MECW Vol. 7
- McCurry, Justin: Japan to get first aircraft carrier since second world war amid China concerns, 29 Nov 2018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nov/29/japan-to-get-first-aircraft-carrier-since-second-world-war-amid-china-concerns>

- McKinsey Global Institute: Global growth: Can productivity save the day in an aging world? January 2015
- Merli, Francesco: Russian annexation of Crimea - What consequences for world relations? 21 March 2014 <https://www.marxist.com/russian-annexation-of-crimea-what-consequences-for-world-relations.htm>
- Meier, Manfred: Nachbeben des Brexit - Zur Rechtswende von L5I: das „JA“ zum Verbleib in der EU, August 2016, <http://www.thecomunists.net/home/deutsch/gam-brexite/>
- Meyer, Jürgen: »Maintenant le Peuple« (MLP, Jetzt das Volk): Spaltung der Europäischen Linken oder neuer Linker Sammlungsbewegung? 12. Juli 2018 <http://internetz-zeitung.eu/index.php/4839-%C2%BBmaintenant-le-peuple%C2%AB-mlp,-jetzt-das-volk-spaltung-der-europ%C3%A4ischen-linken-oder-neue-linker-sammlungsbewegung>
- Michael, Franz and Chung-li Chang: The Taiping Rebellion. History and Documents Vol.1,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London 1966
- Mirovlev, Mansur: Russia's Communist Party turns to the Orthodox Church. After decades of militant atheism, Russian Communists turn to religious establishment to gain supporters, 2016-12-12, <http://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2016/12/russia-communist-party-turns-orthodox-church-161212075756966.html>
- Mitina, Darya: Comment on the Taliban in Afghanistan, Не думала, что доживу до такого позорища, November 10th, 2018, <https://kolobok1973.livejournal.com/4688030.html>
- Modrow, Hans, Manfred Sohn: Vor dem großen Sprung? Überblick über die Politik der Japanischen Kommunistischen Partei, GNN-Verlag, Schkeuditz 2000
- Moneta, Jakob: Die Kolonialpolitik der französischen KP, Hannover 1968
- Morena, Mariana: Sanciones cruzadas entre Estados Unidos y China: ¿Hacia una „guerra comercial global“? <http://www.uit-ci.org/index.php/noticias-y-documentos/crisis-capitalista-mundial/2071-2018-07-13-01-07-42>
- Morley, Daniel: China and the World Economy in 2016: "Sell Everything", 12 January 2016 <http://www.marxist.com/china-world-economy-2016-sell-everything.htm>
- Motojirō, Akashi: Rakkaryusui: Colonel Akashi's Report on His Secret Cooperation with the Russian Revolutionary Parties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O. Fältand
A. Kujala (Eds.), Studia Historica 31, Helsinki, 1988
- Mottas, Nikos: Was werden die griechischen Kommunisten im Falle eines Krieges tun?; in: Einheit und Widerspruch (Theoretisches und Diskussionsorgan der Partei der Arbeit Österreichs), Heft 6, Juni 2018, http://parteiderarbeit.at/?page_id=1915

- Mulholland, Niall: Trump orders missile strikes against Shayra airbase, Committee for a Workers' International, The Socialist issue 944, 12 April 2017 https://www.socialistparty.org.uk/keyword/Committee_for_a_Workers_International/Cwi/25244/12-04-2017/attacks-ratch-et-up-syrian-conflict-and-fuel-tensions-between-powers
- Mutual interests strengthen South Africa-China relations, 2018-May-29, http://www.sz-daily.com/content/2018-05/29/content_21019455.htm
- Münz, Rainer and Heinz Fassmann: Migrants in Europe and their Economic Position: Evidence from the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and from Other Sources (2004)
- Nagle, Angela: The Left Case against Open Borders, in: American Affairs, Volume II, Number 4 (Winter 2018), <https://americanaffairsjournal.org/2018/11/the-left-case-against-open-borders/>
- Nation, R. Craig: War on War,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1989
- Navarro, Peter: The Coming China Wars - Where They Will Be Fought and How They Can Be Won, Financial Times Press, New Jersey 2006
- Crouching Tiger: What China's Militarism Means for the World, Prometheus Books, New York 2015;
- and Greg Autry: Death by China: Confronting the Dragon - A Global Call to Action for the Western World, Pearson Education, New Jersey 2011
- Nayyar, Deepak: The South in the World Economy: Past, Present and Future,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Occasional Paper 2013/01
- Nocera, Joe: This Map Shows Why Trump Couldn't Kill NAFTA, 1. Oktober 2018, <https://www.bloomberg.com/view/articles/2018-10-01/virginia-and-cana-da-forged-deals-through-nafta?srnd=premium-europe>
- Nussbaum, Helga: Der europäische Wirtschaftsraum. Verflechtung, Angleichung, Diskrepanz, in: Fritz Klein / Karl Otmar von Aretin (Eds): Europa um 1900, Akademie-Verlag, Berlin 1989
- OKDE: Prespa Agreement - Referendum in neighboring Macedonia, 24.9.2018, <https://www.thecommunists.net/forum/okde-greece-referendum-in-neighboring-macedonia/>
- Osborne, Peter: How US sanctions on Iran could herald a profound global power shift, 2 November 2018 <https://www.middleeasteye.net/columns/how-us-sanctions-iran-could-herald-profound-global-power-shift-538116542>
- Omissi, David: The Sepoy and the Raj: The Indian Army, 1860 - 1940, Studies in Military and Strategic History, Palgrave Macmillan UK, London 1994.
- Omura, Tomohiro: The Maturity of Emerging Economies and New Developments in the Global Economy, Mitsui Global Strategic Studies Institute

- Monthly Report, April 2017
- Pal, Adam: Pakistan: The ever growing power of China, 02 March 2017, <http://www.marxist.com/pakistan-the-ever-growing-power-of-china.htm>
- Parariga, Aleka (KKE General Secretary): The Position of Greece within International Capitalism, Article for “El Machete,” the Theoretical and Political Review of the CP of Mexico, <http://mltoday.com/the-position-of-greece-within-international-capitalism>
- Parslow, Kevin (Socialist Party, CWI in England & Wales): CWI School 2018: 10 years after 2007/8 crisis, capitalism has solved nothing, 08 August 2018 <http://www.socialistworld.net/index.php/192-cwi/9901-cwi-school-2018-world-perspectives>
- Partido Obrero: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debate (adopted by the National Committee of Partido Obrero), 21.3.2018, <http://www.prensaobrera.com/prensaObrera/online/en/partido-obrero-s-contribution-to-the-international-conference-debate>
- PT (Uruguay), DIP (Turkey), EEK (Greece): Decla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13.4.2018, <http://www.prensaobrera.com/prensaObrera/online/internacion-ales/declaration-of-the-international-conference>
- Pasha: China: Deepening crisis and mass resistance, Socialist Action (CWI in Hong Kong), 14 August 2018 <http://www.socialistworld.net/index.php/international/asia/china/9905-china-deepening-crisis-and-mass-resistance>
- Pavlov, Dmitrii B.: Japanese Money and the Russian Revolution, 1904–1905, in: Acta Slavica Iaponica, No. 11 (1993)
- Pearce, Brian: Lenin and Trotsky on Pacifism and Defeatism, in: Labour Review, Vol. 6 (1961), No. 1, <http://www.whatnextjournal.co.uk/Pages/History/Pearce.html>
- Pei, Minxin: China’s Crony Capitalism. The Dynamics of Regime Deca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16
- _____. The Sino-American cold war’s collateral damage. October 19, 2018 <http://www.arabnews.com/node/1390641>
- Pentagon: Assessing and Strengthening the Manufacturing and Defense Industrial Base and Supply Chain Resiliency of the United States, Report to President Donald J. Trump by the Interagency Task Force in Fulfillment of Executive Order 13806, September 2018
- Perlez, Jane: Xi Jinping Extends Power, and China Braces for a New Cold War, 27 February 2018 NYT, <https://www.nytimes.com/2018/02/27/world/asia/xi-jinping-china-new-cold-war.html>
- Pesek, William: Abe’s Japan tries a decidedly foreign concept, November 19, 2018 <http://www.atimes.com/article/abes-japan-tries-a-decidedly-foreign->

concept/

- Petrov, Ju.A. : Die Bourgeoisie Rußlands zu Beginn des 20.Jahrhunderts: Versuche einer politischen Konsolidierung, in: Berliner Jahrbuch für osteuropäische Geschichte, 1997
- Peters, Dorothea: Politische und gesellschaftliche Vorstellungen in der Aufstandsbewegung unter Pugačev (1773 - 1775). Wiesbaden, Berlin 1973
- Pinchuk, Denis, Maria Kiselyova: 'No miracles' : labor shortage set to hit Russia' s GDP, Reuters, October 3, 2017 <https://www.reuters.com/article/us-russia-labour-demography/no-miracles-labor-shortage-set-to-hit-russias-gdp-idUSKCN1C80CY>
- Plate, Alice: Der Pugačev-Aufstand: Kosakenherrlichkeit oder sozialer Protest, in: Heinz-Dietrich Löwe: Volksaufstände in Rußland. Von der Zeit der Wirren bis zur «GrünenRevolution» gegen die Sowjetherrschaft, Otto Harrassowitz Verlag, Wiesbaden 2006
- Platt, Stephen R.: Autumn in the Heavenly Kingdom: China, the West, and the epic story of the Taiping Civil War, Alfred A. Knopf, New York 2012
- Plucinska, Joanna, Anna Koper: Poland arrests two over spying allegations, including Huawei employee, January 11, 2019 / <https://www.reuters.com/article/us-poland-security/poland-arrests-two-over-spying-allegations-including-huawei-employee-idUSKCN1P50RN>
- Podkaminer, Leon: Has Trade Been Driving Global Economic Growth,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2016, Working Paper 131
- Politsturm: Почему Путин помог Майдану победить? (Why Putin helped Maidan to win), 16.08.2018, <https://politsturm.com/pochemu-putin-pomog-majdanu-pobedit/> PONARS Eurasia: Russian Foreign Policy after Crimea - How To Understand And Address It, Policy Perspectives, September 2017
- M. N. Pokrovskii: Aus den Geheim-Archiven des Zaren. Ein Beitrag zur Frage nach den Urhebern des Weltkrieges, August Scherl, Berlin 1919
- ____Historische Aufsätze. Ein Sammelband, Verlag für Literatur und Politik, Wien und Berlin 1928
- ____Geschichte Russlands von seiner Entstehung bis zur neuesten Zeit, C.L.Hirschfeld Verlag, Leipzig 1929
- ____Russische Geschichte, Berlin 1930
- ____Vorwort des russischen Herausgebers, in: Otto Hoetzsch (Ed.): Internationale Beziehungen im Zeitalter des Imperialismus, Reihe 1, 1.

- Band, Verlag von Reimar Hobbing, Berlin 1931
- Russia in World History; Selected Essays, Edited by Roman Szporluk,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1970
- Pouliopoulos, Pantelis: Communists and the Macedonian Question [May 1940], Re-published in Spartakos No. 30, 1991, <https://www.marxists.org/archive/pouliop/works/1940/05/commac.htm>
- PravdaReport: Russia's gold reserves exceed 2,000 tons for the first time, 02 Nov 2018, http://www.pravdareport.com/news/russia/economics/02-11-2018/141931-russian_gold-0/
- PricewaterhouseCoopers: The Long View. How will the global economic order change by 2050? February 2017
- Pröbsting, Michael: Der kapitalistische Aufholprozess in Südkorea und Taiwan; in: Revolutionärer Marxismus Nr. 20 (1996). A shortened version of this article appeared as "Capitalist Development on South Korea and Taiwan" in: Trotskyist International No. 21 (1997),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capitalism-in-south-korea-tai-wan/>
- Imperialism, Globalization and the Decline of Capitalism (2008), in: Richard Brenner, Michael Pröbsting, Keith Spencer: The Credit Crunch – A Marxist Analysis, London 200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and-globalization/>
- Die Frage der Vereinigung Europas im Lichte der marxistischen Theorie. Zur Frage eines supranationalen Staatsapparates des EU-Imperialismus und der marxistischen Staatstheorie. Die Diskussion zur Lösung der Vereinigten Sozialistischen Staaten von Europa bei Lenin und Trotzki und ihre Anwendung unter den heutigen Bedingungen des Klassenkampfes, in: Unter der Fahne der Revolution Nr. 2/3 (2008),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marxismus-und-eu/>
- Marxismus, Migration und revolutionäre Integration (2010); in: Der Weg des revolutionären Kommunismus, Nr. 7,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werk-7>. A summary of this study in English-language: Michael Pröbsting: Marxism, Migration and revolutionary Integration,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1 (English-language Journal of the RCIT), <http://www.thecommunists.net/oppressed/revolutionary-integration/>
- Die halbe Revolution. Lehren und Perspektiven des arabischen Aufstandes, in: Der Weg des revolutionären Kommunismus, Nr. 8 (2011),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werk-8>
- The August uprising of the poor and nationally and racially oppressed in Britain: What would a revolutionary organisation have done?, 18.8.2011, <http://www.rkob.net/new-english-language-site-1/august-uprising-what-should-have-been-done/>
- Five days that shook Britain but didn't wake up the left. The bankruptcy

- of the left during the August uprising of the oppressed in Britain: Its features, its roots and the way forward,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1 (September 201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britain-left-and-the-uprising/>
- Greece: For a Workers' Government! Critical electoral support for SYRIZA and KKE! Workers: Organize and prepare yourselves for the struggle for power! 6.6.201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greece-for-a-workers-government/>
- After SYRIZA's victory in the Greek elections: The question of a Workers Government and the revolutionary way forward, June 201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after-the-greek-elections/>
-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2012),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 No to chauvinist war-mongering by Japanese and Chinese imperialism! 23.9.201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no-war-between-china-and-japan/>
- Liberation Struggles and Imperialist Interference. The failure of sectarian "anti-imperialism" in the West: Some general considerations from the Marxist point of view and the example of the democratic revolution in Libya in 2011, Autumn 201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liberation-struggle-and-imperialism/>
-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 On some Questions of the Zionist Oppression and the Permanent Revolution in Palestine ", in: Revolutionary Communism Nr. 10 (June 2013), <http://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permanent-revolution-in-palestine>
- Cuba's Revolution Sold Out? The Road from Revolution to the Restoration of Capit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uba-s-revolution-sold-out/>
- The Coup d'État in Egypt and the Bankruptcy of the Left's "Army Socialism" , August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egypt-and-left-army-socialism/>
- The CWI's "Socialist" Zionism and the Palestinian Liberation Struggle. A Reply from the RCIT, 15.9.2014,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wi-and-israel/>
-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5,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 The CWI's "Socialist" Zionism and the Palestinian Liberation Struggle. A Reply from the RCIT, 15.9.2014,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wi-and-israel/>
- The Uprising in East Ukraine and Russian Imperialism. An Analysis of Recent Developments in the Ukrainian Civil War and their Consequences for Revolutionary Tactics, 22. October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ukraine-and-russian-imperialism/>
- The China Question and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December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eply-to-csr-pco-on-china/>
- Building the Revolutionary Party in Theory and Practice. Looking Back and Ahead after 25 Years of Organized Struggle for Bolshevism, Vienna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cit-party-building/>
- France: "Communist" Party fails to Vote in Parliament against Imperialist War in Iraq! 15.1.2015, <http://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french-pcf-iraq-war/>
- ___ After the Paris Attack: Socialists must Join Hands with Muslim People Against Imperialism and Racism! Reformist and Centrist Forces try to derail the Workers Movement by Failing to Stand up for Solidarity with the Muslims and Against Imperialist War-Mongering! 17.1.2015, <http://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france-defend-muslims/>
- The Racist Character of Charlie Hebdo and the pro-imperialist campaign "Je Suis Charlie". Solidarity with Muslim People! NOT Solidarity with Charlie Hebdo! 17.1.2015, <http://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racist-charlie-hebdo/>
- The British Left and the EU-Referendum: The Many Faces of pro-UK or pro-EU Social-Imperialism. An analysis of the left's failure to fight for an independent, internationalist and socialist stance - both against British as well as European imperialism, Revolutionary Communism Nr. 40, August 2015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british-left-and-eu-referendum/>
- Summary of our main differences with the UIT-CI, October 201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ritique-of-uit-ci/>

- Summary of Our Main Differences with the FLTI, October 201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ritique-of-flti/>
- China's "Socialist" Billionaires, 16.11.2015, <http://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s-billionaires>
- Greece: A Modern Semi-Colony. The Contradictory Development of Greek Capitalism, Its Failed Attempts to Become a Minor Imperialist Power, and Its Present Situation as an Advanced Semi-Colonial Country with Some Specific Features, RCIT Books, Vienna 201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ece-semi-colony/>
- Migration and Super-exploitation: Marxist Theory and the Role of Migration in the present Period of Capitalist Decay, in: Critique: Journal of Socialist Theory (Volume 43, Issue 3-4, 2015)
- The Involuntary Self-Exposure of the WSW. A Brief Reply to a Lengthy Attack by David North's WSW against the RCIT, 18.4.2016,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reply-to-wsws-short/>
- Marxism and the United Front Tactic Today. The Struggle for Proletarian Hegemony in the Liberation Movement in Semi-Colonial and Imperialist Countries in the present Period, RCIT Books, Vienna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book-united-front/>
- Capitalism Today and the Law of Uneven Development: The Marxist Tradi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Present Historic Period, in: Critique: Journal of Socialist Theory, Volume 44, Issue 4, (2016), <http://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03017605.2016.1236483>
- Marxism, the European Union and Brexit. The L5I and the European Union: A Right Turn away from Marxism. The recent change in the L5I's position towards the support for EU membership represents a shift away from its own tradition, of the Marxist method, and of the facts; August 2016, in: Revolutionary Communist No. 55,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eu-and-brexit/>
- Does the EU Represent "Bourgeois Democratic Progress"? Once again, on the EU and the Tactics of the Working Class - An Addendum to our Criticism of the L5I's Turn to the Right and Its Support for EU Membership, 16.09.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eu-brexit-article/>
- The Meaning, Consequences and Lessons of Trump's Victory. On the Lessons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Outcome and the Perspectives for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lass Struggle, 24. November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meaning-of-trump/>
- __Is the Syrian Revolution at its End? Is Third Camp Abstentionism Justified? An essay on the organs of popular power in the liberated area of Syria, on the character

- of the different sectors of the Syrian rebels, and on the failure of those leftists who deserted the Syrian Revolution, 5 April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yrian-revolution-not-dead/>
- Patriotic “Anti-Capitalism” for Fools. Yet Again on the CWG/LCC’s Support for “Workers’ ” Immigration Control and Protectionism in the US, 30.5.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wg-lcc-us-protectionism/>
- Dialectics and Wars in the Present Period. Preface to Rudolf Klement’s Principles and Tactics in War, June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dialectics-war/>
- The China-India Conflict: Its Causes and Consequences. What are the background and the nature of the tensions between China and India in the Sikkim border region? What should be the tactical conclusions for Socialists and Activists of the Liberation Movements? 18 August 2017, Revolutionary Communism No. 7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ndia-rivalry/>
- Michael Pröbsting: US Aggression against North Korea: The CWI’s “Socialist” Pacifism, 12.09.2017,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wi-and-north-korea/>.
- Catalunya’s Struggle for Independence and its Pseudo- “Left-Wing” Critiques, 27.10.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atalunya-s-struggle-for-independence-and-its-pseudo-left-wing-critiques/>
-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RCIT Books, Vienna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8/>
- Syria and Great Power Rivalry: The Failure of the „Left“. The bleeding Syrian Revolution and the recent Escalation of Inter-Imperialist Rivalry between the US and Russia - A Marxist Critique of Social Democracy, Stalinism and Centrism, 21 April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yria-great-power-rivalry-and-the-failure-of-the-left/>
- The Catastrophic Failure of the Theory of “Catastrophism”. On the Marxist Theory of Capitalist Breakdown and its Misinterpretation by the Partido Obrero (Argentina) and its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Refoundation of the Fourth International”, RCIT Pamphlet, Ma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atastrophic-failure-of-the-theory-of-catastrophism/>
- The Mad Man plays with fire, again. A Commentary on Trump’s Decision to Pull the U.S. out of the Iran Nuclear Deal, 9 Ma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trump->

[pulls-u-s-out-of-iran-nuclear-deal/](#)

Where Do Socialists Stand in Face of the Looming Global Trade War? A Showcase of the Practical Consequences of the Assessment of the Class Character of the Chinese State, 17 June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here-do-social-ists-stand-in-face-of-the-looming-global-trade-war/>

The Global Trade War has Begun. What is its Meaning and what should be the Response of Socialists?, 13 Jul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global-trade-war-has-begun/>

Again on Capitali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12 June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again-on-capitalist-restoration-in-north-korea/>

In What Sense Can One Speak of Capitali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Reply to Several Objections Raised by the Polish Comrades of “Władza Rad”, 21 June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north-korea-and-the-marxist-theory-of-capitalist-restoration/>

Has Capitali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Crossed the Rubicon or Not? Reply to a Polemic of Władza Rad (Poland), 15 Jul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has-capitalist-restoration-in-north-korea-crossed-the-rubicon-or-not/>

63,000 Troops. Russian Imperialist Forces back up the Reactionary Assad Regime in Syria, 27.08.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63-000-russian-troops-in-syria/>

China: Defend the Muslim Uyghurs against Oppression! 18.10.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defend-the-muslim-uy-ghurs-against-oppression/>

China: A Paradise for Billionaires. The latest UBS/PwC Report about the Global Super-Rich Delivers another Crushing Blow to the Stalinist Myth of China's “Socialism”, 27.10.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is-a-paradise-for-billionaires/>

The Global Super-Rich Get Even Richer. UBS/PwC Publish their latest Report about the World's Billionaires, 27.10.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global-super-rich-get-even-richer/>

and Almedina Gunić: How the Pentagon Views the World Situation. A New Study by the US Military Confirms Marxists' Analysis of the Current Historic Period, 25 July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entagon-study/>

and Andrew Walton: The Slogan of “Workers'” Immigration Control: A Concession to Social-Chauvinism, 27.3.2017,

-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kers-immigration-control/>
- and Andrew Walton: A Social-Chauvinist Defence of the Indefensible. Another Reply to the CWG/LCC's Support for "Workers' " Immigration Control, 14.5.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wg-immigration-control/>
- Pushkin, Alexander: Geschichte des Pugatschew'schen Aufruhrs, Stuttgart 1840
- Rabkor: Editorial: Russia and Crimea, 24.03.2014, <http://rabkor.ru/columns/editorials/2014/03/24/russia-and-crimea/>
- С тр е л ко в р а с с к а з а л , ч т о с е й ч а с о б ъ е д и н я е т “ к р а с н ы х ” и “ б е л ы х ” , 24.01.2015 <http://rabkor.ru/columns/events/2015/01/24/conference-novorossia/>
- Rachel, Lukasz and Thomas D Smith: Secular drivers of the global real interest rate,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No. 571, December 2015
- Radek, Karl: Our Struggle against Imperialism (1912), in Richard B. Day and Daniel F. Gaido (Eds): Discovering Imperialism: Social Democracy of World War I, Historical Materialism Book Series Vol. 33, Leiden 2012
- Raef, Marc: Pugachev's Rebellion, in: Robert Forster (Ed.): Preconditions of Revolution in Early Modern Europ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1970
- Rauch, Georg von: Rußland im Zeitalter des Nationalismus und Imperialismus (1856–1917), Kopenikus Verlag, München 1961
- RED*LIBERATION (Bulletin of Socialists in the Labour Party): UK: No to Cameron's Trap: Neither YES nor NO to UK membership in the EU! For Abstention in the Referendum! We call on Momentum to create a "Third Camp" and to launch a socialist and internationalist campaign! For international Unity of the British, Mi-grant and European Workers! 25 February 2016, <https://redliberation.wordpress.com/2016/05/02/100/>
- Reinl, James: Is a US-China war in Asia inevitable? 2018-10-30 <https://www.aljazeera.com/news/2018/10/china-war-asia-inevitable-181029195111603.html>
- Reisberg, Arnold: Lenin und die Zimmerwalder Bewegung. Berlin 1966.
- Restrepo-Echavarria, Paulina and Maria A. Arias: Tigers, Tiger Cubs and Economic Growth, May 25, 2017 <https://www.stlouisfed.org/on-the-economy/2017/may/tigers-tiger-cubs-economic-growth>
-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endency: Perspectives on the Greek Revolution, 10.11.2011, <https://www.thecommunists.net/>

- worldwide/europe/greece-revolution-or-tragedy/
The Revolutionary Communist Manifesto, 2012, <https://www.thecommunists.net/rcit-manifesto/>
- Victory! The Charge against RKOBS Spokesperson and Palestine Solidarity Activist Johannes Wiener has been dropped! 10.1.2013, <http://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solidarity-with-wiener-won/>
- No War against North Korea! Call for Protests on the Day when a War starts! 6.4.201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no-war-against-north-korea/>
- New Imperialist Threats in East Asia: Hands off North Korea! 12.3.201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defend-north-korea/>
- France after the Attacks in Paris: Defend the Muslim People against Imperialist Wars, Chauvinist Hatemongering, and State Repression! 9.1.2015, <http://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state-ment-paris-attacks/>;
- General Sisi, Hollande, Obama: Hands Off Libya! Defeat General Gaddafi's Imperialist Lackeys! Down with the Daash-Gang of Killers! For a Workers' and Popular Government! 26.2.2015, <http://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hands-off-libya/>
- Macedonia: Stop the Police Violence! Support the National Self-Determination of the Albanian Minority! For a Workers and Peasants Government! For a Socialist Federation of the Balkan People! 8.5.201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macedonia-statement/>
- Europe / North Africa: Storm the Gates of Rome! Open Borders for Refugees! Stop the Imperialist EU-War against Refugees! No to the Preparations for an Imperialist Aggression against Libya! 22.5.2015, <http://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eu-war-against-refugees/>
- Terror in Paris is the Result of Imperialist Terror in the Middle East! Stop France's and other Imperialist Powers' Warmongering! No Mobilization of the Army inside France! Defend the Muslim Peoples against Chauvinist Hatemongering and State Repression! 14.11.201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terror-in-paris/>
- Increasing Instability and Militarization in the European Union. On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in the New Political Phase which has Opened in Europe after the Terrorist Attack in Paris, 08.12.201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militarism-in-eu/>

- Stop the US Bombing of Libya! 23.2.2016,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us-bombing-libya/>
- Revolution and Counterrevolution in the Arab World: An Acid Test for Revolutionaries,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theses-arab-revolution/>
- and RCIT Britain: Boycott Cameron's Trap: Neither Brussels, nor Downing Street! For Abstention in Britain's EU-Referendum! For international Unity and Struggle of the Workers and Oppressed! Fight against both British as well as European Imperialism! Forward to the United Socialist States of Europe, 2 August 2015, <http://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eu-referendum-in-uk/>
- Manifesto for Revolutionary Liberation,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rcit-program-2016/>
- ____ Advancing Counterrevolution and Acceleration of Class Contradictions Mark the
 Opening of a New Political Phase.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January 2016),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6,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6/>
- TEKYOLDEVRİM! Action Program for Turkey by Sınır Savaşçı (Section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endency in Turkey), October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rogram-turkey/>.
- After the BREXIT Vote - Stormy times ahead for the workers and oppressed in Britain, 24.6.2016, <http://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brexit-vote-results/>
- In the Wake of the PSTU/LIT-CI Split, What Lessons Can Be Learned? An Open Letter to Members and Sympathizers of the International Workers League (Fourth International), 11.7.2016, <https://www.thecommunists.net/rcit/open-letter-lit-ci/>
- Stop Judicial Prosecution for Solidarity with Palestine! A Call to the Austrian State to Drop Its Charges against Michael Pröbsting! <https://www.thecommunists.net/rcit/solidarity-proebsting/>
- The China - Pakistan Economic Corridor is a Project of Chinese Imperialism for the Colonialization of Pakistan! Joint Statement of the International Secretariat of the RCIT and the Revolutionary Workers Organization (Pakistani Section of the RCIT), 22.1.2017,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pakistan-cpec/>
- North Korea: Stop the War Mongering of US Imperialism! 4 April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us-aggression-vs-north-korea/>

North Korea: Stop the American Warmongers! Defend North Korea against the Madman of US Imperialism! Down with the imperialis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No political support for the Stalinist Kim Regime! 11 August 2017, [https:// 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stop-us-madman-threatening-north-ko-rea/](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stop-us-madman-threatening-north-ko-rea/)

Where does the RCIT Stand on Russia's Occupation of Chechnya? [https:// www.thecommunists.net/theory/russia-and-chechnya/](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ussia-and-chechnya/)

Global Trade War: No to Great Power Jingoism in West and East! Neither Imperialist Globalization nor Imperialist Protectionism!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Joint Struggle of the Working Class and Oppressed People! 4 July 2018, [https:// www.thecommunists.net/rcit/joint-statement-on-the-looming-global-trade-war/](https://www.thecommunists.net/rcit/joint-statement-on-the-looming-global-trade-war/)

US Sanctions against Russia, Iran, and North Korea are an Economic Declaration of War, 30 July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north-america/us-sanctions-vs-russia-iran-north-korea/>

Six Points for a Platform of Revolutionary Unity Today. A Proposal from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endency (RCIT), Februar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rcit/6-points-for-a-platform-of-revolutionary-unity-today/>

Warmongering in the Middle East: Down with all Imperialist Great Powers and Capitalist Dictatorships! Joint Statement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endency (RCIT), Alkebulan School of Black Studies (Kenya), Pacesetters Movement (Nigeria), Pan-African Consciousness Renaissance (Nigeria), Marxist Group 'Class Politics' (Russia), and Sınır Savaşı (Turkey), 13 May 2018, [https:// 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joint-statement-war-mongering-in-the-middle-east/](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joint-statement-war-mongering-in-the-middle-east/)

Has the Trump-Kim Summit Opened the Road to Peace in East Asia? 14.06.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has-the-trump-kim-summit-opened-the-road-to-peace-in-east-asia/>

Theses on Revolutionary Defeatism in Imperialist States, 8 Sept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ses-on-revolutionary-defeatism-in-imperialist-states/>

Trump threatens to withdraw from INF Treaty: No to a New Imperialist Arms Race! The Acceleration of Rivalry between the Great Powers Increases the Risks of World War III, 25 October 2018, [https:// 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rump-threatens-to-withdraw-from-inf-treaty/](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rump-threatens-to-withdraw-from-inf-treaty/)

Central America/Mexico/U.S.: Solidarity with the Migrants' Caravan! 01.11.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latin-america/central-america-mexico-us-solidarity-with-the-migrants-caravan/>

- France: Defend the “Yellow Vests” Movement against State Repression! 03.12.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france-defend-the-yellow-vests-movement-against-state-repression/>
- and MGKP (Russia): Military Escalation between Russia and Ukraine at the Kerch Strait. Down with the Reactionary Warmongering on Both Sides! 28 Nov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military-escalation-between-russia-and-ukraine-at-the-kerch-strait/>
- Revolutionary Communist Organization LIBERATION (Austrian Section of the RCIT): Bericht der RKOB-Delegation über ihren Aufenthalt in London 2011, <http://www.rkob.net/international/berichte-uprising-in-gb/>,
- Report on May Day 2016 in Austria: Joint Resistance against Racist Attacks. Forceful, militant, internationalist demonstration despite racist attacks, Report (with Pictures and Videos) on the multinational, internationalist demonstration in Vienna marking May Day 2016 organized by the Revolutionary Communist Organization LIBERATION, <https://www.thecommunists.net/rcit/report-may-day-2016-in-austria/>
- KPÖ schließt RKOB aus und macht den Weg frei für Frauenschläger der Anti-Nationalen Szene. Wiederholter körperlicher Angriff auf Genossin Gunić am Volkstimmefest, Bericht der Revolutionär-Kommunistischen Organisation BEFREIUNG zum Volkstimmefest 2016, 05.09.2016, <https://www.rkob.net/wer-wir-sind-1/rkob-aktiv-bei/bericht-vs-fest-2016/>
- Austria: “Left-Wing” Zionists Attack Arab Migrants at Demonstration in Solidarity with Refugees! Report (with Pictures and Videos) from the anti-racist Demonstration on 26 November in Vienna by the Austrian Section of the RCIT, 27.11.2016, <https://www.thecommunists.net/rcit/zionists-attack-rcit-austria/>
- Austria: Right-Wing Party Opens Parliamentary Inquiry against the RCIT Section. Biggest Opposition Party smears the Trotskyists for alleged “Left-Wing Extremism”, “Antisemitism” and “Radical Islamism” and asks the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to officially investigate them, 29.01.2017, <https://www.thecommunists.net/rcit/parliamentary-inquiry-against-rcit-section/>
- Public Prosecution Department in Vienna Stops Investigation against Michael Pröbsting, 09.02.2017, <https://www.thecommunists.net/rcit/investigation-vs-proebsting-stopped/>
- Austria: Islamophobic Racism on the Rise! Solidarity with the Muslim Brothers and Sisters! No to the Closure of 7 Mosques and the Expulsion of 40 Imams and their Families! 8. June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islamophobic-racism-on-the-rise-in->

austria/

- Remnick, David: The Increasing Unfitness of Donald Trump. The West Wing has come to resemble the dankest realms of Twitter, in which everyone is racked with paranoia and everyone despises everyone else. January 15, 2018,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18/01/15/the-increasing-unfitness-of-donald-trump>
- Riddell, John: Lenin's Struggle for a Revolutionary International, New York: Pathfinder, 1984
- Riezler, Kurt (J. J. Ruedorffer): Grundzüge der Weltpolitik in der Gegenwart, Deutsche Verlags-Anstalt, Berlin 1914
- Rigault, Raoul: Why French troops are in Mali and why the French Communist Party supports the war, 26 February 2013 <https://www.marxist.com/why-french-troops-are-in-mali-and-why-the-french-supports-the-war.htm>
- Rjazanov, David Borisovič: Vorwort zur MEGA 1927, in: UTOPIE kreativ, H. 206 (Dezember 2007)
- Karl Marx über den Ursprung der Vorherrschaft Rußlands in Europa. Kritische Untersuchungen, in: Karl Marx, Die Geschichte der Geheimdiplomatie des 18. Jahrhunderts
- Roberts, James W.: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in Soviet Usage, in: Soviet Studies Vol. 29, Nr. 3 (July 1977)
- Roberts, Michael: A world rate of profit. Globalisation and the world economy (2012), http://thenextrecession.files.wordpress.com/2012/07/roberts_michael-a_world_rate_of_profit.pdf
- Imperialism, globalization and the profitability of capital, in: Rupture Magazine, Issue 1, <https://rupturemagazine.org/2018/01/25/imperialism-globalization-and-the-profitability-of-capital/>
- Rosdolsky, Roman: Studien über revolutionäre Taktik. Zwei unveröffentlichte Arbeiten über die II. Internationale und über die österreichische Sozialdemokratie, Verlag für das Studium der Arbeiterbewegung, West-Berlin 1973; in English: Imperialist War and the Question of Peace and can be read online here: <https://www.marxists.org/archive/rosdolsky/1978/impwarqpeace/index.htm>
- Engels and the "Nonhistoric" Peoples: The National Question in the Revolution of 1848, Critique Books, Glasgow 1986
- Ross, John: The Asian and Chinese economic growth models – implications of modern findings on economic growth, 2009-09-08, <http://socialisteconomicbulletin.blog-spot.com/>
- Why Are China and India Growing So Fast? State Investment, August 29, 2016,

- http://www.huffingtonpost.com/john_ross-/china-india-growth_b_11655472.html
- Ross, Robert: The End of U.S. Naval Dominance in Asia, November 18, 2018, <https://www.lawfareblog.com/end-us-naval-dominance-asia>
- Rothstein, Theodore: Beiträge zur Geschichte der Arbeiterbewegung in England, Vienna 1929
- Rowell, Alex: Small wonder: The global fascist love affair with the Assad regime, [https:// pulsemedia.org/2017/08/20/small-wonder-the-global-fascist-love-affair-with-the-assad-regime/](https://pulsemedia.org/2017/08/20/small-wonder-the-global-fascist-love-affair-with-the-assad-regime/)
- Roy, Kaushik (Ed): The Indian Army in the Two World Wars, History of Warfare 70, Brill Academic Publishers, Leiden 2012
- Russia Total External Debt, <https://tradingeconomics.com/russia/external-debt>
- Russia to develop production facilities in Cuba, 21 Jun, 2016, Russia Today, <https://www.rt.com/business/347586-russia-cuba-facilities-development/>
- Russian companies get green light to mine gold in Venezuela, 26 Dec, 2018 <https://www.rt.com/business/447438-venezuela-russia-gold-exploration/>
- Russian Communist Workers' Party: On the death of comrade, 24.05.2015, <https://rkrp-rpk.ru/2015/05/24/%D1%83%D0%B1%D0%B8%D1%82-%D0%B0%D0%BB%D0%B5%D0%BA%D1%81%D0%B5%D0%B9-%D0%BC%D0%BE%D0%B7%D0%B3%D0%BE%D0%B2%D0%BE%D0%B9/>

- _____ Against war! Against warmongering! 16.04.2018, <https://rkrp-rpk.ru/2018/04/16/%D0%BF%D1%80%D0%BE%D1%82%D0%B8%D0%B2-%D0%B2%D0%BE%D0%B9%D0%BD%D1%8B-%D0%B-F%D1%80%D0%B8%D0%B2-%D0%B-D%D0%B0%D0%B3%D0%BD%D0%B5%D1%82%D0%B0%D0%B-D%D0%B8%D1%8F-%D0%B2%D0%BE%D0%B5%D0%BD%D0%BD/>
- Russian Socialist Movement: Программа (Program), <http://anti-capitalist.ru/programm/> Социализм и загадка нации (No to Imperial language policies!), 27.06.2016, [http:// anticapitalist.ru/2016/06/27/337/](http://anticapitalist.ru/2016/06/27/337/)
- Ryan, James: 'Revolution is War' : The Development of the Thought of V. I. Lenin on Violence, 1899 - 1907, in: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89, No. 2 (April 2011)
- Safa, Henri: The Impact of Energy on Global Economy, in: International Journal of Energy Economics and Policy, Vol. 7 (2017), No. 2
- Sanborn, Joshua A.: Russian Imperialism, 1914 - 2014: Annexationist, Adventurist, or Anxious?, in: Revolutionary Russia, Vol. 27 (2014), No. 2
- Schlarp, Karl-Heinz: Ursachen und Entstehung des Ersten Weltkrieges im Lichte der sowjetischen Geschichtsschreibung, Alfred Metzner Verlag, Hamburg 1971 Schmidt, Gustav: Der europäische Imperialismus, R. Oldenburg Verlag, München 1985 Schramm, Gottfried: Das Zarenreich: ein Beispiel für Imperialismus,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Vol. 7 (1981), No. 2
- Schularick, Moritz: A Tale of two 'Globalizations' : Capital Flows from Rich to Poor in Two Eras of Global Finance, in: International Journal of Finance and Economics 11 (2006)
- Schwartz, Yossi: Egypt: The U.S. Support for the Military Coup and the Left' s ignorance, 11.7.201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egypt-us-support-for-military-coup/>
- _____ Was the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of Yemen a Deformed Workers State? August 201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outh-yemen/>
- _____ Occupied Palestine / Israel: Dead End for the Two-State Solution. The Palestini- an Liberation Struggle and the CWI' s Centrist Adaptation to Zionism, 12.11.201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palestine-and-cwi/>
- _____ Why Not to Vote for the Democratic Party in the Forthcoming US Elections Or At Any Other Time, 2.3.2016,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north-america/no-vote-sanders/>
- _____ Once Again: Opportunism of US Left Exposed. An Analysis of the US 2016 Elections Campaign, 14 August 2016, <https://www.the->

- communists.net/worldwide/north-america/left-and-us-election/
- ____ Raqqa: Defeat the US Imperialist Offensive! An assessment of the US/SDF/YPG war against Daesh, April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us-offensive-in-raqqa/>
- ____ Israel's Attack on Iranian Forces in Syria, 14.5.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israel-s-attack-on-iranian-forces-in-syria/>
- ____ Capitalist Trade and the Looming 3rd World War, 15 Jul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apitalist-trade-and-looming-3rd-world-war/>
- ____ Anti-Semitism and Anti-Zionism, 16 Nov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semitism-and-anti-zionism/>
- Seidel, Jamie: President Xi tells military to 'concentrate preparation for fighting a war', October 29, 2018, <https://www.news.com.au/technology/innovation/military/president-xi-tells-military-to-concentrate-preparation-for-fighting-a-war/news-story/e3929306705b623290b925cbba1fda9b>
- Semyonov, Alexander: Russian Liberalism and the Problem of Imperial Diversity, in: Matthew Fitzpatrick (Ed): Liberal Imperialism in Europe, Palgrave Macmillan, New York 2012
- Senn, Alfred Erich: The Russian Revolution in Switzerland, 1914-1917,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London 1971
- Serge, Victor: New Aspects of the Problem of War (August 1926), <https://www.marxists.org/archive/serge/1926/08/war.htm>
- Sergeev, Evgeny: Russian Military Intelligence in the War with Japan, 1904 - 05. Secret operations on land and at sea, Routledge, New York 2007
- Sewell, Rob: "Trade wars are good" - Trump threatens fragile world economy, 12 March 2018 <https://www.marxist.com/trade-wars-are-good-trump-threatens-fragile-world-economy.htm>
- Shachtman, Max: Old Garbage in New Pails, in: New International, Vol.5 No.6, June 1939, <https://www.marxists.org/archive/shachtman/1939/06/garbage.htm>
- Shekhovtsov, Anton: Boris Kagarlitsky, a Kremlin's mole in the left-ist movement, <http://anton-shekhovtsov.blogspot.co.uk/2014/09/>

- boris-kagarlitsky-kremlins-mole-in.html
- Shen, Jianguang: China needs to prepare for long-term rivalry with the US even if trade deal is reached, Global Times, 2019/1/9 <http://www.globaltimes.cn/content/1135170.shtml>
- Sinitsina, Irina: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Central Asian Countries: Trends and Outlook, 2012
- Shlyapnikov, Alexander: On the Eve of 1917 (1923), <http://www.marxists.org/archive/shliapnikov/1923/eve1917/index.html>
- Shukow, I. M. (Ed.): Weltgeschichte, VEB Deutscher Verlag der Wissenschaften, Berlin 1963, Vol. 1-10
- Singh, Ajit: China's rise threatens U.S. imperialism, not American people, Monthly Review Online, Apr 09, 2018, <https://mronline.org/2018/04/09/chinas-rise-threat-ens-u-s-imperialism-not-american-people/>
- _____ A New Era for Socialist China, 24 October 2017, <https://www.telesurtv.net/english/opinion/A-New-Era-for-Socialist-China-20171024-0008.html>
- _____ India and China: Rivals or Potential Partners in Liberation? November 2nd, 2017, <http://www.hamptoninstitution.org/india-and-china.html>
- Slaughter, Cliff: Lenin and the Imperialist War of 1914-1918, in: Fourth International, Vol. 4, No. 3, November 1967
- Slavin, David H.: The French Left and the Rif War, 1924-25: Racism and the Limits of Internationalism, in: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26, No. 1, January 1991
- Smith, David: Trump hails foreign policy shift on surprise visit to US troops in Iraq, 27 December 2018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8/dec/26/trump-iraq-visit-us-troops-shutdown>
- Socialist Fight: Defend Syria and Russia: Imperialism out of the Middle East, 14/04/2018 <https://socialistfight.com/2018/04/14/defend-syria-and-russia-imperialism-out-of-the-middle-east/>
- Socialist Party (CWI): Falklands war: what lessons for the labour movement? In: Socialism Today, No 108, April 2007, <http://www.socialismtoday.org/108/falklands.html>
- _____ British Perspectives 2013 (Congress Document), http://www.socialistparty.org.uk/partydoc/British_Perspectives_2013:_a_Socialist_Party_congress_document/16413
- „Solidarität mit Serbien “: Jubel für Strache in Belgrad, Der Standard, 5. Mai 2008, <https://derstandard.at/3290627/Solidaritaet-mit-Serbien-Jubel-fuer-Strache-in-Belgrad>
- Sontag, Raymond James and James Stuart Beddie (Ed.): Nazi-Soviet Relations, 1939-

1941. Documents from the Archives of the German Foreign Office, Department of State, 1948
- South China Morning Post: How Russia is boosting its role in Africa with weapons, investment and ‘instructors’ , 14 August, 2018, <https://www.scmp.com/news/world/africa/article/2159622/how-russia-boosting-its-role-africa-weapons-investment-and-china-making-two-billionaires-every-week-as-world-s-super-rich-become-wealthier-than-ever-before-report-reveals>, 26 October, 2018, <https://www.scmp.com/news/world/united-states-canada/article/2170348/china-making-two-billionaires-every-week-worlds>
- _____. China’s private economy set for winter ‘colder and longer than expected’ , warns billionaire tycoon, 28 December, 2018,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2179762/chinas-private-economy-set-winter-colder-and-longer-expected>
- _____. China’s state-owned companies enjoy record profits, even as private sector flounders, 18 January, 2019,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2182552/chinas-state-owned-companies-enjoy-record-profits-even-private>
- Spector, Maurice: Sanctions and the Coming War (1935), New International, Vol.2 No.7, December 1935, <https://www.marxists.org/history/etol/writers/spector/1935/12/sanctions.htm>
- Statement of the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of Europe condemning the escalation of the imperialist aggressiveness in Syria, 13 April 2018, <http://www.solidnet.org/greece-communist-party-of-greece/cp-of-greece-statement-of-the-communist-and-workers-parties-of-europe-condemning-the-escalation-of-the-imperialist-aggressiveness-in-syria-en-rues-ar-fr-sq>
- Steinberg, John W., Bruce W. Menning, David Schimmelpenninck, Van Der Oye, David Wolff, Shinji Yokote (Eds.): The Russo-Japanese War in Global Perspective. World War Zero, Vol. I and II, Brill, Leiden 2005 and 2007
- Sterk, Andre and Robin van Daalen: Immigration Holds Key to Labor Shortage, Wall Street Journal, June 28, 2011, <https://www.wsj.com/articles/SB10001424052702304314404576411362925170744>
- Stern, Johannes: Behind the designation of Russia and China as “imperialist” : A case study in theoretical charlatanry, WSWS, 14 April 2016, <http://www.wsws.org/en/articles/2016/04/14/prob-a14.html>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17 (Summary)
- _____. SIPRI Yearbook 2018 (Summary)

- ____ SIPRI Fact Sheet,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7, May 2018
- ____ SIPRI Yearbook 2018,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 Strauß, Hanno: Von Engels' „Panslawismus“ zu Marx' „Geheimdiplomatie“. Eine Herleitung politischer Ambitionen, in: Marx und Russland. Beiträge zur Marx-Engels-Forschung Neue Folge 2012, Argument, Hamburg 2014
- Strickland, Patrick: Why do Italian fascists adore Syria's Bashar al-Assad? 14 Feb 2018, <http://www.aljazeera.com/news/2018/01/italian-fascists-adore-syria-bashar-al-assad-180125115153121.html>
- Strobel, Georg W.: Quellen zur Geschichte des Kommunismus in Polen 1878-1918,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Köln 1968
- ____ Die Partei Rosa Luxemburgs, Lenin und die SPD. Der polnische „europäische“ Internationalismus in der russischen Sozialdemokratie; Franz Steiner Verlag, Wiesbaden 1974
- Suchkov, Maxim A.: Can Russia, China cooperate on the Middle East? December 12, 2018 <https://www.al-monitor.com/pulse/originals/2018/12/russia-china-cooperation-syria-middle-east.html>
- Sugasti, Daniel: We repudiate Trump's threats on more attacks to Syria! LIT-CI, April 10, 2018 <https://litci.org/en/we-repudiate-trumps-threats-on-more-attacks-to-syria/>
- Sun, Irene Yuan, Kartik Jayaram, Omid Kassiri: Dance of the lions and dragons. How are Africa and China engaging, and how will the partnership evolve? McKinsey & Company, June 2017
- Sumner, B. H.: New Material on the Revolt of Pugachev, in: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7, No. 19 (June 1928)
- ____ New Material on the Revolt of Pugachev: II, in: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7, No. 20 (January 1929)
- Svensson, Niklas Albin: World trade: Trump sets his eyes on China, 29 March 2018 <https://www.marxist.com/world-trade-trump-sets-his-eyes-on-china.htm>
- ____ Trump's war on globalisation, 04 June 2018 <https://www.marxist.com/trump-s-war-on-globalisation.htm>
- ____ China: a trade war the bourgeois can get behind, 21 June 2018 <https://www.marxist.com/china-a-trade-war-the-bourgeois-can-get-behind.htm>
- ____ The real stakes in the Trump-China trade war, 08 October 2018 <https://www.marxist.com/the-real-stakes-in-the-trade-war->

- [between-trump-china-trade-war.htm](#)
- Taaffe, Peter: The Rise of Militant, London 1995, Chapter 20 “The Falk-lands/Malvinas War” , <http://socialistalternative.org/literature/militant/>
- ____ Afghanistan, Islam and the Revolutionary Left (2002), <http://www.socialistworld.net/pubs/afghanistan/afghanchp1.html>
- ____ A socialist World is possible – the history of the CWI, 31.08.2004 <http://www.social-istworld.net/doc/4779>
- Tarnovskij, K.N. : Probleme des russischen Imperialismus in der sowjetischen Geschichtsschreibung, in: Jahrbuch für Geschichte der sozialistischen Länder Eu-ropas, Jg. 27, Berlin 1983
- TASS: Russia lost 112 servicemen over three years of counter-terror operation in Syria - MP, September 30, 2018, <http://tass.com/defense/1023714>
- Thatcher, Ian D.: Leon Trotsky and World War One August 1914 - February 1917, Mac-millan Press Ltd, London 2000
- ____ Late Imperial Russia,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anchester 2005
- The Associated Press: Retired US General Says War With China Likely in 15 Years, Oct. 24, 2018 <https://www.nytimes.com/aponline/2018/10/24/world/europe/ap-eu-po-land-us-china.html>
- The super-cycle lives: EM growth is key, Standard Chartered Bank, Special Report, 06 November 2013
- Trotsky, Leon: Die Russische Revolution 1905, Vereinigung Internationaler Verlagsanstalten, Berlin 1923 (republished in Leo Trotzki: Ausgewählte Werke, Vol. 1, Verlag Neuer Kurs, Berlin 1972)
- ____ Über den russischen Imperialismus (1916), in: Leo Trotzki: Europa im Krieg, Arbeiterpresse Verlag, Essen 1998
- ____ Our Revolution. Essays on Working-Class and International Revolution, 1904-1917, Henry Holt and Company, New York 1918 (Edited by Moissaye J. Olgin), <https://www.marxists.org/archive/trotsky/1918/ourrevo/ch11.htm>
- ____ Speech at the Fourth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 December 1922), in: John Riddell (Ed.): Toward the United Front. Proceedings of the Fourth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922, Historical Materialism Book Series, Brill, Leiden 2012
- ____ Perspectives and Tasks in the East. Speech on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Communist University for the Toilers of the East (21 April 1924); in: Leon Trotsky Speaks, Pathfinder 1972
- ____ The Lessons of October (1924); in: Leon Trotsky: The Challenge of the Left Opposition (1923-25),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5
- ____ Perspectives of World Development (1924), <https://www.marxists.org/archive/trotsky/1924/07/world.htm>

- ____ Where is Britain Going? (1925), in: Trotsky' s Writings on Britain, Vol. 2, New Park Publications, London 1974
- ____ An Analysis of the Slogans and Differences, in: Leon Trotsky: The Challenge of the Left Opposition 1923–25, New York 1975
- ____ The Platform of the Opposition (1927), in: Leon Trotsky: The Challenge of the Left Opposition (1926–27)
- ____ 'Defeatism' and Clemenceau (1927); in: Leon Trotsky: The Challenge of the Left Opposition (1926–27)
- ____ The Third International After Lenin. The Draft Program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A Criticism of Fundamentals (1928),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0
- ____ The Permanent Revolution (1929), Pathfinder Press, New York 1969
- ____ Unifying the Left Opposition (1930); in: Writings 1930
- ____ An Open Letter to All Members of the Leninbund (1930); in: Writings 1930
- ____ History of the Russian Revolution (1930), Haymarket Books, Chicago 2008
- ____ To the Editorial Board of Prometeo (1930); in: Writings 1930
- ____ Declaration to the Antiwar Congress at Amsterdam (1932), in: Trotsky Writings 1932
- ____ A Discussion on Greece (Spring 1932), In: Writings of Leon Trotsky: Supplement (1929–33), Pathfinder, New York 1979
- ____ Philip Pomper (Editor): Trotsky' s Notebooks, 1933–1935: Writings on Lenin, Dialectics and Evolution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6
- ____ War and the Fourth International (1934), in: Trotsky Writings 1933–34
- ____ Once Again the ILP (1935); in: Trotsky Writings 1935–36
- ____ Who Defends Russia? Who Helps Hitler? (1935); in: Trotsky Writings 1935–36
- ____ Open Letter To A British Comrade (1936); in: Trotsky Writings 1935–36
- ____ Leo Trotsky: Whither France? New Park Publications, London
- ____ The Revolution Betrayed (1936), Pathfinder Press 1972
- ____ Resolution on the Antiwar Congress of the London Bureau (1936),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New York 1973
- ____ Ultralefts in General and Incurable Ultralefts in Particular (A Few Theoretical Considerations), 1937, in: Leon Trotsky: The Spanish Revolution (1931–39),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3, <https://www.marxists.org/archive/trotsky/1937/1937-ultra.htm>

- ____ On the Threshold of a New World War (1937); in: Trotsky Writings 1936-37
- ____ How to Struggle against War (1937), in: Trotsky Writings 1937-38
- ____ Defeatism vs. Defensism (1937), in: Trotsky Writings 1937-38
- ____ The Death Agony of Capitalism and the Task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The Transitional Program (1938);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New York 1973
- ____ The Chinese Revolution (Introduction to Harold R. Isaacs, The Tragedy of the Chinese Revolution, London 1938), in: Fourth International [New York], Vol.6 No.10
(Whole No.59), October 1945, <http://www.marxists.org/archive/trotsky/1938/xx/china.htm>
- ____ Learn to Think: A Friendly Suggestion to Certain Ultra-Leftists (1938); in: Trotsky Writings 1937-38
- ____ Anti-Imperialist Struggle is Key to Liberation. An Interview with Mateo Fossa (1938); in: Writings of Leon Trotsky 1938-39
- ____ Fight Imperialism to Fight Fascism (1938); in: Writings of Leon Trotsky, Vol. 1938-39
- ____ Petty-Bourgeois Democrats and Moralizers (1938-39); in: Writings of Leon Trotsky, Supplement 1934-40
- ____ For A Courageous Reorientation (1939), in: Writings of Leon Trotsky, 1938-39
- ____ Lenin on Imperialism (February 1939), in: Writings of Leon Trotsky, Vol. 1938-39,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4
- ____ Progressive Paralysis. The Second International on the Eve of the New War (1939), in: Writings of Leon Trotsky, 1939-40
- ____ A step towards social patriotism (1939), in: Writings of Leon Trotsky, 1938-39
- ____ The "Tanaka Memorial" (1940), in: Trotsky Writings 1939/40, <http://www.marxists.org/archive/trotsky/1940/01/tanaka.htm>
- ____ and G. Zinoviev, Yevdokimov: Resolution of the All-Russia Metal Workers Union (1927); in: Leon Trotsky: The Challenge of the Left Opposition (1926-279)
- Trotskyist Faction: XI Conferencia De La FT: Tensiones económicas e

inestabilidad política. Documento sobre situación internacional discutido en la XI Conferencia de la FT, 22.3.2018, 2018, <http://www.laizquierdadiario.com/Tensiones-economicas-e-inestabilidad-politica>

____ Die Welt im Jahr 2018 (Teil 1): Wirtschaftliche Spannungen und politische Instabilität, <https://www.klassegegenklasse.org/die-welt-im-jahr-2018-teil-1-wirtschaftliche-spannungen-und-politische-instabilitaet/>

____ Stop Bombing Syria! Nothing good can come of this bombing or any other imperialist military intervention, April 14, 2018 <http://www.leftvoice.org/Stop-Bombing-Syria>

Tyulkin, Viktor: Some words on the Russian imperialism, 09.10.2017, <https://rkrp-rpk.ru/2017/10/09/%D0%BD%D0%B5%D1%81%D0%BA%D0%BE%D0%B%D1%8C%D0%BA%D0%BE%D1%81%D0%BB%D0%BE%D0%B2-%D0%BE-%D1%80%D0%BE%D1%81%D1%81%D0%B8%D0%B9%D1%81%D0%BA%D0%BE%D0%BC-%D0%B8%D0%BC%D0%BF%D0%B5%D1%80%D0%B8%D0%B0%D0%BB/>

UK foreign secretary warns of 'First World War risk' in Middle East, 20 November 2018 <https://www.middleeasteye.net/news/britains-hunt-warns-another-first-world-war-middle-east-2121358881>

Union Bank of Switzerland / PricewaterhouseCoopers: New visionaries and the Chinese Century. Billionaires insights 2018

____ UBS/PwC Billionaires Report 2018: Total billionaire wealth grows 19 percent to a record USD 8.9 trillion, 26 October 2018, <https://www.ubs.com/global/en/ubs-news/r-news-display-ndp/en-20181026-billionaires-report-2018.html>

United Communist Party (Russia): UCP commentary about destruction of statues in Palmira, https://vk.com/wall-9225_48085

____ Заявление Президиума ЦК ОКП: Мы отвергаем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уступки, осуществленные против воли трудящихся, 21 Дек. 2016 <http://ucp.su/category/news/683-my-otvergaem-territorialnye-ustupki-osushestvlennye/> (Statement of the Presidium of the CC OKP: We reject territorial concessions made against the will of the working people, 21 December 2016)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The World Population Situation in 2014. A Concise Report,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New York, 2014

____ Population 2030. Demograph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ning,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 Economic and Social Affairs, New York, 2015
- _____.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Key Findings and Advance Tables,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New York, 2017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17, Highlight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2017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4
- _____.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16, New York and Geneva, 2016
- _____.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17, New York and Geneva, 2017
- _____.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18, New York and Geneva, 2018
- _____.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 UNICEF: Results of the 1999 Iraq Child and Maternal Mortality Surveys,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fas.org/news/iraq/1999/08/990812-unicef.htm
- UNIDO: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02/2003. Competing through Innovation and Learning
- _____.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13
- _____.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18. Demand for Manufacturing: Driving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 Development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Real GDP per Capita in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retrieved from FRED,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https://fred.stlouisfed.org/series/KORRGDPC>, September 17, 2018
- U.S. Department of Defense: Casualty Status as of 10 a.m. EST Nov. 21, 2018, <https://dod.defense.gov/News/Casualty-Status/>
- U.S. to blame if any South China Sea clash: Chinese researcher, January 9, 2019,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usa-military/us-to-blame-if-any-south-china-sea-clash-chinese-researcher-idUSKCN1P31CK>
- Vagenas, Elisseos: The Military-Political Equation in Syria, (Extensive excerpts from the article published in “Kommounistiki Epitheorisi”, the political-theoretical journal of the CC of the KKE, issue 1 of 2016), <https://inter.kke.gr/en/articles/THE-MILITARY-POLITICAL-EQUATION-IN-SYRIA/>
- Vargas-Silva, Carlos: Global International Migrant Stock: The UK in International Comparison (2011), www.migrationobservatory.ox.ac.uk
- Velde, Dirk Willem t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Development. A historical perspective, 30 January 2006, Background paper for ‘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 for 2006’,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 Velychenko, Stephan: The Size of the Imperial Russian Bureaucracy

- and Army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Jahrbücher für Geschichte Osteuropas, Vol. 49 (2001), No. 3 Villain, Jean: Die großen 72 Tage. Ein Report von Jean Villain über die Pariser Kommunisten, Verlag Volk und Welt, Berlin 1981
- Vogel, Steffen: Linke Sammlungsbewegung: Falsches Vorbild Mélenchon, aus: »Blätter« 3/2018, <https://www.blaetter.de/archiv/jahrgaenge/2018/maerz/linke-sammlungsbewegung-falsches-vorbild-melenchon>
- Vogt, Gabriele: Bevölkerungsentwicklung in Japan: Fokus Migration, Berlin-Institut für Bevölkerung und Entwicklung, 2008
- Wagenknecht, Sahra: “Offene Grenzen für alle – das ist weltfremd” , Interview mit Sahra Wagenknecht, erschienen im FOCUS am 10.02.2018, <https://www.sahra-wagenknecht.de/de/article/2713.offene-grenzen-f%C3%BCr-alle-das-ist-weltfremd.html>
- Wang, Ban (Ed.): Chinese Visions of World Order. Tianxia, Culture, and World Politics,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and London 2017
- Wang, Brian: China development compared to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March 31, 2014 <https://www.nextbigfuture.com/2014/03/china-development-compared-to-japan.html>
- Wang, Gungwu and Zheng Yongnian: China and the New International Order, Routledge, New York 2008;
- Wang Mingming: All under heaven (tianxia). Cosmological perspectives and political ontologies in pre-modern China, in: HAU: Journal of Ethnographic Theory 2 (1)
- Watts, Gordon: Hope springs eternal for a China-US trade deal, November 9, 2018 <http://www.atimes.com/article/hope-springs-eternal-for-a-china-us-trade-deal/>
- _____ Meng arrest and Huawei claims illustrate China’s high-tech dilemma, December 12, 2018 <http://www.atimes.com/article/meng-arrest-and-huawei-claims-illustrate-chinas-high-tech-dilemma/>
- Weir, Fred: Kremlin frets as Russia’s once restive Islamist region takes up political Islam, September 20, 2017 <https://www.csmonitor.com/World/Europe/2017/0920/Kremlin-frets-as-Russia-s-once-restive-Islamist-region-takes-up-political-Islam>
- Westwood, J. N.: Russia against Japan, 1904–1905: A New Look At the Russo-Japanese War,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86
- WFTU on the Situation in S.E. Mediterranean, 12 Apr 2018, <http://www.wftucentral.org/wftu-on-the-situation-in-s-e-mediterranean/>
- White House 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 How China’s

- Economic Aggression Threatens the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June 2018
- Why Communist China Is Home to So Many Billionaires, November 29, 2018, <http://fortune.com/2018/11/29/communist-china-billionaires-jack-ma/>
- Wiener, Johannes: In Response to the Self-Proclaimed “Leadership” of the World Socialist Movement. A Reply to the Recent Polemic of the ICFI/WSWS against the RCIT, 30 April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eply-to-wsws-long/>
- _____ and Ime Berisha: Freedom and Self-Determination for Kosova! Down with the Government of Isa Mustafa Hashim Thaçi, Lackeys for the Rich and Imperialism! 31.01.201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freedom-for-kosova/>
- Wijk, Rob de: Power Politics. How China and Russia Reshape the World, Amsterdam University Press B.V., Amsterdam 2015; Robert Ross: Naval superpower race: China ‘to overtake US in 15 years’ . November 28, 2018 <http://www.atimes.com/article/naval-super-power-race-china-to-overtake-us-in-15-years/>
- Wikipedia: Fortune Global 500, https://en.wikipedia.org/wiki/Fortune_Global_500
- Wilkins, Mira: The History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1914 - 1945,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04
- Williams, Brian Glyn: Inferno in Chechnya,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2015
- Who Owns Russia: 32 Largest Business Groups Make 51% of GDP, Emerging Markets Venue, July 12, 2010, http://www.emergingmarketsvenue.com/2010/07/12/russian_business_groups/
- Wolter, Heinz: Die Alternativkonzeption der Sozialdemokratie zum außenpolitischen Kurs Bismarcks nach 1871, in: Ernst Engelberg (Ed.): Diplomatie und Kriegspolitik vor und nach der Reichsgründung, Akademie-Verlag, Berlin 1971
- Woods, Alan: Marxism and the State, International Marxist Tendency, December 2008, <http://www.marxist.com/marxism-and-the-state-part-one.htm>
- Wolfe, Bertram: War Comes to Russia, in: The Russian Review Vol. 22 (1963), No. 2
- Wong, Lawrence: China and nationalism, Letters, Socialist Review, Issue: October 2018 <http://socialistreview.org.uk/439/china-and-nationalism>
-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2030. Building a 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High-Income Society, Washington 2013

- World party leaders congratulate China on CPC congress, 2012/11/08, <http://dm.china-embassy.org/eng/zt/sbd/t987943.htm>
- World Trade Organization: World Trade Report 2017. Trade, technology and jobs
- ____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18
- Wright, Logan, Daniel Rosen: Credit and Credibility - Risks to China's Economic Resilienc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October 2018
- Wygodski, S.L.: Der gegenwärtige Kapitalismus (1969), Berlin 1972
- Xi inspects PLA Southern Theater Command, stresses advancing commanding ability, Xinhua, 2018-10-26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8-10/26/c_137561097.htm
- Xie, Jun: China's social net wealth second highest, while imbalances need attention, Global Times, 2018/12/27 <http://www.globaltimes.cn/content/1133892.shtml> Xinhua: Roundup: Venezuelan analysts say Communist Party of China's leadership remarkable, 2016-07-11,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6-07/11/c_135504402.htm
- Xinhua: CPC newspaper says China should "grasp historic opportunity", 15.01.2018,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8-01/15/c_136897189.htm
- Yamanouchi, Akito "Internationalized Bolshevism": The Bolsheviks and the International, 1914-1917, in: Acta Slavica Iaponica Vol.7 (1989)
- Yanfei, Wang: China should reduce restrictions on foreign capital, senior economists say, China Daily, 2017-09-25, http://www.chinadaily.com.cn/business/2017-09/25/content_32448925.htm
- Yaresh, Leo: The "Peasant Wars" in Soviet Historiography, in: American Slav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16, No. 3 (October 1957)
- Yu, Au Loong: Strength and Contradictions of the Chinese Economy: An Interview With Au Loong Yu, September 13, 2018, <http://www.leftvoice.org/Strength-and-Contradictions-of-the-Chinese-Economy-An-Interview-With-Au-Loong-Yu>
- Zhe, Zhan Dou and Dan Morley: Where is China going: back to the planned economy or strengthening capitalism? 30 November 2017 <https://www.marxist.com/where-is-china-going-back-to-the-planned-economy-or-strengthening-capitalism.htm>
- Zheng Yongnian (Ed.): China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hinese view and the contribution of Wang Gungwu, Routledge, New York 2010
- Zhu, Wenqian: Beijing listed as billionaire capital of world once again,

- China Daily, 2017- 03-08, http://www.chinadaily.com.cn/business/2017-03/08/content_28470987.htm
- Zinoviev, Gregory: Die russische Sozialdemokratie und der russische Sozialchauvinismus (1915); in: W. I. Lenin/G. Sinowjew: Gegen den Strom. Aufsätze aus den Jahren 1914-1916, Hamburg 1921
- ____ Pazifismus oder Marxismus (Böse Folgen einer Losung.), in: G. Sinowjew /
V. I. Lenin: Gegen den Strom, Verlag der Kommunistischen Internationale, Hamburg 1921 (In English: Pacifism or Marxism (The Misadventures of a Slogan), in: Spartacist English edition No. 64, Summer 2014, [http://www.icl-fi.org/english/ esp/64/zinoviev.html](http://www.icl-fi.org/english/esp/64/zinoviev.html)
- ____ Der ‚Defaitismus ‘ früher und heute (1916); in: Lenin/Sinowjew: G. Sinowjew /
V. I. Lenin: Gegen den Strom, Verlag der Kommunistischen Internationale, Hamburg 1921
- ____ Der Krieg und die Krise im Sozialismus, Verlag für Literatur und Kritik, Wien 1924
- Zucman, Gabriel: The Missing Wealth of Nations: Are Europe and the U.S. Net Debtors or Net Creditors? i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13)
- Zyuganov, Gennady: The crisis in Ukraine and its deep roots, September 2014, [http:// cprf.ru/2014/09/1108/](http://cprf.ru/2014/09/1108/) CPRF Президент Сирии Башар Асад высоко оценил помощь КПРФ и ее лидера Г.А. Зюганова, 25.10.2015, <https://kprf.ru/dep/gosdu-ma/activities/147743.html>
- ____ Сирия: Так было и так будет! 17.04.2018, <https://kprf.ru/party-live/opinion/174882.html>
- Зюганов попросил признать Донбасс территорией России (Zyuganov asked to recognize the Donbass as territory of Russia), dp.ru, 11.09.2018, <https://www.msn.com/ru-ru/news/featured/%D0%B7%D1%8E%D0%B3%D0%B0%D0%B-D%D0%BE%D0%B2-%D0%BF%D0%BE%D0%BF%D1%80%D0%BE%D1%81%D0%B8%D0%BB-%D0%BF%D1%80%D0%B8%D0%B7%D0%BD%D0%B0%D1%82%D1%8C-%D0%B4%D0%BE%D0%B-D%D0%B1%D0%B0%D1%81%D1%81-%D1%82%D0%B5%D1%80%D1%80%D0%>

저자소개



저자 미하엘 프리브스팅 (Michael Pröbsting)은 1967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났다. 14살 때 정치적으로 활동적이 되어, 16살 때부터 조직적으로 트로츠키주의 전투원으로 활동했다. 에르네스트 만델의 제4 인터내셔널 통합 서기국의 멤버로 5년 간 활동하다, 1989년 2월에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연합 (나중에 제5 인터내셔널 동맹으로 개칭)에 가입했다. 2011년 4월에 이 조직 다수파에 의해 전우들과 함께 제명당할 때까지 이 조직의 오스트리아 지부 집행부에서 (1989년부터), 그리고 1994년부터는 중앙 집행부에서 복무했다. 제명 직후, 그와 그의 전우들은 오스트리아에서 혁명적 공산주의 해방동맹과 국제적으로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을 결성했다. RCIT는 모든 대륙에 걸쳐 18개 나라에 지부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자매 조직들이 있다. 그는 현재 RCIT의 국제서기로 복무하고 있다.

미하엘 프뢰브스팅은 그의 국제 정치사업의 일부로서 여러 나라에서 긴 기간들을 보냈다. 1985년에 점령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1989-91년 정치혁명 과정 동안 동독에서, 1994년 영국에서, 2002년에 혁명기 동안의 아르헨티나에서 있었고, 중동,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북미의 많은 나라들에 체류하면서 노동자운동 및 반제국주의 운동들 속에서 경험을 얻었다.

미하엘 프뢰브스팅은 독일어와 영어로 쓴 많은 논설과 기사, 책자와 팸플릿의 저자다. 이 저작들 중 상당수가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다. 다음은 그의 주요 저서들이다.

* Rosa Luxemburg – "Ich bin ein Land der unbeschränkten Möglichkeiten" (공저, 1999)

* The Credit Crunch – A Marxist Analyses (공저, 2008)

* Marxismus, Migration und revolutionäre Integration (2010)

* Die halbe Revolution, Lehren und Perspektiven des arabischen Aufstandes (2011)

*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2013)

* Cuba's Revolution Sold Out? The Road from Revolution to the Restoration of Capitalism (2013)

* Building the Revolutionary Party in Theory and Practice (2014)

* Greece: A Modern Semi-Colony. The Contradictory Development of Greek Capitalism (2015)

* Marxism and the United Front Tactic Today (2016)

*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2018)

이 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에서 저자 미하엘 프리브스팅은 제국주의 강대국들 - 미국·중국·EU·러시아·일본 - 간 격화하고 있는 패권쟁투를 분석한다. 저자는 강대국들 간의 외교마찰과 경제제재, 무역전쟁과 군사긴장은 어쩌다가 트럼프 같은 미친 자가 백악관을 차지하는 바람에 일어나고 있는 우연사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 모순에 뿌리를 둔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패권쟁투는 세계사의 현 시기 핵심 특징으로, 최종적으론 이들 강대국 간의 본격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는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의 유효성을 증명해준다. 저자는 포괄적인 자료 (61개의 표와 그림을 포함하여)를 이용하여, 중국·러시아의 새로운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만이 현 제국주의 간 패권쟁투의 성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또 이 책에서 일련의 좌파 조직들 (좌파 사민주의, 스탈린주의, 트로츠키주의 등)의 현대 제국주의 분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저자는 이들 조직 대부분이 강대국 패권쟁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고, 그로 인해 국제주의적·혁명적 입장을 취할 수 없는 경위를 드러내준다.

저자는 강대국 패권쟁투와 제국주의 침략·초과착취 문제에 대한 레닌, 트로츠키, 독셈부르크 같은 대표적 맑스주의자들의 접근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또 세계를 변화시키고 사회주의 미래를 내오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현 시기 맑스주의 강령을 제시한다.



미하엘 프리브스팅은 35년 넘게 혁명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영어와 독일어로 쓴 많은 책자와 논문, 팸플릿의 저자다.

그가 발표한 저작들은 현대 자본주의와 계급투쟁, 노동자운동의 역사, 맑스주의 이론 등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는 현재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다.